

발간등록번호

11-1240245-000010-01

푸른 들, 숲, 바다 그리고 **사람**

농림어업총조사 종합분석 보고서

김태헌 · 이내성 편

2008

푸른 들, 숲, 바다 그리고 사람

농림어업총조사 종합분석 보고서

김태헌 · 이내성 편

2008



통계개발원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푸른 들, 숲, 바다 그리고 삶

농림어업총조사 종합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며..

우리나라의 농림어업은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있다. 산업화의 진전과 경제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이들 산업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고, 또 농림어업 종사자들의 이탈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반적인 산업규모는 크게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해외 농산물과의 경쟁과 우리 농림어업의 새로운 자리매김을 위한 대응이 다양한 측면에서 모색되고 있다.

산업으로서의 농림어업의 성장둔화와는 대조적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 눈높이의 상승,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쾌적한 삶과 여가의 추구 등 국민생활의 질적인 면에서 이들 부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우리나라 농림어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일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농림어업의 구조변화와 도시화를 배경으로 지역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생활양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농어촌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정의 비중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적·사회적·가족적 구조변화는 우리에게 여러 방면에 걸친 다양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림어업은 두 가지 면에서 그 중요성을 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는 수요측면에서 전체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의 확보, 쾌적한 생활, 여가의 활용 등 국민생활의 질과 관련된 부분이며, 다른 하나는 이들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농어민 등 구성원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또 활기찬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하는 면일 것이다.



이에 사회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림어업의 실태와 이에 종사하는 지역사회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림어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정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통계청에서는 농림어업 분야에 대한 연간통계와 아울러 매 5년마다 농림어업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좀 더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보고서는 『농림어업총조사』의 종합분석 보고서이다. 본보고서는 『농림어업총조사』에서 나타난 통계를 토대로 우리나라 농림어업의 현실과 특징을 다양한 각도에서 계량적·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보고서는 김태현 교수 연구팀을 중심으로 10여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집필하였다. 각 집필자들은 해당분야에서 많은 연구업적을 축적한 분들이므로 이 보고서는 앞으로 농림어업 정책의 수립이나 국민들의 농림어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본보고서는 통계개발원의 주도로 작성되었다. 그렇지만 통계개발원은 집필자들의 견해를 존중하여 그 내용에 대해 어떠한 수정이나 조정도 행하지 않았다. “사고(思考)의 다양성” 그 자체가 연구에 있어서 존중받아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모두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통계청이나 통계개발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08년 8월

통계개발원장 이 재 형

목 차

I. 자연환경	
제 1 장 국토·기후	2
II. 농림어가의 인구와 가족	
제 2 장 농림어가의 인구	24
제 3 장 농림어가의 가족	60
III.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	
제 4 장 한국경제와 농림어업	102
제 5 장 농촌사회의 변화와 분화	111
IV. 농업	
제 6 장 농업구조의 개념과 농가 변화	140
제 7 장 농가의 농지소유와 이용의 변화	148
제 8 장 농업경영	164
제 9 장 농업의 기계화·위탁실태	179
제 10 장 농업생산의 조직화와 농산물 판매	183
제 11 장 세계속의 한국농업	190
V. 임업	
제 12 장 임업구조의 개념	204
제 13 장 임업경영	208
제 14 장 임산물 생산 및 판매	245
제 15 장 임가 및 산촌사회	279
제 16 장 세계속의 한국 임업	300

VI. 어업

제 17 장 어업의 개념과 분류	328
제 18 장 어업경영	331
제 19 장 어업의 변화	341
제 20 장 세계속의 한국 어업	359

참고문헌	380
------	-----

< 부록 >

1. 색인	386
2. 농림어업총조사 개요	393
3. 정부간행물 안내	436

통계표 목차

I. 자연환경

제 1 장 국토·기후	2
〈표 1-1〉 한반도의 위치 (2005년)	2
〈표 1-2〉 시·도 면적 (2005년)	3
〈표 1-3〉 전국 도서 현황	3
〈표 1-4〉 국토의 변화와 도로포장을	3
〈표 1-5〉 수계별 하천현황 (2005년)	4
〈표 1-6〉 다목적 댐 현황 (2005년)	5
〈표 1-7〉 행정구역의 변화	8
〈표 1-8〉 용도지역 지구 지정 현황	9
〈표 1-9〉 시·도별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현황 (2005년)	10
〈표 1-10〉 주요 지목별 국토이용	11
〈표 1-11〉 2005년 및 역대 기온 극값	12
〈표 1-12〉 주요 지점별 평균기온	12
〈표 1-13〉 한반도의 기후변화	13
〈표 1-14〉 최다 강우량	14
〈표 1-15〉 주요 지점별 강수량	15
〈표 1-16〉 최심신적설 극값	15
〈표 1-17〉 주요 지점별 최심신적설	15
〈표 1-18〉 주요 지점별 일조시간	16
〈표 1-19〉 10년 평균 일조시간 대비 증감률	16
〈표 1-20〉 태풍의 크기 분류	17
〈표 1-21〉 태풍의 월별 평균 발생수 (1971~2000년)	17
〈표 1-22〉 지진 규모별 연평균 발생 빈도	18
〈표 1-23〉 황사 발생횟수 및 지속일수	19
〈표 1-24〉 황사 발생 현황	20
〈표 1-25〉 최근 10년간 시설별 피해현황 (1997~2006년)	21
〈표 1-26〉 재해요인별 피해규모 (2005년)	22

II. 농림어가의 인구와 가족

제 2 장 농림어가의 인구	24
〈표 2-1〉 농림어가 총인구의 변화 (1980~2005년)	24
〈표 2-2〉 주요연령별 인구구성비의 변화 (1980~2005년)	26
〈표 2-3〉 농가인구의 연령별 성비 변화 (1980~2005년)	30
〈표 2-4〉 농림어가 인구의 연령별 성비 비교 (2005년)	32
〈표 2-5〉 성·연령별 농가인구의 교육정도별 인구구성비 변화 (2000년, 2005년)	38
〈표 2-6〉 성·교육정도별 농림어가 및 읍면부 인구구성비의 비교 (50~59세, 2000년 및 2005년)	40
〈표 2-7〉 성·연령별 농가인구의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 (2005년)	43
〈표 2-8〉 성 및 혼인상태별 농림어가 및 읍면부 인구구성비의 비교 (30~39세, 2005년)	45
〈표 2-9〉 농가인구의 주종사분야별 인구구성비 (2005년)	47
〈표 2-10〉 농가인구의 농업종사기간별 인구구성비 (2005년)	48
〈표 2-11〉 성·연령별 장래 농가가인구추계 (2005~2020년)	52
〈표 2-12〉 전국인구에 대한 농가인구 비중의 변화 (1980~2020년)	53
〈표 2-13〉 농가의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2005~2020년)	56
제 3 장 농림어가의 가족	60
〈표 3-1〉 세대구성의 변화 (1975~2005년)	62
〈표 3-2〉 가구원수별 가구분포와 평균 가구원수의 변화 (1975~2005년)	63
〈표 3-3〉 1인 가구수의 변화	64
〈표 3-4〉 가구 구성 및 가족형태	65
〈표 3-5〉 연도별 농가수 변화 (1960~2005년)	67
〈표 3-6〉 총 가구수 대비 농가비중	67
〈표 3-7〉 가구원수별 농가분포의 변화 (1990~2005년)	68
〈표 3-8〉 가구원수별 가구구성 비교 (2005년)	69
〈표 3-9〉 경영주 성별에 따른 가구원수별 가구구성 비교 (2005년)	69

통계표 목차

〈표 3-10〉 세대별 가구구성 비교 (2005년)	70
〈표 3-11〉 세대별 농가구성의 변화 추이 (2000~2005년)	71
〈표 3-12〉 전국 일반가구와 농가의 가족유형 비교 (2005년)	72
〈표 3-13〉 가족유형별 농가구성 변화 추이 (2000~2005년)	74
〈표 3-14〉 전국 일반가구와 농가구성의 비교 (2005년)	76
〈표 3-15〉 연도별 농가 가족유형의 변화추세 (2000~2005년)	78
〈표 3-16〉 연령별 1인 가구 구성변화 (2000~2005년)	79
〈표 3-17〉 경영주 연령에 따른 농가특성 변화 (2005년)	80
〈표 3-18〉 여성 경영주 가구의 연령별 분포	80
〈표 3-19〉 연령별 여성경영주 혼인상태 분포 (2005년)	81
〈표 3-20〉 영농승계자 보유현황 변화 (2000~2005년)	81
〈표 3-21〉 결혼이민자가족의 자녀 취학현황	83
〈표 3-22〉 연도별 어가수 변화 (1960~2005년)	83
〈표 3-23〉 총 가구수대비 어가 비중	84
〈표 3-24〉 가구원수별 가구 구성비 비교 (2005년)	84
〈표 3-25〉 가구원수별 어가분포의 구성비 변화 (2000~2005년)	85
〈표 3-26〉 성별에 따른 가구원수별 가구구성비 비교 (2005년)	85
〈표 3-27〉 세대별 가구구성비 비교 (2005년)	86
〈표 3-28〉 세대별 어가구성의 변화 추이 (2000~2005년)	86
〈표 3-29〉 가구형태별 가구구성 비교 (2005년)	87
〈표 3-30〉 연도별 어가 가족유형의 다양화 추세 (2000~2005년)	89
〈표 3-31〉 지역별 임가 분포 변화 (2005년)	90
〈표 3-32〉 가구원수별 가구구성 비교 (2005년)	91
〈표 3-33〉 세대별 가구구성 비교 (2005년)	92
〈표 3-34〉 가구형태별 가구구성 비교 (2005년)	93
〈표 3-35〉 임가 가족유형의 다양화 추세 (2005년)	94
〈표 3-36〉 연령별 임가구성 다양화 분포 (2005년)	95
〈표 3-37〉 가구원수별 가구구성 비교 (2005년)	97
〈표 3-38〉 세대별 가구구성 비교 (2005년)	98
〈표 3-39〉 연령별 1인가구 비교 (2005년)	98

〈표 3-40〉 유형별 가구구성 비교 (2005년)	99
〈표 3-41〉 가족유형 다양화 비교 (2005년)	100

III.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

제 4 장 한국경제와 농림어업	102
〈표 4-1〉 국내 총생산 산업별 변화추이 (경상가격)	105
〈표 4-2〉 산업별 경제활동인구 변화추이	107
제 5 장 농촌사회의 변화와 분화	111
〈표 5-1〉 경지규모별 임차지 비율 변화	113
〈표 5-2〉 논 경영규모별 임차비율	114
〈표 5-3〉 경영주 연령별 벼농사 위탁영농(전부 위탁) 비율 (2005년)	114
〈표 5-4〉 시·군별 경지면적 3ha 이상 농가비율 (상위 20위)	115
〈표 5-5〉 시·군별 논 면적 순위 (상위 20위)	117
〈표 5-6〉 시·군별 밭 면적 순위 (상위 20위)	119
〈표 5-7〉 시·군별 과수원 면적 (상위 20위)	120
〈표 5-8〉 논벼의 연도별 지역 특화계수	121
〈표 5-9〉 사과와 지역특화계수	122
〈표 5-10〉 배의 지역특화계수	122
〈표 5-11〉 복숭아의 지역특화계수	123
〈표 5-12〉 포도의 지역특화계수	123
〈표 5-13〉 시·군별 한우 사육두수 (상위 20위)	124
〈표 5-14〉 시·군별 돼지 사육두수 (상위 20위)	125
〈표 5-15〉 농산물 판매액 1억원 이상 농가의 시·군별 분포 (상위 20위)	126
〈표 5-16〉 시·도별 농민 연령구조	128
〈표 5-17〉 시·군별 경영자 65세 이상 비율 (상위 20)	130
〈표 5-18〉 지역별 경운기 보유 현황 및 증가율	131
〈표 5-19〉 지역별 트랙터 보유현황 및 증가율	132
〈표 5-20〉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수 및 품목별 농가수 변화	133

통계표 목차

〈표 5-21〉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처별 농가수	133
〈표 5-22〉 지역별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수 및 품목	134
〈표 5-23〉 친환경농업 실시요인에 대한 로짓 분석	135
〈표 5-24〉 지역별 정보화 현황	136
〈표 5-25〉 컴퓨터 활용 결정 요인에 대한 로짓 분석	137
〈표 5-26〉 읍면동사무소 방문시 이동수단 및 소요시간	138
〈표 5-27〉 금융기관 방문시 이동수단 및 소요시간	138
〈표 5-28〉 병의원 방문시 이동수단 및 소요시간	138

IV. 농업

제 6 장 농업구조의 개념과 농가변화	140
〈표 6-1〉 농업 관련지표 세부지표 구분과 출처	141
〈표 6-2〉 지역별 농가분포 추이	143
〈표 6-3〉 신규 경영주의 연령별 분포	145
〈표 6-4〉 신규 경영주의 경작규모의 분포	145
〈표 6-5〉 신규 경영주의 연령별 평균 경작규모	145
〈표 6-6〉 경영주 경력별 농가의 거주지역	146
〈표 6-7〉 경영주 경력 5년 미만 농가의 특성별 분포	147
제 7 장 농가의 농지소유와 이용의 변화	148
〈표 7-1〉 경지면적의 변화추이	148
〈표 7-2〉 경지규모별 농가계층구성비의 변화	150
〈표 7-3〉 경지규모별 농가 분포 및 연평균 변화율	151
〈표 7-4〉 대규모 경지농가수 추이	152
〈표 7-5〉 경지규모별 가구원수의 규모	153
〈표 7-6〉 경영주 연령별 경지규모	153
〈표 7-7〉 노령경영주 연령별 평균경지규모	154
〈표 7-8〉 전겸업별 농가의 경지규모 분포 및 평균 경지규모(2005년)	155

〈표 7-9〉 경영주의 성별 경지규모 분포	155
〈표 7-10〉 경지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회귀분석)	156
〈표 7-11〉 농가의 농지소유 및 임차지 규모 (2005년)	157
〈표 7-12〉 임차농가 비율과 평균 임차지 및 소유지 규모	157
〈표 7-13〉 경지규모별 임차지비율과 임차지 면적	158
〈표 7-14〉 논 임차지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회귀분석)	160
〈표 7-15〉 밭 임차지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회귀분석)	160
〈표 7-16〉 논 경영규모별 농가 및 면적의 누적분포	161
〈표 7-17〉 밭 경영규모별 농가 및 면적의 누적분포	162
〈표 7-18〉 대규모 과수 및 시설 농가수 및 면적 비율	162
〈표 7-19〉 축산규모별 농가비율 및 두수 비율	163
제 8 장 농업경영	164
〈표 8-1〉 영농 형태별 농가 분포	165
〈표 8-2〉 채소류 농가 분포	165
〈표 8-3〉 과수류 품목별 농가 분포	166
〈표 8-4〉 축종별 농가 분포	166
〈표 8-5〉 영농형태별 농가의 판매규모별 비율	167
〈표 8-6〉 영농형태별 경영주 연령분포	168
〈표 8-7〉 친환경농가수의 변화와 친환경농가의 영농형태	170
〈표 8-8〉 친환경농가와 비친환경농가의 경지규모 비교	170
〈표 8-9〉 친환경농가와 비친환경농가의 경영주 평균 연령	171
〈표 8-10〉 친환경농가와 비친환경농가의 전·겸업 현황	171
〈표 8-11〉 친환경농가와 비친환경농가의 판매처 비교	172
〈표 8-12〉 전·겸업별 농가 분포	173
〈표 8-13〉 지역별 전·겸업 농가 분포	174
〈표 8-14〉 전·겸업별 경영주 연령별 평균 경지면적	174
〈표 8-15〉 전·겸업별 농산물 판매액 분포	175
〈표 8-16〉 농가의 농업 관련 사업 참여 실태	176
〈표 8-17〉 경영주 연령별 농가 분포	176

통계표 목차

〈표 8-18〉 경영주 연령별 경영주의 성	177
〈표 8-19〉 영농 승계자 확보 농가 추이	178
제 9 장 농업의 기계화 · 위탁실태	179
〈표 9-1〉 주요 농기계의 농가 보급률	180
〈표 9-2〉 벼농사 작업의 자가영농 및 위탁영농 비율	181
〈표 9-3〉 벼농사 작업의 위탁영농 비율(2005년)	182
제 10 장 농업생산의 조직화와 농산물 판매	183
〈표 10-1〉 영농형태별 법인참여 농가비율	183
〈표 10-2〉 농가판매 규모별 농가 분포	185
〈표 10-3〉 취약농가의 농산물 판매액 비중 (2005년)	186
〈표 10-4〉 65세 이상 고령층의 농산물 판매 실태 (2005년)	187
〈표 10-5〉 1억이상 고액판매농가의 연령별 분포	187
〈표 10-6〉 농가판매 규모별 판매처	188
제 11 장 세계속의 한국농업	190
〈표 11-1〉 농업생산액대비 농업보조금 비율	192
〈표 11-2〉 주요국 국토면적 및 경지면적	194
〈표 11-3〉 세계 곡물 생산량과 재배면적	195
〈표 11-4〉 세계 육류 생산	197
〈표 11-5〉 세계 옥수수 수입	201
〈표 11-6〉 한국의 쇠고기 주요 수입국 (2003년,2004년)	201

V. 임업

제 12 장 임업구조의 개념	204
-----------------	-----

〈표 12- 1〉 임업총조사(1999년)와 농림어업총조사(2005년)의 차이	206
제 13 장 임업경영	208
〈표 13- 1〉 전 · 겸업별 임가	208
〈표 13- 2〉 산림보유면적별 임가 및 산림면적	211
〈표 13- 3〉 육림작업별 임가	214
〈표 13- 4〉 벌목면적 규모별 임가 및 벌목면적	216
〈표 13- 5〉 벌목량 규모별 임가 및 벌목량	218
〈표 13- 6〉 묘포장면적 규모별 임가 및 묘포장면적	220
〈표 13- 7〉 묘목재배본수별 임가	223
〈표 13- 8〉 임산물 채취품목별 임가 및 채취량	225
〈표 13- 9〉 임산물 재배작물별 임가 및 재배면적	227
〈표 13-10〉 가구원수별 임가	230
〈표 13-11〉 임업종사 가구원수별 임가	232
〈표 13-12〉 경영주 연령별 임가	235
〈표 13-13〉 경영주 교육정도별 임가	237
〈표 13-14〉 연령계층 및 성별 임가 인구	239
〈표 13-15〉 15세 이상 주종사 분야별 임가 인구	240
〈표 13-16〉 15세 이상 임업종사기간 및 성별 임가 인구	242
제 14 장 임산물 생산 및 판매	245
〈표 14- 1〉 버섯열매 채취규모별 임가 및 채취량	246
〈표 14- 2〉 산나물 채취규모별 임가 및 채취량	248
〈표 14- 3〉 약용작물 채취규모별 임가 및 채취량	250
〈표 14- 4〉 수액채취 규모별 임가 및 채취량	252
〈표 14- 5〉 산나물 재배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254
〈표 14- 6〉 약용작물 재배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256
〈표 14- 7〉 관상작물 재배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259
〈표 14- 8〉 기타 유실수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261

통계표 목차

〈표 14-9〉 밤나무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262
〈표 14-10〉 잣나무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265
〈표 14-11〉 호도나무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267
〈표 14-12〉 대추나무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270
〈표 14-13〉 표고버섯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272
〈표 14-14〉 임산물 판매금액규모 및 판매처별 임가	275
〈표 14-15〉 임산물 판매금액별 임가	276
〈표 14-16〉 임산물 판매처별 임가	277

제 15 장 임가 및 산촌사회 279

〈표 15-1〉 정보화 현황 및 자동차 보유 (2005년)	279
〈표 15-2〉 생활시설 이동수단 및 소요시간별 임가 (2005년)	280
〈표 15-3〉 문화용품 및 시설별 임가수 (1999년)	281
〈표 15-4〉 난방시설별 임가 (2005년)	282
〈표 15-5〉 주거시설형태별 임가 (2005년)	283
〈표 15-6〉 산촌이 분포하는 읍·면	284
〈표 15-7〉 산촌지역의 자연, 인적자원	285
〈표 15-8〉 시·도별 산촌의 산림면적	286
〈표 15-9〉 시·도별 산촌의 인구분포	287
〈표 15-10〉 시·도별 산촌의 농가수 및 경지면적	288
〈표 15-11〉 산촌의 산림자원	289
〈표 15-12〉 산림자원활용 가구수	290
〈표 15-13〉 농지 및 산지의 이용	291
〈표 15-14〉 세대 및 인구	291
〈표 15-15〉 시·도별 산촌지역 총인구 변화 추이	292
〈표 15-16〉 연령별 인구 분포	293
〈표 15-17〉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자원	294
〈표 15-18〉 평균소득 현황	295
〈표 15-19〉 주 소득 작목	296
〈표 15-20〉 농림용 기구기계 현황	296

〈표 15-21〉 교육시설	297
〈표 15-22〉 의료 및 복지시설	298
〈표 15-23〉 상·하수도 및 분뇨·쓰레기 시설	299
〈표 15-24〉 도로 교통	299
제 16 장 세계속의 한국 임업	300
〈표 16- 1〉 세계의 산림자원	300
〈표 16- 2〉 우리나라 산림의 소유구분	304
〈표 16- 3〉 우리나라 산림의 영급별 구성 (2005년)	306
〈표 16- 4〉 GDP와 임산물 생산액	308
〈표 16- 5〉 산림휴양 자원 현황	310
〈표 16- 6〉 목재의 수요 및 공급 전망	312
〈표 16- 7〉 목재 및 나무 관련 산업의 고용 및 임금 (월평균)	318
〈표 16- 8〉 합판 산업현황	319
〈표 16- 9〉 합판산업의 생산 및 수급	319
〈표 16-10〉 파티클보드 산업 현황	320
〈표 16-11〉 파티클보드 생산 및 수급	320
〈표 16-12〉 섬유판 산업현황	321
〈표 16-13〉 섬유판의 생산 및 수급	321
〈표 16-14〉 칩 산업현황	322
〈표 16-15〉 칩의 생산 및 수급	322
〈표 16-16〉 해외조림 실적	324
〈표 16-17〉 해외조림지에서 생산한 목재 칩의 도입	326

V. 어업

제 17 장 어업의 개념과 분류	328
〈표 17- 1〉 제도별 어업형태	330

통계표 목차

제 18 장 어업경영	331
〈표 18-1〉 전·겸업별 어가의 변화 (1990~2005년)	331
〈표 18-2〉 지역별 전·겸업별 어가 분포 (2005년)	332
〈표 18-3〉 경영주 주종사어업 형태별 전·겸업 (2005년)	333
〈표 18-4〉 경영주의 주종사어업 형태 변화 (1990~2005년)	333
〈표 18-5〉 어업종사기간별 주종사어업 형태 (2005년)	334
〈표 18-6〉 지역별 주종사어업 형태 (2005년)	335
〈표 18-7〉 성별 주종사어업 형태 (2005년)	336
〈표 18-8〉 연령별 경영주 주종사어업 형태 (2005년)	336
〈표 18-9〉 생산조직 참여여부	337
〈표 18-10〉 참여한 생산조직 형태	338
〈표 18-11〉 지역별 생산조직 참여율 (2005년)	338
〈표 18-12〉 상품형태별 변화 (2000~2005년)	339
〈표 18-13〉 수산물 판매처별 어가의 변화	340
제 19 장 어업의 변화	341
〈표 19-1〉 지역별 어업형태 (2005년)	342
〈표 19-2〉 잡는 어업의 변화-근해어업 (2000~2005년)	343
〈표 19-3〉 잡는 어업의 변화-지역별 근해어업 (2005년)	344
〈표 19-4〉 잡는 어업의 변화-연안어업 (2000~2005년)	345
〈표 19-5〉 잡는 어업의 변화-지역별 연안어업 (2005년)	346
〈표 19-6〉 잡는 어업의 변화-구획어업	347
〈표 19-7〉 잡는 어업의 변화-신고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투망어업/2005년)	347
〈표 19-8〉 주된 양식품종별 어가 (1990~2005년)	348
〈표 19-9〉 지역별 주된 양식어업 (2005년)	349
〈표 19-10〉 주된 양식품종별 어가-어류양식	349
〈표 19-11〉 주된 양식품종별 어가-패류양식	350
〈표 19-12〉 주된 양식품종별 어가-해조류양식	351
〈표 19-13〉 주된 양식품종별 어가-갑각류	351
〈표 19-14〉 양식방법의 변화	352

〈표 19-15〉 양식규모별 어가 변화 (1990~2005년)	353
〈표 19-16〉 지역별 양식면적 규모 (2005년)	354
〈표 19-17〉 지역별 양식면적 규모 (2005년)	355
〈표 19-18〉 어선어업 어가의 변화 (1990~2005년)	356
〈표 19-19〉 지역별 동력선 보유어가 (1990~2005년)	357
〈표 19-20〉 보유어선 규모별 어가 (1990~2005년)	358
〈표 19-21〉 보유어선 규모별 지역별 어가 (2005년)	358
제 20 장 세계속의 한국 어업	359
〈표 20- 1〉 세계 주요국별 어획량 추이	363
〈표 20- 2〉 세계 양식생산량의 국별 추이	365
〈표 20- 3〉 세계 수산물 수출 추이	367
〈표 20- 4〉 세계 수산물 수입 추이	368
〈표 20- 5〉 한·중·일 3국의 수산업 인프라 및 산업환경	371
〈표 20- 6〉 한·중·일 3국의 어업구조 비교	372

그림 목차

I. 자연환경

제 1 장 국토·기후	2
<그림 1-1> 우리나라의 수리적 위치	2
<그림 1-2> 1월 평균기온 상승	13
<그림 1-3> 자외선지수와 피부위험도	16
<그림 1-4> 위성에서 촬영한 태풍의 모습	17
<그림 1-5> 진앙 분포표 (1978~2007년)	18
<그림 1-6> 황사발원지 및 이동경로	19

II. 농림어가의 인구와 가족

제 2 장 농림어가의 인구	24
<그림 2-1> 농가인구 구조의 변화 (1980~2005년)	27
<그림 2-2> 충북의 일반농촌 (1995년, 2005년)	28
<그림 2-3> 농림어가 인구와 읍면부 인구구조 비교 (2005년)	29
<그림 2-4> 농림어가 인구의 연령별 성비	33
<그림 2-5> 시·군·구별 농가 인구분포 (2005년)	34
<그림 2-6> 시·군·구별 어가 인구분포 (2005년)	35
<그림 2-7> 시·군·구별 임가 인구분포 (2005년)	36
<그림 2-8> 성·연령별 농가인구의 교육정도별 인구구성비 비교 (2005년)	39
<그림 2-9> 농림어가 및 읍면부 인구의 교육정도별 인구구성비 비교 (50~59세, 2005년)	41
<그림 2-10> 성·연령별 농가인구의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 비교 (2005년)	44
<그림 2-11> 농림어가 및 읍면부 인구의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의 비교 (30~39세, 2005년)	46
<그림 2-12> 장래 농가인구의 구조변화 (2005~2020년)	54
제 3 장 농림어가의 가족	60
<그림 3-1> 세대별 가구 구성	65

〈그림 3-2〉 여성결혼이민자 지역별 체류 현황 (2005년 12월 기준)	82
〈그림 3-3〉 농림어업 가구수의 변화 (1970~2005년)	96

III.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

제 4 장 한국경제와 농림어업	102
〈그림 4-1〉 국내 총생산 산업별 변화추이	106
〈그림 4-2〉 국내 총고용과 농림어업 변화추이	108
제 5 장 농촌사회의 변화와 분화	111
〈그림 5-1〉 경지면적 3ha 이상 농가 분포	116
〈그림 5-2〉 논벼 수확 면적의 시·군별 분포	118
〈그림 5-3〉 시·군·구별 고령 경영주의 비율	129

IV. 농업

제 6 장 농업구조의 개념과 농가 변화	140
〈그림 6-1〉 농업구조 관련지표의 구분	140
제 7 장 농가의 농지소유와 이용의 변화	148
〈그림 7-1〉 경지규모별 농가수	152
〈그림 7-2〉 경영주 연령별 경지규모	154
〈그림 7-3〉 경지규모별 임차지 면적	158
〈그림 7-4〉 경영주 연령별 임차지 면적	159
제 8 장 농업경영	164
〈그림 8-1〉 영농형태별 경영주 연령분포 (2000년)	168
〈그림 8-2〉 영농형태별 경영주 연령분포 (2005년)	169

그림 목차

제 11 장 세계속의 한국농업	190
<그림 11-1> 농림어업 GDP변화	191
<그림 11-2> 주요5개국의 전체인구 대비 농가인구 비율 변화	193
<그림 11-3> 농축산물 무역수지 (1994년,2004년)	199

IV. 임업

제 13 장 임업경영	208
<그림 13-1> 전업·겸어별 임가수	210
<그림 13-2> 산림보유면적별 임가수	212
<그림 13-3> 육림별 임가수	213
<그림 13-4> 산림면적 규모별 벌목 임가수	217
<그림 13-5> 벌목 면적규모별 임가수	219
<그림 13-6> 묘포장면적 규모별 임가수	220
<그림 13-7> 묘목재배본수별 임가수	222
<그림 13-8> 임산물 채취규모별 임가수	224
<그림 13-9> 임산물채취 품목별 임가수	226
<그림 13-10> 가구원수별 임가수	231
<그림 13-11> 임업종사 인원별 임가수	234
<그림 13-12> 경영주 연령별 임가수	236
<그림 13-13> 경영주 교육정도별 임가수	238
제 14 장 임산물 생산 및 판매	245
<그림 14-1> 버섯·열매 채취규모별 임가수	247
<그림 14-2> 산나물 채취규모별 임가수	249
<그림 14-3> 약용작물 채취규모별 임가수	251
<그림 14-4> 수액 채취규모별 임가수	253
<그림 14-5> 산나물 재배규모별 임가수	255
<그림 14-6> 약용작물 재배규모별 임가수	257
<그림 14-7> 관상작물 재배규모별 임가수	258
<그림 14-8> 종실류 재배면적별 임가수	260

〈그림 14-9〉 밤나무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수	264
〈그림 14-10〉 잣나무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수	266
〈그림 14-11〉 호도나무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수	269
〈그림 14-12〉 대추나무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수	269
〈그림 14-13〉 표고버섯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수	273
제 15 장 임가 및 산촌사회	279
〈그림 15-1〉 시·군별 산촌 분포수	285
〈그림 15-2〉 산촌지역의 자연, 인적자원	286
〈그림 15-3〉 시·도별 산촌의 산림면적	286
〈그림 15-4〉 시·도별 산촌의 인구분포	287
〈그림 15-5〉 시·도별 산촌의 농가수 및 경지면적	288
〈그림 15-6〉 산촌의 산림자원	289
〈그림 15-7〉 산림자원활용 가구수	290
〈그림 15-8〉 산촌의 세대 및 인구	292
〈그림 15-9〉 시·도별 산촌지역 총인구 변화 추이	293
〈그림 15-10〉 연령별 인구 분포	294
〈그림 15-11〉 평균소득 현황	295
〈그림 15-12〉 교육시설 현황	297
제 16 장 세계속의 한국 임업	300
〈그림 16-1〉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변화	301
〈그림 16-2〉 황폐했던 1960년대의 산림과 조림 직후의 산림	302
〈그림 16-3〉 최근 우리나라의 산림	302
〈그림 16-4〉 세계 주요국의 산림축적	303
〈그림 16-5〉 사유림의 소유구조	305
〈그림 16-6〉 임도의 조성 및 ha당 길이	306
〈그림 16-7〉 우리나라 산림의 영급별 면적 변화	307
〈그림 16-8〉 우리나라 임산물 생산액 구조	309
〈그림 16-9〉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평가액	309
〈그림 16-10〉 국산재 공급량과 원목수입량 추이	313

그림 목차

〈그림 16-11〉 세계 주요국의 원목 생산량	313
〈그림 16-12〉 임산물의 수출액 및 수입액	314
〈그림 16-13〉 주요 임산물의 품목별 수출액	315
〈그림 16-14〉 주요 임산물의 품목별 수입액	315
〈그림 16-15〉 임산물의 수출 상대국	316
〈그림 16-16〉 임산물의 수입 상대국	316
〈그림 16-17〉 임산물의 남북 교역	317
〈그림 16-18〉 해외 산림개발 실적	323
〈그림 16-19〉 유칼립투스 양묘와 해외조림 전경 (인도네시아 뱅갈란분)	325
〈그림 16-20〉 수종별 해외조림 면적 추이	325

V. 어업

제 20 장 세계 속의 한국 어업	359
〈그림 20-1〉 세계어업의 구조 (2005년)	361
〈그림 20-2〉 세계어업 생산량 추이	361
〈그림 20-3〉 세계 주요 국가그룹별 평균(1국) 어획량 추이	364
〈그림 20-4〉 세계 주요 국별 양식수산물의 kg당 가격 (2005년)	366
〈그림 20-5〉 한·중·일 3국이 세계 어업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추이	374

I . 자연환경



제 1 장 국토·기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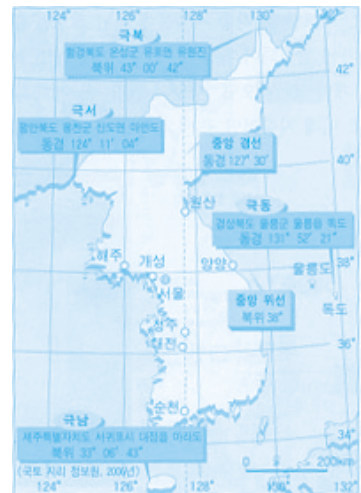
제 1 장 국토 · 기후

이내성

제 1 절 국토

위치와 면적

한반도는 유라시아대륙 동북부에서 서남으로 뻗어 나온 약 1,100km의 반도와 그 부근에 산재하는 3,000여개의 섬 및 대륙붕으로 이루어졌다. 위치를 경·위도로 보면 남쪽 끝은 제주도 남제주군 마라도 남단으로 북위 33°06'이고, 북쪽 끝은 함북 온성군 유포면 북단으로 북위 43°00'이며, 서쪽 끝은 평북 용천군 마안도 서단으로 동경 124°11'이고, 동쪽 끝은 경북 울릉군 독도 동단인 동경 131°52'로서 남북 약 10°, 동서 약 8°의 범위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중앙 경선이 127°30'이나 동경 135°를 표준 경선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반도는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부와 맞닿았고, 서쪽은 서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남쪽과 동쪽은 대한해협과 동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열도와 마주한다. 한반도의 육지 총면적은 22만1천여km²이고 이중



〈그림 1-1〉 우리나라의 수리적 위치

〈표 1-1〉 한반도의 위치 (2005년)

	전 국토		본 토	
	지 명	극 점	지 명	극 점
극동	경북 울릉군 독도 동단	동경 131°52'21"	함북 경흥군 노서면 동단	동경 130°39'10"
극서	평북 용천군 마안도 서단	동경 124°11'04"	평북 용천군 용암포읍 서단	동경 124°18'40"
극남	제주 남제주군 마라도 남단	북위 33°06'43"	전남 해남군 송지면 남단	북위 34°17'25"
극북	함북 온성군 유포면 북단	북위 43°00'42"	함북 온성군 남양면 북단	북위 43°00'35"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2006

주 : GRS80 좌표

남한은 45%인 9만9천646km²이며 간척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토면적을 16개 시·도별로 보면, 경상북도가 전 국토의 19.1%(1만9천26km²)를 차지하여 가장 넓고, 광주광역시가 0.5%(501km²)로 가장 작다. <표 1-4>에서 볼 수 있듯이 해방 이후 국토의 변화를 살펴보면, 1946년부터 2005

년까지 59년 동안 5,347km²의 면적이 넓어졌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간척을 통한 국토의 확장에 역점을 두어온 결과다. 이와 더불어 도로포장률은 1946년 4.0%에서 2005년 76.8%로 72.8%p의 신장률을 보였다.

<표 1-2> 시·도 면적 (2005년)

(단위: km², %)

지역	면적	지역	면적
전국	99,646(100.0)		
서울특별시	605 (0.6)	강원도	16,613(16.7)
부산광역시	764 (0.8)	충청북도	7,431 (7.5)
대구광역시	884 (0.9)	충청남도	8,601 (8.6)
인천광역시	994 (1.0)	전라북도	8,055 (8.1)
광주광역시	501 (0.5)	전라남도	12,073 (12.1)
대전광역시	540 (0.5)	경상북도	19,026 (19.1)
울산광역시	1,057 (1.1)	경상남도	10,521(10.6)
경기도	10,131 (10.2)	제주도	1,848 (1.9)

자료: 행정자치부, 지적통계연보, 2006

<표 1-3> 전국 도서 현황

(단위: 개소, km², 명, 호)

도서 수			유인도서		
계	유인도서	무인도서	면적	인구	가구수
3,167	492	2,675	6,828	833,493	278,720

주: 2004년 12월 31일 현재
자료: 행정자치부

<표 1-4> 국토의 변화와 도로포장률

(단위: km², %)

	1946년	196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국토면적	94,299	98,431	98,992	99,274	99,461	99,646
도로포장률	4.0	4.1	33.2	71.5	75.8	76.8

주: 1995년 이후는 미북구지역 제외
자료: 통계청, 한국주요경제지표, 각 호



지형적 특성과 하천

국토의 약 65%가 산지이나 오랜 침식으로 인한 안정 지괴로 저산성 산지가 넓게 분포한다. 우리나라의 지형은 신생대 제3기의 비대칭적 요곡 운동의 영향으로 북쪽과 동쪽에 치우친 태백산맥과 함경산맥의 축에 높은 산지가 급경사를 이루면서 동해안에 이르지만, 서쪽으로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서 서해안에 다다른다.

산지를 경사도로 나누어 보면 15° 이하가 2.8%, 16~20°가 8.4%, 21~25°가 11%, 26~30°가 15.3%, 31° 이상이 62.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산지이용이 가능한 대상은 전체 국토면적의 30% 내외로 추정된다. 북동부에는 고산지와 고원이, 남서부에는 저산성 산지와 평야가 발달한 우리나라 지형에서 산지는 지역 간에 교통 장애가 되어 지역 구분의 경계가 된다. 지형은 농업형태와 인구밀도에도 영향을 미쳐 북동부에는 밭농사 중심의 농업이 이루어지며 인구분포가 희박한 반면, 남서부 지역에는 논농사 중심의 농업이 이루어지고 인구분포가 조밀하다.

하천도 지형의 특성에 따라 서해와 남해쪽으로 큰 하천이 완만히 흐르는데 비하여 동해로 유입하는 하천은 길이가 짧은 급류가 많다. 또한 계절에 따른 강수량의 변화가 커서 수력발전과 각종 용수 공급에 불리하므로 하천의 중·상류에 댐 건설로 인한 인공호수가 많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 발전에

〈표 1-5〉 수계별 하천현황 (2005년)

(단위: 개, km, %)

수 계 명	유역면적	하천연장	요개수	개수	개수율	장래계획
합 계	90,356	29,822	36,362	29,143	80.1	7,219
한강	25,954	7,151	7,160	5,892	82.3	1,268
낙동강	23,384	7,286	8,395	6,320	75.3	2,075
금강	9,912	3,705	4,818	4,045	84.0	773
섬진강	4,912	1,930	2,309	1,672	72.4	636
영산강	3,468	1,274	1,980	1,589	80.3	391
안성천	1,656	604	1,062	1,017	95.8	46
삽교천	1,649	615	967	829	85.7	138
만경강	1,504	606	882	705	79.9	177
형산강	1,133	286	459	420	91.5	39
동진강	1,124	489	698	614	88.0	84
태화강	644	322	470	333	70.9	137
기타수계	15,016	5,554	7,162	5,707	79.7	1,455

자료: 건설교통부, 한국하천일람, 2006

따라 산업시설과 인구가 하천연변에 집중되는데 비하여 이에 대응하는 하천개수가 부진하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표 1-5>에서 보듯이 총연장 중 개수가 필요한 부분이 3만6천여km에 이른다. 1925년 대홍수를 겪고 나서부터 시작한 하천 개수는 2005년 말까지 전체 하천의 80.1%인 2만9천여km를 개수하였다.

한편 정부는 1960년 이후 각종 용수의 안정적 공급 및 홍수조절 등을 위한 다목적 수자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다목적 댐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섬진강댐(1960~1965년), 남강댐(1962~1970년), 소양강댐(1967~1973년), 안동댐(1971~1976년), 대청댐(1975~1981년), 충주댐(1978~1985년), 합천댐(1983~1989년), 주암댐(1983~1991년), 임하댐(1984~1991년), 부안댐(1991~1996년) 등 다목적 댐과 낙동강 하류의 낙동강 하구둑(1983~1987년)을 건설하였다. 이들 다목적 댐과 하구둑은 연간 용수공급 약 109억m³, 발전 약 21억kwh, 홍수조절 약 27억m³로 이·치수면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 1-6> 다목적 댐 현황 (2005년)

댐	유역면적 (km ²)	총저수량 (백만m ³)	저수면적 (km ²)	발전시설 용량(천kW)	사업효과		
					홍수조절 (백만m ³)	용수공급 (백만m ³ /년)	발전량 (백만kW/년)
합 계	22,133	12,580	466	1,042	2,692	10,884	2,111
소양강	2,703	2,900	64	200	770	1,213	353
충주	6,648	2,750	86	412	616	3,380	844
횡성	209	86	6	1	10	120	6
안동	1,584	1,248	52	90	110	926	89
합천	925	790	23	101	80	599	232
임하	1,361	595	26	50	244	592	97
남강	2,285	309	28	14	270	573	41
밀양	95	74	2	1	6	73	7
대청	3,204	1,490	64	90	250	1,649	
용담	930	815	36	24	137	650	199
섬진강	763	466	27	35	92	350	181
주암	1,010	707	33	23	80	489	51
부안	59	42	3	0	9	35	1
보령	164	117	6	0	10	107	6
장흥	193	191	10	1	8	128	5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2006



해안의 특징

우리나라의 황해와 남해안은 침수해안으로 해안선이 복잡하게 나타난다. 해안을 향해 뺀 산맥이 침수되어 섬, 반도, 만이 많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수심이 얇고 조수간만의 차가 크게 나타난다. 동해안은 이수해안으로 해안선이 단조롭다. 함경·대백산맥이 해안선에 평행하게 뻗어 있다. 활발한 파랑의 작용으로 사빈, 석호, 해안단구, 해식애가 발달하였다. 조석간만의 차가 큰 황해안에는 간석지가 넓게 발달하여 각종 수산양식장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천일 제염업이 발달하기도 한다. 또한 간석지는 간척사업을 통해 각종 용지로 이용하기도 한다.

- 사빈 : 하천 또는 해안에서 공급된 토사가 파랑과 연안류의 작용으로 해안에 퇴적되어 형성된 지형으로 해수욕장으로 이용됨
- 석호 : 해수면 상승으로 하곡이 침수되어 형성된 만입 전면부에 사주가 발달하여 만들어진 호수(영랑호, 청초호, 경포호)
- 해식애 : 바다로 돌출된 육지가 파랑의 침식작용을 받아 형성된 해안 절벽
- 해안단구 : 해수면의 하강 또는 지반의 융기 결과 파식대가 현재의 해수면보다 위로 올라가 계단모양으로 형성되는 지형
- 파식대 :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해식애 아래에 형성된 경사가 완만한 지형

화산 지형

한반도에는 신생대 제3기 말에서 제4기에 걸쳐 있었던 화산 활동으로 수는 많지 않지만 다양한 형태의 화산과 용암 대지가 만들어졌다. 백두산 산록부는 유동성이 큰 현무암이 분출하여 경사가 완만한 방패(순상(楯狀), aspitel)로 산정부는 점성이 큰 조면암이 분출하여 경사가 급한 종모양(鐘狀) 화산을 이룬다. 천지는 화구가 함몰되어 형성된 칼데라호이다. 개마고원은 백두산에서 분출된 용암이 주변으로 퍼져나가 형성되었다.

한라산의 전반적인 형태는 방패모양 화산이나 산정부는 종모양 화산이다. 한라산 주변에는 화산쇄설물로 이루어진 약 400여 개의 기생 화산(측화산, 오름)이 분포한다. 백록담은 분화구에 물이 고여 형성된 화구호이다. 다공질 및 절리가 많은 기반암 때문에 지표수가 부족해 발농사 위주로 토지를 이용하며, 취락은 용천대가 나타나는 해안지역에 집중하여 분포한다. 울릉도는 점성이 큰 조명암이 분출해 경사가 급한 종모양의 화산으로 1차 분출하여 형성된 칼데라에 2차 화산이 분출한 칼데라 분지(나리·알봉 분지), 중앙 화구구(알봉), 외륜산(성인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화산 지대는 암석에 틈이 많아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하천의 발달이 미약하다. 따라서 제주도의 중산간 지대나 울릉도의 나리 분지 등에서는 주로 발농사가 이루어지며, 취락은 지하수가 솟아나는 해안의 용천대에 주로 분포한다. 나리 분지에 내리는 빗물은 지하수로 스며들어 북서쪽 골짜기로 솟아나는데 이는 소수력 발전에 이용된다. 용암대지는 점성이 작은 현무암이 분출하여 주변의 저지대를 매립하여 형성되며, 지표수가 부족하여 주로 발농사를 지었는데 철원일대에서는 관개를 통하여 논농사를 짓고 있다. 용암대지 위를 흐르는 하천은 현무암을 수직으로 깎아 하천 양안이 절벽을 이루는 부분이 많다.

행정구역 체계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체계는 1946년 서울시와 9개 도(道)로 출발하였으며, 1949년 서울시가 서울특별시로 승격되었다. 이후 1963년 부산직할시가 추가되어 1특별시·1직할시·9개 도로 조정되었으며 1981년에는 인천시,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되어 1특별시·3직할시·9개 도가 되었다. 그 후 1987년에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1989년에 대전시가 대전직할시로 승격되었다. 1995년 1월 1일에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직할시가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어 1특별시·5광역시·9도가 되었다. 1997년에는 울산시를 광역시로 승격하는 등 소폭의 행정개편을 했다. 이에 따라 2005년 2월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1특별시·6광역시·9도 77시·88군·69자치구·211읍 1,209면·2,153동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화 시대가 본격 도래하여 중앙집권적·관료적 사회에서 권한·책임의 하부 이양에 따른 분권적·자율적 사회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지방화 시대가 성숙됨에 따라 지방의 특성에 기초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지역개발전략의 핵심요소로 부각되리라 본다. 아울러 주민을 존중하고 지역을 중심에 둔 지방행정이 보편화 될 것으로 보인다.



〈표 1-7〉 행정구역의 변화

	1995년	1997년	2000년	2005년
시·도	15	16	16	16
시	67	71	72	77
군	100	96	91	88
구	65	69	69	69
읍	192	192	196	211
면	1,236	1,229	1,229	1,209
동	2,324	2,320	2,086	2,153

자료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통계연보, 각 호

국토이용

1. 용도별 토지 이용

우리나라의 국토면적은 3/4정도가 산지이거나 내수면이기 때문에 토지자원이 매우 부족하다. 토지를 집약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정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국토이용계획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 국토를 도시지역 등 5개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하고, 그 용도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도록 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또한 한정된 토지자원을 계획적·합리적으로 이용하려는 계획이다. 국토이용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하면 토지 소유자는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이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토지이용행위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할 때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이용 범위 안에서 토지이용행위를 하도록 한다.

용도지역의 지정현황을 보면 2005년 말 기준 도시지역은 17,040km²로 전체 용도지역 면적(106,114 km²)의 1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지역은 2,122km²(2.0%), 상업지역은 264km²(0.2%), 공업지역은 793km²(0.7%), 녹지지역은 12,607km²(11.9%), 미지정지역은 1,253km²(1.2%)이다. 관리지역은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25,870km²가 지정되어 있고, 전체 용도지역 면적의 24.4%를 차지하고 있다.

농림지역은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51,023km²가 지정되어 전체 용도지역 면적의 48.1%를 차지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를 제외한 13개 시·도에 12,181km²가 지정되어 있고, 전체 용도지역 면적의 11.5%를 점하고 있다.

〈표 1-8〉 용도지역 지구 지정 현황

(단위 : km²)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 계	105,532	105,787	105,951	106,223	106,376	106,114
도시지역	15,796	16,085	16,481	16,760	16,902	17,040
관리지역	26,483	26,344	26,288	26,181	26,538	25,870
농림지역	51,211	51,286	51,018	51,115	50,718	51,023
자연환경 보전지역	12,041	12,073	12,164	12,168	12,218	12,181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각 호

2.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수산자원 보전지구 등 이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및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13개 시·도의 543곳에 육지부 7,560km²와 해면부 4,621km²를 지정함으로써 전체 용도지역 지정면적의 11.5%에 달한다. 육지부의 시·도별 지정현황을 보면 강원도가 1,902km²로 가장 넓은 면적을 지정했고, 다음으로 경상북도·경상남도·충청북도 등의 순이다. 해면부는 서남해안지역의 수산자원 보전지구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 지정된 전라남도가 2,884km²로 가장 넓고 다음으로 경상남도·제주도 순이다.



〈표 1-9〉 시·도별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현황 (2005년)

(단위 : km²)

	행정 구역 면적	육 지		해 면	
		계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	자연환경 보전지역
전국	99,646	100,472	7,560	5,642	4,621
서울	605	606	-	-	-
부산	764	784	-	220	53
대구	884	884	44	-	-
인천	994	994	0	304	-
광주	501	501	0	-	-
대전	540	540	7	-	-
울산	1,057	1,146	43	-	-
경기	10,131	10,259	360	39	39
강원	16,613	16,873	1,902	24	-
충북	7,431	7,431	790	-	-
충남	8,601	8,948	674	181	70
전북	8,055	8,052	732	77	-
전남	12,073	12,073	781	3,056	2,884
경북	19,026	19,023	1,144	103	-
경남	10,521	10,510	892	1,415	1,370
제주	1,848	1,848	192	223	205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2006

3. 지목별 국토이용

주요 지목별 국토이용 내용을 보면, 2005년 말 현재 임야는 전체 면적의 65.0%인 64,805km², 농경지는 20.2%인 20,108km², 대지 및 공장용지는 3.1%인 3,155km²이다. 1970년 이후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은 인구의 도시권 유입, 공장용지와 대지의 지속적인 증가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대지는 1965년 1,205km²에서 2005년 2,533km²로 약 2.1배 증가하였고, 공장용지는 1980년 102km²에서 2005년 622km²로 약 6.1배 증가하였다. 1965~2005년의 기간 동안 주요 지목인 농경지 및 임야의 구성비 변화를 보면, 농경지는 2.7% p, 임야는 2.2% p 감소하였다.

〈표 1-10〉 주요 지목별 국토이용

(단위 : km², %)

	총면적	농경지	임야	대지	공장용지
1949년	93,634	20,535(21.9)	-	-	-
1965년	98,431	22,564(22.9)	66,136(67.2)	1,205(1.2)	-
1970년	98,477	22,975(23.3)	66,115(67.1)	1,314(1.4)	-
1980년	98,992	22,099(22.3)	66,129(66.8)	1,721(1.7)	102(0.1)
1990년	99,274	21,484(21.6)	65,571(66.1)	1,937(2.0)	246(0.3)
2000년	99,461	20,507(20.6)	65,139(65.5)	2,349(2.4)	514(0.5)
2005년	99,646	20,108(20.2)	64,805(65.0)	2,533(2.5)	622(0.6)

자료 : 행정자치부, 지적통계연보, 각 호

제 2 절 기후

기후의 특성

우리나라는 위도상의 위치로 볼 때 적도로부터 북쪽으로 중위도 정도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온대와 냉대 기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여 대륙 동안 기후의 특성이 뚜렷하다.

따라서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우면서도 대륙에 비하여 강수량이 많다. 또한 장마와 태풍기의 우기가 있고 겨울에는 대설이 내리기도 한다. 장마에 의한 비는 주로 내륙에, 눈은 주로 영동·호남지역에 많이 내린다. 지역별로 여름부터 겨울까지 우기가 고르게 있으며, 연강수량은 세계적으로 비교적 습윤한 편에 속한다.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 사이에 한반도가 위치해 있어 여름과 겨울의 풍향이 정반대로 나타나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 겨울에는 시베리아 고기압과 알류산열도 저기압으로 생성된 북서계절풍이 대륙의 찬 공기를 운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온은 유럽의 동일 위도 지역보다 매우 낮게 나타난다. 이와는 반대로 여름엔 북태평양 고기압이 형성되어 이 고기압을 회전시키며 불어오는 남동계절풍이 해양으로부터 다습한 공기를 운반함으로써 유럽 각지의 기온보다 훨씬 높다. 아시아의 동부에는 강한 난류인 쿠로시오 해류가 흐르고 있어서 여름은 고온 다습한 공기가 남풍에 의해 운반되고, 거



울에는 한랭 건조한 공기가 북풍에 의해 운반되면서 전체적으로 적도 부근의 과잉열이 북으로 운반된다. 따라서 한반도는 기후의 남북성과 동서성을 강하게 나타낸다. 기온의 남북성은 여름에 중강진과 제주사이에 약 3℃의 차이를 보이거나 겨울에는 약 26℃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계절풍의 방향과 해류 등으로 인해 기온이나 강수량 등이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크게 달라 우리나라의 기후는 남북성에 못지 않은 동서성을 지닌다.

기온의 변화

기온은 국제적으로 지표로부터 1.25~2.0m의 높이에서 측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5m높이에서 측정한다. 2005년의 기온을 보면, 연중 기온이 가장 낮았던 지역은 12월 18일의 전북 장수로서 -23.2℃ 이었으며, 가장 높았던 지역은 6월 25일의 경북 포항 37.7℃이었다. 한편 역대로 보면 경기도 양평이 1981년 1월 5일 -32.6℃를 기록하였으며, 최고는 1942년 8월 1일 대구가 40℃를 기록하였다.

2005년 우리나라의 주요 지점별 평균기온은 서울 12.1℃, 부산 13.8℃, 광주 13.6℃, 제주 16.2℃를 기록했다.

〈표 1-11〉 2005년 및 역대 기온 극값

(단위: ℃)

		2005년			역 대		
		지점	값	나타난 날	지점	값	나타난날
평균기온	최고	강릉	31.8	8.14	서울	33.1	1994. 7.24
	최저	대관령	-16.9	2. 1	양평	-23.3	1981. 1. 4
일최고기온	최고	포항	37.7	6.25	대구	40.0	1942. 8. 1
일최저기온	최저	장수	-23.2	12.18	양평	-32.6	1981. 1. 5

자료 : http://www.kma.go.kr

〈표 1-12〉 주요 지점별 평균기온

(단위: ℃)

	서울	인천	강릉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포항	울산	부산	제주
1995년	12.2	11.7	13.1	12.8	13.4	13.9	14.1	13.9	14.1	13.7	14.5	15.6
2000년	12.7	12.7	13.5	13.6	13.5	13.6	14.3	14.2	14.5	14.3	14.9	15.7
2005년	12.1	12.0	12.9	13.3	13.6	13.5	13.7	14.2	14.0	14.3	13.8	16.2

자료 : 기상청, 기상연보, 각 호

세계의 많은 학자들과 연구기관에서는 이상기온 현상에 대한 원인을 지구온난화에서 찾고 있다. 지구온난화란 지구표면을 덮고 있는 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 등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복사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대기온도를 상승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표 1-13〉 한반도의 기후변화

(단위: °C, 일)

		서울	인천	강릉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포항	울산	부산	제주
겨울	1월 평균기온상승(°C)	0.9	0.7	0.7	0.6	0.7	0.5	0.6	0.9	0.9	0.7	0.8	0.4
	0°C 이하 일수	15	2	1	3	9	6	3	13	4	5	7	20
여름	열대일수(낮 30°C 이상)	↓1	↓10	↓8	↓7	↓5	↓2	↓6	↓10	↓14	↓3	↓2	↓8
	열대일수(낮 25°C 이상)	↓6	2	9	7	1	2	1	9	5	10	8	4

주: ↓는 줄어든 날수 * 1971~2000년 평균치에서 1961~1990년 평균치를 뺀 것임
자료: 기상청 자료, 2001년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최근 30년간(1971~2000년)의 기온과 강수량의 평년 값을 이전 30

년간(1961~1990년)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기후가 겨울

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온난화

되고 있으며, 강수량의 계절적

분포도 여름철 전반의 장맛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난다. 또한 최한월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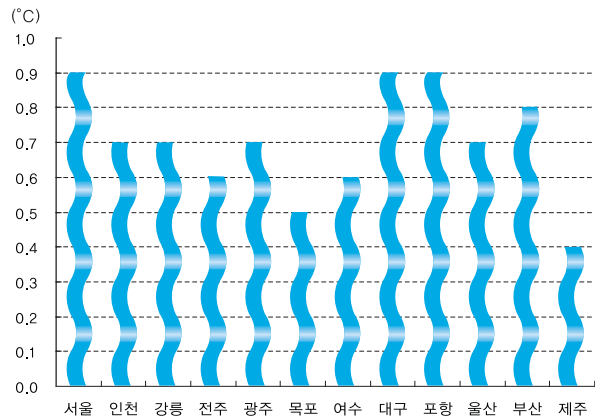
균기온이 -3°C 이상인 지역이

중부지역까지 확대되고, 해수

의 온도도 기온의 상승폭보다

더 높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대성 동·식물은 점차 사라지고 난대성 동·식물들이 늘어나는 등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



〈그림 1-2〉 1월 평균기온 상승(°C)



강우량과 적설량

강수량은 지면에 떨어진 강수의 양으로서 강수가 어떤 시간 내에 수평한 지표면 또는 지표의 수평 투영면에 낙하하여 증발되거나 유출되지 않고 고인 물의 깊이를 말한다. 눈·싸락눈 등 강수가 얼음인 경우에는 이것을 녹인 물의 깊이를 말한다. 비의 경우에는 강수량, 눈의 경우에는 적설량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45mm(1974~2003년 평균)로 세계 평균(880mm)보다 많으나, 1인당 연강수총량은 2,591m³로 세계 평균(19,635m³)의 약 1/8에 불과하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 1,500mm 이상의 연평균강수량을 갖는 국가는 일본, 뉴질랜드, 브라질 등이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1,000~1,500mm의 국가는 인도, 영국, 노르웨이 등이 해당된다.

강수의 계절차와 관련된 생활 사례를 보면 봄철의 건조한 날씨는 농작물의 씨뿌리기에 불리하여 건조농법(진압법)이 발달하고 여름철의 다우현상은 벼의 성장기와 강수 시기가 일치하여 벼농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2005년의 1일 최대 강우량은 9월 6일 울산의 327.5mm이며, 역대 최대 강우량은 2002년 8월 31일 강원 강릉의 870.5mm이다. 2005년의 1시간당 최대 강우량은 7월 31일 제주 성산의 97.0mm이며, 역대 1시간당 최대 강우량은 1998년 8월 6일 인천 강화의 123.5mm이다. 2005년의 10분당 최대 강우량은 7월 1일의 강원 태백과 8월 6일 충남 금산의 33.0mm이며, 역대 10분당 최대 강우량은 1956년 6월 22일 서울의 47.2mm이다. 2005년 우리나라의 주요 지점별 강수량은 서울 1,358mm, 부산 1,384mm, 광주 1,290mm, 제주 873mm를 기록했다.

〈표 1-14〉 최대 강우량

(단위 : mm)

	2005년			역 대		
	지점	값	나타난 날	지점	값	나타난날
1일	울산	327.5	9. 6	강릉	870.5	2002.8.31
1시간	성산	97.0	7. 31	강화	123.5	1998.8. 6
10분	태백	33.0	7. 1	서울	47.2	1956.6.22
	금산		8. 6			

자료 : http://www.kma.go.kr

〈표 1-15〉 주요 지점별 강수량

(단위 : mm)

	서울	인천	강릉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포항	울산	부산	제주
1995년	1,599	1,326	962	891	764	613	1,084	729	745	693	1,006	1,473
2000년	1,187	1,159	1,109	1,637	1,511	1,177	1,238	1,087	913	1,027	1,249	1,189
2005년	1,358	1,156	1,653	1,390	1,290	1,003	1,220	834	1,180	1,136	1,384	873

자료 : 기상청, 기상연보, 각 호

2005년의 최대 적설량은 3월 4일 동해의 61.8cm이며, 역대 최대 적설량은 1955년 1월 20일에 150.9cm다. 2005년 3월에 내린 대설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으며, 부산, 울산 등 여러 지점에서 최심신적설 극값 기록을 경신하였다.

2005년 우리나라의 주요 지점별 최심신적설량은 서울 7.6cm, 부산 29.5cm, 광주 35.2cm, 제주 3.4cm를 기록했다.

〈표 1-16〉 최심신적설 극값

(단위 : cm)

2005년			역 대		
지점	값	나타난 날	지점	값	나타난날
동해	61.8	3. 4	울릉도	150.9	55. 1. 20

자료 : [http : //www.kma.go.kr](http://www.kma.go.kr)

〈표 1-17〉 주요 지점별 최심신적설

(단위 : cm)

	서울	인천	강릉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포항	울산	부산	제주
1995년	4.2	9.5	35.5	7.1	7.5	5.1	-	2.2	7.0	1.5	-	2.0
2000년	3.5	8.2	24.8	4.1	7.1	4.1	0.7	1.2	1.4	-	-	2.6
2005년	7.6	9.7	44.0	13.5	35.2	30.0	4.5	4.5	20.5	12.7	29.5	3.4

자료 : 기상청, 기상연보, 각 호

일조 시간

일조시간은 태양의 직사광선이 지표를 비추는 시간의 길이를 시간 단위로 표시한 것이다. 관측상의 기준으로는 작은 구멍으로 들어간 태양 빛에 의하여 감광지 상에 흔적이 남을 정도 또는 유리공의 초점에 둔 청색의 종이면에 불탄 자국이 남을 정도 이상의 직사광 강도면 일조가 있다고 한다. 2005

년 우리나라의 연간 일조시간을 보면 서울·부산·대구 등 주요 도시의 일조시간은 연 2,000시간을 상회한다. 이중 부산과 경북 포항의 일조시간은 타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은 2,416시간이었다.

〈표 1-18〉 주요 지점별 일조시간

	서울	인천	강릉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포항	울산	부산	제주
1995년	2,291	2,507	2,248	2,350	2,376	2,228	2,722	2,533	2,480	2,213	2,566	1,946
2000년	1,506	2,257	2,024	2,039	1,869	2,211	2,321	2,284	2,198	2,201	2,016	2,046
2005년	2,037	2,332	2,310	2,022	2,082	2,134	2,258	2,364	2,416	2,326	2,416	1,771

(단위 : 시간)

자료 : 기상청, 기상연보, 각 호

〈표 1-19〉 10년 평균 일조시간 대비 증감률

연합계	봄	여름	가을	겨울
-0.5	+0.1	-1.3	-0.6	-0.1

(단위 : % / year)

주: 10년은 1998~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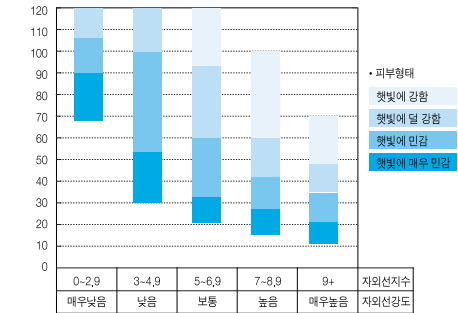
자료 : http://www.kma.go.kr

일조시간 변화경향을 살펴보면 일조시간은 10년 평균 일조시간 대비 매년 0.5%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여름철의 일조시간 감소가 다른 계절에 비해 비교적 크게 나타난다. 여름철 일조시간은 강수일수 및 강수

지속시간이 많아 다른 계절에 비해 적게 나타난다. 이러한 일조시간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오존층의 파괴로 인하여 종종 우리 인체에 해로운 태양 자외선을 증가시킨다.

자외선 강도가 매우 낮은 자외선 과다 노출에 따른 인체 피부 위험이 매우 낮다는 뜻이고, 강도가 매우 높음은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외선 지수 예보목적은 태양광선의 유해 자외선에 과다 노출되면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국민에게 자외선 정보를 제공하여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며, 피부암·백내장 등 예상되는 자외선과 관련된 국민 보건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기상청 자외선 지수 예보는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하루 2회 발표하는데, 06시 발표는 당일, 18시 발표는 내일의 자외선 지수이다.

· 자외선 지수에 따른 피부 흥분 생성 시간 (시간/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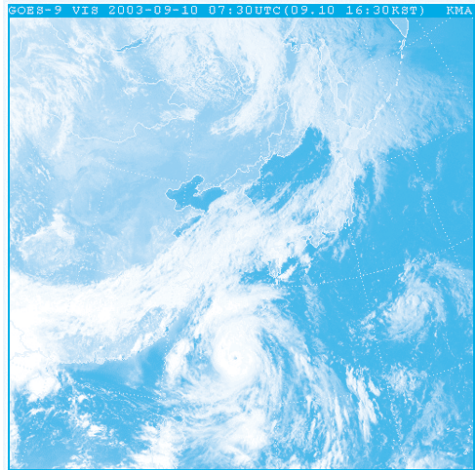


〈그림 1-3〉 자외선지수와 피부위험도

태풍

태풍은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하는 열대저기압 중에서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이 1초당 17m이상으로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는 바람을 말한다. 폭풍우는 반드시 태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대저기압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발생원인과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열대저기압과 온대저기압은 구별한다.

태풍의 발생원인을 종합해 보면, 태풍발생의 온상이 되는 적도전선은 한대전선과는 다르게 양측의 기류 사이에 온도나 수증기 함유량의 차가 적다. 남양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기가 고온다습하여 대기는 조건부 불안정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적란운이 쉽게 발생하여 가끔 강한 스콜(Squall)을 동반한다. 우리나라의 태풍은 연평균 27건이 불며, 지역적으로는 동경 130~145°, 북위 5~20°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계절적으로는 7~10월 낙달 간에 발생빈도가 가장 높다. 또한 계절에 따른 발생위치의 변화를 보면, 봄에서 초여름까지는 북위 10~20°부근에서 많이 발생하고, 7~8월이 되면 북위 20~30°부근으로 발생위치가 북상하며 10~12월에는 저위도로 남하하게 된다.



〈그림 1-4〉 위성에서 촬영한 태풍의 모습

〈표 1-20〉 태풍의 크기 분류

단계	풍속 15% 이상의 반경
소형	300km미만
중형	300km이상~500km미만
대형	500km이상~800km미만
초대형	800km이상

자료 : <http://www.kma.go.kr>

〈표 1-21〉 태풍의 월별 평균 발생수(1971~2000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횟수	0.5	0.1	0.4	0.8	1.0	1.7 (0.3)	4.0 (0.9)	5.5 (1.2)	5.0 (0.9)	3.9 (0.1)	2.5	1.3	26.7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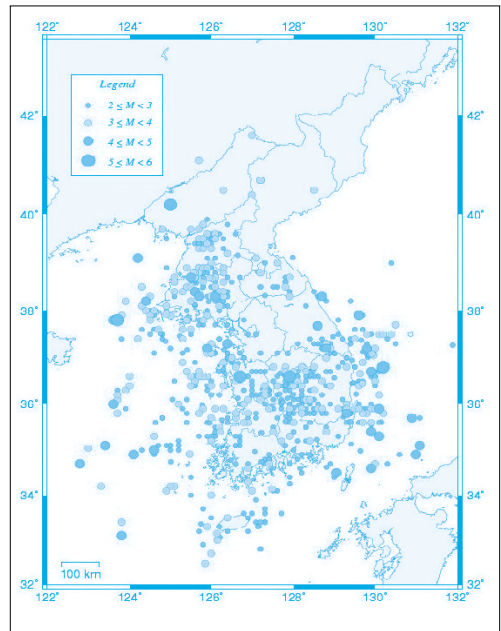
주 : ()안의 숫자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수임

자료 : <http://www.kma.go.kr>

지진

지진이란 지구적인 힘에 의하여 땅 속의 거대한 암반이 갑자기 갈라지면서 그 충격으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말한다.

지진은 여러가지 자연재해 중에서도 가장 격렬하며 극적이어서 지질·지형학적인 변화와 함께 막대한 피해를 가져 온다. 역사상 지진에 의한 최대의 피해는 1556년 중국 셴시성에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하여 약 83만명이 사망했다. 국내에서 발생한 최대의 지진재해는 779년 경주에서 발생했으며 집들이 무너져 100여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규모 3 이상의 지진이 10만회 이상 일어나고 건조물에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규모 5 이상의 지진도 100회 정도 발생하고 있다. 지진이 인류의 관심을 끌어난 이유는 일차적으로 이러한 대규모의 극적 재해성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지진은 연평균 20회 정도 발생하며,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규모 3 이상은 연평균 9.2회다. 20세기에 한국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은 총 4회가 발생했다. 최근의 대표적 사례는 1978년 홍성 지진으로 건물 균열 등 피해가 있었다(1936년 쌍계사 5.1, 1978년 홍성 5.0, 1978년 속리산 5.2, 1980년 의주 5.3).



자료 : <http://www.kma.go.kr>

〈그림 1-5〉 진앙 분포표 (1978~2007년)

〈표 1-22〉 지진 규모별 연평균 발생 빈도

(단위 : 횟수)

규모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3.0이상	6	11	3	11	8	15
유감횟수	1	6	4	8	5	6
총횟수	16	26	15	29	29	37

자료 : <http://www.metri.re.kr>

황사

황사는 중국과 몽골에 있는 사막과 황토지대의 작은 모래나 흙먼지가 봄에 우리나라 하늘까지 날아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며, 국제적으로는 '아시아 먼지' 라고 한다.

세계 각지의 사막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아프리카 대륙 북부의 사하라 사막에서 발원하는 것은 '사하라 먼지' 로 불린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는 중국 황하강 상류의 알라산 사막, 몽골과 중국 사이에 있는 건조지대와 고비사막, 중국 북서부의 타클라야칸 사막(거리 약 5천km)과 한반도에서

가까운 만주지역(거리 약 5백km) 등에서 생기는 먼지를 가리킨다. 황사발원지의 면적은 사막이 48만 km², 황토고원 30만km²에 인근 모래땅까지 합하면 한반도 면적의 약 4배나 된다.



자료 : <http://www.kma.go.kr>

〈그림 1-6〉 황사발원지 및 이동경로

우리나라에서는 건조기인 봄철에 많이 볼 수 있지만 요즘에는 겨울에도 자주 생긴다.

황사발생횟수는 황사발원지에서 발생한 황사가 기상청의 관측지점에서 관측이 시작되어 종료될 때까지를 1회로 한 횟수이다. 황사지속일수는 황사발원지에서 발생한 황사가 기상청의 관측지점에서 관측시작되어 관측종료될 때까지의 관측일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3~4월에 관측되는데, 예전에는 1년에 3~6일 정도에 그쳤지만 2001년에는 서울에서만 27일이나 관측되었으며, 2002년 봄에는 강한 황사가 지속된 시간이 40시간을 넘는 등 황사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표 1-23〉 황사 발생횟수 및 지속일수

(단위 : 횟수, 일)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발생횟수	6	10	9	6	2	6	11	9	13
지속일수	17	16	34	22	3	14	17	21	22

자료 : <http://www.kwa.go.kr>



〈표 1-24〉 황사 발생 현황

		서울	강릉	대전	대구	전주	광주	부산
2000년	횟수	6(10)	3(6)	4(9)	5(8)	6(12)	6(11)	5(8)
	기간	3.7			3.19	3.23-3.24	3.23-3.24	3.19
		3.23-3.24	3.23-3.24	3.23-3.24	3.23-3.24	3.26-3.29	3.26-3.29	3.23-3.24
		3.27-3.28	3.28-3.29	3.27-3.29	3.27	4.7-4.8	4.7-4.8	3.27
		4.7-4.8	4.7-4.8	4.7-4.8	4.7-4.8	4.12	4.10	3.29
		4.23		4.26-4.27	4.26-4.27	4.23	4.12	4.7-4.8
		4.26-4.27				4.26-4.27	4.26	4.12
2005년	횟수	7(12)	2(5)	5(7)	3(5)	5(8)	5(9)	2(2)
	기간	3.29						
		4.7		3.29			3.29	3.29
		4.10		4.10	3.29	4.7-8	4.7-8	
		4.14-15	4.20-22	4.14	4.20-21	4.10-11	4.10-11	4.20
		4.20-22	4.28-29	4.20-21	11.6-7	4.20	4.20	11.7
		4.28-29		11.6-7		11.6-7	11.6-8	
11.6-7								

주: ()내는 발생일수

자료: 환경부, 황사발생현황, 2007

기상재해

자연재난이란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조수(潮水)·대설·가뭄·지진(지진해일)·황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말하며(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자연재난 피해는 이러한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의미한다.

최근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점점 다양화, 대형화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호우, 태풍,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평균 인명피해는 119명, 재산피해는 1조 9천642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지난 10년간(1997~2006년) 기상재해로 인하여 입은 피해액이 20조원에 육박한다.

지난 10년간 기상재해 중에는 태풍의 피해액이 10조4천27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호우가 5조7천478억원, 대설이 1조2천291억원을 기록했으며, 태풍 '루사'가 지나간 2002년과 태풍 '매미'가 덮친

(표 1-25) 최근 10년간 시설별 피해현황 (1997~2006년)

(단위: 명, ha, 백만원)

	이재민	사망	침수면적	피해액					
				합계	건물	선박	농경지	공공시설	기타
1997년	6,296	38	45,774	190,915	1,880	2,792	11,109	146,312	28,821
1998년	30,308	384	91,629	1,582,811	38,618	1,316	105,291	1,227,366	210,219
1999년	26,656	89	76,128	1,219,681	40,559	2,218	24,195	945,459	207,250
2000년	3,665	49	53,092	645,451	11,378	8,098	6,436	530,452	89,087
2001년	4,165	82	20,012	1,256,168	10,813	999	10,361	382,598	851,397
2002년	71,204	270	61,579	6,115,293	115,791	4,781	436,873	4,920,926	636,922
2003년	63,133	148	51,411	4,408,241	96,389	32,388	116,938	3,098,573	1,063,952
2004년	30,446	14	56,903	1,230,436	8,012	473	20,638	516,829	684,484
2005년	10,619	52	26,835	1,049,839	14,648	1,286	28,030	445,944	559,931
2006년	2,883	63	34,759	1,942,984	25,065	1,605	141,066	1,692,948	82,301
평균	24,938	119	51,812	1,964,182	36,315	5,596	90,094	1,390,741	441,436

자료: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2003년의 피해액이 각각 6조1천153억원, 4조4천82억원으로 가장 컸다. 또한 2004년 3월 4~5일, 2005년 12월 3~24일 등 대설에 의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2005년은 대설과 호우, 태풍의 영향으로 인명피해 52명, 1조 9,43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3월에 내린 대설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으며, 부산, 울산 등 여러 지점에서 최심 신적설 극값 기록을 경신하였다. 또한 12월에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지방은 구름이 많고 눈이 오는 날이 많았다. 8월은 제9호 태풍 '맛사'의 영향으로 경기, 전북, 충청 및 경북 일부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렸다. 9월에는 제14호 태풍 '나비'의 영향으로 많은 강수량과 강한 풍속을 기록하였다.



〈표 1-26〉 재해요인별 피해규모 (2005년)

(단위 : 명, 백만원)

기간	발생원인	인명피해		농경지 (유실·매몰)	재산피해액	재해지역
		사망실종	이재민			
3.4-11	대설·풍랑		879	-	25,227	부산, 울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8.2-11	호우	19	1,869	1765	331,564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9.6-8 9.17-18	태풍·호우	6	920	179	138,503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2.3-24	대설·강풍 ·풍랑		6,511	-	520,615	부산, 광주,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기상청, 기상연보, 2006

II. 농림어가의 인구와 가족



제 2 장 농림어가의 인구

제 3 장 농림어가의 가족



제 2 장 농림어가의 인구

김태헌

제 1 절 농림어가 인구변화 : 1980~2005년

농림어가 총인구의 변화

우리나라의 농가인구는 1980년에 총인구의 28.9%에 해당되는 1,083만 명이었다(〈표 2-1〉 참조). 그 후 농가인구는 빠르게 감소하여 1990년에 총인구의 15.3%인 666만 명이 되었으며, 2000년에는 8.7%인 403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이 감소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5년 후인 2005년에는 7.3%인 343만 명으로 지난 25년 만에 농가인구는 3분의 1로 감소하게 되었다. 1990년부터 5년간 총 27.2%나 감소하였으나 그 후에는 감소속도가 둔화되어 2000년과 2005년에는 각각 16.9%와 14.8%의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표 2-1〉 농림어가 총인구의 변화 (1980~2005년)

(단위: 천명, %)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농가인구	10,827	6,661	4,851	4,031	3,434
(총인구대비)	28.9	15.3	10.9	8.7	7.3
(증 감 륜) ¹⁾	-	-	-27.2	-16.9	-14.8
어가인구	-	496	347	251	221
(총인구대비)	-	1.1	0.8	0.5	0.5
(증 감 륜) ¹⁾	-	-	-30.0	-27.6	-12.0
임가인구	-	-	-	164 ²⁾	264
(총인구대비)	-	-	-	0.4	0.6

주: 1) 지난 5년간 증감률임.

2) 산림청에 임가로 등록(1998년 기준)된 가구대상 조사 결과

어가인구도 농가인구와 같이 감소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1990년에 50만 명으로 총인구의 1.1%였으나 2000년에는 10년 전보다 절반에 해당하는 25만 명이 되었으며, 이 감소는 계속 이어지면서 5년

후인 2005년에는 22만 명이 되었다. 1990년대 전, 후반 각 5년 동안 각각 30.0%와 27.6%씩 감소하여 농가인구의 감소속도를 앞섰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감소속도는 많이 둔화되었으나 5년 동안 12.0%나 감소하였다. 임가의 경우 제1회 임업총조사는 1998년 산림청에 임가로 등록된 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1998년에 임가로 조사된 164천명을 2005년의 임업총조사결과인 264천명과 직접 비교할 수 없었다.

농림어가 성 ·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

농림어가와 전국 평균, 전국 읍면부의 인구구조를 <표 2-2>에서 비교하였다. 어가 인구는 1995년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임가의 경우 1998년에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산림청 등록 임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2005년 총조사결과와 직접 비교하기 곤란하였다. 전국 읍면부는 1990년대 초에 광역시 또는 통합시로 발족하면서 농촌의 개념(종전에는 ‘군부’)으로 쓰고 있다.

1980년의 농가와 읍면부 및 전국평균 인구의 연령별 구조는 매우 유사하였다. 총 인구의 약 3분의 1이 0~14세의 유소년 인구이고,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60% 정도이며, 노인인구는 총인구의 3.9~6.7%에 불과하였다. 특히, 농가와 읍면부의 연령구조가 매우 유사한 것,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구성비가 각각 6.7%와 6.5%로 아주 유사한 것은 농촌의 전통사회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농촌의 산업이 농업중심으로 농가인구와 읍면부(농촌) 인구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할 수 없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1990년에 들어오면서 농촌과 전국인구의 연령별 특성이 달라졌다. 전국 인구의 경우 생산연령인구가 총인구의 69.3%로 70%에 육박하지만, 농가와 읍면부 인구의 경우에는 67% 수준에 머물면서 인구는 고령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더욱이 농가인구와 읍면부 인구의 연령별 특성도 크게 달라졌다. 1980년까지만 하여도 유사하였으나 농가인구의 감소와 함께 농가인구는 빠르게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었으며, 199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1.5%로 읍면부의 9.0%를 훨씬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0~14세의 유소년 인구는 급감하여 겨우 20%선을 유지하게 되었다.

농가인구의 고령화는 이후 더욱 뚜렷하였다.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농가인구의 21%를 상회함으로써 초 고령인구로 변환되었으며, 0~14세 인구는 11.4%까지 감소하였다. 읍면부의 인구는 전국 평균에 비하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농가인구의 변화에 비하면 그 속도는 훨씬 느린 편이다. 2000년의 농가인구가 총인구의 8.7%로 감소하여 읍면부 인구 중에서도 그 비중이 낮아졌으므로 농가인구는 과거의 농촌인구와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2-2〉 주요연령별 인구구성비의 변화 (1980~2005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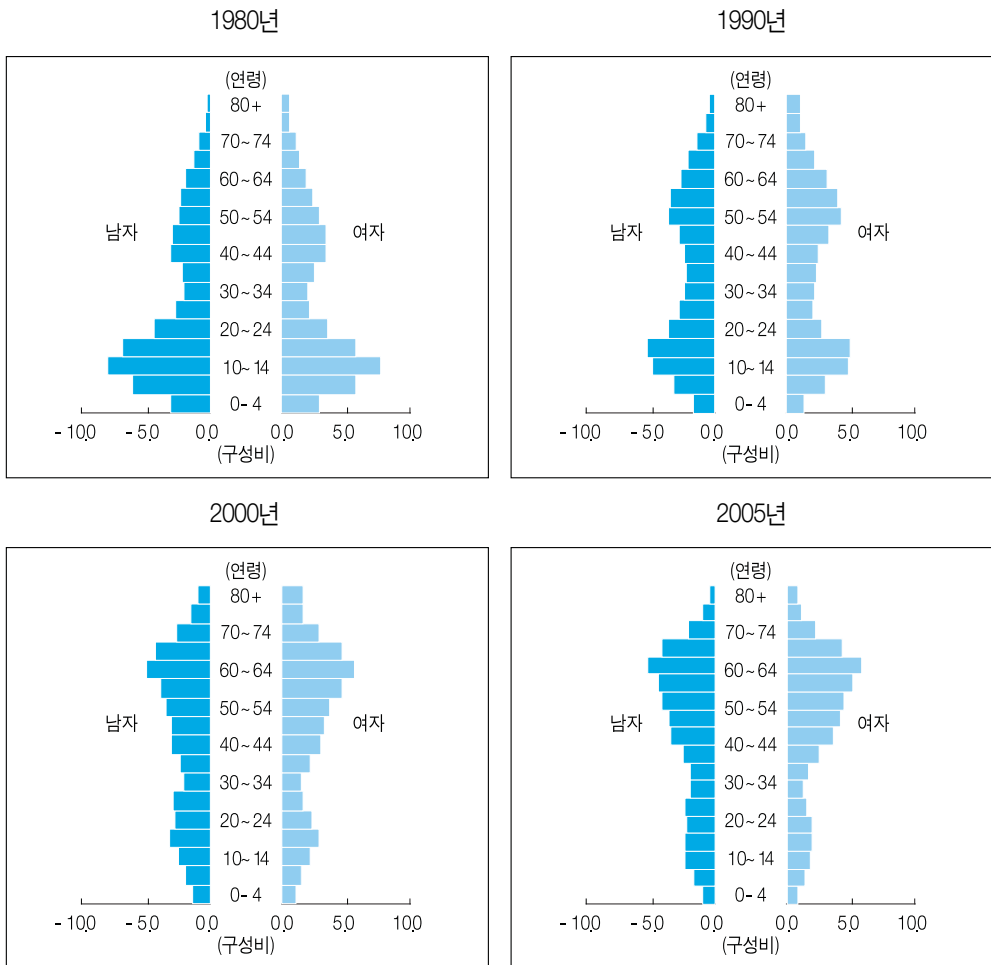
연도 및 연령	농가	어가	임가	읍면부	전국
1980년	100.0	-	-	100.0	100.0
0~14세	33.0	-	-	35.7	33.8
15~64세	60.3	-	-	59.6	62.3
65세 이상	6.7	-	-	6.5	3.9
1990년	100.0	-	-	100.0	100.0
0~14세	20.6	-	-	23.6	25.7
15~64세	67.9	-	-	67.3	69.3
65세 이상	11.5	-	-	9.0	5.0
2000년	100.0	100.0	100.0	100.0	100.0
0~14세	11.4	13.2	5.0	18.6	21.0
15~64세	66.9	74.6	73.5	66.7	71.7
65세 이상	21.7	12.2	21.5	14.7	7.3
2005년	100.0	100.0	100.0	100.0	100.0
0~14세	9.8	10.9	9.7	17.2	19.1
15~64세	61.1	70.3	63.2	64.2	71.6
65세 이상	29.1	18.8	27.1	18.6	9.3

주 : 2000년 임가 자료는 산림청에 임가로 등록(1998년 기준)된 가구대상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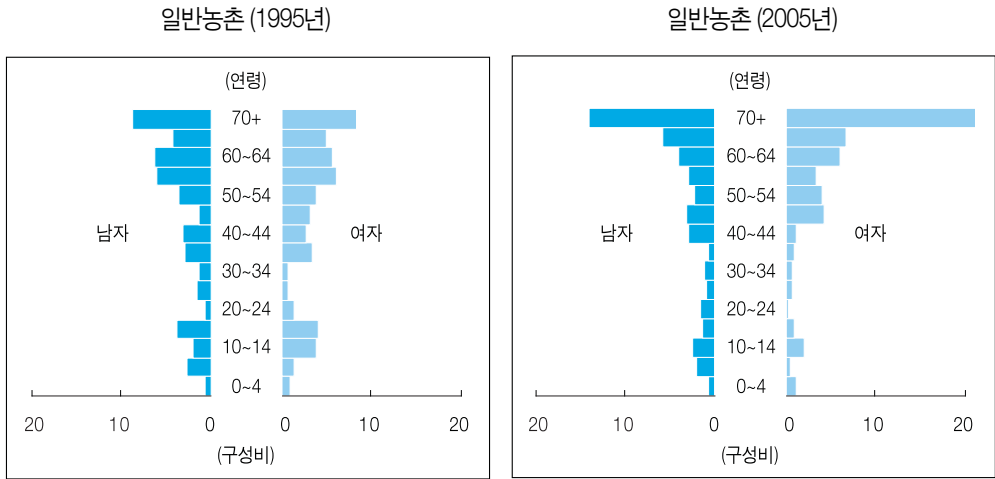
다음 〈그림 2-1〉은 1980년부터 2005년까지 농가인구의 성·연령구조를 피라미드로 그려놓은 것이다. 1980년 인구피라미드는 전형적인 농촌인구형이다. 3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연령층이 도시로 진출함에 따라 40대 이후와 10대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 10세 미만의 인구가 적은 것은 부모세대의 진출에 따른 출생아수의 감소라고 할 수 있다. 젊은 연령층의 유입이 없는 지속적인 진출은 10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인구의 상대적 구성비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1990년 인구피라미드에서 이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년 전에 40대가 많았으나 이 때는 50대로 연령이 높아졌고, 2000년 피라미드에서 60대의 고령층 인구구성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젊은 연령층에서는 전입은 없고, 진출만 꾸준히 이루어지는 관계로 구성비는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2005년도에 더욱 심화되었다. 고령층은 60대 이후로 높아지고, 젊은 연령층은 사라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현상이 지속된다면 노인인구의 사망과 젊은 인구의 진출로 농가인구는 극소해지고, 농가 중심의 농촌사회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충북의 일반농촌조사에서 잘 나타나 있다(〈그림 2-2〉 참조). 농업중심 농촌마을의 인구구조는 60대

이상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사회이며, 이 고령층 인구가 사망하는 시기에는 농촌사회 자체가 사라지거나 농업중심의 농촌과 다른 형태의 사회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어가 인구와 읍면부의 인구구조를 <그림 2-3>에서 비교하였다. 농가, 임가, 어가 인구 모두 젊은 젊은 연령층 인구가 두터운 고령층인구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농가와 임가의 인구구조가 매우 유사하였다. 그러나 읍면부의 인구구조는 위의 세 인구구조와 매우 달랐다. 어린 연령층부터 70대 고령층까지 인구구조가 균형이 잡혀 있다. 40대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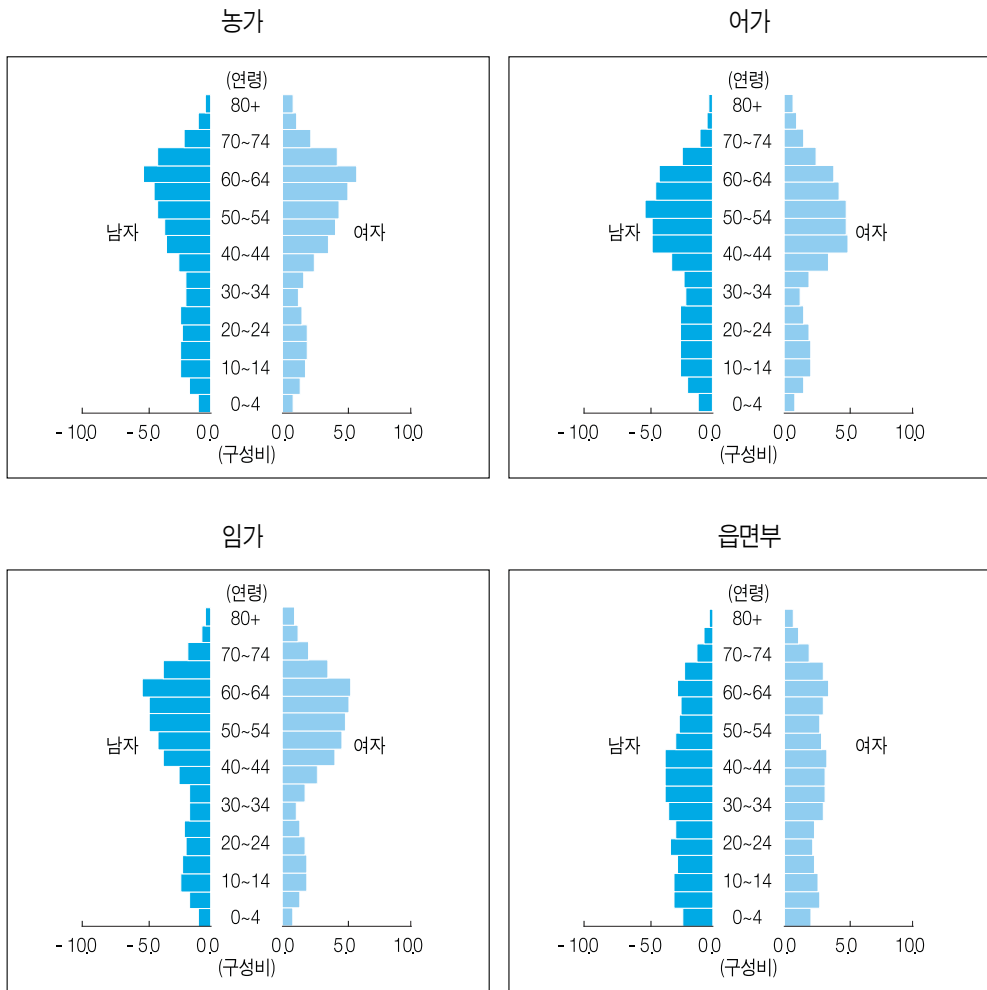


<그림 2-1> 농가인구 구조의 변화 (1980~2005년)



〈그림 2-2〉 충북의 일반농촌 (1995, 2005년)

같은 농촌이면서 읍면부의 인구구조와 농림어가인구의 인구구조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농촌, 즉 Rural areas의 인구와 농림어가인구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특성도 다르다는 것이다. 총 인구의 약 30%가 농가인구였던 1980년경까지는 농촌인구의 대부분이 농가인구와 일치하였으나 농가인구가 총인구의 7~8%에 불과한 2000년 이후에는 농촌(읍면부)인구의 대다수가 비농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농가인구의 연령구조와 차이가 커졌다고 하겠다.



〈그림 2-3〉 농림어가 인구와 읍면부 인구구조 비교 (2005년)

농어가인구의 성비변화

우리나라 인구의 특성 중 하나는 남아선호로 나타나는 높은 출생성비이다. 1980년대 초부터 높아지기 시작한 높은 출생시 성비는 1990년에 116.6으로 가장 높았으며(통계청, 1996), 그 후 점차 낮아지고 있다. 농가인구의 규모와 연령별 구성비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어도 높았던 출생성비의 영향은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

1980년 0~4세 인구의 성비가 106.0으로 정상수준이었으나 1990년에 112.6으로 급상승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2005년까지 이어졌다(〈표 2-3〉 참조). 2000년 0~4세 인구의 성비(111.7)와 2005년의 성비(110.7) 모두 여전히 110을 상회하고 있으며, 2000년 5~9세 인구의 성비는 115.2로 1990년대 전반기에 출생한 아이들의 성비가 가장 높았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연령층의 코호트(cohort)는 2005년에 10~14세가 되며, 이 때의 성비(115.8)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농촌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별 이동의 차이로 일부 연령층에서는 성비가 매우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젊은 연령층에서 여성의 도시진출이 먼저 나타나고, 이어서 남자가 이동한다. 여성의 이동이 쉬운 것은 서비스직이나 단순 직종에 취업이 수월하기 때문이며, 남자의 경우 앞으로 생업을 정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며,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것도 생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도시로의 이동이 늦어지고,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다. 이것은 이 연령대에서 성비의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1980년까지 성비가 가장 높았던 연령층은 25~29세이며, 그 이전에는 20~24세에서 성비가 가장 높았다. 성비가 가장 높았던 연령층은 2000년까지 변동이 없었으나 2005년에는 30~34세에서 성비가

〈표 2-3〉 농가인구의 연령별 성비 변화(1980~2005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계	100.1	96.9	95.7	95.4
0~4세	106.0	112.6	111.7	110.7
5~9세	106.0	104.9	115.2	113.0
10~14세	104.2	100.9	108.5	115.8
15~19세	117.4	107.0	105.3	111.1
20~24세	122.9	128.5	111.3	107.8
25~29세	124.2	139.3	167.7	139.4
30~34세	98.8	105.3	131.5	148.9
35~39세	84.4	91.4	101.2	109.9
40~44세	88.4	93.1	96.8	94.5
45~49세	88.2	82.7	88.0	92.2
50~54세	82.4	85.7	90.1	86.1
55~59세	89.9	85.9	80.8	90.2
60~64세	96.6	84.9	85.9	83.9
65~69세	90.5	93.9	87.7	88.2
70~74세	75.1	91.9	86.8	92.3
75~79세	59.3	70.6	85.0	87.4
80세 이상	40.4	38.7	48.0	54.9

가장 높았다. 물론 1990년, 2000년에도 성비가 높은 연령층이 높아지고 있었으며, 2000년의 25~29세 연령층의 성비가 167.7로 가장 높았다. 2005년에는 성비의 높은 수준이 주위 연령층으로 분산되면서 가장 높은 성비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졌다.

먼저 1990년까지 20~24세 인구의 성비가 높았으나 그 후에는 110 전후로 낮아졌다. 이 연령층에서는 여성이 취업과 혼인의 영향으로 먼저 진출하는데서 오는 결과이다. 그러나 1990년 이후에는 이 성비가 낮아지는 것은 남녀 모두 진학 등으로 진출이 심화되면서 이동이 어려운 그룹만 농가에 잔류하는데서 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25~29세와 30~34세의 성비가 급증하는데 이것은 그 동안 남녀의 성비가 높아지면서 여성의 진출이 먼저 일어나고, 남자의 진출이 이어지는데서 오는 결과이다.

노년층의 성비도 변화하고 있다. 일반적인 연령별 성비의 패턴은 출생시 성비가 105 전후로 시작되어 서서히 낮아지다가 40~50세경부터 빠르게 감소한다. 이것은 성별 사망률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가인구에서는 60세가 지나면서 성비가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2-3>에 의하면 1980년에 60~64세 인구의 성비가 96.6으로 주변보다 높았으며, 1990년에는 65~69세 인구의 성비가 주변의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이것은 2005년에 다시 70~74세로 높아졌다. 노년층에 들어가면서 성비가 낮아져야 하는데 높아지는 이유도 성별 이동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노년층에서 할아버지의 진출보다는 할머니의 진출이 유리한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할머니들의 경우 배우자 사망 후에 자녀들과 재결합하는데 할아버지들보다 수월하다. 할머니들은 성년 자녀와 동거하면서 아이들 관리, 집안관리 등과 같은 역할이 있지만 할아버지들의 경우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성년 자녀들과 재결합이 어려운데서 오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김태현, 1993). 노년층에서 성비가 상승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배우자 사망시기가 늦어지는데서 오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80세 이상 노인의 성비도 빠르게 상승한다. 이것은 남녀 모두 평균수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안정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2005년 농림어가인구의 연령별 성비를 비교하고, 전국 읍면부(농촌)의 성비와 비교한 내용도 다음과 같다(<표 2-4> 및 <그림 2-4> 참조). 성비가 가장 높은 연령층은 임가가 25~29세이고, 농어가는 모두 30~34세였다. 그러나 읍면부에서는 20~24세의 성비가 가장 높았다. 이것도 읍면부 인구의 직업은 비농림어업이 중심이고, 대부분의 인구는 도시에 인접한 지역에 밀집하고 있으므로 젊은 여성의 도시진출이 훨씬 수월한데서 나타난 결과이다.

60세 이상 노인계층에서 성비의 상승현상은 농림어업가구 인구에서는 배우자 사망 후 도시의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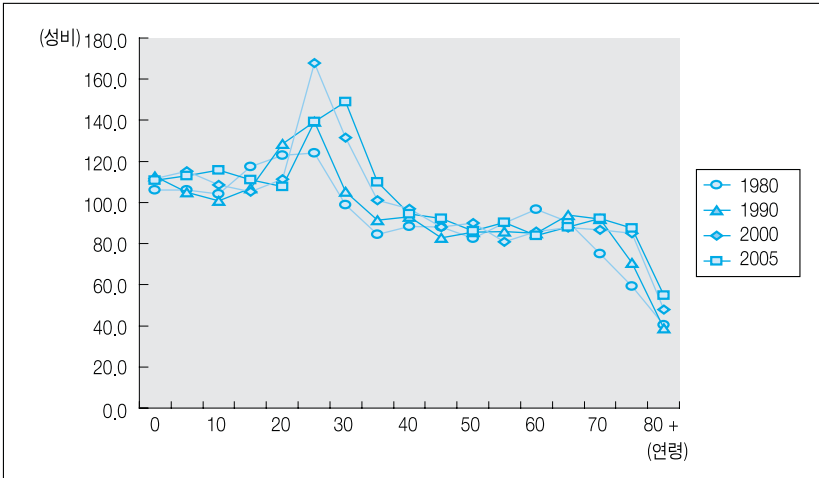


〈표 2-4〉 농림어가 인구의 연령별 성비 비교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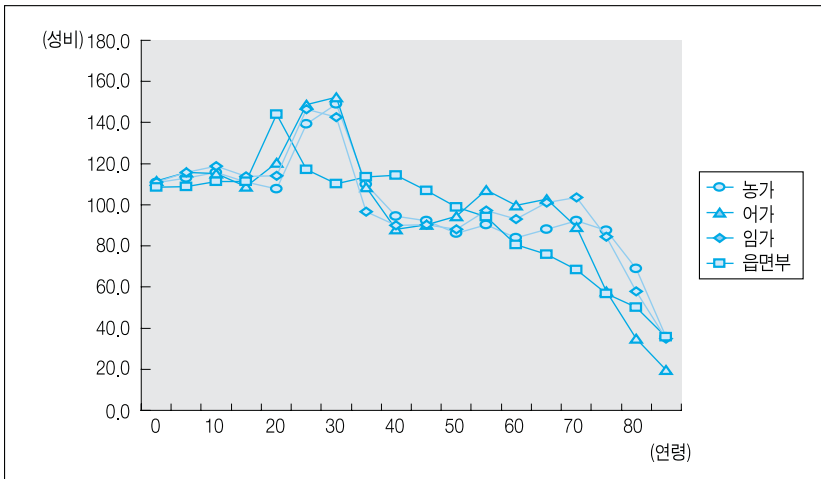
	농 가	어 가	임 가	전국 읍면부
계	95.4	100.2	98.3	98.5
0~4세	110.7	111.5	111.1	108.6
5~9세	113.0	115.7	115.8	108.8
10~14세	115.8	115.3	118.7	111.2
15~19세	111.1	108.8	113.8	111.3
20~24세	107.8	120.6	114.1	143.9
25~29세	139.4	148.8	146.4	117.2
30~34세	148.9	152.2	142.7	110.2
35~39세	109.9	108.5	96.6	113.6
40~44세	94.5	88.2	90.1	114.4
45~49세	92.2	90.3	90.3	107.0
50~54세	86.1	94.4	88.0	98.9
55~59세	90.2	107.2	97.3	94.1
60~64세	83.9	99.8	93.0	80.7
65~69세	88.2	102.7	101.0	76.0
70~74세	92.3	89.1	103.7	68.4
75~79세	87.4	57.9	84.4	56.8
80~84세	69.0	34.9	57.8	50.2
85세 이상	35.8	19.7	34.9	35.8

인자녀들과 재결합하는 경우로 설명하였으나, 읍면부에서는 일시적인 상승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도시의 인근 읍면지역에 대부분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도시자녀와의 재결합과 같은 현상은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다. 1990년대 초까지 나타났던 근교농촌 고령인구에서의 성비상승현상(문옥표 외, 1995)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1. 농가인구의 연령별 성비 변화 (1980~2005년)



2. 농림어가 인구의 연령별 성비 비교 (2005년)



〈그림 2-4〉 농림어가 인구의 연령별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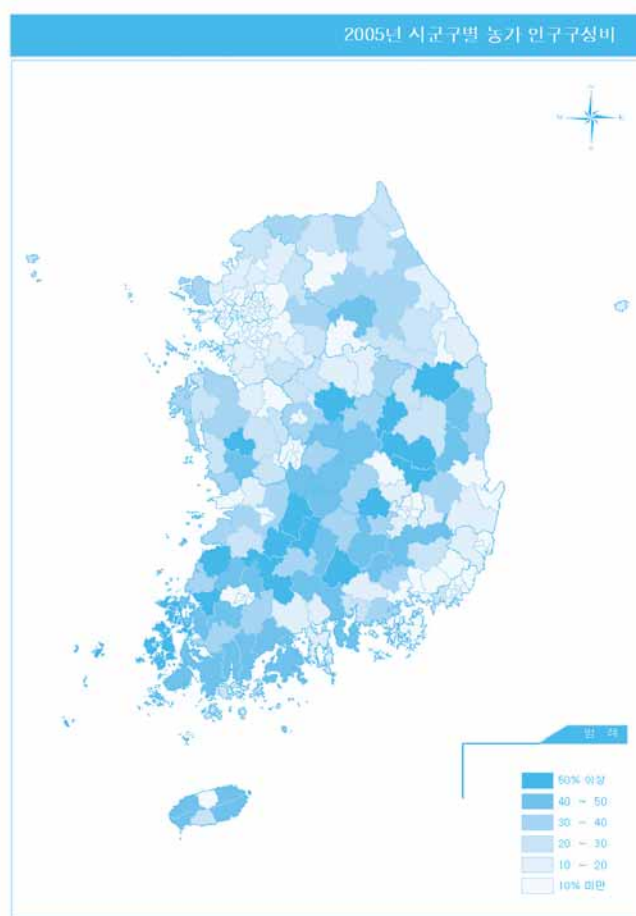
지역별 인구의 비교

시·군·구별 농가, 어가 및 임가의 인구분포를 〈그림 2-5〉, 〈그림 2-6〉 및 〈그림 2-7〉에 지도로 그렸다. 대도시 부근과 수도권(서울, 인천 및 경기도)을 중심으로 시·군·구별 총인구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으로 낮았다. 농가인구가 총인구의 40% 이상인 군은 남부권의 북동



쪽에서 서남방향의 소백산맥과 노령산맥 주위의 순수 농업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경상북도와 전라 남북도에 농가인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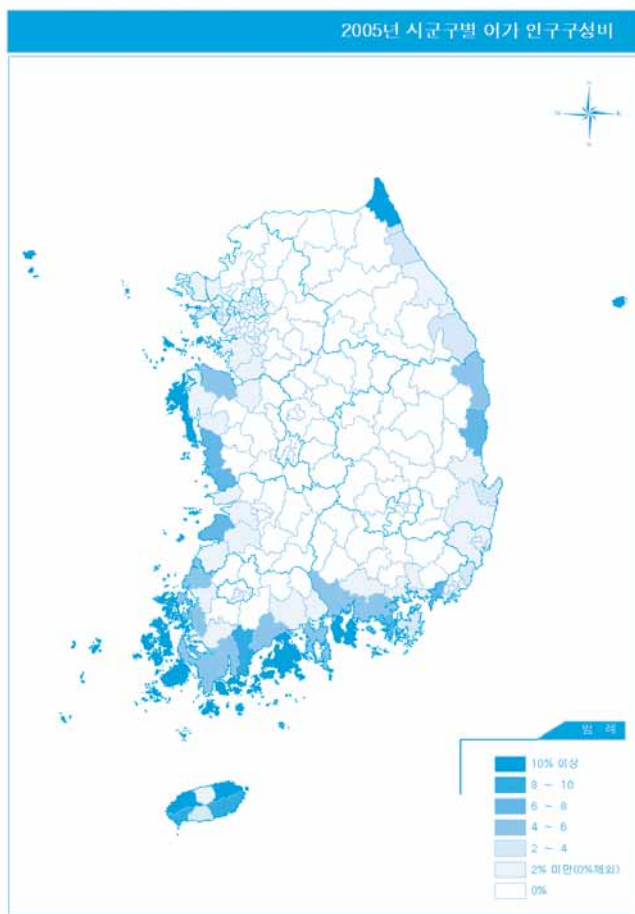
어가인구의 경우에는 특성상 해안에 분포되어 있다. 남해안과 서해안, 제주도와 강원도의 고성군, 그리고 도서지역 어가 인구의 비중이 그 시군 총인구의 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5〉 시·군·구별 농가 인구분포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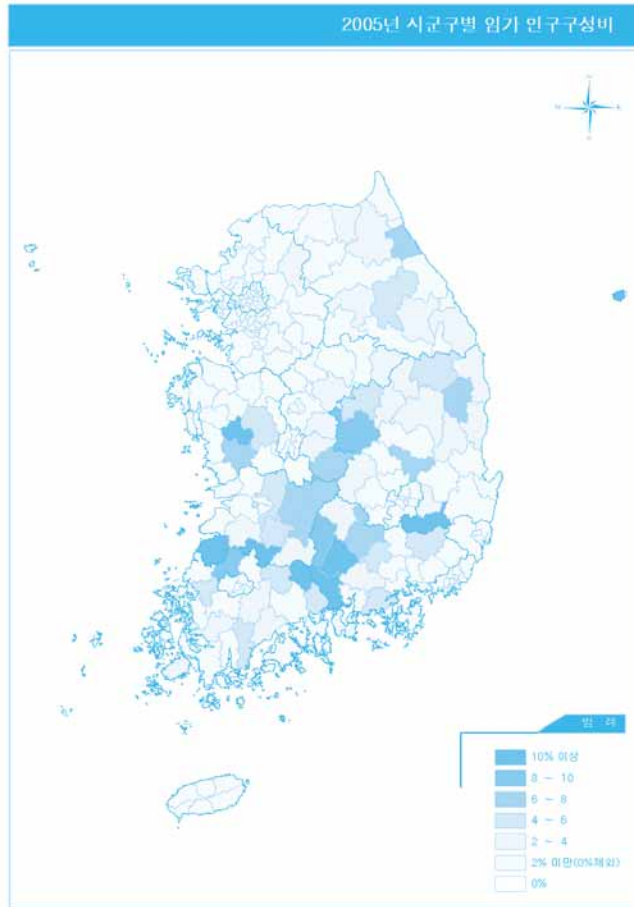
임가 인구의 경우 어가인구분포와 달리 내륙 시군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산간지역 중심으로 임가 인구가 분포되어 있는데 농가인구의 분포와 유사하게 소백산맥과 노령산맥 중심의 분

포를 이루고 있다. 그외 지역으로는 충남 칠갑산 부근(청양군), 강원도 양양군 등 일부지역에서 임가 인구가 총인구의 6% 이상을 차지하였다. 임가의 95% 이상이 농업 겸업가구이며, 임업경영이 과거 벌목이나 채취 중심에서 임산물의 논·밭재배가 늘어나면서 태백산맥 주위의 군보다 남부 산간지역의 임가 인구분포가 높아졌다.



〈그림 2-6〉 시·군·구별 어가 인구분포 (2005년)

이상의 분포특성으로 볼 때 농가, 어가 및 임가 인구의 분포중에서도 농가와 임가 인구의 분포는 산간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산간지역 소재 군의 특성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를 들 수 있으며, 농가와 임가 인구의 비중이 높은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림 2-7〉 시·군·구별 임가 인구분포 (2005년)

제 2 절 농림어가 인구의 특성변화

농림어가 인구의 특성으로 교육정도와 혼인상태를 선택하였다. 이 두 특성은 인구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교육정도는 직업, 소득 등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이고, 혼인상태는 출산수준에 영향을 주며, 가족형태를 설명해 주는 요인이다. 그리고 농림어업총조사에서 이 두 항목 모두 조사되었으므로 농가, 임가, 어가인구 간에 비교가 가능하고, 전국 읍면부의 인구특성과 비교할 수 있다.

교육정도별 인구

농가 20세 이상 인구의 연령별 교육정도를 2000년과 2005년의 총조사결과로 <표 2-5> 및 <그림 2-8>에서 비교하였다. 연령은 20세 이상만 비교하였다. 5세 이상에 대한 조사결과가 있으나 고등학교까지의 취학은 거의 100%에 접근하고, 유소년 인구의 구성비가 극히 낮으므로 실제 농림어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계층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20세 미만에서는 재학의 구성비가 높으므로 완결기준의 교육정도를 비교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점도 있다.

남자 20세 이상 인구의 교육정도는 2000년에 초등학교(33.7%), 고등학교(25.8%), 중학교(16.2%)의 순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에 초등학교의 구성비(31.5%)가 감소하였으나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는 변동이 없었다. 대신 전문대 이상 고학력자의 구성비가 2000년에 12.3%에서 2005년에는 16.6%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자의 경우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으나 남자와 달리 20세 이상 인구에서 초등학교 졸업자가 감소하고, 중·고등학교 모두 증가하였다. 전문대 이상도 6.3%에서 9.1%로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

농업 종사자의 중심연령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와 50대 농가인구의 학력별 인구구성비를 비교하였다. 40대(40~49세)에서 전문대(대졸 포함)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자가 2000년에 그 연령의 인구 중에서 6.6%였으나 2005년에는 2.3배나 되는 15.3%로 급증하였다. 여자의 경우는 같은 기간에 1.6%에서 5.6%로 3.5배나 되어 남자에 비하여 여자의 학력수준이 훨씬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남녀 공히 중심 학력소지자가 되었다. 2000년에 40대 남자의 고등학교 졸업자는 총 인구의 34.2%(2000년)에서 5년 만에 45.7%(2005년)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한편 여자는 같은 기간에 16.5%에서 34.1%로 증가하여 고졸이 중심학력이 되었다. 2000년의 중심학력이 여자의 경우 초등졸업이었으므로 중심학력이 고등학교로 상승한 것은 고령자의 학력수준도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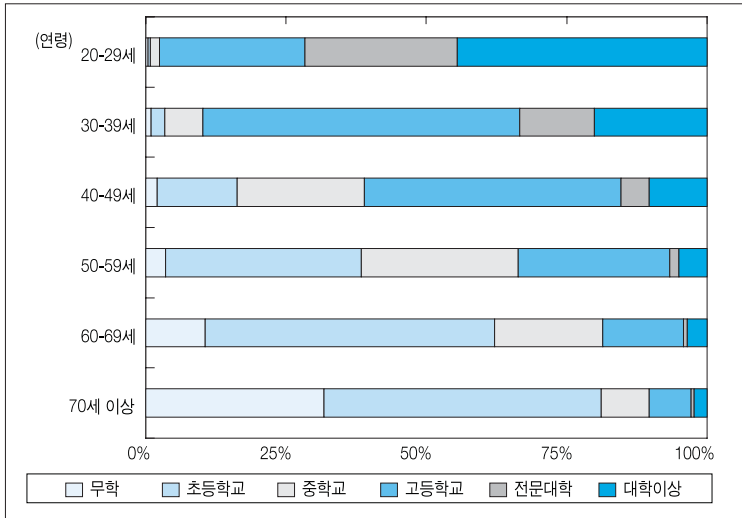
의미한다. 50대에서도 학력수준이 빠르게 상승하여 40대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농가인구의 학력수준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학력수준의 상승은 농업 경영의 전문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5〉 성·연령별 농가인구의 교육정도별 인구구성비 변화 (2000년,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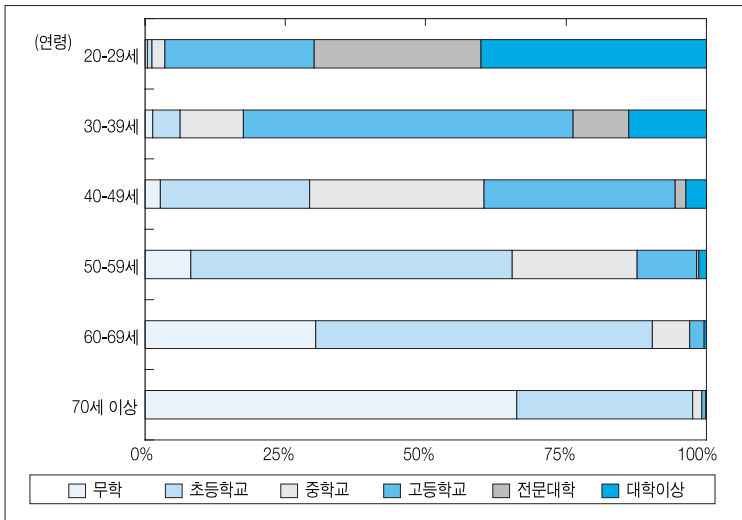
(단위 : %)

연 도	성·연령	계	무 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이상
2000년	남 자	100.0	12.1	33.7	16.2	25.8	5.0	7.3
	20~29세	100.0	0.4	0.9	3.7	46.5	21.8	26.6
	30~39세	100.0	1.2	7.4	15.2	56.1	8.2	11.9
	40~49세	100.0	2.2	27.1	29.9	34.2	2.6	4.0
	50~59세	100.0	6.0	47.2	25.4	18.0	0.8	2.7
	60~69세	100.0	16.5	55.2	13.8	11.4	0.7	2.4
	70세 이상	100.0	48.1	42.2	5.2	3.1	0.4	0.9
	여 자	100.0	28.7	40.2	11.4	13.3	3.1	3.2
	20~29세	100.0	0.4	1.5	4.2	45.5	25.1	23.4
	30~39세	100.0	1.7	15.0	25.4	48.7	4.0	5.2
	40~49세	100.0	4.2	47.4	30.4	16.5	0.6	1.0
	50~59세	100.0	16.6	66.6	12.1	4.1	0.2	0.4
	60~69세	100.0	43.2	52.0	3.5	1.2	0.1	0.1
	70세 이상	100.0	79.9	18.8	0.7	0.4	0.1	0.1
2005년	남 자	100.0	9.8	31.5	16.3	25.8	5.7	10.9
	20~29세	100.0	0.4	0.5	1.7	25.9	27.1	44.5
	30~39세	100.0	1.0	2.4	6.8	56.5	13.2	20.1
	40~49세	100.0	2.1	14.2	22.7	45.7	5.1	10.2
	50~59세	100.0	3.5	34.9	27.8	27.1	1.6	5.0
	60~69세	100.0	10.6	51.5	19.3	14.4	0.6	3.5
	70세 이상	100.0	31.7	49.4	8.6	7.5	0.6	2.3
	여 자	100.0	24.5	39.2	12.5	14.7	3.7	5.4
	20~29세	100.0	0.4	0.8	2.3	26.5	29.7	40.2
	30~39세	100.0	1.4	4.9	11.2	58.8	9.9	13.8
	40~49세	100.0	2.8	26.6	31.0	34.1	1.9	3.7
	50~59세	100.0	8.1	57.4	22.2	10.6	0.5	1.3
	60~69세	100.0	30.4	59.9	6.7	2.5	0.1	0.4
	70세 이상	100.0	66.2	31.3	1.6	0.7	0.0	0.1

(남 자)



(여 자)



〈그림 2-8〉 성·연령별 농가인구의 교육정도별 인구구성비 비교 (2005년)

농가인구의 2005년 성·연령별 교육수준을 비교하면 남녀 모두 연령이 낮아질수록 학력수준의 변화가 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남자의 경우 50대까지 초등학교 졸업이 중심 학력이었으나 40대에서는 중심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으로 높아졌으며, 30대에서는 전체의 56.5%가 고졸이었다. 그리



고 전문대 이상이 33.3%로 중학교 이하인 10.2%를 크게 상회하였다. 이러한 학력상승은 20대에서 전문대 이상이 전체의 71.6%로 농가인구에서도 대졸이 보편적인 학력수준으로 변화하였다.

여자의 경우도 남자와 아주 유사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연령이 낮아지면서 학력 상승의 정도가 늦은 것은 있지만 오히려 상승 속도는 더욱 빨랐다. 2005년에는 50대까지 초등학교 졸업이 중심학력으로 남자와 동일하였으나 남자의 경우 50대에서 초등졸업이 34.9%인데 비하여 여자는 57.4%로 그 차이가 22.5%p나 되었다. 그러나 40대에서는 중심학력이 중·고등학교 졸업으로 옮기면서 초등졸업은 26.6%로 낮아져서 남자의 경우(14.2%)에 비하여 그 차이가 12.4%p로 빠르게 감소하였다. 또한 여자 40대부터 학력의 중심이 고등학교졸업으로 상승하여 30대에는 58.8%가 고등학교 졸업자가 되었다. 20대에서는 전문대 이상이 전체의 69.9%로 남자(71.6%)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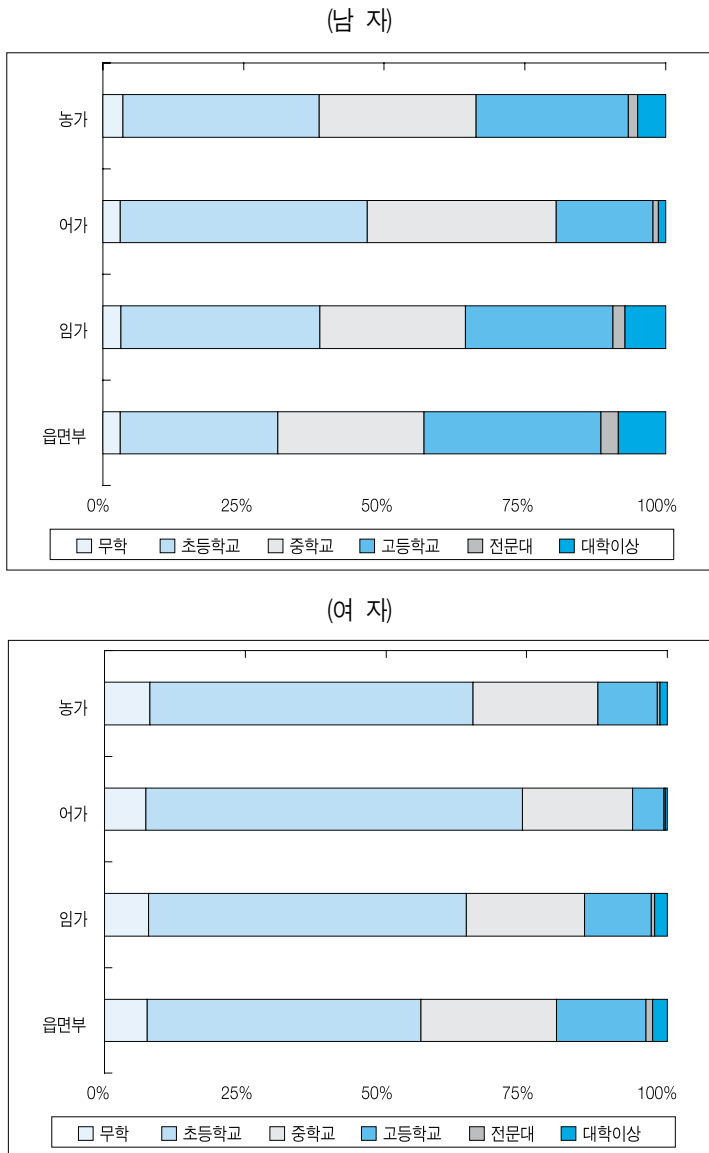
농림어가인구와 읍면부 50대(50-59세)인구의 교육정도를 비교하였다. 농림어가인구의 중심연령

〈표 2-6〉 성·교육정도별 농림어가 및 읍면부 인구구성비의 비교 (50~59세, 2000년 및 2005년)

(단위: %)

연도	성지역	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이상
2000년	남자							
	농가	100.0	6.0	47.2	25.4	18.0	0.8	2.7
	어가	100.0	4.5	53.6	29.1	11.6	0.4	0.7
	읍면부	100.0	5.2	38.7	24.9	23.0	2.2	6.0
	여자							
	농가	100.0	16.6	66.6	12.1	4.1	0.2	0.4
	어가	100.0	16.0	70.8	10.5	2.5	0.1	0.1
	읍면부	100.0	16.1	58.5	15.1	7.6	1.7	1.1
	2005년	남자						
농가		100.0	3.5	34.9	27.8	27.1	1.6	5.0
어가		100.0	3.1	44.0	33.5	17.3	0.9	1.3
읍면부		100.0	3.2	35.3	25.9	26.2	2.2	7.2
읍면부		100.0	3.1	28.0	26.0	31.5	3.1	8.4
여자								
농가		100.0	8.1	57.4	22.2	10.6	0.5	1.3
어가		100.0	7.4	66.8	19.7	5.6	0.2	0.3
읍면부		100.0	7.8	56.5	21.0	11.9	0.5	2.3
읍면부	100.0	7.6	48.6	24.1	15.9	1.2	2.6	

층이 50세 이상이므로(〈그림 2-1〉 참조) 그 중 가장 젊은 연령층인 50대를 비교대상으로 하였다. 비교결과, 농림어가 인구에 비하여 읍면부 인구의 교육수준이 높았다. 2000년 농가인구(남)는 대학이상이 전체의 2.7%, 읍면부는 6.0%로 농가인구의 두 배를 넘었으나 2005년에는 농가인구의 경우 구



〈그림 2-9〉 농림어가 및 읍면부 인구의 교육정도별 인구구성비 비교 (50~59세, 2005년)



성비가 5.0%로 상승하였고, 읍면부 인구는 8.4%가 되어 농가인구의 고학력화가 읍면동보다 더욱 빠르게 변화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6〉 및 〈그림 2-9〉 참조). 앞서서도 논의한 것과 같이 과거 읍면부의 산업은 농림어업중심이었으나 최근에서는 비농림어업인구가 중심이 되면서 과거 농촌의 직업 및 산업의 특성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림어가 인구의 교육수준은 비농림어가인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000년 자료에서는 농가와 어가인구의 교육수준만 비교할 수 있었으며 임가인구의 교육수준은 2005년에만 비교하였다. 농림어가 중에서는 농가(2000년 및 2005년)와 임가(2005년)인구의 교육정도가 어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농가 남자 50대의 전문대 이상 학력인구는 2000년에 전체의 3.5%에서 2005년에 6.6%로 증가하였으며, 어가인구의 경우도 같은 기간에 1.1%에서 2.2%로 유사한 변화가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오히려 커졌다.

임가 인구의 교육 수준은 2005년에만 비교할 수 있으며, 남자의 경우 전문대 이상 학력인구가 전체의 9.4%로 농가인구(6.6%)보다 크게 앞서고, 읍면부의 11.5%에 비교되는 높은 수준이었다. 이와 같이 농가와 임가 인구의 교육수준이 어가인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더 나은 교육환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어가인구의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나타나는 것(〈표 2-2〉 참조)도 지역적 영향과 산업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교육수준이 다른 농가와 임가 인구보다 낮은 것도 지역적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환경과 지리적 접근성으로 도시진출에 제약을 받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혼인상태

농림어가인구에 대한 혼인상태별 자료는 2005년 총조사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농가인구의 성, 연령별 혼인상태를 비교하였고, 농림어가와 읍면부 인구의 혼인상태별 인구의 비교는 30대 인구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농가인구의 혼인상태도 총조사에서는 15세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 혼인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20세 미만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에 대해서만 〈표 2-7〉과 〈그림 2-10〉에 정리하였다.

농가인구 중 남자의 경우 20세 이상 전체에서 미혼율과 유배우율이 각각 17.3%와 76.9%로 여자의 미혼율(8.5%)과 유배우율(69.6%) 보다 모두 높았다. 미혼율이 높으면 유배우율이 낮아지지만 우리

나라 여자의 경우 사별률(21.4%)이 남자에 비하여 극히 높은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연령별로 비교하여 보면, 남자의 미혼율은 30대 후반에서도 35.6%를 유지하였으며, 40대 후반에서 5%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30대 초에 26.6%까지 낮아졌으며 후반에는 6.5%가 되었다. 그러므로 유배우율은 남자의 경우 40대 초가 되어서 79.1%로 80%에 접근하고, 50대에 약 95%에 근접하는 최고점에 도달한 후 감소한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30대 후반에 90%를 넘고, 40대 초에는 95.7%로 최고점에 도달하여 60대 이후에 빠르게 감소한다.

이혼율은 여자(0.4%)에 비하여 남자(1.8%)의 경우 높았으며, 특히 남자 30대와 40대에서 5~6%까지 높아진다. 여자의 경우도 30대와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나 그 비율은 2% 미만으로 낮다. 대신 여자의 경우 사별률이 50대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70세 이상에서도 58.9%가 사별상태이다. 이것은 남자의 11.9%에 비하여 크게 높았다. 그 이유는 여자의 평균수명이 남자에 비하여 6~7년 높은 것과 재혼율이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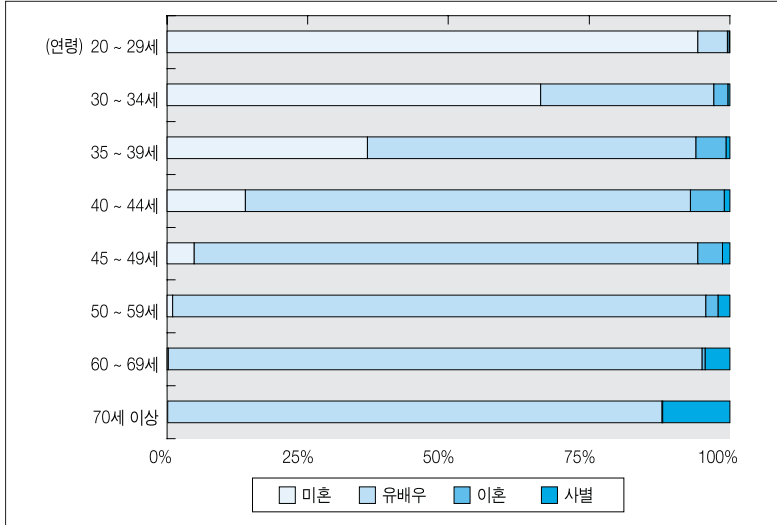
<표 2-7> 성 · 연령별 농가인구의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 (2005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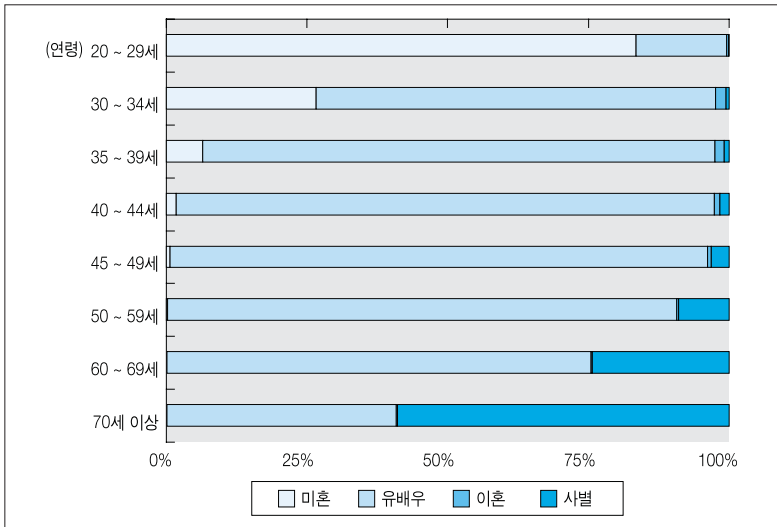
성 · 연령	계	미 혼	유배우	이 혼	사 별
남 자	100.0	17.3	76.9	1.8	4.0
20~29세	100.0	94.3	5.2	0.3	0.1
30~34세	100.0	66.3	30.8	2.5	0.3
35~39세	100.0	35.6	58.5	5.4	0.6
40~44세	100.0	13.9	79.1	6.0	1.0
45~49세	100.0	4.8	89.5	4.3	1.4
50~59세	100.0	1.0	94.7	2.1	2.1
60~69세	100.0	0.2	94.9	0.5	4.4
70세 이상	100.0	0.1	87.9	0.1	11.9
여 자	100.0	8.5	69.6	0.4	21.4
20~29세	100.0	83.4	16.1	0.3	0.1
30~34세	100.0	26.6	71.0	1.8	0.6
35~39세	100.0	6.5	91.0	1.7	0.9
40~44세	100.0	1.7	95.7	1.0	1.6
45~49세	100.0	0.6	95.6	0.6	3.2
50~59세	100.0	0.2	90.5	0.3	9.0
60~69세	100.0	0.1	75.4	0.2	24.3
70세 이상	100.0	0.1	40.8	0.2	58.9



(남 자)



(여 자)



<그림 2-10> 성·연령별 농가인구의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 비교 (2005년)

농림어가인과 읍면부 인구의 혼인상태를 비교하였다. 혼인이 가장 많은 연령층인 25~29세가 지나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30~39세 인구의 혼인상태를 <표 2-8> 및 <그림 2-11>에 수록하였다.

농림어가 남자인구의 미혼율(43.9~51.3%)이 읍면부 인구(29.6%)에 비하여 특히 높았으며, 이혼율

도 함께 높게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농가와 임가의 미혼율(15.3%, 12.2%)이 높으며, 이혼율(1.1~1.8%)은 읍면부(2.8%)에 비하여 낮았다. 여기서 농림어가의 혼인긴장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남녀 모두 읍면부인구보다 미혼율이 높았으나 그 정도는 남자의 경우 더욱 심하였다.

농림어가 30대 남자인구의 미혼율은 43.9~51.3%로 읍면부 인구의 29.6%보다 2배 가까이 되었다. 농가와 임가인구의 경우 더욱 심하였으며 어가인구의 미혼상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리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동이 더 자유스러운 농가인구와 임가인구에서 남자의 미혼율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서 여자의 미혼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것은 남녀 모두 이 연령층의 인구구성비가 낮으며 혼인이 어려운 사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서 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농림어가 인구의 이혼상태는 남자의 경우 읍면부 인구에 비하여 높으나 여자의 경우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즉, 남자의 경우 이혼율이 농림어가 인구에서 3.4%(임가)~5.9%(어가)까지로 높았으나 읍면부 인구는 2.8%로 낮았다. 여자의 경우는 농림어가인구에서 1.1%(임가)~1.8%(어가)이지만 읍면부 인구는 2.8%로 약 2배나 되었다.

이혼율의 지역별, 성별 차이는 지리적 차이와 성별 이동의 차이에서 나타난다. 우선 농림어가 인구 중에서 이혼할 경우 남자의 경우 타지역 전출이 상대적으로 어렵지만 여자의 경우 그 이동이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남자의 경우 읍면부 인구에 비하여 이혼율이 높았으며, 여자의 경우 반대로 낮았던 이유이다. 또한 농림어가 중 어가인구에서 남녀 모두 이혼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것은 지리적인 영향으로 어촌의 인구이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데서 오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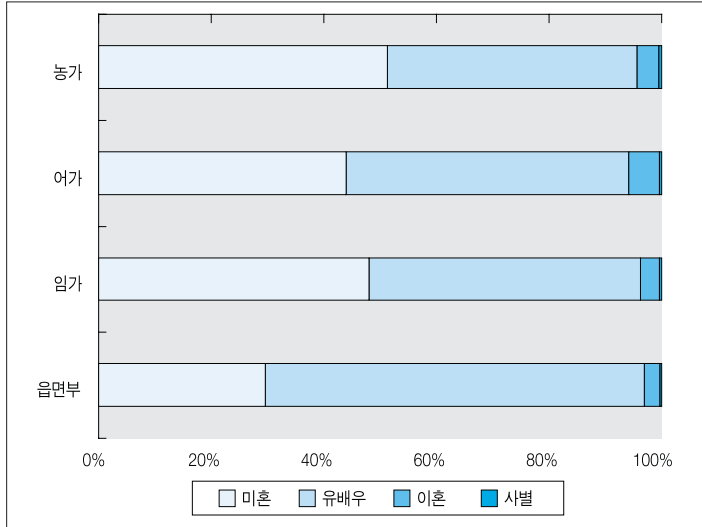
〈표 2-8〉 성 및 혼인상태별 농림어가 및 읍면부 인구구성비의 비교 (30~39세, 2005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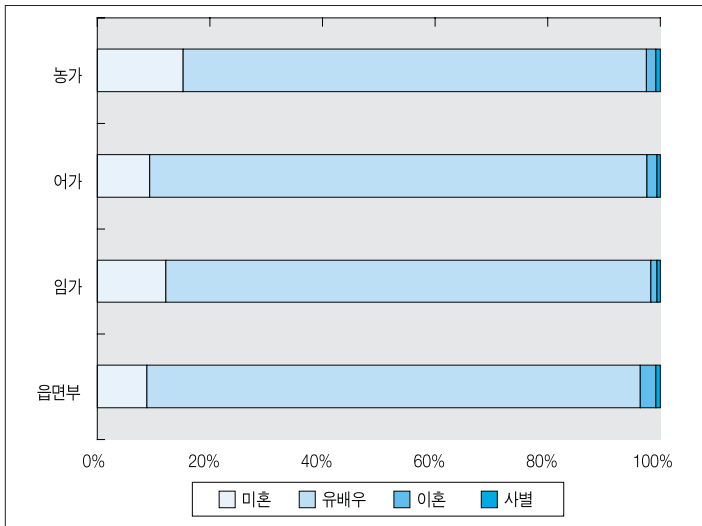
성 · 지역	계	미 혼	유배우	이 혼	사 별
남자					
농 가	100.0	51.3	44.3	3.9	0.5
어 가	100.0	43.9	50.2	5.5	0.4
임 가	100.0	48.0	48.2	3.4	0.4
읍면부	100.0	29.6	67.3	2.8	0.3
여자					
농 가	100.0	15.3	82.2	1.7	0.8
어 가	100.0	9.3	88.3	1.8	0.6
임 가	100.0	12.2	86.1	1.1	0.6
읍면부	100.0	8.8	87.6	2.8	0.8



(남 자)



(여 자)



〈그림 2-11〉 농림어가 및 읍면부 인구의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의 비교 (30~39세, 2005년)

3. 농가인구의 주 종사분야 및 주 종사기간별 인구, 2005

농가인구의 2005년 주 종사분야별 인구분포를 <표 2-9>에서 연령별로 비교하였다. 20세 이상 남자인구의 72.3%가 농림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여자의 비율도 72.4%로 높았다. 연령별로 볼 때 40

<표 2-9> 농가인구의 주종사분야별 인구구성비 (2005년)

(단위 : %)

		계	농업 및 임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산업	종사하지 않았음
농 가	남 자	100.0	72.3	0.9	2.2	1.8	1.3	0.6	12.0	8.9
	20~29세	100.0	8.4	0.2	6.1	1.7	1.5	0.6	27.3	54.2
	30~39세	100.0	37.1	0.7	6.9	5.4	3.0	1.0	36.0	9.9
	40~49세	100.0	69.5	1.2	3.1	3.7	2.2	1.1	17.5	1.8
	50~59세	100.0	82.4	1.4	1.6	1.8	1.5	0.8	10.1	0.5
	60~69세	100.0	94.3	1.0	0.3	0.4	0.6	0.3	2.5	0.6
	70세 이상	100.0	92.1	0.4	0.1	0.1	0.2	0.1	0.5	6.7
	여 자	100.0	72.4	0.8	1.3	0.2	1.3	1.5	7.6	14.8
	20~29세	100.0	7.3	0.1	3.9	0.6	1.6	0.7	36.7	49.2
	30~39세	100.0	46.5	0.6	3.2	0.5	2.8	2.8	23.2	20.4
	40~49세	100.0	71.2	1.2	2.7	0.2	2.8	4.1	10.2	7.7
	50~59세	100.0	84.2	1.2	1.3	0.1	1.7	2.2	4.4	4.8
	60~69세	100.0	92.6	0.8	0.3	0.0	0.7	0.5	1.1	4.1
	70세 이상	100.0	71.6	0.3	0.0	0.0	0.2	0.1	0.2	27.5
면 부	남 자	100.0	38.5	1.8	10.7	5.1	4.3	2.5	13.9	23.2
	20~29세	100.0	7.1	0.7	22.0	3.9	5.0	2.3	15.0	43.8
	30~39세	100.0	16.0	1.5	22.1	10.2	7.9	3.4	26.1	12.8
	40~49세	100.0	32.5	2.6	13.0	9.3	6.0	4.0	20.8	11.7
	50~59세	100.0	49.7	3.0	6.7	5.0	4.0	3.5	14.7	13.4
	60~69세	100.0	66.5	2.0	2.1	1.1	2.0	1.4	4.8	20.2
	70세 이상	100.0	52.0	0.5	0.4	0.1	0.9	0.2	0.9	44.9
	여 자	100.0	34.9	1.0	4.7	0.4	3.2	4.4	7.5	43.8
	20~29세	100.0	3.6	0.2	11.7	1.3	4.8	3.2	24.7	50.4
	30~39세	100.0	13.2	0.7	7.8	0.7	6.1	7.0	16.9	47.6
	40~49세	100.0	33.3	1.9	8.9	0.5	5.6	10.8	9.9	29.2
	50~59세	100.0	50.5	1.9	4.7	0.3	3.5	6.8	5.0	27.3
	60~69세	100.0	58.3	1.1	1.4	0.1	1.7	1.6	1.5	34.3
	70세 이상	100.0	29.5	0.4	0.2	0.0	0.6	0.2	0.3	68.7



대부터 전체의 70%(남자는 69.5%)가 농림업에 종사하고, 남녀 모두 60대에서 농림업종사 인구가 90%를 상회하였다. 70세 이상에서도 남자는 92.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여자의 경우 71.6%로 낮아졌다. 고령자가 많은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농림업 이외에 종사비율이 높은 분야는 기타산업으로, 남녀 모두 20대와 30대에서 종사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며, 인구구성비는 남녀 각각 12.0%와 7.6%로 남자의 경우가 높았다. 종사하지 않는 경우도 남녀 각각 8.9%와 14.8%였으며 주로 20대에서 재학이나 군 복무 또는 취업준비 중, 여자의 경우 혼인에 의한 가사일로 “종사하지 않음”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표 2-10〉 농가인구의 농업종사기간별 인구구성비 (2005년)

(단위 : %)

	계	없음	1개월 미만	1~3개월	3~6개월	6개월 이상
남 자	100.0	15.0	1.9	5.2	10.0	67.9
20~29세	100.0	77.6	7.4	5.4	2.2	7.4
30~39세	100.0	37.2	6.9	10.2	9.8	35.9
40~49세	100.0	6.1	1.6	8.6	15.0	68.7
50~59세	100.0	1.2	0.4	5.6	13.0	79.8
60~69세	100.0	0.7	0.1	2.6	9.1	87.5
70세 이상	100.0	6.5	0.2	2.7	8.5	82.1
여 자	100.0	20.1	1.9	4.7	8.3	65.0
20~29세	100.0	84.5	5.1	2.9	1.3	6.1
30~39세	100.0	37.5	5.2	7.9	7.8	41.7
40~49세	100.0	12.9	3.1	7.5	10.4	66.1
50~59세	100.0	6.5	1.6	5.0	9.6	77.4
60~69세	100.0	4.1	0.5	3.2	8.9	83.3
70세 이상	100.0	26.7	0.7	3.8	7.9	60.8

농가인구의 특성과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면부인구의 특성과 비교하였다(〈표 2-9〉 참조). 농가인구의 농림업 종사자가 남녀 모두 70%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에 면부 인구는 4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농가인구의 경우 “종사하지 않음”에 해당되는 경우가 일부 있고, 나머지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극히 낮았으나 면부 인구의 경우는 “종사하지 않음”에 남녀 각각 23.2%와 43.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남자 : 13.9% ; 여자 : 7.5%), 제조업(남자 : 10.7% ; 여

자 : 4.7%)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종사자도 남녀 각 7% 내외가 되었다.

전국면부에서는 남자의 38.5%와 여자의 34.9%만이 농업 및 임업에 종사하고 있다. 과거(1980년 이전) 농가인구가 총인구의 30%에 근접할 때 면부(또는 읍면부) 인구의 농가인구의 특성이 유사하던 것이 농가인구 비중이 감소하면서 그 특성의 차이는 커졌다. 대신, 전국 면부 인구의 주 종사분야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농림어업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농촌(여기서는 면부)의 직업특성이 빠르게 바뀐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농가인구의 2005년 농업종사기간별 인구구성비를 <표 2-10>에 정리하였다. 20세 이상 전체의 15.0%(남자)와 20.1%(여자)는 농업에 종사한 적이 없었으며 종사자의 남자 67.9%와 여자 65.0%가 6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주 종사분야가 농업 및 임업인 인구가 대다수인 농가인구에서 농업의 경직성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연령대인 40대 이상에서 6개월 이상 종사하는 비중이 특히 높았다. 다만, 30대 이전의 젊은 연령층에서 농업 및 임업 종사자가 급감하면서 타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젊은 연령층의 평균 농업종사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농가인구의 주 종사업종이 농업에서 타 업종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제 3 절 농가인구의 장래전망

장래 농가인구의 추계방법

장래인구를 추계하는데 이용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 흔히 이용하는 방법이 코호트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별 출생, 사망 및 이동에 관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 외에 수리적 모형으로 Gompertz method, 지수법(exponential method) 등을 들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자료의 제한으로 지수법을 이용하였다.

농가인구의 감소유형은 1980년 이후 처음에는 빨리,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속도가 둔화되었다(<표 2-1> 참조). 농가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보면 1980년에 총인구의 28.9%였으나 그 수가 빠르게 감소하여 1990년에는 반으로 줄어든 15.3%였고, 1995년에는 10.9%로 낮아졌다. 이러한 감소현상은 지속되어 2000년에 8.7%이던 것이 2005년에는 7.3%로 되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 이후 농가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에는 빨리 감소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속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감소유형이 앞으로도 지속된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가인구의 구성비는 아무리 감소하여도 “0”이 될 수 없으므로 시간이 무한히 흐르면 이 구성비가 “0”에 접근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농가 총인구의 특성에 따라 성·연령별 인구도 동일한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하면 구성비의 수준에 따라 변화의 유형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성·연령별 농가인구가 성·연령별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모형을 추정하여 장래 농가인구를 추정하였다.

그러므로 전국인구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0%에 접근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성·연령별 인구감소 유형이 동일하다고 하여도 기준시점의 인구구성비 수준에 따라 감소속도가 다르다.

지수모형을 적용할 때에는 성·연령별로 인구변화를 예측하여야 할 것이다. 2005년 농가인구는 총인구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나 임가와 어가인구의 구성비는 1%에 미치지 못한다. 농가인구의 경우 성·연령별 유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임가와 어가인구의 경우 절대규모가 작으므로 성·연령별 유형을 고려한 장래인구추계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농가인구에 대해서만 장래인구를 추계하였다.

여기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지수모형(exponential model)은 다음과 같다.

$$Y_i = e^{(a+bX_i)}$$

이 모형에서 Y절편은 e(a)의 값을 지닌다. 또한 b>0이면 이 지수모형의 기울기는 +의 값을 지니며 Xi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반면, b<0이면 기울기는 -가 되고 Xi 값의 증가와 함께 점점 감소하여 X축에 접근한다(김두섭, 2000: 249).

농가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하면서 그 속도가 줄어들어 b<0의 기울기를 가지며, e(a)값이 “1”, 즉 구성비는 “0”에 근접하게 된다.

장래 농가인구의 추계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80년 이후 성·연령별 농가인구의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를 계산한다. 이 구성비는 처음에는 빠르게, 다음은 느리게 변화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지수모형을 이용하여 장래 구성비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Y_i = e^{(a + bX_i)} \text{ ----- (1)}$$

Y_i 는 특성 i 의 인구구성비이고, X_i 는 특성 i 의 인구구성비가 나타난 시점이다. a 와 b 는 상수이다. 식 (1)의 양변을 자연대수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은 1차식을 얻는다.

$$\ln(Y_i) = a + bX_i \text{ ----- (2)}$$

1980년도부터 2005년까지의 시점 X_i 와 그 때의 특성별 인구구성비(Y_i)를 이용하여 최소자승법으로 상수 a 와 b 를 산출하여 회귀선을 추정하였다. 2005년 이후에 5년 단위로 2020년까지 인구구성비를 연장하였다. 2005년 이후의 추정 인구구성비는 전국인구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므로 통계청에서 추계한 전국 장래인구에 해당하는 농가인구구성비를 곱하여 특성 i 의 농가인구를 추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추정한 특성별 농가인구를 합하면 연도별 전국 농가인구가 된다.

농가의 장래인구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추정한 2020년까지의 전국 농가인구를 성·연령별로 정리하여 <표 2-11>에 수록하였다. 2005년의 농가인구 343만 명은 2010년에 296만 명으로 5년 동안 47만 명(13.8%)이 감소한다. 다음 5년 동안에는 36만 명(12.1%)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음 5년 후인 2020년에는 우리나라 총 농가인구가 234만 명으로 5년 전보다 다시 26만 명(10.0%)이 감소하였으며, 2005년부터 15년 동안 109만 명(31.8%)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폭과 감소율이 낮아지는 것은 농가인구의 감소정도가 완화된다고 하기보다는 인구의 이동과 직업의 변동이 활발한 젊은 연령층의 감소와 절대인구의 감소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남자인구는 2005년에 168만 명에서 향후 15년 동안 53만 명(31.9%)이 감소하여 2020년에 114만 명이 되었으며, 여자는 같은 기간에 176만 명에서 56만 명(31.7%)이 감소하여 1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성별 인구의 감소규모는 차이가 있으나 그 비율은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다. 성비의 변화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2-11〉 성·연령별 장래 농가인구추계 (2005~2020년)

(단위: 명)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전 체	3,433,573	2,960,825	2,602,257	2,342,267
0~4세	67,250	35,369	23,054	14,777
5~9세	114,808	51,259	28,850	17,675
10~14세	153,027	89,522	45,074	25,225
15~19세	157,792	119,651	76,040	40,864
20~24세	149,235	91,397	71,714	47,863
25~29세	143,100	99,832	62,243	50,572
30~34세	118,706	71,106	48,119	28,214
35~39세	129,144	88,246	52,927	34,546
40~44세	185,074	122,468	83,326	50,067
45~49세	263,521	193,173	133,844	94,987
50~54세	284,385	291,258	228,590	167,185
55~59세	316,478	329,928	355,608	298,382
60~64세	351,747	364,963	374,423	424,450
65~69세	408,521	383,119	383,023	416,710
70~74세	309,279	309,713	292,059	294,312
75~79세	158,942	177,831	183,203	168,208
80세 이상	122,564	141,990	160,160	168,231
남 자	1,676,592	1,451,433	1,271,789	1,142,516
0~4세	35,333	18,662	12,193	7,808
5~9세	60,898	27,089	15,243	9,369
10~14세	82,118	47,107	23,651	13,237
15~19세	83,046	61,872	38,320	20,218
20~24세	77,377	46,797	36,469	23,462
25~29세	83,323	63,247	40,540	33,651
30~34세	71,006	44,184	30,977	19,016
35~39세	67,606	47,806	29,552	19,813
40~44세	89,934	60,466	41,789	25,475
45~49세	126,426	91,037	62,883	44,918
50~54세	131,538	132,301	102,493	73,996
55~59세	150,058	150,035	158,859	130,822
60~64세	160,513	168,879	169,149	186,914
65~69세	191,400	185,450	188,312	202,263
70~74세	148,482	163,042	158,161	165,620
75~79세	74,114	92,631	101,843	97,626
80세 이상	43,420	50,828	61,354	68,309

(계속)

〈표 2-11〉 계속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여 자	1,756,981	1,509,392	1,330,469	1,199,751
0~4세	31,917	16,708	10,861	6,968
5~9세	53,910	24,170	13,608	8,306
10~14세	70,909	42,415	21,423	11,988
15~19세	74,746	57,778	37,719	20,646
20~24세	71,858	44,600	35,246	24,401
25~29세	59,777	36,585	21,703	16,921
30~34세	47,700	26,923	17,143	9,198
35~39세	61,538	40,440	23,375	14,734
40~44세	95,140	62,001	41,537	24,591
45~49세	137,095	102,136	70,961	50,069
50~54세	152,847	158,957	126,097	93,190
55~59세	166,420	179,893	196,749	167,560
60~64세	191,234	196,083	205,273	237,536
65~69세	217,121	197,669	194,710	214,447
70~74세	160,797	146,671	133,897	128,692
75~79세	84,828	85,200	81,361	70,581
80세	79,144	91,162	98,806	99,923

1980년 이후 성별 농가인구와 전국인구를 〈표 2-12〉에서 비교하였다. 2005년까지의 농가인구는 농업총조사 결과이고, 2010년 이후는 위에서 추정한 장래인구이다.

〈표 2-12〉 전국인구에 대한 농가인구 비중의 변화 (1980~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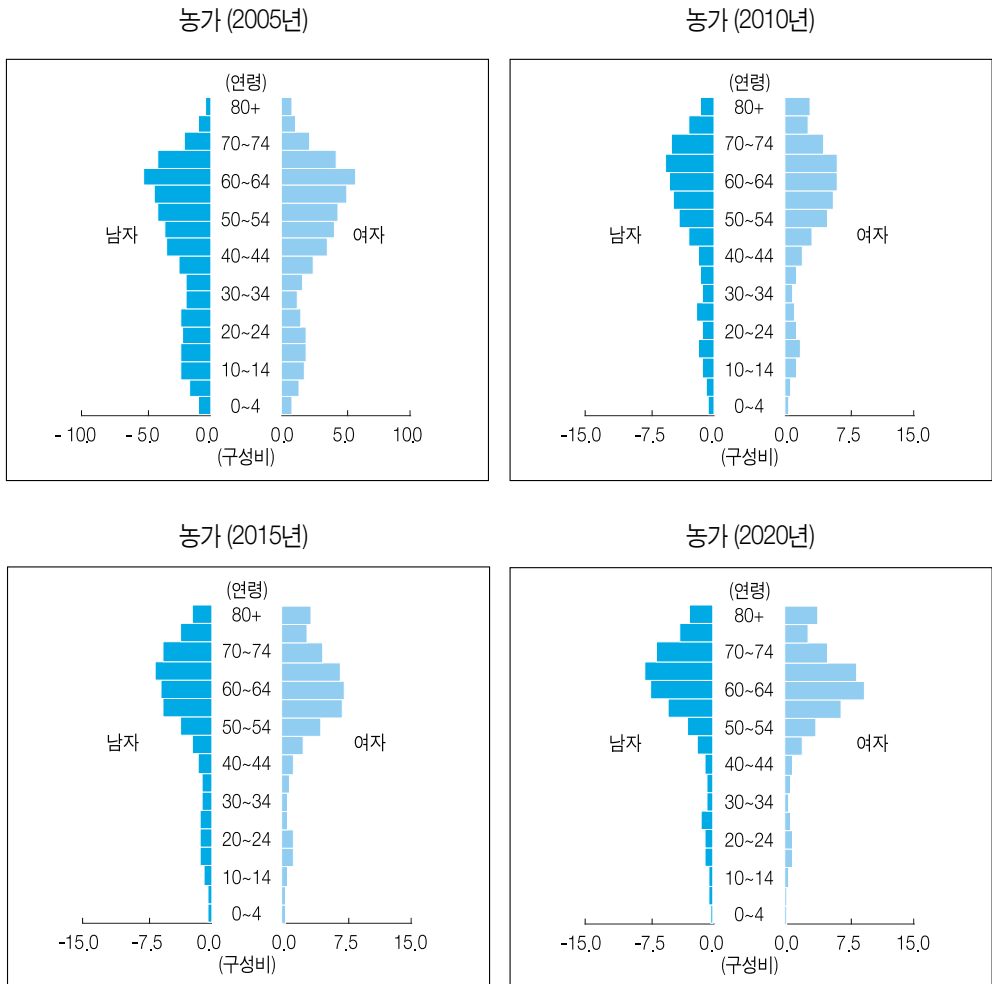
(단위 : 명, %)

연도	농가인구			전국인구에 대한 농가인구비중(%)
	계	남 자	여 자	
1980년	10,826,748	5,414,805	5,411,943	28.9
1990년	6,661,322	3,278,764	3,382,558	15.3
1995년	4,851,080	2,372,999	2,478,081	10.9
2000년	4,031,065	1,970,989	2,060,076	8.7
2005년	3,433,573	1,676,592	1,756,981	7.3
2010년	2,960,825	1,451,433	1,509,392	6.1
2015년	2,602,257	1,271,789	1,330,469	5.3
2020년	2,342,267	1,142,516	1,199,751	4.7

자료 : 1980~2005년(인구총조사 및 농업총조사결과), 2010~2020년(장래인구추계결과)



우리나라 농가의 인구는 1980년에 1,083만 명으로 전국인구의 28.9%를 차지하였으나 그 후에도 빠르게 감소하여 2005년에 전국인구의 7.3%에 해당되는 343만 명으로 25년 전보다 약 3분의 1로 감소하였다(〈표 2-12〉 참조). 앞에서 지수모형을 이용하여 장래 농가인구를 추계한 결과 2010년에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296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며,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1%로 낮아질 것이다. 이러한 감소현상은 지속되어 2020년에는 전국인구의 4.7%에 해당되는 234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2〉 장래 농가인구의 구조변화 (2005~2020년)

농가인구는 규모에서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 큰 변화는 성·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그림 2-12>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농가인구의 성·연령별 인구를 피라미드로 그려놓은 것이다. 2005년까지만 해도 농가인구의 젊은 연령층이 좁고, 노동력의 고령화가 뚜렷하지만 50대와 60대의 농업인력의 활용이 가능한 모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0년에는 고연령층 노동인력은 더욱 고령화되고, 젊은 연령층의 감소가 더욱 뚜렷해졌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2020년의 인구피라미드에서 60세 이상 노인만으로 인구구조가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인구현상의 변화는 현재의 사회가 앞으로 고령층의 사망과 젊은 연령층의 감소로 다른 모습의 사회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농가인구의 구조를 보면(<표 2-13> 참조), 200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9.1%로 같은 해 전국인구의 9.3%에 비하면 농가인구의 고령화가 극도에 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인력의 진입은 낮은 출산 수준으로 매우 제한적인 것이며, 노인인구만 급증하게 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0년에 34.2%, 2020년에 44.7%에 도달함으로써 전국인구의 15.6%(통계청, 2006)에 비하면 약 3배에 달하게 된다.

유소년인구의 감소로 유소년부양비는 2005년의 16.0%에서 2020년에 4.7%로 감소하지만 반대로 노년부양비는 같은 기간에 47.6%에서 84.7%로 급증한다. 그러므로 농가인구의 총부양비는 2005년에 63.6%에서 2020년에 89.3%으로 증가하게 된다. 농가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15~64세) 10명이 유소년(0~14세)인구 0.5명과 노년(65세 이상)인구 8.5명을 부양한다는 의미이며, 이 부양부담은 2020년 이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소년인구와 노년인구의 비인 노령화지수는 2005년에 296.9로 노년인구가 유소년인구의 약 3배였으나 그 후 급증하여 2020년에는 18배가 넘게 된다. 이것은 농가인구의 고령화가 앞으로 더욱 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그림 2-12>와 <표 2-13>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농가인구의 고령화는 더욱 심화되고, 젊은 노동력 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젊은 연령층의 진입이 없으면 유소년인구의 감소는 불가피하고, 이것은 농가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끝으로, 유소년인구를 비롯하여 생산연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농가중심의 농촌사회가 사라지는 것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13〉 농가의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2005~2020년)

(단위 : %, 인구 백명당)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인구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0~14세	9.8	5.9	3.7	2.5
15~64세	61.1	59.8	57.1	52.8
65세 이상	29.1	34.2	39.1	44.7
총부양비	63.6	67.1	75.0	89.3
유소년부양비	16.0	9.9	6.5	4.7
노년부양비	47.6	57.1	68.5	84.7
노령화지수	296.9	574.9	1050.2	1816.1

제 4 절 요약

농림어가 인구의 규모 및 구조

우리나라의 농가인구는 1980년에 총조사인구의 28.9%에 해당되는 1,083만 명이였다. 그 후 농가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여 1990년에 총인구의 15.3%인 666만 명이 되었으며, 2000년에는 8.7%인 403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이 감소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5년 후인 2005년에는 7.3%인 343만 명으로 지난 25년 만에 농가인구는 3분의 1로 감소하게 되었다. 1990년부터 5년간 총 27.2%나 감소하였으나 그 후에는 감소속도가 둔화되어 2000년 전과 후 5년간 각각 16.9%와 14.8%의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어가인구도 농가인구와 같이 감소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1990년에 50만 명으로 총조사인구의 1.1%였으나 2000년에는 10년 전의 반에 해당하는 25만 명이 되었으며, 이 감소는 계속 이어지면서 5년 후인 2005년에는 22만 명이 되었다. 1990년대 전, 후반 각 5년 동안 각각 30.0%와 27.6%씩 감소하여 농가인구의 감소속도를 앞서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감소속도는 많이 둔화되었으나 첫 5년 동안 12.0%나 감소하였다. 임가의 경우는 1998년 산림청에 등록된 임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1998년에 임가로 조사된 164천명을 2005년의 임업총조사 결과인 264천명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1980년의 농가와 읍면부 및 전국평균 인구의 연령별 구조는 매우 유사하였다. 농촌의 전통사회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농촌의 산업이 농업중심으로 농가인구와 읍면부(농촌) 인구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할 수 없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1990년에 들어오면서 농촌과 전국인구의 연령별 특성이 달라졌다. 농가인구의 감소와 함께 농가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199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1.5%로 읍면부의 9.0%를 훨씬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0~14세의 유소년 인구는 급감하여 겨우 20%선을 유지하게 되었다. 농가인구의 고령화는 이후 더욱 뚜렷하였다.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농가인구의 21%를 상회함으로써 초 고령인구로 변환되었으며, 0~14세 인구는 11.4%까지 감소하였다. 읍면부의 인구도 전국 평균에 비하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농가인구의 변화에 비하면 그 속도는 훨씬 느린 편이다. 2000년의 농가인구가 총인구의 8.7%로 감소하여 읍면부 인구 중에서도 그 비중이 낮아졌으므로 농가인구는 과거의 농촌인구와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까지 20~24세 인구의 성비가 높았으나 그 후에는 110 전후로 낮아졌다. 이 연령층에서는 여성의 취업과 혼인의 영향으로 먼저 전출하는데서 오는 결과이다. 그러나 1990년 이후에는 이 성비가 낮아지는 것은 남녀 모두 진학 등으로 전출이 심화되면서 이동이 어려운 그룹만 농가에 잔류하는데서 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25~29세와 30~34세의 성비가 급증하는데 이것은 그 동안 남녀의 성비가 높아지면서 여성의 전출이 먼저 일어나고, 남자의 전출이 이어지는데서 오는 결과이다.

농림어가인구의 사회적 특성

농림어업 종사자의 중심연령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와 50대의 학력별 인구구성비를 비교하였다. 40대(40~49세)에서 전문대(대졸 포함)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자가 2000년에 그 연령의 인구 중에서 6.6%였으나 2005년에는 2.3배나 되는 15.3%로 급증하였다. 여자의 경우는 같은 기간에 1.6%에서 5.6%로 3.5배나 되어 남자에 비하여 여자의 학력수준이 훨씬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남녀 공히 중심 학력소지자가 되었다. 2000년에 40대 남자의 고등학교 졸업자는 총인구의 34.2%(2000년)에서 5년 만에 45.7%(2005년)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한편 여자는 같은 기간에 16.5%에서 34.1%로 증가하여 고졸이 중심학력이 되었다. 2000년의 중심학력이 여자의 경우 초등졸



업이었으므로 중심학력이 고등학교로 상승한 것은 고령자의 학력수준도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50대에서도 학력수준이 빠르게 상승하여 4대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2000년 자료에서는 농가와 어가인구의 교육수준만 비교할 수 있었으며 임가인구의 교육수준은 2005년에만 비교하였다. 읍면부 인구의 교육정도가 농림어가 중에서는 농가(2000년 및 2005년)와 임가(2005년)인구의 교육정도가 어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농가 남자 50대의 전문대이상 학력인구는 2000년에 전체의 3.5%에서 2005년에 6.6%로 증가하였으며, 어가인구의 경우도 같은 기간에 1.1%에서 2.2%로 유사한 변화가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오히려 커졌다.

연령별로 비교하여 보면, 남자의 미혼율은 30대 후반에서도 35.6%를 유지하였으며, 40대 후반에서 5%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30대 초에 26.6%까지 낮아졌으며 후반에는 6.5%가 되었다. 그러므로 유배우율은 남자의 경우 40대가 되어서 79.1%로 80%에 접근하고, 50대에 약 95%에 근접하는 최고점에 도달한 후 감소한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30대 후반에 90%를 넘고, 40대 초에는 95.7%로 최고점에 도달하여 60대 이후에 빠르게 감소한다. 농림어가 남자인구의 미혼율(43.9~51.3%)이 읍면부 인구(29.6%)에 비하여 특히 높았으며, 이혼율도 함께 높아졌다. 여자의 경우 농가와 임가의 미혼율(15.3%, 12.2%)이 높으며, 이혼율(1.1~1.8%)은 읍면부(2.8%)에 비하여 낮았다. 여기서 농림어가의 혼인긴장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남녀 모두 읍면부인구보다 미혼율이 높았으나 그 정도는 남자의 경우 더욱 심하였다.

농가인구의 장래전망

우리나라 농가의 인구는 1980년에 1,083만 명으로 전국인구의 28.9%를 차지하였으나 그 후에도 빠르게 감소하여 2005년에 전국인구의 7.3%에 해당되는 343만 명으로 25년 전보다 약 3분의 1로 감소하였다. 지수모형을 이용하여 장래 농가인구를 추계한 결과 2010년에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296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며,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1%로 낮아질 것이다. 이러한 감소현상은 지속되어 2020년에는 전국인구의 4.7%에 해당되는 234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한다.

농가인구는 규모에서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 큰 변화는 성·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2005년까지만 해도 농가인구의 젊은 연령층이 좀 있고, 노동력의 고령화가 뚜렷하지만 50대와 60대의 농업인력의 활용이 가능한 모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0년에는 고연령층 노동인력은 더욱 고령화되고, 젊은 연령층의 감소가 더욱 뚜렷해 졌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2020년의 인구피라미드에서 60세 이상 노인만으로 인구구조가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는

현재 고령층의 사망과 함께 다른 사회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농림어가의 인구변화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시사점들은 우리나라 농촌 및 농림어업발전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농림어가인구의 급감과 초고령화로의 진행은 농촌(읍면부)의 인구특성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 농촌의 주산업이 농림어업이었을 때와 다르므로 농촌발전을 위한 노력과 농림어업대책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농림어가인구의 학력수준이 급상승하고 있다. 40대의 중심학력이 고졸이고, 20대의 대재 이상은 70%를 상회하고 있다. 학력이 높아지는 것은 농업경영을 전문화 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농가인구 전출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학력이 빠르게 상승하는 것과 함께 농림어업의 전문 인력으로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농림어가 남자의 미혼상태가 30대 후반에서도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여자의 전출이 많은데서 오는 현상이지만 농림어가 특성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로 나타나고, 국제결혼은 전입하는 여성들과 그 자녀들의 적응문제로 이어진다. 소득증대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미혼의 원인과 결혼 후의 안정과 같은 것에 사회적인 관심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끝으로, 장래인구를 추계한 결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농가인구의 고령화는 더욱 심화되고, 젊은 노동력 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젊은 연령층의 전입이 없으면 유소년인구의 감소는 불가피하고, 이것은 농가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궁극적으로 유소년인구를 비롯하여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지속은 농업중심의 농촌사회가 사라지는 것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우리나라 농가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4.7%가 주로 고령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현재 선진국의 농림어가인구 비중(2~4%)에 비하여 우리나라 농가인구가 많다고만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 3 장 농림어가의 가족

김흥주

제 1 절 분석의 주안점

선행연구 및 관련 보고서 검토

흔히 근대화 과정에서 가족은 형태상으로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기능상으로 생산단위로서의 기능이 축소되고 소비단위로서의 기능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며, 특히 출산과 양육, 사회화의 기능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특화된 공간으로 변화한다고 알려져 왔다(Parsons, 1955; Ogburn, 1955; Goode, 1963). 그러나 최근의 많은 사회사적 연구는 근대화 이후에도 가족이 생산의 단위로서 기능하는 과정과, 가족 구성원의 행동과 가치를 통제하는 사회의 기본 단위로 작동하는 메커니즘과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한국 농림어업에서 가족은 바로 이러한 사회사적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생산과 소비의 단위 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공간이자 사회관계의 일차적 소재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유지와 지속, 해체와 관련되는 사회재생산(social reproduction) 기능을 수행하는 기초 단위이기 때문에, 이들의 가족구조와 변동과정의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은 농림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가족 분석은 농림어업의 구조와 변동을 설명할 때 ‘왜’, ‘어떠한 과정을 통해’ 라는 구체적인 문제에 해답을 제공하는 단서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1960~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농어촌사회가 해체되는 구조적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가족과 인구의 변동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김경동, 1983; 김흥주, 1991).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산업화 과정에서 농림어가도 도시가구와 마찬가지로 핵가족의 형태를 띠고, 가구원수도 소인수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연구관점의 등장으로 이들 가족의 변화가 농림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임을 지적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농가의 경우 지난 1960년대 이후 산업화의 사회경제적 전환비용을 농가 자원의 대거 동원에서 찾으려는 농정 때문에 농가가 해체되고, 결과적으로 농촌사회의 재생산 능력이 약화되었다는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박길성, 1990; 김흥주, 1994). 소규모 단순생산형태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농림어업 체계는 가족자원의 지속적인 동원 여부가 생산의 지속에 중요한데,

이들의 가족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농림어업의 위기 상황이 가속화되면서 경제 및 생산 측면의 회생 가능성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족연구가 소홀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농림어업총조사’를 분석하고 있는 보고서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02년 통계청 학술연구용역 사업으로 수행된 『농업총조사 종합분석』(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보고서에는 농가에 대한 분석이 완전히 빠져 있다. 2003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된 『1990·1995·2000 농업총조사에 의한 농업구조 변화 분석』 보고서에는 가족분석이 따로 이루어지고 있다(제3장 가족구조와 농가 형태의 변화). 그러나 분석내용을 보면, 농가의 구성원과 세대구성 실태, 농업경영주 분포와 영농후계자 존재여부, 농가의 전업과 겸업 현황 등에 한정되어 있어 최근 농가의 특성을 보여주는 가족구조의 질적 측면과 다양한 농가의 존재형태, 이들 농가의 특징 등에 대한 분석이 빠져 있다. 분석수준 또한 단순한 통계수치의 연도별 배열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농가의 가족구조 변화의 내용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원자료 분석이 미약한 점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관련 보고서 모두에서 농가 이외의 임어업 가족의 구조변화와 특징이 전혀 분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농림어업총조사’에 대한 종합 분석의 의의를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림어가에 대한 가족정책 수립에도 기초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농림어가의 가족구조와 다양한 가족들, 이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가족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한국 가족의 변화 경향

농림어가의 가족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존재 형태가 어떠한가’와 ‘이러한 변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밝히는 일이다. 특히 농림어가의 가족변동을 살펴보는 것은 지금의 가족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관심이며, 이는 결국 변화한 가족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이러한 가족구조는 농림어업의 지속성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를 분석할 수 있게 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농림어가의 가족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전제로 전국의 가족변화 경향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한국 사회 전체의 가족구조와 농림어가의 구조를 비교·분석하여 다양한 가족의 등장배경, 이들의 가족특성, 그리고 향후 변화전망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한국 가족 변화의 사회적 의미를 살펴본 안호용·김흥주(2000)의 연구결과를 보면, 산업화 이후



한국 가족은 규모의 축소와 구성의 단순화, 근대적 가족행동 및 가족가치의 증가가 특징이다. 이 중에서 가족구조의 단순화 추이는 세대 깊이의 축소,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 가구 규모의 축소 경향에서 찾을 수 있었다. <표 3-1>에 의해 1975년 이후 전국 가구의 세대구성 변화를 보면, 1세대와 1인 가구는 크게 증가한 반면에 2세대 이상의 가구는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지역의 경우, 1세대 가구는 1975년 8.1%에서 2005년 14.1%로, 1인 가구는 동기간 동안 0.5%에서 19.1%로 증가하고 있으나 2세대 가구의 경우는 76.4%에서 58.7%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비교적 농림어가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읍면지역의 경우, 1세대 가구(5.2%→24.9%)와 1인 가구(4.0%→23.3%)는 크게 증가한 반면 3세대 가구는 24.9%에서 7.9%로 같은 기간 동안 17.0%p나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3세대 이상의 가구가 줄어들고, 1세대나 2세대 가구가 증가하는 변화 추이는 한국 가족의 세대깊이(generation depth of family)가 그 만큼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족구조의 단순화 경향을 확인해주고 있다.

<표 3-1> 세대구성의 변화 (1975~2005년)

(단위 : %)

지역	연도	총일반가구수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1인가구	비혈연가구
동지역	1975년	3,177,468	8.1	76.4	14.5	0.5	0.5	0.0
	1980년	4,661,626	9.1	71.6	12.7	0.1	4.7	1.8
	1985년	6,220,346	9.6	71.1	12.0	0.3	6.9	0.1
	1990년	8,340,647	9.7	70.4	10.8	0.2	8.7	0.2
	1995년	10,031,978	10.6	67.0	9.0	0.2	11.8	1.4
	2000년	11,229,476	12.0	64.5	7.6	0.1	14.6	1.2
	2005년	12,744,940	14.1	58.7	6.6	0.1	19.1	1.4
읍면지역	1975년	3,276,130	5.2	64.5	24.9	1.4	4.0	0.0
	1980년	3,299,225	7.2	64.3	21.8	0.9	4.9	0.9
	1985년	3,138,608	12.2	63.4	20.3	0.7	7.2	0.9
	1990년	2,892,523	14.1	57.2	16.8	0.6	10.3	1.0
	1995년	2,926,293	19.8	50.6	12.4	0.4	15.6	1.2
	2000년	3,082,331	22.1	47.3	10.3	0.3	18.9	1.1
	2005년	3,142,188	24.9	42.2	7.9	0.2	23.3	1.5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다음으로 <표 3-2>의 가구원수별 가구 분포를 보면 '가구의 소인수화' 경향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평균 가구원수도 지난 30년 사이 급감하고 있다. 도시지역의 특성을 보여주

는 동지역의 경우, 6인 이상 가구는 1975년 35.5%에서 2005년 2.1%로 감소해 감소폭이 무려 33.4%p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인 이하 소규모 가구는 1975년 9.6%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는 39.2%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읍면지역의 경우, 동지역에 비해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6인 이상의 가구는 42.9%p나 감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평균 가구원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 평균 가구원수의 변화를 보면 동지역의 경우 1.9명이 감소한 반면에 읍면지역의 경우는 2.6명이 감소하여 가구 규모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만큼 가구 규모가 소인수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표 3-1〉에서 보여준 세대 깊이의 축소와 〈표 3-2〉에서 보여준 가구의 소인수화 경향은 결국 한국 가족구조가 지난 30년 동안에 급격하게 단순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초혼연령의 상승, 합계출산율의 감소 및 결혼연령층 여성인구의 감소경향 등의 인구학적 변화를 볼 때 이러한 가족의 소규모화·단순화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족구조의 단순화는 가족부양체제나 생산단위로서의 가족기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가족구조의 변화가 가족기능과 사회 전체의 부양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농림어

〈표 3-2〉 가구원수별 가구분포와 평균 가구원수의 변화 (1975~2005년)

(단위: 가구, %, 명)

지 역	연 도	총일반가구수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평균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동지역	1975년	3,177,468	0.5	9.1	15.5	19.9	19.5	35.5	4.8
	1980년	4,661,626	4.7	10.7	15.3	22.3	20.8	26.1	4.4
	1985년	6,220,346	6.8	11.6	16.8	27.4	20.0	17.4	4.0
	1990년	8,340,647	8.6	12.2	19.5	31.9	19.1	8.6	3.7
	1995년	10,031,978	11.8	14.5	20.8	34.5	13.2	5.2	3.4
	2000년	11,229,476	14.6	16.8	21.5	33.6	10.3	3.0	3.2
	2005년	12,744,940	19.1	20.1	21.7	29.1	7.9	2.1	2.9
읍 면 지 역	1975년	3,276,130	3.9	7.6	11.0	14.4	17.1	45.8	5.3
	1980년	3,299,225	4.9	10.3	13.3	17.5	18.9	35.1	4.7
	1985년	3,973,749	7.2	13.7	15.9	21.2	18.3	23.7	4.2
	1990년	2,892,523	10.3	18.3	17.6	22.4	18.1	13.3	3.7
	1995년	2,926,293	15.6	24.9	18.7	22.3	11.6	6.9	3.1
	2000년	3,082,331	18.9	27.3	18.4	21.7	9.2	4.5	2.9
	2005년	3,142,188	23.3	30.6	17.6	18.7	6.9	2.9	2.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가의 가족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현재는 어떠한 가를 분석해보면 이들 가족의 사회재생산 능력과 부양체계의 변화 특징을 파악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가족의 또 다른 변화 특징은 다양한 가구형태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5년의 일반가구 중 가족이 함께 사는 친족가구는 78.6%로 2000년의 83.4%보다 4.8%p 감소하였다. 이러한 친족가구는 지난 1990년에 비하면 10.9%p나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친족가구의 감소는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1인 가구는 2005년 현재 3,171천 가구로 1995년의 1,642천 가구에 비하여 1,529천 가구인 93.1%가 증가하였고, 2000년의 2,224천 가구와 비교하면 947천 가구가(42.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3〉 1인 가구수의 변화

(단위: 천가구, %)

	1995년	2000년	2005년
1인 가구수	1,642	2,224	3,171
증가율		35.4	42.5

연령별로 보면 도시지역은 30~40대 취업연령 계층에서, 농촌지역에서는 70세 이상에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시지역의 경우 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층이 대부분인 반면에 농촌지역의 경우는 해체기 가구 중 부부의 한 명이 사망하면서 만들어지는 자연적인 형태가 대부분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자발적 선택이든 해체기의 자연적 형성이든 이러한 1인가구의 증가는 출산이나 양육 등과 같은 특화된 가족기능이 수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전체의 유지·지속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친족가구 중 2세대로서 핵가족 형태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은 2005년에 55.4%로 2000년에 비해 증가율은 1.3%에 그치고 있다. 반면에 여러 세대가 직계가족의 형태로 구성되는 3세대 가구는 지난 5년 동안 7.1%, 4세대 이상 가구는 27.6%나 감소하였다. 이는 핵가족이나 직계가족과 같은 전형적인 가족유형은 점차 감소하는데 비해, 1세대인 '부부'만으로 구성되는 가족이나 1인가구는 크게 증가함으로써 가구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세대로서 핵가족 형태로 구성된 가구에서도 한부모나 조손가구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실제로 '부부+자녀'로 이루어진 가구형태는 지난 5년 사이 2.8%가 감소한 반면, '한부모+자녀'와 '조부모+자녀'로 이루어진 가구형태는 각각 21.9%, 28.5%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부부의 이혼이나 사별과 같은 결혼 해체로 인해 나타나는 가구구성으로, 지난 5년 사이 우

리 사회의 가족해체가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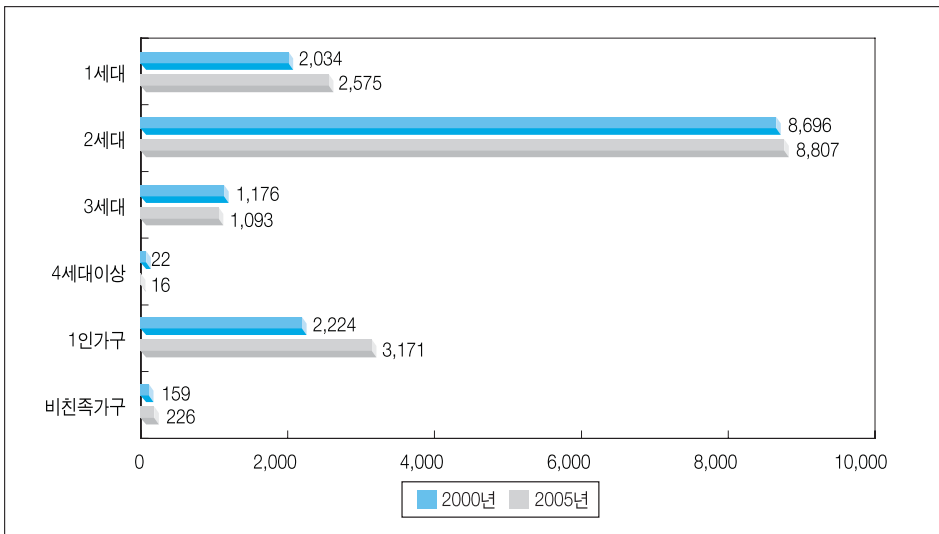
요약하면 한국가족은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구성원의 인원수가 감소하고 세대수가 적어지며, 구성범위가 축소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독신과 이혼·재혼 등의 증가로 인해 1인 가구, 한부모가구, 복합가구 등 유형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4〉 가구 구성 및 가족형태

(단위: 천가구, %)

	2000년		2005년		증감(2000~2005)		
	계	(%)	계	(%)	증 감	증감률	
계	14,312	(100.0)	15,887	(100.0)	1,575	11.0	
친 족 가 구	· 1세대 가구	2,034	(14.2)	2,575	(16.2)	541	26.6
	· 2세대 가구	8,696	(60.8)	8,807	(55.4)	111	1.3
	· 부부+자녀	6,892	(48.2)	6,702	(42.2)	-190	-2.8
	· 한부모+자녀	1,124	(7.9)	1,370	(8.6)	246	21.9
	· 조부모+손자녀	45	(0.3)	58	(0.4)	13	28.5
	· 3세대 가구	1,176	(8.2)	1,093	(6.9)	-84	-7.1
	· 4세대 이상가구	22	(0.2)	16	(0.1)	-6	-27.6
1인 가구	2,224	(15.5)	3,171	(20.0)	946	42.5	
비친족 가구	159	(1.1)	226	(1.4)	67	41.9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그림 3-1〉 세대별 가구 구성



분석의 주안점

이상 선행연구 검토와 한국 가족의 변화 경향을 고려하여 농림어가의 가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존의 농림어업총조사 분석에 빠져 있는 임가와 어가를 분석하여 도시지역과 대비되는 농림어가의 가족구조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농림어업의 사회재생산 체계를 이해하여 이의 지속가능성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한국 가족의 변화 특성인 가구규모의 축소와 소인수화 경향, 가족형태의 다양화 경향이 농림어업의 가족구조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농림어업에서 가족은 단순히 소비의 단위가거나 출산과 양육과 같은 재생산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가족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계유지의 전략을 펼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곳이다. 이 때문에 가족이 해체된다면 농림어업의 지속가능성은 그 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농림어가의 가족구조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변화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가족구조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최근 들어 급속하게 증가하는 있는 독거노인가구나 노부부만의 1세대 가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 등의 특징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농림어가의 구조적 특징이나 생활방식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이들에 대한 맞춤형 가족정책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들 가구의 다양한 존재형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제시하는 것을 중요한 분석의 주안점으로 하고자 한다.

제 2 절 농가의 가족구조

가구수의 변화

19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산업 부문의 급속한 성장에 비해 농업부문의 축소와 이로 인한 농가수의 감소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실제로 1970년 2,483천 가구로 정점을 이루던 농가는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5년 현재 1,273천 가구로 줄어들고 있다. 지난 35년 사이 무려 1,210천 가구가 줄어들었으며, 감소율은 45.3%에 이른다. 1960년 이후 농가수의 변화를 보여주는 <표 3-5>에 의

하면, 1980년에서 199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농가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0년에서 1995년에 이르는 5년 사이의 감소율이 무려 15%에 이르고 있다.

〈표 3-5〉 연도별 농가수 변화(1960~2005년)

(단위 : 천가구)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농가수	2,329	2,483	2,155	1,767	1,501	1,383	1,273
증감률	-	6.6	-13.2	-18	-15.0	-7.8	-8.0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2006.

이러한 농가의 집중적인 감소 요인은 시기별로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 1970년대의 감소가 도시산업 부문의 유인요인(pull factor)에 따른 것이라면, 1980년대와 1990년대는 농산물 가격과동과 수입 개방으로 인한 농가경제의 악화 때문에 농업을 포기하고 떠나는 유출요인(push factor) 영향이 크고, 2000년 이후는 농가 생애주기상 해체기에 해당하는 농가의 자연소멸 요인으로 인한 감소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농가경제의 악화나 도시산업 부문의 유인으로 농가수가 감소하는 것은 경제적 회생전략이 일정 부분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등장하는 해체기 농가의 소멸은 경제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런 점이 농촌사회의 구조적 해체위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농가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전국 총가구수 대비 농가의 비중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06년 통계청이 작성한 「농업기본통계조사결과」에 의하면, 2005년 총가구수 대비 농가비중은 8.1%로 나타나 2000년 9.7%에 비해 1.6%p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산업구조에서 농업비중이 줄어드는 만큼 농가비중도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표 3-6〉 총가구수 대비 농가비중

(단위 : 천가구,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 가구	14,312	14,834	15,064	15,298	15,539	15,789
농 가	1,383	1,354	1,280	1,264	1,240	1,273
농가비중	9.7	9.1	8.5	8.3	8.0	8.1

가구 크기의 변화

앞서 살펴본 한국 가족의 변화 특징에서 전국 가구의 인원상 규모 축소와 세대 구성의 단순화 경향은 농가에서 훨씬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농가의 가구 규모를 보면, 1990년 이후 지난 15년



사이에 큰 폭으로 축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3인 이상의 대규모 가구가 크게 줄어드는 반면에 2인 이하의 소규모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실제로 지난 15년 사이에 가구원이 5인 이상인 농가는 74.2%, 4인 가구는 52.1%, 3인 가구는 33.0%가 감소한 반면에 1인 가구는 58.4%가 증가하였고, 2인 가구 또한 39.4%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 2005년 현재 2인 가구가 43.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3인 가구(16.7%)와 1인 가구(14.8%)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표 3-7〉 가구원수별 농가분포의 변화(1990~2005년)

(단위: %)

	총농가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평균가구원수
1990년	1,767,033	6.7	22.7	17.9	18.9	33.8	3.76
1995년	1,500,745	10.0	32.9	18.3	16.6	22.3	3.23
2000년	1,383,468	13.1	38.7	17.6	14.4	16.3	2.91
2005년	1,272,908	14.8	43.9	16.7	12.5	12.1	2.70
증감률	-28.0	58.4	39.4	-33.0	-52.1	-74.2	-27.0

주: 1990년 대비 2005년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각년도.

4인 이상의 대규모 가구가 대폭 줄어들고 2인 이하의 소인수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 가구원수는 2005년 현재 2.7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를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전국의 2.88명보다 적으며, 특히 도시지역 특성을 보여주는 동지역의 2.93명보다는 0.23명이나 적은 규모임을 알 수 있다. 그 만큼 농가의 가구 규모가 도시에 비해 축소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광역시 지역이 평균 3.07명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전북(2.6명), 전남(2.4명), 경북(2.5명), 경남(2.5명)은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광역시 지역이 농가이지만 도시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가의 가구규모 특성을 보다 자세하게 분석하기 위해 전국 일반가구의 규모와 비교해본 것이 〈표 3-8〉이다. 가장 큰 특징은 도시지역에 비해 농가에서는 2인 가구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현재 농가에서는 2인 가구의 비중이 43.9%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3인 가구(16.7%)와 1인 가구(14.8%)의 순서이다. 이러한 2인 가구의 비중은 전국의 22.2%, 동지역의 20.1%에 비해서는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난 것이며,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읍면지역의 30.6%에

비교해서도 13.3%p나 높은 수치이다. 2인 가구의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노인부부로 이루어진 가구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수치는 농가의 구조적 해체과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반면에 1인 가구 비율은 14.8%로 동지역의 19.1%나 읍면지역의 23.3%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65세 이상의 노인단독가구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동지역의 경우 혼인 적령기인 20대 후반에서 30대에 분포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점은 농가의 1인 가구가 자녀가 도시로 떠나 노부부만의 가구형태로 있다가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이후 형성되는 해체기에 놓여 있다면 동지역의 경우는 비교적 젊은 층의 자발적 혼인지연 현상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인 가구 특성이 그만큼 다르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표 3-8〉 가구원수별 가구구성 비교 (2005년)

(단위: 천가구, %)

구 분	총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전 국	15,887	20.0	22.2	20.9	27.0	10.0
동 지역	12,745	19.1	20.1	21.7	29.1	10.0
읍면지역	3,142	23.3	30.6	17.6	18.7	9.8
농 가	1,272	14.8	43.9	16.7	12.5	12.1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2006;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2006.

성별에 따른 가구원수별 분포에서도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여성은 노인단독가구, 남성은 2인 가구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표 3-9〉에 의하면 여성의 경우, 1인 가구가 64.6%로 압도적이며, 다음으로 2인 가구(18.3%), 3인 가구(7.5%)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남성의 경우는 2인 가구가 49.2%로 압도적이고, 다음으로 3인 가구(18.6%)와 4인 가구(14.2%) 순이며, 1인 가구는 4.6%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성별에 따른 사망력 차이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9〉 경영주 성별에 따른 가구원수별 가구구성 비교 (2005년)

(단위: 가구, %)

구 분	총농가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평균가구원수
남 자	1,056,202	4.6	49.2	18.6	14.2	13.5	2.9
여 자	216,706	64.6	18.3	7.5	4.6	5.1	1.7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2006.



평균 가구원수에서도 성별로 차이가 있다. 2005년 현재 남성 경영주의 평균 가구원수는 2.9명으로 농가 전체의 평균 2.7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은 1.7명으로 평균보다 훨씬 적게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해볼 때, 여성가구의 소인수화와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인 세대구성별 가구분포를 보아도 농가는 전국의 일반가구에 비해 매우 특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전국의 일반가구에 비해 농가는 1세대와 2세대 가구의 비중이 매우 높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가의 경우 1세대와 2세대 가구 비중이 전체의 73.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세대 가구의 비중이 39.9%로서 전국의 일반가구 16.2%보다 23.7%p 높고, 도시 특성을 보이는 동지역보다는 25.8%p나 높다. 반면에 전국의 일반 가구는 2세대 가구의 비중이 55.4%로 가장 높으며, 이는 농가의 34.0% 보다 21.4%p나 높은 수치이고 동지역의 경우는 58.7%로서 농가보다 24.7%p나 높다.

이러한 세대별 가구구성의 차이는 곧 농가에서 세대구성의 단순화 경향이 도시지역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특히 전통적으로 3세대 이상의 직계가족 유형이 주류였던 농촌사회에서 이처럼 세대 구성이 도시보다 더 축소되고 단순화되었다는 사실은 그 만큼 농가의 구조적 변화가 심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며, 세대가 단순할수록 중심 세대의 연령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그 만큼 농가의 구조적 해체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3-10〉 세대별 가구구성 비교 (2005년)

(단위: 가구, %)

구 분	총가구수	1세대	2세대	3세대 이상	1인 가구	비혈연가구
전 국	15,887,128	16.2	55.4	7.0	20.0	1.4
동 지역	12,744,940	14.1	58.7	6.7	19.1	1.4
읍면지역	3,142,188	24.9	42.2	8.1	23.3	1.5
농 가	1,272,908	39.9	34.0	11.3	14.8	0.1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2006;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2006.

이러한 사실은 세대별 농가구성의 변화 추이를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 대비 2005년의 세대구성 변화 추이를 정리한 〈표 3-11〉에 의하면, 1세대 가구만 증가하고 2세대 가구 이상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세대 깊이가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00년에는 2세대 가구의 비중이 38.0%로 가장 많았으나 2005년에는 1세대 가구의 비중이 39.9%로 순위가 바뀌고 있다. 이는 지난 5

년 사이, 1세대 가구는 6.5%가 증가한 반면에 4세대 이상의 가구는 29.7%, 3세대 가구는 27.3%, 2세대 가구는 17.9%가 감소한 탓에 나타난 현상이다.

농가의 세대구성 변화추이를 보다 세밀히 분석하기 위해 2000년과 2005년에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통계청, 2006), 지난 5년 사이 전국의 2세대 가구는 1.3% 증가한 반면에 농가는 17.9%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세대 가구의 경우는 전국이 26.6%가 증가한 반면에 농가는 6.5% 증가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농가의 경우 2세대가 줄어들면서 세대깊이가 축소되고 있지만, 전국 일반가구의 경우 1세대 가구의 급격한 증가가 세대깊이 축소를 가져온 요인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특히 전국 일반가구의 1세대는 대부분 자녀를 출산하기 이전의 형성기 가족임에 비해 농가의 2세대와 1세대는 해체기에 들어선 경우임을 주목한다면, 향후 농가가 지속적으로 해체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표 3-11〉 세대별 농가구성의 변화 추이 (2000~2005년)

(단위: 천가구, %)

		2000년		2005년		증감(2000~2005)	
		가구	비율	가구	비율	증 감	증감률
계		1,383,468	100.0	1,272,908	100.0	-110,560	-8.0
친족 가구	· 1세대 가구	477,079	34.5	508,195	39.9	31,116	6.5
	· 2세대 가구	527,445	38.0	432,866	34.0	-94,579	-17.9
	· 3세대 가구	191,876	13.9	139,518	11.0	-52,358	-27.3
	· 4세대 이상가구	5,465	0.4	3,844	0.3	-1,621	-29.7
1인 가구		181,225	13.1	188,091	14.8	6,866	3.8
비친족 가구		348	0.1	394	0.1	46	13.2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각년도.

가족 유형의 변화

일반적으로 가구의 인원상 형태나 세대별 구성형태를 살펴보는 것은 가족의 크기나 세대 깊이, 그리고 구성상 형태의 다양성을 살펴보기에 유용한 접근법이지만 가족구성의 '의미의 차(差)'에 대한, 그리고 가족해체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가족의 구조적 특질에 근거한 가족유형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가의 경우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가족의 구조적 해체가 심화되었다는 사실은 많이 지적하고 있지만, 그 실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한 가족유형의 존재양상과 그 변화과정을 살펴보



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먼저 <표 3-12>에 의하여 2005년 농가의 가족유형 존재양상을 분석해보면, 중심 부부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형(family of procreation)이 전체의 66.5%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중심 부부와 그 가 부양하는 부모세대가 결합하는 직계가족형(family of orientation)은 9.6%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전국의 일반가구와 비교해보면, 핵가족형은 비슷한 분포이나 직계가족형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1인 가구 비중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직계가족형이 크게 줄어들고 있으나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는 것은 아직도 전통적 농촌사회의 특성이

<표 3-12> 전국 일반가구와 농가의 가족유형 비교 (2005년)

(단위: 천가구, %)

		인구주택총조사		농업총조사	
계		15,887,128	100.0	1,272,908	100.0
핵가족형	부부	2,258,982	14.2	502,183	39.5
	부부+기타 친인척	16,081	0.1	2,785	0.2
	경영주+기타 친인척	32,902	0.2	2,785	0.2
	부부+자녀	6,701,759	42.2	286,367	22.5
	경영주+자녀	1,369,943	8.6	44,905	3.5
	부부+자녀+기타 친인척	73,562	0.5	7,654	0.6
	소 계	10,453,229	65.8	846,679	66.5
직계가족형	부부+자녀+양친	140,535	0.9	10,303	0.8
	부부+자녀+한부(모)	567,150	3.6	64,820	5.1
	부부+양친	23,279	0.1	4,046	0.3
	부부+한부(모)	131,544	0.8	43,633	3.4
	소 계	862,508	5.4	122,802	9.6
기타	부(부)+형제자매	221,492	1.4	-	0.0
	조부모+손자녀	58,101	0.4	12,817	1.0
	4세대 이상 가구	15,902	0.1	3,844	0.3
	비혈연가구	225,946	1.4	394	0.1
	기타 ²⁾	879,275	5.5	98,281	7.7
	소 계	1,400,716	8.8	115,336	9.1
1인 가구		3,170,675	20.0	188,091	14.8

주: 1) 인구센서스의 경우에는 가구주, 농업총조사의 경우는 경영주를 기준으로 구성한 것임.

2) 기타에는 1세대, 2세대, 3세대가구의 '기타' 를 모두 포함한 것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2006;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2006.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핵가족형 가구 중에서는 '부부' 만으로 이루어진 가구형태가 39.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전국 일반가구의 비중보다도 25.3%p나 높은 수치인 점이 특징적이다. 농가의 경우 이들 부부 가구의 연령별 분포가 대부분 60대 이후이지만 전국 일반가구의 경우는 결혼 직후 연령대인 30대에 모여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농가의 부부가구는 구조적 해체에 직면한 유형이며 전국의 일반가구의 부부가구는 이제 형성단계에 있는 유형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핵가족형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부부+자녀' 가구의 비중은 22.5%에 머물러 전국 일반가구의 42.2%보다 19.7%p나 적다. 이런 사실은 농가의 핵가족형이 매우 빠르게 해체가 진행되고 있고, 진행될 수 있는 가구유형임을 알려주고 있다.

가족 생애주기 단계에서 자녀가 포함되는 '자녀포함형' 가구는 가족의 특화 기능인 양육과 사회화가 수행되고 있는 비교적 건강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농가 중에서는 자녀가 포함된 가구가 전체의 32.5%로 불과한 반면에 전국의 일반가구는 55.8%로 23.3%p나 차이가 나고 있다. 농가에서 자녀포함형 가구가 적게 나타나는 것은 전체 가구주의 연령분포와 농가인구의 고령화 현상을 고려할 때, 자녀가 성장하여 부모를 떠나는 가구의 축소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만약 도시로 떠난 자녀가 귀농하여 다시 새로운 가구를 구성하거나 부모와 동거하는 가구유형을 구성하지 않는 한 향후 농가의 가구유형이 더욱 더 구조적으로 해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농가의 가족유형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2000년에 비해 2005년의 유형별 농가분포의 변화 사항을 정리한 것이 <표 3-13>이다.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특징은 '자녀포함형' 가구형태가 크게 줄어들고 1인가구와 노인 부부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5년 사이 농가의 가구 형태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경우는 '부부+자녀' 형태로서 78,561가구가 줄어들었으며 감소폭은 21.5%에 이른다. 다음으로 '부부+자녀+한부(모)' 형태이며, 29,108가구가 줄어들었으며 감소폭은 더욱 커져 31.0%에 이른다. 반면에 '부부' 만으로 이루어진 형태는 30,935가구가 증가하여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1인 가구도 6,866가구나 늘어나 비교적 증가폭이 큰 가구형태이다.

농가의 가구구성에서 자녀가 포함된 가구형태는 '부부+자녀', '경영주+자녀', '부부+자녀+기타 친인척', '부부+자녀+양친', '부부+자녀+한부(모)', '조부모+손자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난 5년 사이 이들 자녀가 포함된 가구형태는 모두 126,713가구가 줄어들었으며(22.9%), 증가한 경우는 '부부+자녀+기타 친인척' 형태의 2,561가구에 불과하다. 자녀포함형 가구가 이렇게 급속하게 줄어



드는 것은 농가의 구조적 해체와 사회재생산 기능의 약화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농가의 가족유형 변화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은 친인척과 형제자매가 포함된 방계형 가족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방계형 가족은 지난 2000년 10,506가구였던 것이 2005년에는 13,224가구로 5년 사이 2,718가구나 증가하고 있다. 1인 가구는 전국 일반가구에 비해서 증가 폭은 크지 않지만 지난 5년 사이에 6,866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유형은 대부분 정상적인 가족주기에 따라 형성되기 보다는 다른 가족이 해체되면서 일시적으로 위탁·보호되는 경우이거나 일시적으로 비혈연 가구원이 포함되는 과정에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

(표 3-13) 가족유형별 농가구성 변화 추이 (2000~2005년)

(단위: 천가구, %)

		2000년		2005년		증감(2000~2005)	
						증 감	증감률
계		1,383,468	100.0	1,272,908	100.0	-110,560	-8.0
핵가족형	부부	471,248	34.1	502,183	39.5	30,935	6.6
	부부+기타 친인척	2,670	0.2	2,785	0.2	115	4.3
	경영주+기타 친인척	2,743	0.2	2,785	0.2	42	1.5
	부부+자녀	364,928	26.4	286,367	22.5	-78,561	-21.5
	경영주+자녀	56,453	4.1	44,905	3.5	-11,548	-0.2
	부부+자녀+기타 친인척	5,093	0.4	7,654	0.6	2,561	50.2
	소 계	903,135	65.3	846,679	66.5	-56,456	-6.3
직 계 가족형	부부+자녀+양친	17,017	1.2	10,303	0.8	-6,714	-39.5
	부부+자녀+한부(모)	93,928	6.8	64,820	5.1	-29,108	-31.0
	부부+양친	4,813	0.3	4,046	0.3	-767	-16.0
	부부+한부(모)	46,957	3.4	43,633	3.4	-3,324	-7.1
	소 계	162,715	11.8	122,802	9.6	-39,913	-24.5
기 타	조부모+손자녀	16,160	1.1	12,817	1.0	-3,343	-20.7
	4세대 이상 가구	5,465	0.4	3,844	0.3	-1,621	-29.7
	비혈연가구	348	0.1	394	0.1	46	13.2
	기타 ¹⁾	114,390	8.3	98,281	7.7	-16,109	-14.1
	소 계	136,363	9.9	115,336	9.1	-21,027	-15.4
1인 가구		181,225	13.1	188,091	14.8	6,866	3.8

주: 1) 기타에는 1세대, 2세대, 3세대가구의 '기타' 를 모두 포함한 것임.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로 변동할 수 있는 구조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더불어 1인 가구의 대부분은 65세 이후의 연령층이기 때문에 도시의 혼인지연으로 인해 형성되는 경우와 다른 점이 있다. 이런 사실들에서 농가의 다양화·복잡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농가 가족유형의 변화를 보다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핵가족형과 직계가족형의 구별보다 더욱 세밀한 조합에 의해 유형을 구분하고, 이들의 분포와 변화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가의 경우는 가구원의 고령화와 가족주기상 해체기에 해당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형태상 분류를 통해서도 유형별 의미의 차이와 가족구성의 변화가 지니는 구조적인 차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중심 부부의 연령, 가족성장 단계, 가구원의 구성범위, 가계계승자의 존재여부와 지위 등을 고려하여 이념형 가구와 비이념형 가구, 과도기형 가구를 구별하여 그 분포와 변화추세를 살펴보기로 한다.¹⁾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념형, 비이념형, 과도기형 가족유형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이념형(ideal type) 가구는 '부부+자녀' 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핵가족(monolithic nuclear family)과 '부부+자녀+양친' 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직계가족을 의미함.
- 과도기형(transitional type) 가구는 전이과정에 있는 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한 형태나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하여 한부모 형태로 있는 핵가족이나 직계가족형 가구를 의미함.
 - '부부' 가구의 경우 결혼후 자녀를 갖지 않은 형성기 가구나 자녀가 모두 독립한 쇠퇴기 가구를 모두 포함하며, '부부+양친' 의 경우 중심부부의 자녀가 독립한 경우임.
- 비이념형(non-ideal type) 가구는 과도기형 가구가 해체되어 1인 가구나 조손가구로 구성되는 형태와 친인척과 형제자매가 포함된 방계형, 비혈연가구 등이 포함된 형태임.

1) 장현섭(1993)은 한국 가족유형의 구조적 특질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센서스 자료의 일방적인 가구형태 분류에서 나아가 한국인의 가족가치 지향에 더하여 일반적인 의미의 핵가족과 직계가족으로 구성되는 이념형과 노인 부부가족이나 한부모가족 등으로 구성되는 비이념형,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념형이나 비이념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이념형 개념은 Weber가 설명한 바, 논리적 일관성에 의해서 같이 묶어질 수 있는 측면들을 선택하여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개념적 구성물을 의미한다.



이런 분류기준에 의거하여 2005년 농가와 전국의 일반가구 가족유형을 재구성한 결과를 비교한 것이 <표 3-14>이다. 2005년 농가의 가구구성에서 이념형적 가족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형태는 전체의 23.3%로서 전국 일반가구의 43.2%와 비교할 때 19.9%p나 적은 수치이다. 이러한 경향은 비이념형 가족유형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농가가 28.4%임에 비해 전국의 일반가구는 38.2%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의 가족유형 특질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과도기형 가족유형이다. 전체의 48.3%를 차지하여 전국 일반가구의 18.6%보다 무려 29.7%p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인 부부가 가구를 이루는 형태가 농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반면에 전국 일반농가에서 비이념형 가족유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결혼을 미루고 있는 젊은 1인 가구가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전국의 일반농가와 농가의 가족유형을 비교해본 결과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농가는 전국의 일반가구에 비해 전형적인 가족유형이 점차 해체되어 과

<표 3-14> 전국 일반가구와 농가구성의 비교 (2005년)

(단위: 천가구, %)

		인구주택총조사(일반가구)		농업총조사(농가)	
계		15,887,128	100.0	1,272,908	100.0
이념형	부부+자녀(핵가족)	6,701,759	42.2	286,367	22.5
	부부+자녀+양친(직계가족)	140,535	1.0	10,303	0.8
	소 계	6,842,294	43.2	296,670	23.3
과도기형	부부	2,258,982	14.2	502,183	39.5
	부부+양친	23,279	0.1	4,046	0.3
	부부+한부(모)	131,544	0.8	43,633	3.4
	부부+자녀+한부(모)	567,150	3.6	64,820	5.1
	소 계	2,980,955	18.6	614,682	48.3
비이념형	1인 가구	3,170,675	20.0	188,091	14.8
	방계형(친인척 포함가구)	344,037	2.2	13,224	1.0
	한부모가족형	1,369,943	8.6	44,905	3.5
	조부모+손자녀	58,101	0.4	12,817	1.0
	비혈연가구	225,946	1.4	394	0.1
	4세대 이상 가구	15,902	0.1	3,844	0.3
	기타	879,275	5.5	98,281	7.7
	소 계	5,063,879	38.2	361,556	28.4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2006;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2006.

도기형 가족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의 중심 부부 연령이 대부분 60세 이상의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이념형에서 과도기형으로, 과도기형에서 비이념형으로 가족구조가 변화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둘째, 가족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이념형 가족유형이 전국의 일반가구에 비해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가 가족구조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앞의 자녀포함형 가구의 감소추세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농가의 사회재생산 기능과 가족부양체제가 약화되어진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다음은 2000년에 비해 2005년에의 농가 가족구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자. 지난 5년 사이 전체 농가 수의 감소경향을 반영하여 모든 유형의 가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의 가구가 줄어든 것이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핵가족이며, 감소폭이 큰 가구유형은 '부부와 자녀, 그리고 양친'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직계가족 유형이다. 이에 따라 지난 5년 동안에 이념형 가족은 85,275가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감소율은 22.3%에 이른다.

이념형 가족이 이렇게 줄어드는 반면에 과도기형 가족과 비이념형 가족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0년 44.6%를 차지하던 과도기형 가족은 2005년에 48.3%로 증가하여 반수에 육박하고 있으며, 비이념형 가족은 27.8%에서 28.4%로 증가하고 있다. 과도기형 가족이 증가한 이유는 자녀가 성장하여 부모를 떠나면서 만들어지는 노인 부부가족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자녀가 포함된 '부부+자녀+한부(모)' 형태는 전형적인 직계가족 형태에서 부모 중 한명이 사망하면서 편친이 포함된 불완전 형태의 직계가족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자녀가 성장하여 이동하게 되면 비이념형 가구형태로 전환될 소지가 많은 가구들이다. 비이념형 가족에서는 1인 가구와 방계형 가구의 증가폭이 주목할 만하다. 반면에 조손가족이나 비혈연가족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이념형은 줄어들고, 과도기형이나 비이념형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5년 동안 절대 농가의 감소와 더불어 농가의 구조적 해체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과도기형의 부부가구나 비이념형의 1인가구는 중심부부 연령층이 60대 이상의 고령인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자연 소멸될 농가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중심부부의 연령을 고려하여 가족유형을 재구성하면, 부부형 가구나 1인 가구의 대부분은 고령화된 형태를 보여준다. 이들의 구성비가 높은 것은 그 만큼 농가의 가족구조가 허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3-15〉 연도별 농가 가족유형의 변화추세 (2000~2005년)

(단위: 가구, %)

		2000년		2005년		증감(2000~2005)	
						증감	증감률
계		1,383,468	100.0	1,272,908	100.0	-110,560	-8.0
이 넘 형	부부+자녀 (핵가족)	364,928	26.4	286,367	22.5	-78,561	-21.5
	부부+자녀+양친(직계가족)	17,017	1.2	10,303	0.8	-6,714	-39.5
	소 계	381,945	27.6	296,670	23.3	-85,275	-22.3
과도기형	부부	471,248	34.1	502,183	39.5	30,935	6.6
	부부+양친	4,813	0.3	4,046	0.3	-767	-15.9
	부부+한부(모)	46,957	3.4	43,633	3.4	-3,324	-7.1
	부부+자녀+한부(모)	93,928	6.8	64,820	5.1	-29,108	-31.0
	소 계	616,946	44.6	614,682	48.3	-2,264	-2.4
비이넘형	1인 가구	181,225	13.1	188,091	14.8	6,866	3.8
	방계형(친인척 포함가구)	10,506	0.8	13,224	1.0	2,718	25.9
	한부모가족형	56,453	4.1	44,905	3.5	-11,548	-20.5
	조부모+손자녀	16,160	1.1	12,817	1.0	-3,343	-20.7
	비혈연가구	348	0.1	394	0.1	46	13.2
	4세대 이상 가구	5,465	0.4	3,844	0.3	-1,621	-29.7
	기타 ¹⁾	114,390	8.3	98,281	7.7	-16,109	-14.1
	소 계	384,547	27.8	361,556	28.4	-22,991	-6.0

주: 1)기타에는 1세대, 2세대, 3세대가구의 '기타' 를 모두 포함한 것임.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다양한 농가의 특성

농가 구성의 다양화와 복잡화는 전국 일반가구와 비교되는 특성을 가진 농가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독거노인 가족, 고령의 부부가족과 여성 경영주 가족, 그리고 결혼이민자가족 등이다. 먼저 농가의 1인 가구 특성을 살펴보면, 이들이 대부분 독거노인 형태임을 알 수 있다. 2005년 현재 농가 1인 가구의 81.3%가 60세 이상의 노인층이며, 40세 미만 비교적 젊은 1인 가구는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반면에 전국 일반가구 중에서 60세 이상 1인 가구는 30.9%에 불과하지만, 30세 미만은 22.8%, 30대는 19.9%로 40세 미만이 42.7%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6> 연령별 1인 가구 구성변화 (2000~2005년)

(단위: 천가구, %)

		2000년		2005년		증감(2000~2005)	
		가구수	구성비	가구수	구성비	증 감	증감률
인구주택총조사 (전국)	30세 미만	561	25.2	723	22.8	162	28.9
	30~39세	415	18.7	629	19.9	214	51.6
	40~49세	295	13.3	474	15.0	179	60.7
	50~59세	246	11.1	366	11.5	120	48.8
	60~69세	352	15.8	430	13.6	78	22.2
	70세 이상	355	16.0	548	17.3	193	54.4
	합 계	2,224	100.0	3,171	100.0	947	42.6
농업총조사 (농가)	30세 미만	565	0.3	271	0.1	-294	-52.0
	30~39세	3,156	1.7	2,040	1.1	-1,116	-35.4
	40~49세	9,009	5.0	8,613	4.6	-396	-4.4
	50~59세	30,081	16.7	24,378	13.0	-5,703	-19.0
	60~69세	81,836	45.1	74,599	39.7	-7,237	-8.8
	70세 이상	56,608	31.2	78,190	41.6	21,582	38.1
	합 계	181,255	100.0	188,091	100.0	6,836	3.8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2006; 통계청,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지난 5년 사이 구성비 변화를 보더라도 농가의 경우는 70세 이상의 1인가구만 증가는 반면, 전국의 일반 1인 가구는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폭은 30대와 40대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볼 때 농가의 1인 가구는 대다수가 고령의 독거노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반면에 전국의 일반 1인 가구는 젊은 층의 결혼기피와 만혼현상으로 인해 대규모로 형성되고 있는 비혼(非婚) 인구층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농가의 고령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심 부부의 경영주 연령층을 살펴본 결과, 60대가 33.8%(430천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50대(23.8%)와 70대(24.5%)의 순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농가의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평균가구원수도 농가의 고령화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미성년 자녀와 동거하는 시기인 40대의 평균가구원수가 3.9명으로 가장 높았고, 자녀가 독립하는 50대 이하부터 가구원수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런 사실은 농가가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소인수화 문제로 정서적 소외와 가족부양의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3-17〉 경영주 연령에 따른 농가특성 변화 (2005년)

(단위 : 천가구, %, 명)

	계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농가수	1,273(100.0)	42(3.3)	186(14.6)	303(23.8)	430(33.8)	311(24.5)
평균가구원수	2.7	3.4	3.9	2.9	2.4	2.1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2006.

다음으로 농가의 여성화와 이들의 고령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 다음의 〈표 3-18〉이다. 2006년 12월 현재 여자 경영주 가구는 213천 가구로 전체 농가의 17.1%를 차지하며, 이는 전년에 비해 약 4천 가구가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문제는 여성경영주의 고령화 현상이다. 60세 이상에서는 13.1%(163천명)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성 경영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더구나 연령이 높을수록 이들 대부분이 1인 가구 형태를 이룬다는 점을 볼 때, 도시지역에서 흔히 보이는 여성 독거노인의 빈곤화 문제가 농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3-18〉 여성 경영주 가구의 연령별 분포

(단위 : 천가구, %)

		전체농가	여자경영주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05년		1,273 (100.0)	217 (17.0)	2 (0.2)	12 (0.9)	34 (2.6)	169 (13.3)
2006년		1,245 (100.0)	213 (17.1)	2 (0.2)	13 (1.0)	35 (2.8)	163 (13.1)
전년 대비	증 감	-28	-4	0	1	1	-6
	증감률	-2.2	-1.9	3.4	8.8	1.9	-3.5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2006; 통계청, 농업기본통계조사결과, 2006.

여성가구의 혼인상태를 분석한 결과, 이들 여성가구의 형성은 사별로 인한 자연적 형성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국 일반가구가 이혼으로 인해서 여성가구(한부모가구)가 형성되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 여성가구는 90% 이상이 사별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반면에 이혼으로 인한 여성가구 형성은 50세 미만에서 5% 이내로 나타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40세 미만의 상대적으로 젊은 층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경영주가 되는 경우다.

〈표 3-19〉 연령별 여성경영주 혼인상태 분포 (2005년)

(단위: 천가구, %)

	미 혼	유배우	사 별	이 혼	가 구
40세 미만	6,6	77,9	10,9	4,7	2,271
40~49세	2,4	51,5	41,0	4,9	11,605
50~59세	0,9	21,1	75,8	2,2	34,102
60~69세	0,3	7,3	91,8	0,6	87,711
70세 이상	0,3	5,8	93,6	0,1	81,037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2006.

농가의 영농 지속성을 가늠할 수 있는 영농승계자 보유여부를 살펴본 것이 〈표 3-20〉이다. 영농승계자 보유가구는 지난 2000년 151천명에서 2005년 45천명으로 줄어들어 지난 5년 사이 106천명이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현재 영농승계자 보유가구는 전체의 3.5%에 불과하다.

영농승계자의 연령분포 변화를 보면, 전 연령층에서 고루 감소하고 있지만 특히 20대의 감소폭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실에서 전체 농가의 지속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젊은 층의 이탈이 다른 연령층보다 더욱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회재생산 구조가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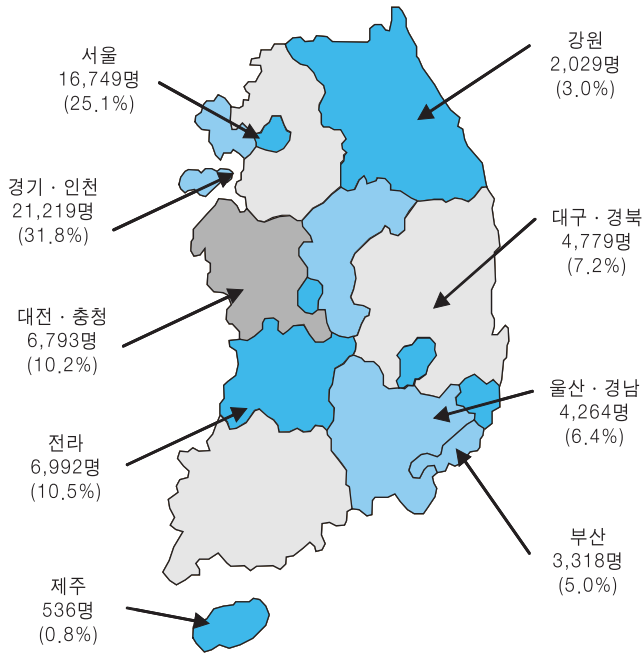
〈표 3-20〉 영농승계자 보유현황 변화 (2000~2005년)

(단위: 천가구, %)

		전체농가	영농승계자 보유가구				
			15~19세	20~29세	30~39세	40세 이상	
2000년		1,383 (100,0)	151 (11,0)	16 (1,2)	54 (3,9)	53 (3,8)	28 (2,0)
2005년		1,273 (100,0)	45 (3,5)	3 (0,2)	12 (0,9)	18 (1,4)	12 (0,9)
전년 대비	증 감	-110	-106	-13	-42	-35	-16
	증감률	-8,0	-70,2	-81,3	-77,8	-66,0	-57,1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최근 들어 농가의 새로운 형성은 대부분 여성결혼이민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것이다. 2005년 현재 농림어업 종사자(남자)의 경우 총 결혼 8,027건 중 국제결혼이 2,885건으로 35,9%를 차지하고 있었다(여성가족부, 2006). 이제 결혼이민자가족은 농촌사회의 새로운 가족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그림 3-2〉 여성결혼이민자 지역별 체류 현황(2005년 12월 기준)

이다. 이러한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75%는 도시(동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25%는 농촌(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시도별 분포를 보면, 경기·인천에 전체의 31.8%, 서울에 25.1%가 거주하고 있어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밀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호남지역(10.5%)과 충청지역(10.2%)에 비교적 많이 거주하고 있다. 재중동포는 주로 도시에 거주하고, 필리핀·태국·베트남 여성은 주로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결혼이민자가족이 농림어촌지역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90년대 이후부터이다. 이 때문에 이들의 자녀가 이제 취학연령이 되어 학교에 다니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표 3-21〉에 의하면, 결혼이민자가족의 자녀 중 6,121명이 재학 중이며, 이 중에서 읍면지역은 40.9%를 차지한다. 취학자녀 중 87.1%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고등학교는 아직 3.4%에 불과하다. 이는 결혼이민자가족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가 1,480명(23.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 688명, 전남 587명, 전북 517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21〉 결혼이민자가족의 자녀 취학현황

(단위: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초	555	203	133	243	117	82	10	1,259	288	253	312	475	550	411	394	47	5,332
중	108	36	15	25	8	14	0	176	14	19	24	29	28	30	56	1	583
고	25	11	9	19	2	17	0	45	2	7	9	13	9	27	7	4	206
합계	688	250	157	287	127	113	10	1,480	304	279	345	517	587	468	457	52	6,121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보고서, 2006.

농림어촌지역의 결혼이민자가족은 가족주기상 형성기에 있기 때문에 다른 가족유형에 비하여 구조적 건전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질적인 문화와 언어가 가족 내에 상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족문제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앞에서 살펴본 자녀의 교육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제 3 절 어가의 가족구조

가수수의 변화

어가의 가구수는 농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난 1970년 149,107가구를 정점으로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5년 현재 79,942가구로 줄어들고 있다. 지난 35년 사이 69,165가구가 줄어들었으며, 감소폭은 무려 46.4%에 이른다. 이러한 감소폭은 농가의 45.3%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1970년 이후 어가수의 변화를 보여주는 〈표 3-22〉에 의하면, 1990년 이후 집중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표 3-22〉 연도별 어가수 변화 (1960~2005년)

(단위: 가구, %)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어가수	149,107	134,109	121,525	104,480	81,571	79,942
증감률	-	-10.1	-9.4	-14.0	-21.9	-2.0

자료: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2006.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의 감소폭은 21.9%에 이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농가가 198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최근에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어가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전국 총가구수 대비 어가의 비중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06년 통계청이 작성한 「어업기본통계조사결과」에 의하면, 2005년 현재 어가 비중은 0.5%에 불과하며, 이는 지난 2000년 이후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2005년의 경우 어가 실수가 8천 가구 정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3-23〉 총 가구수 대비 어가 비중

(단위: 천가구,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가구	14,609	14,834	15,064	15,298	15,539	15,789
어 가	82	78	73	73	73	80
어가 비중	0,6	0,5	0,5	0,5	0,5	0,5

가구 크기의 변화

어가의 가구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가구원수별 가구구성 분포를 살펴본 결과, 2인 이하의 소인수 가구가 전체의 54.7%를 차지하여 전국 일반가구의 42.2%보다 12.5%p나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4인 이상의 대가구는 26.3%에 머물러 전국 일반가구의 37.0%보다 10.7%p가 적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균가구원수는 2.8명으로 농가의 2.7명보다는 높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적은 수치였다.

〈표 3-24〉 가구원수별 가구 구성비 비교 (2005년)

(단위: 가구, %, 명)

구 분	총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평균가구원수
전 국	15,887,128	20.0	22.2	20.9	27.0	10.0	2.9
어 가	79,942	12.0	42.7	19.1	14.8	11.5	2.8

자료: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2006.

가구원수별 어가 분포의 변화추세를 알기 위하여 2000년 결과와 비교해본 결과, 2인 이하의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3인 이상의 대규모 가구가 줄어들고 있어 전체 어가 가구규모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지난 5년 사이 어가 규모의 증감률을 보면, 1인 가구가 27.2%가 증가하여 증가폭

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2인 가구의 21.6%였다. 반면에 5인 가구 이상은 33.3%가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4인 가구(△24.9%), 3인 가구(△7.4%) 순이었다. 이러한 증감 경향은 농가의 경우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3-25〉 가구원수별 여가분포의 구성비 변화 (2000~2005년)

(단위 : 가구, %)

	총어가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2000년	81,571(100.0)	9.2	34.4	20.2	19.3	16.9
2005년	79,942(100.0)	12.0	42.7	19.1	14.8	11.5
증감률	-2.0	27.2	21.6	-7.4	-24.9	-33.3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2006.

경영주 성별에 따른 어가의 가구원수별 분포에서도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여성은 노인단독가구, 남성은 2인 가구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표 3-26〉에 의하면 여성 경영주의 경우, 1인 가구가 38.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2인 가구(33.5%), 3인 가구(13.5%)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남성 경영주의 경우는 2인 가구가 45.1%로 압도적이고, 다음으로 3인 가구(20.6%)와 4인 가구(16.9%) 순이며, 1인 가구는 4.8%에 불과하다. 이러한 분포를 농가와 비교해보면 남성 경영주의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성의 경우 2인 가구가 농가보다 훨씬 높은 비율인 점이 차이가 있다.

〈표 3-26〉 성별에 따른 가구원수별 가구구성비 비교 (2005년)

(단위 : 가구, %)

구 분	총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남 자	62,988	4.8	45.1	20.6	16.9	12.6
여 자	16,954	38.7	33.5	13.5	7.0	7.3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2006.

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는 세대구성별 가구분포를 알아보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대 깊이의 개념이 매우 유용하다. 〈표 3-27〉은 이를 알아보기 위해 2005년 세대별 가구구성 비율을 알아본 것이다. 이를 보면, 어가는 먼저 전국의 일반가구에 비해 1세대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2세대 이상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1세대 가구의 경우 어가는 39.1%를 차지하여



전국 일반가구의 16.2%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세대 가구는 전국의 일반 가구가 55.4%를 차지한데 비해 어가는 39.1%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어가의 세대별 가구 구성은 농가와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3-27〉 세대별 가구구성비 비교 (2005년)

(단위 : %)

구 분	총가구수	1세대	2세대	3세대 이상	1인 가구	비혈연가구
전 국	15,887,128	16.2	55.4	7.0	20.0	1.4
어 가	79,942	39.1	39.1	9.5	12.0	0.2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2006; 통계청, 농업총조사 2006.

어가의 세대별 가구구성 변화추이를 알기 위하여 2000년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지난 5년 사이에 1세대 가구는 6,050가구가 증가하여 증가율이 24.0%에 이르렀다. 1인 가구의 경우도 모두 2,047가구가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27.2%이다. 이에 비해 2세대 가구는 모두 7,339가구가 감소하여 감소율이 19.0%에 이르며, 3세대 가구는 2,347가구가 감소하여 감소율이 23.9%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어가의 세대별 가구구성 변화추이는 농가의 경우와 비슷하게 나타난 것이다. 즉 1세대 가구와 1인 가구의 증가와 2세대 이상의 가구 감소로 인해 어가의 세대 깊이가 그만큼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농가와 마찬가지로 어가도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구조적 변화가 심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세대 깊이가 축소되고 가구구성이 단순해지는 것과 더불어 이들 가구의 중심 부부의 연령이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해보면, 농가와 마찬가지로 어가도 구조적 측면에

〈표 3-28〉 세대별 어가구성의 변화 추이 (2000~2005년)

(단위 : 가구, %)

		2000년		2005년		증감(2000~2005)	
						증 감	증감률
계		81,571	100.0	79,942	100.0	-1,629	-2.0
친족 가구	1세대 가구	25,237	31.0	31,287	39.1	6,050	24.0
	2세대 가구	38,635	47.4	31,296	39.1	-7,339	-19.0
	3세대 가구	9,803	12.0	7,456	9.3	-2,347	-23.9
	4세대 이상	265	0.3	192	0.2	-73	-27.5
1인 가구		7,538	9.2	9,585	12.0	2,047	27.2
비혈연 가구		93	0.1	126	0.2	33	35.5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2006.

서의 해체가 지속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가족 유형의 변화

어가의 경우도 농가와 마찬가지로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가족의 구조적 해체가 심화되었다는 사실은 많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가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어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한 가족유형의 존재양상과 그 의미의 차이에 대한 해석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여기에서 어가의 가족유형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표 3-29〉 가구형태별 가구구성 비교 (2005년)

(단위: 가구, %)

		인구주택총조사		어업총조사	
계		15,887,128	100.0	79,942	100.0
핵가족형	부부	2,258,982	14.2	30,691	38.4
	부부+기타 친인척	16,081	0.1	232	0.3
	경영주+기타 친인척	32,902	0.2	198	0.2
	부부+자녀	6,701,759	42.2	21,580	27.0
	경영주+자녀	1,369,943	8.6	2,990	3.7
	부부+자녀+기타 친인척	73,562	0.5	610	0.8
	소 계	10,453,229	65.8	56,301	70.4
직 계 가족형	부부+자녀+양친	140,535	0.9	491	0.6
	부부+자녀+한부(모)	567,150	3.6	3,411	4.3
	부부+양친	23,279	0.1	253	0.3
	부부+한부(모)	131,544	0.8	2,855	3.6
	소 계	862,508	5.4	7,010	8.8
기 타	부(부)+형제자매	221,492	1.4	-	-
	조부모+손자녀	58,101	0.4	793	1.0
	4세대 이상 가구	15,902	0.1	192	0.2
	비혈연가구	225,946	1.4	126	0.2
	기타 ²⁾	879,275	5.5	5,935	7.4
	소 계	1,400,716	8.8	7,046	8.8
1인 가구		3,170,675	20.0	9,585	12.0

주: 1) 인구센서스의 경우에는 가구주, 어업총조사의 경우는 경영주를 기준으로 구성한 것임.

2) 기타에는 1세대, 2세대, 3세대가구의 '기타' 를 모두 포함한 것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2006;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2006.



다양한 가족연구와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먼저 <표 3-29>에 의하여 2005년 어가의 가족유형 존재양상을 분석해보면, 중심 부부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형(family of procreation)이 전체의 7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중심 부부와 그가 부양하는 부모세대가 결합하는 직계가족형(family of orientation)은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분포는 수치 측면에서 농가와 달리 전국 일반가구의 핵가족형이나 직계가족형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핵가족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부만으로 이루어지는 가구형태이고, 이들의 연령층이 대부분 60대 이상이라는 점에서 농가의 경우와 유사하다. 형태는 핵가족이지만 내용은 해체과정에 놓여 있는 과도기적 가구 특징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직계가족형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는 것 또한 농가의 경우와 유사하다. 이는 어업지역의 특성이 전통적 농촌사회와 비슷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1인 가구의 비중이 전국 일반가구보다 적게 나타나는 것 또한 어가와 농가의 가족구조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어가의 가족유형 변화를 보다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농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가 전체의 가구구성 형태를 이념형 가족, 과도기형 가족, 비이념형 가족으로 재구성하여 지난 5년 사이 변화추세를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3-30>이다. 2005년 어가의 가구구성에서 이념형적 가족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형태는 전체의 27.6%로서 전국 일반가구의 43.2%와 비교할 때 15.6%p나 적은 수치이다. 이러한 경향은 비이념형 가족유형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어가가 25.8%임에 비해 전국의 일반가구는 38.2%를 차지하고 있다.

어가의 가족유형 특질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과도기형 가족유형이다. 전체의 46.6%를 차지하여 전국 일반가구의 18.6%보다 무려 28.0%p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인 부부가 가구를 이루는 형태가 어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반면에 전국 일반가구에서 비이념형 가족유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결혼을 미루고 있거나 하지 않으려는 젊은층의 1인 가구가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2000년에 비해 2005년에는 어가 가족유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지난 5년 사이 이념형 가족유형에서는 모두 7,869가구가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26.3%에 이른다. 농가와 마찬가지로 어가의 가족구조 또한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핵가족의 해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어가의 다양성을 가져오는 요

인이라 하겠다.

이념형 가족이 감소하는 대신에 과도기형 가족과 비이념형 가족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농가와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도기형 가족은 지난 5년 사이 4,362가구가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3.3%이다. 이에 비해 농가는 같은 기간 동안 2.4%가 감소하고 있다. 비이념형 가족 또한 1,878가구가 증가한 반면에 농가는 22,991가구가 감소하여 감소율이 6.0%에 이른다. 이러한 차이는 어가 전체의 가구수 감소폭 보다 농가의 가구수 감소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각 유형의 하위 가구구성 형태의 변화방향이나 변화폭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포함형 가구가 대폭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유사한데, 농가에서 지난 5년 사이 자녀포함형 가구가 92.4%가 감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가에서도 같은 기간 동안 94.2%가 감소하고 있다. 그만큼 어가의 구조적 해체도 농가와 마찬가지로 심각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표 3-30〉 연도별 어가 가족유형의 다양화 추세 (2000~2005년)

(단위: 가구, %)

		2000년		2005년		증감(2000~2005)	
						증 감	증감률
계		81,571	100.0	79,942	100.0	-1,629	-2.0
이념형	부부+자녀(핵가족)	29,076	35.6	21,580	27.0	-7,496	-25.8
	부부+자녀+양친(직계가족)	864	1.1	491	0.6	-373	-43.2
	소 계	29,940	36.7	22,071	27.6	-7,869	-26.3
과도기형	부부	24,770	30.4	30,691	38.4	5,921	23.9
	부부+양친	304	0.4	253	0.3	-51	-16.8
	부부+한부(모)	2,740	3.4	2,855	3.6	115	4.2
	부부+자녀+한부(모)	5,034	6.2	3,411	4.3	-1,623	-32.3
	소 계	32,848	40.4	37,210	46.6	4,362	13.3
비이념형	1인 가구	7,538	9.2	9,585	12.0	2,047	27.2
	방계형(친인척 포함가구)	809	1.0	1,040	1.3	231	28.6
	한부모가족형	3,222	3.9	2,990	3.7	-232	-7.2
	조부모+손자녀	729	0.9	793	1.0	64	8.8
	비혈연가구	93	0.1	126	0.2	33	35.5
	4세대 이상 가구	265	0.3	192	0.2	-73	-27.5
	기타	6,127	7.5	5,935	7.4	-192	-3.1
	소 계	18,783	22.9	20,661	25.8	1,878	1.0

자료: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2006.



제 4 절 임가의 가족구조

전체 가구수와 지역별 분포

임가에 대한 총조사는 1998년 1회 조사를 등록 임가 대상으로 실시한 이후, 2005년 처음 실시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준거에 의해 임가 가구수의 연도별 변화추세를 살펴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여기에서는 2005년 조사 결과에 의거 임가의 총가구수와 임가 가구수가 전국 총가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간단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2005년 통계청의 임업총조사에 의하면 임가 총가구수는 97,108가구이다. 이러한 임가의 전국 비중은 0.6%로 농가의 8.1%보다는 적고, 어가의 0.5%와는 비슷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임가의 지역별 분포를 정리한 것이 <표 3-31>이다. 가장 많은 임가가 분포한 곳은 경북으로 총 23,175가구이며, 전체의 23.9%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남 18,087가구(18.6%), 전남 13,496가구(13.9%), 전북 12,091가구(12.5%) 순이다. 흔히 산악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강원도의 경우 임가는 총 6,195가구로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표 3-31> 지역별 임가 분포 변화 (2005년)

(단위: 가구, %)

	가구수	구성비
합 계	97,108	100.0
특 광 역 시	3,892	4.0
경 기 도	4,359	4.5
강 원 도	6,195	6.4
충 청 북 도	4,710	4.9
충 청 남 도	9,526	9.8
전 라 북 도	12,091	12.5
전 라 남 도	13,496	13.9
경 상 북 도	23,175	23.9
경 상 남 도	18,087	18.6
제 주 도	1,037	1.1

자료: 통계청, 임업총조사보고서, 2006.

가구 크기의 변화

임가의 가구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가구원수별 가구구성 분포를 살펴본 결과, 2인 이하의 소인수 가구가 전체의 58.4%를 차지하여 전국 일반가구의 42.2%보다 16.2%p나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4인 이상의 대규모 가구는 24.1%에 머물러 전국 일반가구의 37.0%보다 12.9%p가 적게 나타났다. 특히 도시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동지역의 가구원수별 가구분포와 비교해보면 임가의 가구규모가 얼마나 단순화되고 축소되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즉, 2인 이하의 소인수 가구는 임가가 19.2%p나 많은 반면에, 4인 이상의 대규모 가구는 동지역에 비해 15.0%p나 적다. 이렇게 때문에 평균가구원수는 2.72명으로 농가의 2.71명보다는 높지만 전국 동지역의 2.93명보다는 0.21명이나 적게 나타났다.

〈표 3-32〉 가구원수별 가구구성 비교 (2005년)

(단위: 천가구, %)

구 분	총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전 국	15,887	20.0	22.2	20.9	27.0	10.0
동 지역	12,745	19.1	20.1	21.7	29.1	10.0
읍면지역	3,142	23.3	30.6	17.6	18.7	9.8
임 업	97	11.3	47.1	17.5	12.5	11.6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2006; 통계청, 임업총조사보고서, 2006.

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인 세대구성별 가구분포를 보아도 임가는 전국의 일반가구에 비해 매우 특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전국의 일반가구에 비해 임가는 1세대와 2세대 가구의 비중이 매우 높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가의 경우 1세대와 2세대 가구 비중이 전체의 78.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세대 가구의 비중이 44.0%로서 전국의 일반가구 16.2%보다 27.8%p나 높고, 도시 특성을 보이는 동지역의 14.1%보다는 39.9%p나 높다. 반면에 전국의 일반 가구는 2세대 가구의 비중이 55.4%로 가장 높으며, 이는 임가의 34.0% 보다 21.4%p나 높은 수치이고 동지역의 경우는 58.7%로서 임가보다 24.7%p나 높다.

이러한 세대별 가구구성의 차이는 곧 임가에서 세대구성의 축소와 단순화 경향이 도시지역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특히 전통적으로 3세대 이상의 확대가족 유형이 주로 나타났던 산촌 지역에서 이처럼 세대 구성이 축소되고 단순화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임가의 구조적 해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해준다.



이러한 세대 깊이의 축소와 가구규모의 단순화·소인수화 경향은 농가와 어가, 임가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농림어업이 전체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는 것과 더불어 단순상품생산형태의 특징 때문에 재생산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33〉 세대별 가구구성 비교 (2005년)

(단위: 천가구, %)

구분	총가구수	1세대	2세대	3세대 이상	1인 가구	비혈연가구
전국	15,887	16.2	55.4	7.0	20.0	1.4
동지역	12,744	14.1	58.7	6.7	19.1	1.4
읍면지역	3,142	24.9	42.2	8.1	23.3	1.5
임가	97	44.0	34.0	10.4	11.3	0.1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2006; 통계청, 임업총조사보고서, 2006.

가족 유형의 변화

2005년 임업총조사 결과를 가지고 임가의 가족유형을 세대별 가구구성 형태로 조합하여 핵가족형과 직계가족형, 기타 유형으로 정리한 것이 〈표 3-34〉이다.

핵가족형은 전체의 69.1%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해 조사된 전국 일반가구의 65.8%와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내부의 가구형태 분포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국 일반가구의 경우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핵가족 형태가 전체의 42.2%를 차지하는 반면에 임가의 경우는 22.1%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에 임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형태는 부부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 43.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심부부의 연령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데, 임가의 고령화된 인구구조를 감안할 때, 부부만의 가구형태는 가족주기에서 자녀가 떠나고 노인부부만 남게 되는 해체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임가는 주기상 해체기에 해당하는 가구형태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직계가족형은 11.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일반가구의 5.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자녀가 떠난 후 고령의 중심부부가 부모를 모시고 있는 '부부+양친'이나 '부부+한부(모)' 형태가 5.2%나 되기 때문에 '고령화된 직계가족형'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가족 생애주기 단계에서 자녀가 포함되는 '자녀포함형' 가구는 가족의 특화 기능인 양육과 사회화가 수행되고 있는 비교적 건강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임가 중에서는 자녀가 포함된 가

구가 전체의 32.6%에 불과한 반면에 전국의 일반가구는 55.8%로 23.2%p나 차이가 나고 있다. 임가에서 자녀포함형 가구가 적게 나타나는 것은 전체 가구주의 연령분포와 임가 인구의 고령화 현상을 고려할 때, 자녀가 성장하여 부모를 떠나는 가구의 축소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만약 도시로 떠난 자녀가 귀농하여 다시 새로운 가구를 구성하거나 부모와 동거하는 가구유형을 구성하지 않는 한 향후 임가의 가구유형이 더욱 더 구조적으로 해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자녀포함형 가구의 축소 경향은 농가나 어가, 임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표 3-34〉 가구형태별 가구구성 비교 (2005년)

(단위 : 가구, %)

		인구주택총조사		임업총조사	
계		15,887,128	100.0	97,108	100.0
핵가족형	부부	2,258,982	14.2	42,139	43.4
	부부+기타 친인척	16,081	0.1	280	0.3
	경영주+기타 친인척	32,902	0.2	221	0.2
	부부+자녀	6,701,759	42.2	21,425	22.1
	경영주+자녀	1,369,943	8.6	2,408	2.5
	부부+자녀+기타 친인척	73,562	0.5	607	0.6
	소 계	10,453,229	65.8	67,080	69.1
직 계 가족형	부부+자녀+양친	140,535	0.9	950	1.0
	부부+자녀+한부(모)	567,150	3.6	5,237	5.4
	부부+양친	23,279	0.1	499	0.5
	부부+한부(모)	131,544	0.8	4,575	4.7
	소 계	862,508	5.4	11,261	11.6
기 타	부(부)+형제자매	221,492	1.4	-	0.0
	조부모+손자녀	58,101	0.4	924	1.0
	4세대 이상 가구	15,902	0.1	320	0.3
	비혈연가구	225,946	1.4	50	0.1
	기타 ²⁾	879,275	5.5	6,471	6.7
	소 계	1,400,716	8.8	7,765	8.0
1인 가구		3,170,675	20.0	11,002	11.3

주 : 1) 인구센서스의 경우에는 가구주, 농업총조사의 경우는 경영주를 기준으로 구성한 것임.

2) 기타에는 1세대, 2세대, 3세대가구의 '기타' 를 모두 포함한 것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2006; 통계청, 임업총조사보고서, 2006.



임가의 가족유형별 의미의 차이와 구조적 특성을 보다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농가·어가와 마찬가지로 임가 전체의 가구구성 형태를 이념형 가족, 과도기형 가족, 비이념형 가족으로 재구성한 것이 <표 3-35>이다. 2005년 임가의 가구구성에서 이념형적 가족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형태는 전체의 23.0%로서 전국 일반가구의 43.2%와 비교할 때 20.2%p나 적은 수치이다. 이러한 경향은 비이념형 가족유형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임가가 23.0%에 비해 전국의 일반가구는 38.2%를 차지하고 있어 15.2%p나 차이가 난다.

임가 가족유형의 구조적 특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과도기형 가족유형이다. 이 유형은 전체의 54.0%를 차지하여 전국 일반가구의 18.6%보다 무려 35.4%p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인 부부가 가구를 이루는 형태가 농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임가의 경우 이러한 노인부부만의 가구형태는 43.4%로 전국 일반가구는 물론 농가

<표 3-35> 임가 가족유형의 다양화 추세 (2005년)

(단위: 가구, %)

		2005년	
계		97,108	100.0
이념형	부부+자녀(핵가족)	21,425	22.1
	부부+자녀+양친(직계가족)	950	1.0
	소 계	22,375	23.0
과도기형	부부	42,139	43.4
	부부+양친	499	0.5
	부부+한부(모)	4,575	4.7
	부부+자녀+한부(모)	5,237	5.4
	소 계	52,540	54.0
비이념형	1인 가구	11,002	11.3
	방계형(친인척 포함가구)	1,108	1.1
	한부모가족형	2,408	2.5
	조부모+손자녀	924	1.0
	비혈연가구	50	0.1
	4세대 이상 가구	320	0.3
	기타	6,471	6.7
	소 계	22,283	23.0

자료: 통계청, 임업총조사보고서, 2006.

나 어가보다도 비중이 높다. 노인부부만의 가구형태는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노인단독가구의 형태로 바뀌는 가족주기상 해체기 단계에 놓여 있는 경우다. 때문에 이들의 가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1인 가구의 대거 등장을 예고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대비되는 것이 전국 일반가구의 1인 가구형태인데, 이들은 주로 결혼을 기피하거나 지연시킨 20대와 30대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핵가족 유형으로 전환될 수 있다. 때문에 전국 일반가구의 비이념형 가족은 향후 이념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하겠다.

임가의 다양한 가족유형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경영주의 연령별 가족유형이 어떻게 분포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표 3-36>에 의하면, 이념형 가족은 40대 미만에 집중적으로 분포되는 반면에 과도기형 가족은 60대 이상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경영주 연령이 30대인 경우 이념형 가족이 48.5%로서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반면에 과도기형 가족은 20.2%에 머무르고 있다. 경영주 연령이 40대인 경우도 이와 비슷한데, 이념형 가족이 49.2%를 차지한 반면에 비이념형 가족은 18.1%에 불과하다.

그러나 경영주 연령이 높아지면 상황이 달라진다. 60대인 경우는 과도기형 가족이 63.8%로 높아지며, 70대도 62.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념형 가족은 각각 14.0%, 6.3%로 낮아진다. 이러한 사실은 임가의 과도기형 가족은 전국 일반가구, 특히 도시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동지역의 경우와는 달리 구조적 해체가 진행되는 가족유형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3-36> 연령별 임가구성 다양화 분포 (2005년)

(단위: 가구, %)

	이념형 가족	과도기형 가족	비이념형 가족	합 계
30세 미만	45(25.9)	23(13.2)	106(60.9)	174(100.0)
30~39세	1,602(48.5)	666(20.2)	1,037(31.4)	3,305(100.0)
40~49세	7,820(49.2)	5,189(32.7)	2,872(18.1)	15,879(100.0)
50~59세	7,775(29.6)	14,019(53.4)	4,451(17.0)	26,245(100.0)
60~69세	4,570(14.0)	20,826(63.8)	7,232(22.2)	32,628(100.0)
70세 이상	1,193(6.3)	11,727(62.1)	5,957(31.6)	18,877(100.0)

자료: 통계청, 임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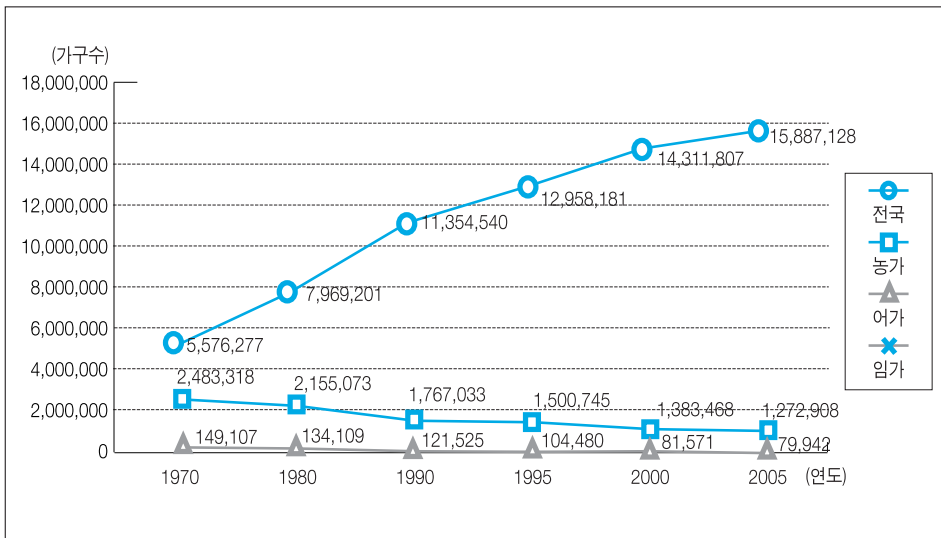


제 5 절 농림어가의 가족구조 비교분석

지금까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를 기준으로 한 가족구조의 특징과 변화 과정을 농가, 어가, 임가 순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이를 종합하여 전국 일반가구와의 비교분석, 농가·어가·임가와 상호 비교를 통해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 중에서 상호 비교가 가능한 부분만 분석하기로 한다.

먼저 농림어업의 가구 수 변화를 보면 지난 1970년 이후 농가와 어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전국의 일반가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그림 3-3>을 통해 알 수 있다.²⁾ 1970년 이후 전국의 일반가구는 총 10,310,851가구가 늘어나 증가폭은 무려 184.9%에 이른다. 하지만 농가는 같은 기간 동안 총 1,210,410가구가 줄어들어 감소율은 48.7%를 나타내고 있다. 어가도 농가와 비슷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지난 35년 동안 총 69,165가구가 줄어들어 감소율은 46.4%이다. 농가와 어가의 감소폭이 거의 일치하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이와 같이 농가와 어가의 가구 수가 급격하게 감소함으로써 전국 일반가구에서 농림어업의 가구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보고서, 2006.

<그림 3-3> 농림어업 가구수의 변화 (1970~2005년)

2) 임가는 2005년 총조사가 시작되었으며(공식적으로는 2회), 이전의 임업 가구 수는 조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비교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여기서는 2005년 가구 수만 비교한다.

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1970년 전국 일반농가 중에서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44.5%였지만 2005년에는 7.8%에 불과하다. 35년 동안 36.7%p가 떨어진 것이다. 어가 또한 1970년에는 2.7%를 차지하였지만 2005년에는 0.5%에 불과하다. 2005년 전국의 일반가구에서 임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0.6%이다. 이를 합하면 농림어업 전체가 전국 일반가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9%밖에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전국 일반가구와 농림어가의 가구원수별 가구 구성을 비교해본 결과가 <표 3-37>이다. 여기서는 두 가지 특징적인 사항이 있다. 첫째, 1인 가구 비율은 전국의 일반가구 비율보다 낮게 나타나지만 농림어가 모두에서 2인 가구의 비율은 월등히 높았으며, 이것은 이들의 가구규모가 축소되고 단순화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둘째, 전국 일반 가구의 1인 가구는 대부분 30대에 몰려 있어 결혼지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지만, 농림어가의 1인 가구는 대부분 60대 이후의 노인단독가구 형태이기 때문에 자연 소멸될 가능성이 높은 형태이다. 이를 볼 때 앞으로 획기적인 사회재생산 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한 농림어가의 가구 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표 3-37> 가구원수별 가구구성 비교 (2005년)

(단위: 가구, %, 명)

구 분	총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평균가구원수
전 국	15,887,128	20.0	22.2	20.9	27.0	10.0	2.9
농 가	1,272,908	14.8	43.9	16.7	12.5	12.1	2.7
어 가	79,942	12.0	42.7	19.1	14.8	11.5	2.8
임 가	97,108	11.3	47.1	17.5	12.5	11.6	2.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2006;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보고서, 2006.

전국의 일반가구와 농림어가의 세대별 가구 구성의 분포를 비교하여 <표 3-38>에 정리해 보았다. 주로 부부의 결합만으로 이루어지는 1세대의 경우 전국 일반가구는 16.2%에 불과하지만 농어가는 40%대에 육박하고 있고, 임가는 4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부부와 자녀, 부부와 부모가 결합하는 형태인 2세대 가구는 전국의 일반가구가 55.4%에 이르지만 농림어가는 30%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농림어가의 세대 깊이(generation depth of family)가 매우 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8〉 세대별 가구구성 비교 (2005년)

(단위 : 가구, %)

구 분	총가구수	1세대	2세대	3세대 이상	1인 가구	비혈연가구
전 국	15,887,128	16.2	55.4	7.0	20.0	1.4
농 가	1,272,908	39.9	34.0	11.3	14.8	0.1
어 가	79,942	39.1	39.2	9.5	12.0	0.2
임 가	97,108	44.0	33.9	10.7	11.3	0.1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2006;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2006.

일반적으로 가족구조에서 세대깊이가 단축된다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직계가족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가족부양체계가 붕괴되는 현실을 알려주며, 인구 고령화와 가구규모 축소와 맞물려 노인가구나 노인만의 부부가구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농림어가의 세대 깊이가 축소는 가족의 구조적 해체라는 내적 문제와 이들의 부양체계가 붕괴하는 사회적 문제를 복합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농림어가의 이러한 문제는 1인 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표 3-39〉은 전국의 일반가구와 농림어가에서 1인 가구만을 선택하여 연령별로 구분해본 것이다. 먼저 전국 일반가구의 1인 가구는 30대 이하의 젊은 층에 42.7%가 집중되어 있으며, 60대 이상의 해체기에 놓여 있는 경우는 30.9% 정도이다. 이에 비해 농림어가는 3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 1인 가구가 출현하는 비율은 2%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60대 이상에 몰려 있다. 농가의 경우는 60대 이상이 81.3%에 이르며, 어가는 65.6%, 임가는 7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농림어가의 가족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해체되고 있으며, 그 속도가 앞으로 얼마나 가속화 될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겠다.

〈표 3-39〉 연령별 1인가구 비교 (2005년)

(단위 : 가구, %)

구 분	총가구수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전 국	3,170,675	22.8	19.9	15.0	11.5	13.6	17.3
농 가	188,091	0.1	1.1	4.6	13.0	39.7	41.6
어 가	9,585	0.4	2.7	10.8	20.5	36.6	29.0
임 가	11,002	0.2	1.7	6.6	16.9	39.2	35.4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2006;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2006.

농림어가 가족의 구조적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알기 위하여 세대별 가구형태를 핵가족형과 직계가족형,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여 전국의 일반농가와 비교해보았다. 먼저 핵가족형은 전국의 65.8%에서 어가의 70.4%까지 큰 차이 없이 분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커다란 차이가 있었는데, 앞에서 분석하였듯이 전국의 일반가구는 부부와 자녀가 결합한 전형적인 핵가족이 중심인 반면에 농림어가는 60대 이상의 노인부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점은 농림어가 가족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직계가족형은 전국 일반가구가 5.4%에 머무른 반면에 임가는 1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농가의 9.6%, 어가의 8.8% 순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농어촌 지역에 아직은 부모부양의 가족가치가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농림어가의 직계가족형이 대부분 고령의 중심 부부가 더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쉽게 해체될 수 있는 형태라는 사실을 주시해야 한다.

농림어가의 가족유형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세대별 가구구성 코드를 새롭게 조합하여 이념형 가족유형과 과도기형 가족유형, 비이념형 가족유형으로 분류하여 그 분포를 살펴보았다. 먼저 전형적 핵가족으로서 ‘부부+자녀’, 전형적 직계가족으로서 ‘부부+자녀+양친’의 형태가 결합되는 이념형 가족유형은 전국의 일반가구가 43.2%를 차지하는 반면에 농림어가는 20%대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농림어가의 가족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3-40〉 유형별 가구구성 비교 (2005년)

(단위: 가구, %)

구 분	총가구수	핵가족형	직계가족형	기타	1인 가구
전 국	15,887,128	65.8	5.4	8.8	20.0
농 가	1,272,908	66.5	9.6	9.1	14.8
어 가	79,942	70.4	8.8	8.8	12.0
임 가	97,108	69.1	11.6	8.0	11.3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2006;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2006.

이런 특성을 보다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과도기형 가족유형의 분포 차이이다. 과도기형 가족유형은 ‘부부’와 ‘부부+부(모)’가 조합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유형의 특징은 중심부부의 연령이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층이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비이념형적 가족유형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 있다. 전국의 일반농가에서 이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18.6%에 불과하다. 그러나



농림어가의 경우는 50% 전후에 걸쳐 있으며, 특히 임가는 5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농림어가의 가족이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급격하게 해체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표 3-41〉 가족유형 다양화 비교 (2005년)

(단위 : 가구, %)

구 분	총가구수	이념형	과도기형	비이념형
전 국	15,887,128	43.2	18.6	38.2
농 가	1,272,908	23.3	48.3	28.4
어 가	79,942	27.6	46.6	25.8
임 가	97,108	23.0	54.0	23.0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2006;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2006.

이상 우리는 농림어가의 가족구조를 전국의 일반 가구에 비교하면서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체 산업구조에서 농림어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하듯 농림어가수는 1970년을 정점으로 지난 35년 사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어가가 전국 일반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현재 농가는 7.8%, 어가는 0.5%, 임가는 0.6%에 불과하다. 특히 농가는 1970년에 전국 가구의 44.5%를 차지하였던 것이 감소한 것으로 감소폭은 무려 36.7%p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농림어가의 가족구조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충원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한 가구수의 감소폭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는 데에 있다.

둘째, 농림어가의 가구규모는 급격하게 단순화되고 축소되고 있으며, 세대 깊이 또한 단축되고 있어 가족의 구조적 해체가 심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농림어가의 가족부양체계는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으며, 사회재생산 기능도 전국의 일반가구에 비해 많이 약화되어 있다. 농림어가에 대한 맞춤형 가족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전국의 일반가구도 다양화와 복잡화 추세로 가족유형이 변화하고 있지만 농림어가의 가족유형 변화는 다양해지는 측면과 소인수화·단순화해지는 측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형적인 핵가족과 직계가족으로 이루어진 이념형적 가족유형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다양한 가족유형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단독가구와 노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가구주 가족도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최근에는 결혼이민자가족의 증가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향후 이러한 다양한 농림어가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Ⅲ.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



제 4 장 한국경제와 농림어업

제 5 장 농촌사회의 변화와 분화



제 4 장 한국경제와 농림어업

김철규

제1절 경제성장과 산업구조변화

이론적 검토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은 국내총생산(GDP)의 성장이나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뿐 아니라 산업구조의 변화, 즉 농업 중심에서 공업 중심으로의 이행까지를 포함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주의 국가이든 사회주의 국가이든 경제성장은 주로 공업화에 의존하였고, 농업 인구의 감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자본주의 발전의 전범으로 간주되어온 영국의 경우, 인클로저에 의해 전통적인 장원제도가 해체되고 농민들이 경작지를 잃고 자유노동자가 된 것이 산업자본주의의 기원으로 묘사된다. 전통적 농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관계가 해체되고, 새로운 산업계급이 성장하여 생산력을 높이는 일련의 역사적 과정이 자본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의 보편적 내용으로 간주되어왔던 것이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경제성장은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행을 의미하였고, 산업사회의 심화는 농림어업 부분의 중요성을 약화시켜왔다. 농림어업 부분의 경제적 중요성이 떨어지고 농어촌 인구가 감소하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곧 경제성장의 다른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3세계의 경우에도 경제성장은 뒤늦은 근대화(late modernization)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1차 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제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과 동일시되었다. 제3세계 국가들의 뒤늦은 근대화 과정에서 강조되었던 것은 '국가'의 역할이었다.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긴 역사를 갖고 진행되었던 서구의 그것과는 달리 제3세계에서의 근대화는 늦게 시작된 것이므로, 그것을 조직하고 추진할 주체로서의 강력한 국가조직이 필요했다. 즉 국가에 의해 주도된 경제성장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낙후된' 농림어업을 해체시키고, 공업의 성장을 자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러한 경제성장 모델은 한국에서도 적용되었는데, 강력한 국가는 1960년대 이후 수출지향적 공업화 전략을 바탕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짧은 시간 내에 한국은 공업 중심의 사회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 국민경제에서 농림어업의 비중은 급감하였고, 농어촌사회는 인구 부족과 경제적 무기력증에 시달리며 심각한 재생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을 비롯한 제3세계 국가들의 뒤늦은 근대화를 설명하는 몇 가지 이론들을 정리하면, 크게 근

대화론, 종속이론, 세계체제론 등을 꼽을 수 있다. 근대화론은 전통과 현대라는 이분법을 강조하고, 전통적 농업사회에서 공업을 중심으로 한 현대사회로의 전환을 기획한다. 근대화에 있어 중요한 시장 경제, 근대적 국가, 그리고 합리성 등이 도입되면서 후진국들은 점차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이며 낙후된 농림어업의 해체와 이를 대신하는 근대적인 공업의 성장은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전통적인 농민들은 도시로의 이주를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근대화의 시각에서 농업은 낙후성(backwardness)의 상징이며, 농민들은 계몽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한편으로 공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다른 한편으로 농민들을 교육시키고 과학적 영농을 확산시키는 정책이 정당화된다.

종속이론은 후진국의 저발전은 선진국들이 불균등 교환을 통해 제3세계의 경제를 착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개발도상국의 저발전 자체가 선진국의 발전과 인과적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후진국의 농산물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선진국으로 수입되며, 선진국들은 자신이 만든 공산품을 제3세계의 농민들에게 비싼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제3세계의 저 발전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선진국과 후진국, 농림어업 부문과 공업 부문 간의 불균등 교역이야말로 주변부 지역의 경제적 침체를 낳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결국 이 과정에서 제3세계의 산업구조는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없으며 선진국의 경제적 필요에 따라 왜곡된 형태로 구조화되고 재편된다.

세계체제론은 종속이론이 가지고 있었던 분석적 경직성을 역사적으로 극복하려고 한다. 실제로 제3세계의 국가들 가운데 일부는 저 발전을 벗어나 신흥공업국으로 성장하며, 일부 선진국들은 경제적 역동성을 상실한 채 쇠퇴의 길을 걷기도 한다. 윌러스틴을 비롯한 세계체제론자들은 역사적 자본의 국제 분업구조는 다양한 국가 간 관계와 경제변동에 의해 재편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농업 중심의 저개발 주변국가가 공업 중심의 반주변부 국가로 상향이동하기도 하며 중심부 국가가 반주변부 국가로 떨어지기도 한다. 특히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가들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제 분업구조 속에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권위주의적이지만 효율적인 국가의 지도하에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공업화의 길을 걸었다고 지적한다. 신흥공업국가들의 성공은 농촌 인구를 빠르게 도시로 내보낸 뒤, 이 인구를 효율적으로 초기 공업화 과정에서 활용하여 세계분업구조의 일정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과 깊이 관련된다. 동아시아의 성공은 또한 20세기 후반 미국 중심의 세계정치경제 구조의 맥락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업 중심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미국 잉여농산물 제공, 저곡가 정책, 농촌 인적 자원의 도시로의 유출, 농촌사회 인프라의 해체 등 농업과 농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제 2 절 국내총생산 · 고용과 농림어업

국내 총생산과 농림어업

세계 각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농림어업의 상대적 비중의 감소 현상이다. 산업화 초기 농림어업의 광범위한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경제 성장을 주도하다가,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비교우위에서 밀리는 농림어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로 떨어지게 된 것이다. 더욱이 최근의 세계화 추세는 농림어업 산물의 국제적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농림어업의 기반이 열악할 경우에는 세계 경쟁체제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산업적 경쟁은 국내의 정치적 힘의 관계와 깊이 관련된다. 재벌이 주도하는 산업 부문의 힘의 우위는 농업에 기반한 농민들을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게 한다. 1990년대 WTO체제의 등장 과정에서, 그리고 최근의 한국-칠레, 한국-미국 FTA 체결과정에서 산업부문과 비교해서 농림어업 부문의 희생을 어쩔 수 없는 일로 몰고 갔던 언론이나 정부의 입장이 이를 잘 보여준다.

전체 산업구조에서 농림어업의 상대적 비중 감소 경향은 국내 총생산에서 농림어업 부문의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와 산업별 경제활동인구구조에서 농림어업 종사자의 단계적 축소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4-1>은 국내 총생산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추이를 1970년 기준으로 정리하여 본 것이다. 전통적으로 농림어업 부문의 비중이 컸던 우리나라는 1977년까지 국내 총생산에서 농림어업 부문이 제조업을 앞서고 있었으나 1978년 이후 역전되어 해가 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현재 국내 총생산에서 농림어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불과한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전체의 28.4%를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업 부문은 67.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농림어업의 개방이 본격화된 지난 1990년대 초반 이후 농림어업 생산규모가 거의 정체되고 있으며,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농림어업의 감소경향은 <그림 4-1>에 의해서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표 4-1〉 국내 총생산 산업별 변화추이(경상가계)

(단위 : 10억원)

연도	국내 총생산	농림어업	광업	제조	서비스업 및 기타
1970	2,763.9	736.8	44.3	448.2	1,289.8
1971	3,419.9	927.0	52.0	553.6	1,598.8
1972	4,217.9	1,123.2	55.7	756.6	1,972.1
1973	5,453.6	1,349.7	74.8	1,122.1	2,500.4
1974	7,777.7	1,895.3	121.6	1,540.2	3,560.1
1975	10,386.1	2,559.5	177.6	2,042.1	4,654.3
1976	14,304.5	3,304.9	198.1	3,059.2	6,276.9
1977	18,356.4	4,012.3	309.2	3,892.0	8,237.3
1978	24,744.7	4,956.5	391.0	5,300.2	11,476.0
1979	31,731.9	5,942.3	453.5	6,911.6	15,078.3
1980	38,774.9	5,576.1	670.9	8,431.4	19,811.2
1981	48,672.7	7,339.4	840.3	10,858.5	24,188.6
1982	55,721.7	7,873.6	839.3	12,471.1	28,186.5
1983	65,559.0	8,427.1	888.3	15,241.3	33,218.6
1984	75,126.3	9,143.1	967.3	18,515.7	38,188.7
1985	84,061.0	10,173.5	1,066.9	20,520.2	43,371.4
1986	98,110.2	10,534.6	1,245.1	25,483.4	50,575.3
1987	115,164.3	11,120.5	1,296.8	31,212.1	59,709.0
1988	137,111.5	13,220.8	1,351.7	37,803.6	70,951.9
1989	154,753.4	13,894.3	1,272.9	40,587.2	84,067.6
1990	186,690.9	14,998.4	1,399.0	45,724.8	105,591.1
1991	226,007.6	16,240.4	1,610.7	56,003.3	130,606.7
1992	257,525.4	17,995.7	1,363.3	61,988.7	151,434.8
1993	290,675.6	18,241.0	1,397.1	70,522.3	173,037.8
1994	340,208.3	20,652.3	1,755.9	83,461.6	200,688.2
1995	398,837.7	22,829.3	2,130.8	99,369.5	235,252.6
1996	448,596.4	23,961.5	2,123.1	107,356.3	268,789.9
1997	491,134.8	23,896.3	2,236.4	115,464.5	296,999.2
1998	484,102.8	22,355.4	1,998.3	119,920.4	294,364.2
1999	529,499.7	24,812.1	1,981.4	132,980.6	312,967.8
2000	578,664.5	25,029.7	2,036.8	151,243.0	335,744.3
2001	622,122.6	24,806.2	2,020.6	151,766.0	371,415.0
2002	684,263.5	24,654.8	2,051.4	161,952.0	413,433.4
2003	724,675.0	24,166.2	2,062.6	169,145.4	444,387.6
2004	779,380.5	26,246.2	2,276.5	198,554.4	467,240.5
2005	810,515.9	24,631.4	2,626.4	204,701.1	489,515.6

주 : '서비스업 및 기타'에는 건설업, 도소매업, 금융, 운수 및 통신업, 전기가스, 개인 및 사회서비스 부문 등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자료(<http://www.kosis.kr/>)

I. 자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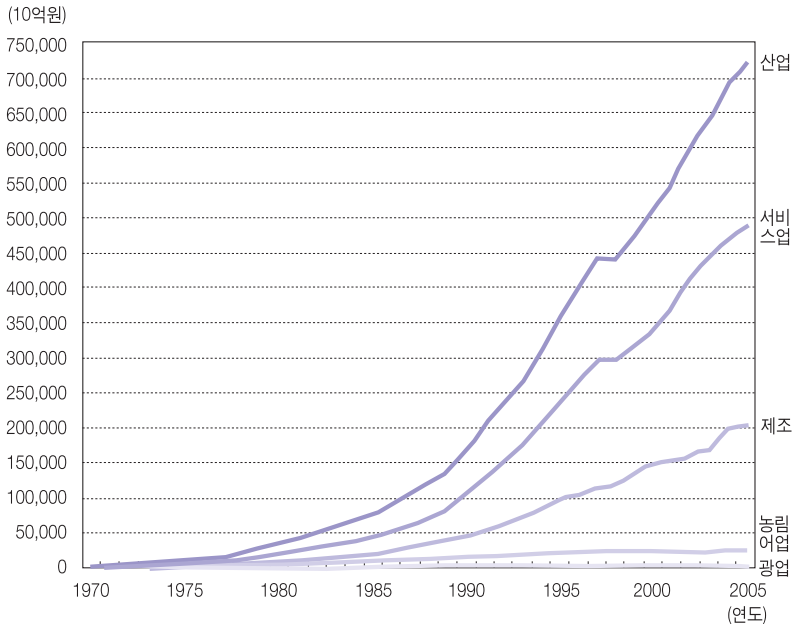
II. 농림어가의 인구와 가족

III.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

IV. 농업

V. 임업

VI. 어업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자료(<http://www.kosis.kr/>)

〈그림 4-1〉 국내 총생산 산업별 변화추이

국내 총고용과 농림어업

국내 총고용 구조에서 농림어업 인구의 고용현황을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4-2〉이다.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1963년 4,763천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7,563천명의 63.0%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제조업 고용인구는 601천명으로 7.9%에 불과했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중반까지 이어져 1986년 역전이 되기 전까지 농림어업의 고용인구가 제조업의 고용인구보다 많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농림어업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제조업보다는 고용비중이 높았던 것이다.

1980년대 들어 농림어업의 고용인구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산업구조의 패턴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1970년대 후반 우리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기 시작하고 수출시장에서 제조업 비중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농림어업의 지위는 열악해진 것이며, 이 때문에 경제적 비교우위 논리에 따라 농림어업에 대한 수입개방정책이 본격화 되면서 농림어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고용인구도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농림어업 고용인구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2005년 현재 농림어업의 경제활동인구는 1,815천명으로

전체의 7.9%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치는 고용인구가 가장 많았던 1976년의 5,601천명에 비해서는 3,786천명이 줄어든 것이다. 고용률이 가장 높았던 1963년의 63.0%보다는 55.1%p나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농림어업의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경향을 다른 산업부문과 비교하여 보다 확연하게 구별하기 위한 것이 <그림 4-2>다.

<표 4-2> 산업별 경제활동인구 변화추이

(단위 : 천명)

연도	계	농림업	어업	광업	제조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963	7,563	4,573	190	56	601	2,144
1964	7,698	4,580	167	56	630	2,269
1965	8,112	4,538	204	76	764	2,530
1966	8,325	4,631	180	80	819	2,616
1967	8,624	4,545	211	93	1,001	2,775
1968	9,061	4,531	217	110	1,153	3,050
1969	9,285	4,608	136	114	1,219	3,208
1970	9,617	4,756	90	109	1,268	3,395
1971	9,946	4,682	115	81	1,332	3,737
1972	10,379	5,006	232	53	1,415	3,674
1973	10,942	5,143	302	47	1,732	3,719
1974	11,421	5,205	276	50	1,977	3,914
1975	11,830	5,123	302	60	2,205	4,140
1976	12,556	5,323	278	65	2,678	4,212
1977	12,929	5,161	244	103	2,798	4,623
1978	13,490	4,920	261	107	3,016	5,186
1979	13,664	4,642	245	111	3,126	5,540
1980	13,706	4,433	225	123	2,972	5,952
1981	14,048	4,560	246	124	2,872	6,247
1982	14,424	4,324	299	110	3,047	6,644
1983	14,515	4,043	271	108	3,275	6,818
1984	14,417	3,727	182	142	3,351	7,015
1985	14,970	3,554	179	155	3,504	7,578
1986	15,505	3,477	185	187	3,826	7,830
1987	16,354	3,400	180	186	4,416	8,172
1988	16,870	3,319	165	140	4,667	8,580
1989	17,560	3,291	147	90	4,882	9,150
1990	18,085	3,100	137	79	4,911	9,858
1991	18,677	2,928	129	66	5,026	10,528
1992	19,009	2,550	117	61	4,980	11,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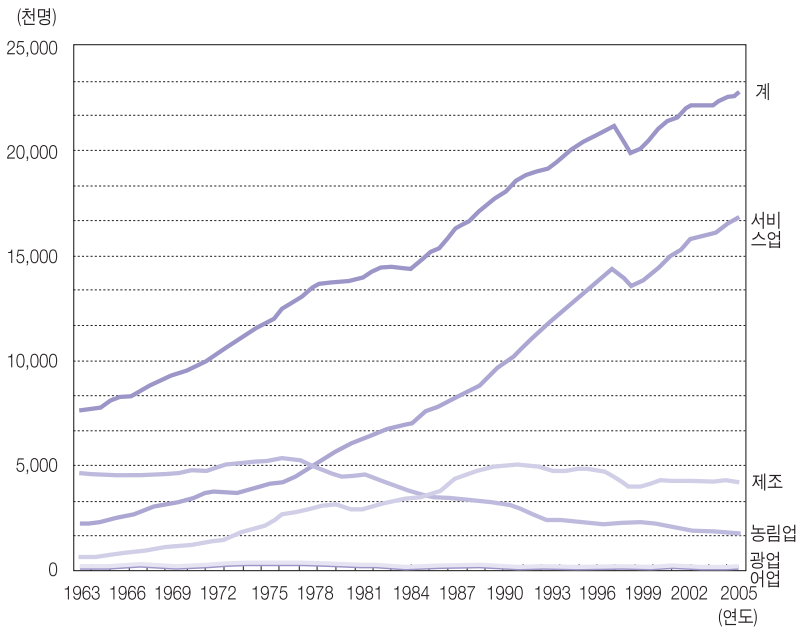
(계속)



〈표 4-2〉 계속

연도	계	농림업	어업	광업	제조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993	19,234	2,481	111	52	4,720	11,871
1994	19,848	2,382	109	39	4,758	12,560
1995	20,414	2,289	114	26	4,818	13,168
1996	20,853	2,218	105	23	4,725	13,782
1997	21,214	2,177	108	27	4,537	14,365
1998	19,938	2,318	79	20	3,917	13,603
1999	20,291	2,219	83	19	4,027	13,943
2000	21,156	2,162	81	17	4,294	14,603
2001	21,572	2,065	83	18	4,267	15,139
2002	22,169	1,999	70	18	4,241	15,841
2003	22,139	1,877	73	17	4,205	15,967
2004	22,557	1,749	76	16	4,290	16,427
2005	22,856	1,747	68	17	4,234	16,789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http://www.kosis.kr/>)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http://www.kosis.kr/>)

〈그림 4-2〉 국내 총고용과 농림어업 변화추이

제 3 절 세계화와 농업 변화

1980년대 중반 이후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는 표준화된 세계시장을 보편적 규범화하는 과정이다. 사회·역사적 맥락이 다른 많은 국가들의 농업과 농민들을 세계 시장에 의해 통합시키겠다는 것이 세계화가 농업에 대해 함의하는 바라고 할 수 있다(McMichael, 1994). 우리나라의 농업 세계화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가지의 변화와 깊이 관련된다. 첫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기획되었던 국가 중심적 발전 프로젝트의 해체와 시장 중심의 세계화 프로젝트로의 전환이다. 두 번째로는 한국 자본주의 성격과 관련된 것으로, 국내 재벌 기업들이 초국적화하면서 국내 정치경제의 구조를 변화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도시 근로자 계층이 글로벌 자본과 자신의 이익을 동일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공세에 의해 다수의 도시 계층들이 WTO와 FTA 등에 의한 세계화가 외국 자본에 의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농업 부문의 희생 불가피론에 동조하게 된 것이다(Kim, 2006).

농업 부문에 대한 세계화는 중기적인 흐름으로 1980년대 이후 진행되어왔고, 1997년 IMF체제에 의해 보다 극적으로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1980년대 이후 농산물 시장의 지속적인 개방은 중기적인 흐름으로서의 세계화를 나타낸다. 반면 IMF 체제 이후 추진되고 있는 FTA와 농업 및 농민 보호에 대한 도시 계층의 반대는 세계화의 급속한 물결의 예이다. 2004년 추곡수매제가 완전 폐지된 것은 상징적으로 남아있던 농민에 대한 국가 보호적 장치가 세계화 프로젝트 속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1995년 UR협정이 발효되면서 추곡수매제가 대표적인 감축대상 보조금(AMS)으로 분류돼 해마다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면서 쌀 가격 지지기능은 약화되어왔다. 결국 추곡수매제는 쌀의 경쟁력을 왜곡하는 주범으로 몰리게 되면서 결국 폐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국민경제 부문으로서의 농업을 완전히 포기한 것과 같다.

일반적으로 농업의 세계화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변화들을 포함한다. 첫째, 전체 식품 부문에서 차지하는 초국적 농식품 기업들의 역할 강화이다. ConAgra, Delmonte, Cargill 등 초국적 농기업들이 전세계를 시장으로서뿐 아니라 생산요소 확보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 초국적 농식품 기업들은 종자에서부터 최종 소비되는 식품에 이르기까지 먹거리의 모든 부문을 전방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이들 초국적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농식품 체계 전체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세계화는 농민들의 농



업 활동을 거대화되고, 수직적으로 통합된 식품체제(food system)의 일부로 포섭시킨다. 이는 결국 농민들의 경제적 역할의 축소와 정치적 입지의 약화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넓은 의미에서 농민의 임노동자화가 진행되고 있다. 셋째, 개별 국가들의 농업과 농민들은 단작화 하는 경향이 커지게 된다. 이는 기후 변화에 따른 흉작의 경우 농민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 기업들은 전문화된 농민들로부터 최소의 가격으로 농업 원자재를 구입하면서, 흉작에 따른 위험은 생산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된다. 넷째, 전체 식품체제에서 대량소비형 유통 조직과 초국적 패스트푸드점의 시장 장악력이 증대된다. 유통조직에 의한 농축산 생산자들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그들의 의사결정권이 커지는 것이다. 결국 이윤 극대화 논리에 따라 음식 문화의 표준화와 지역문화의 상품화가 동시에 추동된다.

이러한 세계화는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탈농업화(de-agriculturalization)를 초래하고 있다. 이념 형으로 상징되던 공업과 농업의 균형경제로서의 국민국가 개념이 와해되고, 공업과 서비스업만으로 이루어진 국민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농산물을 단지 상품으로만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먹거리를 이윤 극대화의 논리에 취약하게 만든다. 또한 비교우위론과 자유무역주의에 의해 한국 자체가 공업국가(industrial state)로 변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시와 공업만으로 이루어진 국가라는 허상을 좇고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농업에 의해 생산되는 먹거리는 생명의 기본이고, 인간 존재와 재생산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농촌은 농민이 살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의미의 공동체이다. 이러한 가치들은 단기적이고, 도구적인 합리성과 그러한 합리성의 표현인 화폐로는 결코 측정될 수 없다.

제 5 장 농촌사회의 변화와 분화

김철규

제 1 절 농지 구조의 변화와 농민층 분화

이론적 쟁점

해방 이후 미군정기부터 시작되어 한국 전쟁을 통해 완성되었던 농지개혁은 한국의 농업을 소규모 가족농 체제로 만들었다. 농지개혁을 통해 형성되고, 이후 농업 정책 내에서 유지된 소농들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농지개혁은 해방 이후의 복잡한 계급 갈등과 깊이 관련되며, 미국의 대외 정책의 일부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미군정은 해방 이후 남한에서 극단적인 반공주의를 확산시켰으며, 보수적 지주들과 연대함으로써 적지 않은 반발에 직면하였다. 미국은 농민들의 격렬한 저항과 소작제에 대한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 농지개혁을 시행하였던 것이다(Cummings, 1981).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남한의 농지개혁은 지주들의 저항에 부딪혀 표류하다가 한국 전쟁의 정치구조 변화 속에서 겨우 완성될 수 있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을 기반으로 했던 북한식 농지개혁을 염두에 둔 급진주의 시각에서의 남한 농지개혁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지만, 중요한 점은 남한의 농지개혁이 거대한 사회 변환의 조건이 되었다는 점이다. 농지개혁을 통해 전통적 지주-소작 관계에 근거한 경제체제의 유지는 불가능해졌으며,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지배 계층은 빠르게 해체되었고, 상업 및 산업적 계층이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한 농지개혁은 국제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의 공고화 속에서 동아시아의 정치적 불안정을 해소하고, 자본주의적 아시아를 기획하였다. 이 기획에서 농지개혁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일본, 대만, 한국 등에서 미국의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자본주의적 농지개혁은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첫째, 전통적인 농민(peasants)과는 구별되는 시장 의존적 농민(farmers)을 만들어냈다. 둘째, 투표권을 행사하는 시민으로서의 농민층을 만들어냈는데, 소규모이긴 하지만 사유지를 지니게 된 다수의 농민들은 집권당의 보수적 지지 세력이 되었다. 셋째, 개별 국가 내에서 농업이 하나의 산업 부



문으로 자리 잡게 되어, 현대적 농업정책의 단위가 되었다. 농지개혁은 다수의 소규모 자영농 형성의 계기가 되었고,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농가 경제를 만들어내었다. 이러한 구조는 잠재적 '과잉인구' 혹은 산업예비군을 형성하였고, 특히 젊은 여성인구가 1960년대 이후 도시로 급격하게 유입되어 노동집약적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었던 것이다(김철규, 2003).

국가에 의한 엄격한 농지 규모 제한과 공업 중심의 근대화는 소규모 가족농 체제를 장기간 지속시켰고, 농촌사회의 전반적 궁핍화를 야기하였다. 도시 및 공업 중심의 근대화 과정에서 농촌은 일반적으로 배제되었다. 농업은 낙후성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엄청난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여 초기 산업화의 역군이 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와 농촌의 소득과 생활수준 차이는 농민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이에 따라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농촌 사회 부흥운동을 시도했는데, 이것이 바로 새마을운동이다. 새마을운동은 농지 정리, 도로 건설, 배수로 건설 등 농업기반을 다지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불어 일부 농민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농업 기술 및 지식의 확산 등의 현대적의 농업(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를 모두 가진)의 틀을 만드는 데도 새마을운동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80년대에 들어 국가주의적 농업이 쇠퇴하면서, 개방농정의 틀 속에서 농촌사회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농민들간에도 이질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미작농과 과수나 채소 재배 농가 사이에도 분화가 나타나고 있다.

농지 규모와 농민계층분화

우리나라의 농지 규모는 세계적 기준으로 보면 매우 영세하지만, 지난 50년 동안 가구당 경지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이는 농가 호수의 감소와 함께 진행되었는데, 농가호수는 1970년을 기점으로 평균 1.9%씩 해마다 줄어들어 왔다.

우리나라 농민 계층분화는 네 단계를 밟아왔다고 할 수 있다. 즉, 1960년까지의 양극 집중, 1980년대 초까지의 중농 집중, 1990년대 중반까지의 상향 집중,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양극 분화 등의 과정을 거쳐 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2~3ha 계층의 농가 비율이 감소하고, 0.5ha 미만과 3ha 이상 계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양극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김정호, 2005). 또한 농가 계층분화는 경영주 연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고령농일수록 경영규모를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05년 조사에 따르면, 경지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30~40대 경영주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5ha 이상 농가의 절반은 40대 이하의 농민이 경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형 농업으로의 전환이 최근 들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농가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1990년 이후 15년 사이에 논 2ha 이상의 농가수가 전체 농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7%에서 10.1%에서 증가하였다. 이러한 대규모화는 밭, 과수원, 시설원에 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축산의 대규모화 역시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키워오던 한우의 경우에도 대규모화는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1990년에 20두 이상을 키우던 농가는 전체 호수 대비 1.1%에 지나지 않았지만 2005년에는 9.0%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대규모화는 돼지의 경우에 특히 두드러지는데, 1990년 1천두 이상을 키우던 농가의 비율은 0.2%였는데 15년 만에 19.2%로 증가하였고, 이들이 총 돼지 생산의 70.6%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논농사, 밭농사, 과수, 시설원에, 축산 등 우리나라 농업의 모든 부분에서 빠르게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동시에 상업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시장의 원리에 적응하는 이러한 대규모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긴 하지만 동시에 농업 위기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농지 임대차와 위탁영농

농산물 시장이 커지고 시장지향적 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경지규모의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토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임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농의 경우 농업 경영에 있어 임차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표 5-1>에 따르면, 2ha 이상의 농가의 경우 임차지의 비율은 54.5%였는데, 이는 1980년과 비교해보면 2005년에는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표 5-1> 경지규모별 임차지 비율 변화

(단위 : %)

연도	평균	0.5ha 미만	0.5~1.0ha	1.0~1.5ha	1.5~2.0ha	2.0ha 이상
1980	21.3	15.5	20.8	24.0	23.5	17.2
1985	30.5	23.5	28.9	32.3	30.7	30.9
1990	37.4	26.8	31.1	36.0	37.7	44.1
1995	42.2	25.6	32.1	34.7	39.3	50.6
2000	43.6	25.5	33.3	38.4	39.2	51.2
2005	42.5	26.3	34.4	36.9	42.5	54.5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각 년도



이러한 임차지의 중요성은 농산물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논인 경우에는 2ha 이상 대농의 임차 비중이 41.4%로 <표 5-1>의 54.5%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임차가 쌀보다는 훨씬 시장형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2> 논 경영규모별 임차비율

(단위 : %)

논 면적	비율
0.5ha 미만	24.8
0.5~1ha	15.0
1.0~2.0ha	19.2
2.0ha 이상	41.1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2005년

전통적 농업의 해체와 농가의 고령화 등은 위탁영농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벼농사의 경우 상당수의 고령 농가가 농사의 전부를 영농회사 등에 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3> 참조). 60세 이상의 농가의 경우 경운이 69.5%, 이앙의 경우 68.1%, 그리고 수확의 경우 64.1%를 위탁하였다. 앞으로 한국 농촌의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벼농사의 위탁영농도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3> 경영주 연령별 벼농사 위탁영농(전부 위탁) 비율 (2005년)

(단위 : %)

연령별	경운	이앙	수확
30세 미만	0.2	0.2	0.2
30~39세	2.0	2.1	2.3
40~49세	9.3	10.2	11.6
50~59세	19.1	19.4	21.7
60~69세	37.8	36.4	36.9
70세 이상	31.7	31.7	27.2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2005년

제 2 절 농업의 지역특화와 분화

이론적 쟁점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농업은 빠르게 시장화, 전문화, 양극화의 길을 걷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일정 작물의 특정 지역에서의 특화, 농업 성장과 쇠퇴의 지역적 편차, 특정 지역에서의 새로운 시장형 농업 집중 등을 낳고 있다. 지역 농업이 이처럼 분화와 특화를 보이는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농업 경영주 연령구조의 차이, 후계자 문제, 시장과의 사회·물리적 거리, 기존 작물 품목, 농민들의 농가 경영 전략 등 다양한 변수들과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지역 간의 분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지역농업구조의 동향

1. 농지구조의 분화

〈표 5-4〉는 경지면적 3ha 이상 농가의 비율이 높은 시·군 상위 20개 지역을 보여주고 있다. 2005년 현재 철원, 평창, 태백, 정선 등 강원도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철원은 전체 농가의 무려 32.4%가 3ha 이상이어서 대농의 비율이 높다.

〈표 5-4〉 시·군별 경지면적 3ha 이상 농가비율 (상위 20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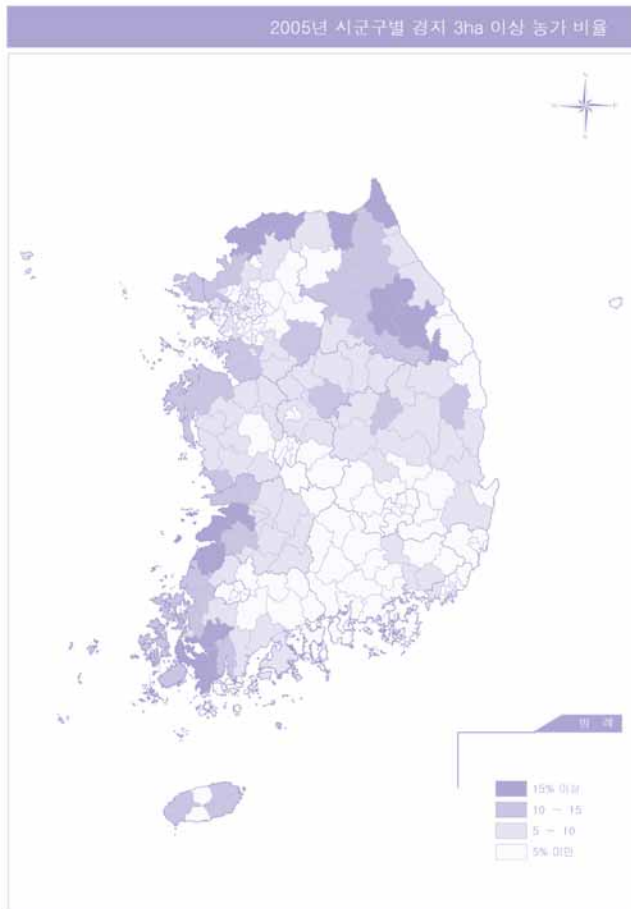
(단위: %)

순 위	시·군	비 율	순 위	시·군	비 율
1	철 원	32.4	11	양 구	18.1
2	태 백	22.2	12	고 창	16.9
3	부 안	21.4	13	당 진	14.9
4	평 창	21.2	14	익 산	14.3
5	연 천	21.0	15	북제주	14.0
6	정 선	20.9	15	군 산	14.0
7	김 제	20.3	17	남제주	13.5
8	영 압	19.0	18	평 택	13.4
9	해 남	18.8	19	정 읍	13.3
10	고 성	18.4	20	영 광	12.6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2005년



〈그림 5-1〉는 GIS를 통해 경지면적 3ha 이상 농가 분포를 정리한 지도이다. 시·군별로 3ha 이상의 대농 비율이 15% 이상인 지역에서부터, 10~15% 지역, 5~10% 지역, 5% 미만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 따르면, 전라도 평야지역과 강원도 지역에 3ha 이상의 농가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림 5-1〉 경지면적 3ha 이상 농가 분포

〈표 5-5〉는 시·군별 논 면적의 순위를 보여주는데, 대표적인 논 분포 지역은 김제, 당진, 익산, 해남, 서산, 평택, 정읍, 영암, 화성 등 주로 전라남북도와 충청도 등 서해안 평야지역이다. 이를

2000년도 자료와 비교해보면 상위권 순위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개별 시·군들의 실제 논 면적에서도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벼농사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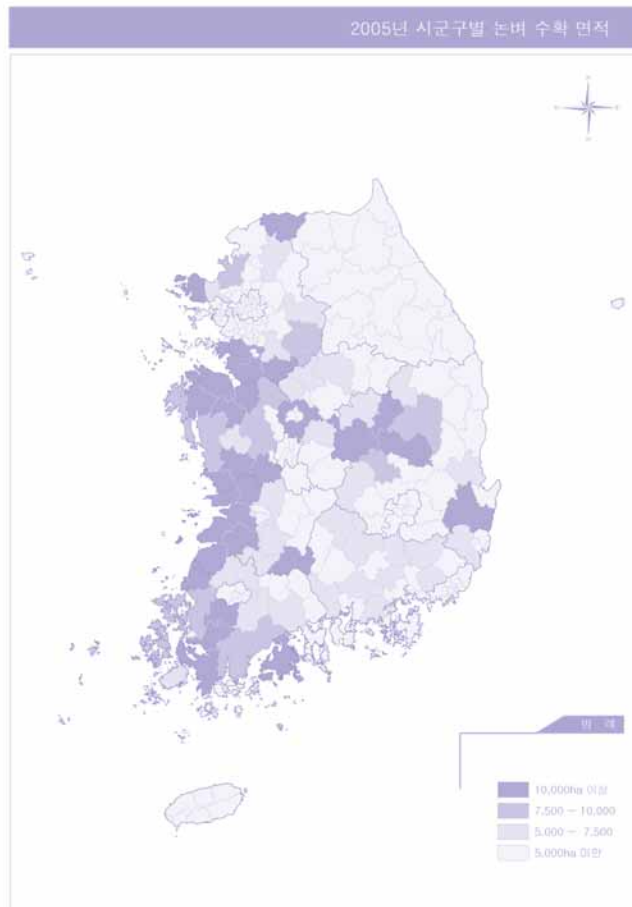
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한 자료가 <그림 5-2>인데, 이 그림은 논벼 수확면적의 시·군별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을 보면 역시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북도 서해안 지역에 논벼 재배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5> 시·군별 논 면적 순위(상위 20위)

(단위 : ha)

순 위	2005년		2000년	
	시·군	면적	시·군	면적
1	김 제 시	22,638	김 제 시	22,594
2	당 진 군	21,502	당 진 군	20,939
3	익 산 시	20,537	익 산 시	20,647
4	해 남 군	19,703	해 남 군	18,861
5	서 산 시	16,326	정 읍 시	16,829
6	평 택 시	16,291	평 택 시	16,670
7	정 읍 시	15,948	상 주 시	16,405
8	영 압 군	15,697	화 성 군	16,023
9	화 성 시	15,225	부 안 군	15,475
10	상 주 시	14,904	영 압 군	15,286
11	부 안 군	14,886	고 창 군	14,540
12	고 창 군	13,988	논 산 시	14,234
13	경 주 시	13,699	경 주 시	14,160
14	군 산 시	13,638	서 산 시	14,143
15	논 산 시	13,521	나 주 시	14,121
16	나 주 시	13,186	부 여 군	13,459
17	부 여 군	12,077	군 산 시	13,361
18	고 흥 군	11,981	고 흥 군	12,520
19	아 산 시	11,955	의 성 군	12,109
20	예 산 군	11,584	아 산 시	12,057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각 년도



〈그림 5-2〉 논벼 수확 면적의 시·군별 분포

〈표 5-6〉은 과수원을 포함한 전체 밭 면적 상위 20개 지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1위부터 5위까지를 보면 북제주군, 남제주군, 해남군, 안동시, 평창군 등으로 2000년과 비교해보면 약간의 순위 변화는 있었지만 대체로 안정적이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밭 면적이 증가한 것이 눈에 띄는데, 이는 벼농사를 줄이고 채소류를 늘려가는 추세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농민들이 시장성이 좋은 채소류 생산을 통해 소득향상을 기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6〉 시·군별 밭 면적 순위(상위 20위)

(단위 : ha)

순위	2005년		2000년	
	시·군	면적	시·군	면적
1	북제주군	18,997	북제주군	14,830
2	남제주군	17,857	해남군	11,340
3	해남군	11,076	남제주군	11,334
4	안동시	10,678	평창군	9,858
5	평창군	8,980	안동시	8,280
6	고창군	7,847	무안군	7,786
7	충주시	7,561	고창군	7,720
8	제주시	7,555	정선군	7,463
9	상주시	7,541	신안군	6,600
10	무안군	7,294	홍천군	6,479
10	영주시	7,294	서산시	6,474
12	의성군	7,210	제천시	5,719
13	김천시	7,167	봉화군	5,545
14	연천시	7,106	고흥군	5,421
15	정선군	6,900	여주군	5,391
16	신안군	6,633	충주시	5,322
17	나주시	6,274	횡성군	5,307
18	서산시	6,266	화성군	5,185
19	봉화군	6,219	대안군	5,151
20	제천시	6,120	괴산군	5,138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각 년도

〈표 5-7〉은 시·군별 과수원 면적 상위 20개 지역의 현황과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상위권 지역의 순위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별 지역의 과수원 절대 면적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앞의 〈표 5-6〉이 과수 포함 밭의 면적이었음을 분석에 고려한다면 (광의의 밭 면적 증가와 과수 면적 감소) 상대적으로 과수의 비중이 더 많이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북제주군의 경우 과수원을 포함한 밭의 면적이 2000년부터 5년 사이 14,830ha에서 18,997ha로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 과수원의 면적은 5,285ha에서 3,652ha로 감소하였다. 결국 전체 밭에서 과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순수한 밭의 면적보다 더 급격히 감소하고, 밭작물의 재배가 급증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I. 자연환경

II. 농림어업의 인구와 가족

III.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

IV. 농업

V. 임업

VI. 어업



〈표 5-7〉 시·군별 과수원 면적 (상위 20위)

(단위 : ha)

순위	2005년		2000년	
	시·군	면적	시·군	면적
1	남제주군	6,355	남제주군	8,128
2	영천시	5,028	서귀포시	5,930
3	서귀포시	4,977	영천시	5,723
4	상주시	4,804	북제주군	5,285
5	김천시	4,794	김천시	5,254
6	의성군	3,966	상주시	4,829
7	제주시	3,756	제주시	4,703
8	북제주군	3,652	경산시	4,573
9	영동군	3,431	청도군	3,926
10	경산시	3,188	의성군	3,899
11	청도군	3,170	영동군	3,704
12	영주시	3,100	나주시	3,256
13	나주시	2,927	천안시	3,173
14	안동시	2,847	영주시	3,080
15	천안시	2,803	진주시	2,913
16	진주시	2,365	밀양시	2,860
17	청송군	2,197	안동시	2,845
18	충주시	2,047	충주시	2,427
19	밀양시	2,037	청송군	1,984
20	창원시	1,836	창원시	1,934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각년도

2. 농산물의 특화

농산물의 특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은 특화계수를 계산하는 것인데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특화계수는 특정 작물이 어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작물의 지역 특화계수가 1이면 이는 그 지역의 해당 작물 집중도가 전국 분포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1보다 계수 값이 크면 클수록 해당 품목이 그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text{특화계수} = \frac{\text{해당지역 해당작목 수확면적} / \text{해당지역경지면적}}{\text{전국 해당작목 수확면적} / \text{전국경지면적}}$$

〈표 5-8〉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식량 작물인 논벼의 지역별 특화계수의 변화를 요약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논벼는 전국적으로 비교적 고르게 생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1960년 이후 45년 동안의 변화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느리긴 하지만 지역적으로 일정 지역이 특화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의 특화계수는 45년 사이 1.12에서 1.07로 감소한 반면 충청남도 경우는 같은 기간 1.09에서 1.16으로 증가하였다. 더불어 1960년에는 지역 간 특화계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점점 증가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다.

〈표 5-8〉 논벼의 연도별 지역 특화계수

연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60	1.04	0.65	0.84	1.09	1.20	1.07	0.93	1.12	0.04
1970	1.27	0.56	0.76	1.05	1.17	1.02	0.95	1.11	0.04
1980	1.11	0.75	0.84	1.08	1.18	1.02	0.93	1.12	0.03
1990	1.08	0.72	0.86	1.11	1.18	1.05	0.91	1.11	0.02
1995	1.11	0.72	0.84	1.14	1.22	1.08	0.85	1.10	0.00
2000	1.09	0.70	0.84	1.14	1.23	1.09	0.88	1.09	0.00
2005	1.10	0.70	0.83	1.16	1.21	1.09	0.88	1.07	0.002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각 년도

〈표 5-9〉부터 〈표 5-12〉까지는 주요 과수인 사과, 배, 복숭아, 포도의 지역특화계수를 보여준다. 표에 따르면 사과의 주산지는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이며, 그 집중도가 다른 과수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상북도는 3.99로 대단히 높은 특화계수를 보여주어 대표적인 사과 전문 지역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충청북도 역시 2.02의 높은 특화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 5-9〉 사과 지역특화계수

지역	경지면적	수확면적		특화계수
		해당지역 해당작목 수확면적	전국 해당작목 수확면적	
경기	191,821	444	29,554	0.12
강원	104,064	168	29,554	0.08
충북	99,985	3,961	29,554	2.02
충남	220,476	2,028	29,554	0.47
전북	187,373	1,217	29,554	0.33
전남	264,942	263	29,554	0.05
경북	242,085	18,882	29,554	3.99
경남	149,278	2,591	29,554	0.89
제주	50,525	-	29,554	0.00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2005년

〈표 5-10〉은 배의 지역특화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배의 특화계수가 1을 넘는 지역은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으로 이들 지역이 주산지라고 할 수 있지만, 사과에 비하면 비교적 전국에서 고르게 생산된다고 할 수 있다.

〈표 5-10〉 배의 지역특화계수

지역	경지면적	수확면적		특화계수
		해당지역 해당작목 수확면적	전국 해당작목 수확면적	
경기	191,821	4,208	21,441	1.55
강원	104,064	417	21,441	0.28
충북	99,985	1,108	21,441	0.78
충남	220,476	4,495	21,441	1.44
전북	187,373	1,116	21,441	0.42
전남	264,942	4,356	21,441	1.16
경북	242,085	3,076	21,441	0.90
경남	149,278	2,655	21,441	1.25
제주	50,525	9	21,441	0.01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2005년

〈표 5-11〉 복숭아의 지역특화계수

지역	경지면적	수확면적		특화계수
		해당지역 해당작목 수확면적	전국 해당작목 수확면적	
경기	191,821	1,233	14,696	0.66
강원	104,064	896	14,696	0.88
충북	99,985	3,503	14,696	3.60
충남	220,476	1,019	14,696	0.48
전북	187,373	1,038	14,696	0.57
전남	264,942	400	14,696	0.16
경북	242,085	6,258	14,696	2.66
경남	149,278	350	14,696	0.24
제주	50,525	-	14,696	0.00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2005년

〈표 5-12〉 포도의 지역특화계수

지역	경지면적	수확면적		특화계수
		해당지역 해당작목 수확면적	전국 해당작목 수확면적	
경기	191,821	2,660	15,928	1.32
강원	104,064	204	15,928	0.19
충북	99,985	2,190	15,928	2.08
충남	220,476	2,003	15,928	0.86
전북	187,373	689	15,928	0.35
전남	264,942	317	15,928	0.11
경북	242,085	7,440	15,928	2.91
경남	149,278	417	15,928	0.26
제주	50,525	9	15,928	0.02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2005년

〈표 5-11〉과 〈표 5-12〉는 각각 복숭아와 포도의 지역 특화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은 비교적 주산지가 선명한 편이다. 충청북도의 복숭아 특화계수는 3.60이나 되고, 그 뒤를 2.66의 경상북도가 따르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 두 지역이 복숭아의 핵심적인 생산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포도



의 경우는 경상북도, 충청북도, 경기도 등이 높은 특화계수를 보이고 있다.

3. 축산물 산지 변화

197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진행된 ‘축산혁명’ (livestock revolution) 이후 육류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육류의 대량생산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육류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축산 농가와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 축산 농가의 전문화는 지역적인 집중을 낳고 있다.

〈표 5-13〉 시·군별 한우 사육두수 (상위 20위)

순 위	2005년		2000년	
	시·군	사육두수	시·군	사육두수
1	경 주	45,556	경주	42,021
2	홍 성	38,208	안성	32,757
3	상 주	34,627	홍성	28,928
4	정 읍	32,716	정읍	27,951
5	공 주	29,828	청원	26,957
6	장 흥	29,454	합천	26,537
7	안 동	28,275	상주	24,463
8	예 천	27,371	공주	21,471
9	영 주	27,228	장흥	20,620
10	합 천	26,151	예천	20,334
11	횡 성	22,465	고성	20,144
12	고 흥	21,769	당진	19,863
13	나 주	21,655	고흥	19,843
14	예 산	21,220	안동	19,448
15	김 계	20,311	밀양	18,776
16	무 안	20,298	영주	18,177
17	영 압	20,139	나주	17,621
18	영 천	19,566	예산	17,192
19	안 성	19,474	창녕	16,961
20	당 진	19,110	거창	15,801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각 년도

〈표 5-13〉은 2000년과 2005년 한우 사육두수 상위지역을 보여준다. 이 표에 따르면 2000년에 비해 2005년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육두수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쇠고기 소비의 일반적인 증가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경주, 홍성, 상주, 정읍, 공주 등이 한우의 주요 생산지역이다. 앞으로 수입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쇠고기 값의 하락이 예측되는데, 이에 따라 한우 농가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러한 변화가 5년 후 통계치에 어떻게 나타날지에 주목해야 할 상황이다.

〈표 5-14〉는 시·군별 돼지 사육두수 현황과 5년간의 변화를 보여준다. 표에 따르면 국내 최대의 돼지 사육 지역은 홍성이다. 홍성은 2000년에 이어 굳건하게 1위를 지키고 있으며, 2000년부터 5년 사이에 순위에 큰 변화가 없다. 다만 이천의 사육두수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거의 9만 두나 증가하여 5위에서 2위로 급부상한 점이 눈에 띈다.

〈표 5-14〉 시·군별 돼지 사육두수 (상위 20위)

순 위	2005년		2000년	
	시·군	사육두수	시·군	사육두수
1	홍 성	366,124	홍성	379,161
2	이 천	260,381	북제주	194,626
3	북제주	224,061	안성	186,018
4	당 진	181,192	용인	180,935
5	용 인	177,145	이천	173,521
6	안 성	175,807	포천	166,169
7	김 제	172,387	당진	160,632
8	김 해	151,098	익산	160,232
9	정 읍	150,119	나주	152,305
10	나 주	146,322	김해	148,533
11	화 성	144,279	경주	147,251
12	임 실	141,828	김제	139,132
13	영 천	139,841	파주	123,554
14	공 주	133,356	양주	119,828
15	여 주	128,896	화성	115,708
16	논 산	127,712	정읍	114,249
17	무 안	127,457	평택	110,145
18	익 산	126,625	영천	100,446
19	포 천	124,398	천안	98,484
20	예 산	124,380	무안	95,555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각 년도



4. 판매액 변화

〈표 5-15〉는 판매액 1억원 이상 농가의 시·군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표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화성시, 남제주군, 이천시, 파주시, 안성시 등이 1위에서 5위를 차지하였다. 2000년의 경우는 화성군, 포천군, 파주시, 이천군, 안성시의 순이었다. 포천의 순위가 내려왔고 남제주군이 부상한 것이 눈에 띈다고 할 수 있다. 표에 따르면 2005년이 2000년도에 비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1억원 이상 농가의 비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양주시의 경우 2005년에 전체 농가 4,777호가운데 233호가 1억 이상의 판매를 보여 무려 4.88%의 지역농가가 1억원 이상의 판매액을 올렸다. 이

〈표 5-15〉 농산물 판매액 1억원 이상 농가의 시·군별 분포 (상위 20위)

(단위: 가구, %)

순 위	시·군구명	농가수	2005년 1억 이상 농가수	비 율	시·군구명	2000년 1억 이상 농가수	비 율
1	화 성 시	14,065	478	3.40	화 성 군	243	1.6
2	남제주군	10,267	409	3.98	포 천 군	243	2.6
3	이 천 시	9,722	392	4.03	파 주 시	241	2.6
4	파 주 시	8,479	333	3.93	이 천 시	218	2.2
5	안 성 시	10,594	323	3.05	안 성 시	186	1.7
6	천안시	12,574	319	2.54	평택시	176	1.3
7	나 주 시	14,732	316	2.15	김 제 시	176	1.1
8	당진군	14,591	315	2.16	당진군	159	1.0
9	포천시	7,870	308	3.91	익산시	159	1.0
10	평택시	12,185	284	2.33	여주군	151	1.6
11	북제주군	11,393	269	2.36	용인시	136	1.7
12	여주군	8,787	266	3.03	홍성군	136	1.1
13	정읍시	13,003	266	2.05	양주군	128	2.6
14	익산시	13,757	258	1.88	정읍시	128	0.9
15	논산시	13,120	248	1.90	천안시	122	1.0
16	용인시	8,194	245	3.00	북제주군	117	0.9
17	양주시	4,777	233	4.88	나주시	112	0.7
18	김해시	8,661	231	2.67	청원군	111	0.8
19	홍성군	11,108	226	2.04	부안군	111	1.0
20	김제시	13,192	215	1.63	연천군	110	2.3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각 년도

는 전반적으로 상업농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채소류 등 환금 작물로의 전문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양주시의 경우 서울 및 수도권 시장에 인접해 있어 이런 경향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농업구조 변화의 특징

전통적인 미작과 이를 보조하는 채소, 과수의 형태는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으며, 시장을 지향하는 전문화와 규모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식품 소비 양식의 변화와 이에 따른 시장 구조의 변화는 생산부문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였다. 특히 논벼의 감소와 과수, 채소, 축산의 생산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농업 구조의 변화와 지역농업의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농지구조를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밭 면적이 증가한 것이 눈에 띄는데, 이는 벼농사를 줄이고, 채소류를 늘려가는 추세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지역특화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논벼의 경우는 전라북도과 충청남도, 사과와 감의 경우는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배의 경우 경기도와 충청남도, 복숭아의 경우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그리고 포도의 경우 경상북도와 충청북도가 각각 높은 특화계수 값을 보였다. 한편 한우의 경우 경주와 홍성이, 돼지의 경우에는 홍성과 이천이 가장 대표적인 생산 지역으로 나타났다. 상업화와 전문화는 일부 대규모 농가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에 판매액 1억 이상 농가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화성시, 남제주군, 이천시 등이었다. 지역 농가 중 1억 이상 비율이 4%를 넘는 지역도 등장했는데, 대표적인 지역이 양주시와 이천시였다.

농업의 지역 특화와 분화는 일부 대규모 기업형 농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농촌 지역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공동체의 해체를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대형 마트와 연계된 대규모 농가들의 연계구조가 강화된 식품체계로 단일화됨으로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식량 수급을 위협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먹거리의 수송거리(food mileage)를 연장시켜 소비자들의 식량시민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제 3 절 농촌지역사회의 변화

고령화와 농촌사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농촌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2006년 일본이 처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인구는 9.5% 정도이고, 머지않아 10%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농촌의 경우는 고령화 정도가 더욱 심각하여 농가 및 농촌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5-16>은 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농민의 연령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표 5-16> 시·도별 농민 연령구조

(단위: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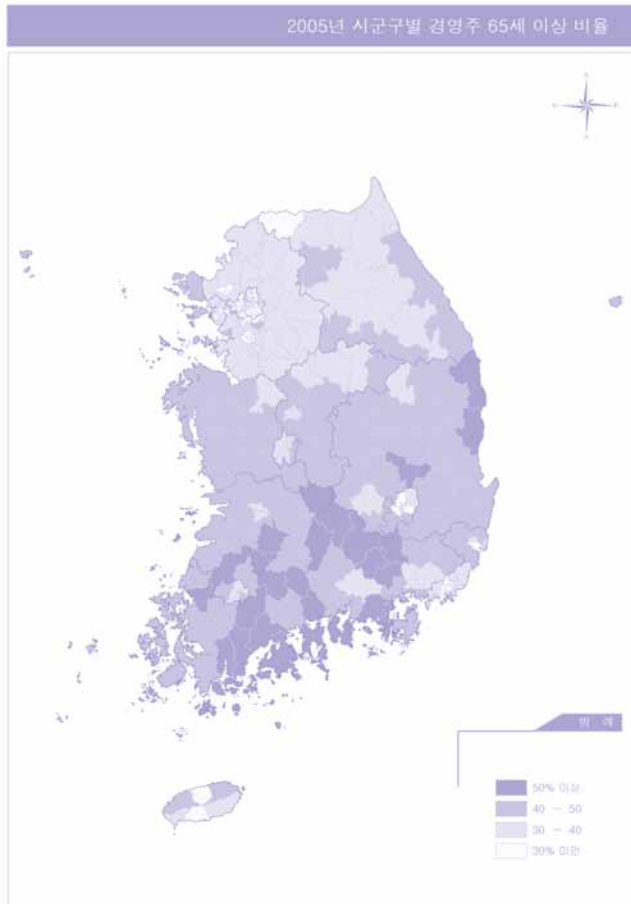
구 분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서울특별시	3,735	1,178	1,554	2,499	1,949	937
부산광역시	7,994	2,267	3,702	5,265	4,793	3,189
대구광역시	14,441	4,164	6,795	9,676	9,372	6,045
인천광역시	9,267	3,142	6,019	7,424	8,798	6,823
광주광역시	12,430	3,500	5,169	7,274	7,887	5,625
대전광역시	8,486	2,624	3,874	4,800	4,827	3,605
울산광역시	9,187	2,960	4,345	6,159	6,785	5,376
경 기 도	132,349	42,346	70,383	73,320	79,774	60,995
강 원 도	50,551	17,107	33,002	35,587	46,227	32,870
충 청 북 도	55,238	17,240	33,745	40,880	51,710	40,572
충 청 남 도	99,514	30,992	59,409	78,882	97,553	81,876
전 라 북 도	70,409	22,430	39,045	57,054	74,377	56,745
전 라 남 도	92,358	29,215	54,854	82,505	123,227	96,804
경 상 북 도	104,027	34,057	67,637	102,256	132,280	104,867
경 상 남 도	82,106	27,181	48,610	70,964	91,983	73,174
제 주 도	36,047	13,653	15,783	16,337	18,727	11,282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2005년

우리나라 농가 경영주 전체의 43%가 65세 이상으로 앞으로 심각한 농가 재생산의 문제를 안고 있다. <표 5-17>은 시군별 농가 경영주 65세 이상 비율이 높은 20개 지역을 보여준다. 상위 20개 시·

군은 경영자 연령이 65세를 넘는 농가의 비율이 50%를 넘었다. 최상위권의 지역은 화순, 울진, 남해, 의령, 곡성, 고흥 등이었는데,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후계자율과 작은 가구원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경영주가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영농이 계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림 5-3〉은 시·군·구별 고령 경영주의 비율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 농업 경영자들의 전반적인 고령화를 보여주고, 특히 미작지역인 전라남도 일부 지역과 경북 일부 지역은 65세 이상 경영주의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어 심각한 경영승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5-3〉 시·군·구별 고령 경영주의 비율



〈표 5-17〉 시·군별 경영주 65세 이상 비율(상위 20)

(단위: %)

순 위	시·군	비 율	순 위	시·군	비 율
1	화 순	56.6	10	강 진	52.0
2	울 진	56.1	12	군 위	51.6
3	남 해	55.6	13	고 성	51.2
4	의 령	55.3	14	완 도	51.1
5	곡 성	54.3	15	영 덕	51.1
6	고 흥	54.1	16	함 평	51.0
7	보 성	52.9	17	순 창	50.9
8	통 영	52.3	18	임 실	50.8
9	합 천	52.2	19	거 창	50.6
10	합 양	52.0	20	여 수	50.2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각 년도

기계화와 농촌사회

1970년대 이후 급속히 확산된 근대적 농업 혹은 산업적 농업(industrial farming)은 우리나라 농업의 기계화와 화학화를 급속히 확산시켰다. 이에 따라 농업도 많은 자본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산업적 농업으로 변화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인 농기계는 경운기로서 보급률이 55.1%에 달한다. 이어서 관리기, 이앙기, 트랙터 등도 널리 보급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 경운기의 보유 대수가 정점에 이르고 이후에는 정체되었다. 〈표 5-18〉은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데, 특히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모든 지역에서 경운기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운기가 다른 농기계에 비해 비교적 일찍 농가에 보급되었으며, 농가수가 감소함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표가 보여주는 또 다른 특징은 1970년대에 경운기 보유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던 점이다. 이는 이 시기에 진행되었던 경지정리와 기계화 농업의 적극 도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표 5-19〉에 따르면 트랙터는 경운기 보유대수 변화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즉 경운기와는 달리 트랙터의 보유대수는 최근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트랙터에 있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제주도와 경상북도로 각각 29.5%와 25.7%였다.

〈표 5-18〉 지역별 경운기 보유 현황 및 증가율

(단위 : 대, %)

구 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계	9,889	312,212 (3,057)	804,369 (157)	854,604 (6.2)	868,328 (1.6)	769,150 (-0.01)
경 기도	1,696	52,659 (3,005)	124,539 (137)	112,998 (-9.3)	100,330 (-11.2)	85,478 (-0.15)
강 원 도	254	14,976 (5,796)	50,311 (236)	51,639 (2.6)	51,436 (-0.4)	45,465 (-11.6)
충청북도	489	21,893 (4,377)	57,296 (162)	58,153 (1.5)	57,289 (-1.5)	51,084 (-10.8)
충청남도	1,061	34,383 (3,140)	102,668 (199)	106,802 (4.0)	108,023 (1.1)	97,147 (-10.1)
전라북도	1,156	21,995 (1,802)	61,168 (178)	71,015 (16.1)	73,187 (3.1)	65,082 (-11.1)
전라남도	1,180	38,311 (3,147)	102,166 (167)	124,005 (21.4)	138,103 (11.4)	121,947 (-11.7)
경상북도	2,261	71,765 (3,074)	172,460 (140)	183,580 (6.4)	185,790 (1.2)	166,630 (-10.3)
경상남도	1,508	46,440 (2,980)	111,541 (140)	123,826 (11.0)	132,847 (7.3)	118,682 (-10.7)
제 주 도	284	9,790 (3,347)	22,220 (127)	22,586 (1.6)	21,323 (-5.6)	17,635 (-17.3)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각 년도

I. 자연환경

II. 농림어가의 인구와 가족

III.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

IV. 농업

V. 임업

VI. 어업



〈표 5-19〉 지역별 트랙터 보유현황 및 증가율

(단위 : 대, %)

구 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계	1,778	3,124 (75.7)	49,927 (1,498)	114,303 (129)	193,574 (69.3)	229,479 (18.5)
경 기도	306	517 (69.0)	12,660 (2,349)	26,498 (109)	38,363 (44.7)	41,888 (9.2)
강 원 도	79	113 (43.0)	2,318 (1,951)	6,945 (200)	12,674 (82.5)	15,494 (22.3)
충청북도	109	141 (29.4)	2,669 (1,793)	6,586 (147)	11,459 (74.0)	13,377 (16.7)
충청남도	218	412 (89.0)	7,232 (1,655)	15,973 (121)	26,512 (66.0)	31,452 (18.6)
전라북도	172	406 (136.0)	5,927 (1,360)	11,846 (100)	19,919 (68.1)	23,252 (16.8)
전라남도	217	544 (150.7)	7,072 (1,200)	16,140 (128)	27,773 (72.1)	32,523 (17.1)
경상북도	343	545 (58.9)	5,921 (986)	15,628 (164)	29,639 (89.7)	37,271 (25.7)
경상남도	265	345 (30.2)	5,631 (1,532)	13,486 (139)	25,097 (86.1)	31,453 (25.3)
제 주 도	69	101 (46.4)	497 (392)	1,201 (142)	2,138 (78.0)	2,769 (29.5)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각 년도

친환경농업과 농촌사회

식량증산을 목표로 도입된 1970년대 이후의 녹색혁명과 화학농업은 많은 농민들의 건강을 해쳤고, 농촌의 환경을 파괴했으며,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높였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정농회를 비롯한 일부 생명운동단체와 그 회원들이 일찍부터 환경농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은 대중적으로 크게 확산되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크게 각광받고 있다.

〈표 5-20〉은 2000년과 2005년 사이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 따르

면 5년 사이에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수가 60,275에서 87,199로 44.7% 증가하여, 친환경농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다 구체적인 품목별 변화를 보면 논벼는 25.2%, 과수는 80.4%, 채소는 23.5%, 특용작물은 121.6% 각각 증가하였다. 즉 다른 작목에 비해 특용작물과 과수 농가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던 것이다.

〈표 5-20〉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수 및 품목별 농가수 변화

(단위: 가구, %)

연 도	실천농가수	품목별 농가수				
		논벼	과수	채소	특용작물	기타 작물
2000	60,275	41,494	7,886	18,776	1,993	2,718
2005	87,199	51,964	14,225	23,180	4,417	6,541
증감률(%)	44.7	25.2	80.4	23.5	121.6	140.7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각 년도

〈표 5-21〉은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처별 분포를 보여준다. 1990년대 중반만 해도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경로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생협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점차 시장이 확장되면서 유통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46.9%가 농협이나 다른 농업법인을 통해, 19.6%가 개인소비자에게 직접, 그리고 10.6%가 도매시장을 통해 출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농산물 판매 경로 자체가 빠르게 분화되고 있으므로 조사문항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5-21〉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처별 농가수

(단위: 가구, %)

판 매 처	농가수(가구)	비 율
도매시장	9,232	10.6
산지공판장	5,340	6.1
농협·농업법인	40,920	46.9
소비자단체	1,941	2.2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단체	5,726	6.6
개인소비자	17,087	19.6
대형유통업체	1,412	1.6
기타(판매 없음 포함)	5,541	6.4
합 계	87,199	100.0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2005년



〈표 5-22〉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지역별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수와 품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에 따르면 논벼의 경우는 경기도가 전체 친환경생산 농가의 18.1%를 차지했고, 그 뒤를 경상북도, 충청남도 등이 쫓았다. 한편 과수의 경우는 경상북도가 전체 친환경 농가의 34.0%의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충청북도, 제주도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채소의 경우는 전체 친환경 농가의 반 이상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에서 차지했다.

소비자들의 건강 의식이 높아지고, 웰빙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친환경 농산물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의 참여도 역시 눈에 두드러지는 변화를 보여 왔으며, 앞으로 그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친환경농업을 실시하게 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로짓 분석(logit analysis)을 시도하였다. 실제 조사에서는 유기, 무농약, 저농약 등의 3 단계와 관련된 문항이 있고, 유기농이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농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분석에서는 “지난 1년간 비료나 농약을 적게 사용한 친환경농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가부만을 종속변수에 활용하였다. 즉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한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놓고

〈표 5-22〉 지역별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수 및 품목

(단위: 가구, %)

구 분	논벼(비율)	과수(비율)	채소(비율)	특용작물(비율)	기타 작물(비율)
서울특별시	58 (0.14)	91 (0.14)	288 (0.44)	6 (0.05)	14 (0.12)
부산광역시	338 (0.79)	89 (0.14)	870 (1.32)	17 (0.14)	31 (0.27)
대구광역시	178 (0.41)	691 (1.05)	1,092 (1.66)	35 (0.30)	76 (0.66)
인천광역시	676 (1.58)	349 (0.53)	364 (0.55)	98 (0.83)	102 (0.88)
광주광역시	410 (0.96)	215 (0.33)	886 (1.35)	80 (0.68)	35 (0.30)
대전광역시	242 (0.56)	602 (0.92)	292 (0.44)	44 (0.37)	44 (0.38)
울산광역시	261 (0.61)	527 (0.80)	109 (0.17)	26 (0.22)	125 (1.08)
경기도	7,762 (18.09)	5,172 (7.88)	5,366 (8.16)	845 (7.15)	1,227 (10.63)
강원도	2,186 (5.09)	1,010 (1.54)	5,277 (8.02)	1,440 (12.19)	1,250 (10.83)
충청북도	2,713 (6.32)	9,684 (14.76)	3,798 (5.78)	1,360 (11.51)	1,121 (9.71)
충청남도	6,614 (15.41)	4,410 (6.72)	10,284 (15.64)	2,167 (18.35)	1,271 (11.01)
전라북도	3,237 (7.54)	4,060 (6.19)	3,691 (5.61)	1,239 (10.49)	1,251 (10.84)
전라남도	6,564 (15.3)	3,495 (5.33)	6,314 (9.60)	1,246 (10.55)	1,144 (9.91)
경상북도	7,194 (16.76)	22,296 (33.98)	12,467 (18.96)	2,000 (16.93)	2,209 (19.14)
경상남도	4,477 (10.43)	5,794 (8.83)	12,242 (18.61)	1,109 (9.39)	974 (8.44)
제주도	4 (0.01)	71,27 (10.86)	2,425 (3.69)	100 (0.85)	665 (5.76)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2005년

〈표 5-23〉 친환경농업 실시요인에 대한 로짓 분석

변 수	추정값	표준오차	p값
가족수	-0.025	0.004	0.0001
농사경력	0.010	0.001	0.0001
경지면적	0.000021	0.001	0.0001
연 령	-0.009	0.001	0.0001
성 별	-0.264	0.024	0.0001
컴퓨터 활용	-0.501	0.011	0.0001
생산자조직 참여	1.264	0.011	0.0001
교육정도	0.026	0.005	0.0001

자료 : 2005년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함.

분석한 것이다. 친환경농업에 영향을 준다고 여겨지는 가족수, 농사경력, 경지면적, 연령, 성별, 컴퓨터 활용, 교육 정도, 생산자조직 참여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짓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 〈표 5-23〉인데, 이에 따르면 농사경력, 경지면적, 교육수준, 생산자조직 참여 등이 (+)의 값을 갖는 반면 가족수, 연령, 성별, 컴퓨터 사용여부 등이 (-)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사경력이 길고, 경지면적이 넓고, 교육수준이 높고, 생산자 조직에 참여할수록 친환경농업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지고, 가족수가 많고, 연령이 높고, 남성이고, 컴퓨터를 사용할수록 친환경농업에 참여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2002년도에 수행된 2000년도 농업총조사에 대한 분석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2002년 연구에 따르면 가족수는 친환경농업에 (+)의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앞으로 가족수가 (-)의 값을 갖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해석하기 위한 추가적인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에 포함된 경지면적이 (+)의 값을 갖는 것도 의외의 결과이다. 앞으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친환경농업이 점차 대형화되고, 상품화되는 경향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정보화와 농촌사회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근대화의 길을 걸어온 우리는 1990년대 이후 정보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이나 초고속 통신망 등의 새로운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에 정부는 많은 투자를 해왔다. 그러나 근대화가 그러했던 것처럼 정보화도 도시-산업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인구가 적고, 고령화되고, 교육수준이 낮은 농촌지역은 정보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망의 사각지대에 있다. 정보화를 위한 투자가 컴퓨터의 보급 확대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정보화 교육의 효율성이나 수용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화와 다양화는 인터넷을 통해 농산물 관련 정보 수집과 판매 등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컴퓨터 활용 능력의 차이가 농가들 간의 소득 격차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표 5-24〉은 지역별 정보화 현황을 요약한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컴퓨터 보유율은 36%이고, 컴퓨터 활용률은 전체 농가수 대비로 1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보화가 도시에 비해 매우 떨어진다. 농가는 소비단위이기도 하지만 도시 가구와는 달리 생산단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낮은 정보화율은 도시 가구의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표 5-24〉 지역별 정보화 현황

(단위: 가구, %)

구 분	농가수(비율)	컴퓨터보유(비율)	컴퓨터활용(비율)	홈페이지개설(비율)
계	1,272,908 (100.0)	470,379 (100.0)	135,098 (100.0)	4,669 (100.0)
경기도	159,568 (12.5)	90,170 (19.2)	24,364 (18.0)	714 (15.3)
강원도	75,790 (6.0)	33,051 (7.0)	11,564 (8.6)	595 (12.7)
충청북도	85,723 (6.7)	85,723 (18.2)	9,718 (7.2)	397 (8.5)
충청남도	171,854 (13.5)	62,362 (13.3)	16,356 (12.1)	518 (11.1)
전라북도	121,749 (9.6)	40,006 (8.5)	11,714 (8.7)	352 (7.5)
전라남도	212,814 (16.7)	54,998 (11.7)	17,898 (11.2)	531 (11.4)
경상북도	232,420 (18.3)	77,130 (16.4)	22,748 (16.8)	782 (16.7)
경상남도	176,772 (13.9)	59,194 (12.6)	14,955 (11.1)	567 (12.1)
제주도	36,218 (2.8)	19,223 (4.1)	5,781 (4.3)	213 (4.6)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2005년

2005년 농업 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정보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사실 정보화는 다양한 변수들을 통해 종합적으로 측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낮은 농촌 정보화 수준을 고려하여 컴퓨터 활용 여부, 즉 “농업에 조금이라도 컴퓨터를 활용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가부를 기준으로 종속변수를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연령, 교육수준, 농지규모, 판매액을 택하였다. 11개 구간으로 조사된 판매액은 구간의 평균값으로 환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³⁾ 그 결과가 〈표 5-2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25〉 컴퓨터 활용 결정 요인에 대한 로짓 분석

변 수	추정값	표준오차	p값
연 령	-0.18	0.000	0.0001
교육수준	0.261	0.003	0.0001
농지규모	0.000	0.000	0.0001
판 매 액	0.219	0.001	0.0001

자료 : 2005년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한.

표에 따르면 분석에 이용된 변수들은 모두 컴퓨터 활용에 영향을 주는 것을 나타냈다. 교육수준, 농지규모, 판매액 등은 모두 컴퓨터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연령은 유일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고, 농지 규모가 크고, 판매액 클수록 컴퓨터 활용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반면 연령이 많아지면 컴퓨터 활용 가능성은 낮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 총조사에 관한 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우리나라 농촌의 고령화 지수가 매우 높고, 농가 경영주의 연령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컴퓨터 활용을 통한 농업 관련 활동의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지역사회와 생활여건

농촌사회의 열악성은 다양한 생활시설의 부족과도 깊이 관련된다. 소득이나 다른 사회적 기회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농촌 지역사회는 도시에 비해 불편한 것이다. 이와 관련 2005년 총조사에서는 생활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읍면동사무소, 금융기관, 그리고 병의원 등 세 가지 주요시설에 대한 이동수단과 소요시간을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5-26〉, 〈표 5-27〉, 〈표 5-28〉와 같다.

〈표 5-26〉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62.6%는 자동차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걸어서 가는 경우는 21.5%에 불과하여 자동차가 농촌생활에서 필수품이 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27〉은 금융기관 방문시 이동수단과 소요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읍면동사무소에 비해

3) 변수 선택과 리코딩 방식은 선행 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용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02」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농업총조사 종합분석」(2002)을 참조할 것.



소요시간이 짧았고, 도보를 이용하는 경우도 약간 많았다. 이동수단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응답자들이 '기타'를 선택하였는데, 선택지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도보와 자동차 이외에 농촌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동수단이 무엇인지에 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선택지를 늘려야 보다 정확한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 5-26〉 읍면동사무소 방문시 이동수단 및 소요시간

(단위:명, 분, %)

변 수	사용자수	평균시간	비 율
도 보	273,767	14.75	21.5
자 동 차	797,190	13.20	62.6
기 타	201,951	16.67	15.9

〈표 5-27〉 금융기관 방문시 이동수단 및 소요시간

(단위:명, 분, %)

변 수	사용자수	평균시간	비 율
도 보	293,011	13.76	23.0
자 동 차	780,129	13.10	61.3
기 타	199,768	16.56	15.7

〈표 5-28〉 병의원 방문시 이동수단 및 소요시간

(단위:명, 분, %)

변 수	사용자수	평균시간	비 율
도 보	194,358	14.54	15.3
자 동 차	889,428	20.22	69.9
기 타	189,122	22.29	14.9

끝으로 〈표 5-28〉은 고령화된 농촌 노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병의원 방문시의 이동수단과 소요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앞의 표와는 차별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평균 소요시간이 훨씬 길고, 자동차 이용률도 높다. 즉 자동차를 활용하는 경우가 69.9%에 달했고,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은 20.22분으로 읍면동사무소의 13.20분이나 금융기관의 13.10분에 비해 7분 이상 길었다. 농촌의 열악한 의료시설 현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IV. 농업



제 6 장 농업구조의 개념과 농가 변화

제 7 장 농가의 농지소유와 이용의 변화

제 8 장 농업경영

제 9 장 농업의 기계화 · 위탁실태

제 10 장 농업생산의 조직화와 농산물 판매

제 11 장 세계속의 한국농업



제 6 장 농업 구조의 개념과 농가 변화

박민선

제 1 절 농업 구조의 개념

농업 구조라는 용어가 농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그 개념이나 정의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므로 농업구조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동안 ‘농업구조’란 용어는 농업구조 개선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달성을 목적으로 사후적으로 그 개념을 정리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되고 있다(김정호 외, 2003: 8). 그 동안의 논의 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농업구조가 광의로는 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 그리고 소비에 이르는 농업의 산업적 구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협의로는 농업생산의 관점에서 고정적 생산요소의 결합관계, 특히 농업노동력과 농지의 결합관계를 함축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의 원인에 대해서 김정호 등은 우리나라 농업이 가진 구조적 특징인 가족노동력에 토지가 결합된 가족노작적 영세소농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달성하기 위해 농가를 자립 가능한 경영단위로 육성하고자 했던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다는 것에서 찾고 있다.



자료 : 김태훈 등, 2007

〈그림 6-1〉 농업구조 관련지표의 구분

〈표 6-1〉 농업 관련지표 세부지표 구분과 출처

지표구분	세부지표	자료 출처
농업 거시지표	농림어업 GDP, GDP 변화, 농업 총생산액, 농업부분 보조금, PSE, TSE, 농가인구, 농촌인구, 경지면적, 농업 자본액, 농업용수 사용량, 유기농업 면적 및 농가수, 비료 사용량, 농기계 보유대수, 농업노동자 임금, 농업자본액 및 자본액 구성	세계식량농업기구 OECD 세계은행 국제노동기구 국제유기농업운동연합 국제통계연감 농림통계연보
생산지표	생산량, 재배면적, 단수, 육류 생산량, 사육두수, 도축두수, 도축중량	세계식량농업기구 세계식량농업기구 농림업 주요통계
수출입지표	수출입량, 수출입액, 수출입 단가, 무역수지	세계식량농업기구 농수산물유통공사
소비·가격지표	총 식품공급량, 1인당 1일 식품공급량, 생산자 가격, 소비자 가격	세계식량농업기구 국제노동기구

자료 : 김태훈 등, 2007

한편 김태훈 등(2007)은 각 국의 농업구조의 국제비교를 위한 연구에서 중장기 농업구조 변화의 지표로서 농업거시지표(=총량지표), 생산지표, 수출입지표, 소비 및 가격지표로서 파악하고 이 지표를 기준으로 각 국의 농업구조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그림 6-1〉 참조). 이러한 지표는 농업의 산업적 관점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지적한 광의의 농업구조를 나타내는 지표로 정의할 수 있다. 김태훈 등(2007)이 제시하고 있는 4가지 지표 가운데 농업총조사에서는 농업거시지표의 일부인 농가인구와 경지면적 등이 조사되고 있으며 생산지표 중 일부인 품목별 생산지표 등이 조사되고 있다.

한편 농업총조사는 농업을 경영하는 사업체의 전반적 농업상황을 총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농업총조사의 조사대상은 농업을 경영하는 사업체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총조사가 실시될 때마다 조사대상에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농가 이외의 사업체를 포함한 해가 있기는 했지만 농업총조사의 대상을 농가로 한정하고 있다.⁴⁾ 즉 농업총조사에서는 ‘농업사업

4) 농업경영체에 대해서 농업총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이 농가에 한정되고 있는 반면 법인사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농업총조사’는 ‘농가총조사’와 다르지 않다.



체'가 아닌 '농가'를 중심으로 농업경영체를 조사한 자료이다. 따라서 농업총조사는 농업이라는 산업에 초점이 두어지기 보다는 사실상 농가에 대한 총조사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최근 농업뿐만 아니라 식품까지를 포함하는 농식품의 생산 유통방식을 농식품체계(agro-food system)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개념 속에는 농업(agriculture)이라는 산업을 단순히 농장에서의 생산(farming)보다는 보다 광의로 해석하여 생산 이후의 수집, 포장, 가공, 유통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 인식을 확대하고 있다(Tanssey & Worsley, 1996).⁵⁾ 즉 위에서 지적인 산업으로서의 농업에 보다 가까운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식품체계란 개념을 빌려서 농식품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지역적 범위가 한 국가내로 한정되고 있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상을 파악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총조사가 농업구조를 파악하는데 있어서의 한계를 인식하고, 농업총조사의 분석을 기초로 하여 한국의 농업구조와 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농업총조사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농업의 구조와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농업의 구조적 특징이 '가족노작적 영세소농적 농업구조'란 관점을 적극 수용하여 주로 생산측면인 협의의 관점에서 농업 생산요소의 현황과 그 요소들간의 결합관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 2 절 농가수의 변화와 신규농가의 성격

농가 수의 변화

2005년 총 농가수는 127만 3천가구로 2000년 대비 11만가구가 감소하였다. 이는 연평균 1.7%씩 감소한 것이다. 1990년대 들어 농가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감소율이 줄어들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감소율은 거의 정체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 3-5> 참조).

지역별로 농가수를 보면 도시지역인 동부가 21만2천호로 16.6%를 차지한 반면, 농촌지역인 읍부

5) 미국에서 소비자가 지출하는 총 식료품비 가운데 농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불과 7%에 불과할 만큼(Halwell, 2006)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협의의 농업구조 개념은 농업의 산업적 측면을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제한된 의미만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가 22만8천가구로 17.9%, 면부가 83만2천가구로 65.4%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 농가수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조사기간 동안 행정구역의 변화로 인해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다. 1990년 총조사에서는 행정구역을 시부와 군부로 구분하여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데 시부의 경우에는 13만1천가구로 10.8%를 차지한 반면, 군부는 89.2%인 157만6천가구이었다. 2005년에는 읍면부와 동부로 구분하고 있는데 2005년 농가 수는 1990년 대비 71.9%의 수준으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부의 농가 수는 지난 15년 동안 8만1천호가 증가하여 1990년의 1.6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농가의 증가는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른 도시지역의 증가를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지만 다른 하나는 도시지역에서 출퇴근하는 농가의 증가도 그 요인의 하나인 것으로 추정된다.⁶⁾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농가의 시계열적 변화를 추적하는 패널조사 등을 통해 보다 자세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표 6-2〉 지역별 농가분포 추이

(단위 : 천가구, %)

연도	지역	면부	읍부	동부(시부)	계
1990년		1,576 (89.2)		131 (10.8)	1,767 (100.0)
2005년		832 (65.4)	228 (17.9)	212 (16.6)	1,273 (100.0)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각년도

신생농가의 성격

2000년부터 2005년 사이 농가수의 변화와 변화의 요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신생농가와 소멸농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멸농가의 경우에도 가구원의 사망 등으로 인한 자연소멸과 이농으로 인한 폐농 및 탈농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신생농가의 경우에는 가구원의 분가에 의한 새로운 농가의 탄생과 도시로부터의 이주를 통한 신규 취농, 그리고 재촌 비농업 인구가 신규로 취농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새로운 농가가 탄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 농가의 변화를 시계열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농업총조사

6) 최근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인근도시 및 대도시에서 출퇴근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인근대도시에서 출퇴근하거나 자녀와 부인 등 일부 가족원이 도시에 거주하고 경영주는 농지가 있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소위 '기러기 농업인' 들이 늘고 있다(농민신문, 2005. 7. 18).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도시와 농촌의 학력격차와 함께 농촌지역의 도로망의 발달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를 통해서이 이러한 개별 농가의 변화를 추적하기 어렵다. 또한 같은 기간 중에 소멸된 농가에 대해서는 총조사에서는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농가 소멸의 요인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신생농가에 대해서만 그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신생농가의 규모와 그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미래의 농업후계인력의 규모와 성격을 전망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자료일 것이다. 또한 신규 취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생산적 후계 인력육성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비추어 볼 때에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2000~2005년간 신생농가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생 농가와 가장 유사한 농가는 '경영주 경력 5년 미만 농가'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기존 농가 중 경영주가 교체된 농가가 포함되어 있어서 후계자가 농업을 승계하였거나 남편의 사망 등으로 부인이 농업을 승계한 농가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신생농가는 경영주 경력 5년 미만 농가 수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 현재 경영주 경력이 5년 미만인 농가는 49,840가구였으며 이는 전체 농가의 3.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000년 이후 매년 평균 1만 농가 정도 새로운 경영주가 생겨난 것이다. 이를 2000년 총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2000년 당시에는 경영주 경력 5년 미만 농가가 55,128가구였으며 전체 농가 중 4.0%를 차지하였다. 2000년 이후 신규 경영주의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신생농가의 규모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 총조사에서 나타난 경영주 경력 5년 미만 신규 농가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2005년 현재 신규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51.3세로서 5년 이상 경영주 농가의 평균연령 61.9세에 비해 10.6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규 경영주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9.2%가 50대 연령층이었으며 60대 연령층도 26.4%에 달해서 50세 이상 연령층의 비율이 55.6%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도시에서의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은퇴 이후에 농업에 신규 취농하는 인구가 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에 반해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는 인구로 볼 수 있는 30대이하 연령층은 7,903명으로 신규 경영주의 15.9%에 불과하다. 또한 50세 미만 연령층의 비율도 44.4%에 머무르고 있다. 이를 2000년의 신규 경영주 연령과 비교해 보면 2000년에는 50세 미만의 청·장년층의 비중이 55%에 달하였다. 그리고 35~45세 연령층이 최빈값이었지만 2005년에는 최빈값이 50대로 높아져서 2000년 이후 신규 경영주의 수가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경영주의 취농 연령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6-3〉 참조).

〈표 6-3〉 신규 경영주의 연령별 분포

(단위 : 가구, %)

구 분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농가	1,024	6,879	14,226	14,543	13,168	49,840
구성비	2.1	13.8	28.5	29.2	26.4	100.0

신규 경영주 농가의 평균 경작규모는 0.57ha로 전체 농가의 평균 경작규모 1.2ha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생농가의 4.4%가 경작지가 없는 농가이며 60.8%에 해당하는 농가가 경작지가 0.5ha 미만의 소규모 경영층이었다(〈표 6-4〉 참조).

〈표 6-4〉 신규 경영주의 경작규모 분포

(단위 : 가구, %)

구 분	경작지 없음	0.5ha 미만	0.5~1ha	1~1.5ha	1.5~2ha	2~3ha	3ha 이상	계	평균경작 규모	전체농가 평균 경작규모
농가	2,185	30,307	9,698	3,934	1,428	1,251	1,037	49,840	0.57ha	1.2ha
구성비	4.4	60.8	19.5	7.9	2.9	2.5	2.1	100.0		

〈표 6-5〉 신규 경영주의 연령별 평균 경작규모

(단위 : m)

연 령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전체
평균경작규모	9,317.9	7,388.5	5,993.4	5,305.8	5,061.2	4,066.1	5,755.4

5년 미만 경영주의 연령별 평균 경작규모를 보면 위의 〈표 6-5〉와 같이 연령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경작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영주 경력 5년 미만 농가의 거주 지역은 19.2%가 읍지역이며 동지역이 37.1%, 면지역이 43.7%이었다. 이에 반해 경영주 경력 5년 이상 농가의 면지역 거주자 비율은 66.3%이며 동지역 거주자의 비율은 15.8%에 머무르고 있다. 신규 경영주 농가가 기존 농가에 비해 동지역 거주자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읍지역 거주자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6-6〉 참조).



〈표 6-6〉 경영주 경력별 농가의 거주지역

(단위 : 가구, %)

거주지	읍 부	면 부	동 부	전 체
경영주 경력 5년 미만 농가	9,573 (19.2)	21,801 (43.7)	18,466 (37.1)	49,840 (100.0)
경영주 경력 5년 이상 농가	218,766 (17.9)	810,756 (66.3)	193,546 (15.8)	1,223,068 (100.0)
전 체	228,339	832,557	212,012	1,272,908

또한 신규경영주 농가 가운데 전업농가수는 19,526가구로 신생농가의 39.2%에 불과하다. 이는 매년 평균 3,905가구의 전업 경영주가 신규로 생성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어 전업적 농업후계인력의 육성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제1종 겸업농가는 3,495호로서 신규 경영주 농가의 7.0%에 해당한다. 전업적 농업 인력으로 볼 수 있는 50세 미만 전업농가와 제1종 겸업농가수는 7,996명에 불과하여 5년 미만 경영주 농가의 16.0%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남성이 7,356명으로 14.8%에 이른다.

경영주 경력 5년 미만 농가의 경영주를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여성경영주가 6,333명으로 12.7%를 차지하고 있는데 5~20년 경력의 여성경영주 비율이 9%에 이르는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남성경영주의 사망으로 인해 여성이 경영을 승계한 경우이다. 5년 미만 여성경영주 가운데 60세 이상이 33.7%, 50세 이상이 62.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주로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경영을 승계한 농가로 판단되어 실질적으로 신생농가로 보기는 어렵다. 둘째, 여성이 신규로 농업에 취업하는 경우로 타 직업에서 전직하거나 농업에 신규 취업한 경우에 해당한다. 최근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우대조치로 여성의 신규 취농이 늘어난 것도 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40세 미만의 전업 여성경영주는 162농가로 전체 5년 미만 경영주 농가의 0.3%에 이르는 미미한 수치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아직까지 여성후계농의 육성은 정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규 경영주 농가의 과반수 이상은 도시 은퇴자를 중심으로 소규모의 자급적 농업에 참여하는 농가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이로써 신규 경영주 역시 젊고 경영규모가 큰 신규경영농가와 함께 중고령의 자급적, 은퇴농적 성격의 농가로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규농가의 거주지는 면부 거주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읍부와 동부거주 비중이 커

지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표 6-7〉 경영주 경력 5년 미만 농가의 특성별 분포

(단위: 명, %)

연 령	전겸업별	남	여	계
29세 이하 (2.0)	전업농	401(0.8)	19(0.04)	420(0.8)
	제1종 겸업농	124(0.2)	5(0.01)	129(0.3)
	제2종 겸업농	420(0.8)	55(0.1)	475(1.0)
	계	945(1.9)	79(0.2)	1,024(2.1)
30~39세 (13.8)	전업농	1,995(4.0)	143(0.3)	2,138(4.3)
	제1종 겸업	574(1.2)	32(0.1)	606(1.2)
	제2종 겸업	3,571(7.2)	564(1.1)	4,135(8.3)
계	6,140(12.3)	739(1.5)	6,879(13.8)	
40~49세 (28.5)	전업농	3,347(6.7)	355(0.7)	3,702(7.4)
	제1종 겸업	915(1.8)	86(0.2)	1,001(2.0)
	제2종 겸업	8,382(16.8)	1,141(2.3)	9,523(19.1)
	계	12,644(25.4)	1,582(3.2)	14,226(28.5)
50~59세 (29.2)	전업농	4,302(8.6)	700(1.4)	5,002(10.0)
	제1종 겸업	856(1.7)	129(0.3)	985(2.0)
	제2종 겸업	7,588(15.2)	968(1.9)	8,556(17.2)
	계	12,746(25.6)	1,797(3.6)	14,543(29.2)
60세 이상 (26.4)	전업농	6,794(13.6)	1,470(2.9)	8,264(16.6)
	제1종 겸업	667(1.3)	107(0.2)	774(1.6)
	제2종 겸업	3,571(7.2)	559(1.1)	4,130(8.3)
	계	11,032(22.1)	2,136(4.3)	13,168(26.4)
합 계		43,507(87.3)	6,333(12.7)	49,840(100.0)

I. 지역현황

II. 농림어가의 인구와 가족

III. 한국농촌사회의 변화

IV. 농업

V. 임업

VI. 어업



제 7 장 농가의 농지소유와 이용의 변화

박민선

제 1 절 총경지 규모와 경지이용 형태

2005년 농가의 총 경지 면적은 151만1천ha로 2000년 160만2천ha와 비교해 볼 때 9만1천ha 감소하였다(〈표 7-1〉참조). 이는 연평균 1.2% 감소한 것으로 1990년대 후반 경지면적의 감소율이 줄어든 것과 대조적으로 다시 그 감소율이 증가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경지를 논과 밭으로 구분하여 보면 논 면적은 94만8천ha이며, 밭 면적은 56만2천ha에 이른다. 2005년 논은 2000년과 비교해 볼 때 5만ha가 감소하였으며 밭은 4만2천ha가 감소하였다. 이는 지난 2000~2005년 동안 연평균 각각 1.0%, 1.4% 감소한 것으로써 논보다는 밭의 감소율이 더욱 컸다. 밭 가운데 특히 과수원의 감소가 두드러져서 2000년 14만9천ha에서 2005년 13만6천ha로 감소하여 지난 5년간 1만3천ha 감소하였으며 이는 연평균 1.8% 감소한 수치이다. 1990년대 후반 과수원이 크게 증가한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설면적은 오히려 연평균 0.4% 증가하여 2005년 5만3천ha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총 경지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가수의 감소로 인해 가구당 경지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1.2ha에 이른다.⁷⁾ 이를 논과 밭으로 구분해 보면 논 의 가구당 경지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밭의 가구당 경지규모는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7-1〉 경지면적의 변화추이

(단위: 천가구, 천ha, %)

구 분	농가	경지면적	논면적	밭면적		가구당 평균면적			시설면적
				과수원	가	논(ha)	밭(ha)	가	
1990년	1,769	1,823	1,206	617	111	1.03	0.68	0.35	24
2000년	1,383	1,602	999	604	149	1.15	0.72	0.44	52
2005년	1,273	1,511	948	562	136	1.19	0.75	0.44	53
2000~2005년 연평균증감률	-1.7	-1.2	-1.0	-1.4	-1.8	0.7	0.8	0.0	0.4

주: 가구당 평균면적은 경지면적/농가수(경지 없는 농가포함)임.

제 2 절 농가의 경지면적과 그 변화

경지규모별 농가 분포와 그 변화

다음으로는 경지규모별로 농가의 분포를 살펴보기로 한다. 1960년부터 1990년까지는 영세농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규모가 큰 대농층이 증가하는 전반적인 상향이동의 방향으로 농가의 경영규모별 분포가 변화되어 왔다. 1.0ha 미만층의 소규모 농가는 1967년 전체 농가의 67.6%를 차지하였으나 1990년에는 58.1%로 감소하였다. 반면 1.0ha 이상 경지규모 농가의 경우에는 1985년까지는 1.5ha 계층까지 감소하였고 1990년에는 2.0ha 계층까지 감소하여 감소하는 계층의 분기점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경지규모의 변화는 농업소득에 의한 가계비축족 가능 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영농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영규모를 늘이지 않을 수 없는 압박에 놓이게 된 결과로 해석된다.

1990년까지의 농가 경지규모의 변화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3가지 시기로 정리할 수 있다(박민선, 1993: 57-59). 첫번째 시기는 1960~1967년까지 총농가수가 계속 증가하는 시기로 농가의 소멸보다는 농가의 신설이 보다 많았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0.5ha 미만 농가가 절대적으로 감소한 반면 1~2ha 층과 3ha 이상층이 증가하고 특히 3ha 이상층의 증가가 두드러진 시기이다.

두 번째 시기는 1968~1982년까지로 총농가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계층별 구성에서 0.5ha 이하의 영세소농층과 2ha 이상 상층 양극층의 비율이 감소하고 0.5ha~1.5ha의 중간층의 비율이 증가하였다.⁸⁾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요인으로는 0.5ha 미만 영세소농의 이농과 잔존농가의 농지매입이나 임차에 의한 규모 확대가 지적되고 있다. 반면 2ha 이상층의 비율이 감소한 원인은 이농으로 인한 농업노동력의 감소와 노임 상승으로 인해 자가노동력 규모로 영농규모를 축소한 것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박진도, 1987; 이영기, 1984).

7) 이는 전체 농경지를 전체농가로 나눈 것으로 경작지가 없는 농가까지 포함한 수치이다.

8) 이러한 특징을 '중농표준화'의 경향이라고 파악하기도 하였다.



〈표 7-2〉 경지규모별 농가 계층 구성비의 변화

(단위 : %)

연도	경종의 농가	0.5ha 미만	0.5~1.0ha	1.0~1.5ha	1.5~2.0ha	2.0~3.0ha	3ha 이상
1960	42.9		30.1	20.7		6.0	0.3
1962	41.1		32.5	20.4		5.7	0.3
1964	39.9		31.9	21.5		6.1	0.6
1967	35.6		32.0	17.3	8.5	5.2	1.5
1970	2.9	31.6	33.2	18.0	7.8	5.0	1.5
1973	3.5	32.4	31.5	18.1	8.2	4.8	1.5
1976	4.5	29.4	34.9	17.8	7.5	4.5	1.4
1978	3.8	28.4	35.9	18.5	7.7	4.3	1.4
1980	1.3	28.4	34.7	20.4	8.8	5.0	1.4
1982	2.0	29.0	36.3	19.5	7.9	4.1	1.2
1984	2.6	28.2	35.8	19.8	8.1	4.3	1.2
1985	2.4	27.7	35.6	20.2	8.3	4.5	1.2
1986	2.3	28.3	34.8	20.3	8.4	4.6	1.2
1987	2.1	29.0	34.6	20.5	8.7	4.9	1.4
1988	1.8	26.9	34.2	20.5	9.0	5.1	1.5
1989	1.6	27.2	33.5	20.8	9.5	5.7	1.6
1990	1.4	27.3	30.8	19.9	10.8	7.3	2.5

자료 :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각 년도

세 번째 시기는 1983년~1990년까지의 시기로 총 농가의 감소는 지속되지만 0.5ha~1.0 ha 층의 비율이 감소하고 1ha 이상층에서 그 비율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즉 1ha를 기점으로 1ha 미만층의 비율이 감소하는 동시에 1ha 이상층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규모가 클수록 그 증가폭도 커지고 있다. 이는 영세농층의 탈농이나 이농이 격화되는 가운데 잔존하는 농가의 경우 전반적으로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 원인은 1980년대 전반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중대형 농기계의 보급으로 자가영농의 상한이 커지면서 규모 확대의 생산기반이 만들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의 가계비 충족도가 낮아지면서 중농의 하한을 유지하기 위해 규모 확대의 압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1990년 이후에는 농가의 경영규모별 농가분포가 구조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이전 시기와는 대조적으로 0.5ha 이하층과 2.0ha 이상층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2000년 이후에도 이러한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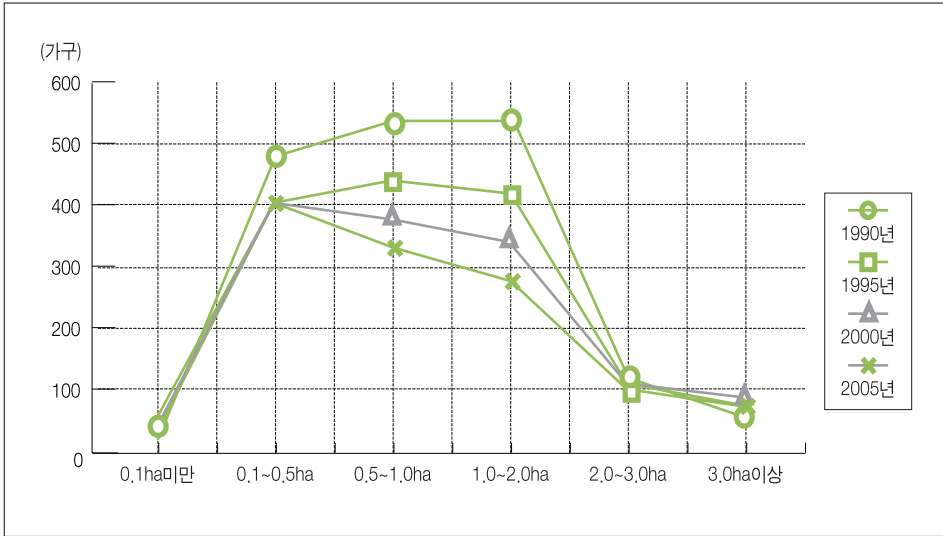
향이 지속되고 있는데 증가하는 계층의 분기점이 상향 이동하여 1.0ha 미만층의 농가수는 절대수에 있어서나 상대적 비중이 있어 증가하고 있다. 반면 대규모 농가의 증가하는 계층의 분기점 역시 상향 이동하여 3.0ha 이상 층에서는 절대적으로 농가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7-3〉 참조). 반면 1~3ha 경영농가는 절대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1990년 이후 농가의 계층간 이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1~3ha층을 중심으로 일부의 농가가 경영규모를 축소하여 하향 이동한 반면 일부의 농가는 경영규모를 확대하여 상향 이동한 것으로 판단된다.⁹⁾ 3.0ha 이상 대규모 농가들의 경영규모가 크게 늘어나서 특히 5ha 이상 대규모 농가가 꾸준히 상승하여 2005년에는 3만2천호를 넘고 있는데 이는 전체 농가 중 2.5%에 해당한다(〈표 7-4〉 참조).

〈표 7-3〉 경지규모별 농가 분포 및 연평균 변화율

(단위: 천가구, %)

연도	경지규모	0.1ha 미만	0.1~0.5ha	0.5~1.0ha	1.0~2.0ha	2.0~3.0ha	3.0ha 이상	계
1990년		15	468	544	543	130	44	1,767
		(0.8)	(26.5)	(30.8)	(30.7)	(7.3)	(2.5)	(100.0)
1995년		16	417	432	418	123	70	1,501
		(1.1)	(27.8)	(28.8)	(27.8)	(8.2)	(4.7)	(100.0)
2000년		30	410	379	352	114	85	1,383
		(2.2)	(29.7)	(27.4)	(25.4)	(8.2)	(6.1)	(100.0)
2005년		38	419	330	281	93	93	1,272
		(3.0)	(32.9)	(26.0)	(22.1)	(7.3)	(7.3)	(100.0)
1990~1995		1.25	-2.16	-4.13	-4.61	-0.95	12.36	-3.14
1995~2000		18.49	-0.33	-2.47	-3.18	-1.55	4.05	-1.56
2000~2005		4.84	0.43	-2.73	-4.40	-3.99	1.82	-1.66
1990~2000		10.44	-1.23	-3.08	-3.53	-1.22	9.46	-2.17

9) 그러나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개별농가에 대한 패널조사를 통해 자세히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1〉 경지규모별 농가수

〈표 7-4〉 대규모 경지농가수 추이

(단위 : 천가구)

연도 \ 규모	2~3ha	3~5ha	5~7ha	7~10ha	10ha 이상
1990년	129.5	43.5		0	
2000년	113.8	61.1	14.4	6.0	3.2
2005년	93.2	60.7	17.8	8.9	6.1

이러한 변화는 농업구조의 협의적 개념, 즉 농업 생산요소간의 결합관계 특히 농지와 농업노동력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구조적 변화로 파악될 수 있다.

경지규모의 결정요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 경작규모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 농가를 중심으로 경작규모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밝혀보고자 한다.

첫째, 경작규모의 결정요인으로서 가족원의 수를 들 수 있다. 가족노작적 소농구조에서는 가족노동력을 투입하여 가족의 재생산을 피하는 것이 경영의 목적이므로 차야노프(A. V. Chayanov)에 따르면 가족 노동력의 성격과 소비를 결정하는 가족원의 수, 그리고 가족의 주기는 경작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5년 가구원수와 농가의 경지규모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경종 농업이 없는 농가를 제외한 농가의 평균 가구원수는 2.8명인데 1.5~2ha를 기점으로 2ha 이상은 가구원이 3.0명을 초과하는데 반해 1.5ha 미만 경작농가에서는 가구원의 수가 2.8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7-5> 참조). 가구원수가 경지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가구원의 수는 가족노동력의 수와 함께 가계의 소비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¹⁰⁾

<표 7-5> 경지규모별 가구원수의 규모

(단위: 명)

경지규모 가구원수	0.5ha 미만	0.5~ 1.0ha	1.0~ 1.5ha	1.5~ 2.0ha	2.0~ 3.0ha	3.0ha 이상	평 균
평균가구원수	2.5	2.6	2.7	2.8	3.0	3.3	2.8

주: 평균가구원수는 경작규모가 없는 농가는 제외한 수치임.

둘째, 경영주의 연령은 가족의 생애주기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특히 가족원의 노동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농가의 특성상 경영주의 연령에 따른 가족 노동력의 질과 양, 그리고 가족의 생애주기가 경지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2005년 경영주의 연령별로 경지면적을 살

<표 7-6> 경영주 연령별 경지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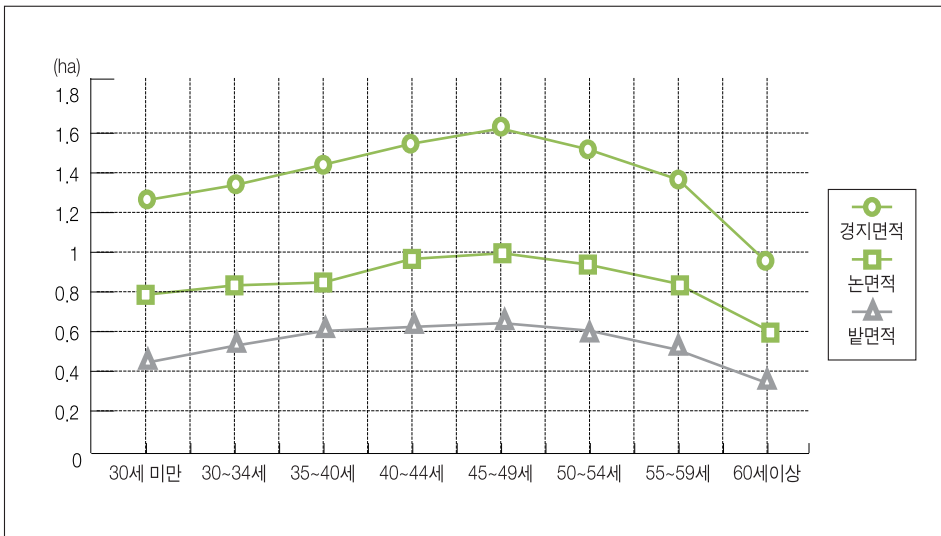
(단위: ha)

나이	경지용도	경 지 면 적	논 면 적	밭 면 적
30세 미만		1.27	0.80	0.47
30 ~ 34세		1.36	0.83	0.53
35 ~ 40세		1.43	0.83	0.60
40 ~ 44세		1.56	0.94	0.62
45 ~ 49세		1.62	1.00	0.63
50 ~ 54세		1.51	0.92	0.60
55 ~ 59세		1.36	0.86	0.51
60세 이상		0.96	0.62	0.34
계		1.18	0.74	0.44

10) 농가의 가족주기는 노동력의 양과 질 그리고 소비수준에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농가가족의 크기가 크게 축소된 현실에서 가족주기와 가구원수는 노동력보다는 소비수준에 더욱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펴보면 50세를 기점으로 49세까지는 평균 경지규모가 증가하다가 50세 이후에는 경지규모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6〉 참조). 그러나 65세 이상 노령 경영주 역시 다른 연령계층보다는 경지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규모를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표 7-7〉 참조).



〈그림 7-2〉 경영주 연령별 경지규모

〈표 7-7〉 노령경영주 연령별 평균경지규모

(단위 : ha)

연령 \ 경지규모	계	논	밭
전체농가	1.18	0.74	0.44
65~69세	0.66	0.35	1.01
70~75세	0.53	0.28	0.81
75세 이상	0.41	0.23	0.64

셋째, 가족원의 농외취업 역시 농가의 경영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겸업별로 농가의 경영규모를 살펴보기로 한다(〈표 7-8〉 참조). 2005년에는 전업농가의 평균경지면적이 1.3ha이며 제1종 겸업농가는 1.7ha, 제2종 겸업농가는 0.6 ha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종 겸업농가의 경우에는 평균 경지규모가 전업농가에 비해서도 큰 것을 알 수 있다. 겸업농가와 전업농가의 차이보다는 제1종 겸업농가와 제2종 겸업농가의 겸업농 내부 차이가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전업농가가 제1종 겸업농가와 비교해서 경지규모가 적은 것은 경영주의 노령화와 관련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전겸업별로 농가의 경지규모를 비교해 보면 전업농의 경우에는 제1종 겸업농가에 비해 1.0ha 미만 경지농가의 비중이 높다. 반면 제1종 겸업농가의 경우에는 다른 농가들에 비해 1.0ha 이상 경영농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제2종 겸업농가의 경우에는 57.2%의 농가가 0.5ha 미만 경지농가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82.4%의 농가가 1ha 미만을 경지하는 농가이다.

〈표 7-8〉 전겸업별 농가의 경지규모 분포 비율 및 평균 경지규모 (2005년)

(단위 : %, ha)

경지규모 전·겸업	경지 없음	0.5ha 미만	0.5~ 1.0ha	1.0~ 1.5ha	1.5~ 2.0ha	2.0~ 3.0ha	3.0~ 5.0ha이상	5.0ha 이상	평균 경지규모
전농업	1.5	31.5	26.3	14.9	9.3	8.3	5.4	2.9	1.3
제1종 겸업농	1.3	17.5	26.0	17.5	12.4	11.8	8.5	5.0	1.7
제2종 겸업농	1.0	57.2	25.2	8.6	3.9	2.5	1.2	0.4	0.6

넷째, 농업경영주의 성(性) 역시 경영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노령화는 농업의 여성경영주의 비중을 크게 높게 되는데 여성경영주의 대부분이 노령경영주이다. 여성경영주는 대부분 경지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자급적 농가로서 농업에 잔존하게 된다. 2005년 총조사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성경영주의 0.6%가 경작지가 없는 반면 60.3%가 0.5ha 미만을 경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5.5%가 0.5~1.0ha 경지농가로서 여성경영주의 85.8%가 1.0ha 미만을 경지하고 있다(〈표 7-9〉 참조).

〈표 7-9〉 경영주의 성별 경지규모 분포

(단위 : %)

경지규모 성별	경작지 없음	0.5ha 미만	0.5~1ha	1~1.5ha	1.5~2ha	2~3ha	3~5ha	5ha 이상
남자	1.5	31.0	26.1	14.9	9.5	8.5	5.6	3.1
여자	0.6	60.3	25.5	7.8	3.1	1.8	0.7	0.3



다음으로는 경지규모에 위의 변수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경지규모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겸업여부, 경영주의 성, 농기계보유수준, 가구원수로서 이 가운데 겸업여부는 전업농과 제1종 겸업농을 1로, 제2종 겸업농을 0으로 더미 변수화 하였으며, 경영주의 성은 남성 1, 여성 0으로 더미 변수화 하였다. 농기계보유수준은 농기계보유 대수로 처리하였다.¹¹⁾

분석결과를 보면 모든 변수의 유의확률이 .0001이하로 경지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10 참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농기계의 보유 수준으로 농기계를 갖춘 농가가 적극적으로 경지 임차에 나서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제2종 겸업 여부 역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10〉 경지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회귀분석)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 수)	-533.254	14.590		-36.550	.000
	성 더미	376.473	11.399	.027	33.027	.000
	겸업더미	1,306.481	10,205	.108	128,020	.000
	농기계합	1,203.722	2,209	.450	544,837	.000
	가구원수합	309.019	3.275	.082	94,345	.000

주: 종속변수=경지규모

성 더미: 남성=1, 여성=0

겸업더미: 전업농과 제1종 겸업농=1, 제2종 겸업농=0

11) 경영주의 연령도 경작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지만 선형적 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경영주의 연령과 경작규모는 2차 함수의 관계라고 가정하여 경영주연령과 경영주연령의 제곱을 위의 변수에 추가하여 분석하였으나 R제곱은 각각 0.01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다.

제 3 절 농가의 농지소유와 임대차 현황

농가의 호당 경지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경지규모의 증가가 농가의 소유농지의 증가에 의한 것인지 혹은 농지임차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005년 현재 농가의 가구당 평균 소유 농지규모는 총 7,385㎡으로 총 경지 중 농가의 소유농지 비율은 62.6%에 이른다. 반면 평균 임차지의 규모는 4,479㎡에 이르고 있다.

〈표 7-11〉 농가의 농지소유 및 임차지 규모 (2005년)

(단위 : ㎡, %)

농가의 평균 경작규모	농가의 평균 소유규모	농가의 평균 임차지 규모
11,865 (100.0)	7,385 (62.6)	4,479 (37.4)

주 : 평균 경작 규모, 평균 소유규모, 평균 임차규모는 각각 전경지/전농가, 전소유지/전농가, 전임차지/전농가로 계산함.

농가 가운데 임차지가 있는 농가는 논 30.6%에 이르며 69.4%의 농가는 임차지가 없는 농가이었다. 밭의 경우에는 임차지가 있는 농가가 26.9%이며 임차지가 없는 농가는 73.1%로 논을 임차한 농가의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임차지가 있는 농가의 평균 임차규모는 논 9,577㎡, 밭의 경우 5,752㎡으로 임차지 규모에 있어서도 논이 밭의 1.7배에 이른다. 한편 논 임차농가와 밭 임차 농가 모두 자작지에 비해 임차지의 규모가 각각 1.7배와 2.4배에 이르고 있어 경작규모의 확대에 있어 임차지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자작농의 경우 논 평균 소유규모는 5,564㎡으로 임차농가에 비해 적는데 비해 밭의 경우에는 자작농의 평균 밭 소유면적은 2,357㎡으로 임차농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7-12〉 참조).

〈표 7-12〉 임차농가 비율과 평균 임차지 및 소유지 규모

(단위 : ㎡, %)

논 임차농가 비율	임차농가 논			밭임차 농가비율	임차농가 밭		
	경지면적	임차면적	소유면적		경지면적	임차면적	소유면적
30.6	15,141 (100.0)	9,577 (63.3)	5,564 (36.7)	26.9	8,109 (100.0)	5,752 (69.4)	2,357 (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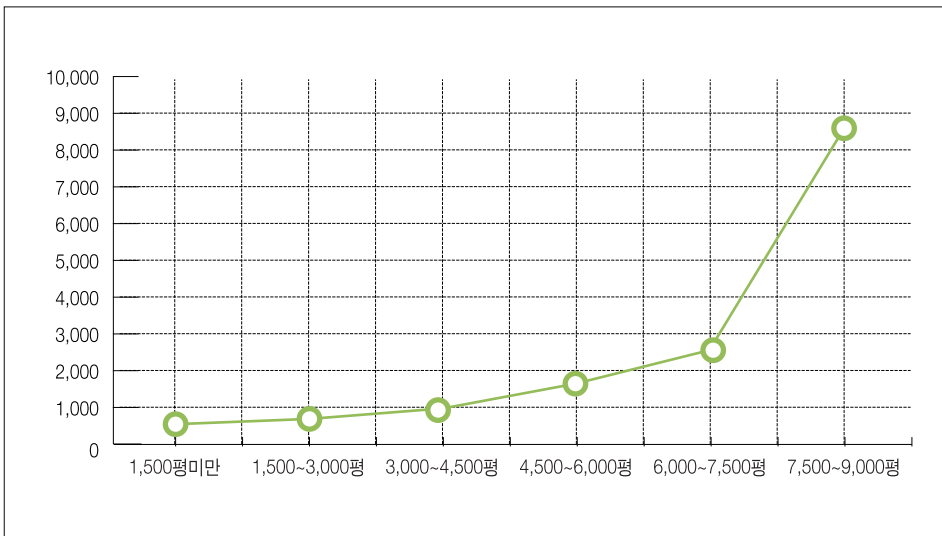


한편 농가의 경지규모별로 농지의 유동화가 어느 계층에 집중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7-1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농가의 임차지 면적은 경지규모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경지규모가 클수록 임차지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3ha 이상 농가 층의 평균 임차지 규모는 28,513㎡으로 다른 계층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임차지의 비율에 있어서도 경지규모가 클수록 임차지 비율도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논과 밭으로 구분하여 보면 0.5ha 미만은 밭의 임차지 비율이 높은 반면 중규모 계층에서는 논과 밭의 임차지 비율이 거의 비슷

<표 7-13> 경지규모별 임차지비율과 임차지 면적

(단위 : %,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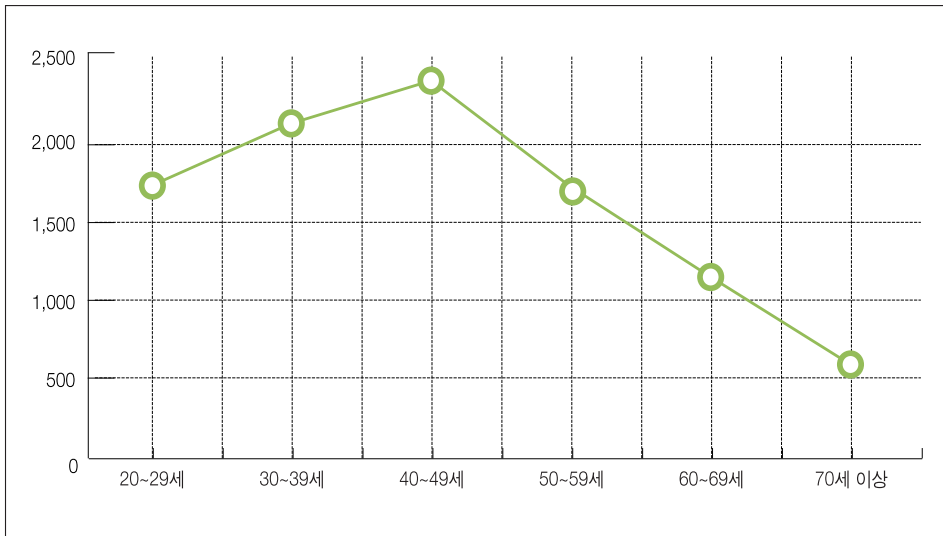
경지규모	임차비율	밭임차비율	논임차비율	평균임차지면적
0.5ha 미만	20.8	22.2	18.2	542
0.5~1.0ha	23.0	21.9	22.4	1,610
1~1.5ha	27.4	24.0	27.5	3,253
1.5~2ha	31.9	27.0	32.8	5,372
2~3ha	37.5	30.5	38.7	8,836
3ha 이상	50.8	39.0	50.6	28,513
합 계	27.1	25.0	27.6	4,479



<그림 7-3> 경지규모별 임차지 면적

한 수준이나 3ha 이상 대규모 경지농가에서는 논·임차비율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 이는 대규모 경지농가가 임차지를 확대함으로써 규모 확대를 피하는 가운데 특히 논·임차를 통한 규모 확대에 보다 적극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영주 연령별로 임차지 규모를 보면 40대를 정점으로 40대 이하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임차에 적극 나서는 반면 40대를 지나면서 임차지 면적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4〉 경영주 연령별 임차지 면적

다음으로는 임차지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논과 밭으로 구분하여 논·임차지 면적과 밭·임차지 면적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독립변수는 농기계 보유수준, 논 소유규모, 가구원수, 성년미, 겸업년미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논·임차지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3가지 모형으로 구분하여 변수별 설명력의 차이를 검토해 보았다. 분석결과 모든 독립변수가 유의수준 .000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임차지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임차지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농기계 보유수준이며 논 소유 규모가 클수록 임차지의 규모도 큰 것을 확인하였다(〈표 7-14〉 참조).



(표 7-14) 논 임차지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회귀분석)

구 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베타	R제곱	베타	R제곱	베타	R제곱	
농기계	.354*	.125	.316*	.136	.284*	.140	
논소유규모			.111*				.110*
가구원수							.047*
성더미							.005*
겸업더미							.060*

주: *: p=.000

한편 밭의 경우에는 농기계의 영향력이 가장 크지만 논에 비해서는 상대적 영향력이 훨씬 적다. 밭의 소유규모 역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구원 수나 제2종 겸업여부 역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밭의 경우에는 회귀식의 모형 적합성은 유의수준 .000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R제곱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설명력이 크게 떨어진다(〈표 7-15〉 참조).

(표 7-15) 밭 임차지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회귀분석)

구 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베타	R제곱	베타	R제곱	베타	R제곱	
농기계	.145*	.021	.060*	.024	.106*	.029	
밭소유규모			.131*				.055*
가구원수							.060*
성더미							.011*
겸업더미							.056*

주: *: p=.000

농지 유동화의 관점에서 볼 때 농업총조사에서는 농가의 임대농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농민층내부의 농지유동화에 대해서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비농민 소유농지 뿐만 아니라 농민층 내부에서 농지유동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도 역시 중요하다. 농지의 임대차를 통해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인 농지가 농민층 내부에서도 어떤 층으로 집중되고 있는가는 농업구조의 개선과 관련된 정책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농가의 노령화에 따른 농업구조의 변화를 인식하기 위해 농지의 유동화가 농민층내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4 절 경영의 집중화 경향

경작규모별 분포를 통해 2000년대 들어 경영의 양극화 현상을 확인하였다. 또한 농지의 임대차를 통해 경작규모가 큰 농가는 임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규모 확대를 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특히 논외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집중화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전체 농지 중 경작규모별로 경작지의 비중을 논과 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논외의 경우에는 2005년 3.0ha 이상 농가가 전체 면적의 30.9%를 차지하고 2.0ha 이상 농가가 44.9%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지난 1990년과 비교하면 각각 24.7%p, 28.0%p 증가하여 경영의 집중도가 크게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0.5ha 미만 농가의 논 경작지 비중은 15.7%에서 11.6%로 축소되었고 1.0ha 미만 농가는 46.9%에서 29.5%로 축소되었다(〈표 7-16〉 참조).

〈표 7-16〉 논 경영규모별 농가 및 면적의 누적분포

(단위: 천가구, 천ha, %)

구 분 \ 연 도	1990년		2000년		2005년	
	농 가	면 적	농 가	면 적	농 가	면 적
실수합계	1,508천가구	1,194천ha	1,078천가구	999천ha	938천가구	948천ha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5ha 이상	59.6	84.3	57.8	86.2	56.0	88.4
1.0ha 이상	25.7	53.1	27.2	61.6	27.1	70.5
1.5ha 이상	10.7	29.9	15.4	45.7	16.7	53.7
2.0ha 이상	4.7	16.9	8.4	32.3	10.0	44.9
3.0ha 이상	1.2	6.2	3.8	20.0	5.4	30.9

밭의 경우 3ha 이상이 2005년 20.4%로 1990년 6.8%에 비해 13.6%p 늘어났고 2ha 이상 농가는 12.6%에서 30.5%로 17.9%p 늘어났다(〈표 7-17〉 참조). 이에 반해 0.5ha 미만과 1.0ha 미만 농가의 경우에는 각각 13.4%p, 21.2%p 줄어들었다. 논과 밭 모두 대규모 경영에 경작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특히 논외의 경우 양극화의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표 7-17〉 밭 경영규모별 농가 및 면적의 누적분포

(단위: 천가구, 천ha, %)

구 분	연 도	1990년		2000년		2005년	
		농 가	면 적	농 가	면 적	농 가	면 적
실수합계		1,469천가구	613천ha	1,202천가구	604천ha	1,043천가구	567천ha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5ha 이상		24.7	61.8	27.7	70.5	31.9	75.2
1.0ha 이상		7.9	33.2	10.6	45.2	14.7	54.4
1.5ha 이상		3.3	19.6	5.9	33.4	7.1	38.5
2.0ha 이상		1.6	12.6	3.2	24.0	4.5	30.5
3.0ha 이상		0.6	6.8	1.5	15.8	2.1	20.4

과수농업 역시 경영의 집중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과수원 1ha이상 재배농가의 농가호수는 14.4%인데 반해 면적비율은 46.3%를 차지하고, 시설원예 2천평 이상 농가도 10.6%의 농가가 42.9%의 면적을 경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7-18〉 참조).

〈표 7-18〉 대규모 과수 및 시설 농가수 및 면적 비율

(단위: %)

경영규모	연 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농가비율	면적비율	농가비율	면적비율	농가비율	면적비율	농가비율	면적비율
과수원 1ha 이상		10.5	38.2	13.6	42.9	14.1	44.3	14.4	46.3
시설 2천평 이상		6.1	25.5	12.4	38.3	10.5	47.1	10.6	42.9

한편 축산의 규모화와 집중화도 나타나고 있다. 한우 20두 이상 사육농가는 1990년 1.1%에서 2005년에는 9.0%로 급증하였다. 또한 돼지 1천두 이상 사육농가 역시 1990년 0.2%의 농가에서 2005년 19.2%로 증가하였고, 이들 대규모 농가가 돼지 생산의 70.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닭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데 닭 1만수 이상 농가가 사육농가의 6.3%를 차지하는 반면 전체 생산의 97.8%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집중이 심화되었다(〈표 7-19〉 참조).

〈표 7-19〉 축산규모별 농가비율 및 두수 비율

연 도 경영규모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농가비율	두수비율	농가비율	두수비율	농가비율	두수비율	농가비율	두수비율
한우 20두 이상	1.1	14.1	4.4	28.6	6.5	49.9	9.0	52.8
젖소 50두 이상	1.7	8.7	6.0	18.9	26.4	54.1	40.0	66.0
돼지 1천두 이상	0.2	13.3	2.2	27.7	9.8	62.1	19.2	70.6
닭 1만수 이상	1.8	59.2	3.1	76.8	2.7	94.1	6.3	97.8

I. 자연환경

II. 농림어가의 인구와 가족

III.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

IV. 농업

V. 임업

VI. 어업

제 8 장 농업경영

박민선

제 1 절 농가의 영농 및 사업형태

농가의 영농형태와 그 변화

2005년 농가의 영농형태는 논벼가 51.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채소, 과수, 일반밭작물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년간 농가의 영농형태 변화를 보면 미작과 채소, 특용작물 농가는 절대 농가수가 감소한 반면, 과수, 화훼, 일반밭작물과 축산농가는 총 농가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절대 농가수가 오히려 증가하였다. 특히 일반밭작물은 연평균 6.5%씩 증가함으로써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그 외 화훼농가는 연평균 4.8%씩 증가하였으며 축산농가 역시 연평균 2.7%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논벼 재배농가는 지난 5년 동안 13만9천 농가가 감소하여 연평균 3.8%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8-1〉 참조).

1990년대 초 농업성장을 주도하던 축산, 특용작물, 화훼 등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농가수가 감소세로 반전되었던 반면 소득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논벼, 과수, 채소 등 경종농업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이러한 경향이 다시 반전되어 논벼가 절대적 그리고 상대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축산, 화훼농가의 절대수가 증가하였다.

한편 채소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농가수가 감소하고 있다. 채소농가 가운데 시설채소와 노지채소의 구성은 2005년 노지채소가 16만5천 농가로 전체 채소재배농가의 71.7%를 차지한 반면, 시설채소농가는 28.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2000년에는 노지채소 농가수가 16만 9천호로 전체 채소재배농가의 71.1%, 시설채소농가는 28.9%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의 전문화와 시설화 등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채소농가는 여전히 노지채소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노지채소 농가가 시설채소 농가에 비해 2.5배 수준에 이른다(〈표 8-2〉 참조).

〈표 8-1〉 영농 형태별 농가 분포

(단위: 천가구, %)

연 도	영농형태 전체 농가	영 농 형 태 별 농 가 수							
		논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일반 밭작물	축산	기타
1990년	1,767	1,232	107	172	39	6	114	89	8
	(100.0)	(69.7)	(6.1)	(9.8)	(2.2)	(0.4)	(6.5)	(5.0)	(0.4)
1995년	1,501	823	144	247	46	10	70	156	5
	(100.0)	(54.9)	(9.6)	(16.4)	(3.0)	(0.7)	(4.7)	(10.4)	(0.4)
2000년	1,383	787	143	238	38	8	92	72	5
	(100.0)	(56.9)	(10.4)	(17.2)	(2.7)	(0.6)	(6.6)	(5.2)	(0.3)
2005년	1,272	648	145	230	27	10	126	82	3
	(100.0)	(51.0)	(11.4)	(18.1)	(2.2)	(0.9)	(9.9)	(6.5)	(0.3)
1995~2000년 증감률	-1.6	-0.9	-0.1	-0.7	3.8	-4.4	5.6	-14.3	0.0
2000~2005년 증감률	-1.6	-3.8	0.4	-0.7	-5.8	4.8	6.5	2.7	-5.1

〈표 8-2〉 채소류 농가 분포

(단위: 가구, %)

연 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농가	비율	농가	비율	농가	비율	농가	비율
전 체	172,350	100.0	246,648	100.0	238,291	100.0	230,011	100.0
노지채소	133,045	77.2	175,237	71.0	169,468	71.1	164,777	71.7
시설채소	39,305	22.8	71,411	29.0	68,823	28.9	65,234	28.3

과수 농가의 경우에는 2000년과 2005년 사이 1,874농가가 증가하여 전체 농가 중 과수농가의 비중이 2005년 11.4%를 차지하고 있다. 과수농가를 품목별로 구분하여 보면 증가한 품목은 사과, 복숭아, 기타 품목인 반면 감소한 품목은 배, 포도, 감귤이다. 포도와 감귤의 경우 한·칠레 FTA로 인한 수입산 포도와 수입산 오렌지 등 수입개방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표 8-3〉 참조).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1990년대 후반 농가수가 감소하다 2000년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축종별로 구분하여 보면 한우의 증가가 두드러져서 한우 사육농가가 축산농가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35%로부터 2005년 54.8%로 증가하였다. 이는 2000년대 들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금지로 인한 쇠고기 가격의 상승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젓소, 돼지, 기타 축산은 감소하였고 닭 사육 농가는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표 8-4〉 참조).

〈표 8-3〉 과수류 품목별 농가 분포

(단위: 가구, %)

과종별	연 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농가	구성비	농가	구성비	농가	구성비	농가	구성비
전 체		107,363	100.0	143,600	100.0	143,362	100.0	145,236	100.0
사 과		38,950	36.3	41,542	28.9	25,392	17.7	25,989	17.9
배		7,104	6.6	11,556	8.0	19,045	13.3	18,815	13.0
포 도		16,456	15.3	30,170	21.0	31,222	21.8	15,864	10.9
복 승 아		12,472	11.6	10,998	7.7	13,962	9.7	27,849	19.2
감 굴		18,575	17.3	22,797	15.9	22,836	15.9	20,272	14.0
기 타		13,705	12.8	26,537	18.5	30,905	21.6	36,447	25.1

자료: 1990~2005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함.

〈표 8-4〉 축종별 농가 분포

(단위: 가구, %)

축종별	연 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농가	비율	농가	비율	농가	비율	농가	비율
전 체		88,522	100.0	155,923	100.0	72,173	100.0	82,283	100.0
한 육 우		26,136	29.5	97,702	62.7	25,270	35.0	45,127	54.8
젓 소		23,690	26.8	18,882	12.1	10,717	14.8	7,535	9.2
돼 지		21,323	24.1	16,631	10.7	9,621	13.3	6,952	8.4
닭		9,490	10.7	8,557	5.5	6,110	8.5	6,124	7.4
기 타		7,883	8.9	14,151	9.1	20,455	28.3	16,535	20.1

농가 영농형태의 분화와 전문화

한편 농가 영농형태의 변화는 농가의 분화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농가 영농규모 변화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영세농화와 대규모화의 양극화로의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이를 품목별로 구분하여 보면 대농층의 경우에는 화훼, 축산 등으로 더욱 특화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영세농층의 경우에는 일반밭작물, 채소, 논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세는 농가의 영농형태별 판매금액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일반밭작물 농가의 경우에는 53.2%의 농가가 100만원 미만 판매농가인 반면, 논벼, 채소, 특용작물 농가는 각각 23.3%, 24.3%, 22.2%로서 약 1/4에 해당하는 농가가 100만원 미만 판매농가이었다.¹²⁾ 이에 반해 축산농가, 화훼농가, 특용작물 농가는 5,000만원 이상 판매농가의 비율이 각각 21.0%, 25.6%, 10.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밭작물, 논벼, 채소농가의 5,000만원 이상 판매농가 비중은 각각 0.9%, 1.9%, 5.7%에 불과하였다.

영농형태별 판매액 규모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00년과 2005년의 판매액 규모를 비교하여 보면 논벼, 특용작물, 화훼는 100만원 미만 판매농가 비중과 5,000만원 이상 판매농가 비중이 모두 증가하는 양극화의 경향을 보여주는 반면 과수, 채소, 축산, 일반 밭작물의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 판매농가 비중은 줄어든 반면 5,000만원 이상 판매농가의 비중은 늘어나서 전반적인 상향이동의 성향을 보여주었다. 특히 축산, 과수, 채소 농가의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 판매농가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서 규모화, 전문화의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추측된다(〈표 8-5〉 참조).

〈표 8-5〉 영농형태별 농가의 판매규모별 비율

(단위: %)

구분	연도	논 벼	과 수	특 용 작 물	채 소	화 훼	일 반 밭작물	축 산	기 타	전 체
100만원 미만	2005	23.3	8.7	22.2	24.3	12.5	53.2	7.7	36.4	23.7
	2000	20.2	10.1	21.5	25.5	7.7	56.3	12.6	24.1	22.0
5,000만원 이상	2005	1.9	5.7	10.9	5.7	25.6	0.9	21.0	4.3	4.5
	2000	1.1	1.7	4.1	2.0	12.4	0.6	16.4	3.2	2.2

경영주의 연령별로 영농형태를 보면 일반밭작물과 논벼의 경우 60세 이상 경영주의 비율이 각각 65.7%, 62.8%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작물생산 농가의 경영 영세성과 자금농화가 경영주의 노령화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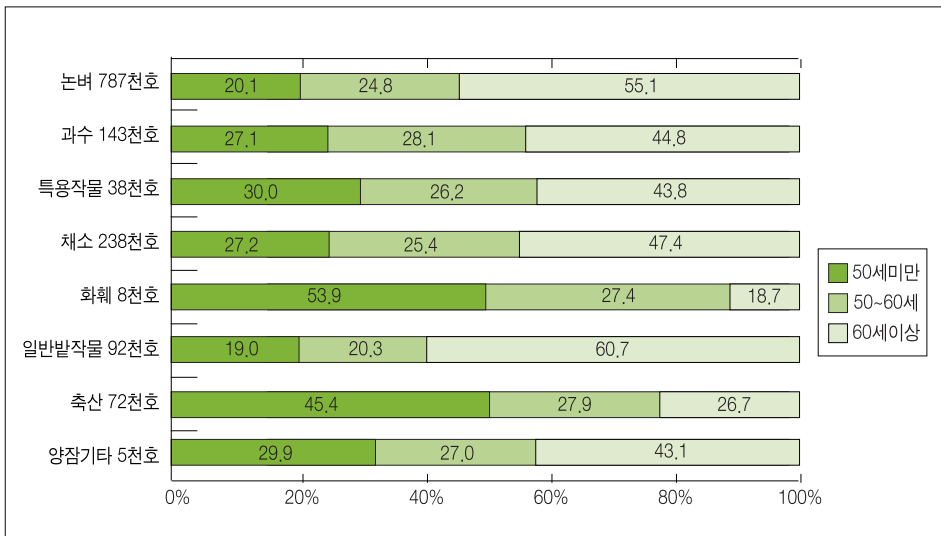
12)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르면 판매액 100만원 이상인 생산자를 농업인(가)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사실상 판매액을 기준으로 보면 법적으로도 농업인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에 반해 화훼는 50세 미만 연령층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36.9%를 차지하고 있다. 축산의 경우에는 60대 연령층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50대 연령층의 비중이 다른 품목에 대해 현저하게 높았다(〈표 8-6〉 참조). 이러한 자료 역시 농가의 분화가 경영주의 연령과 깊은 관련을 가지면서 품목별 특화에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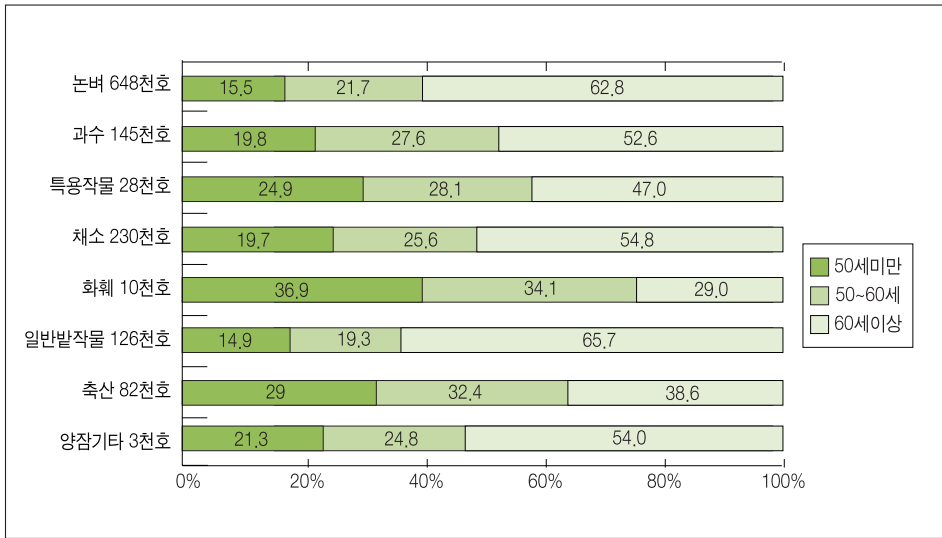
〈표 8-6〉 영농형태별 경영주 연령분포

(단위 : %)

구 분	50세 미만		50~59세		60세 이상	
	2000년	2005년	2000년	2005년	2000년	2005년
논 벼	20.1	15.4	24.8	21.7	55.1	62.8
과 수	27.1	19.8	28.1	27.6	44.8	52.6
특 용 작 물	30.0	24.9	26.2	28.1	43.8	47.0
채 소	27.2	19.7	25.4	25.6	47.4	54.8
화 훼	53.9	36.9	27.4	34.1	18.7	29.0
일반밭작물	19.0	14.9	20.3	19.3	60.7	65.7
축 산	45.4	29.0	27.9	32.4	26.7	38.6
기 타	29.9	21.3	27.0	24.8	43.1	54.0
전 체	23.8	17.9	25.2	23.8	51.0	58.3



〈그림 8-1〉 영농형태별 경영주 연령분포 (2000년)



〈그림 8-2〉 영농형태별 경영주 연령분포 (2005년)

경영주의 연령별 영농형태를 2000년과 비교하면 모든 영농형태에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작목에 비해 논벼와 일반 밭작물의 노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의 보급과 친환경농가의 특성

새로운 영농 형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친환경농업의 확산이다. 2005년에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가 8만7천 농가로서 전체 농가의 6.9%에 해당한다. 이는 2000년 60천농가(전체 농가의 4.3%)에 비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가는 논벼 재배농가로서 5만3천호로 전체 농가의 4.2%를 차지하는데 친환경농가 중 논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52.5%를 차지한다. 그 다음은 채소재배 농가로서 22.8%를 차지한다 (〈표 8-7〉 참조).

〈표 8-7〉 친환경농가수의 변화와 친환경농가의 영농형태

(단위 : 천가구, %)

연 도	영농형태 친환경 농가수 (전체농가 중 비율)	계	친환경 재배현황				
			논벼	과수	채소	특용작물	기타
2000년	60 (4.3)	73 (100.0)	41 (56.2)	8 (11.0)	19 (26.0)	2 (2.7)	3 (4.1)
2005년	87 (6.9)	101 (100.0)	53 (52.5)	14 (13.9)	23 (22.8)	4 (5.5)	7 (6.9)

주 : 친환경 재배현황은 품목별로 복수 응답임.

친환경농가의 재배규모는 최빈값이 0.5~1.0ha인 반면 비친환경농가의 최빈값은 0.5ha 미만이다. 또한 친환경농가의 평균경지규모가 1.8ha인 반면 비친환경농가의 평균경작규모는 1.1ha에 그치고 있어 친환경농가의 경지규모가 비친환경 농가에 비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8-8〉 참조).

〈표 8-8〉 친환경농가와 비친환경농가의 경지규모 비교

(단위 : 가구, %, ha)

경작규모	친환경농가	비친환경농가	전 체
경지없음	2 (-)	17,015 (1.4)	17,017 (1.3)
0.5ha 미만	13,648 (15.7)	414,177 (34.9)	427,825 (33.6)
0.5~1.0ha	20,502 (23.5)	302,488 (25.5)	322,990 (25.4)
1.0~1.5ha	17,227 (19.8)	183,450 (15.5)	200,677 (15.8)
1.5~2.0ha	10,232 (11.7)	91,717 (7.7)	101,949 (8.0)
2.0~3.0ha	11,794 (13.5)	91,227 (7.7)	103,021 (8.1)
3ha 이상	13,794 (15.8)	85,635 (7.2)	1,272,908 (7.8)
전 체	87,199 (100.0)	1,185,709 (100.0)	1,272,908 (100.0)
평균경지면적	1.8	1.1	1.2

그 이유는 친환경재배 농가의 경영주 연령이 상대적으로 젊고 전업적 농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58.4세인 반면 비친환경 농가의 평균 연령은 61.2세로 전체농가에 비해 친환경농가의 평균연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8-9〉 참조). 또한 친환경 실천농가 경영주 연령의 표준 편차 역시 전체 농가에 비해 적다. 또한 친환경농가의 전·겸업별 여부를 살펴보면 친환경농가가 전업 및 제1종 겸업농가의 비율이 비친환경농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8-10〉 참조).

〈표 8-9〉 친환경농가와 비친환경농가의 경영주 평균 연령

(단위: 세)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친환경농가	58.4	10.85
비친환경농가	61.2	11.15
전 체	61.0	11.15

〈표 8-10〉 친환경농가와 비친환경농가의 전·겸업 현황

(단위: 천가구, %)

농가구분	친환경농가	비친환경농가	전 체
전업농가	57 (65.2)	739 (62.4)	796 (62.6)
제1종 겸업농가	16 (18.1)	149 (12.6)	165 (13.0)
제2종 겸업농가	15 (16.7)	297 (25.1)	312 (24.4)
전 체	87 (100.0)	1,186 (100.0)	1,273 (100.0)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처로는 농협 및 농업법인이 46.9%, 친환경유통업체가 6.6%로 생산 및 유통의 조직화 수준이 다른 농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비율도 19.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 단체의 비중은 2.2%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표 8-11〉 참조).

〈표 8-11〉 친환경농가와 비친환경농가의 판매처 비교

(단위 : %)

구 분	도매시장	산지 공판장	농협 농업법인	소비자 단체	친환경 유통전문 업체	개인 소비자	대형 유통업체	기타
친환경농가	10.6	6.1	46.9	2.2	6.6	19.6	1.6	6.4
전체농가	5.6	3.7	24.5	-	-	17.5	0.4	-

농가의 농외취업 활동과 그 변화

농가의 농외취업 활동은 농업구조 변화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소농의 특징은 가족노작적 경영을 통해 가족을 재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농가의 계층구분에 있어 가족원을 재생산하기에 충분한 생산수단을 보유하고 자가노동력을 판매하거나 타인 노동력을 구매하지 않는 농가를 ‘중농’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 외 취업은 자가노동력에 비해 토지를 비롯한 생산수단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여 노동력의 판매에 나서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업과 공업의 불균등 발전과 농업 외 노동시장의 성장은 농업노동에 대한 기회비용을 높이는 역할을 하며 생산적 농업노동을 흡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전통적 농민층의 계층구분과는 달리 농외노동시장에 적합하지 않은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집단이 농업에 잔존하고 생산적인 인력이 농업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농업의 노령화와 여성화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유발되어 온 것이며 농외노동시장의 성장으로 농업 내에는 농외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다수의 인구층이 잔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¹³⁾

농업총조사에서 농가의 농외취업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전업농과 겸업농과의 구분이다. 농업총조사의 분류에 따르면 전업농가는 농가구내의 가구원이 농사에만 전업적으로 종사하고 있거나 농외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원이 있더라도 연간 농업 이외의 노동 종사일수가 30일 미만인 가구원이 있는 농가를 말한다. 이에 반해 겸업농가는 농사 이외의 일에 연간 30일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이다. 그리고 겸업농가 가운데 제1종 겸업농가는 농업수입이 농외 수입보다 많은 농가를 말하며 제2종 겸업농가는 농외수입이 농업수입보다 많은 농가를 지칭한다.

13) 농업 내에 잔존하는 농업외 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인구층은 정상적 노동능력을 갖추지 못해 농외취업이 불가능하고 기계화를 비롯한 농업의 평균적 생산력 수준을 갖추지 못해 경영의 규모 확대에도 한계를 가진 농가로서 ‘농업 침전층’으로 불리워진다. 영세 전업노령농가들이 이러한 계층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농가의 전·겸업별 실태를 시계열로 보면 1960년 이후 1995년까지는 전업농가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1990년대 후반 전업농가가 증가하는 추세로 반전되었다. 이것은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한 실업 등으로 농촌으로 귀농하여 취농한 인구가 늘어나고 농촌내부의 농외취업기회가 축소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전업농가의 비율은 1990년 59.6%에서 1995년 56.6%로 축소되었다가 2000년에는 65.2%로 증가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시기 동안에는 총 농가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전업농가가 5만3천가구의 절대수가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그에 반해 제1종 겸업농가는 5만2천가구 감소하였고 제2종 겸업농가는 11만7천가구가 감소하였다. 이는 도시 실업자의 귀농뿐만 아니라 농촌 내부의 농외 노동시장의 축소도 동시에 있었음을 추측케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2005년에는 전업농가의 비율이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서서 그 비율이 62.6%로 떨어져 지난 5년간 2.6%p 낮아졌다. 그에 따라 겸업농가의 비율은 34.8%에서 37.4%로 증가하였다. 겸업농가를 제1종 겸업과 제2종 겸업으로 구분하여 보면 제1종 겸업농가는 절대수와 비율이 모두 감소하였으나 제2종 겸업농가는 절대수와 상대적 비율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주의 겸업실태를 보면 제1종 겸업농가의 경우 경영주만의 겸업농가는 전체 농가의 2.9%에 불과하다. 반면 2종 겸업농가의 경우에는 경영주가 겸업에 참여하는 비율은 6.8%로 나타났다.

〈표 8-12〉 전·겸업별 농가 분포

(단위: 천가구, %)

구 분 \ 연 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농가	구성비	농가	구성비	농가	구성비	농가	구성비
전 체	1,767	100.0	1,500	100.0	1,383	100.0	1,273	100.0
전업농가	1,052	59.6	849	56.6	902	65.2	796	62.6
겸업농가	715	40.4	652	43.4	481	34.8	476	37.4
1종 겸업농가	389	22.0	277	18.5	225	16.2	164	13.9
경영주 겸업	96	5.4	69	4.6	42	3.1	37	2.9
가구원 겸업	199	11.3	141	9.4	132	9.6	79	6.2
전가구 겸업	94	5.3	67	4.5	50	3.6	49	3.8
2종 겸업농가	326	18.4	374	25.0	257	18.6	312	24.5
경영주 겸업	75	4.2	87	5.8	62	4.5	86	6.8
가구원 겸업	126	7.1	139	9.3	91	6.6	106	8.3
전가구 겸업	124	7.0	149	9.9	103	7.5	119	9.3

농가의 농외취업은 농외노동시장의 발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별로 농외취업의 기회는 매우 차이를 보인다. 2005년의 경우 동부의 겸업농가 비중은 55.7%에 이르러서 농가의 과반수 이상이 겸업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겸업농가 중 제2종 겸업농가의 비중이 훨씬 높아서 45.3%의 농가가 제2종 겸업농가이었다. 이에 반해 읍부와 면부의 겸업농가 비중은 각각 41.9%와 31.5%로 지역별 농외취업률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면부의 경우에는 제2종 겸업은 18.1%에 불과하였다.

〈표 8-13〉 지역별 전·겸업 농가 분포

(단위: 천가구, %)

지역	전·겸업	전업농가	제1종 겸업농가	제2종 겸업농가	계
동 부		94 (44.3)	22 (10.4)	96 (45.3)	212 (100.0)
읍 부		133 (58.1)	31 (13.5)	65 (28.4)	229 (100.0)
면 부		570 (68.5)	112 (13.4)	151 (18.1)	833 (100.0)

농가의 농외취업은 농업경영의 규모와 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확인하였던 것처럼 제1종 겸업농가의 경우에는 경영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오히려 겸업농가의 영농규모가 더욱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전·겸업별로 경영주 연령별 평균 경지규모를 비교해 보면 제2종 겸업농가의 경우 연령별로 경지규모의 차이가 거의 없는데 반해 전업농과 제1종 겸업농에서는 전연령계층에서 겸업농가의 경지규모가 전업농가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14〉 전·겸업별 경영주 연령별 평균 경지면적

(단위: ha)

구 분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평 균
전업농가	1.64	2.01	2.20	1.78	1.18	0.77	1.28
제1종 겸업농가	2.01	2.15	2.24	1.98	1.45	1.07	1.72
제2종 겸업농가	0.66	0.62	0.69	0.68	0.64	0.56	0.65

또한 농가의 농산물 판매액을 비교해 보아도 전업농가의 100만원 미만 판매농가가 20.1%에 달하는 반면, 제2종 겸업농가는 42.0%에 이르고 있다. 또한 판매가 전혀 없는 농가 가운데 제2종 겸업농가의 비율이 53.7%를 차지한다.

〈표 8-15〉 전·겸업별 농산물 판매액 분포

(단위: 천가구, %)

구 분		판매 없음	100만원 미만	100~ 500만원	500~ 1,000만원	1,000~ 3,000만원	3,000~ 5,000만원	5,000~ 1억	1억~ 2억	2억 이상	계
전업농가	농가	53	107	218	138	185	53	31	9	4	796
	구성비	6.7	13.4	27.4	17.3	23.2	6.7	3.9	1.1	0.5	100.0
제1종 겸업농가	농가	3	9	35	32	57	17	9	2	1	165
	구성비	1.8	5.5	21.2	19.4	34.5	10.3	5.5	1.2	0.6	100.0
제2종 겸업농가	농가	65	66	103	41	30	4	1	0	0	312
	구성비	20.8	21.2	33.0	13.1	9.6	1.3	0.3	0	0	100.0

농가의 농업 관련 사업 실태

농가의 농업 관련 사업은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과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새로운 소득의 기회로 최근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여 2005년 농업총조사에서 처음으로 농가의 농업 관련 사업실태를 조사하였다. 2005년 총조사를 중심으로 농가의 농업 관련 사업의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¹⁴⁾

2005년 전체 농가 가운데 농업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비율은 7.8%에 이르고 있다. 사업참여 농가의 사업활동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판장 및 직거래가 6.9%, 농가식당이 0.4%, 농산물 가공업이 0.5%, 민박이 0.2%, 관광농원 주말 농장이 0.06%이었다(〈표 8-16〉 참조). 즉 아직까지 농가의 농업 관련 사업은 주로 농산물의 판매활동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주5일제 근무, 웰빙을 추구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여가문화의 변화로 인해 크게 주목받고 있는 농촌관광과 관련된 사업 활동에 참여하는 농가의 비율은 아직은 극소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14) 농가의 농업 관련 사업 조사와 관련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농가의 사업활동을 농업소득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인가 혹은 농업의 취업활동으로 보아 농외소득으로 파악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컨대 농가식당은 농가 및 주변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나 소득의 발생이 농업보다는 서비스에 근거하고 있어 농업의 소득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활동과 농가의 겸업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8-16〉 농가의 농업 관련 사업 참여 실태

(단위: 가구, %)

구 분	전체농가	농업관련 사업참여 농 가	농업관련 사업 참여 형태				
			직판장, 직거래	농가식당	농산물 가공업	농가 민박	관광농원, 주말농원
참여농가	1,272,908	99,879	88,290	5,174	6,503	3,278	736
구 성 비	100.0	7.8	6.9	0.4	0.5	0.2	0.06

한편 직판장의 운영과 직거래활동은 사업규모나 내용면에서 매우 상이한 것으로 판단되어 분리하여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거래 활동은 농산물 판매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농업 관련 사업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제 2 절 농업경영주의 특성 · 변화

농업경영주의 특성과 그 변화

2005년 농가 경영주의 연령은 60대 연령층이 가장 많고 70대 이상이 24.5%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가 경영주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농가의 비율이 58.3%에 이르며 65세 이상 노인 경영주의 비율은 43.2%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00년 대비 65세 이상 노인 경영주의 비율과 비교할 때 13.1%p 증가한 것이어서 경영주의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8-17〉 참조).

〈표 8-17〉 경영주 연령별 농가 분포

(단위: 천가구, %)

연 령	연 도	1990년		2000년		2005년	
		농가	구성비	농가	구성비	농가	구성비
전 체		1,767	100.0	1,383	100.0	1,273	100.0
30세 미만		37	2.1	7	0.6	2	0.2
30~39세		221	12.5	84	6.1	40	3.1
40~49세		373	21.1	238	17.2	186	14.6
50~59세		584	33.0	348	25.2	303	23.8
60~69세		403	22.8	479	34.7	430	33.8
70세 이상		150	8.5	227	16.4	311	24.5
(65세 이상)		(328)	(18.3)	(452)	(30.1)	(549)	(43.2)

이와 대조적으로 30대와 40대 청년 경영주의 비중은 2005년 17.7%에 불과한데 2000년의 23.3%, 1990년의 33.6%와 비교해 볼 때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낮아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농가 경영주의 노령화는 후계자에 의해 농가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에 의해 경영이 승계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여성경영주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2005년 여성경영주 농가는 21만 7천호로 전체 농가의 17.0%에 해당한다. 여성경영주의 비율도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동부는 13.5%인 반면 면부에는 18.2%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여성경영주의 비율이 높다. 경영주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여성경영주의 비중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60세를 기점으로 여성경영주의 비율이 크게 높아져서 여성경영주의 61.5%가 65세 이상 노인층이었다. 이는 남성경영주의 39.4%가 65세 이상 노인층인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이는 농업경영주의 노령화가 농업경영주의 여성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현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8-18〉 경영주 연령별 경영주의 성

(단위: 명, %)

성 별 \ 연 령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전 체
남성경영주	2,248 (94.4)	37,873 (94.7)	174,264 (93.8)	268,750 (88.7)	342,762 (79.6)	230,305 (74.0)	1,056,202 (83.0)
여성경영주	134 (5.6)	2,137 (5.3)	11,585 (6.2)	34,102 (11.3)	87,711 (20.4)	81,073 (26.0)	216,706 (17.0)
계	2,382 (100.0)	40,010 (100.0)	185,849 (100.0)	302,852 (100.0)	430,473 (100.0)	311,342 (100.0)	1,272,908 (100.0)

영농 승계자의 확보와 승계자의 특성

농업총조사에서 영농 승계자란 나이에 관계없이 가족 중 현재 경영주의 대를 이어 농사에 종사할 사람을 말한다. 영농 승계자는 현재 농가에서 동거하고 있는 승계자와 비동거 승계자로 구분하여 조사되고 있다. 일부 동거 승계자의 경우에는 현재 농업에 취업하고 있는 승계자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영농 승계자는 농가의 존속이란 측면에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영농 승계자의 확보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수입개방 이후 농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란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농업 후계자의 확보가 농업정책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2005년 영농 승계자가 확보된 농가는 약 45,163호로 이는 전체 농가의 3.5%에 해당한다. 2000년 총조사 당시 15만 농가(전체 농가 중 10.8%), 1990년 29만 농가(전체 농가 중 16.4%)가 승계자를 확보한 것과 비교하면 영농 후계자가 절대수나 상대적 비중에 있어서 매우 급격하게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표 8-19〉 참조). 특히 전업농가 가운데서도 승계자가 있는 농가는 3.1%에 불과하여 장차 농업승계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에는 전업농가 가운데 농업 승계자가 있는 농가가 13.4%, 2000년에는 8.9%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 역시 크게 감소하였다. 농업승계자가 있는 농가의 경우 승계자가 동거하고 있는 비율은 67.9%였으며, 비동거 승계자가 있는 농가는 32.1%에 달하였다.

〈표 8-19〉 영농 승계자 확보 농가 추이

(단위: 가구, %)

구 분 \ 연 도	1990년	2000년	2005년
승계자 확보 농가수	289,529	150,453	45,163
전체 농가 중 승계자 확보농가 비율	16.4	10.8	3.5
동거 승계자수	217,585	97,117	30,679
동거 승계자 비율	75.2	64.5	67.9
전업농 중 승계자 확보 농가수	141,144	80,288	24,683
전업농 중 승계자 확보 농가 비율	13.4	8.9	3.1

이처럼 가족구성원의 승계에 의한 영농 승계자의 확보는 앞으로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농 승계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모집과정이 필요한데 특히 비농가의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모집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최근 농업의 전문화, 대규모화 그리고 지가의 상승에 따른 경지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어 영농기반이 전혀 없는 비농가 자녀의 영농취업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농지은행 등을 통한 장기저리 용자 등을 통해 농장을 조성하고 이를 분양하는 등 적극적인 모집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제 9 장 농업의 기계화 · 위탁실태

박민선

제 1 절 농가의 농기계 보유 실태와 그 변화

농가의 노동력 부족과 함께 농업의 기계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미작은 거의 모든 작업이 기계에 의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작의 기계화는 자가 보유 농기계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농기계를 가진 농가에 농작업을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우리나라 농업구조와 같은 영세소규모 농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소토지 분산적 농지구조를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는 농기계의 보급은 농기계 과잉투자를 유발하여 농가의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농작업의 수 · 위탁은 한편으로는 농가의 노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력부족을 보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는 자작지만으로는 농기계의 투자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없다는 수요와 공급의 요인이 작용하여 급격히 확산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농기계의 보급과 함께 농작업 수 · 위탁이 일반화되면서 기계를 보유하지 않은 노령농가를 비롯한 열악한 생산조건을 가진 농가가 농업에 잔존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영세소농적 농업구조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

농가 중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농가의 비율은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계인 경운기가 44.9%, 관리기가 72.6%이었다. 경운기와 관리기와 같은 다목적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은 농가비율이 매우 높은 것은 노령 영세농가의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콤팩트와 트랙터, 이앙기의 보유농가는 전체 농가 중 3.8%, 16.9%, 23.3%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농기계의 보급대수는 동일 기종의 농기계를 1대 이상 보유한 농가가 있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과 비교하면 전 기종에서 농기계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트랙터의 공급이 2000년 대비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콤팩트의 보급도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벼 수확작업의 일관기계화가 가능해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바인더와 정미기와 같은 농기계의 사용을 무의미하게 만들어서 2005년에는 총조사에서 바인더와 정미기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주목된다.

I. 자연환경

II. 농림어가의 인구와 가족

III.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

IV. 농업

V. 임업

VI. 어업



〈표 9-1〉 주요 농기계의 농가 보급률

(단위 : %)

연 도	경운기	트렉터	콤바인	바인더	관리기	건조기	이앙기
1990년	22.3	1.4	1.5	2.0	1.5	2.2	5.4
1995년	27.1	3.8	2.6	2.8	9.2	4.6	10.1
2000년	33.0	7.8	3.8	3.3	14.2	7.7	14.2
2005년	60.4	18.0	7.0	-	28.4	16.8	23.7
농기계 보유 농가비율(2005년)	55.1	16.9	3.8	-	27.4	15.1	23.3

제 2 절 농가의 농작업 위탁 실태와 그 변화

농작업의 위탁은 가족원이 직접 영농을 하지 않고 기계를 보유한 농가 및 법인에게 농작업을 도급 또는 위탁하여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한다. 2005년 농가의 농작업별 위탁 현황을 보면 벼베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84.7%의 농가가 위탁하였으며, 논갈이와 모내기가 65% 내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논농사의 농작업위탁은 1980년대에 이미 일반화되어 1990년에는 모내기 작업은 56.2%, 벼베기 작업은 60.4%가 위탁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2000년에는 논갈이 역시 59.8%를 차지하였으며 모내기는 59.6%, 벼베기는 81.5%에 이르는 등 농작업위탁은 점차 확대되어 왔다. 작업별로 위탁작업 농가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농작업의 일부 위탁의 비율은 약간 감소한 반면 전부 위탁하는 농가의 비중은 서서히 늘고 있음이 주목된다. 주요 농작업인 모내기의 경우 전부 위탁한 농가의 비중이 54.0%에 이르며 벼베기는 79.2%의 농가가 전작업을 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벼베기와 모내기의 자가영농 비율은 각각 15.2%와 37.4%에 머무르고 있는데 콤바인과 이앙기의 보유농가가 각각 3.8%와 23.3%인 것을 고려하면 타인의 농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농작업을 하는 농가는 10%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가영농의 비중이 컸던 농약살포의 경우에도 2005년에는 위탁작업이 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9-2〉 벼농사 작업의 자가영농 및 위탁영농 비율

(단위 : %)

벼농사 작업별 영농방식		연 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논 갈 이	자가영농	52.3	48.2	40.2	35.9	
	위탁영농	전 체	47.5	51.4	59.8	64.1
		전부 타인	39.4	42.4	54.7	57.0
		일부 타인	8.2	9.0	5.1	7.1
모 내 기	자가영농	43.6	40.1	40.4	37.4	
	위탁영농	전 체	56.2	59.5	59.6	67.6
		전부 타인	36.7	46.5	54.4	54.0
		일부 타인	19.5	13.1	5.2	8.2
농약살포	자가영농	64.9	70.7	70.1	66.9	
	위탁영농	전 체	35.0	28.9	29.9	33.1
		전부 타인	22.1	20.1	25.5	25.3
		일부 타인	12.9	8.9	4.5	7.1
벼 베 기	자가영농	39.4	25.1	18.5	15.2	
	위탁영농	전 체	60.4	74.5	81.5	84.7
		전부 타인	43.4	61.6	76.8	79.2
		일부 타인	16.0	13.9	5.7	5.5
탈 곡	자가영농	26.6	22.2	17.4	-	
	위탁영농	전 체	73.3	77.4	82.6	-
		전부 타인	61.1	64.8	77.9	-
		일부 타인	12.2	12.7	4.6	-

주 : 2005년 벼베기는 벼베기/탈곡 포함.

한편 전혀 위탁작업이 없는 농가는 13.3%에 불과하며 ‘이앙+수확’ 위탁농가는 5.5%, ‘경운+이앙+수확’ 위탁농가는 17.8%, ‘묘관+경운+이앙+수확’ 위탁농가는 6.2%에 이른다.



〈표 9-3〉 벼농사 작업의 위탁영농 비율 (2005년)

(단위 : 가구, %)

구 분	미작농가	미작농가 중 비율
전 작업 위탁농가(5개 작업)	158,357	20.0
1개 작업 위탁농가	135,295	14.6
2개 작업 위탁농가	131,576	14.2
이양 + 수확	51,657	5.5
3개 작업 위탁농가	194,047	20.9
경운 + 이양 + 수확	166,734	17.8
4개 작업 위탁농가	156,710	16.9
묘판 + 경운 + 이양 + 수확	57,409	6.2
위탁 작업 없음	123,309	13.3

주 : 전 작업 위탁은 묘판+경운+이양+농약살포+수확임.

제 10 장 농업생산의 조직화와 농산물 판매

박민선

제 1 절 농업생산의 조직화

농업생산의 조직화는 소규모 농가의 생산 및 판매의 조직화를 통한 비효율을 극복하고 시장 교섭력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다. 특히 수입개방 등으로 경쟁이 격화되고 대형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나타나면서 연중 생산을 요구하고 균질적인 표준화된 품질의 농산물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의 조직화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05년 농업생산자 조직에 참여하는 농가의 비율은 작목반 17.8%, 영농조합 3.5%, 농업회사 0.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농가의 조직화는 작목반 형태의 느슨한 조직화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작목반은 개별 농가의 경영을 독립적으로 유지한 채 농자재 구매나 농산물 판매의 협업화를 꾀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생산과정에 대한 보다 높은 조직화의 영향력을 가진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와 같은 회사형태의 조직화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2000년과 비교하면 작목

〈표 10-1〉 영농형태별 법인참여 농가비율

(단위 : %)

구 분	2000년		2005년	
	영농조합	농업회사	영농조합	농업회사
미 작	1.9	0.2	2.2	0.3
과 수	5.7	0.3	7.4	0.5
특용작물	3.8	0.2	5.7	0.7
채 소	3.7	0.2	3.9	0.4
화 획	7.4	0.7	7.6	0.6
일반밭작물	2.0	0.1	1.8	0.2
축 산	7.4	0.6	6.6	0.7
기 타	4.9	0.1	5.8	0.5
전 체	3.0	0.3	3.5	0.4

주 : 각 품목별 작목반에 가입한 농가를 영농형태별 농가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이는 화훼농가가 반드시 화훼작목반에 가입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 가입 농가는 상대적으로는 거의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절대 농가 수에서는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영농조합 법인과 농업회사 법인 가입농가는 절대적 그리고 상대적으로 늘고 있다. 영농조합 법인 가입농가의 수는 2000년 41,532농가에서 44,302농가로 늘어났으며 농업회사 법인 가입농가의 수는 3,471농가에서 4,898 농가로 늘어났다.

농가의 영농형태별로 작목반의 가입농가는 화훼(46.1%), 과수(45.2%), 특용작물(42.4%), 채소(29.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반밭작물 농가와 미작 농가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영농조합법인 가입 농가는 화훼(7.6%), 축산(6.6%), 특용작물(5.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농업회사 가입비율은 특용작물, 축산, 화훼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특용작물과 축산의 경우 회사법인의 가입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과수와 화훼는 영농조합 법인 가입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농가 영농의 조직화를 2000년과 비교하면 특용작물과 축산의 작목반 가입 비중이 늘어났지만 화훼, 과수의 작목반 가입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2000년도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축산, 화훼, 과수의 순으로 높은 가입비율을 보였으며 농업회사 법인은 화훼, 축산의 순이었다.

제 2 절 농가의 농산물 판매실태와 그 변화

그동안 농가의 분화는 주로 경작규모를 기준으로 연구되어 왔는데 2000년부터 총조사에서 농가의 판매현황이 조사되어 있어 농가의 분화현상을 파악하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농가의 경작규모는 작목별로 집약도의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여 토지이용형 농업에 대한 분석에는 적합하지만 축산이나 화훼, 시설채소와 같은 비교적 토지이용으로부터 자유로운 농업을 분석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농가의 농산물 판매에 대한 분석은 농업구조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농가의 판매실태와 그에 따른 농가의 분화현상을 파악해보기로 한다.

농가의 농산물 판매액을 판매규모별로 보면 2000~2005년간 500만원 미만의 소액 판매농가의 비중이 늘어난 반면 3,000만원 이상 판매농가의 비중도 함께 증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판매액 500~3,000만원 판매액 계층의 비율은 축소되었다. 이미 위에서 농가의 경지규모별 양극분화의 경향

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판매규모별로도 농가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05년 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농가 중 500만원 이하 판매농가의 비율이 전체 농가의 51.7%로 2000년 48.1%에 비해 더욱 비중이 높아져서 자급적 혹은 반자급적 영세 소농의 비중이 더욱 많아졌음을 확인하였다.

〈표 10-2〉 농가판매 규모별 농가 분포

(단위 : 천가구, %)

구분	판매 없음	100만원 미만	100 ~ 500만원	500 ~ 1,000만원	1,000 ~ 3,000만원	3,000 ~ 5,000만원	5,000만원 ~ 1억	1억 ~ 2억	2억 이상	계
2000년	91	214	362	291	335	60	23	6	2	1,384
	6.5	15.5	26.1	21.0	24.2	4.3	1.6	0.4	0.1	100.0
2005년	120	181	356	211	273	73	41	11	5	1,271
	9.5	14.2	28.0	16.6	21.4	5.8	3.2	0.8	0.4	100.0
2000년~2005년 증감률(%)	5.8	-3.3	-0.3	-6.2	-4.0	4.2	12.2	14.1	23.2	-1.7

판매액 기준별 계층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판매가 전혀 없는 농가의 경우에는 그 절대수와 상대적 비중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 2005년 판매 없는 농가수는 12만 농가에 이르는데 이는 전체 농가 중 9.5%에 해당한다. 반면 2000년에는 판매 없는 농가가 9만 농가로서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5년간 판매 없는 농가가 연평균 5.8%씩 증가한 것이다. 지난 5년간 많은 농가가 경영을 축소하거나 조방화 함으로써 자급농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판매액만을 기준으로 보면 현행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농업인의 직업범주로 포함시키기 어려운 100만원 미만 농가도 2005년 301,500농가로 전체 농가 중 23.7%를 차지해서 2000년의 22.0%에 비해 증가하였다.

한편 100~500만원 미만 판매 농가의 경우 농가 수는 감소하였지만 상대비율에 있어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500~3,000만원에 이르는 중규모 농가는 절대적으로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상대적 비중도 감소하였다. 그러나 3,000만원 이상 판매 농가는 절대 수에 있어서나 상대



적인 비중 역시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판매규모가 클수록 증가비율도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지규모별 농가분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양극분화의 양상을 판매규모별 농가분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양극분화의 분기점을 이루는 계층은 500~3,000만원 판매계층으로 이들이 분화의 분기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역시 경작규모에 따른 농가분화 현상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농가의 계층적 분화 현상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1~2억 판매농가수가 크게 늘어나서 2000년부터 5년간 연평균 12.9%씩 증가하였으며, 2억 이상 판매농가 역시 크게 증가하여 5년간 연평균 23.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0-3〉 취약농가의 농산물 판매액 비중 (2005년)

(단위 : %)

구분	전체 농가 중 비율	판매 없는 농가 중 비율	연간 50만원 미만 판매농가 중 비중	연간 50~100만원 판매농가 중 비중
65세 이상 경영주	43.2	44.4	57.7	55.9
제2종 겸업농	24.5	53.9	37.8	35.4
여성경영주 농가	17.0	24.4	35.6	31.8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판매농가의 농가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65세 이상 경영주 농가, 여성경영주 농가 그리고 제2종 겸업농가 중에서 판매규모가 100만원 미만인 농가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경영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농가가 판매 없는 농가 중 44.4%에 이르며, 여성경영주는 24.3%, 제2종 겸업농가는 53.9%에 이른다. 한편 농가의 특성별로 보면 여성경영주의 41.5%가 100만원 미만 판매농가이며 제2종 겸업농가의 42.0%가 100만원 미만 판매농가이다. 그러나 65세 이상 농가의 판매액을 보면 100만원 미만 판매농가가 28.4%에 불과하여 적어도 농촌에서는 65세 이상 노령층에서도 활발하게 상업적 농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65세 이후에는 서서히 상업적 비중을 줄여 8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현저히 자급화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65세 이상 노인층의 연령별 100만원 미만 판매농가의 비율은 고령일수록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연간 1억 이상 판매농가는 2000년 0.6%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1.29%로 늘어났다. 연령별로 보면 연간 1~2억 판매농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층은 40-59세의 장년층이 77.1%이

있으며 2억 이상 판매 농가 역시 이들 연령층의 비중은 77.3%에 달한다. 품목별로 보면 연간 1~2억 판매농가 가운데 축산농가의 비중은 61.1%이었으며 논벼가 15.3%이었으며, 2억 이상 판매농가는 축산 79.0%, 논벼가 5.8%, 채소가 5.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0-4〉 65세 이상 고령층의 농산물 판매 실태 (2005년)

(단위 : %)

구분	경영주연령 65~69세 농가	경영주연령 70~74세 농가	경영주연령 75~79세 농가	경영주연령 80세 이상 농가
100만원 미만 판매농가 비중	22.3	28.5	37.4	46.7

〈표 10-5〉 1억이상 고액판매농가의 연령별 분포

(단위 : 가구, %)

경영주연령 \ 판매액	1억 ~ 2억	2억 이상	계
29세 이하	49 (0.4)	31(0.6)	80(0.5)
30 ~ 39세	777(6.9)	442(8.5)	1,219(7.4)
40 ~ 49세	4,400(39.1)	2,134(41.1)	6,534(39.7)
50 ~ 59세	4,272(38.0)	1,879(36.2)	6,151(37.4)
60 ~ 69세	1,453(12.9)	572(11.1)	2,025(12.3)
70세 이상	298 (2.7)	130(2.5)	428(2.6)
계	11,249(100.0)	5,194(100.0)	16,443(100.0)

품목별로 농가의 판매액을 보면 일반 발작물의 경우 53.2%가 100만원 미만의 판매액을 보였으며, 논벼와 채소 역시 각각 23.3%, 24.3%가 100만원 미만의 판매액으로 영세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 5,000만원 이상 판매농가의 비중은 화훼와 축산이 각각 25.6%, 21.0%를 보이고 있어 전체 품목에서 경영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8-5〉 참조).

100만원 미만의 소액 판매농가는 대부분 개인소비자와의 직거래, 정부, 농협, 재래시장과 거래를 하는데 반해, 1억 이상 대량 판매농가에서는 가공업체의 비중이 가장 크고 수집상, 농협 등의 중간 유통업체를 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간 규모의 판매농가는 농협에 판매하는 농가가 가장 많았다. 이처럼 농가의 판매금액별로 판매경로는 차별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앞으로 점차 이러한 차별적 경로를 통한 판매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특히 2억 이상 판매농가의 경우 가공업체를 비롯한 대량 수요처와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제 11 장 세계속의 한국농업

김태훈

WTO 체제 출범 이후 농산물 무역자유화는 크게 진전되었으며, 세계 각국은 협정된 틀 내에서 자국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농업 구조조정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정책 프로그램과 농산물 무역 자유화는 각국 농업의 모습을 보다 다양하고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1990년대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농업분야에 있어 여러 국가들과 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개방에 따라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분야에 많은 투자와 구조조정 정책을 시행해 왔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의 농업구조 변화속에서 현재 한국의 농업이 세계 농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어느 정도인지, 세계 농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주요 지표들과 품목을 중심으로 세계속의 한국농업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고, 과거 10년간 한국농업과 세계농업의 변화를 비교하는 것은 한국농업의 농업구조변화와 방향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한 해외 농업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국가별로 농산물의 특성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질의 농산물로 가정한 직접적인 비교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해외 각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기초로 하였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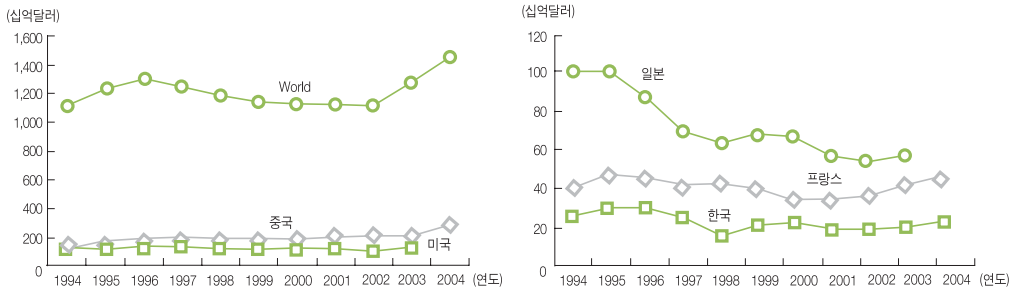
제 1 절 농업거시지표

한국의 농림어업 GDP¹⁵⁾는 2004년 현재 223억달러로 총 GDP에서 3.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농림어업 GDP 규모는 세계 13위(2003년 기준)수준이다. 전세계 농림어업 부문 GDP는 정치기조에서 벗어나 2003년과 2004년 연속해서 10% 이상 상승하였다. 특히, 중국은 지난 10년간(1994~2004)

15) 세계은행에서는 해당 국가의 GDP 자료를 크게 농림어업 및 수렵,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부분별로 제공되는 GDP액은 순생산물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 부문을 합친 GDP가 총 GDP 보다는 다소 적게 평가된다.

무려 130%의 GDP 증가를 보여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웃한 일본은 1994년에 1천억달러를 기록한 농림어업 GDP가 2004년에는 그 절반수준인 559억달러까지 감소하였다.

총 GDP에서 농림어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보면, 중국은 1994년 19.7%에서 2004년 13.1%로 감소하였으며, 한국은 동기간동안 6.7%에서 3.7%로, 일본은 2.1%에서 1.3%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주: 세계 농림어업 GDP는 WB에서 제공하는 172개국의 GDP를 합친 수치임
 자료: World Bank(WB),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6".

〈그림 11-1〉 농림어업 GDP 변화

다음으로 농업보조금¹⁶⁾ 지분을 살펴보면, OECD 가입국 전체의 2005년 농업보조금은 13백억달러로 전체 농업생산액의 15.5% 수준이다. 한국의 2005년 농업보조금은 18억달러로 전체 농업생산액 대비 5.0% 수준이다. 이는 일본(5.4%), 호주(5.0%), 터키(5.9%) 등과 유사한 수준이며 EU(22.3%)와 미국(14.6%)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EU에 속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의 보조금 비율은 40%이상으로 가입국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조금 중 고정직불금¹⁷⁾은 OECD 24.5%, EU 28.1%, 미국 15.4%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은 이보다 조금 높은 33.9%로 나타났다.

16) 농업보조금이란 전체 Producer Support Estimate(PSE)에서 MPS(Market Price Support)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의미한다.

17) 고정직불금은 OECD의 PSE 항목중 historical entitlement 목적으로 지불된 금액을 의미한다. 즉 과거의 재배면적이나 단수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으로 예를 들어 미국의 PFC(Production Flexibility Contract) 지불금이나 Direct Payments와 같은 것이 이에 해당된다.



〈표 11-1〉 농업생산액대비 농업보조금 비율

(단위 : 백만달러, %)

국 가 명	2005년				
	총 농업생산액 (A)	농업보조금 (B)	B/A (%)	고정직불금 (C)	C/B (%)
O E C D	836,811	129,992	15.5	31,890	24.5
E U	337,782	75,345	22.3	21,165	28.1
미 국	231,955	33,948	14.6	5,239	15.4
일 본	80,452	4,314	5.4	211	4.9
캐 나 다	26,015	3,302	12.7	148	4.5
멕시코	35,415	3,149	8.9	1,307	41.5
스 위 스	5,574	2,672	47.9	1,104	41.3
터 키	46,486	2,761	5.9	1,798	65.1
노 르 웨 이	2,844	1,643	57.8	262	15.9
호 주	28,988	1,450	5.0	195	13.4
한 국	35,238	1,768	5.0	599	33.9
아 이 슬 란 드	231	115	49.6	34	29.9
뉴 질 란 드	10,004	69	0.7	0	0.0

주 : 농업보조금이란 전체 Producer Support Estimate(PSE)에서 MPS(Market Price Support)를 뺀 나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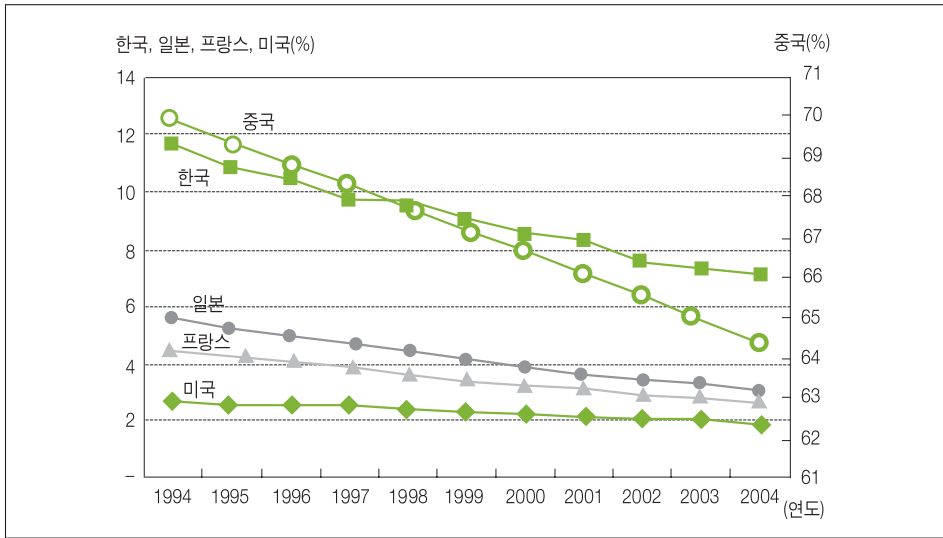
금액을, 고정직불금은 PSE 중 historical entitlement 목적으로 지불된 금액을 의미함

자료 : OECD, Database "Producer and Consumer Support Estimate"

전 세계 농가인구¹⁸⁾는 2004년 기준으로 25억74백만명으로 전 세계인구의 40.7%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농가인구 비율은 64.3%이며, 한국의 농가인구는 2004년 현재 341만5천명이며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1%이다.

과거 10년간 농가인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1994년 대비 2004년의 농가인구가 절반에 가까운 43.6%가 줄어들었으며 한국과 프랑스도 각각 39.9%와 36.5% 감소하였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농가인구는 동기간 3.5% 증가하였다.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의 경우 1994년에 11.6%에서 2004년에 7.1%로 선진국인 미국, 프랑스, 일본 등에 비해 매우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18)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 정의하는 농가인구는 생계를 농림어업과 수렵에 의존하고 있는 모든 개인으로 정의하며, 해당부문의 경제활동인구외에도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자료 : FAO, FAOSTAT(<http://faostat.fao.org>) 2007년 1월 기준;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자체 계산

〈그림11-2〉 주요 5개국의 전체인구 대비 농가인구 비율 변화

전 세계의 경지면적은 꾸준히 증가하여 전 세계 면적의 11.6%에 해당하는 15억44백만 ha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은 2003년에 1억79백만ha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경지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며 다음으로 인도가 1억69백만ha의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국토면적의 18.6%가 경지면적이며, 인도는 경지면적이 국토면적의 51.5%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지면적은 2003년에 국토면적의 18.5%인 185만ha이며, 이는 10년 전인 1993년에 비해 10.2%가 줄어들었다. 중국의 경지면적은 꾸준히 증가(1993년 대비 15.7%)하여 2003년에는 전체 국토면적의 15.9%에 해당하는 1억53백만ha를 기록하였다.

농가인구 감소로 한국의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1993년 0.38ha에서 2003년 0.52ha로 늘어났으며 이는 전 세계의 1인당 경지면적¹⁹⁾ 평균인 0.6ha에 거의 근접하는 수치이다. 미국(30.2ha), 캐나다(71.6ha), 호주(55.4ha) 등 인구대비 국토면적이 넓은 국가들에 비해 중국(0.18ha)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0.4ha), 태국(0.6ha), 인도(0.3ha) 등 논농사위주의 집약적 농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국가들의 1인당 경지면적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19) 1인당 경지면적은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을 의미함.



〈표 11-2〉 주요국 국토면적 및 경지면적

(단위: 천ha, ha, %)

국가명	2003년		
	국토면적(천ha)	경지면적(천ha)	1인당 경지면적(ha)
W o r l d	13,341,590	1,544,338 (11.6%)	0.6
미 국	963,203	179,402 (18.6%)	30.2
인 도	328,726	169,430 (51.5%)	0.3
중 국	959,806	152,556 (15.9%)	0.2
러 시 아	1,709,824	124,373 (7.3%)	9.0
브 라 질	851,488	66,600 (7.8%)	2.5
캐 나 다	998,467	52,115 (5.2%)	71.6
호 주	774,122	47,575 (6.1%)	55.4
인 도 네 시 아	190,457	36,400 (19.1%)	0.4
나 이 지 리 아	92,377	33,400 (36.2%)	0.9
우 크 라 이 나	60,355	33,387 (55.3%)	4.8
아 르 헨 티 나	278,040	28,900 (10.4%)	8.0
멕 시 코	195,820	27,300 (13.9%)	1.2
터 키	78,356	26,027 (33.2%)	1.3
카 자 흐 스 탄	272,490	22,686 (8.3%)	8.0
파 키 스 탄	79,610	22,230 (27.9%)	0.3
프 랑 스	55,150	19,573 (35.5%)	11.3
이 란	164,820	19,012 (11.5%)	1.1
스 페 인	50,537	18,568 (36.7%)	7.2
태 국	51,312	17,687 (34.5%)	0.6
수 단	250,581	17,420 (7.0%)	0.9
한 국	9,960	1,846 (18.5%)	0.5

주 : 1인당 경지면적은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을 의미함

자료 : FAO, FAOSTAT(<http://faostat.fao.org>) 2007년 1월 기준;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제 2 절 생산지표

2005년 현재 세계 곡물 재배면적은 6억86백만ha로 22억57백만톤이 생산되고 있다. 세계최대 곡물 생산국은 중국으로 전세계 곡물생산량의 19%인 4억30백만톤을 생산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이 3억66백만톤을 생산하여 세계곡물 생산의 16.2%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3위의 곡물 생산국인 인도는 세계곡물 생산의 10.5%를 점하고 있으나 곡물 재배면적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국가이다. 이들 상

위 3개국이 세계곡물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7%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곡물생산은 약 7백 만톤으로 세계 생산량의 0.3% 수준으로 미미하다.

〈표 11-3〉 세계 곡물 생산량과 재배면적

(단위: 천톤, %, 천ha)

국가명	2005년	
	생산량	재배면적
W o r l d	2,257,166 (100.0%)	686,292
중 국	429,571 (19.0%)	82,750
미 국	366,516 (16.2%)	56,807
인 도	235,913 (10.5%)	99,455
러 시 아	76,564 (3.4%)	41,160
인 도 네 시 아	65,998 (2.9%)	15,305
프 랑 스	64,224 (2.8%)	9,171
브 라 질	55,724 (2.5%)	19,088
캐 나 다	53,086 (2.4%)	16,602
독 일	45,980 (2.0%)	6,839
방 글 라 데 시	42,710 (1.9%)	11,782
호 트 남	39,862 (1.8%)	19,517
베 트 남	39,549 (1.8%)	8,371
아 르헨티나	38,554 (1.7%)	9,082
우 크 라 이 나	37,258 (1.7%)	14,204
터 키	34,570 (1.5%)	14,095
파 키 스탄	33,508 (1.5%)	12,810
태 국	31,091 (1.4%)	11,513
멕시코	27,733 (1.2%)	9,281
폴 란 드	26,928 (1.2%)	8,329
나 이 지 리 아	26,031 (1.2%)	18,310
한 국	6,715 (0.3%)	1,041

주: 조곡 기준

자료: FAO, FAOSTAT(<http://faostat.fao.org>) 2007년 1월 기준;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곡물 중 쌀 생산을 보면, 2005년 조곡기준으로 쌀은 전 세계에서 총 6억22백만톤이 생산되었으며, 90% 이상이 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 중 중국의 생산량이 1억82백만톤으로 29.3%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인도(21.0%), 인도네시아(8.7%) 순이다. 한국은 2005년에 6백만톤을, 일본은 11백만톤을 생산하였다. 10년 전과 비교하여 쌀 생산량은 전 세계적으로 13.5%가 늘어났다. 특히, 우리의



쌀 수입대상국인 미국과 태국은 각각 28.4%와 22.6%의 증가를 보였다.

양념채소류 중 고추생산은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약 50%를 점하고 있다. 1995년 15백만톤이던 세계 고추 생산량은 2005년 25백만톤까지 늘어 64.3%가 증가하였다. 특히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은 이 기간동안 2배 이상 생산량 증가를 보였다. 한국은 2005년 39만5천톤을 생산하여 세계 생산량의 1.6%를 점유하고 있다. 일본의 고추 생산량은 우리의 40%수준인 15만톤 정도이며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세계 마늘생산량은 2005년 현재 15백만톤이며, 이 중 76%에 해당하는 11백만톤이 중국에서 생산되었다. 한국은 중국, 인도(50만톤) 다음으로 많은 38만톤을 생산하여 전체 생산량의 2.6%를 점유하고 있다. 중국, 인도, 한국을 제외하고는 러시아(1.8%), 미국(1.4%), 이집트(1.1%) 등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마늘 생산량이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한국은 1999년 48만톤을 기점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과실류 중 사과 생산을 보면, 2005년 현재 세계 사과 생산량은 62백만톤이며, 이 중 중국이 38.5%에 해당하는 24백만톤을 생산하였다. 지난 10년동안 중국의 생산량은 71.3% 증가하였으며, 세계 생산량 역시 24.0%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 최대 사과생산국은 미국으로 2005년에 4백만톤을 생산하였으며, 한국의 사과 생산은 2005년에 37만톤으로 세계 생산량의 0.6% 수준이다. 배 생산을 보면, 중국이 2005년 세계 배 생산량의 59.9%인 11백만톤을 생산하고 있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이탈리아(4.8%), 미국(3.9%), 스페인(3.4%) 등에서 주로 배가 생산되고 있다. 2005년 한국은 44만톤의 배를 생산하여 세계 생산량의 2.3%를 점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인 40만톤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주도하에 세계 배 생산량은 54.3%가 증가하였다.

세계 육류 생산을 보면, 2005년에 266백만톤이 생산되었으며, 이 중 돼지고기가 103백만톤, 닭고기가 72백만톤, 그리고 쇠고기가 60백만톤 등이 생산되었다. 세계 최대 육류 생산국은 중국으로 2005년에 79백만톤을 생산하여 전체 생산량의 29.6%를 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미국이 세계 육류 생산량의 14.8%인 39백만톤을 생산하였다. 한국은 약 2백만톤을 생산하여 전체 생산량의 0.7%수준을 점하고 있다.

축종별로 보면, 쇠고기의 경우 미국이 2005년에 지육기준으로 11백만톤을 생산하여 세계 생산량의 18.8%를 점유하였다. 브라질과 중국이 다음으로 많은 777만톤(12.9%)과 679만톤(11.3%)톤을 각각 생산하였다. 한국의 쇠고기 생산량은 1998년 44만톤을 기점으로 꾸준히 하락해오다 최근 몇 년

동안 25만톤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일본의 생산량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2005년에는 1994년 대비 16.9%가 줄어든 50만톤을 생산하였다. 세계 쇠고기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특히 주요 생산국들 중 중국의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돼지고기는 중국이 최대 생산국이며 전체 생산량의 50%를 생산하고 있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미국(9.1%), 독일(4.4%) 등이 주요 돼지고기 생산국이다. 한국은 2005년 96만톤을 생산하여 세계 생산량의 1.1%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한국과 비슷한 125만톤 수준에서 생산량이 유지되고 있다.

〈표 11-4〉 세계 육류 생산

(단위: 천톤, %)

국가명	2005년					
	육류	총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기 타
W o r l d	265,901	(100.0%)	60,129	102,770	71,851	31,150
중 국	78,707	(29.6%)	6,790	51,201	10,197	10,520
미 국	39,461	(14.8%)	11,317	9,392	15,869	2,883
브 라 질	19,919	(7.5%)	7,774	3,110	8,668	367
독 일	6,874	(2.6%)	1,167	4,500	605	602
인 도	6,157	(2.3%)	1,494	497	1,900	2,266
프 랑 스	5,979	(2.2%)	1,529	2,257	1,122	1,071
멕 시 코	5,312	(2.0%)	1,557	1,103	2,437	216
스 페 인	5,210	(2.0%)	714	3,101	1,048	348
러 시 아	4,873	(1.8%)	1,793	1,520	1,346	214
캐 나 다	4,636	(1.7%)	1,523	1,914	1,000	199
아 르헨티나	4,131	(1.6%)	2,980	150	785	216
호 주	3,982	(1.5%)	2,162	388	760	672
이 탈 리 아	3,952	(1.5%)	1,102	1,515	695	640
영 국	3,389	(1.3%)	762	706	1,331	590
폴 란 드	3,318	(1.2%)	310	1,956	980	73
일 본	3,090	(1.2%)	499	1,245	1,339	7
베 트 남	2,923	(1.1%)	153	2,288	322	159
네 델 란 드	2,764	(1.0%)	395	1,306	992	71
인 도 네 시 아	2,633	(1.0%)	464	578	1,400	191
덴 마 크	2,148	(0.8%)	150	1,800	187	11
한 국	1,721	(0.7%)	247	957	463	54

주 : 1) 원산지에 관계없이 국가영토 내에서 도축된 동물에 관한 것으로 상업적 도축과 농가 도축을 모두 포함
 2) 지육 기준

자료 : FAO, FAOSTAT(<http://faostat.fao.org>) 2007년 1월 기준;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중국의 증가세에 힘입어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은 1995년 대비 28.3%가 증가하였다. 반면, 한국과 일본의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다.

세계 닭고기 생산량은 2005년 지육기준으로 72백만톤을 기록하였으며, 미국(22.1%), 중국(14.2%), 브라질(12.1%)의 생산량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닭고기 생산량은 2005년 46만톤이며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으며 우리의 3배가량인 130만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쇠고기, 돼지고기에 비해 닭고기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높은 증가율(50.0%)을 기록하였다. 이 기간 동안 주요 생산국인 미국(38.2%), 중국(67.2%), 브라질(114.0%) 모두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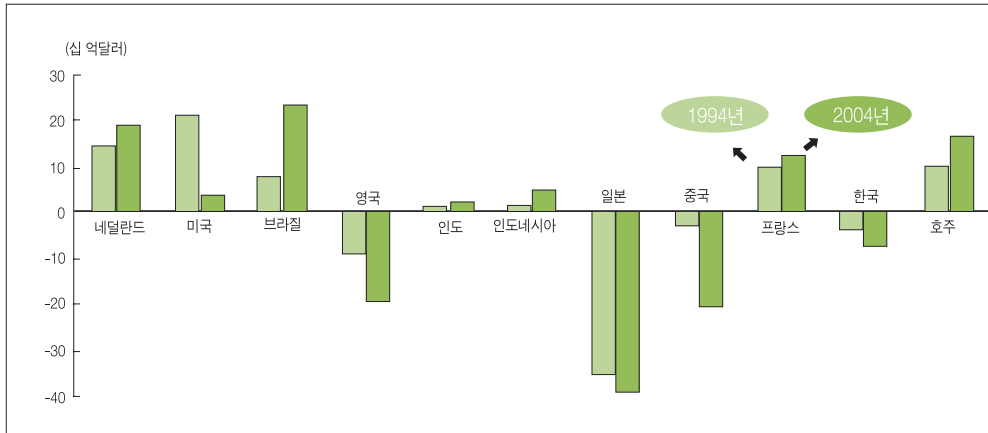
제 3 절 수출입 지표

2004년 기준으로 세계 농축산물 수출액은 6,043억달러이며, 이 중 미국이 10.6%에 해당하는 638억달러 상당의 농축산물을 수출하였다. 다음으로 네덜란드(7.9%), 프랑스(7.7%), 독일(6.5%) 순이다. 한국의 2004년 수출액은 1994년에 비해 75.6%가 증가한 19억84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이 중대 일본 수출액이 7억2백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4.5%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미국에 2억78백만달러, 중국과 러시아에 각각 1억76백만달러와 1억74백만달러를 수출하였다. 정체 기조를 보이던 세계 농축산물 수출액은 2003년, 2004년 두 해 동안 36.7% 증가하였다.

세계 농축산물 수입액은 2004년 기준으로 6,345억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수출액과 마찬가지로 미국(9.4%)이 가장 많은 농산물을 수입하였다. 다음으로 독일(8.0%), 중국(6.6%), 일본(6.5%) 순이다. 한국은 IMF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에 54억달러까지 수입액이 줄어들었으나 그 후 꾸준히 상승하여 2005년에는 93억달러까지 늘어났다. 주요 수입 대상국은 미국(27.8%), 중국(12.8%), 호주(12.2%), 브라질(7.1%) 순이다. 세계 농축산물 수입액은 2003년과 2004년 두 해에 걸쳐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94년 대비 56.9%가 늘어났다.

농축산물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브라질은 2004년 농축산물 부문에서 세계 최대인 236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네덜란드가 191억달러, 호주 164억달러, 아르헨티나 150억달러 순이다. 한국은 2004년 73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적자폭이 세계에서 6번째를 기록하였다. 한편, 일본이 396억달러로 적자폭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중국 209억달러, 영국 202억달러 순이다. 세계 최대의

농축산물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미국은 1994년 21억달러에서 2004년에는 4억달러로 1/5 수준으로 흑자폭이 줄어들었다.



자료 : FAO, FAO 농업통계연감, 2006; 농수산물유통공사, KATI(www.kati.net) 2007년 1월 기준

〈그림 11-3〉 농축산물 무역수지 (1994년, 2004년)

품목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일부 품목에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제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수출액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고추, 배, 돼지고기 등이다. 한국의 고추 수출은 1994년 236만달러에 불과하였지만 아프리카의 대 일본 수출 증가에 힘입어 2004년에 54억만달러까지 증가하였다. 국내 고추 수출의 96.5%를 아프리카가 차지하고 있다. 2004년 세계 고추 수출액은 33억86백만달러이며, 네덜란드(23.9%), 스페인(21.7%), 멕시코(17.4%) 등 세 나라의 수출액이 전체의 63.0%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고추 수출액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3년과 2004년 두해에 걸쳐 58.2%가 증가하였다.

배의 경우, 1994년 7백만달러에 머무르던 한국의 배 수출은 1999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여 2004년 현재 35억만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10위의 배 수출국으로 도약하였다. 한편, 주요 수출대상국은 수출액기준으로 59.2%를 대만으로, 23.1%는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2004년 세계 배 수출액은 13억36백만달러이며, 주요 수출국은 벨기에(16.4%), 네덜란드(16.0%), 아르헨티나(11.5%)이다. 세계 배 수출액은 1994년 대비 58.5%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1994년 네덜란드, 이탈리아에 이어



3위에 머물렀던 벨기에는 2003년, 2004년 2년 동안 67.2%의 수출액 증가를 기록하며 세계 1위의 배 수출국으로 도약하였다.

한국의 돼지고기 수출은 2000년 구제역 발생 이후 일본 수출이 막히면서 한국의 2004년 돼지고기 수출은 1999년 대비 8% 수준인 27억만달러까지 떨어졌다. 세계 돼지고기 수출은 2003년, 2004년 급증하여 두해 동안에만 51.3% 증가한 159억60억만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미국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1994년 4억78억만달러에 머무르던 수출액이 2004년에는 250%가 증가한 16억75억만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수출국은 덴마크로 2004년 30억99억만달러를 수출하여 세계 수출액의 19.4%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의 농축산물 수입은 거의 모든 품목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밀, 옥수수, 콩과 같은 곡물 수입이 많다. 밀은 대두, 옥수수와 함께 국가간 물동량이 가장 큰 품목으로 2004년 한 해에만 11억59억만톤으로 214억달러 상당의 수입이 이루어졌다. 2004년 중국의 밀 수입액은 18억75억만달러로 세계 최대 수입국이며, 다음으로 일본, 이탈리아 순이다. 한국은 세계 9위 수입국으로 2004년 6억52억만달러를 수입하였으며, 주요 수입 대상국은 미국(40.7%), 호주(38.2%)이다. 1990년대 후반 160억달러까지 떨어졌던 세계 밀 수입액은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에는 1990년대 중반 210억달러 수준을 회복하였다.

옥수수의 경우, 2004년 수입액 기준으로 일본(20.1%), 한국(9.8%), 중국(5.7%) 순으로 세계 1, 2, 3위 수입국이다. 한국의 2004년 옥수수 수입액은 14억38억만달러이며, 이 중 절반이상(54.4%)을 미국으로 부터 수입하였다. 1990년대 후반 한때 100억달러 밑으로 떨어졌던 세계 옥수수 수입액은 그 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에는 1994년 대비 46.7%가 늘어난 146억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 이후 수입액이 급감하였으나 최근 들어 거의 1990년대 중반 수준을 회복하였다.

중국의 대두 수입액은 1994년 6억75억만달러에서 2004년 76억95억만달러까지 늘어 세계 수입액의 39.2%를 차지하였다. 중국 다음으로 일본(9.0%), 네덜란드(7.7%), 독일(5.8%) 등이 주요 대두 수입국이다. 한국은 세계 8위 대두 수입국으로 2004년 수입액은 1994년 대비 38.6%가 늘어난 4억87억만달러이다. 이 중 76.8%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였으며, 브라질(18.8%), 중국(4.2%) 등으로부터도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 한국의 쇠고기 수입액은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병으로 수입이 급감하여 2003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한 6억달러에 머물렀다. 2003년 9억달러까지 늘었던 미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은 2004년에는 1억달러까지 감소하였으며, 미국을 대신하여 호주(59.2%)와 뉴질랜드(17.2%)로부터의

〈표 11-5〉 세계 옥수수 수입

(단위 : 천달러, %, 톤, 달러/톤)

국가명	2004년		
	수입액(구성비)	수입량	단가
W o r l d	14,589,722 (100.0%)	83,151,585	175
일 본	2,931,852 (20.1%)	16,479,436	178
한 국	1,437,531 (9.8%)	8,386,568	171
중 국	832,797 (5.7%)	4,942,472	168
멕시코	745,120 (5.1%)	5,518,690	135
스페인	528,337 (3.6%)	2,750,923	192
네덜란드	460,599 (3.2%)	2,204,731	209
독일	371,396 (2.5%)	1,380,294	269
이집트	364,819 (2.5%)	2,429,278	150
이탈리아	340,243 (2.3%)	1,517,050	224
이란	335,092 (2.3%)	1,763,991	190

자료 : FAO, FAOSTAT(www.faostat.fao.org) 2007년 1월 기준; 농수산물유통공사, KATI(www.kati.net) 2007년 1월 기준

쇠고기 수입이 급증하였다. 2004년 세계 쇠고기 수입액은 195억달러이며, 주요 수입국은 미국(19.4%), 이탈리아(9.9%), 일본(9.7%) 순이다. 세계 쇠고기 수입은 2002년 이후부터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11-6〉 한국의 쇠고기 주요 수입국(2003년, 2004년)

(단위 : 천달러, %, 톤)

2003년			2004년		
국가명	수입액	수입량	국가명	수입액	수입량
미 국	886,777.9 (75.3%)	248,653.7	호 주	355,378.4 (59.2%)	99,070.6
호 주	197,437.7 (16.8%)	78,017.9	뉴 질 랜드	138,690.7 (23.1%)	47,735.6
뉴 질 랜드	71,718.3 (6.1%)	28,961.9	미 국	103,232.9 (17.2%)	27,789.6
캐 나 다	20,627.2 (1.8%)	8,066.3	멕시코	2,207.4 (0.4%)	852.3
오스트리아	128.2 (0.0%)	35.2	캐 나 다	362.0 (0.1%)	348.2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KATI(www.kati.net) 2007년 1월 기준



한국의 돼지고기 수입액은 2004년에 3억52백만달러로 1994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특히 광우병 발생으로 쇠고기 수입이 격감했던 2004년 한해에만 65.8%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한국의 주요 수입 대상국은 칠레(15.5%), 벨기에(14.7%), 미국(12.3%) 등이며, 특히 한·칠레 FTA가 타결된 2002년 이후 칠레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2004년 세계 돼지고기 수입 중 28.2%(수입액 기준)를 일본이 수입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이탈리아(10.8%)와 독일(10.7%) 순이다.

닭고기의 경우, 2004년 세계 닭고기 수입액은 83억달러이며, 영국(14.3%), 일본(8.4%), 중국(7.7%) 등이 주요 수입국이다. 한국의 닭고기 수입은 수입액의 80% 가량을 차지하던 미국과 태국에서의 조류 독감 발생으로 2004년에 55백만달러로 크게 감소하였다. 2004년 덴마크로부터 29백만달러 상당의 닭고기가 수입되어 전체 수입액의 52.6%를 차지하였다. 세계 닭고기 수입액은 전반적으로 꾸준히 상승하여 2004년에는 1994년 대비 47.2% 증가하였다. 한편, 최대 수입국이던 일본과 중국의 수입액은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영국의 수입액은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V. 임업



제 12 장 임업구조의 개념

제 13 장 임업경영

제 14 장 임산물 생산 및 판매

제 15 장 임가 및 산촌사회

제 16 장 세계속의 한국 임업



제 12 장 임업구조의 개념

김세빈

제 1 절 임업구조의 개념

임업은 산림의 육성 및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적 활동이다. 광의로는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육성한 임산물을 생산·수확하는 육성임업과, 천연적으로 생육한 임산물을 채취·수확하는 채취임업이 다 같이 존재한다. 또한 국토보전, 수원함양, 자연환경보전, 보건휴양 증진 등 사회적·환경적으로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동시에 얻게 된다.

협의로는 임업이 다른 농업이나 타 산업분야와 달리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행위로서 생산기간이 매우 길고, 투자가 장기간 소요되어 자본의 회전이 매우 느리다. 또한 소규모 영세임가 구조로 인해 목재, 버섯, 수실, 산채, 약초 등 산림투자의 주된 대상이 되는 임산물의 생산성이 낮은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 대외개방이라는 커다란 변혁기를 맞이하였으며, 특히 UR협상의 타결과 WTO의 출범을 배경으로 임업의 경쟁력 제고와 산촌의 생활환경개선 및 임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1992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임업구조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왔다.

전국 산림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경영구조 등 임업구조를 개선하여 산림소유자의 자율 경영능력과 소득을 증진시킴으로써 사유림경영의 활성화와 임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7년 “임업진흥촉진법”이 제정되어 임업구조의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2001년에는 임업의 구조개선을 통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낙후된 산촌지역의 진흥을 통하여 산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임업의 구조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산림의 소유구조개선은 임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사유림의 소유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산림의 교환 또는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사유림의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영구조개선은 임업의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임업경영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겸업임업·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유통구조개선은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직거래의 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산물유통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 및 산촌진흥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 2 절 임업총조사에 의한 임업구조의 변화

우리나라에서 임업총조사는 1999년 처음 실시되었다. 임업총조사는 산림청의 주관 하에 임업정책 수립 및 국가경제계획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공, 임업의 기본구조를 파악할 목적으로 전국의 임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조사표와 조사 방법 및 결과표 작성 등에 관한 조사의 기본설계를 담당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2005년 임업총조사는 임가 및 임가 인구의 규모와 분포, 임업의 경영구조 및 특성파악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임업총조사 업무는 통계청으로 이관되었으며, 농업총조사와 통합하여 농림어업총조사로 변경되어 조사주기를 과거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시행하였다.

2005년의 조사와 1999년의 조사가 단순히 조사기관의 이관에만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표본추출부터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1999년의 임업총조사에서는 조사기준 현재 산림을 3ha 이상 보유하면서 지난 5년간 육림작업 실적이 있는 가구, 지난 1년간 벌목업, 양묘업을 경영한 가구, 지난 1년간 채취 또는 재배한 임산물의 판매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5년 조사는 농림어업총조사 중에서 1999년의 임가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가구를 추출하여 임가로 규정해서 통계표를 작성한 것이다. 또 2005년도 조사에서는 1999년의 임업총조사에서 정부기관, 산림조합 등 준임가를 제외하고, 종실류 보유(본수, 면적)에 의한 임가 편입, 임업종사일수에 의한 임가 편입 항목 등을 제외하였다.

조사항목에 있어서도 1999년 조사항목 중 주관성이 강하다고 인정된 조사항목과(향후 경영계획, 경영예정기간), 가계총소득 및 부채, 휴양림 경영, 영림단 운영, 야생조수사육, 문화용품 등을 조사항목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2005년 총조사에서는 임가를 전업·겸업으로 구분하고 경영주의 임업종사경력 및 혼인형태, 임업경영형태, 거처형태, PC 활용여부와 용도 및 홈페이지 개설 여부 등을 신규 항목으로 추가함에 따라 임가 인구의 특성 및 임가의 실태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5년 농



림업총조사에서는 1999년에는 분류하지 않았던 전업임가²⁰⁾와 겸업임가²¹⁾(1종 겸업임가, 2종 겸업임가)로 임가를 세분한 것 등에서 차이가 있다(〈표 12-1〉 참조).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두 시점의 비교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조사내용의 차이를 감안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표 12-1〉 임업총조사(1999년)와 농림업총조사(2005년)의 차이

	이관 전(1999년)	이관 후(2005년)
1.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업정책대상으로서의 임업인과 관련업종 현황 파악 임업경영실태파악 등 임업진흥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가 및 임가 인구의 규모와 분포 임업의 경영구조 및 특성 파악
2. 조사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인번호 : 13621호(1999. 9.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1차 개정 (2005. 7. 21) 승인번호 : 10163호(2004. 2. 27)
3. 조사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
4. 조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9. 11. 8~11. 17(10일간) 준비조사기간 2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6. 2. 12~2. 28(17일간) 준비조사기간 2일 포함
5.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9년 2월 1일 현재 임가 정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임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 또는 단체 3ha(약 9,000평) 이상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1998년 1년간 벌목 실적이 있는 가구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가구 연간 임업 종사일수가 90일 이상인 가구 관상수업자에 등록 한 가구 유실수를 일정 규모이상 재배하는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5년 12월 1일 현재 임가 정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임업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정부기관, 산림조합 등 준임가 제외) 조사시점 현재 산림 3ha 이상을 보유하고 하면서 지난 5년간 육림작업 실적이 있는 가구 지난 1년간 벌목업이나 양묘업을 경험한 가구 지난 1년간 채취 또는 재배한 임산물의

(계속)

20) 전업 임가라 함은 지난 1년간 임업 이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임가를 말함.

21) 겸업 임가라 함은 지난 1년간 임업 이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임가를 말하며, 1종 겸업임가는 임업 수입이 임업 이외의 수입보다 많은 임가를, 2종 겸업임가는 임업 이외 수입이 임업수입보다 많은 임가를 말함.

〈표 12-1〉 계속

	이관 전(1999년)	이관 후(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조수를 사육 하는 가구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동물 1마리 이상 - 중동물 3마리 이상 - 소동물 2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가구 	판매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가구
6.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원 사항(7), 문화용품시설(6), 임업경영(6), 임업생산(10) 총 29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원사항(9), 정보화현황(4), 생활여건(2), 주거환경(4), 임업경영(5), 임업생산(6) 총 30개 항목
7.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원이 조사대상을 방문하여 면접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원이 조사대상을 방문하여 면접조사
8. 조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기관 : 산림청 임업정책과 실시기관 : 특·광역시 및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기관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실시기관 : 특·광역시 및 시·군·구
9. 자료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주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web방식을 이용한 자료 현지 입력 및 내검 프로그램 개발
10. 결과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잠정결과 공표 : 2000년 3월 확정결과 공표 : 2000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잠정결과 공표 : 2006년 4월 확정결과 공표 : 2006년 10월
11. 결과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80종 총 임 가 : 2 개인임가 : 70개 준 임 가 : 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임가 : 47개
12.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편 : 1권, 지역편 : 3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편 : 1권, 지역편 : 5권, cd : 1매
13. 조사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요원 : 1,17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요원 : 15천명(농림어업총조사전체) (조사원 : 13천명, 총조사관리자 등 2천명) 지도공무원 : 2천명(통계청 및 지자체 공무원)
14. 소요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7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9억원(농림어업총조사 전체)
15. 조사표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A3 시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원 및 응답자 친화적인 조사표 설계 (글자크기·글씨체·색상 보완, A4책자형) 농가조사표 통합

I. 자연환경

II. 농림어가의 인구와 가족

III. 한국농촌사회의 변화

IV. 농업

V. 임업

VI. 어업

제 13 장 임업경영

김세빈

제 1 절 임업경영실태

산림소유 규모와 경영형태

전국의 개인임가는 1999년에 66,300가구였으나 2005년 조사에서 46.0%(30,808가구)가 증가한 97,108가구이었다(업종별로 2005년 총조사에서는 휴양림, 경영업 등을 제외한 5개였으며, 주요 업종은 재배업, 채취업, 육림업 등임).

업종별 임가는 2005년 임업총조사에서 재배업이 90.3(87,643가구)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육림업은 2.0%(1,929가구)에 불과하다. 1999년에는 재배업이 68.6%(45,468가구)로 가장 높고, 육림업이 21.8%(14,568가구), 채취업이 6.3%(4,241가구) 등의 순이었다(〈표 13-1〉 참조). 업종별 임가의 변화는 재배업의 증가와 육림업의 감소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생산성 등으

〈표 13-1〉 전·겸업별 임가

(단위 : 가구, %)

특성별	전·겸업별 임가 (2005년)				
	임가	전업	겸업-소계	겸업-1종 겸업	겸업-2종 겸업
계	97,108	7,925	89,183	21,607	67,576
구성비	100.0	8.2	91.8	24.2	75.8
육림업	1,929	92	1,837	85	1,752
구성비	2.0	4.8	95.2	4.6	95.4
벌목업	126	22	104	47	57
구성비	0.1	17.5	82.5	45.2	54.8
채취업	6,883	376	6,507	1,998	4,509
구성비	7.1	5.5	94.5	30.7	69.3
양묘업	527	63	464	101	363
구성비	0.5	12.0	88.0	21.8	78.2
재배업	87,643	7,372	80,271	19,376	60,895
구성비	90.3	8.4	91.6	24.1	75.9

(계속)

〈표 13-1〉 계속

(단위: 가구, %)

특성별	전·겸업별 임가 (1999년)				
	임가	전업	겸업-소계	겸업-1종 겸업	겸업-2종 겸업
계	66,300	16,378	50,522	27,342	23,211
구성비	100.0	24.5	75.6	54.1	45.9
육림업	14,568	1,177	13,391	1,385	12,006
구성비	21.8	8.1	91.9	10.3	89.7
벌목업	943	208	735	548	187
구성비	1.4	22.1	77.9	74.6	25.4
채취업	4,241	440	3,801	2,934	867
구성비	6.3	10.4	89.6	77.2	22.8
양묘업	141	76	65	37	28
구성비	0.2	53.9	46.1	56.9	43.1
재배업	45,468	13,812	31,656	22,002	9,654
구성비	68.6	30.4	69.6	69.5	30.5
사육업	939	488	451	187	264
구성비	1.4	52.0	48.0	41.5	5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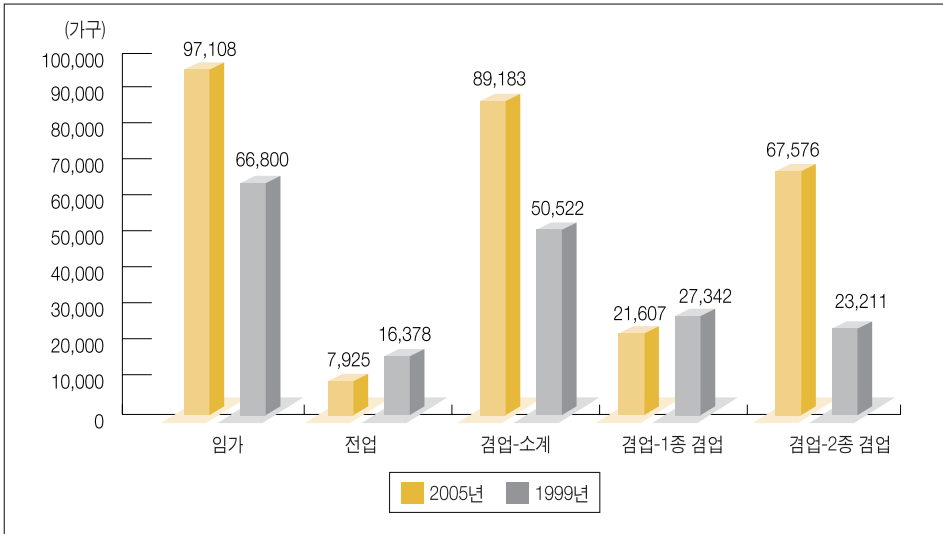
주: 경영업은 1999년의 임업총조사에서 정부기관, 산림조합 등 준임가로 조사하였으나, 2005년 농림어업총조사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경영업을 하는 준임가를 제외함.

로 목재생산을 위주로 한 육림업은 위축되고 반면에 단기소득 임산물을 채취, 재배하는 임가는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전·겸업별 임가에서 2005년에는 겸업이 91.8%로 압도적으로 높고, 전업이 8.2%에 불과하다. 1999년에 겸업이 75.6%로 높고, 전업이 24.5%로 낮았다. 겸업별 임가에서 2005년에는 2종 겸업이 75.8%로 높고, 1종 겸업이 24.2%로 낮았다.

1999년에 1종 겸업이 54.1%, 2종 겸업이 45.9%를 점유한 것과 비교하면, 2종 겸업 임가의 증가가 뚜렷하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 임지소유구조가 점차 세분화되고 이에 따라 부채산주가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산림경영 의욕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그림 13-1〉 참조).

산림보유면적별 임가는 2005년 임업총조사에서 산림무소유 임가가 66.6%(64,636가구)로 높고, 산림보유임가는 33.4%(32,472가구)였다. 반면에 1999년에는 산림무소유 임가가 39.0%(26,296가구)이고 산림보유임가는 61.0%(41,073가구)였다. 위의 업종별 임가수에서 보듯이 채취와 재배업이 많



〈그림 13-1〉 전업·겸업별 임가수

은 것도 산림보유임가가 감소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산림보유면적별 임가의 변화는 산림무소유 임가의 비중이 증가하고 산림보유임가의 비중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업종별 변화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재배업에서도 산림보유면적별 임가의 변화 패턴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재배업 임가에서 산림무소유 임가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해당 업종의 경영은 주로 산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배라기보다는 농업부와 비슷한 형태로 논과 밭에서 재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산림보유면적별 임가분포는 2005년 임업총조사에서 1~3ha 미만 33.7%, 1ha 미만 30.3% 등의 순으로 3ha 미만이 64.0%를 점하였다. 1999년에는 1~3ha 미만 27.2%, 1ha 미만 17.0% 등의 순으로 나타나서 3ha 미만이 44.2%를 차지하였다. 산림보유면적별 임가의 계층변화는 상대적으로 영세화되어 산림소유구조가 취약해지고 있다(〈표 13-2〉 참조).

2005년 임업총조사에서 임가의 산림면적은 148,183ha이고, 임가당 평균 1.5ha를 보유하고 있다. 업종별 임가 분포는 재배업이 90.3%로 가장 높고, 채취업 7.1%, 육림업 2.0% 등의 순이다. 1999년에는 재배업이 67.9%로 가장 높고, 육림업이 22.1%, 채취업이 6.3% 등의 순이다. 업종별 임가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육림업, 채취업의 비중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육림업의 감소와 벌목업이 매우 낮은 이유는 생산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임금은 가파르게 상승하여, 수익성은 지속적

(표 13-2) 산림보유면적별 임가 및 산림면적

(단위: 가구, %, ha)

특성별	산림보유면적별 임가 및 산림면적 (2005년)										
	임가	산림면적 없음 (무소유)	산림보유면적 규모별 임가								산림 면적 (ha)
			계	0.6ha 미만	0.6~ 1.0ha	1.0~ 3.0ha	3.0~ 5.0ha	5.0~ 10.0ha	10.0~ 30.0ha	30.0ha 이상	
계	97,108	64,636	32,472	3,446	6,395	10,951	5,419	3,975	1,742	544	148,183
구성비	100	66.6	33.4	10.6	19.7	33.7	16.7	12.2	5.4	1.7	
육림업	1,929	0	1,929	0	22	309	681	534	268	115	20,937
구성비	2.0	0.0	100	0.0	1.1	16.0	35.3	27.7	13.9	6.0	
벌목업	126	41	85	10	11	15	13	17	8	11	1,661
구성비	0.1	32.5	67.5	11.8	12.9	17.6	15.3	20.0	9.4	12.9	
채취업	6,883	3,337	3,546	213	382	935	668	779	448	121	25,745
구성비	7.1	48.5	51.5	6.0	10.8	26.4	18.8	22.0	12.6	3.4	
양묘업	527	266	261	55	36	64	34	32	27	13	1,965
구성비	0.5	50.5	49.5	21.1	13.8	24.5	13.0	12.3	10.3	5.0	
재배업	87,643	60,992	26,651	3,168	5,944	9,628	4,023	2,613	991	284	97,876
구성비	90.3	69.6	30.4	11.9	22.3	36.1	15.1	9.8	3.7	1.1	

특성별	임가	무소유	산림보유면적 규모별 임가 (1999년)								산림 면적 (ha)
			계	0.6ha 미만	0.6~ 1.0ha	1.0~ 3.0ha	3.0~ 5.0ha	5.0~ 10.0ha	10.0~ 30.0ha	30.0ha 이상	
계	67,369	26,296	41,073	4,751	5,071	11,190	8,797	6,513	3,427	1,324	-
구성비	100	39.0	61.0	4.7	12.3	27.2	21.4	15.9	8.3	3.2	
육림업	14,869	758	14,111	507	401	2,107	4,638	3,529	2,057	872	-
구성비	22.1	5.1	94.9	2.3	2.8	14.9	32.9	25.0	14.6	6.2	
벌목업	958	410	548	83	70	130	88	79	63	35	-
구성비	1.4	42.8	57.2	5.1	12.8	23.7	16.1	14.4	11.5	6.4	
채취업	4,241	2,601	1,640	151	204	416	334	305	177	53	-
구성비	6.3	61.3	38.7	2.8	12.4	25.4	20.4	18.6	10.8	3.2	
양묘업	177	95	82	23	7	18	9	16	6	3	-
구성비	0.3	53.7	46.3	20.7	8.5	22.0	11.0	19.5	7.3	3.7	
재배업	45,766	21,354	24,412	3,879	4,349	8,460	3,695	2,565	1,113	351	-
구성비	67.9	46.7	53.3	5.9	17.8	34.7	15.1	10.5	4.6	1.4	
사육업	947	739	208	53	36	57	24	17	11	10	-
구성비	1.4	78.0	22.0	13.0	17.3	27.4	11.5	8.2	5.3	4.8	
경영업	411	339	72	55	4	2	9	2	-	-	-
구성비	0.6	82.5	17.5	63.9	5.6	2.8	12.5	2.8	-	-	

주: (-)는 미공표

I. 자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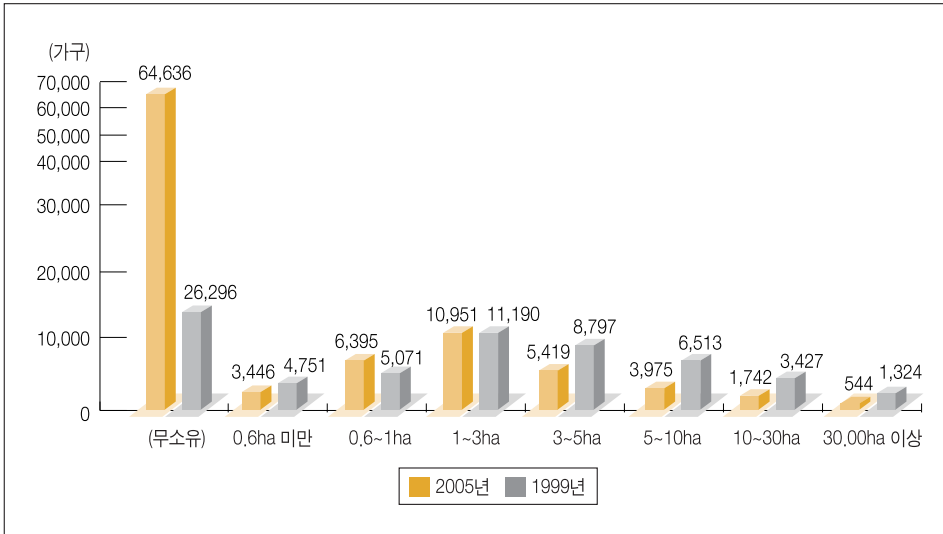
II. 농림어업의 인구와 가족

III.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

IV. 농업

V. 임업

VI. 어업



〈그림 13-2〉 산림보유면적별 임가수

으로 낮아지고 있고, 임업노동력도 감소, 고령화되어 건전한 산림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채취업은 천연적으로 생육한 임산물을 채취하는 업종으로 기후조건이 좋고 나뭇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채취보다는 안정적인 재배가 확산되고 있어 채취업의 축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형태별 특성

1. 육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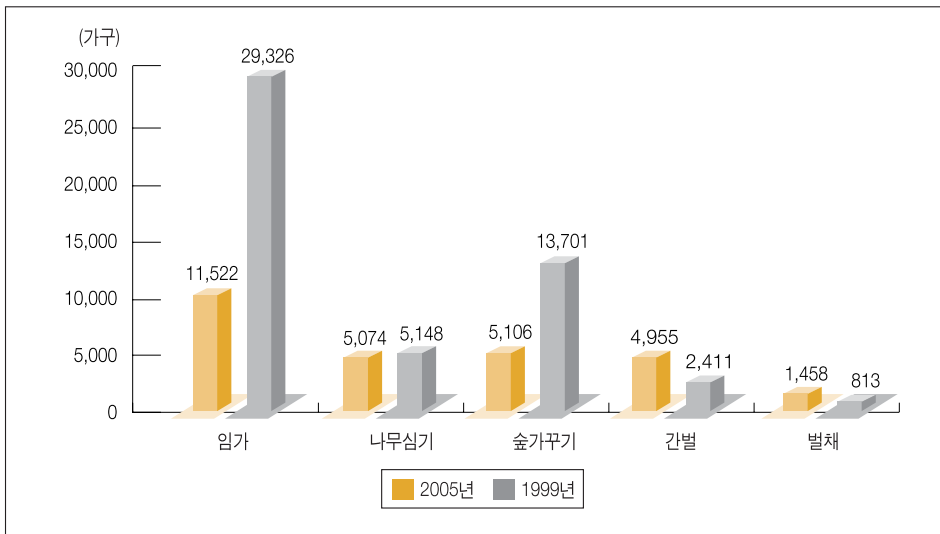
2005년의 총조사에서는 육림업 관련 항목을 통합하여 조사하였지만, 1999년에는 산림청에서 조사하였기 때문에 조사내용이 비교적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조사되었고, 2005년과 1999년과의 통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조림은 나무를 심기위해서 나무 심을 자리를 잘 골라주고 나무를 심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2005년 조사에서는 '나무심기' 라는 우리말로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1999년에는 조림예정지 정리작업과 조림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숲가꾸기'에는 풀베기, 가지치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방제, 시비 등이 포함되고, 숲야베기는 '간벌'을 이르는 용어이다. 이 외에도 1999년 조사에서는 임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병충해 방제사업과 임도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5년 조사에서는 생략되었다. 또한 2005년의 조사에서는 임가와 육림 작업별

임가의 합계가 다른 이유는 임가 중에서 육림작업을 실시한 복수응답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육림작업을 한 임가는 2005년에는 1999년 대비 60.7%(11,522가구)가 감소한 11,522가구이고, 1999년에는 29,326가구였다. 육림작업을 한 임가의 차이는 1999년에는 산림을 소유하지 않은 임가 8.6%(2,518가구)도 육림작업을 시행하였으나, 2005년에는 미소유 임가, 임대설치 등은 조사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육림작업은 2005년 조사에서는 숲가꾸기 44.3%, 나무심기 44.0%, 축아베기 43.0%로 각 육림작업이 비슷하게 실행되었으나, 1999년에는 숲가꾸기가 46.7%로 가장 많았다. 이는 1998년부터 시작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05년에는 2002년부터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예산을 육림사업으로 배분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산림보유면적 규모별 임가 분포에서 육림작업은 2005년에는 1~3ha 사이의 임가가 30.5%, 3~5ha 사이의 임가가 21.1%, 1ha 이하가 19.9%, 5~10ha 사이의 임가가 16.8%의 순이고, 10ha 이상의 임가가 11.7%이었다. 1~5ha 사이의 임가가 전체의 51.6%를 차지하였다. 1999년에는 3~5ha 사이의 임가가 25.2%, 5~10ha 사이의 임가가 20.1%, 1~3ha 사이의 임가가 19.9%의 순이고, 10ha 이상의 임가가



〈그림 13-3〉 육림별 임가수

29.2%이었다. 1~5ha 사이의 임가가 전체의 45.1%를 차지하였다. 2005년은 1999년 대비 육림작업을 한 산림보유면적 규모별 임가의 변화는 5ha 이하에서는 증가하고 10ha 이상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업별로는 숲아베기(간벌)와 벌채사업을 한 가구가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산림이 그 만큼 성숙하여 간벌기에 달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13-3〉 육림작업별 임가

(단위: 가구, %)

특성별	육림작업별 임가 (2005년)				
	임가	나무심기	숲가꾸기	간벌	벌채
계	11,522	5,074	5,106	4,955	1,458
구성비	100.0	44.0	44.3	43.0	12.7
0.6ha 미만	773	437	305	219	62
구성비	6.7	56.5	39.5	28.3	8.0
0.6~1ha	1,520	725	744	528	142
구성비	13.2	47.7	48.9	34.7	9.3
1~3ha	3,509	1,642	1,644	1,372	360
구성비	30.5	46.8	46.9	39.1	10.3
3~5ha	2,435	987	1,019	1,086	337
구성비	21.1	40.5	41.8	44.6	13.8
5~10ha	1,935	768	796	994	294
구성비	16.8	39.7	41.1	51.4	15.2
10~30ha	967	358	403	523	158
구성비	8.4	37.0	41.7	54.1	16.3
30ha 이상	383	157	195	233	105
구성비	3.3	41.0	50.9	60.8	27.4

(계속)

〈표 13-3〉 계속

(단위 : 가구, %)

특성별	육림작업별 임가(1999년)					
	임가	나무심기	숲가꾸기	간벌	벌채	기타
계	29,326	5,148	13,701	2,411	813	7,253
구성비	100.0	17.6	46.7	8.2	2.8	24.7
무소유	2,518	349	1,113	220	87	749
구성비	8.6	13.9	44.2	8.7	3.5	29.7
0.6ha 미만	849	154	338	56	51	250
구성비	2.9	18.1	39.8	6.6	6.0	29.4
0.6~1ha	1,728	305	701	74	51	597
구성비	5.9	17.7	40.6	4.3	3.0	34.5
1~3ha	5,849	1,090	2,581	293	136	1,749
구성비	19.9	18.6	44.1	5.0	2.3	29.9
3~5ha	7,381	1,270	3,571	665	177	1,698
구성비	25.2	17.2	48.4	9.0	2.4	23.0
5~10ha	5,885	1,028	2,878	548	151	1,280
구성비	20.1	17.5	48.9	9.3	2.6	21.8
10~30ha	3,450	617	1,722	349	105	657
구성비	11.8	17.9	49.9	10.1	3.0	19.0
30ha 이상	1,666	335	797	206	55	273
구성비	5.7	20.1	47.8	12.4	3.3	16.4

주 : 1) 나무심기(99)에는 조림예정지 작업, 조림이 포함되어진 것임.

숲가꾸기(99)에는 풀베기,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와 천연림보육이 합쳐진 것임.

2) 2005년의 조사에서 임가와 육림 작업별 임가의 합계가 다른 이유는 임가 중에서 육림작업을 실시한 복수응답임.

2. 벌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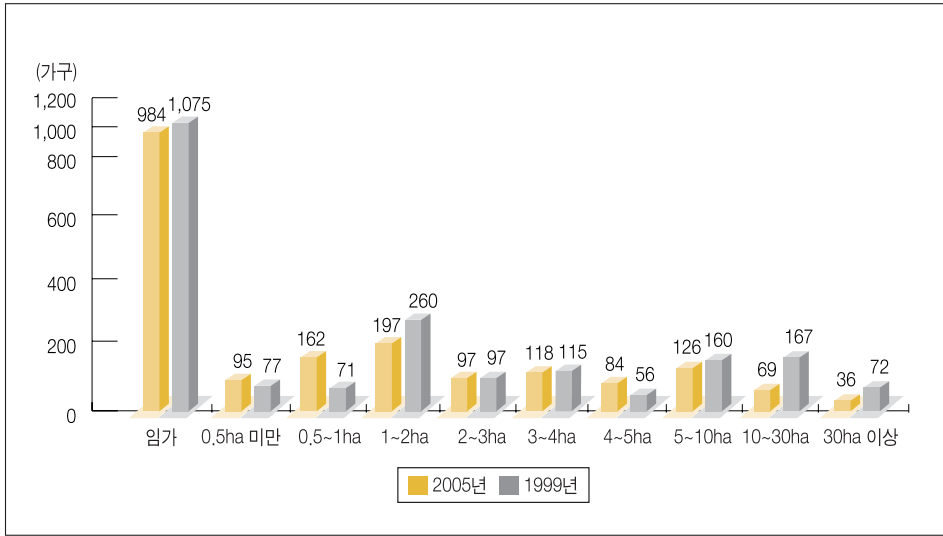
산림보유면적 규모별로 벌목한 임가 분포에서 2005년에는 3~5ha 사이의 임가가 23.9%로 가장 높고, 5~10ha 사이의 임가가 22.5%, 10ha 이상의 임가가 21.1% 순이었다. 1999년에는 1ha 이하의 임가가 14.6%, 1~3ha 사이의 임가가 13.9%, 10ha 이상의 임가가 11.7% 순이었다. 2005년에는 1999년에 비하여 산림보유면적 규모가 큰 임가일수록 벌목을 많이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13-4〉 참조).

〈표 13-4〉 벌목면적 규모별 임가 및 벌목면적

(단위: 가구, %, ha)

특성별	벌목면적 규모별 임가 및 벌목면적 (2005년)										벌목 면적 (ha)
	임가	0.5ha 미만	0.5~1ha	1~2ha	2~3ha	3~4ha	4~5ha	5~10ha	10~ 30ha	30ha 이상	
계	984	95	162	197	97	118	84	126	69	36	6,504
구성비	100.0	9.7	16.5	20.0	9.9	12.0	8.5	12.8	7.0	3.7	
무소유	100	4	10	18	7	9	12	16	13	11	1,477
구성비	10.2	4.0	10.0	18.0	7.0	9.0	12.0	16.0	13.0	11.0	
0.6ha 미만	24	10	4	5	2	-	1	2	-	-	11
구성비	2.4	41.7	16.7	20.8	8.3	-	4.2	8.3	-	-	
0.6~1ha	32	7	9	2	2	2	-	4	5	1	198
구성비	3.3	21.9	28.1	6.3	6.3	6.3	-	12.5	15.6	3.1	
1~3ha	164	27	45	53	31	-	1	4	3	-	319
구성비	16.7	16.5	27.4	32.3	18.9	-	0.6	2.4	1.8	-	
3~5ha	235	22	44	53	26	54	29	4	2	1	656
구성비	23.9	9.4	18.7	22.6	11.1	23.0	12.3	1.7	0.9	0.4	
5~10ha	221	15	33	41	17	27	20	59	3	6	1,139
구성비	22.5	6.8	14.9	18.6	7.7	12.2	9.0	26.7	1.4	2.7	
10~30ha	127	6	12	19	4	17	14	29	25	1	1,012
구성비	12.9	4.7	9.4	15.0	3.1	13.4	11.0	22.8	19.7	0.8	
30ha 이상	81	4	5	6	8	9	7	8	18	16	1,661
구성비	8.2	4.9	6.2	7.4	9.9	11.1	8.6	9.9	22.2	19.8	

특성별	벌채면적 규모별 임가 및 벌목면적 (1999년)										벌목 면적 (ha)
	임가	0.5ha 미만	0.5~1ha	1~2ha	2~3ha	3~4ha	4~5ha	5~10ha	10~ 30ha	30ha 이상	
계	1,075	77	71	260	97	115	56	160	167	72	12,460
구성비	100.0	7.2	6.6	24.2	9.0	10.7	5.2	14.9	15.5	6.7	
무소유	446	11	12	147	53	38	19	56	85	25	4,167
구성비	41.5	2.5	2.7	33.0	11.9	8.5	4.3	12.6	19.1	5.6	
0.6ha 미만	81	31	17	13	-	5	2	6	5	2	31
구성비	7.5	38.3	21.0	16.0	-	6.2	2.5	7.4	6.2	2.5	
0.6~1ha	76	10	23	26	3	3	1	5	3	2	31
구성비	7.1	13.2	30.3	34.2	3.9	3.9	1.3	6.6	3.9	2.6	
1~3ha	149	10	9	39	16	23	2	13	24	13	561
구성비	13.9	6.7	6.0	26.2	10.7	15.4	1.3	8.7	16.1	8.7	
3~5ha	99	7	5	12	7	23	13	19	8	5	295
구성비	9.2	7.1	5.1	12.1	7.1	23.2	13.1	19.2	8.1	5.1	
5~10ha	99	4	5	9	8	13	8	32	11	9	532
구성비	9.2	4.0	5.1	9.1	8.1	13.1	8.1	32.3	11.1	9.1	
10~30ha	75	3	-	12	8	7	9	15	12	9	707
구성비	7.0	4.0	-	16.0	10.7	9.3	12.0	20.0	16.0	12.0	
30ha 이상	50	1	-	2	2	3	2	14	19	7	382
구성비	4.7	2.0	-	4.0	4.0	6.0	4.0	28.0	38.0	14.0	



〈그림 13-4〉 산림면적 규모별 별목 임가수

별목면적 규모별 임가 분포에서 2005년에는 1~3ha 사이의 임가가 29.9%로 가장 높고, 1ha 이하의 임가가 26.2%, 3~5ha 사이의 임가가 20.5%, 10ha 이상의 임가가 10.7% 순이었다. 1999년에는 1~3ha 이하의 임가가 33.2%, 3~5ha 사이의 임가가 15.9% 순이고, 10 ha 이상의 임가가 22.2%이었다.

별목면적은 2005년에는 1999년도 대비 47.8%(5,956ha)가 감소한 6,504ha였다. 산림보유규모별로 별목면적은 5ha 이상에서 2005년에 58.6%(3,812ha)이고, 1999년에는 13.0% (1,621ha)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1999년에 비해 산림보유면적이 큰 임가일수록 별목면적은 늘어나고 있다.

별목량 규모별 임가 분포에서 2005년에는 100~300m³ 사이의 임가가 30.2%, 500m³ 이상의 임가가 32.6%, 50m³ 이하의 임가가 11.4%이었다. 1999년에는 50m³ 이하의 임가가 30.9%, 100~300m³ 사이의 임가가 26.7%, 500m³ 이상의 임가가 18.8%이었다. 2005년에는 1999년 대비 별목량이 적은 임가가 감소하고, 별목량이 많은 임가가 증가하고 있다.

별목량은 2005년에는 1999년도 대비 16.7%(99,836m³)가 감소한 499,904m³이었다. 산림보유 규모 별 별목량은 2005년에는 10ha 이상이 33.1%(165,478m³)로 가장 높고, 1~3ha 사이가 18.8%(94,182 m³), 5~10ha 사이가 17.0%(85,105m³)의 순이다. 1999년에는 1~3ha 사이가 15.9%(95,190m³), 5~10ha 사이가 11.7%(70,227m³), 3~5ha 사이가 10.4%(62,225m³)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1999년 대비 산림보유면적이 큰 임가일수록 별목량이 많아지고 있다(〈표 13-5〉 참조).



〈표 13-5〉 벌목량 규모별 임가 및 벌목량

(단위: 가구, %, m)

특성별	벌목량 규모별 임가 및 벌목량(2005년)										벌목량 (m)
	임가	10m ³ 미만	10~ 30m ³	30~ 50m ³	50~ 100m ³	100~ 300m ³	300~ 500m ³	500~ 1,000m ³	1,000~ 2,000m ³	2,000m ³ 이상	
계	984	18	50	44	131	297	124	169	111	40	499,904
구성비	100.0	1.8	5.1	4.5	13.3	30.2	12.6	17.2	11.3	4.1	
1ha 미만	257	17	36	23	60	40	17	34	27	3	26,417
구성비	26.1	6.6	14.0	8.9	23.3	15.6	6.6	13.2	10.5	1.2	
1~2ha	197	1	9	12	46	70	18	16	21	4	70,057
구성비	20.0	0.5	4.6	6.1	23.4	35.5	9.1	8.1	10.7	2.0	
2~3ha	97	-	1	3	3	72	6	9	2	1	24,125
구성비	9.9	-	1.0	3.1	3.1	74.2	6.2	9.3	2.1	1.0	
3~4ha	118	-	3	3	7	66	21	13	5	-	34,880
구성비	12.0	-	2.5	2.5	5.9	55.9	17.8	11.0	4.2	-	
4~5ha	84	-	1	1	9	22	28	12	7	4	41,917
구성비	8.5	-	1.2	1.2	10.7	26.2	33.3	14.3	8.3	4.8	
5~10ha	126	-	-	-	4	15	28	58	15	6	85,105
구성비	12.8	-	-	-	3.2	11.9	22.2	46.0	11.9	4.8	
10~30ha	69	-	-	2	2	10	5	21	27	2	58,645
구성비	7.0	-	-	2.9	2.9	14.5	7.2	30.4	39.1	2.9	
30ha 이상	36	-	-	-	-	2	1	6	7	20	106,833
구성비	3.7	-	-	-	-	5.6	2.8	16.7	19.4	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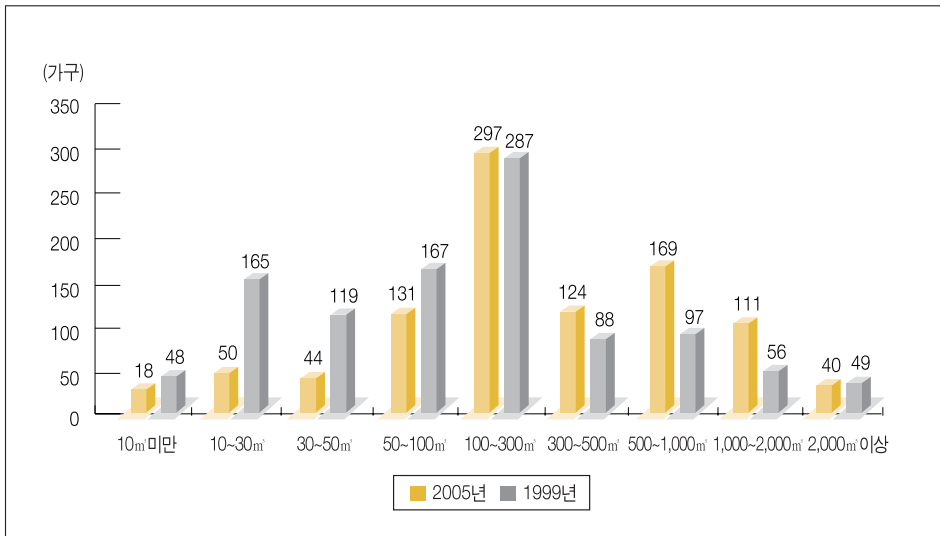
특성별	벌목량 규모별 임가 및 벌목량 (1999년)										벌목량 (m)
	임가	10m ³ 미만	10~ 30m ³	30~ 50m ³	50~ 100m ³	100~ 300m ³	300~ 500m ³	500~ 1,000m ³	1,000~ 2,000m ³	2,000m ³ 이상	
계	1,076	48	165	119	167	287	88	97	56	49	599,740
구성비	100.0	4.5	15.3	11.1	15.5	26.7	8.2	9.0	5.2	4.6	
무소유	447	10	89	61	56	103	42	44	25	17	250,434
구성비	41.5	2.2	19.9	13.6	12.5	23.0	9.4	9.8	5.6	3.8	
1ha 미만	162	15	38	30	36	25	1	3	8	6	1,453
구성비	15.1	9.3	23.5	18.5	22.2	15.4	0.6	1.9	4.9	3.7	
1~2ha	89	5	13	7	20	23	8	8	4	1	34,120
구성비	8.3	5.6	14.6	7.9	22.5	25.8	9.0	9.0	4.5	1.1	
2~3ha	57	5	6	1	12	17	2	9	2	3	61,070
구성비	5.3	8.8	10.5	1.8	21.1	29.8	3.5	15.8	3.5	5.3	

(계속)

〈표 13-5〉 계속

(단위: 가구, %, m)

특성별	별목량 규모별 임가 및 별목량 (1999년)										별목량 (m)
	임가	10m ² 미만	10~30m ²	30~50m ²	50~100m ²	100~300m ²	300~500m ²	500~1,000m ²	1,000~2,000m ²	2,000m ² 이상	
3~4ha	58	5	10	6	5	20	5	6	1	-	12,124
구성비	5.4	8.6	17.2	10.3	8.6	34.5	8.6	10.3	1.7	-	
4~5ha	41	2	4	2	5	15	6	2	2	3	50,101
구성비	3.8	4.9	9.8	4.9	12.2	36.6	14.6	4.9	4.9	7.3	
5~10ha	102	3	4	8	15	40	9	9	6	8	45,341
구성비	9.5	2.9	3.9	7.8	14.7	39.2	8.8	8.8	5.9	7.8	
10~30ha	70	2	1	4	15	27	8	7	-	6	26,202
구성비	6.5	2.9	1.4	5.7	21.4	38.6	11.4	10.0	-	8.6	
30ha 이상	50	1	-	-	3	17	7	9	8	5	18,914
구성비	4.6	2.0	-	-	6.0	34.0	14.0	18.0	16.0	10.0	



〈그림 13-5〉 별목 면적규모별 임가수

I. 자연환경

II. 농림어가의 인구와 가족

III. 한국농촌사회의 변화

IV.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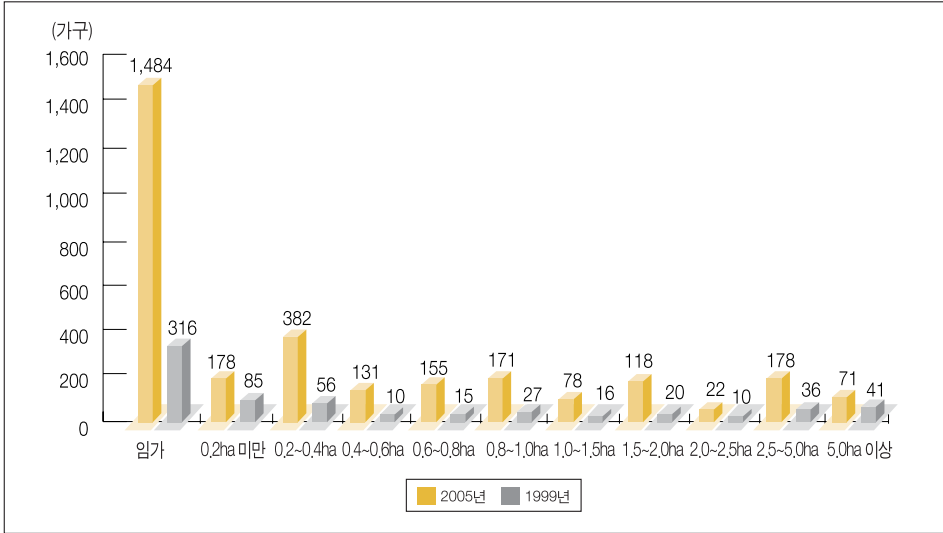
V. 임업

VI. 어업



3. 양묘

양묘임가는 2005년에는 1999년도 대비 3.7배(1,168가구)가 증가한 1,484가구이다. 묘포장면적 규



〈그림 13-6〉 묘포장면적 규모별 임가수

〈표 13-6〉 묘포장면적 규모별 임가 및 묘포장면적

(단위 : 가구, %, ha)

특성별	묘포장면적 규모별 임가 및 묘포장면적(2005년)											묘포장 면적 (ha)
	임가	0.2ha 미만	0.2~ 0.4ha	0.4~ 0.6ha	0.6~ 0.8ha	0.8~ 1.0ha	1.0~ 1.5ha	1.5~ 2.0ha	2.0~ 2.5ha	2.5~ 5.0ha	5.0ha 이상	
계	1,484	178	382	131	155	171	78	118	22	178	71	2,311
구성비	100.0	12.0	25.7	8.8	10.4	11.5	5.3	8.0	1.5	12.0	4.8	
육림업	78	2	19	2	5	9	2	13	-	17	9	235
구성비	5.3	2.6	24.4	2.6	6.4	11.5	2.6	16.7	-	21.8	11.5	
벌목업	8	-	1	-	1	1	-	1	-	1	3	54
구성비	0.5	-	12.5	-	12.5	12.5	-	12.5	-	12.5	37.5	
채취업	32	-	10	-	7	3	-	3	1	8	-	45
구성비	2.2	-	31.3	-	21.9	9.4	-	9.4	3.1	25.0	-	
양묘업	526	144	110	41	44	51	19	39	7	48	23	791
구성비	35.4	27.4	20.9	7.8	8.4	9.7	3.6	7.4	1.3	9.1	4.4	
재배업	840	32	242	88	98	107	57	62	14	104	36	1,186
구성비	56.6	3.8	28.8	10.5	11.7	12.7	6.8	7.4	1.7	12.4	4.3	

(계속)

모별 임가 분포는 2005년에는 1ha 이하가 68.5%(1,017가구)로 높았고, 1ha 이상이 31.5%(467가구)로 낮았다. 1999년에는 1ha 이하가 61.0%(193가구)로 높았고, 1ha 이상이 39.0%(123가구)로 낮았다. 2005년에는 1999년 대비 1ha 이하의 비중이 높고, 1ha 이상의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13-6> 참조).

<표 13-6> 계속

(단위: 가구, %, 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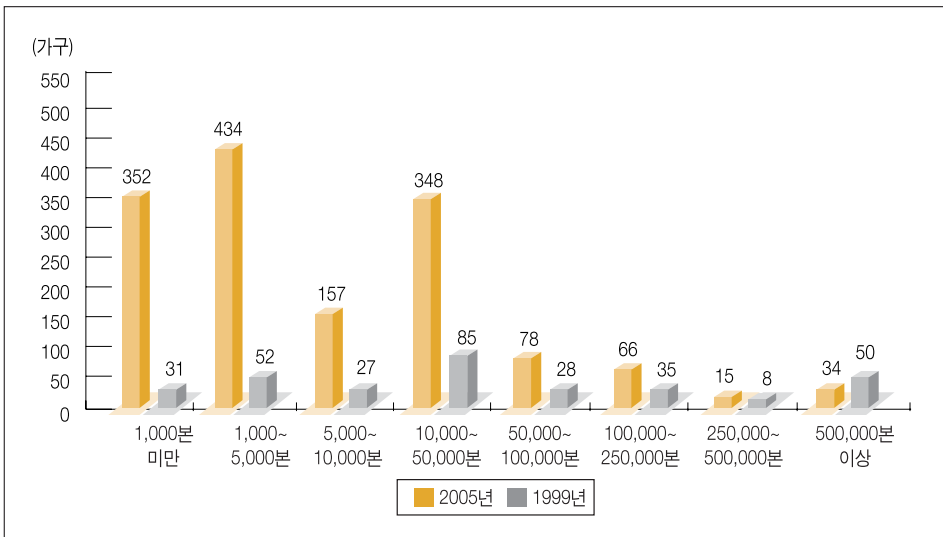
특성별	묘포장면적 규모별 임가 및 묘포장면적(1999년)											묘포장 면적 (ha)
	임가	0.2ha 미만	0.2~ 0.4ha	0.4~ 0.6ha	0.6~ 0.8ha	0.8~ 1.0ha	1.0~ 1.5ha	1.5~ 2.0ha	2.0~ 2.5ha	2.5~ 5.0ha	5.0ha 이상	
계	316	85	56	10	15	27	16	20	10	36	41	1,158
구성비	100.0	26.9	17.7	3.2	4.7	8.5	5.1	6.3	3.2	11.4	13.0	
무소유	139	36	24	3	5	14	10	7	4	22	14	267
구성비	44.0	25.9	17.3	2.2	3.6	10.1	7.2	5.0	2.9	15.8	10.1	
0.2ha미만	7	3	1	-	1	-	-	1	-	-	1	13
구성비	2.2	42.9	14.3	-	14.3	-	-	14.3	-	-	14.3	
0.2~0.6	16	4	8	-	-	1	1	1	-	1	-	9
구성비	5.1	25.0	50.0	-	-	6.3	6.3	6.3	-	6.3	-	
0.6~1.0	15	4	2	-	3	2	-	1	1	1	1	255
구성비	4.7	26.7	13.3	-	20.0	13.3	-	6.7	6.7	6.7	6.7	
1~3ha	43	14	5	1	3	5	3	5	-	4	3	60
구성비	13.6	32.6	11.6	2.3	7.0	11.6	7.0	11.6	-	9.3	7.0	
3~5ha	29	12	4	2	1	3	1	1	-	2	3	82
구성비	9.2	41.4	13.8	6.9	3.4	10.3	3.4	3.4	-	6.9	10.3	
5~10ha	34	4	5	2	-	1	1	3	3	4	11	341
구성비	10.8	11.8	14.7	5.9	-	2.9	2.9	8.8	8.8	11.8	32.4	
10~30ha	23	7	6	1	1	1	-	-	1	1	5	60
구성비	7.3	30.4	26.1	4.3	4.3	4.3	-	-	4.3	4.3	21.7	
30ha이상	10	1	1	1	1	-	-	1	1	1	3	78
구성비	3.2	10.0	10.0	10.0	10.0	-	-	10.0	10.0	10.0	30.0	

묘목재배의 산림보유면적 규모별 임가는 2005년에는 1ha 이하가 68.5%(1,017가구)였으나, 1999년에는 61.0%(193가구)로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이다. 산림보유묘목재배 본수별 임가 분포에서 2005년에는 1만본 이하가 63.5%(943가구)로 가장 높고, 1만~5만본 사이가 23.5%(348가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1999년에는 1만본 이하가 34.8%(110가구)로 가장 높고, 1만~5만본 사이가

26.9%(85가구)의 순이다. 2005년은 1999년 대비 묘목재배 임가의 비중은 본수의 규모가 낮을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13-7〉 참조).

이러한 규모의 영세화는 지난 수년 동안 농산촌의 소득향상을 위해 조경수, 관상수 등의 재배를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장려한 것과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에서도 도시녹화와 도시공원 조성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녹지를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조경수 및 관상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방자치체가 착근되면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자치단체장들에게 도시녹화와 공원조성은 가장 현시적이고 주민의 수요가 많은 사업의 하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소규모이며 영세한 묘목 생산임가가 각 지역에서 우후죽순으로 발생하였다.

1999년 조사에서의 묘목생산임가는 주로 정부의 지정에 의한 조림용 묘목을 생산하는 지정양묘업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 정부의 지정양묘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7〉 묘목재배본수별 임가수

〈표 13-7〉 묘목재배본수별 임가

(단위: 가구, %)

특성별	임가	묘목재배본수별 임가 (2005년)							
		1,000본 미만	1,000~5,000	5,000~10,000	10,000~50,000	50,000~100,000	100,000~250,000	250,000~500,000	500,000 이상
계	1,484	352	434	157	348	78	66	15	34
구성비	100.0	23.7	29.2	10.6	23.5	5.3	4.4	1.0	2.3
0.2ha 미만	178	86	56	15	16	3	2	-	-
구성비	12.0	48.3	31.5	8.4	9.0	1.7	1.1	-	-
0.2~0.6ha	513	146	180	40	104	23	17	1	2
구성비	34.6	28.5	35.1	7.8	20.3	4.5	3.3	0.2	0.4
0.6~1.0ha	326	74	106	43	70	18	12	-	3
구성비	22.0	22.7	32.5	13.2	21.5	5.5	3.7	-	0.9
1.0~5.0ha	396	44	86	55	129	27	30	8	17
구성비	26.7	11.1	21.7	13.9	32.6	6.8	7.6	2.0	4.3
5.0ha 이상	71	2	6	4	29	7	5	6	12
구성비	4.8	2.8	8.5	5.6	40.8	9.9	7.0	8.5	16.9

특성별	임가	묘목재배본수별 임가 (1999년)							
		1,000본 미만	1,000~5,000	5,000~10,000	10,000~50,000	50,000~100,000	100,000~250,000	250,000~500,000	500,000 이상
계	316	31	52	27	85	28	35	8	50
구성비	100.0	9.8	16.5	8.5	26.9	8.9	11.1	2.5	15.8
무소유	139	12	15	11	43	11	15	2	30
구성비	44.0	8.6	10.8	7.9	30.9	7.9	10.8	1.4	21.6
0.2ha 미만	7	2	1	3	-	1	-	-	-
구성비	2.2	28.6	14.3	42.9	-	14.3	-	-	-
0.2~0.6ha	16	4	4	1	4	3	-	-	-
구성비	5.1	25.0	25.0	6.3	25.0	18.8	-	-	-
0.6~1.0ha	16	1	3	2	5	-	3	-	2
구성비	5.1	6.3	18.8	12.5	31.3	-	18.8	-	12.5
1.0~5.0ha	72	9	17	7	16	3	7	1	45
구성비	22.8	12.5	23.6	9.7	22.2	4.2	9.7	1.4	62.5
5.0ha 이상	66	3	12	3	17	10	10	5	6
구성비	20.9	4.5	18.2	4.5	25.8	15.2	15.2	7.6	9.1

I. 자연환경

II. 농림어가의 인구와 가족

III.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

IV. 농업

V. 임업

VI. 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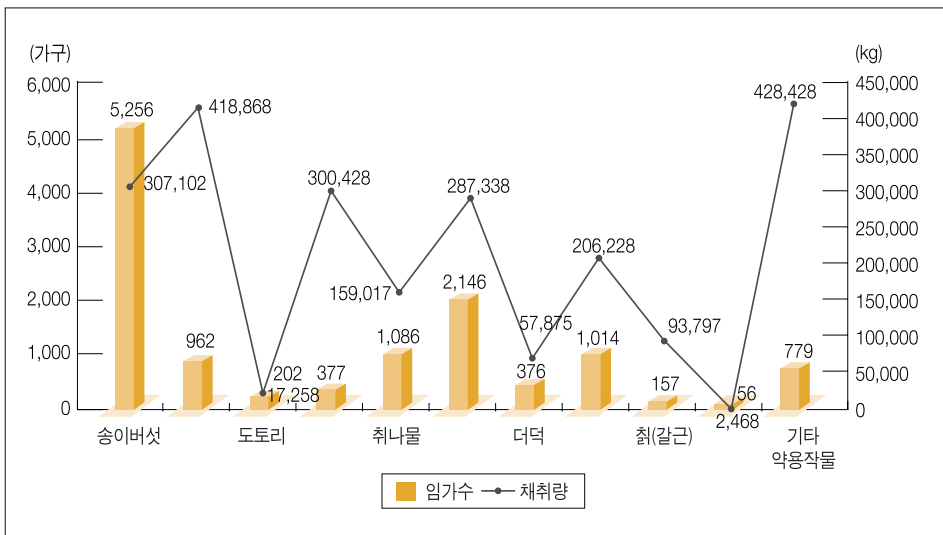


4. 임산물 채취 및 재배

2005년도 임산물 채취품목별 임가는 송이버섯이 5,256가구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사리가 2,146가구, 고로쇠가 1,938가구, 취나물이 1,086가구의 순으로 많았다. 채취량으로는 송이버섯이 307t으로 가장 많고, 고사리가 287t, 취나물이 159t, 고로쇠는 3,728kl이다. 기타로는 기타약용작물이 428t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버섯류가 419t, 기타 열매류가 300t, 기타산나물이 206t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전·겸업별 임가에서 대부분의 임산물 채취임가는 겸업형태이다. 전업임가는 송이버섯이 234가구, 고사리가 119가구의 순으로 많다. 겸업임가는 송이버섯이 5,022가구로 가장 많고, 고사리가 2,027가구, 고로쇠가 1,848가구, 취나물이 1,024가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채취량에서도 송이버섯, 고사리, 고로쇠 등이 높았다. 겸업별 임가에서는 2종 겸업형태가 많았다. 1종 겸업과 2종 겸업에서 채취임가와 채취량이 많은 임산물은 송이버섯, 고사리, 고로쇠 등이고, 그 외에는 기타 버섯류, 기타 산나물 등이다(〈표 13-8〉 참조).

2005년도 임산물 채취업은 겸업형태가 많고, 겸업형태 중 2종 겸업형태가 주종이었다. 품목별로는 주로 송이버섯, 고사리, 취나물, 고로쇠 등이 많았다.



〈그림 13-8〉 임산물 채취규모별 임가수

〈표 13-8〉 임산물 채취품목별 임가 및 채취량

(단위: 가구, %, kg)

특성별	임산물 채취품목별 임가 및 채취량 (2005년)									
	송이버섯		기타버섯		도토리		기타 열매류		취나물	
	임가	채취량(kg)	임가	채취량(kg)	임가	채취량(kg)	임가	채취량(kg)	임가	채취량(kg)
계	5,256	307,102	962	418,868	202	17,256	377	300,428	1,086	159,017
구성비	50.5		9.2		1.9		3.6		10.4	
전업	234	14,527	71	54,832	14	1,495	33	24,799	62	12,322
구성비	41.3		12.5		2.5		5.8		11.0	
겸업	5,022	292,575	891	364,036	188	15,761	344	275,629	1,024	146,695
구성비	51.0		9.1		1.9		3.5		10.4	
1종 겸업	1,412	106,578	319	174,577	75	8,188	127	98,019	394	58,694
구성비	42.8		9.7		2.3		3.9		11.9	
2종 겸업	3,610	185,997	572	189,459	113	7,573	217	177,610	630	88,001
구성비	55.2		8.7		1.7		3.3		9.6	

특성별	임산물 채취품목별 임가 및 채취량 (2005년)							
	고사리		더덕		기타 산나물		취(갈근)	
	임가	채취량(kg)	임가	채취량(kg)	임가	채취량(kg)	임가	채취량(kg)
계	2,146	287,338	376	57,875	1,014	206,228	157	93,797
구성비	20.6		3.6		25.5		3.9	
전업	119	27,231	33	5,207	89	21,370	14	12,800
구성비	21.0		5.8		29.8		4.7	
겸업	2,027	260,107	343	52,668	925	184,858	143	80,997
구성비	20.6		3.5		25.1		3.9	
1종 겸업	833	117,438	138	15,318	344	63,678	53	33,430
구성비	25.3		4.2		21.5		3.3	
2종 겸업	1,194	142,669	205	37,350	581	121,180	90	47,567
구성비	18.3		3.1		27.9		4.3	

(계속)

I. 자연환경

II. 농림어가의 인구와 가족

III.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

IV. 농업

V. 임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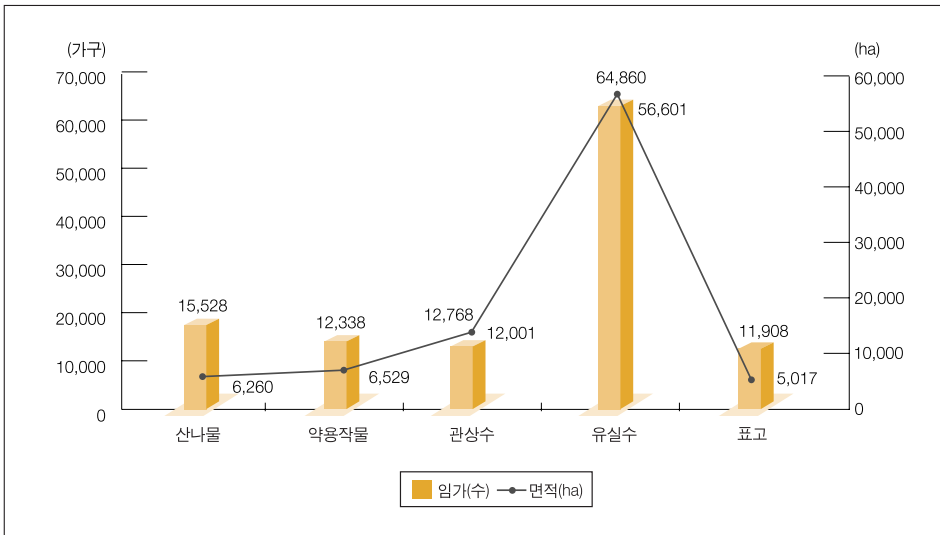
VI. 어업



〈표 13-8〉 계속

(단위: 가구, %, kg)

특성별	임산물 채취품목별 임가 및 채취량 (2005년)							
	창출(백출)		기타 약용작물		고로쇠		기타수액	
	임가	채취량(kg)	임가	채취량(kg)	임가	채취량(ℓ)	임가	채취량(ℓ)
계	56	2,468	779	428,428	1,938	3,727,941	36	30,347
구성비	1.4		19.6		48.7		0.9	
전엽	14	542	90	51,460	90	144,876	2	1,180
구성비	4.7		30.1		30.1		0.7	
결엽	42	1,926	689	376,968	1,848	3,583,065	34	29,167
구성비	1.1		18.7		50.2		0.9	
1종 결엽	19	993	316	158,682	853	1,883,336	13	14,537
구성비	1.2		19.8		53.4		0.8	
2종 결엽	23	933	373	218,286	995	1,699,729	21	14,630
구성비	1.1		17.9		47.8		1.0	



〈그림 13-9〉 임산물채취 품목별 임가수

2005년의 임산물 재배임가는 뽕은 감이 23,621가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밤이 21,465가구, 대추가 7,202가구, 조경수가 7,696가구, 복분자가 7,742가구, 표고가 5,750가구의 순으로 많다. 재배 면적으로는 밤이 41,046ha로 가장 많고, 뽕은 감이 7,602ha, 조경수가 7,600ha의 순으로 많다. 전·

겸업별 임가에서 대부분의 임산물 재배임가는 겸업으로 2종 겸업형태이다. 품목별로는 주로 밤, 뽕은 감, 조경수, 대추, 복분자, 표고 등이 중요 품목이었다(표 13-9 참조).

〈표 13-9〉 임산물 재배작물별 임가 및 재배면적

(단위: 가구, ha, %)

특성별	임산물 재배작물별 임가 및 재배면적(2005년)											
	취나무 (임가)	취나무 면적 (ha)	더덕 (임가)	더덕 면적 (ha)	도라지 (임가)	도라지 면적 (ha)	두릅 (임가)	두릅 면적 (ha)	기타 산나물 (임가)	기타 산나물 면적(ha)	참출 (임가)	참출 면적 (ha)
계	3,584	848	3,042	2,279	2,939	932	2,914	968	3,049	1,233	68	13
구성비	3.1	0.7	2.6	1.9	2.5	0.8	2.5	0.8	2.6	1.1	0.1	0.0
전업	371	110	259	378	207	122	138	61	273	133	1	0
구성비	4.0	1.2	2.8	4.0	2.2	1.3	1.5	0.6	2.9	1.4	0.0	0.0
겸업	3,213	738	2,783	1,900	2,732	810	2,776	907	2,776	1,099	67	13
구성비	3.0	0.7	2.6	1.8	2.5	0.7	2.6	0.8	2.6	1.0	0.1	0.0
1종 겸업	1,044	282	509	633	545	226	698	256	763	403	15	3
구성비	3.6	1.0	1.7	2.2	1.9	0.8	2.4	0.9	2.6	1.4	0.1	0.0
2종 겸업	2,169	456	2,274	1,267	2,187	584	2,078	651	2,013	696	52	10
구성비	2.7	0.6	2.9	1.6	2.8	0.7	2.6	0.8	2.5	0.9	0.1	0.0

특성별	임산물 재배작물별 임가 및 재배면적(2005년)									
	산수유 (임가)	산수유 면적 (ha)	오미자 (임가)	오미자 면적 (ha)	두충 (임가)	두충 면적 (ha)	욱 (임가)	욱 면적 (ha)	기타 약용작물 (임가)	기타 약용작물 면적(ha)
계	708	123	1,180	490	1,150	499	637	248	8,595	5,219
구성비	0.6	0.1	1.0	0.4	1.0	0.4	0.5	0.2	7.3	4.4
전업	42	10	70	47	76	55	33	46	431	614
구성비	0.4	0.1	0.7	0.5	0.8	0.6	0.4	0.5	4.6	6.6
겸업	666	114	1,110	442	1,074	444	604	202	8,164	4,605
구성비	0.6	0.1	1.0	0.4	1.0	0.4	0.6	0.2	7.6	4.3
1종 겸업	262	51	309	166	185	106	134	45	1,597	1,465
구성비	0.9	0.2	1.1	0.6	0.6	0.4	0.5	0.2	5.5	5.0
2종 겸업	404	63	801	277	889	339	470	157	6,567	3,140
구성비	0.5	0.1	1.0	0.4	1.1	0.4	0.6	0.2	8.3	4.0

(계속)

〈표 13-9〉 계속

(단위: 가구, ha, %)

특성별	임산물 재배작물별 임가 및 재배면적 (2005년)									
	조경수 (임가)	조경수 면적 (ha)	분재 (임가)	분재 면적 (ha)	야생화 (임가)	야생화 면적 (ha)	기타 관상작물 (임가)	기타 관상작물 면적(ha)	밤 (임가)	밤면적 (ha)
계	7,696	7,600	716	262	495	248	3,861	3,891	21,465	41,046
구성비	6.6	6.5	0.6	0.2	0.4	0.2	3.3	3.3	18.3	35.0
전업	1,119	1,773	221	92	113	78	774	945	1,136	2,727
구성비	12.0	19.0	2.4	1.0	1.2	0.8	8.3	10.1	12.1	29.2
겸업	6,577	5,828	495	171	382	171	3,087	2,947	20,329	38,318
구성비	6.1	5.4	0.5	0.2	0.4	0.2	2.9	2.7	18.8	35.5
1종 겸업	1,725	2,814	188	82	162	93	1,214	1,536	6,207	15,532
구성비	5.9	9.7	0.6	0.3	0.6	0.3	4.2	5.3	21.3	53.4
2종 겸업	4,852	3,013	307	88	220	77	1,873	1,411	14,122	22,786
구성비	6.1	3.8	0.4	0.1	0.3	0.1	2.4	1.8	17.9	28.9

특성별	임산물 재배작물별 임가 및 재배면적 (2005년)									
	호두 (임가)	호두 면적 (ha)	대추 (임가)	대추 면적 (ha)	뽕은감 (임가)	뽕은감 면적 (ha)	잣 (임가)	잣 면적 (ha)	은행 (임가)	은행 면적 (ha)
계	1,209	445	7,202	2,797	23,621	7,602	481	1,117	1,213	442
구성비	1.0	0.4	6.1	2.4	20.1	6.5	0.4	1.0	1.0	0.4
전업	118	47	601	341	1,230	481	21	63	74	58
구성비	1.3	0.5	6.4	3.6	13.2	5.1	0.2	0.7	0.8	0.6
겸업	1,091	398	6,601	2,456	22,391	7,121	460	1,054	1,139	384
구성비	1.0	0.4	6.1	2.3	20.7	6.6	0.4	1.0	1.1	0.4
1종 겸업	322	159	2,153	1,174	4,246	1,819	100	326	234	99
구성비	1.1	0.5	7.4	4.0	14.6	6.2	0.3	1.1	0.8	0.3
2종 겸업	769	239	4,448	1,282	18,145	5,302	360	728	905	285
구성비	1.0	0.3	5.6	1.6	23.0	6.7	0.5	0.9	1.1	0.4

(계속)

〈표 13-9〉 계속

(단위: 가구, ha, %)

특성별	임산물 재배작물별 임가 및 재배면적 (2005년)									
	복분자 (임가)	복분자 면적 (ha)	기타 유실수 (임가)	기타 유실수 면적(ha)	표고 (임가)	표고 면적 (ha)	표고 시설 (임가)	표고 시설면적 (ha)	표고 노지 (임가)	표고 노지면적 (ha)
계	7,742	2,197	1,927	955	5,750	2,509	4,017	1,412	2,141	1,096
구성비	6.6	1.9	1.6	0.8	4.9	2.1	3.4	1.2	1.8	0.9
전업	745	213	124	101	570	383	456	222	150	161
구성비	8.0	2.3	1.3	1.1	6.1	4.1	4.9	2.4	1.6	1.7
겸업	6,997	1,985	1,803	853	5,180	2,125	3,561	1,190	1,991	935
구성비	6.5	1.8	1.7	0.8	4.8	2.0	3.3	1.1	1.8	0.9
1종 겸업	1,485	636	473	263	2,165	1,245	1,611	695	757	550
구성비	5.1	2.2	1.6	0.9	7.4	4.3	5.5	2.4	2.6	1.9
2종 겸업	5,512	1,349	1,330	591	3,015	881	1,950	495	1,234	386
구성비	7.0	1.7	1.7	0.7	3.8	1.1	2.5	0.6	1.6	0.5

I. 자연환경

II. 농림어가의 인구와 가족

III. 한국농촌사회의 변화

IV. 농업

V. 임업

VI. 어업

제 2 절 임가 및 경영주 실태

임가의 구성

임가의 가구원 구성을 보면 2005년 조사에서는 2인 가구가 47.1%(45,748가구)로 가장 높았으며, 5인 이상 가구는 11.6%(11,273가구)에 불과하다. 1999년에도 2인 가구가 43.7%(28,941가구)로 가장 높았고, 5인 이상 가구가 10.2%(6,794가구)로 낮다. 그러나 2005년과 1999년 사이 임가의 가족구성은 임가 수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가족구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의 가족구성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다른 업종은 비교적 유사한 가족구성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채취업은 소규모 가족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 4인 가구 이하가 가장 낮은 76.0%를 보이고 있어 다른 업종이 80% 이상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표 13-10〉 참조).

임업 종사인원별 가구원수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2인 가구가 51.5%(50,044가구)로 가장 높고, 1인 가구가 44.5%(43,210가구)로 2인 가구 이하가 96.0%를 차지하고 있다. 1999년에 2인 가구가 43.8%(29,018가구), 1인 가구가 20.1%(13,339가구)로 2인 가구 이하가 63.9%인 것에 비해 임가에서

〈표 13-10〉 가구원수별 임가

(단위: 가구,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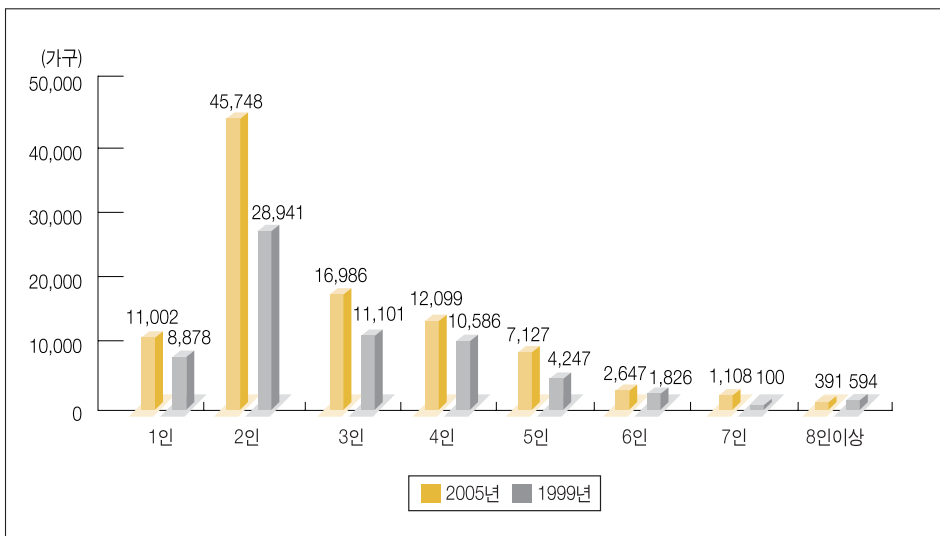
특성별	가구원수별 임가 (2005년)									
	임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이상 가구	가구원 총수(명)
계	97,108	11,002	45,748	16,986	12,099	7,127	2,647	1,108	391	264,416
구성비	100.0	11.3	47.1	17.5	12.5	7.3	2.7	1.1	0.4	
육림업	1,929	132	901	379	264	154	70	24	5	5,527
구성비	2.0	6.8	46.7	19.6	13.7	8.0	3.6	1.2	0.3	
벌목업	126	10	48	22	25	15	4	1	1	386
구성비	0.1	7.9	38.1	17.5	19.8	11.9	3.2	0.8	0.8	
채취업	6,883	644	3,203	1,248	919	537	221	80	31	19,300
구성비	7.1	9.4	46.5	18.1	13.4	7.8	3.2	1.2	0.5	
양묘업	527	41	172	109	107	62	23	11	2	1,681
구성비	0.5	7.8	32.6	20.7	20.3	11.8	4.4	2.1	0.4	
재배업	87,643	10,175	41,424	15,228	10,784	6,359	2,329	992	352	237,522
구성비	90.3	11.6	47.3	17.4	12.3	7.3	2.7	1.1	0.4	

(계속)

〈표 13-10〉 계속

(단위 : 가구, %)

특성별	가구원수별 임가(1999년)								
	임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이상 가구
계	66,300	8,878	28,941	11,101	10,586	4,274	1,826	100	594
구성비	100.0	13.4	43.7	16.7	16.0	6.4	2.8	0.2	0.9
육림업	14,568	2,576	5,403	2,322	2,568	1,082	430	29	158
구성비	22.0	17.7	37.1	15.9	17.6	7.4	3.0	0.2	1.1
벌목업	943	241	310	126	158	59	30	2	17
구성비	1.4	25.6	32.9	13.4	16.8	6.3	3.2	0.2	1.8
채취업	4,241	412	1,767	759	677	354	195	6	71
구성비	6.4	9.7	41.7	17.9	16.0	8.3	4.6	0.1	1.7
양묘업	141	19	46	24	30	14	6	1	1
구성비	0.2	13.5	32.6	17.0	21.3	9.9	4.3	0.7	0.7
재배업	45,468	5,483	21,135	7,722	6,922	2,675	1,137	60	334
구성비	68.6	12.1	46.5	17.0	15.2	5.9	2.5	0.1	0.7
사육업	939	147	280	148	231	90	28	2	13
구성비	1.4	15.7	29.8	15.8	24.6	9.6	3.0	0.2	1.4



〈그림 13-10〉 가구원수별 임가수

I. 지역현황

II. 농림어가의 인구와 가족

III. 한국농촌사회의 변화

IV. 농업

V. 임업

VI. 어업

임업활동에 종사하는 가족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3-11〉 참조).

임업 주 종사인원별 분포는 2005년에 8.4%(8,126가구)를 차지하고, 1999년에 20.8% (13,805가구)을 차지하여 위의 임업참여 가족수의 감소와 더불어 임업에 있어 노동력확보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임업 주 종사 인원별 임가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1인 가구 49.8%(4,046가구), 2인 가구가 46.5%(3,775가구)이며 2인 가구 이하가 96.3%를 나타내고 있다. 1999년에는 2인 가구가 47.7%(6,587가구), 1인 가구가 46.3%(6,398가구)로 2인 가구 이하가 94.0%를 나타내고 있어 큰 변화는 보여주지 않고 있다(〈표 13-11〉 참조).

산림이 없는 가구의 임업 종사인원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66.6%(64,636가구)를 차지하고, 1999년에는 38.9%(25,791가구)를 차지하여 비 산주 임업인의 증가가 눈에 띈다.

〈표 13-11〉 임업종사 가구원수별 임가

(단위: 가구, %)

특성별	임가	임업종사 가구원수별 임가 (2005년)									
		임업 종사인원별 임가					임업 주종사인원별 임가				
		1인	2인	3인	4인이상	계	1인	2인	3인	4인이상	
계	97,108	43,210	50,044	3,030	824	8,126	4,046	3,775	244	61	
구성비	100.0	44.5	51.5	3.1	0.8	8.4	49.8	46.5	3.0	0.8	
무소유	64,636	29,612	32,618	1,896	510	4,234	2,083	2,006	125	20	
구성비	66.6	45.8	50.5	2.9	0.8	6.6	49.2	47.4	3.0	0.5	
0.6ha 미만	3,446	1,541	1,799	88	18	400	225	171	3	1	
구성비	3.5	44.7	52.2	2.6	0.5	11.6	56.3	42.8	0.8	0.3	
0.6~1ha	6,395	2,460	3,686	192	57	630	353	259	14	4	
구성비	6.6	38.5	57.6	3.0	0.9	9.9	56.0	41.1	2.2	0.6	
1~3ha	10,951	4,041	6,418	383	109	1,196	591	555	37	13	
구성비	11.3	36.9	58.6	3.5	1.0	10.9	49.4	46.4	3.1	1.1	
3~5ha	5,419	2,387	2,757	221	54	644	296	314	26	8	
구성비	5.6	44.0	50.9	4.1	1.0	11.9	46.0	48.8	4.0	1.2	
5~10ha	3,975	1,955	1,817	158	45	590	271	287	25	7	
구성비	4.1	49.2	45.7	4.0	1.1	14.8	45.9	48.6	4.2	1.2	
10~30ha	1,742	906	737	76	23	294	147	134	9	4	
구성비	1.8	52.0	42.3	4.4	1.3	16.9	50.0	45.6	3.1	1.4	
30ha 이상	544	308	212	16	8	138	80	49	5	4	
구성비	0.6	56.6	39.0	2.9	1.5	25.4	58.0	35.5	3.6	2.9	

(계속)

〈표 13-11〉 계속

(단위: 가구, %)

특성별	임가	임업종사 가구원수별 임가 (1999년)								
		임업종사				그 중 임업주종사				
		1인	2인	3인	4인이상	계	1인	2인	3인	4인이상
계	66,300	13,339	29,018	9,885	14,058	13,805	6,398	6,587	643	177
구성비	100.0	20.1	43.8	14.9	21.2	20.8	46.3	47.7	4.7	1.3
무소유	25,791	4,685	11,059	4,020	6,027	6,523	2,950	3,189	314	70
구성비	38.9	18.2	42.9	15.6	23.4	25.3	45.2	48.9	4.8	1.1
0.6ha 미만	4,217	829	1,965	623	800	1,132	503	567	51	11
구성비	6.4	19.7	46.6	14.8	19.0	26.8	44.4	50.1	4.5	1.0
0.6~1ha	5,059	1,027	2,481	708	843	1,084	487	540	46	11
구성비	7.6	20.3	49.0	14.0	16.7	21.4	44.9	49.8	4.2	1.0
1~3ha	11,186	2,265	5,450	1,581	1,890	2,242	1,054	1,047	104	37
구성비	16.9	20.2	48.7	14.1	16.9	20.0	47.0	46.7	4.6	1.7
3~5ha	8,788	2,012	3,610	1,303	1,863	1,134	550	513	51	20
구성비	13.3	22.9	41.1	14.8	21.2	12.9	48.5	45.2	4.5	1.8
5~10ha	6,508	1,448	2,600	974	1,486	937	448	428	47	14
구성비	9.8	22.2	40.0	15.0	22.8	14.4	47.8	45.7	5.0	1.5
10~30ha	3,427	752	1,345	503	827	496	247	218	23	8
구성비	5.2	21.9	39.2	14.7	24.1	14.5	49.8	44.0	4.6	1.6
30ha 이상	1,324	321	508	173	322	257	159	85	7	6
구성비	2.0	24.2	38.4	13.1	24.3	19.4	61.9	33.1	2.7	2.3

I. 자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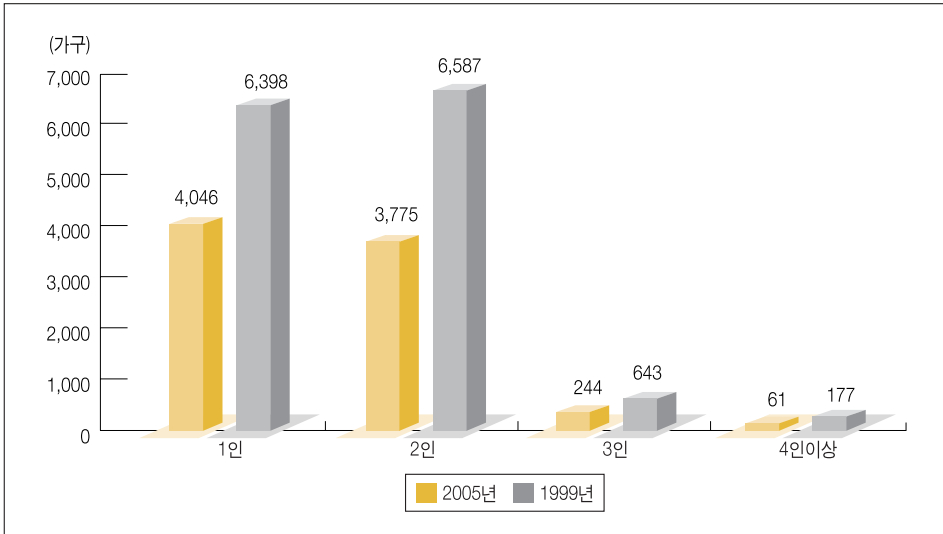
II. 농림어가의 인구와 가족

III.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

IV. 농업

V. 임업

VI. 어업



〈그림 13-11〉 임업종사 인원별 임가수

경영주 특성

경영주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05년 조사에서는 60세 이상이 53.0%(51,505가구)로 가장 높고, 40~59세가 43.4%(42,124가구)로 높았고, 25~39세 3.6%(3,463가구), 24세 미만이 0.02%(16가구)로 가장 낮다. 1999년 조사에서는 60세 이상이 50.6%(33,574가구)로 가장 높았고, 40~59세가 43.6%(28,874가구)로 높았고, 25~39세가 5.4%(3,576가구), 24세 이하가 0.4%(276가구)로 젊은 층은 매우 낮다. 이는 우리나라 임업인의 인구가 고령화 현상에 따른 결과라고 풀이할 수 있다. 2005년 조사와 1999년 조사와의 변화는 40대 이상 계층이 그대로 상향 이동하여 고령임가로 잔류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표 13-12〉 참조).

(표 13-12) 경영주 연령별 임가

(단위 : 가구, %)

특성별	임가	경영주 연령별 (2005년)			
		24세 미만	25~39세	40~59세	60세 이상
계	97,108	16	3,463	42,124	51,505
구성비	100.0	0.02	3.6	43.4	53.0
무소유	64,636	13	2,418	29,016	33,189
구성비	66.6	0.02	3.7	44.9	51.3
0.6ha 미만	3,446	1	113	1,251	2,081
구성비	3.5	0.0	3.3	36.3	60.4
0.6~1ha	6,395	-	167	2,155	4,073
구성비	6.6	-	2.6	33.7	63.7
1~3ha	10,951	1	346	4,203	6,401
구성비	11.3	0.01	3.2	38.4	58.5
3~5ha	5,419	1	174	2,433	2,811
구성비	5.6	0.02	3.2	44.9	51.9
5~10ha	3,975	-	152	1,891	1,932
구성비	4.1	-	3.8	47.6	48.6
10~30ha	1,742	-	75	878	789
구성비	1.8	-	4.3	50.4	45.3
30ha 이상	544	-	18	297	229
구성비	0.6	-	3.3	54.6	42.1

특성별	임가	경영주 연령별 (1999년)			
		24세 미만	25~39세	40~59세	60세 이상
계	66,300	276	3,576	28,874	33,574
구성비	100.0	0.4	5.4	43.6	50.6
무소유	25,791	111	1,364	11,216	13,100
구성비	38.9	0.4	5.3	43.5	50.8
0.6ha 미만	4,217	15	206	1,842	2,154
구성비	6.4	0.4	4.9	43.7	51.1
0.6~1ha	5,059	18	261	2,092	2,688
구성비	7.6	0.4	5.2	41.4	53.1
1~3ha	11,186	36	593	4,695	5,862
구성비	16.9	0.3	5.3	42.0	52.4
3~5ha	8,788	45	499	3,895	4,349
구성비	13.3	0.5	5.7	44.3	49.5

(계속)

I. 자연환경

II. 농림어가의 인구와 가족

III. 한국농촌사회의 변화

IV.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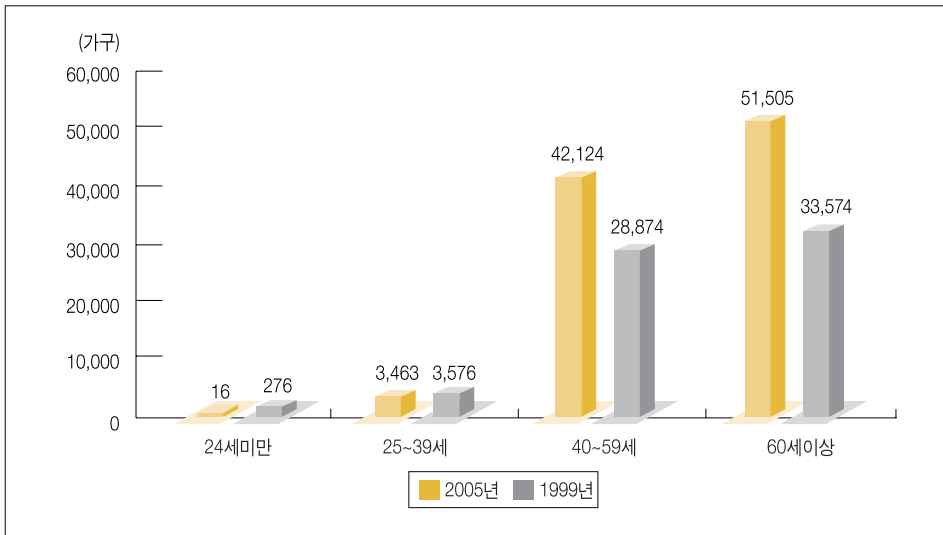
V. 임업

VI. 어업

〈표 13-12〉 계속

(단위 : 가구, %)

특성별	임가	경영주 연령별 (1999년)			
		24세 미만	25~39세	40~59세	60세 이상
5~10ha	6,508	30	369	2,946	3,163
구성비	9.8	0.5	5.7	45.3	48.6
10~30ha	3,427	12	211	1,549	1,655
구성비	5.2	0.4	6.2	45.2	48.3
30ha 이상	1,324	9	73	639	603
구성비	2.0	0.7	5.5	48.3	45.5



〈그림 13-12〉 경영주 연령별 임가수

경영주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무학이나 초졸이 51.6%(50,100가구)로 가장 높고, 고졸 이상은 30.2%로 낮다. 1999년에는 무학이나 초졸이 44.8%(31,281가구)로 가장 높고, 고졸 이상은 24.6%로 낮음을 알 수 있다. 교육정도와 산림보유면적과의 관계는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산림보유면적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산림보유규모가 클수록 부채산주로서 외지에서 다른 업종에 종사하면서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소규모 산주는 소재산주로 지역에 거주하는 연로한 가구주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경향은 1999년보다 2005년에 더욱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13-13〉 참조).

〈표 13-13〉 경영주 교육정도별 임가

(단위: 가구, %)

특성별	임가	경영주 교육정도별 (2005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이상	무응답
계	97,108	13,483	36,617	17,640	20,916	8,452	-
구성비	100.0	13.9	37.7	18.2	21.5	8.7	
무소유	64,636	8,605	23,957	12,112	14,356	5,606	-
구성비	66.6	13.3	37.1	18.7	22.2	8.7	
0.6ha 미만	3,446	665	1,306	564	658	253	-
구성비	3.5	19.3	37.9	16.4	19.1	7.3	
0.6~1ha	6,395	1,390	2,701	1,000	964	340	-
구성비	6.6	21.7	42.2	15.6	15.1	5.3	
1~3ha	10,951	1,778	4,677	1,813	1,993	690	-
구성비	11.3	16.2	42.7	16.6	18.2	6.3	
3~5ha	5,419	580	2,049	1,010	1,237	543	-
구성비	5.6	10.7	37.8	18.6	22.8	10.0	
5~10ha	3,975	319	1,358	744	1,030	524	-
구성비	4.1	8.0	34.2	18.7	25.9	13.2	
10~30ha	1,742	120	469	317	509	327	-
구성비	1.8	6.9	26.9	18.2	29.2	18.8	
30ha 이상	544	26	100	80	169	169	-
구성비	0.6	4.8	18.4	14.7	31.1	31.1	

주: (-)는 미공표 자료임

특성별	임가	경영주 교육정도별 (1999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이상	무응답
계	69,700	7,899	23,382	10,924	12,716	4,434	10,345
구성비	100.0	11.3	33.5	15.7	18.2	6.4	14.8
무소유	25,791	3,189	9,415	4,639	5,007	1,405	2,136
구성비	37.0	12.4	36.5	18.0	19.4	5.4	8.3
0.6ha 미만	4,217	503	1,521	698	792	296	407
구성비	6.1	11.9	36.1	16.6	18.8	7.0	9.7
0.6~1ha	4,959	630	1,888	825	856	186	574
구성비	7.1	12.7	38.1	16.6	17.3	3.8	11.6
1~3ha	11,186	1,450	4,009	1,742	1,957	732	1,296
구성비	16.0	13.0	35.8	15.6	17.5	6.5	11.6

(계속)

I. 자연환경

II. 농림어가의 인구와 가족

III. 한국농촌사회의 변화

IV.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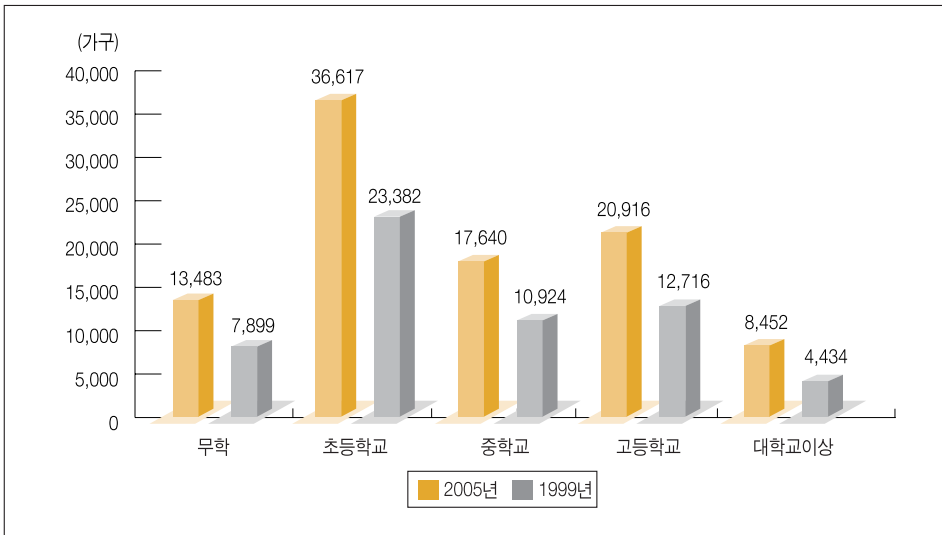
V. 임업

VI. 어업

〈표 13-13〉 계속

(단위: 가구, %)

특성별	임가	경영주 교육정도별 (1999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이상	무응답
3~5ha	8,788	985	2,916	1,368	1,737	736	1,046
구성비	12.6	11.2	33.2	15.6	19.8	8.4	11.9
5~10ha	10,008	680	2,135	926	1,359	620	4,288
구성비	14.4	6.8	21.3	9.3	13.6	6.2	42.8
10~30ha	3,427	352	1,091	521	727	324	412
구성비	4.9	10.3	31.8	15.2	21.2	9.5	12.0
30ha 이상	1,324	110	407	205	281	135	186
구성비	1.9	8.3	30.7	15.5	21.2	10.2	14.0



〈그림 13-13〉 경영주 교육정도별 임가수

임가의 인구학적 특성

2005년의 임가 인구는 1999년보다 61.0%(100천명)가 증가한 264천명을 기록하고 있다. 성별 임가 인구를 살펴보면, 2005년에 여성이 50.4%로 남성보다 약간 많으나, 1999년에 남성이 52.1%로 여성보다 약간 많았다.

연령계층별 임가 인구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60대가 22.3%로 가장 높고 1999년에도 60대가 2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5년과 1999년 조사의 큰 특징은 50대 이상이 그대로 상향 이동하여 고령인구로 잔류하는 추세이고, 임가 인구의 고령화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성별 임가 인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30대 이하 청년층은 남성의 비중이 높았으나, 40대 이상 장년층, 고령층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표 13-14〉 참조).

〈표 13-14〉 연령계층 및 성별 임가 인구

(단위: 명, %)

특성별	연령계층 및 성별 임가 인구(2005년)			연령계층 및 성별 임가 인구(1999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64,416	131,074	133,342	164,248	85,577	78,671
구성비	100.0	49.6	50.4	100.0	52.1	47.9
0~9세	13,675	7,287	6,388	3,680	1,961	1,719
구성비	5.2	53.3	46.7	2.2	53.3	46.7
10~19세	23,826	12,809	11,017	12,874	6,891	5,983
구성비	9.0	53.8	46.2	7.8	53.5	46.5
20~29세	20,108	11,305	8,803	17,382	10,589	6,793
구성비	7.6	56.2	43.8	10.6	60.9	39.1
30~39세	17,432	9,326	8,106	13,977	7,425	6,552
구성비	6.6	53.5	46.5	8.5	53.1	46.9
40~49세	36,895	17,502	19,393	26,373	12,981	13,392
구성비	14.0	47.4	52.6	16.1	49.2	50.8
50~59세	52,211	25,130	27,081	33,748	16,866	16,882
구성비	19.7	48.1	51.9	20.5	50.0	50.0
60~69세	58,950	29,033	29,917	36,239	18,978	17,261
구성비	22.3	49.3	50.7	22.1	52.4	47.6
70세 이상	41,319	18,682	22,637	19,975	9,886	10,089
구성비	15.6	45.2	54.8	12.2	49.5	50.5

15세 이상 주종사 분야별 임가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임가 인구 중 임업종사인구가 65.3%를 차지하였다. 15세 이상 주 종사 분야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농업이 67.1%로 가장 높고, 임업은 5.3%에 불과하다. 1999년에는 농업이 48.5%로 가장 높고, 임업은 13.9%로 나타나 2005년에는 임업이 공히 축소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업노동력의 고령화와 젊은 층의 기피가 심화되고 있고 반면 40대 이하 젊은 층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 상대적으로 더 유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13-15〉 참조).

〈표 13-15〉 15세 이상 주종사 분야별 임가 인구

(단위 : 명, %)

특성별	임가 인구	임업 종사 인구	15세 이상 주종사분야별 임가 인구 (2005년)								
			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산업	무종사
계	238,676	155,765	160,147	12,583	507	2,177	1,809	2,881	2,702	17,607	38,257
구성비	100.0	65.3	67.1	5.3	0.2	0.9	0.8	1.2	1.1	7.4	16.0
19세 미만	11,761	105	76	5	-	12	2	6	3	92	11,559
구성비	4.9	0.1	0.05	0.04	-	0.55	0.11	0.21	0.11	0.52	30.21
20~29세	20,108	1,625	1,948	163	18	610	255	306	163	5,511	11,134
구성비	8.4	1.0	1.2	1.3	3.6	28.0	14.1	10.6	6.0	31.3	29.1
30~39세	17,432	8,068	8,358	866	39	467	486	426	376	4,211	2,203
구성비	7.3	5.2	5.2	6.9	7.7	21.5	26.9	14.8	13.9	23.9	5.8
40~49세	36,895	27,570	26,490	2,238	130	531	566	799	996	3,804	1,341
구성비	15.5	17.7	16.5	17.8	25.6	24.4	31.3	27.7	36.9	21.6	3.5
50~59세	52,211	42,786	42,209	3,116	162	403	364	898	837	3,044	1,178
구성비	21.9	27.5	26.4	24.8	32.0	18.5	20.1	31.2	31.0	17.3	3.1
60~69세	58,950	49,780	52,171	3,631	124	132	119	377	271	797	1,328
구성비	24.7	32.0	32.6	28.9	24.5	6.1	6.6	13.1	10.0	4.5	3.5
70세 이상	41,319	25,831	28,895	2,564	34	22	17	69	56	148	9,514
구성비	17.3	16.6	18.0	20.4	6.7	1.0	0.9	2.4	2.1	0.8	24.9

(계속)

〈표 13-15〉 계속

(단위: 명, %)

특성별	임가인구	15세 이상 주종사분야별 임가인구 (1999년)			
		농업	임업	학생	기타
계	156,039	75,725	21,622	12,614	46,078
구성비	100.0	48.5	13.9	8.1	29.5
무소유	61,785	31,901	10,281	5,377	14,226
구성비	39.6	42.1	47.5	42.6	30.9
0.6ha 미만	9,885	4,816	1,787	812	2,470
구성비	6.3	6.4	8.3	6.4	5.4
0.6~1.0ha	11,404	6,259	1,700	811	2,634
구성비	7.3	8.3	7.9	6.4	5.7
1.0~3.0ha	25,566	13,359	3,511	1,767	6,929
구성비	16.4	17.6	16.2	14.0	15.0
3.0~5.0ha	20,598	8,854	1,752	1,672	8,320
구성비	13.2	11.7	8.1	13.3	18.1
5.0~10.0ha	15,491	6,353	1,463	1,248	6,427
구성비	9.9	8.4	6.8	9.9	13.9
10~30ha	8,186	3,196	764	677	3,549
구성비	5.2	4.2	3.5	5.4	7.7
30ha 이상	3,124	987	364	250	1,523
구성비	2.0	1.3	1.7	2.0	3.3

15세 이상 임업종사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임업에 종사하지 않는 인구가 34.7%였다. 임업종사기간을 살펴보면 6개월 이상이 26.4%로 가장 높고, 3개월 미만은 22.8%를 차지하였다.

1999년에는 1~3개월 사이가 33.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1개월 미만이 30.4%로 높아 3개월 미만은 63.4%를 차지하였다. 3개월 미만의 종사기간이 크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성별 임업종사기간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남성은 6개월 이상이 가장 높고, 여성도 6개월 이상이 가장 높다. 1999년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6개월 이상이 가장 높고, 3~6개월 사이가 다음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표 13-16〉 참조).

I. 자연환경

II. 농림어가의 인구와 가족

III.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

IV. 농업

V. 임업

VI. 어업



〈표 13-16〉 15세 이상 임금증사기간 및 성별 임가 인구

(단위 : 명, %)

특성별	15세 이상 임금증사기간 및 성별 임가 인구 (2005년)								
	15세 이상 임가 인구			없음			1개월 미만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238,676	117,238	121,438	82,911	27,258	55,653	11,299	7,024	4,275
19세 미만	11,761	6,260	5,501	11,656	6,200	5,456	40	26	14
구성비	4.9	53.2	46.8	14.1	53.2	46.8	0.4	65.0	35.0
20~29세	20,108	11,305	8,803	18,483	10,221	8,262	260	171	89
구성비	8.4	56.2	43.8	22.3	55.3	44.7	2.3	65.8	34.2
30~39세	17,432	9,326	8,106	9,364	4,667	4,697	685	423	262
구성비	7.3	53.5	46.5	11.3	49.8	50.2	6.1	61.8	38.2
40~49세	36,895	17,502	19,393	9,325	1,608	7,717	2,127	1,310	817
구성비	15.5	47.4	52.6	11.2	17.2	82.8	18.8	61.6	38.4
50~59세	52,211	25,130	27,081	9,425	801	8,624	2,992	1,869	1,123
구성비	21.9	48.1	51.9	11.4	8.5	91.5	26.5	62.5	37.5
60~69세	58,950	29,033	29,917	9,170	821	8,349	3,349	2,068	1,281
구성비	24.7	49.3	50.7	11.1	9.0	91.0	29.6	61.7	38.3
70세 이상	41,319	18,682	22,637	15,488	2,940	12,548	1,846	1,157	689
구성비	17.3	45.2	54.8	18.7	19.0	81.0	16.3	62.7	37.3

특성별	15세 이상 임금증사기간 및 성별 임가 인구 (2005년)								
	1~3개월			3~6개월			6개월 이상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43,274	25,037	18,237	38,212	21,728	16,484	62,980	36,191	26,789
19세 미만	25	15	10	11	6	5	29	13	16
구성비	0.1	60.0	40.0	0.0	54.5	45.5	0.05	44.8	55.2
20~29세	471	314	157	331	219	112	563	380	183
구성비	1.1	66.7	33.3	0.9	66.2	33.8	0.9	67.5	32.5
30~39세	2,134	1,229	905	1,930	1,079	851	3,319	1,928	1,391
구성비	4.9	57.6	42.4	5.1	55.9	44.1	5.3	58.1	41.9
40~49세	7,579	4,390	3,189	6,732	3,806	2,926	11,132	6,388	4,744
구성비	17.5	57.9	42.1	17.6	56.5	43.5	17.7	57.4	42.6
50~59세	11,565	6,632	4,933	10,470	5,807	4,663	17,759	10,021	7,738
구성비	26.7	57.3	42.7	27.4	55.5	44.5	28.2	56.4	43.6
60~69세	14,093	7,941	6,152	12,583	7,041	5,542	19,755	11,162	8,593
구성비	32.6	56.3	43.7	32.9	56.0	44.0	31.4	56.5	43.5
70세 이상	7,407	4,516	2,891	6,155	3,770	2,385	10,423	6,299	4,124
구성비	17.1	61.0	39.0	16.1	61.3	38.7	16.5	60.4	39.6

(계속)

〈표 13-16〉 계속

(단위: 명, %)

특성별	15세 이상 임업종사기간 및 성별 임가 인구(1999년)											
	1개월 미만						1~3개월					
	종사인구			임업주종사인구			종사인구			임업주종사인구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27,455	14,848	12,607	900	456	444	29,499	15,889	13,610	3,038	1,622	1,416
구성비	30.4	54.1	45.9	4.7	50.7	49.3	32.7	53.9	46.1	16.0	53.4	46.6
무소유	11,172	5,669	5,503	385	179	206	12,229	6,592	5,637	1,133	588	545
구성비	40.7	50.7	49.3	42.8	46.5	53.5	41.5	53.9	46.1	37.3	51.9	48.1
0.2ha 미만	487	240	247	22	10	12	607	302	305	47	25	22
구성비	1.8	49.3	50.7	2.4	45.5	54.5	2.1	49.8	50.2	1.5	53.2	46.8
0.2~0.6ha	976	496	480	42	22	20	1,337	707	630	166	93	73
구성비	3.6	50.8	49.2	4.7	52.4	47.6	4.5	52.9	47.1	5.5	56.0	44.0
0.6~1ha	2,165	1,071	1,094	76	35	41	2,865	1,494	1,371	271	143	128
구성비	7.9	49.5	50.5	8.4	46.1	53.9	9.7	52.1	47.9	8.9	52.8	47.2
1~3ha	4,785	2,514	2,271	171	87	84	6,177	3,232	2,945	648	343	305
구성비	17.4	52.5	47.5	19.0	50.9	49.1	20.9	52.3	47.7	21.3	52.9	47.1
3~5ha	3,446	2,072	1,374	75	41	34	2,980	1,632	1,348	321	170	151
구성비	12.6	60.1	39.9	8.3	54.7	45.3	10.1	54.8	45.2	10.6	53.0	47.0
5~10ha	2,554	1,585	969	76	45	31	2,065	1,159	906	289	164	125
구성비	9.3	62.1	37.9	8.4	59.2	40.8	7.0	56.1	43.9	9.5	56.7	43.3
10~30ha	1,389	895	494	35	24	11	909	557	352	127	73	54
구성비	5.1	64.4	35.6	3.9	68.6	31.4	3.1	61.3	38.7	4.2	57.5	42.5
30ha 이상	481	306	175	18	13	5	330	214	116	36	23	13
구성비	1.8	63.6	36.4	2.0	72.2	27.8	1.1	64.8	35.2	1.2	63.9	36.1

(계속)

I. 자연환경

II. 농림어가의 인구와 가족

III.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

IV. 농업

V. 임업

VI. 어업



〈표 13-16〉 계속

(단위 : 명, %)

특성별	15세 이상 임업종사기간 및 성별 임가 인구 (1999년)											
	3~6개월						6개월 이상					
	종사인구			임업주종사인구			종사인구			임업주종사인구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15,223	8,652	6,571	4,780	2,819	1,961	17,992	10,021	7,971	10,316	5,905	4,411
구성비	16.9	56.8	43.2	25.1	59.0	41.0	20.0	55.7	44.3	54.2	57.2	42.8
무소유	7,252	4,069	3,183	2,131	1,217	914	9,445	5,227	4,218	5,486	3,071	2,415
구성비	47.6	56.1	43.9	44.6	57.1	42.9	52.5	55.3	44.7	53.2	56.0	44.0
0.2ha 미만	470	254	216	137	82	55	606	322	284	323	182	141
구성비	3.1	54.0	46.0	2.9	59.9	40.1	3.4	53.1	46.9	3.1	56.3	43.7
0.2~0.6ha	854	482	372	252	152	100	1,171	624	547	581	322	259
구성비	5.6	56.4	43.6	5.3	60.3	39.7	6.5	53.3	46.7	5.6	55.4	44.6
0.6~1ha	1,289	734	555	426	263	163	1,335	725	610	717	399	318
구성비	8.5	56.9	43.1	8.9	61.7	38.3	7.4	54.3	45.7	7.0	55.6	44.4
1~3ha	2,625	1,525	1,100	933	566	367	2,296	1,255	1,041	1,309	740	569
구성비	17.2	58.1	41.9	19.5	60.7	39.3	12.8	54.7	45.3	12.7	56.5	43.5
3~5ha	1,311	751	560	416	248	168	1,289	749	540	709	430	279
구성비	8.6	57.3	42.7	8.7	59.6	40.4	7.2	58.1	41.9	6.9	60.6	39.4
5~10ha	859	495	364	282	167	115	1,052	611	441	641	396	245
구성비	5.6	57.6	42.4	5.9	59.2	40.8	5.8	58.1	41.9	6.2	61.8	38.2
10~30ha	413	247	166	151	89	62	530	333	197	346	223	123
구성비	2.7	59.8	40.2	3.2	58.9	41.1	2.9	62.8	37.2	3.4	64.5	35.5
30ha 이상	150	95	55	52	35	17	268	175	93	204	142	62
구성비	1.0	63.3	36.7	1.1	67.3	32.7	1.5	65.3	34.7	2.0	69.6	30.4

제 14 장 임산물 생산 및 판매

김세빈

I. 자연환경

II. 농림어가의 인구와 가족

III.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

IV. 농업

V. 임업

VI. 어업

제 1 절 임산물 채취 및 재배

임산물 채취

1. 종실류

버섯과 열매 채취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2005년에는 총 6,797임가 중에서 송이버섯이 77.3%(5,256가구)로 가장 많았고 1999년에도 총 3,787임가 중에서 송이버섯이 86.5% (3,271가구)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1999년에 비해 2005년에는 송이버섯 채취 임가의 비율이 낮아지고 채취버섯의 종류가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채취규모별로 살펴보면, 2005년에는 5~30kg 사이가 40.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30~100kg 사이가 36.1%를 차지한다. 임가 당 채취량은 153.5kg이고, 품목별 임가당 채취량은 기타 열매류가 796.9kg, 기타 버섯류가 435.4kg, 도토리가 85.4kg, 송이버섯이 58.4kg을 보이고 있다. 1999년에는 5~30kg 사이가 48.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0~100kg 사이가 32.1%를 차지한다. 2005년은 1999년에 비하여 30kg 이하의 비율이 낮아지고 대신에 30kg 이상의 임가 비중이 높아져 임가당 채취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4-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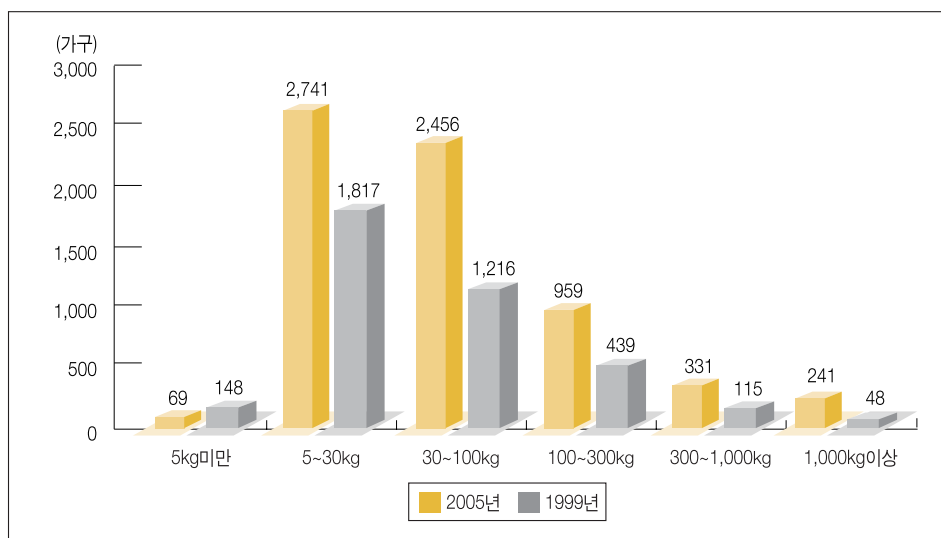
〈표 14-1〉 버섯·열매 채취규모별 임가 및 채취량

(단위: 가구, %, kg)

특성별	임가	버섯·열매 채취규모별 임가 및 채취량 (2005년)						채취량 (kg)
		5kg 미만	5~30kg	30~100kg	100~300kg	300~1,000kg	1,000kg 이상	
계	6,797	69	2,741	2,456	959	331	241	1,043,654
구성비	100.0	1.0	40.3	36.1	14.1	4.9	3.5	
송이버섯	5,256	42	2,339	2,092	621	138	24	307,102
구성비	77.3	0.8	44.5	39.8	11.8	2.6	0.5	
기타 버섯류	962	21	264	245	193	108	131	418,868
구성비	14.2	2.2	27.4	25.5	20.1	11.2	13.6	
도토리	202	3	69	62	54	14	-	17,256
구성비	3.0	1.5	34.2	30.7	26.7	6.9	-	
기타 열매류	377	3	69	57	91	71	86	300,428
구성비	5.5	0.8	18.3	15.1	24.1	18.8	22.8	

특성별	임가	버섯·열매 채취규모별 임가 및 채취량 (1999년)						채취량 (kg)
		5kg 미만	5~30kg	30~100kg	100~300kg	300~1,000kg	1,000kg 이상	
계	3,783	148	1,817	1,216	439	115	48	-
구성비	100.0	3.9	48.0	32.1	11.6	3.0	1.3	
송이버섯	3,271	128	1,651	1,096	319	72	5	-
구성비	86.5	3.9	50.5	33.5	9.8	2.2	0.2	
기타 버섯류	192	9	74	50	42	7	10	-
구성비	5.1	4.7	38.5	26.0	21.9	3.6	5.2	
도토리	263	10	80	67	68	35	3	-
구성비	7.0	3.8	30.4	25.5	25.9	13.3	1.1	
기타 열매류	57	1	12	3	10	1	30	-
구성비	1.5	1.8	21.1	5.3	17.5	1.8	52.6	

주: 1999년 채취량은 미공표 자료임



〈그림 14-1〉 버섯·열매 채취규모별 임가수

품목별 채취규모를 살펴보면, 2005년은 송이버섯, 기타버섯류, 도토리가 5~30kg 사이의 비율이 가장 높고 기타 열매류는 1,000kg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다. 1999년은 송이버섯, 기타 버섯류, 도토리가 5~30kg 사이의 비율이 가장 높고, 기타 열매류는 1,000kg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다. 2005년은 1999년에 비하여 송이버섯과 기타버섯류가 채취규모가 클수록 비율이 높아지고, 기타 열매류는 1,000kg 이상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2. 산채 및 약용식물

산나물 채취는 2005년에는 총 4,622가구 중에서 고사리가 46.4%(2,146가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취나물이 23.5%를 차지한다. 1999년에는 총 2,654임가 중에서 고사리가 43.1%(1,143가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취나물이 41.8%를 차지했다.

채취규모별 임가 분포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5~30kg 사이가 34.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30~100kg 사이가 28.5%를 차지한다. 임가 당 산나물의 채취량은 전국평균이 153.7 kg이고, 품목별로 기타 산나물이 203.4kg, 더덕이 153.9kg, 취나물이 146.4kg, 고사리가 133.9kg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9년에는 5~30kg 사이가 42.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0~100kg 사이가 22.1%를 차지하였다.

품목별 채취규모를 보면, 2005년은 취나물, 고사리, 더덕이 5~30kg 사이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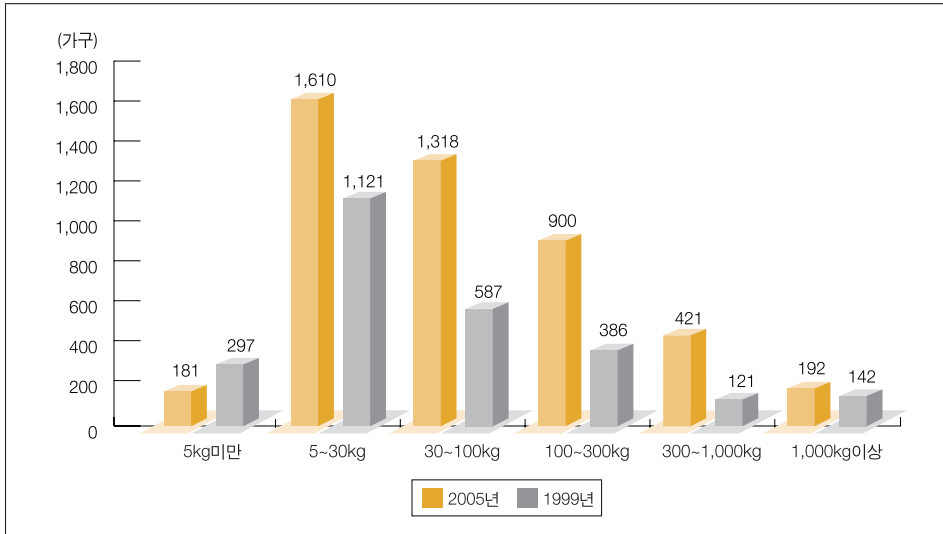
〈표 14-2〉 산나물 채취규모별 임가 및 채취량

(단위: 가구, kg, %)

특성별	임가	산나물 채취규모별 임가 및 채취량 (2005년)						채취량 (kg)
		5kg 미만	5~30kg	30~100kg	100~300kg	300~1,000kg	1,000kg 이상	
계	4,622	181	1,610	1,318	900	421	192	710,458
구성비	100.0	3.9	34.8	28.5	19.5	9.1	4.2	
취나물	1,086	38	370	304	245	92	37	159,017
구성비	23.5	3.5	34.1	28.0	22.6	8.5	3.4	
고사리	2,146	95	849	602	347	175	78	287,338
구성비	46.4	4.4	39.6	28.1	16.2	8.2	3.6	
더덕	376	25	148	96	56	34	17	57,875
구성비	8.1	6.6	39.4	25.5	14.9	9.0	4.5	
기타 산나물	1,014	23	243	316	252	120	60	206,228
구성비	21.9	2.3	24.0	31.2	24.9	11.8	5.9	

특성별	임가	산나물 채취규모별 임가 및 채취량 (1999년)						채취량 (kg)
		5kg 미만	5~30kg	30~100kg	100~300kg	300~1,000kg	1,000kg 이상	
계	2,654	297	1,121	587	386	121	142	-
구성비	100.0	11.2	42.2	22.1	14.5	4.6	5.4	
취나물	1,110	116	404	220	188	67	115	-
구성비	41.8	10.5	36.4	19.8	16.9	6.0	10.4	
고사리	1,143	129	554	300	124	30	6	-
구성비	43.1	11.3	48.5	26.2	10.8	2.6	0.5	
더덕	245	49	137	35	15	5	4	-
구성비	9.2	20.0	55.9	14.3	6.1	2.0	1.6	
기타 산나물	156	3	26	32	59	19	17	-
구성비	5.9	1.9	16.7	20.5	37.8	12.2	10.9	

주: 1999년 채취량은 미조사 자료임



〈그림 14-2〉 산나물 채취규모별 임가수

로 30~100kg 사이가 많고, 기타 산나물은 30~100kg 사이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1999년에는 취나물, 고사리, 더덕의 경우, 5~30kg 사이가 가장 높고, 기타 산나물은 100~300kg 사이가 가장 높다. 2005년에는 1999년에 비하여 고사리와 더덕이 30kg 이하의 비중이 줄어들고, 30kg 이상의 비중이 커져 앞서 버섯·열매와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14-2〉 참조). 이는 중국산 등 값싼 외국산의 수입에도 불구하고 청정 먹거리인 우리 임산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임가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좀 더 채취임산물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약용작물 채취는 2005년에는 총 992 임가 중에서 기타 약용작물이 76.3%(757가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칩(갈근)이 15.8%를 점한다. 1999년에는 총 262임가 중에서 기타 약용작물이 65.6%(172가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창출(백출)이 15.6%를 점한다.

〈표 14-3〉 약용작물 채취규모별 임가 및 채취량

(단위: 가구, kg, %)

특성별	임가	약용작물 채취규모별 임가 및 채취량 (2005년)					채취량 (kg)
		5kg 미만	50~100kg	100~300kg	300~1,000kg	1,000kg 이상	
계	992	216	118	257	249	152	524,693
구성비	100.0	21.8	11.9	25.9	25.1	15.3	
칩(갈근)	157	28	20	48	19	42	93,797
구성비	15.8	17.8	12.7	30.6	12.1	26.8	
창출(백출)	56	22	269	8	-	-	2,468
구성비	5.6	39.3	480.4	14.3	-	-	
음양곽	22	19	3	-	-	-	429
구성비	2.2	86.4	13.6	-	-	-	
기타 약용작물	757	147	69	201	230	110	427,999
구성비	76.3	19.4	9.1	26.6	30.4	14.5	

특성별	임가	약용작물 채취규모별 임가 및 채취량 (1999년)					채취량 (kg)
		5kg 미만	50~100kg	100~300kg	300~1,000kg	1,000kg 이상	
계	262	118	41	48	28	27	-
구성비	100.0	45.0	15.6	18.3	10.7	10.3	
칩(갈근)	31	12	6	8	2	3	-
구성비	11.8	38.7	19.4	25.8	6.5	9.7	
창출(백출)	41	29	5	5	1	1	-
구성비	15.6	70.7	12.2	12.2	2.4	2.4	
음양곽	18	12	4	1	-	1	-
구성비	6.9	66.7	22.2	5.6	-	5.6	
기타 약용작물	172	65	26	34	25	22	-
구성비	65.6	38	15	20	15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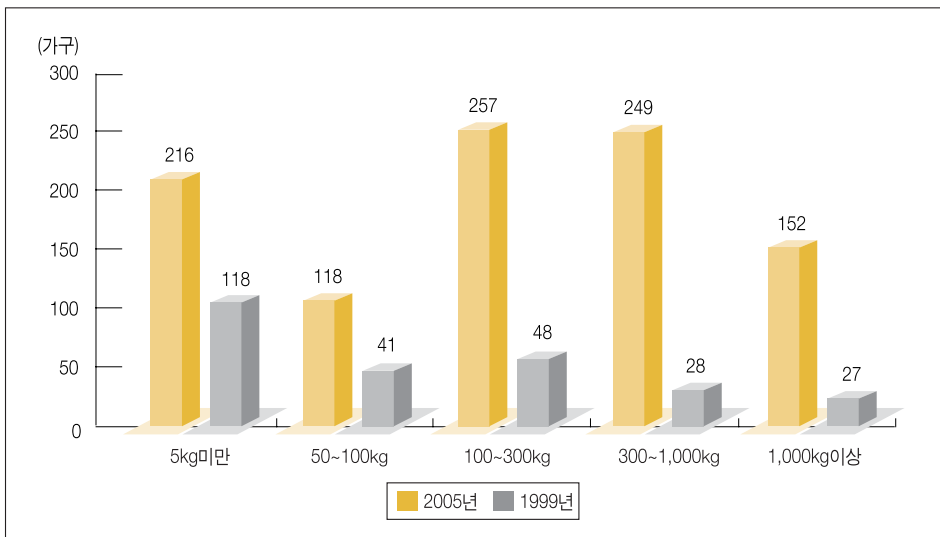
주: 1999년 채취량은 미공표 자료임

2005년은 1999년에 비하여 기타 약용작물과 칩(갈근) 채취 임가의 비중이 높아지고, 창출(백출)과 음양곽 채취 임가의 비중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채취규모별 임가로 살펴보면, 2005년에는 100~1,000kg 사이가 25~26%의 범위로 높다. 임가당 약용작물의 채취량은 전국 임가가 528.9kg이고, 품목별로 칩(갈근)이 597.4kg, 기타 약용작물이 565.4kg, 창출(백출)이 44.1kg, 음양곽이 19.5kg의 순으로 나타난다.

1999년에는 50kg 미만이 4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100~300kg 사이가 18.3%를 차지한다. 2005년은 1999년에 비하여 50kg 이상 약용작물 채취 임가의 비율이 높아진다.

품목별 채취규모를 살펴보면 2005년에 칩(갈근)이 100~300kg 규모, 창출(백출)이 50~100kg 규모, 음양곽이 50kg 이하 규모, 기타 약용작물이 300~1,000kg 규모의 임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9년에는 각 품목이 50kg 미만의 임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에 비하여 전 품목에서 채취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표 14-3〉 참조).



〈그림 14-3〉 약용작물 채취규모별 임가수

수액채취 임가를 살펴보면, 2005년은 총 1,974임가 중 98.2%(1,938가구)가 고로쇠를 채취한 임가였다. 임가당 수액 채취량은 1,903.9 l 이고, 품목별로 고로쇠가 1,923.6 l, 기타 수액이 843 l 의 순으로 나타난다(〈표 14-4〉 참조).



1999년에는 총 873 임가 중에서 91.2%(796가구)가 고로쇠 채취 임가이고 옷 수액채취임가는 1.8%(16가구)였다. 2005년은 1999년에 비하여 고로쇠 채취 임가의 비율이 높아졌고 이것은 전국의 여러 곳에서 고로쇠의 재배를 통해서 수액을 채취하여 판매하고 있는 현상을 대변하는 것이다.

수액채취에 있어서는 1999년에는 고로쇠, 거제수, 자작나무, 옷 등을 조사하였으나, 2005년에는 고로쇠와 기타 수액으로 단순화시켜서 직접 비교하기에는 어렵고, 특히 옷은 타 수액과 성격이 다른 것이다.

〈표 14-4〉 수액채취 규모별 임가 및 채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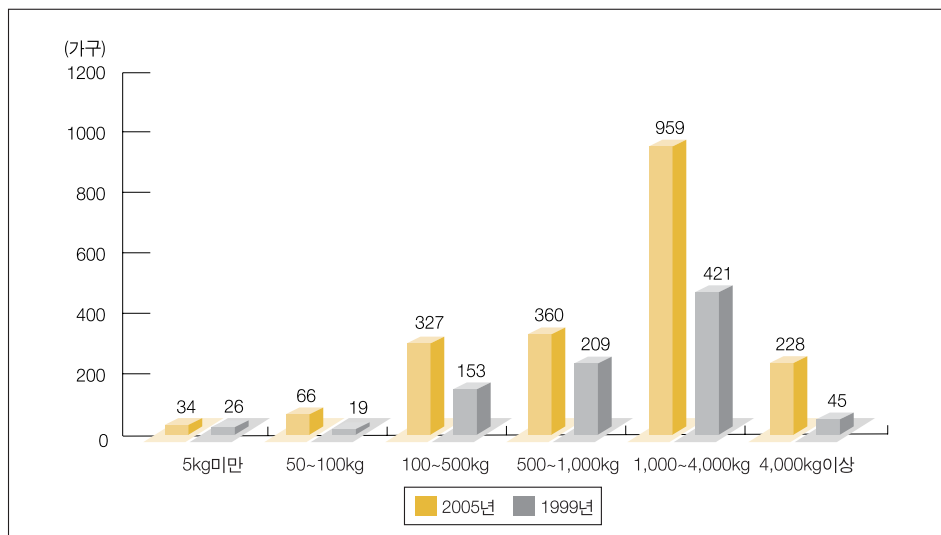
(단위: 가구, t, %)

특성별	수액 채취규모별 임가 및 채취량(2005년)							채취량 (t)
	임가	50t 미만	50~100t	100~500t	500~1,000t	1,000~4,000t	4,000t 이상	
계	1,974	34	66	327	360	959	228	3,758,288
구성비	100.0	1.7	3.3	16.6	18.2	48.6	11.6	
고로쇠	1,938	30	64	311	352	954	227	3,727,941
구성비	98.2	1.5	3.3	16.0	18.2	49.2	11.7	
기타 수액	36	4	2	16	8	5	1	30,347
구성비	1.8	11.1	5.6	44.4	22.2	13.9	2.8	

특성별	임가	수액 채취규모별 임가 및 채취량(1999년)					
		50t 미만	50~100t	100~500t	500~1,000t	1,000~4,000t	4,000t 이상
계	873	26	19	153	209	421	45
구성비	100.0	3.0	2.2	17.5	23.9	48.2	5.2
고로쇠	796	13	12	129	196	403	43
구성비	91.2	1.6	1.5	16.2	24.6	50.6	5.4
거제수	46	1	-	19	12	14	-
구성비	5.3	2.2	-	41.3	26.1	30.4	-
자작나무	6	1	-	2	1	2	-
구성비	0.7	16.7	-	33.3	16.7	33.3	-
옷	16	10	5	-	-	1	-
구성비	1.8	62.5	31.3	-	-	6.3	-
기타	9	1	2	3	-	1	2
구성비	1.0	11.1	22.2	33.3	-	11.1	22.2

최근 임업에 있어서도 3D업종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하여 특히 옷은 접촉성 알러지를 일으키는 성분을 가진 것으로 젊은 인력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 반면에 옷의 가치는 천연 칠 재료로서의 가치가 높게 인식되어 재배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채취 옷의 비중은 저조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수액채취 규모별로 살펴보면, 2005년과 1999년 조사에서 1,000~4,000 l 와 1,000~4,000 kg 사이가 각각 48.6%, 4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1999년에 비해 채취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4-4〉 수액 채취규모별 임가수

임산물 재배

1. 산채 및 약용식물

산나물 재배를 보면, 2005년은 총 15,528 임가 중에서 취나물이 23.1%(3,584가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더덕이 19.6%를 차지한다. 1999년은 총 5,140 임가 중에서 취나물이 41.5%(2,132가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도라지가 22.9%를 차지하였다. 2005년은 1999년에 비하여 취나물과 도라지 재배 임가의 비율이 낮아지고, 두릅 재배 임가의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표 14-5〉 참조).



산나물 재배면적규모별로 살펴보면, 2005년에는 0.1~0.5ha 사이가 46.3%로 가장 높다. 임가 당 산나물 재배면적은 0.4ha이고, 품목별로 더덕이 0.7ha, 기타 산나물이 0.4ha로 나타났다.

〈표 14-5〉 산나물 재배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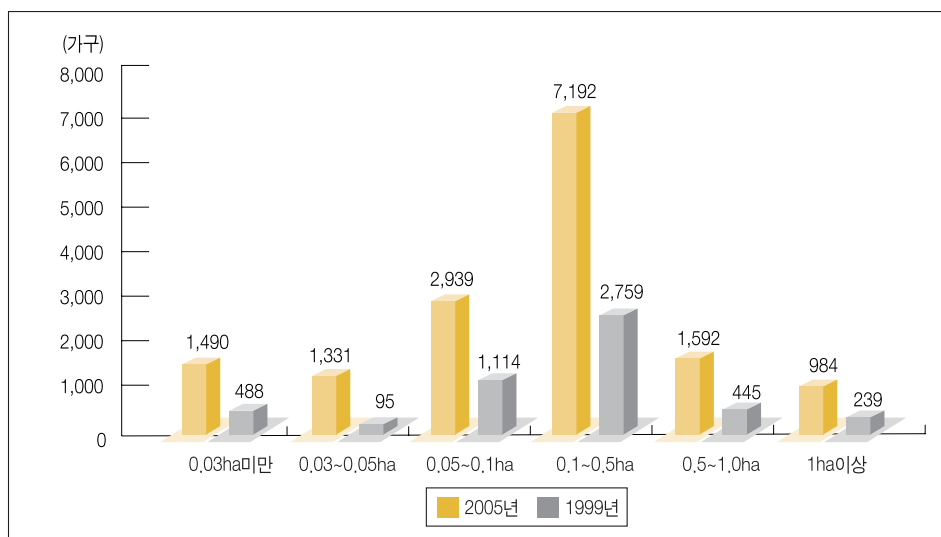
(단위: 가구, ha, %)

특성별	임가	산나물 재배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2005년)						면적 (ha)
		0.03ha 미만	0.03~0.05ha	0.05~0.1ha	0.1~0.5ha	0.5~1.0ha	1ha 이상	
계	15,528	1,490	1,331	2,939	7,192	1,592	984	6,259
구성비	100.0	9.6	8.6	18.9	46.3	10.3	6.3	
취나물	3,584	331	306	711	1,917	253	66	848
구성비	23.1	9.2	8.5	19.8	53.5	7.1	1.8	
더덕	3,042	231	193	438	1,297	451	432	2,279
구성비	19.6	7.6	6.3	14.4	42.6	14.8	14.2	
도라지	2,939	439	328	645	1,179	217	131	932
구성비	18.9	14.9	11.2	21.9	40.1	7.4	4.5	
두릅	2,914	338	314	574	1,270	283	135	968
구성비	18.8	11.6	10.8	19.7	43.6	9.7	4.6	
기타 산나물	3,049	151	190	571	1,529	388	220	1,233
구성비	19.6	5.0	6.2	18.7	50.1	12.7	7.2	

특성별	임가	산나물 재배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1999년)						면적 (ha)
		0.03ha 미만	0.03~0.05ha	0.05~0.1ha	0.1~0.5ha	0.5~1.0ha	1ha 이상	
계	5,140	488	95	1,114	2,759	445	239	-
구성비	100.0	9.5	1.8	21.7	53.7	8.7	4.6	
취나물	2,132	210	52	432	1,242	159	37	-
구성비	41.5	9.8	2.4	20.3	58.3	7.5	1.7	
더덕	1,014	73	12	209	501	129	90	-
구성비	19.7	7.2	1.2	20.6	49.4	12.7	8.9	
도라지	1,179	100	14	315	620	77	53	-
구성비	22.9	8.5	1.2	26.7	52.6	6.5	4.5	
두릅	415	60	8	77	196	44	30	-
구성비	8.1	14.5	1.9	18.6	47.2	10.6	7.2	
기타 산나물	400	45	9	81	200	36	29	-
구성비	7.8	11.3	2.3	20.3	50.0	9.0	7.3	

주: 1999년 채취량은 미공표 자료임

1999년에는 0.1~0.5ha 사이가 53.7%로 가장 높았다. 2005년은 1999년에 비하여 0.05~0.5ha 사이의 비율이 낮아지고, 0.5ha 이상의 비율이 높아져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에는 1999년에 비하여 0.5ha 이상의 재배규모에서 더덕재배 임가의 비율이 높아지고, 두릅 재배 임가의 비율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림 14-5〉 산나물 재배규모별 임가수

약용작물 재배를 보면, 2005년은 총 12,338 임가 중 기타약용작물이 69.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오미자와 더덕이 각각 9.6%, 9.3%를 차지한다. 1999년에는 총 3,035 임가 중 기타가 71.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두충이 17.8%를 차지한다. 2005년에는 1999년에 비하여 창출, 산수유, 두충의 재배임가 비중이 감소하고, 오미자 재배 임가의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재배면적 규모별로 살펴보면, 2005년은 0.1~0.5ha 사이가 52.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0.05~0.1ha 사이가 17.2%의 순으로 나타난다. 임가 당 재배면적은 0.5ha이고, 품목별로 기타 약용작물이 0.6ha, 오미자와 두충이 각각 0.4ha를 기록한다. 1999년은 0.1~0.5ha 사이가 56.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0.05~0.1ha가 24.3%를 차지한다. 2005년은 1999년에 비하여 0.05~0.5ha 규모의 재배임가 비율이 감소하고, 0.5ha 이상의 재배임가의 비중이 커져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4-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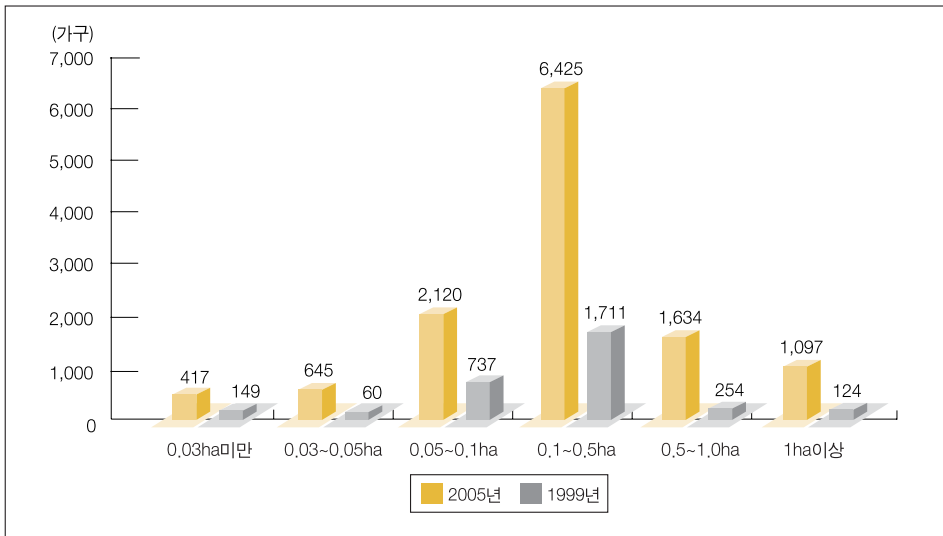
〈표 14-6〉 약용작물 재배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단위: 가구, ha, %)

특성별	임가	약용작물 재배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2005년)						면적 (ha)
		0.03ha 미만	0.03~ 0.05ha	0.05~ 0.1ha	0.1~ 0.5ha	0.5~ 1.0ha	1ha 이상	
계	12,338	417	645	2,120	6,425	1,634	1,097	6,593
구성비	100.0	3.4	5.2	17.2	52.1	13.2	8.9	
창출	68	12	4	23	26	1	2	13
구성비	0.6	17.6	5.9	33.8	38.2	1.5	2.9	
산수유	708	88	105	165	317	24	9	123
구성비	5.7	12.4	14.8	23.3	44.8	3.4	1.3	
오미자	1,180	28	20	137	749	177	69	490
구성비	9.6	2.4	1.7	11.6	63.5	15.0	5.8	
두충	1,150	33	47	177	664	164	65	499
구성비	9.3	2.9	4.1	15.4	57.7	14.3	5.7	
웃	637	91	59	98	288	63	38	248
구성비	5.2	14.3	9.3	15.4	45.2	9.9	6.0	
기타 약용작물	8,595	165	410	1,520	4,381	1,205	914	5,219
구성비	69.7	1.9	4.8	17.7	51.0	14.0	10.6	

특성별	임가	약용작물 재배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1999년)						면적 (ha)
		0.03ha 미만	0.03~ 0.05ha	0.05~ 0.1ha	0.1~ 0.5ha	0.5~ 1.0ha	1ha 이상	
계	3,035	149	60	737	1,711	254	124	-
구성비	100.0	4.9	2.0	24.3	56.4	8.4	4.1	
창출	46	5	-	14	19	5	3	-
구성비	1.5	10.9	-	30.4	41.3	10.9	6.5	
산수유	204	58	26	55	59	5	1	-
구성비	6.7	28.4	12.7	27.0	28.9	2.5	0.5	
오미자	85	9	-	15	50	7	4	-
구성비	2.8	10.6	-	17.6	58.8	8.2	4.7	
두충	539	18	7	88	324	72	30	-
구성비	17.8	3.3	1.3	16.3	60.1	13.4	5.6	
기타	2,161	59	27	565	1,259	165	86	-
구성비	71.2	2.7	1.2	26.1	58.3	7.6	4.0	

주: 1999년 면적은 미공표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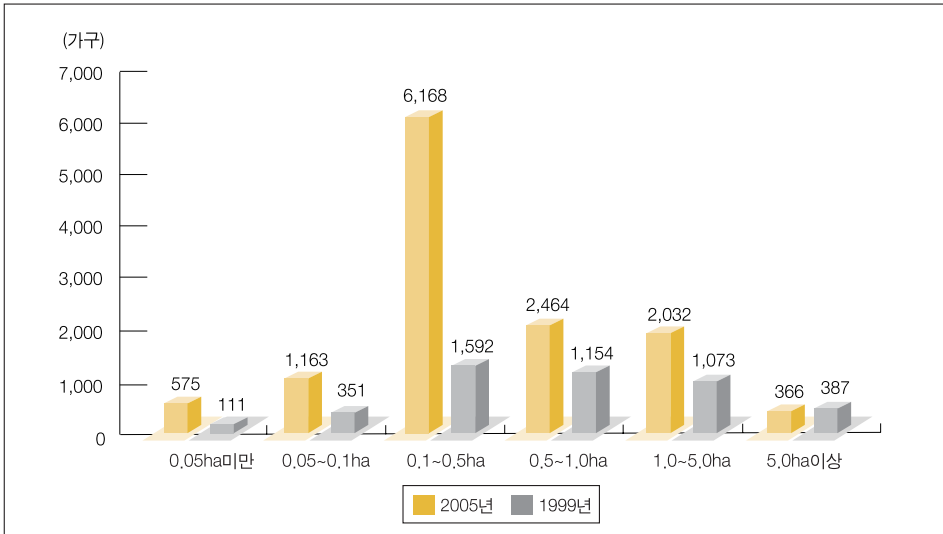


〈그림 14-6〉 약용작물 재배규모별 임가수

2. 관상작물

관상작물 재배를 보면, 2005년은 총 12,768 임가 중 조경수가 60.3%(7,696가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타 관상작물이 30.2%를 차지한다. 1999년은 관상작물의 재배 임가는 4,820가구이고, 그 중 조경수가 77.4%(3,732가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분재가 17.4%(836가구), 야생화가 5.2%(252가구)의 순이었다. 2005년에는 기타 관상식물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으나 1999년에는 조경수, 분재, 야생화의 3개항목만으로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항목의 차이로 인하여 2005년에는 각 항목의 비중이 축소되고 반면에 기타 관상작물이 30%를 차지하게 되었다.

재배면적 규모별로 살펴보면, 2005년에는 0.1~0.5ha 사이가 48.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0.5~1.0ha 규모가 19.3%였다. 관상작물의 임가 당 재배면적은 전국평균이 0.9ha이고, 품목별로 조경수와 기타관상작물이 각각 1.0ha, 야생화가 0.5ha, 분재가 0.4ha 순이었다.



〈그림 14-7〉 관상작물 재배규모별 임가수

관상작물별 재배규모의 분포를 살펴보면, 2005년은 0.1~0.5ha 사이의 재배임가가 가장 높다. 1999년에는 조경수와 야생화가 0.1~0.5ha 규모의 재배임가가 가장 높고, 분재는 0.5~1.0ha 규모의 재배임가가 높다. 2005년은 1999년에 비하여 조경수와 야생화는 0.1ha 이하 규모 임가의 비중이 높아지고, 0.5ha 이상의 중·대규모의 비율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표 14-7〉 참조). 이것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소득사업으로서 관상수와 조경수 등의 재배가 확대되어 소규모 영세 재배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표 14-7〉 관상작물 재배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단위: 가구, ha, %)

특성별	임가	관상작물 재배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2005년)						면적 (ha)
		0.05ha 미만	0.05~0.1ha	0.1~0.5ha	0.5~1.0ha	1.0~5.0ha	5.0ha 이상	
계	12,768	575	1,163	6,168	2,464	2,032	366	12,002
구성비	100.0	4.5	9.1	48.3	19.3	15.9	2.9	
조경수	7,696	192	671	3,941	1,456	1,189	247	7,600
구성비	60.3	2.5	8.7	51.2	18.9	15.4	3.2	
분재	716	154	141	299	77	42	3	262
구성비	5.6	21.5	19.7	41.8	10.8	5.9	0.4	
야생화	495	111	82	192	51	55	4	248
구성비	3.9	22.4	16.6	38.8	10.3	11.1	0.8	
기타 관상작물	3,861	118	269	1,736	880	746	112	3,891
구성비	30.2	3.1	7.0	45.0	22.8	19.3	2.9	

특성별	임가	관상작물 재배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1999년)						면적 (ha)
		0.05ha 미만	0.05~0.1ha	0.1~0.5ha	0.5~1.0ha	1.0~5.0ha	5.0ha 이상	
계	4,820	211	403	1,874	986	1,041	305	-
구성비	100.0	4.3	8.4	38.9	20.5	21.6	6.3	
조경수	3,732	75	253	1,423	787	902	292	-
구성비	77.4	2.0	6.8	38.1	21.1	24.2	7.8	
분재	836	118	128	348	152	90	-	-
구성비	17.4	14.1	15.3	45.2	18.2	10.8	-	
야생화	252	18	22	103	47	49	13	-
구성비	5.2	7.1	8.7	40.9	18.7	19.4	5.2	

주 : 1999년 면적은 미공표 자료임

I. 자연환경

II. 농림어업의 인구와 가족

III.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

IV.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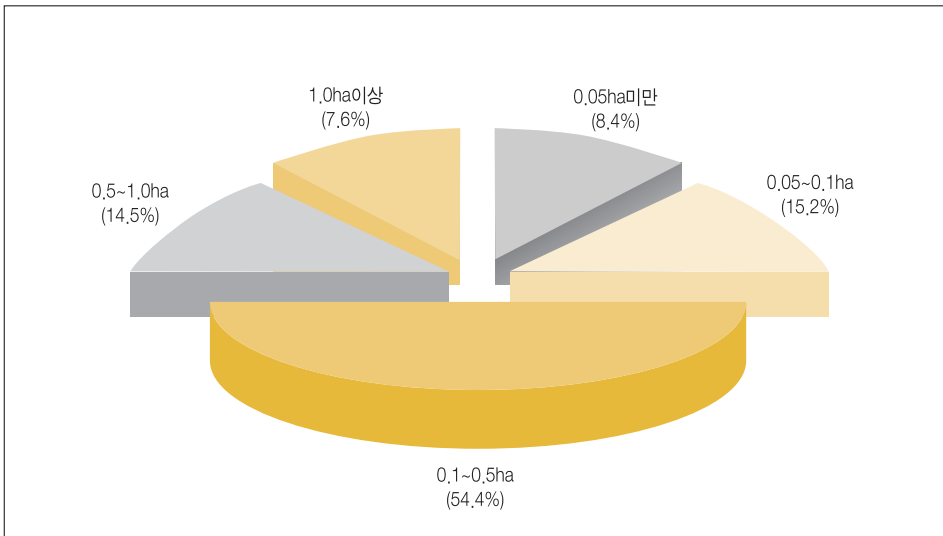
V. 임업

VI. 어업



3. 종실류

2005년의 기타 유실수 재배 임가를 살펴보면, 총 1,927 임가 중 산림이 없는 임가가 59.6%(1,148가구)를 차지하고, 산림보유 규모별로는 1.0~3.0ha 규모의 임가가 12.9%를 차지한다.



〈그림 14-8〉 종실류 재배면적별 임가수

재배면적 규모로 살펴보면, 0.1~0.5ha 사이가 54.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0.05~0.1 ha 사이가 15.2%를 차지한다. 임가당 평균재배면적은 0.5ha이다. 산림보유 면적별로 30.0 ha 이상이 평균 1ha, 10.0~30.0ha 규모 임가가 평균 2.4ha, 5.0~10.0ha 규모 임가가 평균 1ha로 나타났다.

기타 유실수 재배규모 0.1~0.5ha 규모는 산림보유규모 중 0.1~1.0ha 사이의 비율이 50% 이상이고, 기타 유실수 재배규모가 1.0ha 이상인 임가는 산림보유규모가 5ha 이상인 임가의 비율이 28~40%로 높게 나타났다(〈표 14-8〉 참조).

〈표 14-8〉 기타 유실수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단위: 가구, ha, %)

특성별	임가	기타 유실수 재배면적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2005년)					면적 (ha)
		0.05ha 미만	0.05~0.1ha	0.1~0.5ha	0.5~1.0ha	1ha 이상	
계	1,927	161	292	1,048	280	146	955
구성비	100.0	8.4	15.2	54.4	14.5	7.6	
무소유	1,148	79	165	698	153	53	425
구성비	59.6	6.9	14.4	60.8	13.3	4.6	
0.1ha 미만	10	2	6	1	1	-	2
구성비	0.5	20.0	60.0	10.0	10.0	-	
0.1~0.6ha	131	23	21	79	8	-	30
구성비	6.8	17.6	16.0	60.3	6.1	-	
0.6~1.0ha	117	16	15	59	27	-	39
구성비	6.1	13.7	12.8	50.4	23.1	-	
1.0~3.0ha	248	18	44	117	41	28	121
구성비	12.9	7.3	17.7	47.2	16.5	11.3	
3.0~5.0ha	113	9	15	45	29	15	77
구성비	5.9	8.0	13.3	39.8	25.7	13.3	
5.0~10.0ha	104	9	20	32	14	29	109
구성비	5.4	8.7	19.2	30.8	13.5	27.9	
10.0~30.0ha	46	5	6	13	5	17	110
구성비	2.4	10.9	13.0	28.3	10.9	37.0	
30.0ha 이상	10	-	-	4	2	4	41
구성비	0.5	-	-	40.0	20.0	40.0	

4. 밤

산림보유 규모별 밤나무 재배임가 분포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총 21,465 임가 중 1.0~3.0ha 사이가 37.4%(8,030가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0.6~1.0ha 사이가 22.7%를 차지하였다. 1999년에는 총 17,227 임가 중 1.0~3.0ha 사이가 34.7%(5,981가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0.6~1.0ha 사이가 15.6%를 차지한다. 2005년에는 1999년 대비 산림보유 규모별 밤나무 재배 임가의 비중은 0.1~3.0ha 규모의 비중이 높아지고, 3.0ha 이상 중·대규모 산림보유 임가의 밤나무 재배 비중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밤나무 재배면적 규모별로 살펴보면, 2005년에는 1.0~5.0ha 규모가 43.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0.5~1.0ha 규모가 3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산림보유 임가당 밤나무 재배면적은 1.9ha이고, 산림보유규모별 밤나무 재배면적은 10.0~30.0ha 규모가 평균 7.2 ha, 5.0~10.0ha 규모의 평균 4.2ha, 3.0~5.0ha 규모가 평균 2.7ha를 보이고 있다. 1999년에는 1.0~5.0ha 규모의 비중이 48.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0.5~1.0ha 사이가 33.0%의 순이었다. 2005년에는 1999년에 비하여 0.5ha 이하의 비율은 높아지고, 0.5~ 10.0ha 사이의 비율은 낮아졌다(〈표 14-9〉 참조).

〈표 14-9〉 밤나무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단위: 가구, ha, %)

특성별	임가	밤나무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2005년)						면적 (ha)
		0.3ha 미만	0.3~ 0.5ha	0.5~ 1.0ha	1.0~ 5.0ha	5.0~ 10.0ha	10.0ha 이상	
계	21,465	1,922	2,033	7,042	9,393	843	232	41,046
구성비	100.0	9.0	9.5	32.8	43.8	3.9	1.1	
무소유	1,396	680	240	284	168	17	7	1,029
구성비	6.5	48.7	17.2	20.3	12.0	1.2	0.5	
0.1ha 미만	68	67	-	1	-	-	-	7
구성비	0.3	98.5	-	1.5	-	-	-	
0.1~0.6ha	1,539	550	855	116	18	-	-	549
구성비	7.2	35.7	55.6	7.5	1.2	-	-	
0.6~1.0ha	4,867	159	379	4,288	37	4	-	4,125
구성비	22.7	3.3	7.8	88.1	0.8	0.1	-	
1.0~3.0ha	8,030	220	333	1,664	5,808	3	2	13,514
구성비	37.4	2.7	4.1	20.7	72.3	0.0	0.0	
3.0~5.0ha	3,008	120	121	408	2,356	-	3	8,271
구성비	14.0	4.0	4.0	13.6	78.3	-	0.1	
5.0~10.0ha	1,854	79	76	204	787	704	4	7,815
구성비	8.6	4.3	4.1	11.0	42.4	38.0	0.2	
10.0~30.0ha	585	36	28	63	179	97	182	4,237
구성비	2.7	6.2	4.8	10.8	30.6	16.6	31.1	
30.0ha 이상	118	11	1	14	40	18	34	1,500
구성비	0.5	9.3	0.8	11.9	33.9	15.3	28.8	

(계속)

〈표 14-9〉 계속

(단위: 가구, ha, %)

특성별	임가	밤나무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1999년)						면적 (ha)
		0,3ha 미만	0,3~ 0,5ha	0,5~ 1,0ha	1,0~ 5,0ha	5,0~ 10,0ha	10,0ha 이상	
계	17,227	835	1,401	5,693	8,387	719	192	-
구성비	100.0	4.8	8.1	33.0	48.7	4.2	1.1	
무소유	2,727	185	264	896	1,216	125	41	-
구성비	15.8	6.8	9.7	32.9	44.6	4.6	1.5	
0,1ha 미만	202	121	8	34	35	2	2	-
구성비	1.2	59.9	4.0	16.8	17.3	1.0	1.0	
0,1~0,6ha	759	142	374	147	89	6	1	-
구성비	4.4	18.7	49.3	19.4	11.7	0.8	0.1	
0,6~1,0ha	2,689	95	266	2,100	198	20	10	-
구성비	15.6	3.5	9.9	78.1	7.4	0.7	0.4	
1,0~3,0ha	5,981	154	268	1,657	3,861	30	11	-
구성비	34.7	2.6	4.5	27.7	64.6	0.5	0.2	
3,0~5,0ha	2,506	62	114	464	1,824	33	9	-
구성비	14.5	2.5	4.5	18.5	72.8	1.3	0.4	
5,0~10,0ha	1,708	53	66	264	856	385	84	-
구성비	9.9	3.1	3.9	15.5	50.1	22.5	4.9	
10,0~30,0ha	517	14	35	111	239	91	27	-
구성비	3.0	2.7	6.8	21.5	46.2	17.6	5.2	
30,0ha 이상	138	9	6	20	69	27	7	-
구성비	0.8	6.5	4.3	14.5	50.0	19.6	5.1	

주: 1999년 면적은 미공표 자료임

I. 자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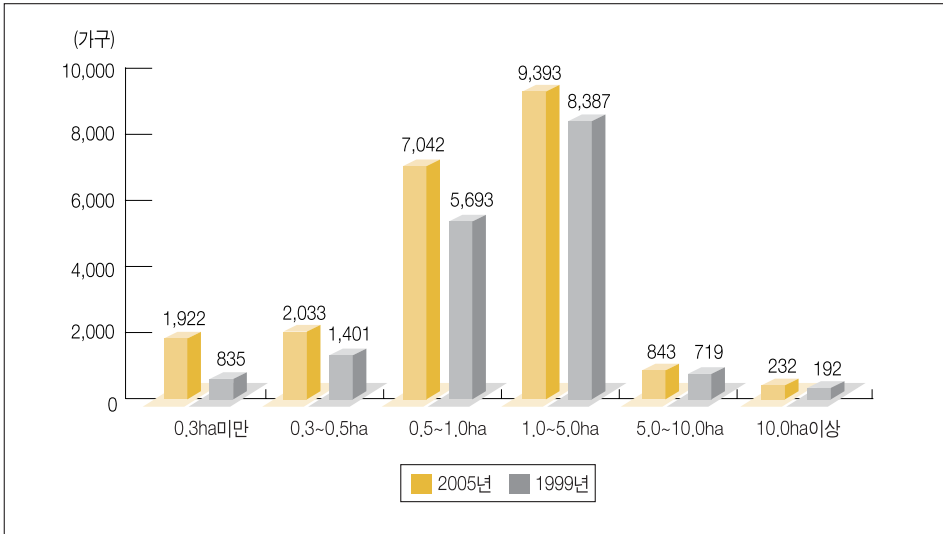
II. 농림어가의 인구와 가족

III.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

IV. 농업

V. 임업

VI. 어업



〈그림 14-9〉 밤나무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수

5. 잣

잣나무 재배임가를 보면, 2005년에는 총 481 임가 중 5.0~10.0ha 사이가 17.7%(85가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1.0~5.0ha 사이가 16.6%를 차지한다. 1999년에는 총 1,907 임가 중 3.0~5.0ha 사이가 26.3%(501가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5.0~10.0ha 사이가 24.4%를 차지한다. 2005년에는 1999년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재배임가의 수도 줄었을 뿐 아니라 중·대형규모 산림보유 임가의 비중도 축소되어 잣 생산의 감소를 대변하고 있다.

잣나무 재배면적 규모별로 살펴보면, 2005년에는 0.5ha 미만이 45.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1.0~5.0ha 사이가 29.3%로 나타났다. 산림보유 임가 당 평균 잣나무 재배면적은 2.3ha 이고, 산림보유 규모별 잣나무 재배면적은 30.0ha 이상이 평균 11ha, 10.0~30.0ha 규모가 평균 4.9ha, 5.0~10.0ha 규모가 평균 2.9ha를 보이고 있다(〈표 14-10〉 참조).

〈표 14-10〉 잣나무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단위: 가구, ha, %)

특성별	임가	잣나무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2005년)				면적 (ha)
		0.5ha 미만	0.5~1.0ha	1.0~5.0ha	5.0ha 이상	
계	481	221	65	141	54	1,117
구성비	100.0	45.9	13.5	29.3	11.2	
무소유	110	88	13	8	1	59
구성비	22.9	80.0	11.8	7.3	0.9	
0.1ha 미만	1	1	-	-	-	0
구성비	0.2	100.0	-	-	-	
0.1~0.6ha	21	20	-	1	-	8
구성비	4.4	95.2	-	4.8	-	
0.6~1.0ha	24	16	7	0	1	15
구성비	5.0	66.7	29.2	0.0	4.2	
1.0~3.0ha	80	34	19	26	1	88
구성비	16.6	42.5	23.8	32.5	1.3	
3.0~5.0ha	80	19	10	50	1	173
구성비	16.6	23.8	12.5	62.5	1.3	
5.0~10.0ha	85	25	8	31	21	248
구성비	17.7	29.4	9.4	36.5	24.7	
10.0~30.0ha	58	17	5	18	18	286
구성비	12.1	29.3	8.6	31.0	31.0	
30.0ha 이상	22	1	3	7	11	241
구성비	4.6	4.5	13.6	31.8	50.0	

특성별	임가	잣나무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1999년)				면적 (ha)
		0.5ha 미만	0.5~1.0ha	1.0~5.0ha	5.0ha 이상	
계	1,907	164	213	1,131	399	-
(%)	100.0	8.6	11.2	59.3	20.9	
무소유	79	17	11	41	10	-
(%)	4.1	21.5	13.9	51.9	12.7	
0.2ha 미만	3	3	-	-	-	-
(%)	0.2	100.0	-	-	-	
0.2~0.6ha	25	16	5	4	-	-
(%)	1.3	64.0	20.0	16.0	-	
0.6~1.0ha	47	22	21	3	1	-
구성비	2.5	46.8	44.7	6.4	2.1	

(계속)

I. 자연환경

II. 농림어업의 인구와 가족

III.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

IV. 임업

V. 임원

VI. 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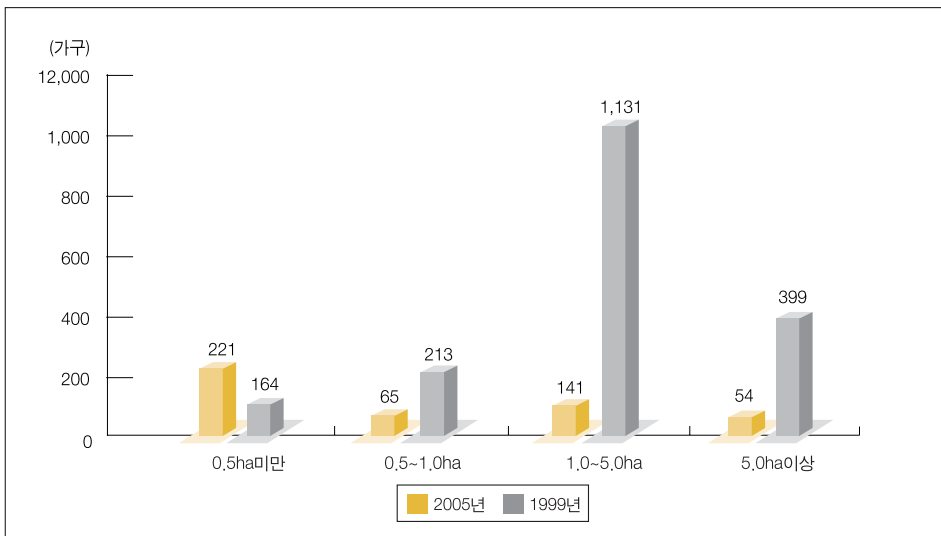


〈표 14-10〉 계속

(단위: 가구, ha, %)

특성별	임가	잣나무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1999년)				면적 (ha)
		0.5ha 미만	0.5~1.0ha	1.0~5.0ha	5.0ha 이상	
1.0~3.0ha	326	29	55	241	1	-
구성비	17.1	8.9	16.9	73.9	0.3	-
3.0~5.0ha	501	30	45	422	4	-
구성비	26.3	6.0	9.0	84.2	0.8	-
5.0~10.0ha	466	25	43	243	155	-
구성비	24.4	5.4	9.2	52.1	33.3	-
10.0~30.0ha	317	13	23	132	149	-
구성비	16.6	4.1	7.3	41.6	47.0	-
30ha 이상	143	9	10	172	79	-
구성비	7.5	6.3	7.0	120.3	55.2	-

주: 1999년 면적은 미공표 자료임



〈그림 14-10〉 잣나무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수

1999년에는 1.0~5.0ha 사이가 59.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5.0ha 이상이 20.9%의 순으로 높다. 2005년에는 1999년에 비하여 잣나무 재배면적의 비중이 1.0~5.0ha에서 0.5ha 미만으로 급격하게 방향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6. 호도

호도나무 재배임가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1,209임가 중 산림이 없는 임가가 65.7%로 매우 높고, 산림보유 규모별로 1.0~3.0ha 사이의 임가가 8.5%(103가구)를 차지한다. 1999년에는 총 794임가 중 산림이 없는 임가가 62.0%로 제일 높고, 산림보유 규모별로는 1.0~3.0ha 사이의 임가가 10.1%(80가구)를 차지한다. 2005년에는 1999년에 비하여 재배임가는 증가하였으나 재배규모가 매우 축소되고 임가의 산림보유규모에 있어서도 비소유의 임가가 증가한데 따라 전체적으로 재배임가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

호도나무 재배면적 규모별로 살펴보면, 2005년에는 0.1~0.5ha 사이가 42.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0.05~0.1ha 사이가 15.8%의 순으로 높다. 산림보유 임가당 호도나무 재배면적 전체평균은 0.4ha

〈표 14-11〉 호도나무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단위: 가구, ha, %)

특성별	임가	호도나무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2005년)						면적 (ha)
		0.03ha 미만	0.03~0.05ha	0.05~0.1ha	0.1~0.5ha	0.5~1.0ha	1ha 이상	
계	1,209	144	117	191	519	159	79	445
구성비	100.0	11.9	9.7	15.8	42.9	13.2	6.5	
무소유	794	82	79	123	374	105	31	254
구성비	65.7	10.3	9.9	15.5	47.1	13.2	3.9	
0.1ha 미만	6	2	-	1	3	-	-	1
구성비	0.5	33.3	-	16.7	50.0	-	-	
0.1~0.6ha	43	8	5	7	20	2	1	10
구성비	3.6	18.6	11.6	16.3	46.5	4.7	2.3	
0.6~1.0ha	61	9	6	11	24	11		16
구성비	5.0	14.8	9.8	18.0	39.3	18.0	0.0	
1.0~3.0ha	103	13	7	18	38	15	12	44
구성비	8.5	12.6	6.8	17.5	36.9	14.6	11.7	
3.0~5.0ha	80	10	7	12	29	13	9	41
구성비	6.6	12.5	8.8	15.0	36.3	16.3	11.3	
5.0~10.0ha	71	14	9	11	18	7	12	37
구성비	5.9	19.7	12.7	15.5	25.4	9.9	16.9	
10.0~30.0ha	35	4	4	6	8	4	9	25
구성비	2.9	11.4	11.4	17.1	22.9	11.4	25.7	
30.0ha 이상	16	2	-	2	5	2	5	16
구성비	1.3	12.5	-	12.5	31.2	12.5	31.2	

(계속)



이고, 산림보유 규모별로 30.0ha 이상은 평균 1.0ha, 10.0~30.0ha 사이가 평균 0.7ha, 3.0~10.0ha 사이가 평균 0.5ha의 순으로 나타난다(〈표 14-11〉 참조).

〈표 14-11〉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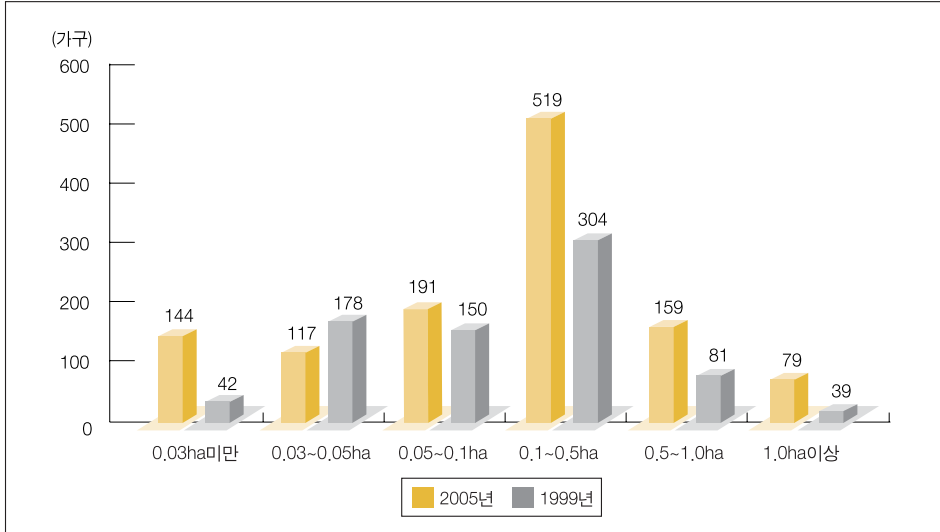
(단위: 가구, ha, %)

특성별	임가	호도나무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1999년)						면적 (ha)
		0.03ha 미만	0.03~ 0.05ha	0.05~ 0.1ha	0.1~ 0.5ha	0.5~ 1.0ha	1ha 이상	
계	794	42	178	150	304	81	39	-
구성비	100.0	5.3	22.4	18.9	38.3	10.2	4.9	-
무소유	492	22	138	105	173	41	13	-
구성비	62.0	4.5	28.0	21.3	35.2	8.3	2.6	-
0.2ha 미만	11	-	-	6	5	-	-	-
구성비	1.4	-	-	54.5	45.5	-	-	-
0.2~0.6ha	24	2	3	4	10	2	3	-
구성비	3.0	8.3	12.5	16.7	41.7	8.3	12.5	-
0.6~1.0ha	49	4	4	7	24	10	-	-
구성비	6.2	8.2	8.2	14.3	49.0	20.4	-	-
1.0~3.0ha	80	5	16	11	35	7	6	-
구성비	10.1	6.3	20.0	13.8	43.8	8.8	7.5	-
3.0~5.0ha	49	4	10	6	20	8	1	-
구성비	6.2	8.2	20.4	12.2	40.8	16.3	2.0	-
5.0~10.0ha	47	4	4	5	19	5	10	-
구성비	5.9	8.5	8.5	10.6	40.4	10.6	21.3	-
10.0~30.0ha	31	1	2	5	12	6	5	-
구성비	3.9	3.2	6.5	16.1	38.7	19.4	16.1	-
30ha 이상	11	-	1	1	6	2	1	-
구성비	1.4	-	9.1	9.1	54.5	18.2	9.1	-

주: 1999년 면적은 미공표 자료임

1999년에는 0.1~0.5ha 사이가 38.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0.05~0.1ha 사이로 18.9%의 순으로 높다. 2005년에는 1999년 대비 0.03~0.05ha 사이의 비중은 낮아지고, 0.05ha 이상의 비중은 높아진다. 호도나무 재배규모별 산림보유면적의 임가 분포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호도나무 재배면적 0.1~0.5ha 사이의 임가 중 산림보유면적 0.1~5.0ha 사이의 비율이 30~40% 범위로 높다. 1999년에는 호도나무 재배면적 0.1~0.5ha 사이의 임가 중 산림보유면적 0.6~10.0ha 사이의 비율이 40%대로 높다. 2005년은 1999년 대비 호도나무 재배 임가가 0.1~0.5ha 사이에 산림보유면적의 비중이 0.6ha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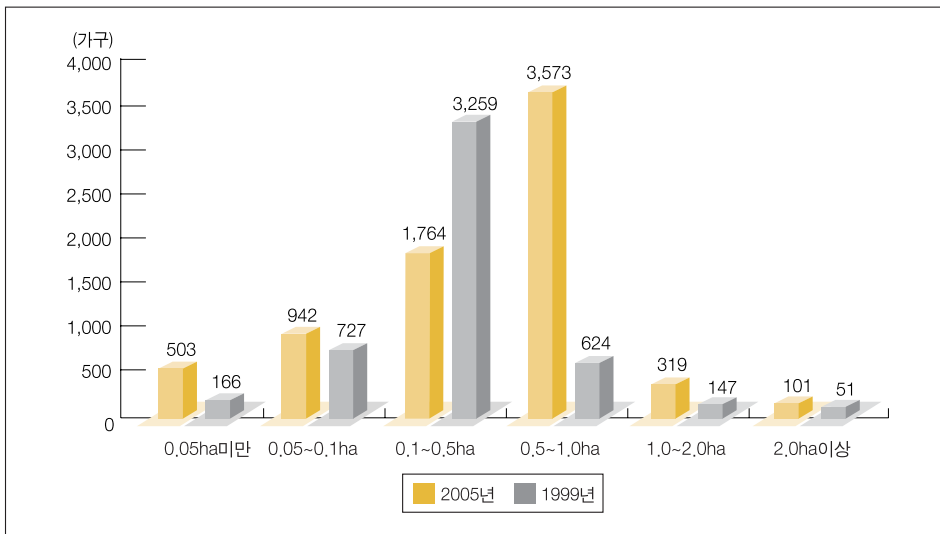
하에서 높아지고, 0.6ha 이상 중·대규모 임가에서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림 14-11〉 호도나무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수

7. 대추

대추나무 재배 임가는 2005년에는 총 7,202 임가 중 산림이 없는 임가가 91.4%로 압도적으로 높았



〈그림 14-12〉 대추나무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수



다. 1999년에는 총 4,974 임가 중 산림을 소유하지 않은 임가가 66.4%였는데 비해서도 산림을 임대하여 대추를 재배하는 임가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대추나무 재배면적 규모별로 살펴보면, 2005년에는 0.5~1.0ha 사이가 49.6%로 가장 높고, 1999년에는 0.1~0.5ha 사이가 65.5%로 가장 높다. 대추나무 재배면적은 임가당 0.4ha의 수준이다. 2005년에는 1999년 대비 호두나무 재배면적규모의 최빈층이 0.1~0.5ha에서 0.5~1.0ha로 상향 이동하였다 (<표 14-12> 참조).

<표 14-12> 대추나무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단위: 가구, ha, %)

특성별	임가	대추나무 재배면적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2005년)						면적 (ha)
		0.05ha 미만	0.05~ 0.1ha	0.1~ 0.5ha	0.5~ 1.0ha	1.0~ 2.0ha	2.0ha 이상	
계	7,202	503	942	1,764	3,573	319	101	2,797
구성비	100.0	7.0	13.1	24.5	49.6	4.4	1.4	
무소유	6,580	351	854	1,666	3,328	289	92	2,574
구성비	91.4	5.3	13.0	25.3	50.6	4.4	1.4	
0.1ha 미만	10	6	2	1	1	-	-	1
구성비	0.1	60.0	20.0	10.0	10.0	-	-	
0.1~0.6ha	118	36	10	17	52	3	-	29
구성비	1.6	30.5	8.5	14.4	44.1	2.5	-	
0.6~1.0ha	91	21	9	17	42	2	-	32
구성비	1.3	23.1	9.9	18.7	46.2	2.2	-	
1.0~3.0ha	143	31	28	22	48	13	1	55
구성비	2.0	21.7	19.6	15.4	33.6	9.1	0.7	
3.0~5.0ha	134	29	14	24	59	4	4	59
구성비	1.9	21.6	10.4	17.9	44.0	3.0	3.0	
5.0~10.0ha	68	19	9	7	27	6	-	25
구성비	0.9	27.9	13.2	10.3	39.7	8.8	-	
10.0~30.0ha	47	8	12	9	14	1	3	18
구성비	0.7	17.0	25.5	19.1	29.8	2.1	6.4	
30.0ha 이상	11	2	4	1	2	1	1	5
구성비	0.2	18.2	36.4	9.1	18.2	9.1	9.1	

(계속)

〈표 14-12〉 계속

(단위: 가구, ha, %)

특성별	임가	대추나무 재배면적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1999년)						면적 (ha)
		0.05ha 미만	0.05~ 0.1ha	0.1~ 0.5ha	0.5~ 1.0ha	1.0~ 2.0ha	2.0ha 이상	
계	4,974	166	727	3,259	624	147	51	-
구성비	100.0	3.3	14.6	65.5	12.5	3.0	1.0	
무소유	3,304	101	484	2,200	395	98	26	-
구성비	66.4	3.1	14.6	66.6	12.0	3.0	0.8	
0.2ha 미만	291	12	68	197	11	1	2	-
구성비	5.9	4.1	23.4	67.7	3.8	0.3	0.7	
0.2~0.6ha	391	5	24	319	39	3	1	-
구성비	7.9	1.3	6.1	81.6	10.0	0.8	0.3	
0.6~1.0ha	290	7	27	161	88	7	-	-
구성비	5.8	2.4	9.3	55.5	30.3	2.4	-	
1.0~3.0ha	352	13	62	197	50	23	7	-
구성비	7.1	3.7	17.6	56.0	14.2	6.5	2.0	
3.0~5.0ha	139	15	23	76	16	5	4	-
구성비	2.8	10.8	16.5	54.7	11.5	3.6	2.9	
5.0~10.0ha	120	8	22	63	16	5	6	-
구성비	2.4	6.7	18.3	52.5	13.3	4.2	5.0	
10.0~30.0ha	67	4	13	35	8	3	4	-
구성비	1.3	6.0	19.4	52.2	11.9	4.5	6.0	
30ha 이상	20	1	4	11	1	2	1	-
구성비	0.4	5.0	20.0	55.0	5.0	10.0	5.0	

주: 1999년 면적은 미공표 자료임

I. 자연환경

II. 농림어가의 인구와 가족

III.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

IV. 농업

V. 임업

VI. 어업



8. 표고

표고버섯 재배조사는 2005년은 시설재배와 노지재배로 항목을 구분하여 조사되었기 때문에 1999년 조사와 차이가 난다.

〈표 14-13〉 표고버섯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단위: 가구, h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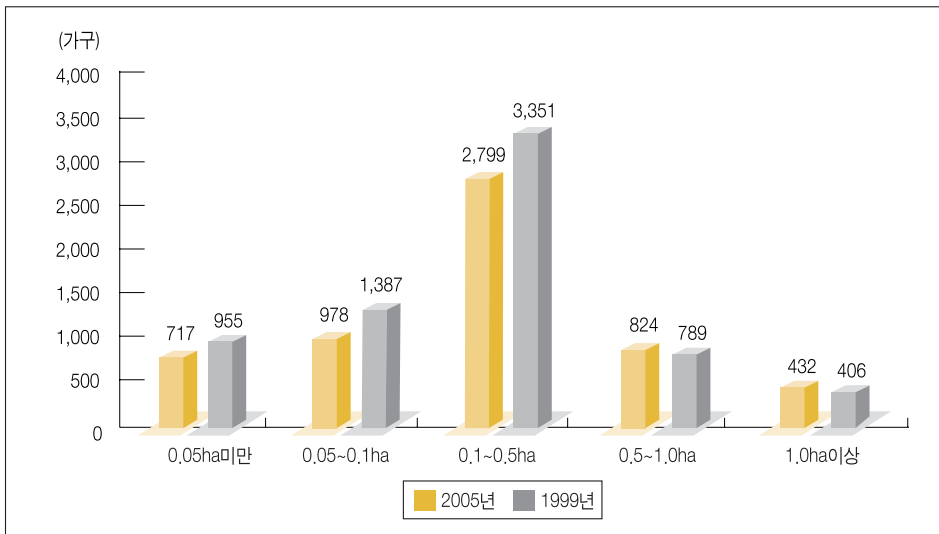
특성별	임가	표고버섯 재배면적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2005년)					면적 (ha)
		0.05ha 미만	0.05~0.1ha	0.1~0.5ha	0.5~1.0ha	1ha 이상	
시설	4,017	344	719	2,218	564	172	1,412
구성비	65.2	8.6	17.9	55.2	14.0	4.3	
노지	2,141	453	408	769	295	216	1,096
구성비	34.8	21.2	19.1	35.9	13.8	10.1	
계	6,158	717	978	2,799	824	432	2,509
구성비	100.0	11.6	15.9	45.5	13.4	7.0	

특성별	임가	표고버섯 재배면적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1999년)					면적 (ha)
		0.05ha 미만	0.05~0.1ha	0.1~0.5ha	0.5~1.0ha	1ha 이상	
계	6,888	955	1,387	3,351	789	406	-
구성비	100.0	13.9	20.1	48.6	11.5	5.9	
무소유	4,107	581	861	2,031	432	202	-
구성비	59.6	14.1	21.0	49.5	10.5	4.9	
0.2ha 미만	221	36	64	100	17	4	-
구성비	3.2	16.3	29.0	45.2	7.7	1.8	
0.2~0.6ha	375	35	59	229	38	14	-
구성비	5.4	9.3	15.7	61.1	10.1	3.7	
0.6~1.0ha	492	57	86	245	83	21	-
구성비	7.1	11.6	17.5	49.8	16.9	4.3	
1~3ha	739	120	146	327	81	65	-
구성비	10.7	16.2	19.8	44.2	11.0	8.8	
3~5ha	369	56	76	159	41	37	-
구성비	5.4	15.2	20.6	43.1	11.1	10.0	
5~10ha	314	38	59	139	49	29	-
구성비	4.6	12.1	18.8	44.3	15.6	9.2	
10~30ha	181	19	28	88	29	17	-
구성비	2.6	10.5	15.5	48.6	16.0	9.4	
30ha 이상	90	13	8	33	19	17	-
구성비	1.3	14.4	8.9	36.7	21.1	18.9	

주: 1999년 면적은 미공표 자료임

표고버섯 재배 임가의 면적 분포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총 6,158 임가중 시설재배가 65.2%(4,017가구)이고 노지재배가 34.8%(2,141가구)였다. 시설재배 임가의 평균재배면적은 0.4ha 이고, 노지재배의 평균재배면적은 0.5ha이었다. 1999년은 총 6,888 임가 중 산림을 소유하지 않는 임가가 59.6%로 가장 많았다(〈표 14-13〉 참조).

표고버섯 재배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0.1~0.5ha 사이가 45.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0.05~0.1ha 사이가 15.9%를 차지한다. 1999년에는 0.1~0.5ha 사이가 48.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0.05~0.1ha 사이가 20.1%를 차지한다. 표고재배 임가 비율이 2005년은 1999년에 비하여 소규모 재배임가의 비중은 축소되고 중·대규모 재배임가의 비중이 확대되어 전체적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산 건표고 등 외부적인 충격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도 표고 재배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2005년도 조사에서는 재배방법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나 재배기술의 개발로 노지재배에서 시설재배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이러한 경향을 예의 주시 할 필요가 있다.



〈그림 14-13〉 표고버섯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수



제 2 절 임산물 생산 및 판매

임산물 판매금액

임가의 임산물 판매처를 보면 2005년에는 농협, 수집상, 개인소비자의 순으로 높고, 산림조합을 통한 판매는 낮게 나타났다. 1999년에도 수집상, 계통출하, 공판장 등의 비중이 높고 산림조합을 통한 판매는 매우 낮았다. 임업생산물의 유통에 있어 산림조합의 기여도가 매우 낮은 것을 반증하고 있다.

판매금액별로 보면, 2005년에는 100~500만원 사이가 43.2%로 가장 높았고, 5,000만원 이상은 1.7%에 불과하다. 임산물 판매금액이 없는 임가를 제외하고 68.0%의 임가가 1,000만원 이하로 나타나서 임산물 판매액이 매우 적다.

판매금액 규모별 판매처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1,000만원 이하의 임가가 농협 판매 비율이 가장 높고, 1,000만원 이상의 임가는 수집상을 통한 판매가 가장 높다. 1999년에는 2,000만원 이하의 임가에서 수집상을 통한 판매가 가장 높고, 2,000만원 이상의 임가는 공판장을 통한 판매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05년에는 1999년 대비 1,000만원 이하의 임가는 수집상을 통한 판매에서 농협을 통하는 계통판매로 이행되었다. 판매규모가 클수록 공판장보다는 개인 수집상을 통한 판매로 이행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표 14-14> 참조).

〈표 14-14〉 임산물 판매금액규모 및 판매처별 임가

(단위 : 가구)

특성별	임산물 판매금액규모 및 판매처별 임가 (2005년)											
	임가	도매 시장	산지 공판장	농협	산림 조합	수집상	개인 소비자	대량 유통 업체	대량 수요처	가공 업체	재래 시장	기타 (판매없음포함)
계	97,108	5,460	5,694	25,085	2,950	22,542	14,467	268	224	1,993	1,865	16,560
판매없음	16,099	-	-	-	-	-	-	-	-	-	-	16,099
50만원 미만	2,704	105	226	436	27	488	1,089	5	4	22	204	98
50~100만원	6,953	332	503	2,124	101	1,632	1,783	7	6	74	321	70
100~200만원	19,327	774	1,312	6,736	774	4,741	4,001	19	17	231	637	85
200~500만원	22,649	1,237	1,685	7,604	898	6,468	3,584	49	35	587	440	62
500~1,000만원	14,382	1,009	952	4,597	576	4,405	2,029	35	30	529	171	49
1,000~2,000만원	8,228	784	600	2,275	314	2,654	1,096	42	36	337	59	31
2,000~3,000만원	3,356	475	205	816	118	1,089	447	35	20	116	18	17
3,000~5,000만원	1,843	367	112	327	71	604	237	35	19	49	9	13
5,000~1억원	1,041	262	67	130	41	332	129	21	21	26	6	6
1~2억원	356	79	21	32	20	91	56	12	19	14	-	12
2억원 이상	170	36	11	8	10	38	16	8	17	8	-	18

특성별	임산물 판매금액규모 및 판매처별 임가 (1999년)									
	도매시장	공판장	계통출하	수매	수집상	자가매장	재래시장	산림조합	기타	
계	3,702	9,194	9,446	3,298	13,146	8,417	4,044	3,057	25,451	
100만원 미만	10	11	9	3	13	22	2	4	15,483	
100~500만원	240	796	890	296	2,091	1,544	908	464	5,916	
500~1,000만원	1,431	4,265	4,957	1,805	7,512	3,886	2,215	1,611	2,397	
1,000~2,000만원	726	2,011	2,016	675	2,098	1,426	542	471	724	
2,000~3,000만원	624	1,228	981	393	889	834	234	307	527	
3,000~4,000만원	303	452	328	78	300	297	71	90	183	
4,000~5,000만원	149	201	106	17	108	153	32	54	90	
5,000~1억원	105	107	72	6	69	94	18	22	46	
1~2억원	88	101	68	18	52	129	19	23	55	
2억원 이상	26	22	19	7	14	32	3	11	30	

I. 자연환경

II. 농림어업의 인구와 가족

III.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

IV. 농업

V. 임업

VI. 어업



업종별 임산물 판매금액의 분포를 살펴보면, 각 업종이 공통적으로 100~500만원 사이의 판매액이 가장 높다. 그 중에서 채취업이 67.4%(4,638가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재배업이 42.4%(37,156가구)였다. 벌목업과 양묘업이 판매금액 규모가 큰 임가의 비율이 높아 타 업종에 비해 거래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표 14-15〉 참조).

1999년에 100만원 미만은 육림업이 66.9%(9,743가구)로 가장 높고, 양묘업이 28.4%(40가구)로 높다. 500~1,000만원 사이는 채취업이 58.5%(2,482가구)로 가장 높고, 재배업이 43.3%(19,672가구), 벌목업이 30.3%(286가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금액의 규모가 클수록 양묘업과, 벌목업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육림업과 양묘업은 판매금액이 적은 임가의 비중이 높아 재배규모가 영세하고 대부분 거래규모가 소규모인 것을 알 수 있다. 채취업과 재배업의 판매금액은 500~1,000만원 사이에서 100~500만원으로 하향 이동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많은 소규모 임가가 새롭게 재배업과 채취업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표 14-15〉 임산물 판매금액별 임가

(단위: 가구, %)

특성별	임산물 판매금액 규모별 임가(2005년)									
	임가	100만원 미만	100~500	500~1,000	1,000~2,000	2,000~3,000	3,000~5,000	5,000~10,000	10,000~20,000	2억원 이상
계	97,108	25,756	41,976	14,382	8,228	3,356	1,843	1,041	356	170
구성비	100.0	26.5	43.2	14.8	8.5	3.5	1.9	1.1	0.4	0.2
육림업	1,929	1,686	100	55	26	21	14	14	8	5
구성비	2.0	87.4	5.2	2.9	1.3	1.1	0.7	0.7	0.4	0.3
벌목업	126	26	27	13	19	11	7	9	10	4
구성비	0.1	20.6	21.4	10.3	15.1	8.7	5.6	7.1	7.9	3.2
채취업	6,883	193	4,638	1,209	588	162	67	20	3	3
구성비	7.1	2.8	67.4	17.6	8.5	2.4	1.0	0.3	0.0	0.0
양묘업	527	307	55	41	34	29	21	14	12	14
구성비	0.5	58.3	10.4	7.8	6.5	5.5	4.0	2.7	2.3	2.7
재배업	87,643	23,544	37,156	13,064	7,561	3,133	1,734	984	323	144
구성비	90.3	26.9	42.4	14.9	8.6	3.6	2.0	1.1	0.4	0.2

임산물 판매처

업종별 임산물 판매처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육림업과 양묘업에서 임산물 판매가 없는 임가의 비중이 높다. 업종별 판매처로 육림업은 수집상이 높고, 벌목업은 수집상, 가공업체 순으로 높다. 채취업은 개인소비자, 수집상, 산림조합의 순으로 높다. 양묘업은 수집상이 가장 높고, 재배업은 농협, 수집상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999년에는 임산물 판매가 없는 업종은 육림업, 벌목업의 비율이 높았다. 업종별 판매처로 벌목업은 자가매장, 수집상이 높고, 채취업은 산림조합, 수집상, 자가매장이 높다. 양묘업은 자가매장, 수집상의 순으로 높다. 재배업은 수집상, 계통출하, 공판장의 순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판매처는 대부분 수집상의 비중이 높고, 채취업은 산림조합, 자가매장에서 주로 판매하고, 재배업은 공판장과 계통출하의 비중이 높다(〈표 14-16〉 참조).

〈표 14-16〉 임산물 판매처별 임가

(단위: 가구, %)

특성별	임산물 판매처별 임가 (2005년)											
	임가	도매 시장	산지 공판장	농협	산림 조합	수집상	개인 소비자	대량 유통 업체	대량 수요처	가공 업체	재래 시장	기타 (판매없음포함)
계	97,108	5,460	5,694	25,085	2,950	22,542	14,467	268	224	1,993	1,865	16,560
구성비	100.0	5.6	5.9	25.8	3.0	23.2	14.9	0.3	0.2	2.1	1.9	17.1
육림업	1,929	-	-	-	79	143	5	-	3	26	5	1,668
구성비	2.0	-	-	-	4.1	7.4	0.3	-	0.2	1.3	0.3	86.5
벌목업	126	-	-	-	17	45	1	-	9	30	-	24
구성비	0.1	-	-	-	13.5	35.7	0.8	-	7.1	23.8	-	19.0
채취업	6,883	76	234	233	1,912	1,972	2,270	19	2	7	126	32
구성비	7.1	1.1	3.4	3.4	27.8	28.7	33.0	0.3	0.0	0.1	1.8	0.5
양묘업	527	1	-	-	54	159	6	-	8	2	8	289
구성비	0.5	0.2	-	0.0	10.2	30.2	1.1	-	1.5	0.4	1.5	54.8
재배업	87,643	5,383	5,460	24,852	888	20,223	12,185	249	202	1,928	1,726	14,547
구성비	90.3	6.1	6.2	28.4	1.0	23.1	13.9	0.3	0.2	2.2	2.0	16.6

(계속)



〈표 14-17〉 계속

(단위: 가구, %)

특성별	임산물 판매처별 임가 (1999년)									
	임가	도매시장	공판장	계통출하	수매	수집상	자가매장	재래시장	산림조합	기타
계	79,733	3,702	9,194	9,446	3,298	13,145	8,408	4,043	3,057	25,440
구성비	100.0	4.6	11.5	11.8	4.1	16.5	10.5	5.1	3.8	31.9
육림업	14,907	82	142	116	121	521	448	167	184	13,126
구성비	18.7	0.6	1.0	0.8	0.8	3.5	3.0	1.1	1.2	88.1
벌목업	1,031	23	23	65	30	153	157	9	25	546
구성비	1.3	2.2	2.2	6.3	2.9	14.8	15.2	0.9	2.4	53.0
채취업	5,227	64	233	187	42	1,145	998	416	1,549	593
구성비	6.6	1.2	4.5	3.6	0.8	21.9	19.1	8.0	29.6	11.3
양묘업	183	8	6	17	12	25	41	3	13	58
구성비	0.2	4.4	3.3	9.3	6.6	13.7	22.4	1.6	7.1	31.7
재배업	57,365	3,510	8,783	9,013	3,085	11,214	6,513	3,432	1,283	10,532
구성비	71.9	6.1	15.3	15.7	5.4	19.5	11.4	6.0	2.2	18.4
사육업	1,020	15	7	48	8	87	251	16	3	585
구성비	1.3	1.5	0.7	4.7	0.8	8.5	24.6	1.6	0.3	57.4

제 15 장 임가 및 산촌사회

김세빈

제 1 절 정보화 수준

정보화 현황을 살펴보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임가는 전국 임가의 40.3%(39,156가구)를 점하고, 임가당 0.4대의 컴퓨터를 보유한다. 컴퓨터 보유 임가 중 남성이 93.2%로 여성보다 매우 높다. 컴퓨터를 활용하는 임가는 전국 임가의 12.8%를 점하고, 그 중에서 임업정보수집이 10.6%로 가장 높다. 반면 임산물 판매 등에는 활용은 2% 이하로 극히 낮다. 홈페이지 개설 임가는 전국 임가의 0.8%(799가구)에 불과하다.

〈표 15-1〉 정보화 현황 및 자동차 보유 (2005년)

(단위 : 가구, %)

특성별	임가	컴퓨터 보유 임가	임업활용 활용용도				홈페이지 개설임가
			컴퓨터 활용 임가	임업정보 수집	임산물 판매	기타임업에 활용	
계	97,108	39,156	12,406	10,264	1,635	1,823	799
구성비	100.0	40.3	12.8	10.6	1.7	1.9	0.8
남 자	84,754	36,479	11,761	9,731	1,580	1,718	769
구성비	87.3	43.0	13.9	11.5	1.9	2.0	0.9
여 자	12,354	2,677	645	533	55	105	30
구성비	12.7	21.7	5.2	4.3	0.4	0.8	0.2

특성별	임가	자동차 보유현황				
		자동차 보유 임가	자동차 종류별			
			승용차	승합차	화물 및 기타	없음
계	97,108	58,154	31,293	3,888	34,573	38,954
구성비	100.0	59.9	32.2	4.0	35.6	40.1
남 자	84,754	54,594	28,855	3,693	33,135	30,160
구성비	87.3	64.4	34.0	4.4	39.1	35.6
여 자	12,354	3,560	2,438	195	1,438	8,794
구성비	12.7	28.8	19.7	1.6	11.6	71.2



자동차 보유 임가는 전국 임가의 60%를 점하고, 임가당 0.6대의 자동차를 보유한다. 자동차 종류 별로는 승용차의 비중이 높았다. 여성의 경우, 전국 여성 임가 중 19.7%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 2 절 생활편의

생활시설 이동수단은 자동차가 가장 높다. 도보로 이동하던 자동차를 이용하던 15분 미만으로 대부분 목적지에 닿을 수 있고, 자동차의 경우에 15~60분의 비중이 높았다. 가장 근거리 소재하는 기관으로는 행정기관과 금융기관이며, 병의원 등은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하여 자동차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아울러 소요시간도 비교적 장시간이 많았다.

(표 15-2) 생활시설 이동수단 및 소요시간별 임가 (2005년)

(단위: 가구, %)

특성별	임가	걸어서				자동차			
		소계	15분미만	15~60분	60분이상	소계	15분미만	15~60분	60분이상
읍면동사무소	97,108	17,741	11,557	5,886	298	66,234	39,299	26,576	359
구성비	100.0	18.3	11.9	6.1	0.3	68.2	40.5	27.4	0.4
금융기관	97,108	18,649	12,955	5,422	272	65,411	38,982	26,133	296
구성비	100.0	19.2	13.3	5.6	0.3	67.4	40.1	26.9	0.3
병·의원	97,108	12,248	8,487	3,564	197	72,907	23,295	46,837	2,775
구성비	100.0	12.6	8.7	3.7	0.2	75.1	24.0	48.2	2.9

특성별	임가	기타			
		소계	15분미만	15~60분	60분이상
읍면동사무소	97,108	13,133	6,204	6,712	217
구성비	100.0	13.5	6.4	6.9	0.2
금융기관	97,108	13,048	6,290	6,561	197
구성비	100.0	13.4	6.5	6.8	0.2
병·의원	97,108	11,953	3,608	7,758	587
구성비	100.0	12.3	3.7	8.0	0.6

2005년의 임업총조사는 문화용품보유 현황을 조사항목에서 제외하였다. 1999년 문화용품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텔레비전, 휴대용전화기, 비디오 등 전자정보통신기기의 보유가 높고, 수세식화장실 등 현대화된 시설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5-3〉 문화용품 및 시설별 임가수 (1999년)

(단위: 가구, %)

특성별	계	텔레비전	컴퓨터	비디오	승용차	원동기 자전거	휴대용 전화기	입식 부엌	도시 가스	에어컨	수세식 화장실
계	325,441	75,977	17,725	40,154	28,920	19,457	65,345	25,376	5,885	5,885	40,717
구성비	100.0	23	5	12	9	6	20	8	2	2	13
무소유	104,512	25,493	5,300	12,891	9,347	6,976	21,588	8,360	1,027	1,303	12,227
구성비	32.1	24	5	12	9	7	21	8	1	1	12
0.2ha미만	5,896	1,402	307	709	484	451	1,188	437	103	85	730
구성비	1.8	24	5	12	8	8	20	7	2	1	12
0.2~1.0ha	37,590	9,188	1,868	4,549	2,957	2,572	7,889	2,663	576	549	4,779
구성비	11.6	24	5	12	8	7	21	7	2	1	13
1.0~10ha	153,654	35,273	8,507	18,991	13,573	8,573	30,615	11,707	3,426	3,073	19,916
구성비	47.2	23	6	12	9	6	20	8	2	2	13
10~50ha	19,981	3,953	1,433	2,546	2,103	768	3,474	1,822	619	682	2,581
구성비	6.1	20	7	13	11	4	17	9	3	3	13
50~100ha	2,304	408	184	287	276	73	365	227	77	106	301
구성비	0.7	18	8	12	12	3	16	10	3	5	13
100ha이상	1,504	260	126	181	180	44	226	160	57	87	183
구성비	0.5	17	8	12	12	3	15	11	4	6	12



제 3 절 주거 및 난방

2005년 임가의 주택형태는 단독주택이 91.7%로 매우 높다. 난방시설별 비중은 기름보일러가 매우 높고, 그 다음이 전기보일러의 순으로 나타난다. 연탄보일러, 연탄아궁이, 재래식아궁이 등 재래식은 많이 개선되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주택유형별 난방시설을 살펴보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도시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의 이용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5-4〉 난방시설별 임가 (2005년)

(단위 : %)

특성별	임가	난방시설									
		중앙 난방	지역 난방	도시 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	프로판 가스	전기 보일러	연탄 보일러	연탄 아궁이	재래식 아궁이	기타
계	97,108	702	295	3,173	68,279	1,405	12,350	3,906	320	2,945	3,733
구성비	100.0	0.7	0.3	3.3	70.3	1.4	12.7	4.0	0.3	3.0	3.8
단독주택	89,038	-	2	623	65,715	214	11,932	3,783	315	2,906	3,548
구성비	91.7	-	0.0	0.7	73.8	0.2	13.4	4.2	0.4	3.3	4.0
아파트	4,648	695	288	2,261	385	1,007	9	3	-	-	-
구성비	4.8	15.0	6.2	48.6	8.3	21.7	0.2	0.1	-	-	-
연립주택	613	7	5	114	390	89	7	1	-	-	-
구성비	0.6	1.1	0.8	18.6	63.6	14.5	1.1	0.2	-	-	-
다세대주택	363	-	-	102	197	58	6	-	-	-	-
구성비	0.4	-	-	28.1	54.3	16.0	1.7	-	-	-	-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1,294	-	-	69	856	22	284	18	-	2	43
구성비	1.3	-	-	5.3	66.2	1.7	21.9	1.4	-	0.2	3.3
주택 이외 거처	1,152	-	-	4	736	15	112	101	5	37	142
구성비	1.2	-	-	0.3	63.9	1.3	9.7	8.8	0.4	3.2	12.3

주거시설형태를 살펴보면, 부엌은 입식이 96.3%로 매우 높다. 수도는 마을상수도가 40.3%를 점하고, 상수도가 없는 임가도 26.3%로 높은 편이다. 화장실은 수세식이 72.2%, 목욕시설은 온수시설이 90.2%를 점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43.5%의 임가가 마을상수도를 이용한다. 수도가 없는 임가가 27.8%, 화장실은 재래식이 29.5%로 높아 생활환경시설은 다소 불리한 상황이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보다 상수도와 화장실 이용이 불편하고, 개선이 필요하다(〈표15-5〉 참조).

〈표 15-5〉 주거시설형태별 임가(2005년)

(단위: %)

특성별	임가	부업			수도			
		입식	재래식	없음	상수도	마을 상수도	자가 수도	없음
계	97,108	93,479	3,521	108	27,237	39,106	5,253	25,512
구성비	100.0	96.3	3.6	0.1	28.0	40.3	5.4	26.3
단독주택	89,038	85,625	3,382	31	20,777	38,725	4,816	24,720
구성비	91.7	96.2	3.8	0.0	23.3	43.5	5.4	27.8
아파트	4,648	4,648	-	-	4,587	32	17	12
구성비	4.8	100.0	-	-	98.7	0.7	0.4	0.3
연립주택	613	613	-	-	578	15	13	7
구성비	0.6	100.0	-	-	94.3	2.4	2.1	1.1
다세대주택	363	363	-	-	342	7	8	6
구성비	0.4	100.0	-	-	94.2	1.9	2.2	1.7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294	1,241	42	11	826	220	56	192
구성비	1.3	95.9	3.2	0.9	63.8	17.0	4.3	14.8
주택 이외 거처	1,152	989	97	66	127	107	343	575
구성비	1.2	85.9	8.4	5.7	11.0	9.3	29.8	49.9

특성별	임가	화장실			목욕시설		
		수세식	재래식	없음	온수시설	비온수시설	없음
계	97,108	70,126	26,870	112	87,614	1,210	8,284
구성비	100.0	72.2	27.7	0.1	90.2	1.2	8.5
단독주택	89,038	62,686	26,299	53	80,018	1,153	7,867
구성비	91.7	70.4	29.5	0.1	89.9	1.3	8.8
아파트	4,648	4,648	-	-	4,648	-	-
구성비	4.8	100.0	-	-	100.0	-	-
연립주택	613	613	-	-	613	-	-
구성비	0.6	100.0	-	-	100.0	-	-
다세대주택	363	363	-	-	363	-	-
구성비	0.4	100.0	-	-	100.0	-	-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294	1,184	100	10	1,198	12	84
구성비	1.3	91.5	7.7	0.8	92.6	0.9	6.5
주택 이외 거처	1,152	632	471	49	774	45	333
구성비	1.2	54.9	40.9	4.3	67.2	3.9	28.9

I. 자연환경

II. 농림어가의 인구와 가족

III.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

IV. 농업

V. 임업

VI. 어업



제 4 절 산촌사회

본 절에서는 2003년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산촌기초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촌이 우리 국토에서 차지하는 지리적, 경제적 위치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산촌의 현실을 파악하고 산촌의 중요성과 이의 진흥을 위한 개발요소와 진흥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적인 사항을 점검한다.

시·군별 산촌의 분포

전국 163개 시·군 1,415개 읍·면 15,277개 리 중 119개 시·군 508개 읍·면 4,972개 리가 산촌에 해당된다. 시·도별로 산촌을 포함하는 읍·면은 경북, 강원이 가장 많으며 경기도와 광역시가 가장 적다.

〈표 15-6〉 산촌이 분포하는 읍·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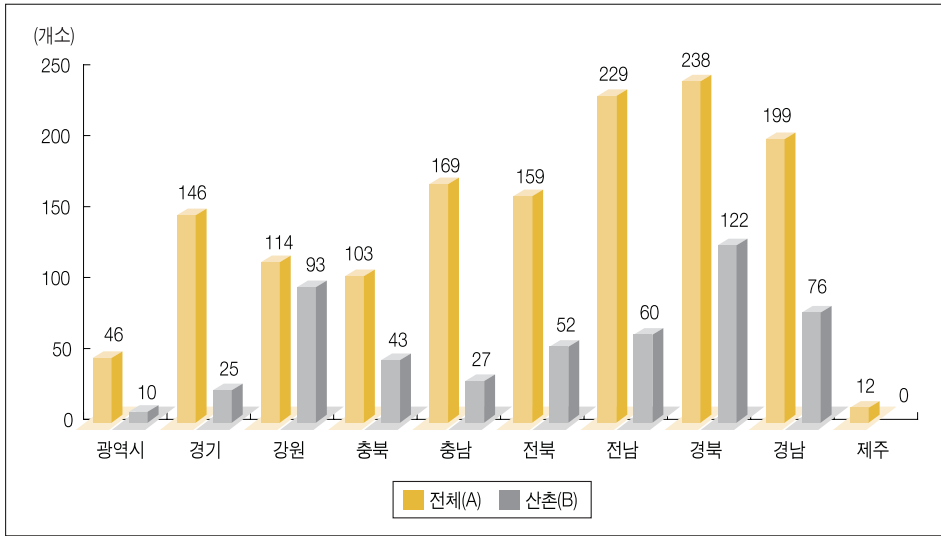
(단위: 개소, %)

읍·면수	합계	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A)	1,415	46	146	114	103	169	159	229	238	199	12
산촌(B)	508	10	25	93	43	27	52	60	122	76	0
비율(B/A)	35.9	21.7	17.1	81.6	41.7	16.0	32.7	26.2	52.3	38.2	0

자료: 산림청, 2003 산촌기초조사

도별로 보면 강원도가 81.6%로 산촌 비율이 제일 높고 충남이 16.0%로 제일 낮은 비율을 보였다. 각 도별 평균은 40.5%였다.

산촌은 일반적으로 지대가 높은 산악지에 위치하여 평균적인 해발고가 248m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의 산촌지역 해발고의 최저값 평균과 최고값 평균에 의해 산출된 것이다.



〈그림 15-1〉 시·군별 산촌 분포수

산림·인구·농가수·경지 분포 현황

산촌의 전체 면적은 4,569천ha로 전 국토 면적의 45.9%에 달하며 전체 산림면적의 58.5%를 차지하고 있다. 임상별로는 침엽수림은 전체 침엽수림의 55%, 활엽수림은 전체 활엽수림의 67%가 산촌에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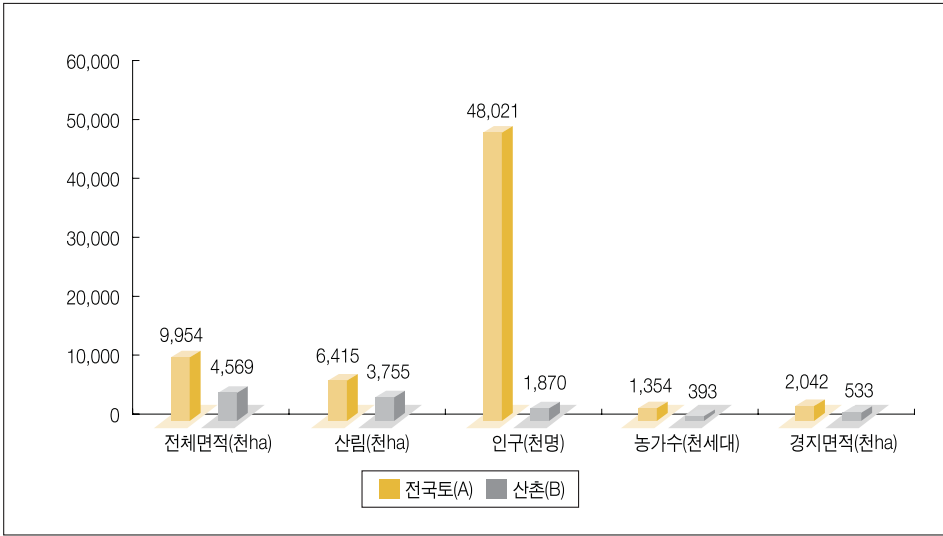
〈표 15-7〉 산촌지역의 자연, 인적자원

(단위 : 천ha, 천명, 천세대)

구 분	전체면적	산림	인구	농가수	경지면적
전국토(A)	9,954	6,415	48,021	1,354	2,042
산 촌(B)	4,569	3,755	1,870	393	533
비율(B/A)	45.9	58.5	3.9	29.0	26.1

자료 : 산림청, 2003 산촌기초조사

지역별로는 산림면적은 강원도가 전체 산림면적의 33%를 차지하고 있고 경북과 전북, 전남이 그 뒤를 잇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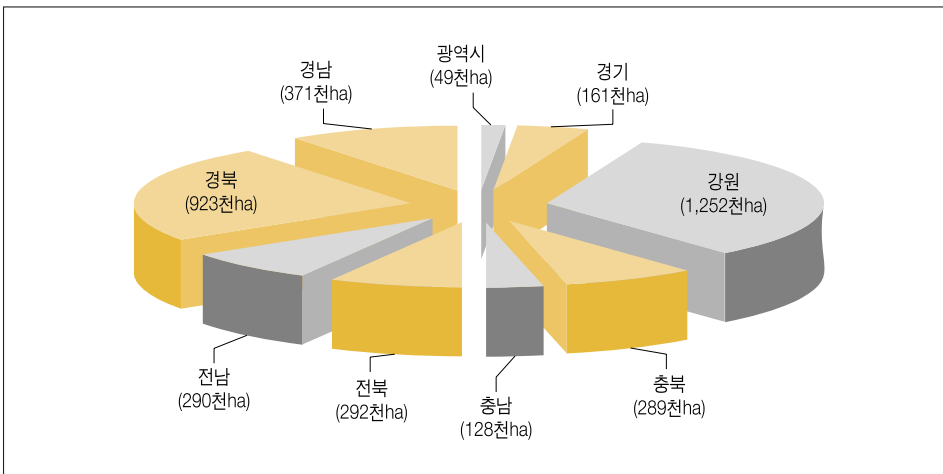
〈그림 15-2〉 산촌지역의 자연, 인적자원

〈표 15-8〉 시·도별 산촌의 산림면적

(단위 : 천ha)

구 분	합계	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산촌	3,755	49	161	1,252	289	128	292	290	923	371	-

자료 : 산림청, 2003 산촌기초조사



〈그림 15-3〉 시·도별 산촌의 산림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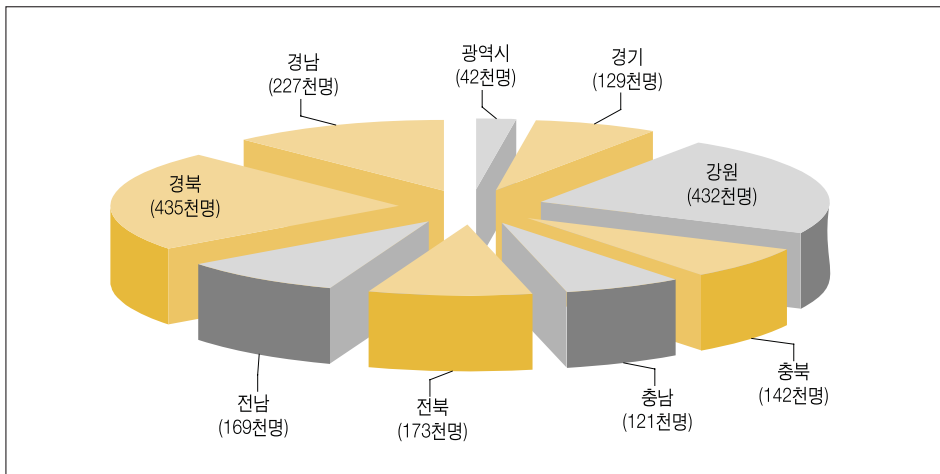
산촌의 전체 인구는 1,870천명으로 전국 인구의 3.9%에 불과하고 인구밀도에 있어서도 전국평균의 4.8명/ha에 비해 그 1/10에 불과한 0.4인/ha를 보여주고 있어 대표적인 인구 과소지역이다.

〈표 15-9〉 시·도별 산촌의 인구분포

(단위 : 천명)

구 분	합계	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산촌	1,870	42	129	432	142	121	173	169	435	227	-

자료 : 산림청, 2003 산촌기초조사



〈그림 15-4〉 시·도별 산촌의 인구분포

산촌의 총 농가는 393천호로 전국 대비 농가의 29.0%를 차지하고 경지면적은 전국 대비 26.1%를 점유하고 있어 소득수준이 산촌 이외의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영농규모에 있어서도 전국평균 세대당 경지면적은 1.50ha/세대에 비해 1.35ha/세대로 전국평균의 9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영농규모도 영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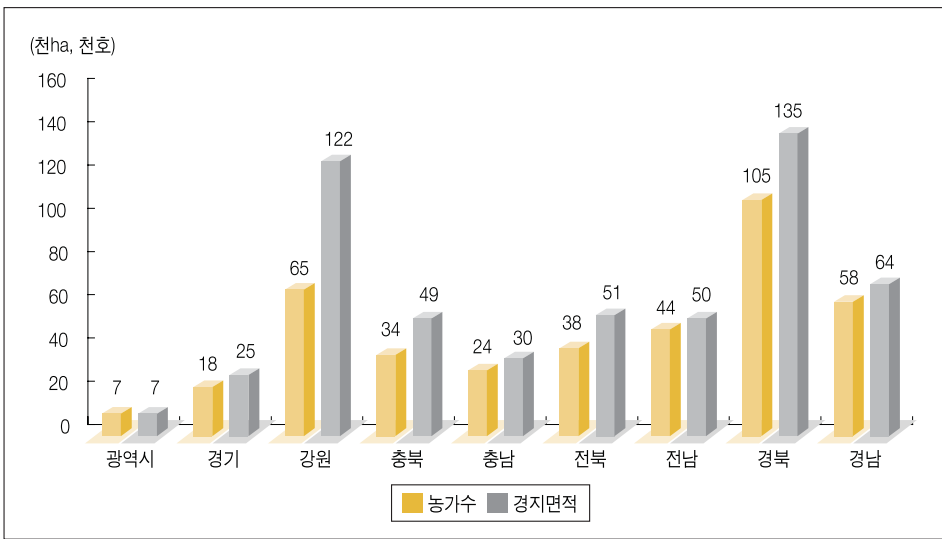


〈표 15-10〉 시·도별 산촌의 농가수 및 경지면적

(단위: 천호, 천ha)

구 분	합계	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가수	393	7	18	65	34	24	38	44	105	58	-
경지면적	533	7	25	122	49	30	51	50	135	64	-

자료: 산림청, 2003 산촌기초조사



〈그림 15-5〉 시·도별 산촌의 농가수 및 경지면적

산촌의 현황분석

1. 산림자원의 현황

소유별로 보면 국유림이 30%, 공유림 9%, 사유림이 61%를 점하고 있어 전국평균적인 소유비율보다 국유림의 비중이 매우 높은 대신에 사유림의 비율이 낮아 산촌주민의 생활 속에 국유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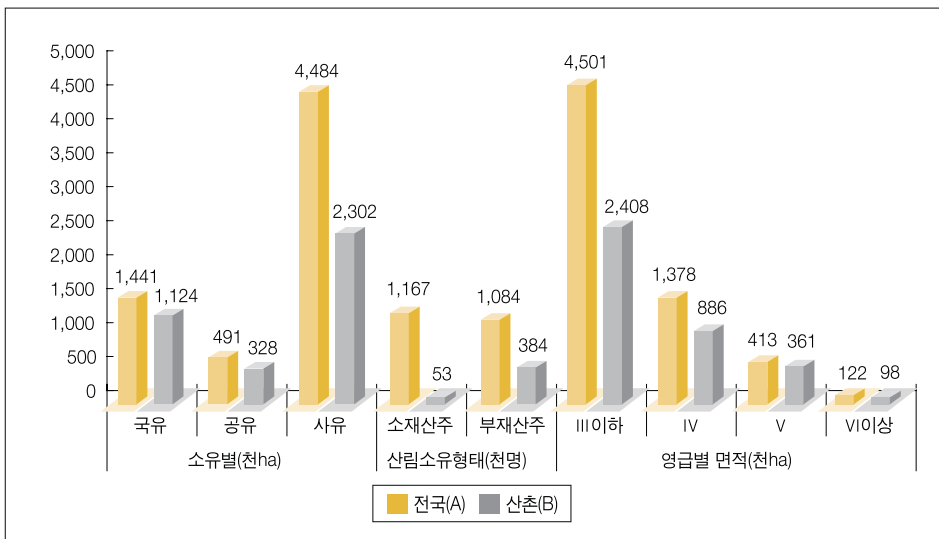
산림소유형태는 전국 자료와 비교하여 소재산주가 부재산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산촌지역 산림 중 국유림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산촌지역의 영급별 면적은 영급이 커질수록(IV~VI영급 이상) 비중이 커지고 있어 향후 용재생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촌지역의 장령림에 대한 관리와 경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15-11〉 산촌의 산림자원

(단위: 천ha, 천명, %)

구 분	합계	소유별(천ha)			산림소유형태(천명)		영급별 면적(천ha)			
		국유	공유	사유	소재산주	부재산주	III이하	IV	V	VI이상
전국(A)	6,415	1,441	491	4,484	1,167	1,084	4,501	1,378	413	122
산촌(B)	3,755	1,124	328	2,302	53	384	2,408	886	361	98
비율(% (B/A))	58.5	78.0	66.9	51.3	45.8	35.4	53.5	64.3	87.3	80.2

자료: 산림청, 2003 산촌기초조사



〈그림 15-6〉 산촌의 산림자원

2. 산림자원 활용

산촌지역 주민의 산림자원 활용은 유실수와 산나물, 임산버섯 등의 순으로 채취임업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재배를 통한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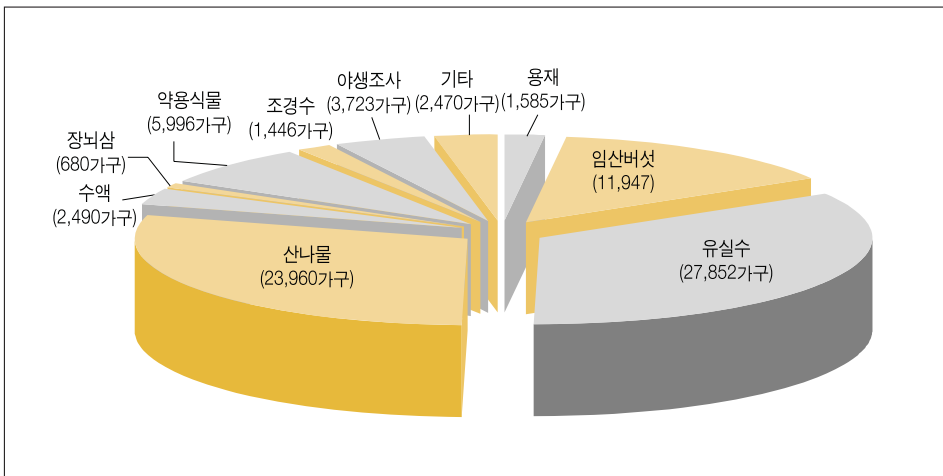


〈표 15-12〉 산림자원활용 가구수

(단위 : 가구, %)

구 분	용재	임산 버섯	유실수	산나물	수액	장뇌삼	약용 식물	조경수	야생 조수	기타
산촌	1,585	11,947	27,852	23,960	2,490	680	5,996	1,446	3,723	2,470
비율	1.9	14.5	33.9	29.2	3.0	0.8	7.3	1.8	4.5	3.0

자료 : 산림청, 2003 산촌기초조사



〈그림 15-7〉 산림자원활용 가구수

3. 농지 등의 분포 및 이용

산촌지역은 전체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이 42.9%를 차지하여 전국의 51.9%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이는 산촌지역이 아직도 경지정리·관배수·기계화 등의 사업에서 불리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산지구분에 있어서는 임업진흥권역이 전국 대비 77.3%를 차지하고, 전국의 임업용 산지 중 임업진흥지역이 36%에 비해 산촌지역은 임업용 산지 중 임업진흥권역은 39%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아 임업진흥지역은 산촌지역과 비 산촌지역에 비교적 고르게 지정되어 있다. 즉 임업의 생산기반조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시설은 산촌뿐 아니라 비산촌 지역에도 필요한 시설인 것이다.

〈표 15-13〉 농지 및 산지의 이용

(단위 : 천ha, %)

구 분	농지구분			산지구분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외	임업용산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전 체	임업진흥구역
전 국(A)	952	196	1,063	3,548	1,280
산 촌(B)	178	47	307	2,506	989
비율(B/A)	18.7	24.2	57.7	70.6	77.3

자료 : 산림청, 2003 산촌기초조사

4. 세대 및 인구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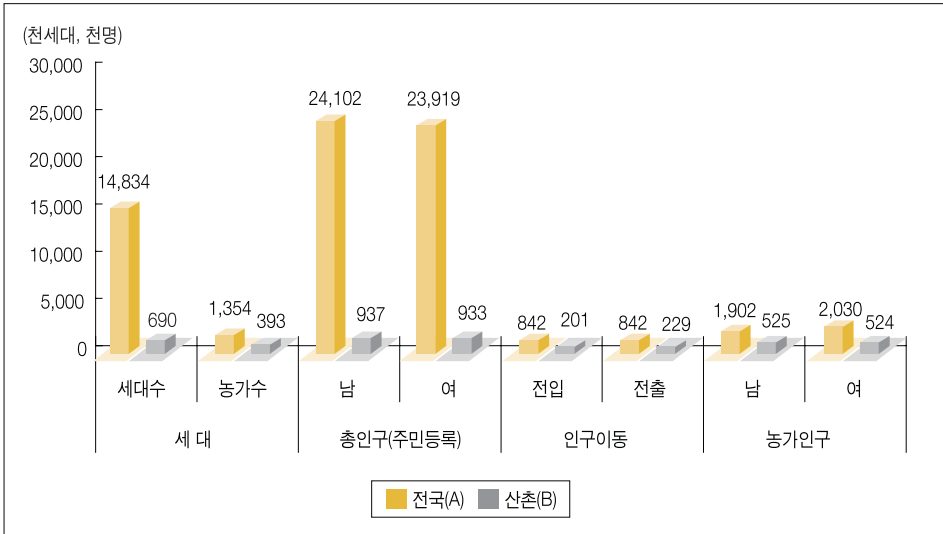
산촌지역 총인구는 전국대비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촌지역내의 남녀성비는 거의 5:5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구가동은 전국평균의 인구가동률이 19.3%인데 비해 산촌은 전입율은 10.7%이고 전출율은 12.2%로 전출이 많고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국 평균에 비하면 인구가동은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표 15-14〉 세대 및 인구

(단위 : 천세대, 천명, %)

구 분	세 대		총인구(주민등록)			인구가동		농가인구		
	세대수	농가수	합계	남	여	전입	전출	소계	남	여
전 국(A)	14,834	1,354	48,021	24,102	23,919	842	842	3,932	1,902	2,030
산 촌(B)	690	393	1,871	937	933	201	229	1,049	525	524
비율(B/A)	4.7	29.0	3.9	3.9	3.9	2.2	2.5	26.7	27.6	25.8

자료 : 산림청, 2003 산촌기초조사



〈그림 15-8〉 산촌의 세대 및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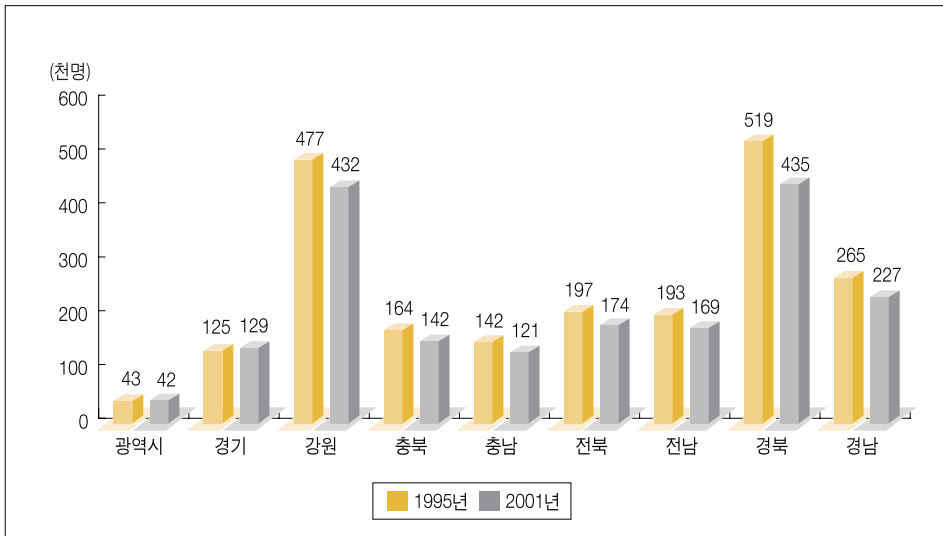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경북과 강원도의 인구 유출이 타 시도보다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경북과 강원도는 산림이 풍부하고 산촌도 많은 곳으로 산림산업에 필요한 인적자원이 절대적으로 모자라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영에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표 15-15〉 시·도별 산촌지역 총인구 변화 추이

(단위: 천명)

구분	합계	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995년	2,125	43	125	477	164	142	197	193	519	265
2001년	1,871	42	129	432	142	121	174	169	435	227
증·감	△254	△1	4	△45	△22	△21	△23	△24	△84	△38

자료: 산림청, 2003 산촌기초조사



〈그림 15-9〉 시·도별 산촌지역 총인구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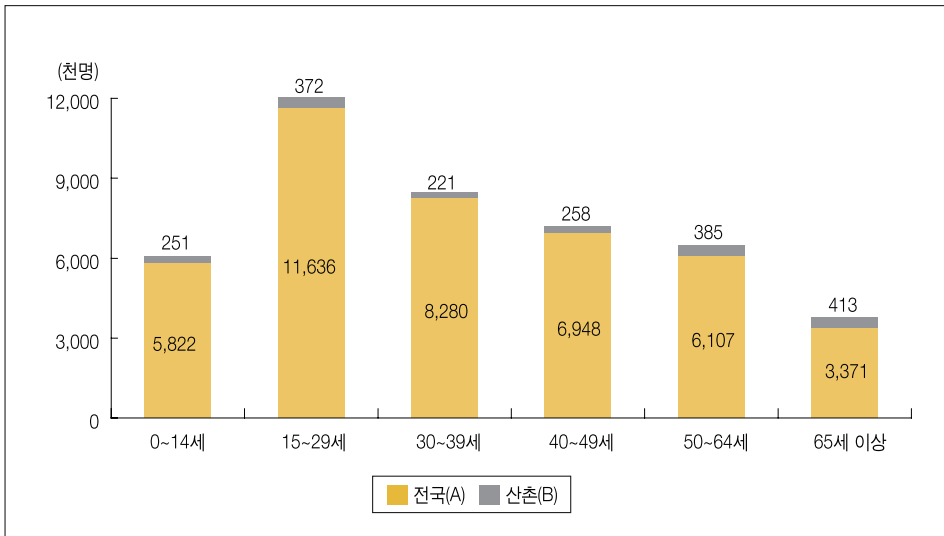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청장년층(30~49세)이 전국 대비 3.1% 수준이며, 50세 이상의 노년층이 타 연령층 보다 비율이 높아 산촌지역의 고령화가 심각하고 따라서 산촌의 주된 노동력은 50세 이상의 장령 인구로서 노동 생산성과 안전성 문제에 있어 산림작업이 위험성이 제일 높은 작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우려할 만한 문제이다. 산촌의 노령화 지수는 164.5%(65세 이상의 인구/14세 이하의 인구×100)로 우리나라의 노령화 지수 57.9%보다 월등히 높아 향후 산촌지역의 노동력 부족현상을 야기하여 임업 노동 문제의 발생이 예상된다.

〈표 15-16〉 연령별 인구 분포

(단위: 천명, %)

구분	합계	0~14세	15~29세	30~39세	40~49세	50~64세	65세 이상
전국(A)	42,166	5,822	11,636	8,280	6,948	6,107	3,371
산촌(B)	1,900	251	372	221	258	385	413
비율(B/A)	4.5	4.3	3.2	2.7	3.7	6.3	12.3

주: 외국인 제외, 주민등록상 인구가 아닌 실거주 인구 기준
 자료: 산림청, 2003 산촌기초조사



〈그림 15-10〉 연령별 인구 분포

5.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자원

산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공원은 전국 20개의 국립공원 중 한려해상, 한라산, 태안해안, 북한산, 변산반도,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을 제외한 14개소로 녹색관광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밝고 전체 국립공원의 95%가 산림 내에 소재하고 있어 산촌은 이러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개발 여지가 매우 높은 곳이다.

관광객이용시설과 기념품점은 한국관광공사에 지정, 등록된 59개소 외의 소규모 운영점까지 계상되어 전국값을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표 15-17〉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자원

(단위: 개소, %)

구분	국립공원	도·군립공원	유원지	자연휴양림	관광객이용시설	기념품점
전국(A)	20	53		97		59
산촌(B)	14	53	250	84	159	114
비율(B/A)	70	100	-	86.6	-	193.2

자료: 산림청, 2003 산촌기초조사

6. 소득 및 생산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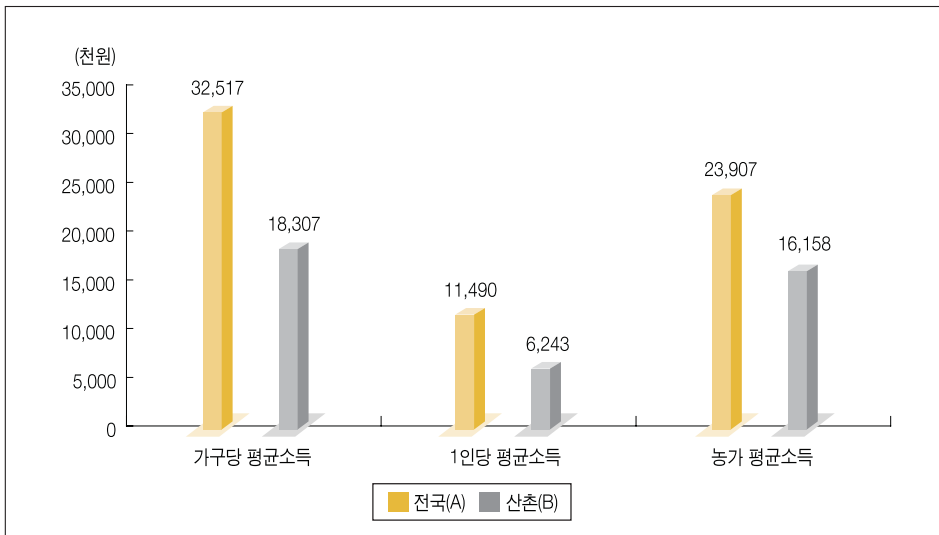
산촌지역의 연평균 소득은 전국 가구당 소득의 56%에 불과하고 1인당 소득도 54%인 6백만원 수준에 불과하여 산촌경제가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5-18〉 평균소득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가구당 평균소득	1인당 평균소득	농가 평균소득
전 국(A)	32,517	11,490	23,907
산 촌(B)	18,307	6,243	16,158
비율(B/A)	56.3	54.3	67.6

자료: 산림청, 2003 산촌기초조사



〈그림 15-11〉 평균소득 현황

산촌의 주요 소득작목은 일반 농가와 마찬가지로 수도작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제2작목으로는 전국적으로는 채소재배 농가가 많은 반면에 산촌은 고추를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각 지역의 환경 및 유통구조, 지역적 산업특성에 따라 축산과 채소, 과수 등도 주요 작목으로 선택되었다.



〈표 15-19〉 주 소득 작목

(단위: 천가구, %)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작목명	세대수	작목명	세대수	작목명	세대수	작목명	세대수
전 국(A)	수도작	794	채소	225	과수	143	밭작물	102
산 촌(B)	수도작	487	고추	28	채소	12	밭작물	9
비율(B/A)		61.5		12.4		8.8		9.5

자료: 산림청, 2003 산촌기초조사

산촌은 주민의 고령화와 작업조건이 험난하여 많은 작업에 기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산림작업 기계는 개발된 것이 많지 않고 산림작업용 기계의 사용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산촌가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림용 기계는 많지 않다. 다만 산촌의 많은 가구가 농업에 의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농사에 필요한 기자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의 농업기계보유에 비교하면 20% 내외 수준으로 매우 열악하여 향후 사회가 더욱 고령화 될 것을 대비하여 산촌지역의 농기계 보급을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5-20〉 농림용 기구기계 현황

(단위: 천대, %)

구 분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방제기	양수기	관리기	운반차
전 국(A)	922	201	342	87	642	352	-	-
산 촌(B)	247	39	76	17	153	89	99	19
비율(B/A)	26.9	19.6	22.2	20.0	23.9	25.3	-	-

자료: 산림청, 2003 산촌기초조사

7. 교육·의료·생활편의시설

산촌지역에 인구가 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육시설과 의료문화시설이 도시지역이나 타 농촌지역보다 열악하기 때문일 것이다. 산촌지역의 교육시설은 극도로 열악하여 현재 의무교육으로 되어있는 중학교까지도 유치원은 전국의 9%, 초등학교는 15%, 중학교는 14% 수준에 머물고 있다. 농산촌의 인구과소화가 농산촌 지역에서의 교육시설의 퇴출을 가져온 면도 적지 않으나 교육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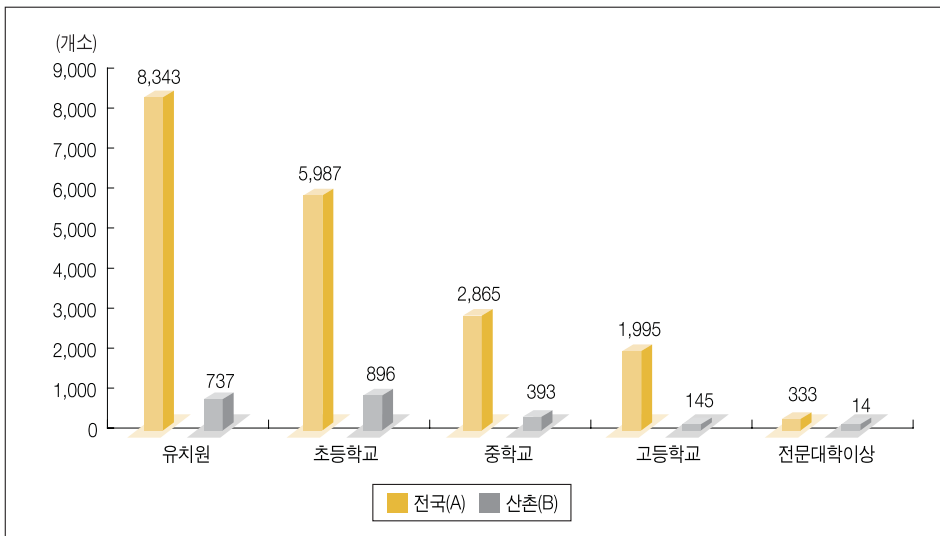
경제논리에 따르기보다는 학교의 존재가 지역의 활성화와 인구유인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회 간접시설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15-21〉 교육시설

(단위: 개소, %)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이상
전국(A)	8,343	5,987	2,865	1,995	333
산촌(B)	737	896	393	145	14
비율(B/A)	8.8	15.0	13.7	7.3	4.2

자료: 산림청, 2003 산촌기초조사



〈그림 15-12〉 교육시설 현황

산촌의 의료시설은 교육시설보다 더욱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앞서 본바와 같이 산촌 지역의 인구구성 및 세대구성이 급속하게 노령화, 취약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령사회를 유지하고 삶의 질적 수준을 유지해주기 위해서도 의료시설의 확충은 필수적이다(〈표15-22〉참조).



〈표 15-22〉 의료 및 복지시설

(단위: 개소, %)

구 분	의료기관			복지시설						
	병원 (의원)	보건소	약국 (한의원)	마을 회관	복지 회관	구판장	경로당	목욕탕	보육 시설	체육 시설
전 국(A)	21,686	3,401	26,194	-	-	-	33,486	10,098	653	6,150
산 촌(B)	309	824	544	7,554	332	623	7,161	232	188	427
비율(B/A)	1.4	24.2	2.1	-	-	-	21.4	2.3	28.8	6.9

자료: 산림청, 2003 산촌기초조사

병원과 약국의 수는 전국의 1~2%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국가기관인 보건소가 많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나 그나마도 전국의 24% 수준에 불과하다.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위해서 보건소만이라도 많은 산촌지역에 설치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아쉽다. 근래 산촌종합개발 등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결과 목욕탕과 경로당의 건설이 많아져 경로당은 전국의 21%, 목욕탕은 2.3% 수준에 달했다. 보육시설은 개인사업자가 소규모로 운영할 수 있기에 다른 복지시설과 달리 비교적 높은 전국대비 29%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일상 생활환경에 중요한 상수도 시설은 이전에는 공동우물이나 자체 관정 등을 이용한 지하수 활용과 하수의 무단 방출에 의존하였으나 환경의식의 강화와 주민건강을 위한 지역투자의 결과 상수도 보급률이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산촌의 상수도 보급률은 25.4%에 불과하여 전국 평균 87.8%의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하수도는 더욱 열악하여 하수도 보급률이 10.9%로 전국 평균 73%의 1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생활 및 산업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소각장은 아직도 전국의 2.2%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쓰레기 처리시설도 전국 대비 7.6%에 그치고 있다. 반면에 오폐수 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은 전국 대비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근래 농산촌 개발 사업의 결과 소규모 마을 단위의 시설이 도입되어 시설 수는 많아졌으나 전국 규모 통계에는 누락되어있는 시설이 많아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표 15-23〉 참조).

〈표 15-23〉 상·하수도 및 분뇨·쓰레기 시설

(단위: 개소, %)

구 분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소각장	오폐수처리 시설	분뇨처리 시설	쓰레기처리 시설
전 국(A)	87.8	73.2	6,168	183	187	879
산 촌(B)	25.4	10.9	137	2,503	402	67
비율(B/A)	28.9	14.9	2.2	1,367.7	215.0	7.6

자료: 산림청, 2003 산촌기초조사

8. 도로 교통

산촌지역의 도로는 전국 도로연장의 52%에 달하고 있으나 비포장도로의 대부분이 산촌에 분포되어 있을 정도로 도로 상태는 열악하다. 산촌을 달리는 도로는 농촌도가 많고 정비가 잘된 고속국도나 일반국도는 산촌지역 도로의 15%에 불과하고 농촌도가 전체 산촌 지역 도로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비포장도로의 경우 산촌지역의 도로연장의 합계가 전국 합계보다 많이 집계될 정도로 아직도 비포장도로의 비율이 매우 높다.

〈표 15-24〉 도로 교통

(단위: km, %)

구 분	합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농촌도	
총연장	전 국(A)	73,587	2,637	14,254	15,704	40,992	-
	산 촌(B)	38,346	720	5,108	6,838	8,189	17,491
	비율(B/A)	52.1	27.3	35.8	43.5	20.0	-
비포장	전 국(A)	13,418	-	85	2,246	11,087	-
	산 촌(B)	15,551	7	206	967	3,678	10,693
	비율(B/A)	115.9	-	242.4	43.1	33.2	-

자료: 산림청, 2003 산촌기초조사



제 16 장 세계속의 한국 임업

김철상

제 1 절 세계속의 우리나라의 산림면적

세계의 산림면적은 3,952백만ha로서 세계 육지면적의 30.3%를 차지한다. 그리고 세계 산림면적의 약 90%에 해당하는 3,538백만ha의 산림은 천연림으로 구성되어 지구의 허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 산림면적의 21%를 차지하는 809백만ha의 산림을 보유하여 세계에서 가장 넓은 산림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브라질은 478백만ha의 산림을 보유하여 세계 산림면적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미국, 중국 순으로 많은 산림을 보유하고 있다. 국토면적에 비해 산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는 핀란드, 일본, 한국 등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국토면적의 63.5%를 차지하는 6,265천ha에 달해 산림국가라 할 수 있으며, 세계 산림면적의 0.16%를 차지하고 있다.

〈표 16-1〉 세계의 산림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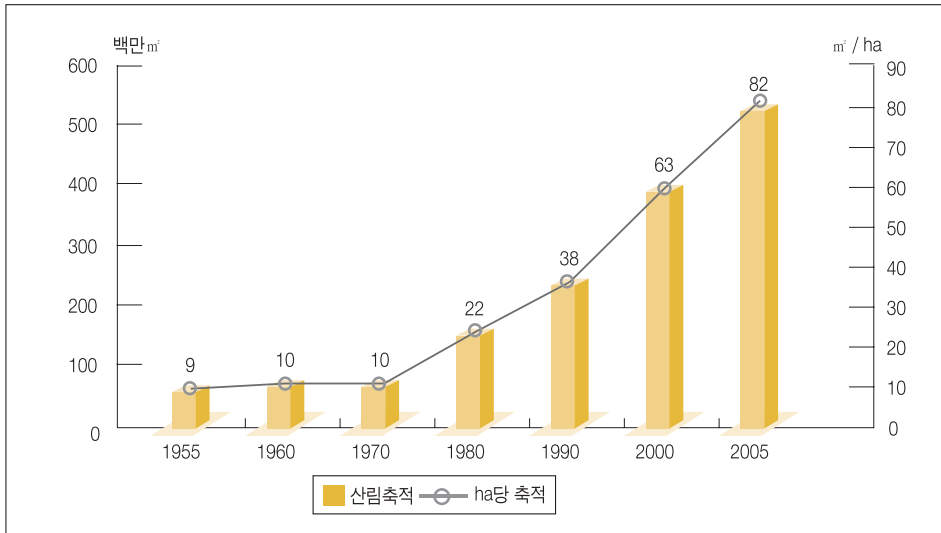
(단위 : 백만ha, %)

구 분	세계	러시아	브라질	캐나다	미국	중국	한국
국토 면적	13,067.4	1,688.9	845.9	922.1	915.9	932.7	9.9
산림 면적	3,952.0	808.8	477.7	310.1	303.1	197.3	6.3
산림 비율	30.3	47.9	56.5	33.6	33.1	21.2	63.5
세계 산림면적 대비 점유율	100.0	20.5	12.9	7.8	7.7	5.0	0.16

자료 : FAO, 2005 세계 산림자원평가보고서

제 2 절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1955년대 우리나라 산림의 평균 축적은 10m³/ha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었다. 일제 강점기의 산림자원의 수탈과 6·25 한국전쟁으로 우리나라 산림은 극도로 황폐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ha당 산림축적은 2005년 현재 82m³의 울창한 산림으로 바뀌었으며, 단기간에 산림녹화를 성공시킨 국가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1982년 FAO는 국제보고서²²⁾를 통해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녹화를 완성한 산림녹화 성공국가라고 밝히고 있다.



〈그림 16-1〉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변화

우리나라의 산림녹화를 위한 조림 및 산림복구 사업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과 함께 시행된 ‘치산녹화 7개년계획’이 시작되면서 본격화되었다. 당시에는 황폐한 산림을 우선 녹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였으므로 연료림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이 실시되었다.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1973~1978년)기간에는 농촌근대화 운동인 새마을 운동과 연계하면

22) 출처 : FAO, 1982, Village Forestry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pp.104

또한 미국의 지구정책연구소(Earth Policy Institute)에서 2006년에 발간한 “PLAN 2.0”에서는 “한국은 산림녹화의 세계적 모범국가”라고 격찬하고 있음



서 유실수 조림이 권장되었으며, 기간 중 100만ha의 조림을 완성하였다. 또한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1979~1987년)에는 장기 경제수종 위주로 97만ha의 조림을 달성하였다.

1970~80년대를 우리나라 국토녹화 달성의 '치산녹화기' 라고 부른다. 치산녹화기에는 매년 10만ha 이상을 조림하였으며, 어떤 해는 23만ha나 조림한 적도 있었다. 제1·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 기간의 조림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국토녹화를 완성할 수 있었다. 1992년에는 대한민국의 국토녹화 완성을 세계에 공표한 바 있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의 이후, 열대우림 및 천연림에 대한 벌채규제가 강화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 하에서 1988년부터 산지자원화 10년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림 16-2〉 황폐했던 1960년대의 산림과 조림 직후의 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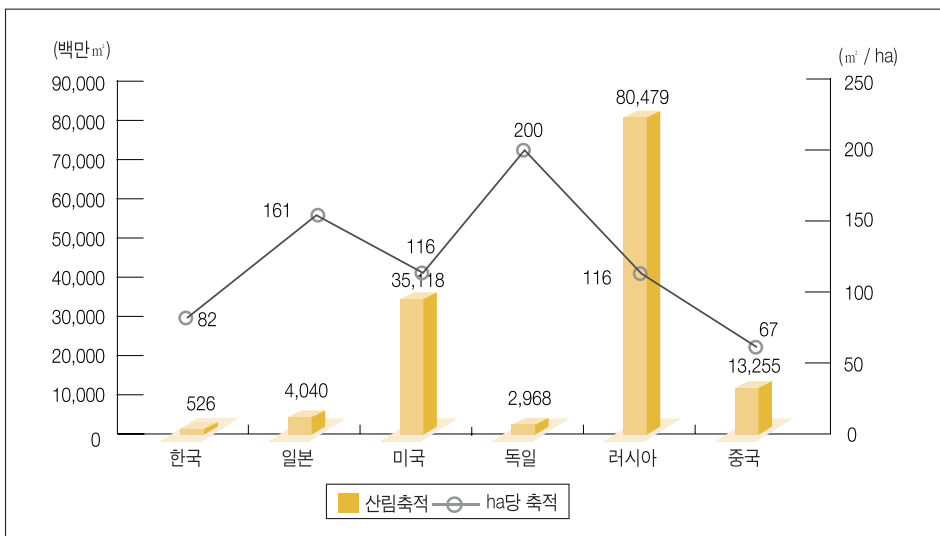


〈그림 16-3〉 최근 우리나라의 산림

산지자원화 계획(1988~1997년)은 국토녹화를 완성한 다음 이어지는 단계로 산림을 합리적으로 육성하여 자원화를 앞당기는 국민 경제적 의지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었다. 산지자원화 계획기간에는 조림보다는 육림사업 및 임업경영을 위한 임도시설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임업경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 3 절 우리나라의 산림축적

우리나라는 제1·2차 치산녹화10년 계획과 산지자원화 계획을 마무리하면서 산림녹화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산림자원은 아직 빈약한 실정이다. 선진 임업국으로 알려진 독일 268m³/ha, 일본 161m³/ha, 미국 116m³/ha 등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산림축적은 독일과 일본의 1/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82m³/ha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림 16-4〉 세계 주요국의 산림축적



제 4 절 우리나라 산림의 소유

우리나라의 산림은 국유림 23.4%, 공유림 7.7%, 사유림 69.1%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국유림 면적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사유림 면적은 매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05년 국유림 면적은 1,484천ha로 1970년 대비 210천ha 증가하였다. 산림이 갖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확대유지와 합리적인 국유림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유림 면적을 늘려가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유림 면적은 4,420천ha로 1970년 대비 426천ha 감소하였다. 우리 경제의 산업발전이 가속화 되면서 늘어나는 토지수요를 주로 사유림에서 공급하였기 때문이다.

〈표 16-2〉 우리나라 산림의 소유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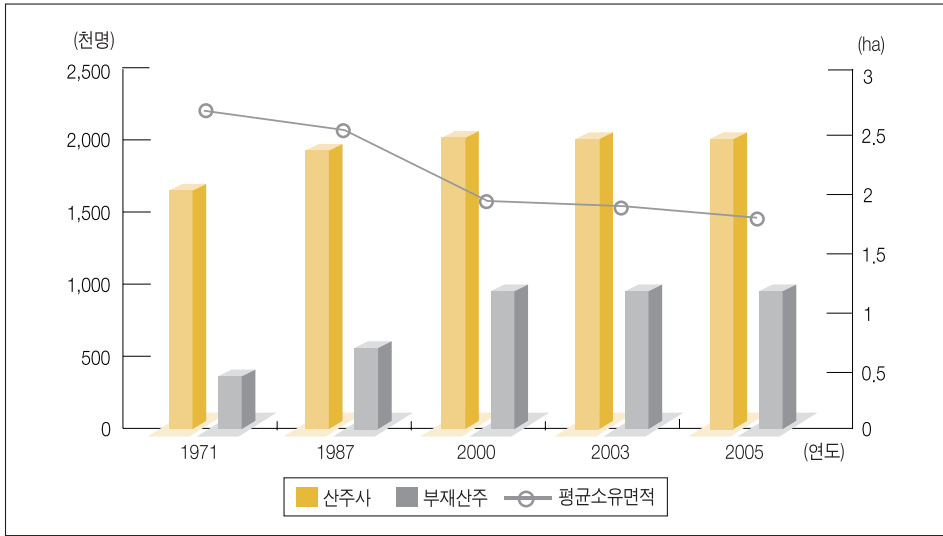
(단위: 천ha, %)

구분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기타	
1970년	6,611	1,277	489	4,846	-	
1980년	6,568	1,314	495	4,756	2	
1990년	6,476	1,346	489	4,625	15	
2000년	6,422	1,433	493	4,496	-	
2005년	면적	6,394	1,484	489	4,420	-
	점유율	100.0	23.2	7.7	69.1	-

자료: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소유구조를 보면, 2005년 현재 산림소유자(이하 산주)는 196만 명이며, 이들이 소유한 산림면적은 4,420천ha로 1인당 평균 소유면적은 2.3ha에 불과하다. 따라서 산림을 소규모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산림을 어떻게 규모화 하여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유도해나갈 것인가?’ 는 매우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산림경영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부채 산주가 전체 산주의 45%를 넘고 있다. 부채산주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면적은 전체 산림면적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도시로의 이주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소규모 산림소유와 과도한 부채 산림 소유자의 존재는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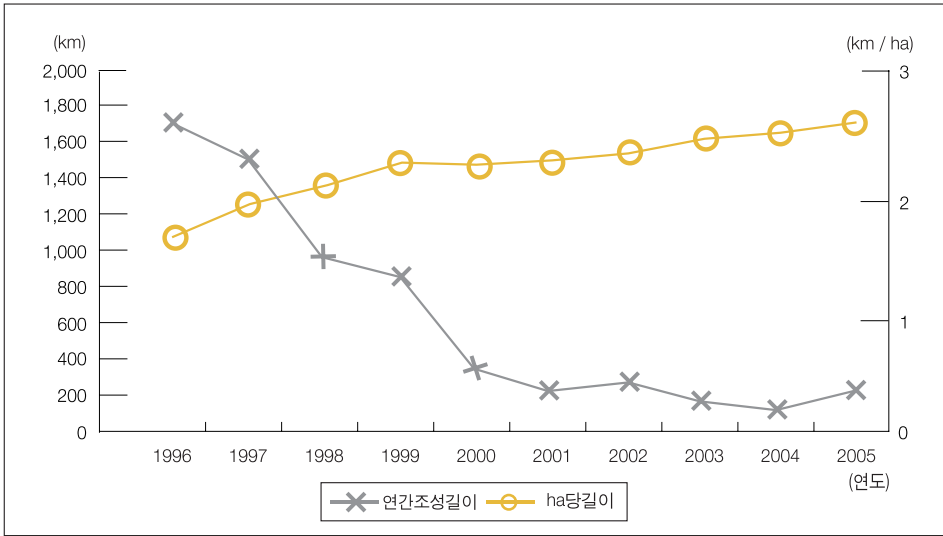


〈그림 16-5〉 사유림의 소유구조

제 5 절 우리나라의 임도

한편, 임도는 산림을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임도 총연장은 2005년 현재 15,825km에 불과하다. 임도의 연간 조성 길이는 최근 급속히 줄어들어 1995년에 2,022km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100km, 2005년에는 216km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ha당 임도길이는 지속적인 임도개설로 꾸준히 늘어나 1995년 1.46m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2.5m로 늘어났지만 아직도 독일 44.9m, 일본 5.4m 등 임업선진국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림 16-6〉 임도의 조성 및 ha당 길이

제 6 절 우리나라 산림의 영급별 구조

우리나라 산림의 영급별 구성을 보면, I~Ⅲ영급(I 영급: 1-10년생, Ⅲ영급: 16-30년생)이 임목지 전체 면적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임목축적은 전체 임목축적의 41%를 차지하는 216백만㎡에 불과하다.

〈표 16-3〉 우리나라 산림의 영급별 구성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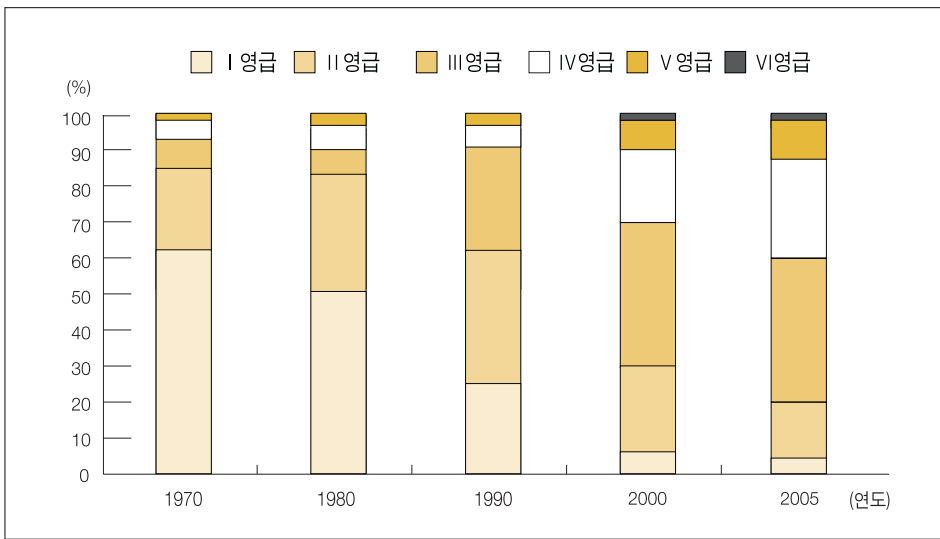
(단위: 천ha, %)

구 분		I	II	III	IV	V	VI	죽림	계
면적	수량	403	953	2,419	1,796	507	147	7	6,231
	점유율	6.5	15.3	38.8	28.8	8.1	2.4	0.1	100.0
축적	수량	0	47	169	206	74	29	-	526
	점유율	0.0	8.9	32.2	39.3	14.1	5.6	-	100.0

자료: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우리나라 산림의 영급별 면적변화를 살펴보면, 1970년 이후 I~II영급의 면적비율은 줄어든 반면, III영급 이상의 산림면적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성숙기에 도달하지 않은 4영급 이하의 산림면적이 60%이상으로 많은 면적을 점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부분 산림은 어린나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경제림으로 가꾸어나가기 위한 육림 및 간벌 등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다.



〈그림 16-7〉 우리나라 산림의 영급별 면적 변화

제 7 절 국민총생산과 임업생산액

임업은 목재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임산물을 공급해주는 것은 물론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막대한 공익효과를 제공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2006년 임산물 총생산액은 3조 1,568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중, 순임목 생산액은 8,999억원으로 임산물 총생산액의 29.5%를 차지하여 가장 많다. 다음으로 조경재(조경수, 분재, 야



생화 포함) 8,343억원, 수실류 4,300억원, 버섯류 2,482억원, 산나물류 1,929억원, 용재 1,616억원, 농용자재 1,180억원 순으로 높다.

국내총생산액(GDP)에서 임산물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2000년 국내총생산액에서 임업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0.51%로 나타났으나, 그 비율이 매년 떨어져 2006년에는 0.37%에 불과하였다. 국내총생산의 증가분에 비해 임산물 생산 증가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임산물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화되고 있는 모습은 매년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와 경제구조가 닮은 일본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 표 16-4 > GDP와 임산물 생산액

(단위 : 10억원(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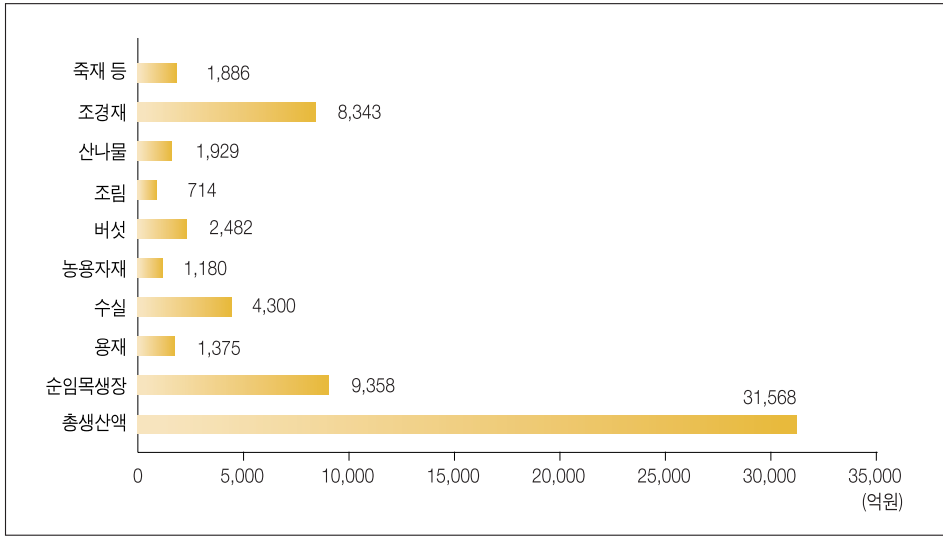
구 분		2000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한국	국내총생산(a)	578,665	779,381	810,516	847,876
	임산물생산(b)	2,962	3,259	3,047	3,157
	점유율(b/a)	0.51	0.41	0.38	0.37
일본	국내총생산(c)	502,990	498,328	498,328	-
	임산물생산(d)	531	435	417	-
	점유율(d/c)	0.11	0.09	0.08	-

자료 : 한국은행 ;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 일본, 임업통계요람

제 8 절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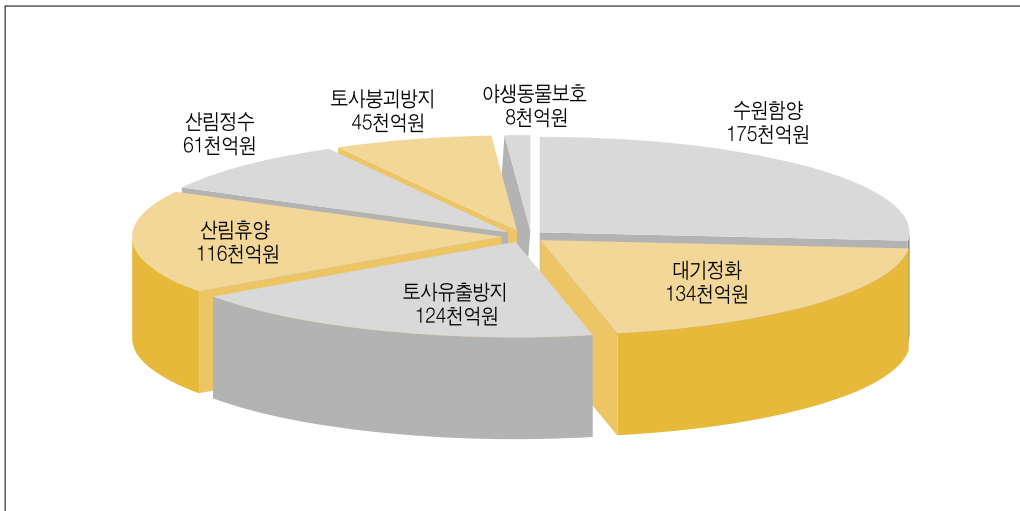
산림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국민생활에 필요한 목재를 제공해주는 기능 이외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국민 누구에게나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있다.

산림은 자연 저수지이며, 자연 정수기이고, 공기정화기라 할 수 있다. 또한 산림과 숲은 흙 흘러내림을 줄여주고, 산사태를 막아준다. 그리고 우리의 쉼터이기도 하고 새와 들짐승 등 야생동물의 보금자리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산림과 숲이 갖고 있는 공익적 기능이다.



〈그림 16-8〉 우리나라 임산물 생산액 구조

산림이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의 평가액은 65조 9,066억원(2005년 기준)에 달한다. 이와 같이 산림의 공익적 가치 평가액은 농림어업생산의 2.7배, 국민총생산의 8.2%에 상당한다. 그리고 국민 1인당 136만원 정도의 혜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6-9〉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평가액

I. 자연환경

II. 농림어가의 인구와 가족

III.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

IV. 농업

V. 임업

VI. 어업



제 9 절 우리나라의 산림휴양 자원

우리나라는 산림휴양 기회의 다양화를 위하여 자연공원 체계를 설정하였다. 자연공원에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이 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수목원 등도 산림을 이용한 휴양자원이라 할 수 있다.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자연공원법에 의해 지정된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67년 지리산을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한 이래 총 20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의 면적은 해상면적을 제외하면 390천ha로 국토면적의 3.9%를 차지한다.

자연휴양림은 국민의 보건휴양·정서함양·자연학습 및 산림소유자의 소득 증대를 위해 경관이 수려한 산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조성하였다. 자연휴양림은 1989년 유명한 휴양림 869ha를 조성한 것이 최초이며, 매년 증가하여 2006년 현재 123개소 약 135천ha가 조성되었다.

이 밖의 산림을 이용한 휴양지로는 산림욕장, 수목원(식물원), 산림박물관, 숲속 수련장 등이 있고, 넓게 해석하면 골프장, 스키장, 수렵장 등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6-5〉 산림휴양 자원 현황

(단위 : ha, %)

구 분		휴양지면적 (ha)	점유율(%)		비고
			국토면적대비	산림면적대비	
자 연 공 원	국립공원	389,894.8	3.9	6.1	20개소
	도립공원	78,381.8	0.8	1.2	23개소
	군립공원	44,173.1	0.4	0.7	33개소
	소 계	512,449.7	5.2	8.0	-
자연휴양림		134,721.0	1.4	2.1	123개소
기 타	산림욕장	5,504.0	0.1	0.1	102개소
	수목원	7,092.0	0.1	0.1	38개소
	소 계	12,596.0	0.1	0.2	-
계		659,766.7	6.6	10.3	-

주 : 국립공원과 군립공원의 경우 해상면적은 제외

자료 :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욕장은 신체 수양의 대상으로 숲속의 나무에서 발산하는 정유물질인 인체에 유익한 피톤치드(Phytoncide)를 마시거나 접촉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휴양시설이다. 숙박시설이 없는 것이 자연휴양림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산림욕장은 1994년 6개소를 개장하기 시작하여 2006년 현재 102개소, 5.5천ha가 조성되어 국민의 건강휴식처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림휴양지 면적은 659천ha로 국토면적의 6.6%, 전체 산림면적의 10.3%를 차지하고 있으나 산림의 휴양공간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제 10 절 우리나라의 목재 소비와 국산재공급

우리나라의 2005년 목재소비량은 약 2천 3백만m³에 달하였다. 이중, 펄프용재 소비량이 전체 목재소비량의 46%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제재용재, 합판용재, 목질 보드용재 순으로 점유 비율이 높다. 2050년의 목재 수요량은 약 12백만m³ 증가한 3천 5백만m³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2050년의 국산재의 공급량은 6백 2십만m³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산림의 임목축적량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수입목재에 대한 의존도는 완화될 것이다.

국산재의 원목자급률은 2005년 27%에서 2050년 60%로, 제품을 포함한 목재자급률은 2005년 10%에서 2050년 1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목재소비량은 2005년 0.47m³에서 2050년 0.82m³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목재수요는 1970년대까지 합판생산을 중심으로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 수출하는 수출용 원목수요가 목재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1970년대 초까지 합판 수출은 우리나라 제1의 수출 품목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 자원보유국의 자국내 임산업 육성 및 보호 등의 영향으로 수출 주도형 임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합판 수출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우리나라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내수용이 크게 증가하여 목재수요 패턴은 수출주도형 수요에서 내수용 수요로 바뀌었다. 국산재 공급량은 우리나라 산림의 임목축적량이 증가하면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연간 목재소비량은 약 25,000천m³/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에는 외환위기에 의한 IMF 관리체제하에서 국내경기의 침체와 위축으로 목재소비가 급격히 감소하여 20,081천m³의 실적을 나타낸 적도 있다.

원목 생산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지역에서 1,017백만m³(전체생산량의 29.2%)를 생산하여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유럽 661백만m³(18.9%), 아프리카 633백만m³(18.1%), 북·중미·남미지역 374백만m³(10.7%), 오세아니아지역 58백만m³(1.7%)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원목생산량은 2005년 256만m³로서 세계 생산량의 0.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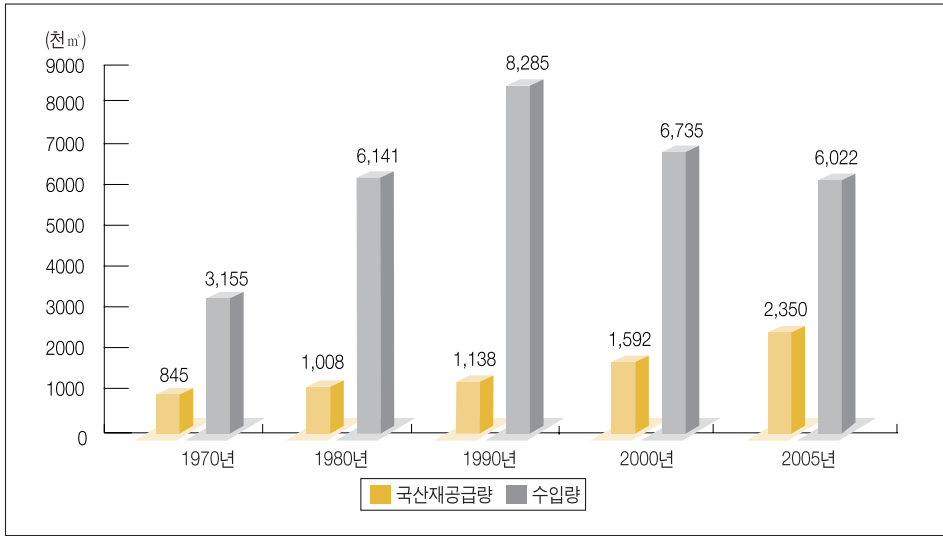
〈표 16-6〉 목재의 수요 및 공급 전망

(단위 : 천m³,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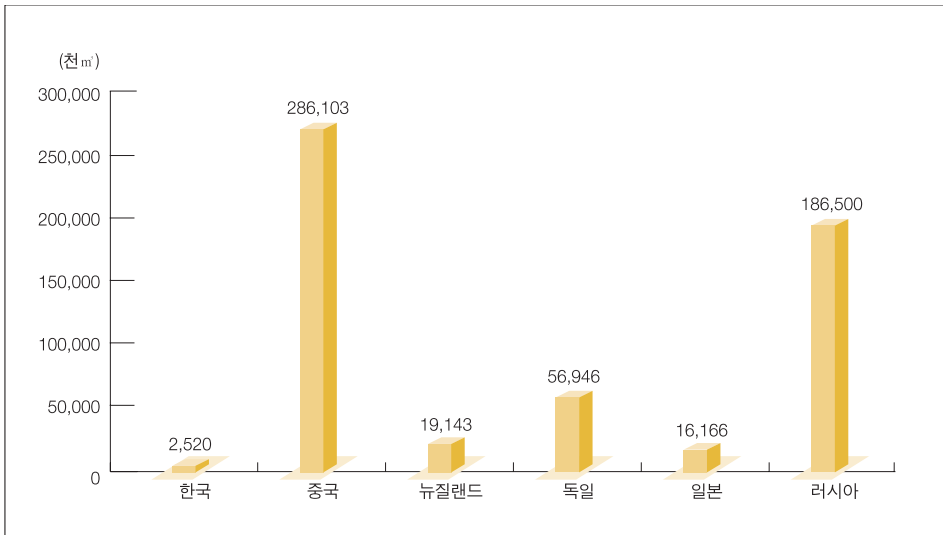
구 분		관 측 치		예 측 치					
		2000년	2005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수요	계	20,170	22,856	24,045	26,456	29,600	32,461	34,674	
	제재용재	6,795	6,215	6,624	7,413	8,612	9,688	10,453	
	합판용재	2,872	3,247	3,637	4,364	5,291	6,119	6,744	
	섬유판용재	1,195	2,317	2,528	3,003	3,619	4,172	4,590	
	PB용재	0	0	0	0	0	0	0	
	펄프용재	8,835	10,614	10,792	11,150	11,514	11,882	12,256	
	기타용재	473	463	464	526	565	600	631	
공급	계	20,170	22,856	24,045	26,456	29,600	32,461	34,674	
	수입재	계	18,578	20,506	20,830	22,222	24,535	26,735	28,430
		제품	11,841	14,235	14,746	16,611	19,396	22,058	24,203
		원목	6,737	6,271	6,084	5,611	5,139	4,677	4,227
국산재	1,592	2,350	3,214	4,234	5,065	5,726	6,244		
자급율 (%)	원목	19.0	27.0	35.0	43.0	50.0	55.0	60.0	
	목재	8.0	10.0	13.0	16.0	17.0	18.0	18.0	

주 : 원목자급률은 원목소비량에 대한 국내 원목생산량 비율을 말하며, 목재자급률은 전체목재소비량에 대한 국산 원목생산량의 비율을 말함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그림 16-10〉 국산재 공급량과 원목수입량 증가



〈그림 16-11〉 세계 주요국의 원목 생산량

I. 자연환경

II. 농림어가의 인구와 가족

III.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

IV.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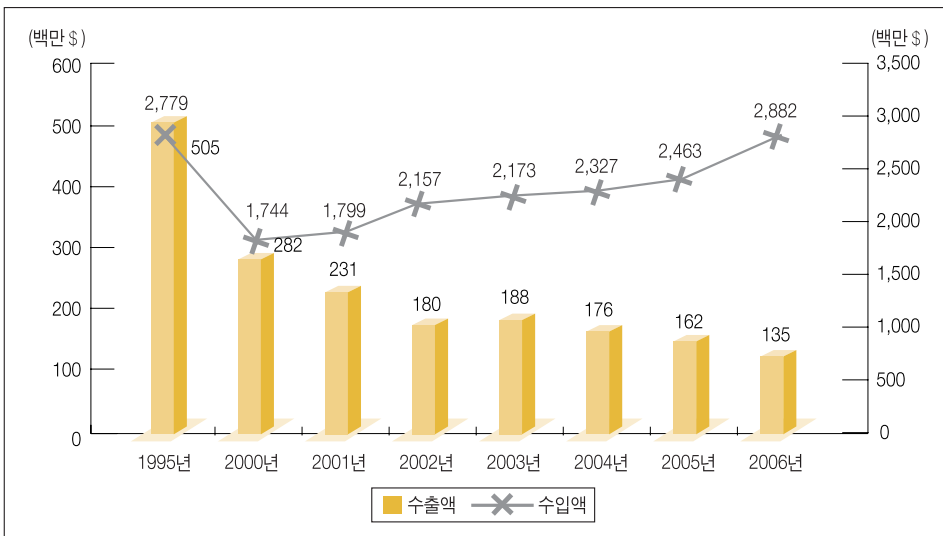
V. 임업

VI. 어업



제 11 절 우리나라 임산물 수출입

2006년 임산물 총 수출액은 전년대비 16.4% 감소한 135백만\$이었다. 이 중 목재류는 52백만\$(임산물 총 수출액의 38.5%), 석재류가 12백만\$(8.4%)이었으며, 단기임산물은 72백만\$(53.1%)로 단기 임산물의 수출액이 가장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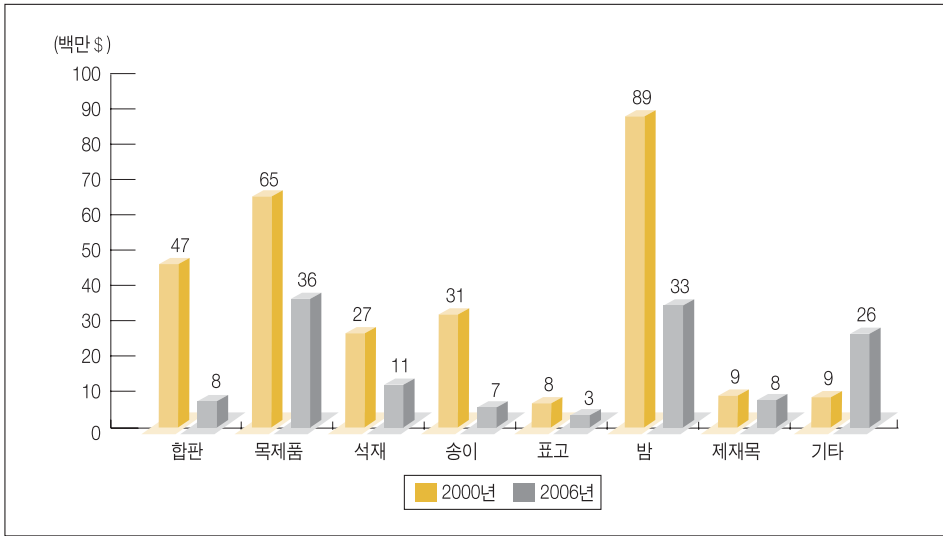


〈그림 16-12〉 임산물의 수출액 및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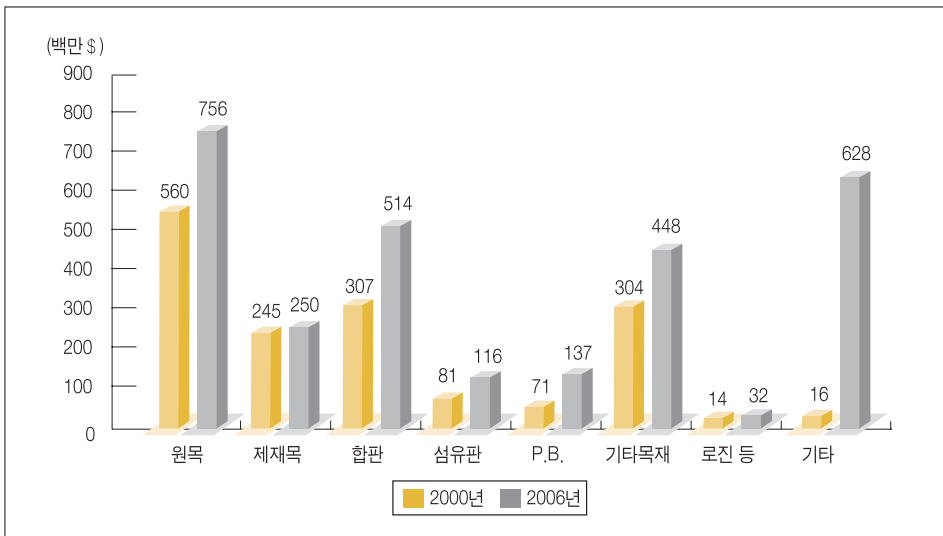
2006년 수출액이 많았던 임산물의 품목은 목재 및 목제품 44,212천\$, 다음으로는 밤 33,296천\$, 석재류 11,429천\$, 표고버섯 등 버섯류 10,574천\$, 합판 7,978천\$, 송이 7,034천\$ 순으로 많았다.

이들 품목의 수출액은 114,523천\$로 2006년 임산물 수출액의 약 85%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임산물 수출은 일부 품목에 편중되어 있다.

2006년 임산물 총 수입액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2,882백만\$였다. 임산물 총 수입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임산물 수입액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원목 수입액이 가장 많은 756백만\$를 비롯하여 합판 514백만\$, 제재목 250백만\$, 섬유관 116백만\$, 파티클보드 137백만\$, 단판 105백만\$ 등이다.



〈그림 16-13〉 주요 임산물의 품목별 수출액



〈그림 16-14〉 주요 임산물의 품목별 수입액

2006년 임산물 수출의 주요 상대국은 일본(47,858천\$), 중국(40,546천\$), 대만(10,722천\$), 미국(7,423천\$), 베트남(5,738천\$) 등이며, 상위 5개국으로의 수출액은 112백만\$로 2006년 임산물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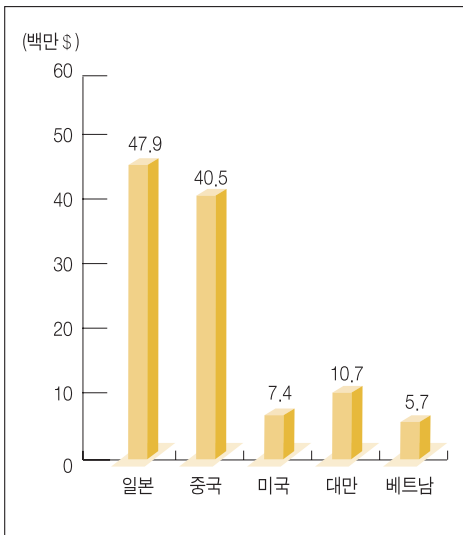
액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수입 상대국은 중국(955,227천\$), 뉴질랜드(328,956천\$), 말레이시아(325,340천\$), 미국(248,994천\$), 인도네시아(217,989천\$) 등이며, 상위5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077백만\$로 2006년 임산물 총수입액의 72%를 차지하였다.

임산물의 수출은 매년 감소하고, 수입은 매년 증가하는 원인은 가격경쟁력 열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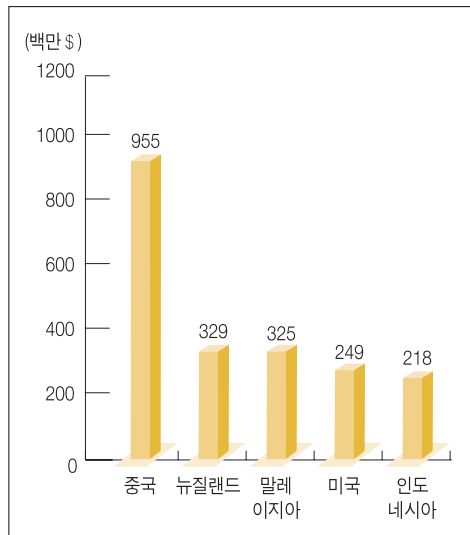
첫째, 원목 등 원자재 수출에 주력하던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자원보유국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함에 따라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 열세가 계속되고 있다.

둘째,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중국의 기술력 상승으로 우리나라 제품의 중국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일본 등 수출시장에서 중국제품과의 가격경쟁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열세에 있다.

셋째, 중국의 단기임산물 수출이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림 16-15〉 임산물의 수출 상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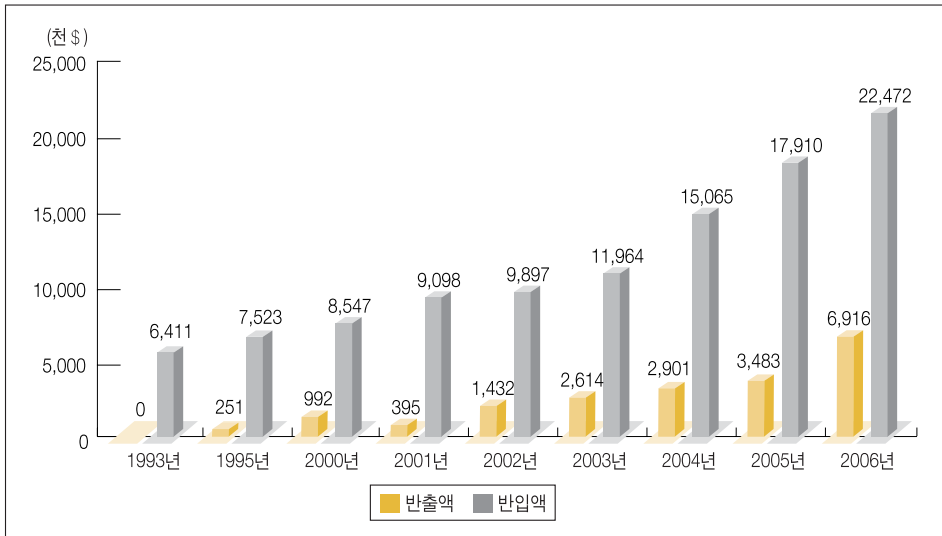


〈그림 16-16〉 임산물의 수입 상대국

제 12 절 남북한의 임산물 교역

남한과 북한과의 교역은 1988년 '7·7공동선언' 이후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1989년 남북한 교역액은 2천만\$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94년 '남북경제협력활성화조치' 이후 교역액은 연 2억\$ 수준으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임산물의 남북한 교역은 1993년 6,411천\$에서 2006년에는 29,338천\$로 약 4.6배 증가하였다. 임산물 교역액 중 반입액은 22,472천\$, 반출액은 6,916천\$로 반입액이 반출액의 3배 이상이나 많다. 임산물의 주요 반입품목은 표고버섯, 송이, 호두, 고사리, 도토리 등이며, 주요 반출 품목은 합판, 제재목 및 목축용 목제품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6-17〉 임산물의 남북 교역



제 13 절 목재 산업의 고용

나무를 특성별로 활용하는 목재산업은 제재업을 비롯하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칩, 톱밥, 목탄·목초액, 목공예, 가구, 목조주택 등 목재가공업 및 제지산업에 이르기까지 무척 다양하다.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의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2006년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4.3일로 전산업의 월평균 근로일수보다 1.6일 많았다.

또한 2006년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11.6시간으로 나타나, 전산업의 평균 근로시간보다 20.2시간이나 많았다. 반면에 동 산업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1,959천원으로 전산업의 평균임금보다 583천원이나 적었다.

〈표 16-7〉 목재 및 나무 관련 산업의 고용 및 임금(월평균)

(단위 : 명, %, 일/월, 시간/월, 천원/월)

구 분	전산업평균		목재 및 나무		펄프 및 종이	
	2005년	2006년	2005년	2006년	2005년	2006년
입직자수(A)	151,979	164,305	730	623	1,007	951
입 직 율(a)	2.41	2.49	3.24	2.76	1.82	1.75
이직자수(B)	152,637	159,574	689	639	1,070	1,076
이 직 율(b)	2.42	2.42	3.06	2.83	1.92	1.98
근로일수	23.2	22.7	24.7	24.3	24.8	24.3
근로시간	195.1	191.2	211.4	211.6	212.1	208.3
임금총액	2,404	2,542	1,905	1,959	2,292	2,388

자료 : 노동부, 노동통계(종업원 5인 이상업체) 각 월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4.3일로 전산업 평균보다 1.6일 많았으며, 월평균 근로시간은 208.3시간으로 전산업의 월평균보다 17.1시간이나 많았다. 반면에 월평균 임금총액은 2,388천원으로 전산업의 월평균 임금총액보다 154천원 적었다.

이와 같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과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등 목재 및 종이 관련 산업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및 임금 등 근로 조건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제 14 절 우리나라의 합판 생산업

합판 산업은 1980년대 전반까지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주종 산업으로서 1985년에는 전국에 88개 업체, 3만 여명에 달하는 종업원이 수출산업을 주도한 적이 있었다.

합판 생산업은 2006년 현재 4개 생산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연간 생산능력은 748천m³에 달한다. 2006년 합판 생산량은 674천m³이었으며, 평균 가동률은 90%로 높은 편이었다. 합판 생산액(공장도가격)으로는 약 2,642억원에 달하였으며, 동 분야에 1,305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표 16-8〉 합판 산업현황

(단위 : 개소, 천m³, %, 억원, 명)

구 분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생산 업체	5	5	5	4	4	4
생산능력(천m ³)	930	872	860	877	838	748
생산량(천m ³)	747	824	834	699	680	674
가동률(%)	80.3	94.5	97.0	79.7	81.1	90.1
연간 생산액(억원)	3,012	3,184	3,199	2,983	2,573	2,642
종업원수	2,083	1,831	1,769	1,888	1,300	1,305

자료 : 산림청 ; 한국합판보드협회, 합판 및 보드통계

〈표 16-9〉 합판산업의 생산 및 수급

(단위 : 천m³)

구 분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생산량	748	824	834	699	680	674
출하량	618	823	746	676	674	695
수출량	101	46	49	60	15	13
수입량	980	1,340	1,444	1,203	1,242	1,297

자료 : 산림청 ; 한국합판보드협회, 합판 및 보드통계



제 15 절 우리나라의 파티클보드 생산업

파티클보드 생산업은 100% 폐재를 이용할 수 있는 분야로서 폐목재 등의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산업이다.

2006년 말 현재, 파티클보드 산업은 3개 업체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3개 업체의 연간 총 생산능력은 896천m³에 달하고 있으며, 동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수는 203명이었다.

파티클보드의 2006년 생산량은 777천m³이며, 출하량은 756천m³의 실적을 보였으며, 수출량은 1천m³ 불과한 반면, 수입량은 955천m³에 달하고 있다.

〈표 16-10〉 파티클보드 산업현황

(단위 : 개소, 천m³, %, 억원, 명)

구 분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생산업체 수	4	4	3	3	3	3
생산능력(천m ³)	703	708	840	840	898	896
생산량(천m ³)	722	728	794	896	847	777
가동률(%)	102.7	102.8	94.5	106.7	94.3	86.7
연간생산액(억원)	1,326	1,266	1,245	1,767	1,386	1,357
종업원 수	327	328	330	310	250	203

자료 : 산림청 ; 한국합판보드협회, 합판 및 보드통계

〈표 16-11〉 파티클보드 생산 및 수급

(단위 : 천m³)

구 분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생산량	724	728	794	896	847	777
출하량	719	671	868	845	872	756
수출량	4	2	5	2	2	1
수입량	485	796	681	867	759	955

자료 : 산림청 ; 한국합판보드협회, 합판 및 보드통계

제 16 절 섬유관 생산업

2006년 말 현재, 섬유관 생산업체는 8개 업체이며, 연간 생산능력은 1,658천m³에 달하고 있다. 2006년 섬유관 생산업체의 평균 가동률은 99%에 달하고 있다. 2006년 섬유관 생산액은 공장도 가격기준으로 약 4,145억원에 달한다. 섬유관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수는 약 730명에 달하고 있다.

〈표 16-12〉 섬유관 산업현황

(단위: 개소, 천m³, %, 억원, 명)

구 분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생산 업체수	6	6	8	8	8	8
연간생산능력(천m ³)	1,026	1,272	1,508	1,652	1,652	1,658
연간생산량(천m ³)	943	1,236	1,318	1,584	1,653	1,642
연평균가동률(%)	91.9	97.2	87.4	95.9	100.0	99.0
연간생산액(억원)	2,927	3,256	3,731	4,325	3,707	4,145
종업원 수	712	635	726	728	630	732

자료: 산림청; 한국합판보드협회, 합판 및 보드통계

2006년 섬유관 생산량은 1,642천m³이었으며, 출하량은 1,632천m³이었다. 그리고 2006년 섬유관 수입량은 453천m³에 달하였으나, 수출량은 31천m³에 불과하였다.

최근 원목 수입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섬유관용 원자재로 국산재 침엽수 원목(주로 육송)의 사용량을 늘리고 있으나, 제재 폐재를 50% 이상 사용하던 것과 비교하면 국산재 육송 원목의 공급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것이어서 섬유관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표 16-13〉 섬유관의 생산 및 수급

(단위: 천m³)

구 분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생산량	943	1,236	1,318	1,584	1,653	1,642
출하량	787	1,149	1,275	1,498	1,580	1,632
수입량	380	753	582	343	416	453
수출량	97	51	52	83	48	31

자료: 산림청; 한국합판보드협회, 합판 및 보드통계



제 17 절 우리나라의 칩 생산업

화학펄프용 활엽수 칩을 생산하는 업체는 2006년 말 현재, 9개 업체이며, 연간 생산능력은 전년과 같은 310천BDT이었다. 2006년 칩 생산업체의 연평균 가동률은 약 80%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분야의 종사자수는 148명이었다.

〈표 16-14〉 칩 산업현황

(단위 : 개소, 천^m, %, 억원, 명)

구 분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생산업체 수	9	9	9	9	9	9
연간생산능력(천 ^m)	269	280	269	310	310	310
연간 생산량(천 ^m)	314	220	314	244	242	249
연평균 가동률(%)	116.7	78.6	116.7	78.7	78.1	80.3
연간생산액(억원)	490	346	533	415	479	493
종업원 수	141	148	141	148	148	148

자료 : 산림청 ; 한국합판보드협회, 합판 및 보드통계

2006년 칩 생산량은 전년대비 2.9%가 증가한 249천 BDT이었으며, 생산액으로는 493억원에 달한다. 칩 수입량은 1,020천BDT이었으며, 수입액으로는 97,728천\$에 달하였다. 그러나 2006년 칩 수출량은 38천BDT, 수출액은 21천\$에 불과하였다.

〈표 16-15〉 칩의 생산 및 수급

(단위 : 천BD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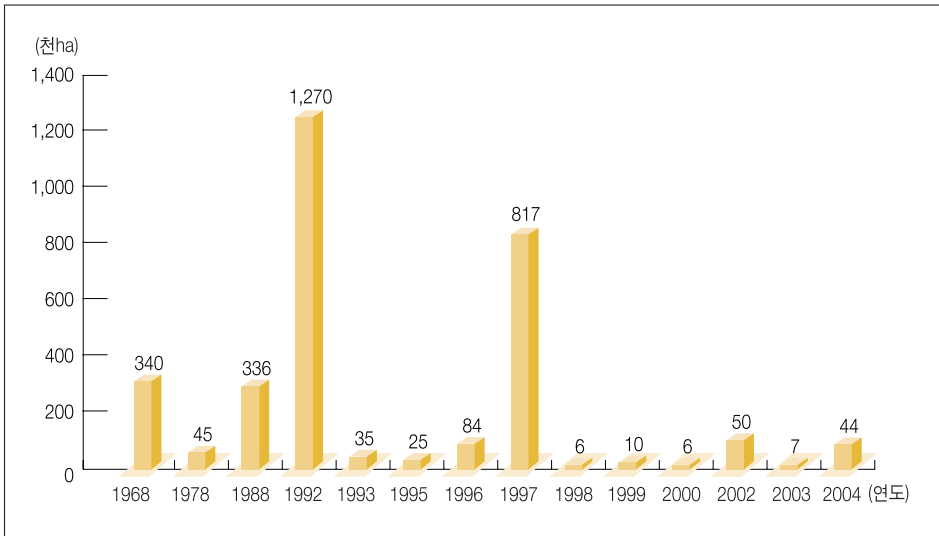
구 분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생산량	314	314	314	244	242	249
수입량	1,068	868	969	1,039	985	1,020
수출량	55	28	28	1	117	38

자료 : 산림청 ; 임산물수출입통계; 임업통계연보

한편, 국내에서 유일하게 화학펄프를 생산하는 동해펄프(주)의 2006년 칩 수요량은 약 820천BDT이었으며, 국내에서 생산된 249천BDT의 칩이 동해펄프에 공급되어 국내산 칩의 공급 점유율은 약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 18 절 해외 산림개발과 해외조림

우리나라는 목재수요의 90%이상을 외재에 의존하고 있다. 2006년 목재자급률은 총 목재수요의 7%에 불과하며, 2050년에도 30%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목재산업에



〈그림 16-18〉 해외 산림개발 실적

필요한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산림 개발과 해외조림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해외 산림개발은 합관용 원자재인 열대활엽수 원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다. 1968년 한국남방개발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산림벌채 사업을 추진한 것이 우리나라의 해외 산림개발의 시초이다.

해외조림은 해외로부터 장기간 안정적으로 원목의 공급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해외 산림개발과 비슷하다. 해외조림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1993년 한솔포럼이 호주에 508ha의 유칼립투스(Eucaliptus)를 조림한 것이 우리나라 해외조림의 시작이다. 그 후 국내 여러 투자업체가 해외조림에 참여하여 인도네시아, 중국, 뉴질랜드, 호주, 솔로몬, 베트남, 파라과이 등 7개국에 조림을 하였다.



〈표 16-16〉 해외조림 실적

(단위 : 천ha)

조림 업체	한솔 포렘	한솔 포렘	이건 산업	세양 코스코	남양 개발	코린도	동해 펄프	성원	계
진출국	호주	뉴질랜드	솔로몬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파라과이	
1993년	508	-	-	-	8,325*	-	-	-	8,833
1994년	1,000	-	-	498	650	225	-	-	2,373
1995년	854	-	413	1,124	311	203	-	-	2,905
1996년	2,248	504	1,796	956	1,451	14	-	-	6,969
1997년	2,035	1,515	2,016	1,000	1,286	1,149	500	-	9,501
1998년	1,400	1,300	2,010	1,570	1,100	1,343	-	-	8,723
1999년	2,060	998	1,513	-	662	2,868	750	-	8,851
2000년	2,090	1,540	755	1,619	-	5,196	700	-	11,900
2001년	1,421	1,514	183	1,735	-	6,413	500	200	11,966
2002년	1,612	1,500	170	1,717	-	6,024	700	1,200	12,923
2003년	1,039	-	495	1,377	-	8,099	700	1,200	12,910
2004년	-	-	602	630	-	7,347	800	-	9,379
2005년	-	-	937	753	-	8,656	-	-	10,346
계	16,267	8,871	10,890	12,979	13,785	47,537	4,650	2,600	117,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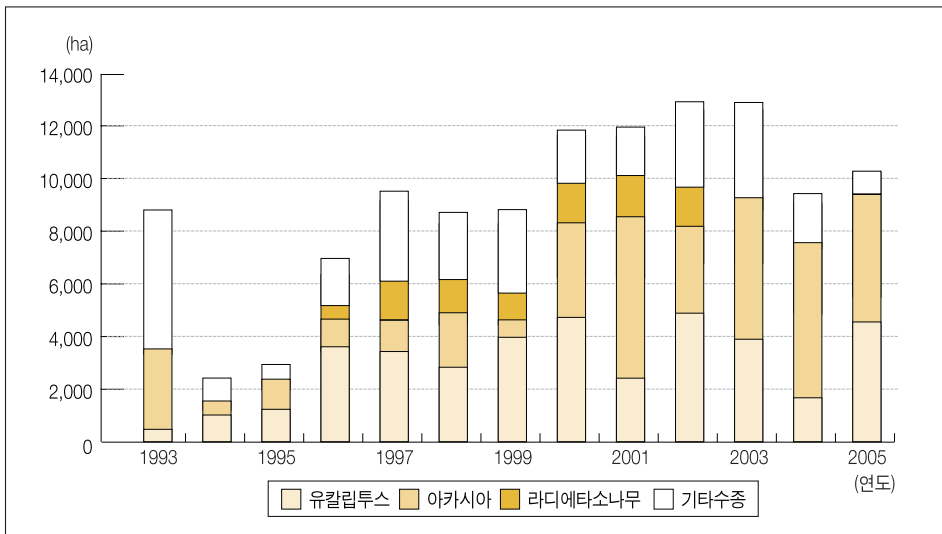
주 : * 표시는 1983-1993까지의 누계임

2005년 현재, 해외조림 면적은 117,579ha에 달하며, 조림 수종은 유칼립투스(Eucalyptus), 아카시아(Acacia), 고무나무(Rubber tree), 목마황(Casuarina) 등 속성 활엽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여 쓰고 있는 수종인 라디에타 소나무(Radiata pine)의 해외 조림은 8,871ha로 전체 해외 조림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6-19〉 유칼립투스 양묘와 해외조림 전경 (인도네시아 빵갈란분)



〈그림 16-20〉 수종별 해외조림 면적 추이

베트남에 1994년도에 조림한 해외조림지에서 생산한 목재 칩이 2000년에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되었다. 그 후 해외조림지에서 생산된 목재 칩의 도입 물량은 최근 국내 목재 칩의 연평균 소비량의 약 10%를 점유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된 물량은 모두 아카시아와 유칼립투스 조림지에서 생산된 펄프용 목재 칩이다.

우리나라 목재수급에 해외조림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는 향후 어떤 수종을, 얼마나 심고, 어떻게 조림면적을 확대해 가느냐에 달려 있다.



〈표 16-17〉 해외조림지에서 생산한 목재 칩의 도입

(단위 : ha, BDT)

도입년도	해외조림지	조림년도	조림업체	벌채면적	칩 도입량
2000년	베트남	1994년	세양 코스모	498	9,048
2001년	"	1995년	"	1,124	19,110
2002년	"	1996년	"	956	30,970
2003년	"	1997년	"	1,000	30,288
2004년	베트남	1998년	세양 코스모	1,077	32,560
	중 국	1997년	동해 펄프	750	7,500
	호 주	1993년	한솔포렘	508	23,858
	소 계	-	-	2,335	63,918
2005년	베트남	1999년	세양코스모	1,000	31,952
	중 국	1998년	동해 펄프	500	4,500
	호 주	1994년	한솔포렘	1,000	48,000
	소 계	-	-	2,500	84,452
합 계		-	-	8,413	237,786

VI. 어업



제 17 장 어업의 개념과 분류

제 18 장 어업경영

제 19 장 어업의 변화

제 20 장 세계속의 한국 어업



제 17 장 어업의 개념과 분류

김 준

어업(fishery)은 ‘수산동식물을 채취·포획 또는 양식하는 사업’으로 정의한다. 어업과 비슷한 개념의 어로활동(漁撈活動, fishing)은 자연계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어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로활동이다. 수산업법에서 어업은 자연계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채취·포획하는 것과 기르는 어업 즉 양식어업까지 포함한다. 비슷한 개념의 수산업(fishery)은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와 양식은 물론 운반, 가공, 판매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어로행위가 이루어지는 바다를 어장(fishing ground)이라 한다. 어장은 동식물의 생태, 습성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채취·포획하는 공간과 방법이 다르며, 법률적으로 행위제한이 수반된다. 이처럼 어업은 어장의 근거지, 잡는 방법(어법), 경영방법, 법규상의 규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²³⁾

- (1) 어장(漁場)의 근거지에 따른 분류 : 어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역을 어장이라 하는데 크게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과 해양어업(海洋漁業)으로 나눌 수 있다. 내수면어업은 내수면, 즉 육지에 있는 수면에서 하는 어업으로, 하천·수로·저수지 등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이다. 해양어업은 바다에서 하는 어업으로서, 보통 연안어업(沿岸漁業)·근해어업(近海漁業)·원양어업(遠洋漁業)으로 나눈다. 연안어업이란 근거지나 육지로부터 하루 만에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바다에서 하는 어업이다. 원양어업은 수십 일이 걸리는 먼 바다에서 하는 어업이며, 그

23) 수산업법 제2조에 의하면 이외 어업과 관련된 용어로 ‘어업권’, ‘입어’, ‘입어자’, ‘어업인’, ‘어업종사자’, ‘바닷가’, ‘어구’ 등이 있다.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어(入漁)’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입어자(入漁者)’란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들을 모두 ‘어업인’이라고 한다.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어구(漁具)’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중간 정도의 곳에서 하는 어업을 근해어업이라 한다. 이 기준은 대단히 모호하고, 또 항해·운용술의 발달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구분은 1986년에 개정된 수산업법에서 도입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안어업 :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구획어업) 이외의 어업, ② 근해어업 :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t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 ③ 원양어업 : 동해·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 동경 140도선 이서의 태평양수역을 제외한 해역을 해외수역이라 하며, 해외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이다. 또 원양어업은 영해(領海) 안에서 하는 경우와 공해(公海)상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를 영해어업, 후자를 공해어업이라 한다. 영해어업은 연안국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공해어업은 자유이지만 공해상에서도 일방적으로 연안에서 200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 : exclusive economic zone) 또는 어업수역(fishery zone)이라고 하여 다른 나라 어선이 자유롭게 어업을 못하도록 규제하는 나라들이 많아졌다.

- (2) 면허·허가 제도상의 분류 : 어업은 경제행위이므로 상호 경쟁이 심하고, 또 대상물인 생물자원을 영속적으로 유지시키면서 잡도록 해야 하므로 어업관리상 여러 가지로 규제하고 있다. 수산업에 관한 기본법인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업을 크게 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어업으로 나누고 있다. 면허어업은 행정관청의 면허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어업이며, 일정한 수면을 구획 또는 전용하여 어업권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독점 배타적으로 하는 어업을 말한다. 공동어업·정치어업·양식어업 등이 이에 속한다. 허가어업은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하는 어업이며, 근해어업·원양어업 등은 모두 이에 속한다. 신고어업은 어업자가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감찰을 받아서 하는 어업이며, 소규모 어업이다. 각 제도별 어업형태는 아래와 같다. 면허어업에는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어류 양식어업 등이 해당된다. 허가어업은 연근해 어선어업과 육상 양식, 육상종묘 생산어업이 해당된다. 신고어업은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그리고 투망어업이 해당된다. 어업총조사의 어업분류체계는 수산업법의 어업분류체계의 지표들을 기준으로 어가조사가 이루어졌다.



〈표 17-1〉 제도별 어업형태

제도상 분류	어업형태
면허어업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 등 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마을어업
허가어업	8톤 이상의 선박을 이용하거나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8톤 미만의 근해어업(기선저인망어업, 트롤어업 등), 육상양식어업, 육상종묘 생산어업
신고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투망어업

이외에도 대상물에 따른 분류, 근거지에 따른 분류, 경영형태에 따른 분류 등이 있다. 어업은 대상물에 따라 어류, 패류, 해조류 등 각종 수산동식물로 구분되는데, 이중 어류가 주요 대상이기 때문에 어업을 ‘어류를 포획하는 산업’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어류와 달리 고래 등 포유류를 잡는 것을 해수어업(海獸漁業), 조개류를 잡는 것을 채패업(採貝業), 해조류를 채취하는 것을 채조업(採藻業)이라고도 한다. 어업은 대상물의 종류와 어법을 결합시켜 분류하기도 한다. 연안어업의 경우에 낙지 주낙어업, 장어통발어업, 꽃게자망어업, 원양어업은 태평양 다랑어주낙어업, 대서양 문어트롤어업 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 한편 경영형태에 따라 어업을 경영하는 모체가 노동집약적이냐 자본집약적이냐에 따라 비자본가적 어업(非資本家的漁業)과 자본가적 어업(資本家的漁業)으로 나눌 수 있다. 비자본가적 어업이란 노동의 집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어업을, 자본가적 어업이란 자본의 집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어업을 말한다.

제 18 장 어업경영

김 준

제 1 절 어업형태의 변화

전 · 겸업별 어업형태

전업어가란 지난 1년간 어업 이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어가를 말한다. 겸업어가란 지난 1년간 어업 이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어가를 말한다. 이중 어업 수입이 어업 이외의 수입보다 많은 '1종 겸업어가', 어업 이외의 수입이 어업 수입보다 많은 '2종 겸업어가' 로 구분한다.

어가는 <표 18-1>과 같이 1990년 121,525가구에서 2005년 79,942가구로 감소했다. 전업어가는 전업의 경우 1990년 23.1%에서 2000년 36.4%, 2005년 31.7%로 증가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겸업은 1990년 76.9%에서 2005년에는 68.3%로 비중이 감소했다. 겸업의 경우도 2000년 이후 어업 수입 의존도는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1997년 수산물시장의 완전개방, 총허용어획량제도(TAC)의 도입,²⁴⁾

<표 18-1> 전 · 겸업별 어가의 변화(1990~2005년)

(단위 : 가구, %)

지 역	합 계		전 업		겸 업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합계		1종 겸업		2종 겸업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1990년	121,525	100.0	28,051	23.1	93,474	76.9	55,510	59.4	37,964	40.6
1995년	104,480	100.0	26,016	24.9	78,464	75.1	48,455	61.8	30,009	38.2
2000년	81,571	100.0	29,699	36.4	51,872	63.6	29,233	56.4	22,639	43.6
2005년	79,942	100.0	25,342	31.7	54,600	68.3	28,410	52.0	26,190	49.3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24)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TAC는 영어의 Total(=총) Allowable(=허용가능) Catch(=어획량)의 약자이며, '티에이씨', 혹은 '텍'으로 발음한다. 그 내용은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 체결, EEZ (배타적 경제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 체제에 맞는 어업질서체제의 추진 등 국제어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2005년 지역별 전·겸업별 어가분포를 보면, <표 18-2>와 같이 전체 79,942가구 중 전업어가는 31.7%, 겸업어가는 68.3%였다. 전업비중이 40%가 넘는 지역은 어가비중이 매우 낮은 대구광역시를 제외하고 강원도(56.5%), 경상북도(46.6%), 전라북도(43.5%) 지역이었다. 반면에 충청남도(79.2%), 제주도(78.1%), 경기도(72.3%), 전라남도(70.9%), 경상남도(69.5%) 지역은 겸업비중이 매우 높았다. 특히 제주지역 어가의 경우 2종 겸업이 71.4%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어업활동의 관광수입 등 부가소득에 참여하는 어가가 많기 때문이다.

<표 18-2> 지역별 전·겸업별 어가 분포 (2005년)

(단위: 가구, %)

지역	합계		전업		겸업					
					합계		1종 겸업		2종 겸업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총 어가	79,942	100.0	25,342	31.7	54,600	68.3	28,410	52.0	26,910	48.0
서울특별시	6	0.0	2	33.3	4	66.7	4	100.0	-	-
부산광역시	3,216	4.0	1,387	43.1	1,829	56.9	1,134	62.0	695	48.0
대구광역시	3	0.0	2	66.7	1	33.3	1	100.0	-	-
인천광역시	3,320	4.2	1,035	31.2	2,285	68.8	1,115	48.8	1,170	51.2
광주광역시	13	0.01	3	23.1	10	76.9	4	40.0	6	60.0
울산광역시	1,137	1.4	395	34.7	742	65.3	441	59.4	301	40.6
경기도	1,295	1.6	359	27.7	936	72.3	386	41.2	550	58.8
강원도	4,221	5.3	2,380	56.5	1,841	43.6	1,237	67.2	604	32.8
충청남도	10,505	13.1	2,182	20.8	8,323	79.2	3,594	43.2	4,729	56.8
전라북도	3,695	4.6	1,609	43.5	2,086	56.5	1,081	51.8	1,005	48.2
전라남도	25,489	31.9	7,425	29.1	18,064	70.9	9,937	55.0	8,127	45.0
경상북도	5,517	6.9	2,572	46.6	2,945	53.4	2,101	71.3	844	28.7
경상남도	14,827	18.5	4,526	30.5	10,301	69.5	5,879	57.1	4,422	42.8
제주도	6,698	8.4	1,465	21.9	5,233	78.1	1,496	28.6	3,737	71.4

자료: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2005년

전·겸업별 어가분포를, 보면 <표 18-3>과 같이 어선어업은 전업의 비중이, 나잠어업과 맨손어업은 겸업의 비중이 높다. 어선어업은 전업의 비중이 40.9%, 나잠어업과 맨손어업은 겸업의 비중이

79.9%, 84.3%였다. 특히 겸업비중이 높은 어업의 경우는 2종 겸업의 비중이 높았다. 즉 맨손어업의 경우 2종 겸업의 비중이 73.9%, 나잠어업은 71.7%로 나타났다.

〈표 18-3〉 경영주 주종사어업 형태별 전·겸업 (2005년)

(단위: 가구, %)

구분	총어가		양식어업		어선어업		나잠어업		맨손어업		기타어로어업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 가	79,942	100.0	21,606	100.0	39,218	100.0	5,678	100.0	13,150	100.0	320	100.0
전 업	25,342	31.7	6,071	28.1	16,023	40.9	1,136	20.1	2,065	15.7	47	14.7
겸 업	54,600	68.3	15,535	71.9	23,195	59.1	4,512	79.9	11,085	84.3	273	85.3
1종 겸업	28,410	52.0	8,296	53.4	15,850	68.3	1,275	28.3	2,897	26.1	92	33.7
2종 겸업	26,190	48.0	7,239	46.6	7,345	31.7	3,237	71.7	8,188	73.9	181	66.3

자료: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2005년

경영주 주종사어업종류의 변화

경영주의 주종사어업은 양식어업, 어선어업, 나잠어업, 맨손어업, 기타 어로어업으로 구분하였다. 2005년 7만9천여 어가를 어업형태별로 정리하면, 〈표 18-4〉와 같이 어선어업이 49.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양식어업 27.0%, 맨손어업 16.4%, 나잠어업 7.1%, 기타 어로어업 0.4% 순이다. 양식어가는 1990년 40.6%, 1995년 32.5%, 2000년 27.2%, 2005년 27.0%로 감소했다. 반대로 어선어업은 1990년 37.7%에서 2005년 49.1%로 증가했다.

〈표 18-4〉 경영주의 주종사어업 형태 변화 (1990~2005년)

(단위: 가구, %)

구분	총어가		양식어업		어선어업		나잠어업		맨손어업		기타어로어업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1990년	121,525	100.0	49,391	40.6	45,858	37.7	8,967	7.4	17,309 ¹⁾	14.2	-	-
1995년	104,480	100.0	33,918	32.5	42,772	40.9	8,456	8.1	19,384 ¹⁾	18.6	-	-
2000년	81,571	100.0	22,225	27.2	41,527	50.9	6,054	7.4	-	-	11,765 ²⁾	14.4
2005년	79,942	100.0	21,606	27.0	39,218	49.1	5,648	7.1	13,150	16.4	320	0.4

주: 1) 자연산 포획 및 채취어가

2) 2000년 기타어업의 어가는 맨손어업을 포함한 어가임.

자료: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각년도.

어업종사기간별로 살펴보면, <표 18-5>와 같이 주종사 경영주가 어업에 종사한 기간이 1년 중 6개월 이상인 가구는 어선어업 가구가 71.5%로 가장 많고, 다음은 양식어업이 52.1%, 나잠어업 46.0% 순이었다. 1~3개월로 단기간 어업에 종사한 경우는 맨손어업이 34.8%로 가장 높았다. 호미, 조새, 삼(가래) 등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맨손어업은 어종에 따라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간이 매우 짧다. 하지만 어선어업처럼 그물을 바꿔가며 철따라 다른 어종을 잡을 수 있는 경우 종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표 18-5> 어업종사기간별 주종사어업 형태 (2005년)

(단위: 가구, %)

구분	양식어업		어선어업		나잠어업		맨손어업		기타어로어업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계	21,606	100.0	39,218	100.0	5,648	100.0	13,150	100.0	320	100.0
1~3개월	5,541	25.6	3,215	8.2	1,169	20.7	4,582	34.8	118	36.9
3~6개월	4,818	22.3	7,975	20.3	1,880	33.3	3,916	29.8	87	27.2
6개월 이상	11,247	52.1	28,028	71.5	2,599	46.0	4,652	35.4	115	35.9

자료: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2005년

2005년 경영주 주종사어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표 18-6>과 같이 양식어업의 비중은 전라남도가 52.7%로 가장 높고 다음은 경상남도·충청남도 순이다. 어선어업은 전라남도 26.1%, 경상남도 23.7%이며, 맨손어업은 충청남도와 전라남도가 27.4%를 차지했다. 나잠어업은 제주도가 66.6%로 가장 높았다. 전체적으로 전라남도는 양식어업, 맨손어업, 어선어업 등이 고루 높게 나타났으며, 충청남도는 맨손어업과 양식어업, 경상남도는 어선어업, 제주도는 나잠어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18-6〉 지역별 주종사어업 형태 (2005년)

(단위: 가구, %)

지역	양식어업		어선어업		나잠어업		맨손어업		기타어로어업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총 어 가	21,606	100.0	39,218	100.0	5,648	100.0	13,150	100.0	320	100.0
서울특별시	2	0.0	4	0.01	-	-	-	-	-	-
부산광역시	502	2.3	2,278	5.8	408	7.2	28	0.2	-	-
대구광역시	1	0.0	2	0.0	-	-	-	-	-	-
인천광역시	93	0.4	1,145	2.9	2	0.04	2,025	15.4	55	17.2
광주광역시	12	0.06	1	0.0	-	-	-	-	-	-
울산광역시	127	0.6	671	1.7	325	5.8	13	0.0	1	0.3
경 기 도	179	0.8	627	1.6	1	0.0	474	3.6	14	4.4
강 원 도	39	0.2	4,001	10.2	149	2.6	27	0.2	5	1.6
충 청 남 도	3,937	18.2	2,887	7.4	54	1.0	3,607	27.4	20	6.3
전 라 북 도	598	2.8	1,642	4.2	3	0.05	1,421	10.8	31	9.7
전 라 남 도	11,395	52.7	10,253	26.1	92	1.6	3,604	27.4	145	45.3
경 상 북 도	309	1.4	4,346	11.1	638	11.3	213	1.6	11	3.4
경 상 남 도	4,048	18.7	9,283	23.7	216	3.8	1,253	9.5	27	8.4
제 주 도	364	1.7	2,078	5.3	3,760	66.6	485	3.7	11	3.4

자료: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2005년

성별 · 연령별 경영주 주종사 어업형태

경영주 성별로 살펴 보면 〈표 18-7〉과 같이 남성 경영주 주종사어업은 어선어업 비중이 높고, 여성 경영주 주종사어업은 양식어업, 어선어업, 맨손어업 등 다양한 어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어업형태별로 비교해 보면 어선어업은 남성이 58.0%, 여자가 28.9%로 남자가 29.1%p 높고, 나잠어업은 여자 10.6%, 남자 0.3%로 여자가 10.3%p 높았다. 맨손어업의 경우도 여자 23.8%, 남자 12.3%로 여자가 11.5%p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맨손어업은 어장에서 바지락, 고막, 백합, 굴 등을 채취하거나 조간대에서 해조류를 채취하는 어업으로 대부분 여성들이 맡고 있다. 나잠어업은 잠수들이 물질을 해소라와 전복 등을 채취하는 어업으로 제주도를 중심으로 대부분 여성들이 맡고 있다. 반면에 양식어업은 해조류, 패류, 어류(가두리)양식 등으로 가족노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과 함께 여성들의 참여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005년 연령별 경영주 주종사어업 분야를 보면, 〈표 18-8〉과 같이 총 79,942 어가 중 50대가 31.5%, 60대가 29.6%, 40대가 21.2%, 70대는 11.4%였다. 어업형태별로 살펴보면, 양식어업은 60대

(표 18-7) 성별 주종사어업 형태 (2005년)

(단위 : 가구, %)

형 태	계		남 자		여 자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계	130,589	100.0	70,307	100.0	60,282	100.0
양식어업	41,631	31.9	20,282	28.8	21,349	35.4
어선어업	58,257	44.6	40,812	58.0	17,445	28.9
나잠어업	6,574	5.0	214	0.3	6,360	10.6
맨손어업	22,950	17.6	8,616	12.3	14,334	23.8
기타어로어업	1,177	0.9	383	0.5	794	1.3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2005년

가 31.0%로 가장 많고, 50대는 28.7%였다. 어선어업은 50대가 36.2%, 60대가 24.5%, 40대가 27.1%였다. 나잠어업은 60대가 41.8%, 50대가 30.0%, 70대도 17.1%나 되었다. 한편 맨손어업은 60대가 36.9%, 50대가 23.7%, 70대도 21.2%나 되었다. 즉 어선어업은 50대, 양식어업은 60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은 70대의 고령 경영주가 주종사어업으로 활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8-8) 연령별 경영주 주종사어업 형태 (2005년)

(단위 : 가구, %)

연 령	총어가		양식어업		어선어업		나잠어업		맨손어업		기타어로어업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계	79,942	100.0	21,606	100.0	39,218	100.0	5,648	100.0	13,150	100.0	320	100.0
20~24세	30	0.0	9	0.0	21	0.1	-	-	-	-	-	-
25~29세	262	0.3	94	0.4	131	0.3	-	-	37	0.3	-	-
30~34세	1,102	1.3	387	1.8	590	1.5	7	0.1	115	0.9	3	0.9
35~39세	2,753	3.4	793	3.7	1,649	4.2	25	0.4	280	2.1	6	1.9
40~44세	6,293	7.9	1,559	7.2	3,964	10.1	140	2.5	599	4.6	31	9.7
45~49세	10,694	13.3	2,548	11.8	6,686	17.0	395	7.0	1,031	7.8	34	10.6
50~54세	11,785	14.7	2,792	12.9	6,973	17.8	697	12.3	1,287	9.8	36	11.3
55~59세	13,448	16.8	3,405	15.8	7,216	18.4	1,000	17.7	1,830	13.9	37	11.6
60~64세	12,155	15.2	3,355	15.5	5,329	13.6	1,170	20.7	2,251	17.1	50	15.6
65~69세	11,509	14.4	3,356	15.5	4,290	10.9	1,192	21.1	2,609	19.8	62	19.4
70~74세	6,572	8.2	2,135	9.9	1,793	4.6	700	12.4	1,906	14.5	38	11.9
75~79세	2,532	3.2	878	4.1	483	1.2	267	4.7	887	6.7	17	5.3
80세이상	757	0.1	295	1.4	93	0.2	55	1.0	318	2.4	6	1.9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2005년

제 2 절 어업 생산조직의 변화

생산조직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위해 참여하는 생산조직은 수협, 영어법인, 어촌계 등이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은 1962년 조직된 '어민 및 수산업 가공업자들이 공동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한 상부상조단체'이다. 수산업협동조합에는 현재 72개의 지구별 조합과 20개의 업종별 조합, 2개의 수산물가공조합이 있다. 지구별이란 목포, 군산, 통영 등 지역별로, 업종별은 굴수하식, 안강망, 통발, 잠수기 수협 등 어업형태로 조직된 조합이다.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이 협동적 어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어가(漁家)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다. 어촌계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아래에 있는 조직으로 전국에 1,969개가 조직되어 있다. 어업활동을 하는 어가들은 대부분 지구별 수협과 어촌계에 가입되어 있다. 즉 수협조합원에 가입하고 마을어촌계에서 인정을 받아야 마을공동어장의 입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수협조합원에 가입하지 않은 어가들 중 마을공동체(어촌계)에서 관행어업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조상대대로 마을공동어장에서 패류나 해조류를 채취해 온 경우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관행어업이라고 한다. 생산조직에 참여한 어가는 <표 18-9>와 같이 2000년 71.1%, 2005년에는 73.0%였다.

<표 18-9> 생산조직 참여여부

(단위: 가구, %)

구 분	2000년		2005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 가 수	81,571	100.0	79,942	100.0
생산조직 참여	57,980	71.1	58,395	73.0
생산조직 불참	23,591	28.9	21,547	27.0

생산조직에 참여한 형태를 보면 <표 18-10>과 같이 어촌계가 2005년 89.3%, 지구별 수협 30.3%, 업종별 수협 4.6%였다. 2000년과 비교할 때 생산조직에 참여하는 어가의 비율은 약간 증가했다. 생산조직별로는 어촌계의 비율만 증가하고, 일반법인회사, 지구별·업종별 조합 모두 감소했다.

〈표 18-10〉 참여한 생산조직 형태

(단위 : 가구, %)

구 분		2000년		2005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계		57,980	100.0	58,395	100.0
참여형태	업종별 수협	2,212	3.8	2,670	4.6
	지구별 수협	20,189	34.8	17,702	30.3
	영어조합법인	547	0.9	449	0.8
	일반회사법인	248	0.4	43	0.1
	어 촌 계	51,237	88.4	52,163	89.3
	기 타	690	1.2	977	1.7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표 18-11〉 지역별 생산조직 참여율 (2005년)

(단위 : 가구, %)

구 분	총어가		참여어가		참여하지 않는 어가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전 국	79,942	100.0	58,395	100.0	21,547	100.0
서울특별시	6	0.0	4	0.0	2	0.0
부산광역시	3,216	4.0	2,727	4.7	489	2.3
대구광역시	3	0.0	2	0.0	1	0.0
인천광역시	3,320	4.2	2,117	3.6	1,203	5.6
광주광역시	13	0.0	5	0.0	8	0.0
울산광역시	1,137	1.4	849	1.5	288	1.3
경 기 도	1,295	1.6	1,084	1.9	211	1.0
강 원 도	4,221	5.3	2,472	4.2	1,749	8.1
충 청 남 도	10,505	13.1	6,225	10.7	4,280	19.9
전 라 북 도	3,695	4.6	2,179	3.7	1,516	7.0
전 라 남 도	25,489	31.9	19,068	32.7	6,421	29.8
경 상 북 도	5,517	6.9	3,845	6.6	1,672	7.8
경 상 남 도	14,827	18.5	11,859	20.3	2,968	13.8
제 주 도	6,698	8.4	5,959	10.2	739	3.4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2005년

상품형태

수산물은 농산물과 달리 저장 및 보관이 쉽지 않으며, 유통기간도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생산된 수산물은 대부분 상품으로 유통된다. 수산물 생산어가의 99% 이상이 2000년과 2005년 모두 생산한 수산물을 상품으로 판매했다. 판매되는 상품의 형태를 보면, 2005년의 경우 전체 판매어가 79,603가구 중 37.2%가 활어, 37.1%는 패류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해조류 7.5%, 선어 7.0%, 가공품 5.6%, 갑각류 2.2% 순으로 분포되었다. 즉 어가들이 상품으로 판매하는 수산물 품목의 74% 이상이 활어와 패류였다.

〈표 18-12〉 상품형태의 변화 (2000년, 2005년)

(단위 : 가구, %)

구 분	2000년		2005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 가	81,571	100.0	79,942	100.0
판매없음	268	0.3	339	0.4
판매있음	81,306	99.7	79,603	99.6
활 어	32,128	39.4	29,733	37.2
선 어	9,579	11.7	5,627	7.0
가공품	6,896	8.5	4,482	5.6
해조류	-	-	5,971	7.5
패 류	-	-	29,687	37.1
갑각류	-	-	1,752	2.2
기 타	32,703	40.1	2,351	2.9

주 : 2000년 기타에 해조류, 패류, 갑각류 포함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유통구조

어민들이 생산한 수산물은 대부분 수협이나 어민들이 직접 판매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직접 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다. 유통시장이 대형화되면서 대형유통업체가 저가의 자사브랜드 상품의 운영을 추진하고 있어 수산물 가공유통업체에도 지형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는 수산물 수입에 직접 나서는가 하면 국내 유명 수산물을 산지에서 생산·관리·



유통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매시장을 통한 유통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2005년 유통구조를 보면, 어가의 42.8%가 생산한 수산물을 수협을 통해 유통하였다. 나머지 26.6%는 수집상, 17.5%가 소비자 직접판매, 5.9%는 도매시장 순이었다. 2000년과 2005년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수협, 도매시장, 수집상을 통한 유통이 줄어들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태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수협은 46.9%에서 42.8%로, 도매시장은 8.5%에서 5.9%로, 수집상은 28.9%에서 26.6%로 감소했지만 직접판매는 1.8%에서 17.5%로 증가했다. 2005년 소비자 직접판매는 자기매장과 재래시장 그리고 전자상거래와 우편판매가 포함된 형태다.

〈표 18-13〉 수산물 판매처별 어가의 변화

(단위: 가구, %)

구 분	2000년		2005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계	81,306	100.0	79,603	100.0
수 협	38,118	46.9	34,061	42.8
도매시장	6,875	8.5	4,722	5.9
수 집 상	23,459	28.9	21,158	26.6
음 식 점	2,055	2.5	2,216	2.8
가공공장	2,447	3.0	2,468	3.1
양 식 장	852	1.0	396	0.5
소비자 직접판매	1,485	1.8	13,946	17.5
기 타	6,015	7.4	636	0.8

자료: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제 19 장 어업의 변화

김 준

제 1 절 잡는 어업의 변화

잡는 어업은 어로방법과 어업장소를 기준으로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나잠어업, 맨손어업 등으로 구분한다. 육지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지선어장에서 이루어지는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배를 이용해 가까운 바다로 나가 어로활동을 하는 연안어업과 아주 먼 바다(해외 포함)에 나가서 조업하는 원양어업이 있다. 근해어업은 연안어업과 원양어업 중간 해역의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업을 말한다.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은 구별하기가 어려우므로 두 어업을 총칭하여 흔히 연근해어업이라고도 한다. 연근해어업을 항해일수를 기준으로, 혹은 행정절차에 따라 구분하지만 명확하지 않다. 다만, 수산행정상 기선선망어업(機船旋網漁業)·기선저인망어업(機船底引網漁業)·안강망어업(鰲鱧網漁業)·트롤어업·유자망어업(流刺網漁業)·근해통발어업 등을 포함해서 근해어업이라 한다. 구획어업이란 일정한 수면을 구획 또는 점용하는 어업을 말한다. 이를 위해 국가가 권리를 가진 연안지선을 면허, 허가, 신고 등의 형식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권을 얻어야 한다. 나잠어업은 잠녀들이 물질을 하는 어업을, 맨손어업은 손으로 낚, 호미, 갈고리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활동을 말한다.

2005년 지역별 어업형태를 보면 <표 19-1>과 같다. 구체적으로 근해어업은 경상북도가 30.7%로 가장 높고, 다음은 강원도 24.6%, 경상남도 12.3% 순이다. 연안어업은 전라남도가 26.0%로 가장 높고, 이어서 경상남도가 25.4%였다. 구획어업은 전라남도가 60.0%로 압도적이며, 이어서 경상남도가 13.3%였다. 한편 맨손어업은 전라남도가 29.5%, 충청남도가 24.1%였다. 즉 강원도는 근해어업, 충청남도는 맨손어업, 경상남도는 연안어업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전라남도는 구획어업, 맨손어업, 연안어업의 비중이 높았다.



〈표 19-1〉 지역별 어업형태 (2005년)

(단위 : 가구, %)

지 역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맨손어업		기타어로어업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계	3,911	100.0	45,400	100.0	1,918	100.0	21,771	100.0	8,838	100.0
서울특별시	1	0.0	3	0.0	-	-	-	-	2	0.0
부산광역시	299	7.6	2,546	5.6	3	0.2	50	0.2	531	6.0
대구광역시	2	0.1	-	-	-	-	-	-	-	-
인천광역시	87	2.2	1,292	2.8	32	1.7	2,314	10.6	155	1.8
광주광역시	1	0.0	-	-	-	-	1	0.0	-	-
울산광역시	87	2.2	945	2.1	13	0.7	23	0.1	497	5.6
경 기 도	22	0.6	743	1.6	7	0.4	858	3.9	72	0.8
강 원 도	964	24.6	3,645	8.0	37	1.9	83	0.4	243	2.7
충 청 남 도	168	4.3	4,308	9.5	103	5.4	5,253	24.1	283	3.2
전 라 북 도	122	3.1	2,163	4.8	126	6.6	2,084	9.6	168	1.9
전 라 남 도	282	7.2	11,800	26.0	1,150	60.0	6,426	29.5	1,062	12.0
경 상 북 도	1,201	30.7	4,363	9.6	178	9.3	452	2.1	1,020	11.5
경 상 남 도	481	12.3	11,541	25.4	255	13.3	2,122	9.7	724	8.0
제 주 도	264	6.8	2,051	4.5	14	0.7	2,105	9.7	4,101	46.4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2005년

근해어업

잡는 어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조류, 유속, 수온, 조간대의 성격 등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해역은 크게 동해, 서해, 남해, 제주해역으로 나누며, 경우에 따라 동남해, 서남해를 추가한다. 이러한 구분은 단순한 방위와 해역을 결합시킨 것이 아니라 어업형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근해어업은 경상북도와 강원도 등 동해해역에서 발달했다. 반면에 연안어업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등 서남해역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맨손어업은 갯벌과 조간대 어업이 발달한 충청남도와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조류, 조간대의 성격, 갯벌생태, 수온 등의 차이와 깊은 관련이 있다.

잡는 어업 중 근해어업은 〈표 19-2〉와 같다. 근해어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어업형태가 근해채낚기어업이며, 다음으로 근해자망, 잠수기어업, 근해통발, 근해연승 순이었다. 2000년과

2005년을 비교해보면, 근해채낚기는 45.8%에서 45.1%로, 근해자망은 10.4%에서 10.3%, 근해안강망은 8.0%에서 4.6%로 감소했고, 잠수기는 8.1%에서 10.2%, 근해통발은 7.7%에서 9.1% 등으로 증가했다. 특히 근해안강망이 큰 변화를 보인 것은 한·일, 한·중 어업협정으로 조업구역이 축소되고 정부의 어업구조조정정책으로 어선이 축소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표 19-2〉 잡는 어업의 변화 - 근해어업 (2000~2005년)

(단위: 가구, %)

어 법	2000년		2005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계	4,524	100.0	3,911	100.0
대형기선저인망	69	1.5	89	2.3
중형기선저인망	91	2.0	113	2.9
기선선인망	47	1.1	6,059	1.5
근해봉수망	2	0.04	4	0.1
근해선망	51	1.1	62	1.6
근해안강망	360	8.0	181	4.6
근해연승	471	10.4	290	7.4
근해자망	472	10.4	402	10.3
근해채낚기	2,074	45.8	1,763	45.1
근해통발	350	7.7	355	9.1
근해트롤	114	2.5	72	1.8
근해형망	58	1.3	121	3.1
잠수기	365	8.1	400	10.2

자료: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지역별 근해어업을 살펴보면 〈표 19-3〉과 같다. 근해어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상북도, 강원도, 부산광역시 순이다. 전체 3,911 근해어업가구 중 경상북도는 1,201가구, 강원도 964가구, 부산이 229가구 순이었다. 경상북도와 강원도의 경우 특히 근해채낚기어업 비중이 매우 높았다.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동해해역은 기선저인망, 채낚기, 통발어업이 비교적 발달했으며,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안강망어업이 활발하다. 잠수기어업의 경우도 동해해역에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3〉 잡는 어업의 변화 - 지역별 근해어업 (2005년)

(단위 : 가구)

지역	합계	대형기선	중형기선	기선선망	근해붕수	근해선망	근해안강망
계	3,911	89	113	59	4	62	181
서울특별시	1	-	-	-	-	1	-
부산광역시	229	50	3	2	-	3	1
대구광역시	2	-	-	-	1	-	-
인천광역시	87	3	1	-	-	4	16
광주광역시	1	-	-	-	-	-	-
울산광역시	87	-	17	8	-	1	-
경기도	22	-	-	-	-	2	2
강원도	964	22	20	-	-	4	-
충청남도	168	-	-	-	-	5	61
전라북도	122	1	-	-	-	3	18
전라남도	282	8	18	10	3	6	71
경상북도	1,201	1	42	3	-	16	7
경상남도	481	3	12	36	-	15	-
제주도	264	1	-	-	-	2	5

지역	근해연승	근해자망	근해채낚기	근해통발	근해트롤	근해형망	잠수기
계	290	402	1,763	355	72	121	400
서울특별시	-	-	-	-	-	-	-
부산광역시	14	30	79	9	36	1	1
대구광역시	-	-	1	-	-	-	-
인천광역시	3	23	20	11	-	3	3
광주광역시	-	1	-	-	-	-	-
울산광역시	3	12	41	3	-	1	1
경기도	1	6	1	3	-	7	-
강원도	46	58	636	58	11	6	103
충청남도	2	18	2	8	-	11	61
전라북도	10	16	1	1	-	57	15
전라남도	19	79	7	11	1	12	37
경상북도	2	63	843	158	18	3	45
경상남도	70	37	67	82	6	19	134
제주도	120	59	65	11	-	1	-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2005년

연안어업

연안어업은 연안복합, 연안자망, 연안통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연안복합어업은 무동력어선이나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해 이루어지는 어업으로 2000년부터 연안어업 항목에 포함되었다. 여기에 속하는 어업은 구체적으로 낚시어업, 문어단지어업, 패류껍질어업(패류껍질을 사용해 수산동물물을 포획하는 어업, 주꾸미잡이 등), 패류미끼망어업, 손꽂치어업 등이다. 2005년 총 31,749가구 중 연안복합어업이 50.0%로 가장 많고, 연안자망 26.6%, 연안통발 18.3%이었다.²⁵⁾ <표 19-4>와 같이 2000년 연안어업과 비교해보면 가구수는 34,308가구에서 31,749가구로 감소하였다. 연안복합어업 가구는 16,320가구에서 15,882가구로 감소했지만 구성비는 47.6%에서 50.0%로 증가하였다.

지역별 연안어업을 보면, <표 19-5>와 같이 총 31,749가구 중 전라남도가 8,685가구, 경상남도가 8,137가구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근해어업과 달리 연안어업은 조차가 크고 완만한 대륙붕이 발달한 서해해역 어업에서 발달했다. 조차를 이용한 그물어업, 함정어구 등이 대표적이다. 전라남도과

<표 19-4> 잡는 어업의 변화 - 연안어업 (2000~2005년)

(단위 : 가구, %)

어 법	2000년		2005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계	34,308	100.0	31,749	100.0
연안(개량)안강망	774	2.3	554	1.7
연 안 들 망	240	0.7	231	0.7
연안복합어업	16,320	47.6	15,882	50.0
연 안 선 망	348	1.0	370	1.2
연 안 선 인 망	162	0.5	103	0.3
연 안 자 망	9,142	26.6	8,449	26.6
연 안 조 망	382	1.1	345	1.1
연 안 통 발	6,940	20.2	5,815	18.3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25) 연안연승, 연안형망 등 1995년 어업총조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어법들은 2000년과 2005년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경상남도 해역은 복합어업이 매우 발달했고, 안강망어업은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해역에서 많이 하는 서해해역의 대표적인 그물어업이다. 통발어업의 경우도 전라남북도에서 성행하는 어업이다.

〈표 19-5〉 잡는 어업의 변화 - 지역별 연안어업 (2005년)

(단위 : 가구)

지역	계	안강망	들망	복합	선망	선인망	자망	조망	통발
계	31,749	554	231	15,882	370	103	8,449	345	5,815
서울특별시	1	-	-	-	-	-	1	-	-
부산광역시	1,987	-	26	802	19	3	571	8	558
인천광역시	927	56	3	443	13	2	339	3	68
울산광역시	569	-	8	126	29	3	160	3	240
경기도	442	29	1	118	5	4	239	1	45
강원도	2,793	-	2	1,408	12	3	1,176	6	186
충청남도	2,518	162	3	1,257	19	9	718	51	299
전라북도	1,399	167	4	717	40	3	365	30	73
전라남도	8,685	133	69	5,029	87	28	1,365	134	1,840
경상북도	2,537	2	4	601	46	9	1,307	21	547
경상남도	8,137	4	56	3,806	91	38	2,102	86	1,954
제주도	1,754	1	55	1,575	9	1	106	2	5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2005년

구획·맨손어업

또 다른 잡는 어업은 구획어업과 맨손어업, 나잠어업, 투망어업 등이 있다. 구획어업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이를 허가하는 어업을 말한다. 반면에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투망어업 등은 신고어업이다. 구획어업은 정치성과 이동성으로 나뉜다. 〈표 19-6〉과 같이 구획어업은 2000년 1,393가구에서 2005년 1,918가구로 증가하였다. 정치성 구획은 2000년 1,055가구에서 2005년 1,464가구로 증가하였다. 이동성 구획도 같은 기간 338가구에서 454가구로 증가했다.

〈표 19-6〉 잡는 어업의 변화 - 구획어업

(단위: 가구, %)

어 법	2000년		2005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계	1,393	100.0	1,918	100.0
정치성 구획	1,055	75.7	1,464	76.3
이동성 구획	338	24.3	454	23.7

자료: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그 외 신고어업으로는 〈표 19-7〉과 같이 맨손어업, 나잠어업 등이 있다. 맨손어업은 어망을 이용하지 않고 수산 동·식물을 직접 손으로 또는 간단한 도구로 잡거나, 훈련된 동물(개, 수달, 가마우지 등)로써 잡는 것을 말한다. 사용하는 도구는 대체로 그 크기가 작으며 어획물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주머니나 양동이 등이 사용하는 도구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2005년 맨손어업은 21,771가구, 나잠어업은 6,742가구였다.

〈표 19-7〉 잡는 어업의 변화 - 신고어업(맨손어업, 나잠어업, 투망어업 / 2005년)

(단위: 가구)

어업형태	가 구 수
맨 손 어 업	21,771
나 잠 어 업	6,742
투 망 어 업	219
기 타	1,867

자료: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제 2 절 기르는 어업의 변화

주된 양식품종별 어가

양식어업은 어류양식, 갑각류양식, 패류양식, 해조류양식, 기타 수산동식물을 기르는 어업을 주로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우리나라 양식업은 일제강점기 해태(김)와 굴 양식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해방 후 해조류 양식과 패류 양식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70년대 초까지 김, 굴, 바지락 등을



수심이 깊지 않은 마을어장을 중심으로 노동집약적이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양식하였다. 1980년대 종묘생산, 인공포자와 양식 기술개발을 기반으로 대량생산체제가 가능하였다. 그 후 1990년대 후반 전복 등 고부가가치 품종의 양식업으로 전환되었다.

2005년 주된 양식품종별 어가분포는 <표 19-8>과 같이 28,184 어가 중 패류양식이 58.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해조류양식, 어류양식 순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해조류 양식이 1990년 조사에서 58.8%로 과반수 이상이었지만 2005년에는 25.6%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에 패류양식은 같은 기간에 38.5%에서 58.6%로 증가하였다. 어류양식도 같은 기간에 0.9%에서 9.3%로 증가하였다.

<표 19-8> 주된 양식품종별 어가 (1990-2005년)

(단위: 가구, %)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계	48,654	100.0	34,756	100.0	27,510	100.0	28,184	100.0
어류양식	424	0.9	2,408	6.9	3,062	11.1	2,634	9.3
갑각류양식	-	-	69	0.2	157	0.6	191	0.7
패류양식	18,714	38.5	15,401	44.3	13,940	50.7	16,510	58.6
해 조 류	28,602	58.8	14,693	42.3	9,020	32.8	7,222	25.6
종묘생산	-	-	1,509	4.3	712	2.6	631	2.2
기타 수산동물	914	1.9	676	1.9	619	2.3	996	3.5

주: 갑각류 양식은 새우양식어가로 1990년 어업총조사에서 기타 수산동물로 분류되었음.

자료: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지역별로 살펴보면 <표 19-9>와 같이 전라남도는 해조류, 갑각류, 패류, 어류 등 모든 양식부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해조류양식의 경우 74.7%라는 독점적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부산과 경상남도에서는 종묘분야에서 충청남도의 경우 패류양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어류양식을 살펴보면 <표 19-10>과 같이 2005년 조사에서 조피볼락 양식이 5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넙치류 23.9%, 송어류와 돔류 순이었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넙치류가 1990년 48.1%에서 23.9%로 감소했고, 조피볼락은 같은 기간에 12.5%에서 55.0%로 크게 증가했다(<표 19-10> 참고).

〈표 19-9〉 지역별 주된 양식어업 (2005년)

(단위 : 가구, %)

지역	어류		갑각류		패류		해조류		종묘		기타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계	2,634	100.0	191	100.0	16,510	100.0	7,222	100.0	631	100.0	996	100.0
서울	1	0.0	-	-	-	-	-	-	1	0.2	-	-
부산	23	0.9	1	0.1	16	0.1	673	9.3	118	18.7	1	0.1
대구	1	0.0	-	-	-	-	-	-	-	-	-	-
인천	9	0.3	21	0.9	151	0.9	22	0.3	4	0.6	-	-
광주	3	0.1	2	0.0	2	0.0	4	0.1	1	0.2	-	-
울산	9	0.3	1	0.0	3	0.0	218	3.0	1	0.2	5	0.5
경기도	4	0.2	10	0.9	153	0.9	37	0.5	2	0.3	-	-
강원도	3	0.1	-	0.2	33	0.2	9	0.1	7	1.1	12	1.2
충청남도	290	11.0	38	24.9	4,107	24.9	296	4.1	24	3.8	3	0.3
전라북도	31	1.2	11	2.0	329	2.0	335	4.6	2	0.3	1	0.1
전라남도	1,093	41.6	102	43.3	7,151	43.3	5,393	74.7	171	27.1	13	1.3
경상북도	102	3.9	-	0.1	21	0.1	202	2.8	7	1.1	195	19.6
경상남도	880	33.5	5	20.8	3,427	20.8	32	0.4	253	40.1	766	77.0
제주도	185	7.0	-	6.8	1,117	6.8	1	0.1	40	6.3	-	-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2005년

〈표 19-10〉 주된 양식품종별 어가 - 어류양식

(단위 : 가구, %)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계	424	100.0	2,408	100.0	3,062	100.0	2,634	100.0
넙치류	204	48.1	928	38.5	667	21.8	630	23.9
조피볼락	53	12.5	1,278	53.1	2,114	69.0	1,449	55.0
돔류	22	5.2	29	1.2	66	2.2	215	8.2
송어류	-	-	-	-	-	-	218	8.3
농어	23	5.4	-	-	65	2.1	-	-
방어	61	14.4	21	0.9	8	0.3	-	-
기타	61	14.4	152	6.3	142	4.6	122	4.6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각년도

I. 자연환경

II. 농림어가의 인구와 가족

III.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

IV. 농업

V. 임업

VI. 어업



패류양식부문은 <표 19-11>과 같이 2005년 조사에서는 바지락류가 3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굴류가 31.8%, 전복류가 18.4%, 꼬막류가 6.2% 순이었다. 연도별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전복양식이었다. 1990년 0.8%에 불과했던 전복양식은 2005년에는 주된 양식품종으로 양식하는 어가가 18.4%에 이르렀다.

<표 19-11> 주된 양식 품종별 어가 - 패류양식

(단위 : 가구, %)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계	18,714	100.0	15,401	100.0	13,940	100.0	16,508	100.0
굴 류	8,738	46.7	7,993	51.9	6,778	48.6	5,243	31.8
홍 합 류	530	2.8	417	2.7	449	3.2	519	3.1
피조개류	1,276	6.8	316	2.1	573	4.1	555	3.4
전 복 류	151	0.8	-	-	-	-	3,043	18.4
바지락류	4,310	23.0	4,253	27.6	3,802	27.3	5,654	34.3
꼬 막 류*	2,561	13.7	1,974	12.8	1,213	8.7	1,019	6.2
가무락류	121	0.6	-	-	-	-	74	0.4
동 죽	-	-	7	0.04	-	-	-	-
가 리 비	-	-	24	0.2	52	0.4	-	-
기 타	1,027	5.5	417	2.7	1,073	7.7	401	2.4

주 : * 새고막 937 포함.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연도.

굴양식은 약간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어가들이 주된 양식품종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바지락양식의 비중은 증가했다. 반면에 꼬막류는 감소했다. 전복류가 크게 증가한 것은 1980년대까지 서남해안 양식어업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김과 미역 등 해조류 양식이 수출이 막히고 어장이 노후화 되면서 대체품목으로 전복양식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복소비가 증가하고 소득원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큰 자본을 투자해 시설을 하는 어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2005년 어업총조사에서 해조류 양식은 <표 19-12>와 같이 김양식이 4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은 미역이 28.8%, 다시마가 11.9%였다. 특히 2005년부터는 매생이양식이 확인되기 시작했다. 매생이는 전라남도 완도, 강진, 장흥, 고흥 등 내만에서 양식되는 청정해조류로 최근 웰빙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과거 지주식 김양식 자리에서 김보다 상층부에 붙어 자라는 매생이는 과거에는 '잡채' 라고 해서 잡초처럼 제거해야하는 것으로 김양식을 하는 사람들에

게는 귀찮은 존재였다. 하지만 지금은 김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팔리는 '효자품목' 이 되고 있어 양식 면적이 늘어날 전망이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김양식은 1990년 73.3%라는 절대적 우위를 점하는 양식이었지만 2005년 45.4%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에 다시마와 미역양식은 줄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다시마는 1990년 0.1%에서 2005년 11.9%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역은 23.3%에서 28.8%를 유지하고 있다. 다시마와 미역 양식이 지속되는 것은 전복양식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이들 해조류는 전복의 먹이로 이용되기 때문에 겨울이나 이른 봄 말린 미역과 다시마를 전복의 먹이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해조류 양식 중 2005년 조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매생이와 파래양식이다. 이들 해조류 양식은 청정한 폐쇄형 및 반폐쇄형의 고흥, 완도, 해남, 장흥, 신안, 무안 등 서남해역지역에서만 양식되고 있다.

〈표 19-12〉 주된 양식 품종별 어가 - 해조류양식

(단위: 가구, %)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계	28,602	100.0	14,693	100.0	9,020	100.0	7,222	100.0
김	20,956	73.3	9,377	63.8	5,382	59.7	3,282	45.4
미역	6,655	23.3	2,814	19.2	2,441	27.1	2,082	28.8
다시마류	16	0.1	381	2.6	944	10.5	856	11.9
툫	814	2.8	1,958	13.3	-	-	627	8.7
매생이	-	-	-	-	-	-	172	2.4
파래	156	0.5	-	-	-	-	117	1.6
기타	5	0.0	163	1.1	253	2.8	86	1.2

자료: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연도.

이외에도 〈표 19-13〉에서 보듯이 갑각류 양식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9-13〉 주된 양식 품종별 어가 - 갑각류

(단위: 가구, %)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계	69	100.0	157	100.0	191	100.0
대하	59	85.5	139	88.5	177	92.7
보리새우	3	4.3	-	-	-	-
기타 갑각류	7	10.1	18	11.5	14	7.3

자료: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연도.



양식방법의 변화

양식방법은 조류와 수심, 양식품목에 따라 다양하다. 어류양식의 경우 가두리와 축제식, 수조식, 뗏목식을, 해조류 양식은 지주식, 부류식, 패류양식의 경우는 투석식, 살포식, 연승식 등이 있다. <표 19-14>와 같이 2005년 양식어가 중 30.9%는 연승식을, 27.5%는 살포식을, 12.3%는 가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승식은 꽃게, 장어, 낙지, 문어 등 각종 통발에 많이 이용된다. 살포식은 바지락, 석화 양식에, 가두리는 어류양식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2000년과 비교할 때 가두리 양식과 살포식 양식이 증가한 반면에 부류식과 지주식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류식과 지주식은 주로 김 양식 등 해조류 양식에 해당되는 양식방법으로 해조류양식이 침체되고 전복이나 어류 등 가두리 양식과 바지락 등 패류양식이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19-14> 양식방법의 변화

(단위: 가구, %)

구 분	2000년		2005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양식어가	28,704	100.0	28,184	100.0
가 두 리	2,458	8.6	3,459	12.3
축 제 식	240	0.8	245	0.9
수 조 식	852	3.0	1,027	3.6
연 승 식	8,218	28.6	8,704	30.9
뗏 목 식	84	0.3	7	0.0
투 석 식	2,898	10.1	2,725	9.7
살 포 식	5,595	19.5	7,761	27.5
지 주 식	2,762	9.6	1,222	4.3
부 류 식	4,384	15.3	2,368	8.4
기 타	1,213	4.2	666	2.4

자료: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양식규모의 변화

양식어가의 규모별 분포를 보면, <표 19-15>처럼 2005년의 경우 0.1~0.3ha가 17.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0.5~1.0ha가 16.8%였다. 양식어가 중 0.3ha 미만의 양식어장을 보유한 어가가 24.7%, 10ha 이상은 5.1%였다. 시기별로 비교해보면 1990년 0.3ha 미만을 양식하는 어가는 15.0%, 10ha 이상 양식하는 어가는 1.7%에 불과했다. 어가의 양식면적은 1990년에는 0.1~6.0ha 사이에 넓게 확산되어 있었지만 2005년에는 0.5~10.0ha 사이로 이동하여 분포하고 영세한 어가는 더욱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 마을지선어장을 중심으로 성원들이 비슷한 정도의 양식을 했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협업면허는 물론 개인면허를 취득하여 일정규모의 양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계가 발달하고 노동의존도가 점점 약화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인력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9-15> 양식규모별 어가 변화(1990~2005년)

(단위: 가구, %)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계	59,234	100.0	43,016	100.0	28,704	100.0	28,184	100.0
0.1ha 미만	2,349	4.0	2,131	5.0	5,776	20.1	2,127	7.5
0.1~0.3ha	6,461	11.0	6,966	16.2			4,855	17.2
0.3~0.5ha	6,334	10.7	4,254	9.9	3,543	12.3	2,676	9.5
0.5~1.0ha	11,220	18.9	8,361	19.4	5,486	19.1	4,730	16.8
1.0~1.5ha	9,376	15.8	5,032	11.7	3,356	11.7	3,477	12.3
1.5~3.0ha	13,383	22.6	7,280	16.9	4,061	14.1	4,214	15.0
3.0~6.0ha	7,573	12.8	5,674	13.2	3,601	12.5	3,220	11.4
6.0~10.0ha	1,528	2.6	1,963	4.6	1,373	4.8	1,444	5.1
10.0~15.0ha	610	1.0	896	2.1	875	3.0	773	2.7
15.0~20.0ha	178	0.3	232	0.5	344	1.2	327	1.2
20.0~25.0ha	102	0.2	121	0.3	144	0.5	138	0.5
25.0~30.0ha	37	0.1	38	0.1	64	0.2	66	0.2
30ha 이상	83	0.1	68	0.2	81	0.3	137	0.5

자료: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표 19-16〉 지역별 양식면적 규모 (2005년)

(단위 : 가구)

지역	0.1ha 미만	0.1~ 0.3ha	0.3~ 0.5ha	0.5~ 1.0ha	1.0~ 1.5ha	1.5~ 3ha	3~ 6ha	6~ 10ha	10~ 15ha	15~ 20ha	20~ 25ha	25~ 30ha	30ha 이상
계	2,127	4,855	2,676	4,730	3,477	4,214	3,220	1,444	773	327	138	66	138
서울	-	1	-	1	-	-	-	-	-	-	-	-	-
부산	21	37	37	184	152	194	142	41	6	12	5	1	-
대구	-	-	1	-	-	-	-	-	-	-	-	-	1
인천	17	44	9	27	25	48	28	3	4	-	1	-	1
광주	1	2	-	1	-	3	5	-	-	-	-	-	-
울산	8	49	20	43	47	55	11	-	2	1	1	-	-
경기	1	2	5	8	21	3	66	23	5	38	1	-	33
강원	5	6	1	7	4	5	14	9	6	4	2	1	-
충남	316	1,484	535	1,088	555	415	148	119	37	39	14	3	5
전북	2	27	52	82	147	152	170	38	27	4	3	-	5
전남	550	1,882	1,191	2,199	1,545	2,310	2,046	1,067	656	224	107	58	88
경북	53	85	74	55	63	95	85	14	-	1	1	1	-
경남	796	869	654	739	910	784	439	129	29	4	3	2	5
제주	357	367	97	296	8	150	66	1	1	-	-	-	-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2005

〈표 19-16〉과 〈표 19-17〉은 지역별 양식면적의 분포를 가구와 구성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19-17〉 지역별 양식면적 규모 (2005년)

(단위 : %)

지역	0.1ha 미만	0.1~0.3ha	0.3~0.5ha	0.5~1.0ha	1.0~1.5ha	1.5~3ha	3~6ha	6~10ha	10~15ha	15~20ha	20~25ha	25~30ha	30ha 이상
계	2,127	4,855	2,676	4,730	3,477	4,214	3,220	1,444	773	327	138	66	138
서울	-	0.0	-	0.0	-	-	-	-	-	-	-	-	-
부산	1.0	0.8	1.4	3.9	4.4	4.6	4.4	2.8	0.8	3.7	3.6	1.5	-
대구	-	-	0.0	-	-	-	-	-	-	-	-	-	0.7
인천	0.8	0.9	0.3	0.6	0.7	1.1	0.9	0.2	0.5	-	0.7	-	0.7
광주	0.0	0.0	-	0.0	-	0.0	0.2	-	-	-	-	-	-
울산	0.4	1.0	0.7	0.9	1.4	1.3	0.3	-	0.3	0.3	0.7	-	-
경기	0.5	0.0	0.2	0.2	0.6	0.0	2.0	1.6	0.6	11.6	0.7	-	23.9
강원	0.2	0.1	0.0	0.1	0.1	0.1	0.4	0.6	0.8	1.2	1.4	1.5	-
충남	14.9	30.6	20.0	23.0	16.0	9.8	4.6	8.2	4.8	11.9	10.1	4.5	3.6
전북	0.1	0.6	1.9	3.1	4.2	3.6	5.3	2.6	3.5	1.2	2.2	-	3.6
전남	25.9	38.8	44.5	46.5	44.4	54.8	63.5	73.9	84.9	68.5	77.5	87.9	63.8
경북	2.5	1.8	2.8	1.2	1.8	2.3	2.6	1.0	-	0.3	0.7	1.5	-
경남	37.4	17.9	24.4	15.6	26.2	18.6	13.6	8.9	3.8	1.2	2.2	3.0	3.6
제주	17.6	7.6	3.6	6.3	0.2	3.6	2.0	0.0	0.1	-	-	-	-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2005

I. 자연환경

II. 농림어가의 인구와 가족

III.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

IV. 농업

V. 임업

VI. 어업

제 3 절 어선어업의 변화

어선보유형태

어선어업은 자기소유나 다른 사람이 소유한 어선에 승선하여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어선어업은 대부분 허가어업이며, 어선의 규모, 어선운영의 목적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²⁶⁾

어선보유형태를 보면 〈표 19-18〉과 같이 어선이 없는 어가는 1990년 42.9%, 1995년 45.8%, 2000

26) 일반적으로 총 8톤 이상의 동력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 무동력선 및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선은 시·도지사, 무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이용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년 40.1%, 2005년 42.5%였다. 어선이 있는 어가들은 무동력선과 동력선으로 나뉜다. 무동력선의 비율은 매년 감소한 반면에 동력선의 비율은 증가했다. 동력어선의 보유율이 증가하는 것은 어선 감소에 비해서 어가의 감소가 크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어선보유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어업자원에 적합한 어선세력 유지'와 한중·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정책 때문이다. 근해어업의 경우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635척을 감척하였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근해어선의 30%를 감척할 계획이다. 2000년 81,571어가 중 어선이 없는 어가는 40.1%, 어선을 보유한 어가가 59.9%였다. 2005년 어업총조사에서는 어선을 보유한 어가가 57.5%이며 2000년과 큰 차이가 없다.

〈표 19-18〉 어선어업 어가의 변화 (1990~2005년)

(단위: 가구, %)

연 도	총어가		어선 없는 어가		무동력선		동력선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1990년	121,525	100.0	52,077	42.9	6,331	5.2	63,117	51.9
1995년	104,480	100.0	47,864	45.8	3,289	3.1	53,327	51.0
2000년	81,571	100.0	32,685	40.1	3,051	3.7	47,184	57.8
2005년	79,942	100.0	33,967	42.5	1,826	2.3	45,266	56.6

주: *한 가구에 무동력선과 동력선을 모두 보유한 경우, 동력선을 두 척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음.

자료: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동력선 보유 어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표 19-19〉와 같다. 2005년 조사결과 전라남도가 36.7%로 가장 많은 어선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경상남도로 24.3%, 충청남도, 강원도 순이었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어선 보유비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전라남도로 1990년 29,470척으로 전체 어선수의 46.7%였지만 2005년에는 16,606척으로 36.7%에 머물렀다. 대부분의 지역이 어선보유 수에서는 감소했지만 제주도, 강원도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어업총조사 자료와 비교해보면 무동력선은 크게 감소하였다. 당시 무동력선의 분포를 보면 5톤 이상의 큰 규모의 어선이 전라남도에 113척, 경기도 25척, 전라북도 9척, 경상남도에 5척이 분포했다. 2~5톤 규모의 어선도 전라북도 52척, 경기도 27척, 전라남도 26척, 경상남도 20척이었다. 하지만 1995년에는 2톤 이상의 무동력선은 전혀 없다. 당시 무동력선의 종류에 대한 조사가 없어 확인할 수 없지만 큰 규모의 무동력선은 새우잡이를 하는 해선망으로 추정된다. 새우잡이를 비롯한 무동력선은 1990년대 정부의 폐선정책으로 많이 사라졌다.

〈표 19-19〉 지역별 동력선 보유어가 : (1990~2005년)

(단위 : 가구, %)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전 국	63,117	100.0	53,327	100.0	47,184	100.0	45,266	100.0
서울특별시	-	-	-	-	-	-	4	0.0
부산광역시	3,471	5.5	3,497	6.6	2,812	6.0	2,543	5.6
대구광역시	-	-	-	-	1	0.0	2	0.0
인천광역시	770	1.2	1,146	2.1	1,197	2.5	1,165	2.6
광주광역시	-	-	-	-	-	-	6	0.0
울산광역시	-	-	-	-	670	1.4	680	1.5
경 기 도	1,462	2.3	631	1.2	551	1.2	553	1.2
강 원 도	2,591	4.1	2,680	5.0	2,524	5.3	2,619	5.8
충 청 남 도	3,645	5.8	3,235	6.1	3,218	6.8	3,295	7.3
전 라 북 도	2,573	4.1	2,092	3.9	2,066	4.4	1,953	4.3
전 라 남 도	29,470	46.7	22,833	42.8	18,133	38.4	16,606	36.7
경 상 북 도	3,271	5.2	3,220	6.0	2,987	6.3	2,966	6.6
경 상 남 도	14,202	22.5	12,116	22.7	11,146	23.6	11,013	24.3
제 주 도	1,662	2.6	1,877	3.5	1,879	4.0	1,861	4.1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어선 규모

보유어선 규모별 어가는 2톤 미만의 소형어선 보유어가가 줄어드는 반면에 2톤에서 10톤 크기의 어선 보유어가의 비율이 증가했다. 1990년 2톤 미만의 어선보유어가는 64.4%였지만 2005년 같은 규모의 어선을 보유한 어가는 52.1%로 감소했다. 반면에 5~10톤 규모의 어선을 보유한 어가는 1990년 5.6%에서 2005년 12.2%로 크게 증가했다. 10~20톤의 연근해 어업을 하는 어선을 보유한 어가의 경우는 1990년 2.1%에서 2005년 2.1%로 구성비는 동일하나 가구수는 감소하였다.

I. 자연환경

II. 농림어가의 인구와 가족

III.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

IV. 농업

V. 임업

VI. 어업



〈표 19-20〉 보유어선 규모별 어가 (1990~2005년)

(단위 : 가구, %)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계	63,117	100.0	53,327	100.0	47,184	100.0	45,266	100.0
2톤 미만	40,635	64.4	30,176	56.6	25,032	53.1	23,576	52.1
2~5톤	15,500	24.6	15,448	29.0	14,916	31.6	13,956	30.8
5~10톤	3,556	5.6	4,672	8.8	4,845	10.3	5,535	12.2
10~20톤	1,324	2.1	1,062	2.0	1,045	2.2	943	2.1
20~50톤	1,015	1.6	1,008	1.9	746	1.6	744	1.6
50~100톤	840	1.3	588	1.1	473	1.0	356	0.8
100톤 이상	247	0.4	373	0.7	127	0.3	147	0.3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지역별 어선규모는 〈표 19-21〉과 같다. 2톤 미만의 어선의 비중이 울산 67.3%, 부산 63.5%, 전남 59.5% 순이며, 인천은 26.8%, 제주는 17.2%이었다. 5~10톤 규모는 제주도가 31.9%로 가장 높고, 다음은 인천이 35.0% 순이었다. 50톤 이상의 대형 선박은 인천, 부산 지역이 높았다.

〈표 19-21〉 보유어선 규모별 지역별 어가수 (2005년)

(단위 :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00.0 (4)	100.0 (2,543)	100.0 (2)	100.0 (1,165)	100.0 (6)	100.0 (680)	100.0 (553)	100.0 (2,619)	100.0 (3,295)	100.0 (1,953)	100.0 (16,606)	100.0 (2,966)	100.0 (11,013)	100.0 (1,861)
1톤 미만	-	24.7	-	10.0	16.7	25.0	16.3	14.7	19.1	13.0	26.2	20.9	22.7	6.8
1~2톤	0.3	38.8	-	16.8	33.3	42.3	28.7	22.0	26.6	36.5	33.3	21.7	31.4	10.4
2~5톤	-	23.5	-	30.9	33.3	16.2	27.1	39.8	18.5	21.9	28.7	13.2	35.4	40.2
5~10톤	-	7.1	-	35.0	-	10.3	20.4	14.0	21.1	22.1	8.8	15.8	6.7	31.9
10~20톤	0.3	1.0	50.0	3.8	-	2.2	6.5	2.8	3.0	4.8	1.2	4.0	1.7	2.2
20~30톤	-	1.4	-	0.8	16.7	1.2	0.2	3.1	1.4	0.8	0.3	2.8	0.5	5.1
30~50톤	-	0.5	-	0.4	-	1.2	0.5	1.1	0.2	0.2	0.3	0.7	0.3	0.5
50~100톤	0.3	1.2	-	1.8	-	1.5	0.2	2.1	0.2	0.6	0.5	1.7	0.6	0.8
100톤이상	0.3	1.8	50.0	0.4	-	0.1	-	0.4	0.03	0.2	0.1	0.1	0.5	0.1

주 : ()는 어가수임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2005

제 20 장 세계속의 한국 어업

홍현표

제 1 절 서론

최근 들어 우리나라 어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해양수산 분야의 1차 산업으로서 세계 어업자원 및 어업 동향과 밀접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어업도 급격한 구조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 어업에서 연근해 및 원양해역에서 잡는 어획량은 FAO 통계 기준으로 2005년말 현재 1,639천 톤으로서 전세계 어획량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996년의 2.6%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것이다²⁷⁾.

또한 우리나라의 양식생산량(해조류 포함)은 2005년 말 현재 1,041천 톤으로서 전세계 양식생산량의 1.1%를 차지하여 1996년 1.7% 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양식어업의 경우는 2000년의 0.9%까지 감소했던 점을 감안하면, 그 이후 양식생산량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한국 어업이 최근 10여 년 간 구조 변화를 경험하였던 것은 우리나라 어업의 발전과 구조 변화에도 큰 원인이 있었으나, 대외적으로 세계 어업의 구조 변화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국내 연근해 어업의 자원 고갈에 즈음하여 세계적으로도 어업자원 고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책임있는 어업의 실현”을 위한 국제규범들이 다각도로 마련되면서 어획 기술의 발전과 어획노력량의 감축을 위한 노력이 뒤를 잇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원양 및 연근해 어업의 어획량은 정체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하여 양식어업이 현저한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유통과 소비 측면에서도 각 지역경제의 개발 효과와 이에 따른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향후 소비시장 및 지역간 교역구조 등이 급격히 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FTA 협정 및 WTO/DDA 협상 등의 진전에 따라 수산물 교역 자유화 폭이 확대되어 국가간 수산물 교역 구조를 급격히 변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7) FAO(2005), 'Yearbooks of Fishery Statistics Summary tables'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세계어업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어업의 현주소와 거시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이에 세계어업의 동향과 한국 등 동북아 어업의 실태, 세계 어업규범의 변화 전망 등을 살펴본 후, 한국 어업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도록 한다.

제 2 절 세계어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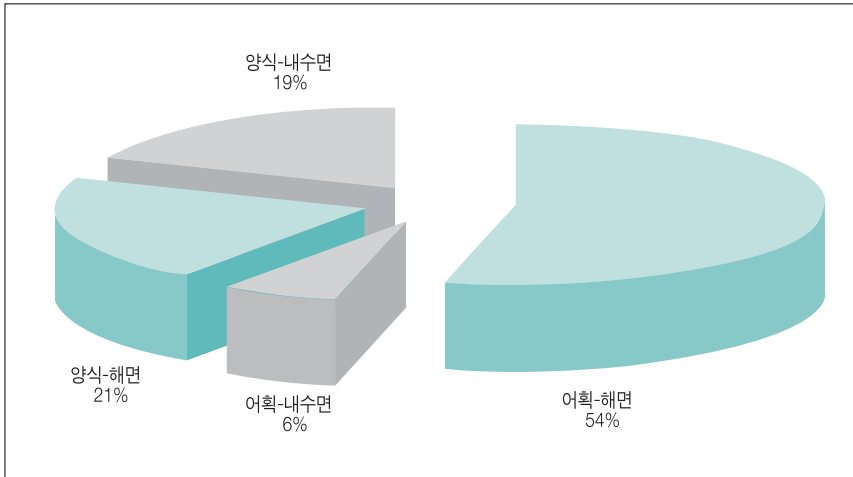
어업생산

세계의 어업총생산량은 FAO²⁸⁾기준으로 2005년 현재 1억 5,619만 톤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어업생산량 중 60%인 9,325만 톤이 잡는 어업에서 어획되고 있으며, 나머지 40%는 양식어업에서 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수산물은 연근해의 일반해면과 내륙에 위치한 내수면에서도 각각 잡는 어업과 양식어업 등을 통해 생산되고 있으므로 이를 세분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잡는 어업에서 생산되는 어획물은 대부분 연근해에서 어획되어 총생산량 대비 54%를 차지하는 8,371만 톤을 기록하고 있으며, 내수면에서는 953만 톤을 생산하여 총생산대비 6%에 불과하다(그림 20-1) 참조).

또한 양식생산량도 연안해역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3,356만톤으로서 총생산량 대비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수면 양식생산량은 2,936만 톤으로서 총생산량 대비 1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업생산량을 어획어업과 양식어업으로 구분하지 않고 내륙과 해수면의 장소로 구분하면, 일반해면어업이 총생산량의 75%를 차지하고 내수면어업이 25%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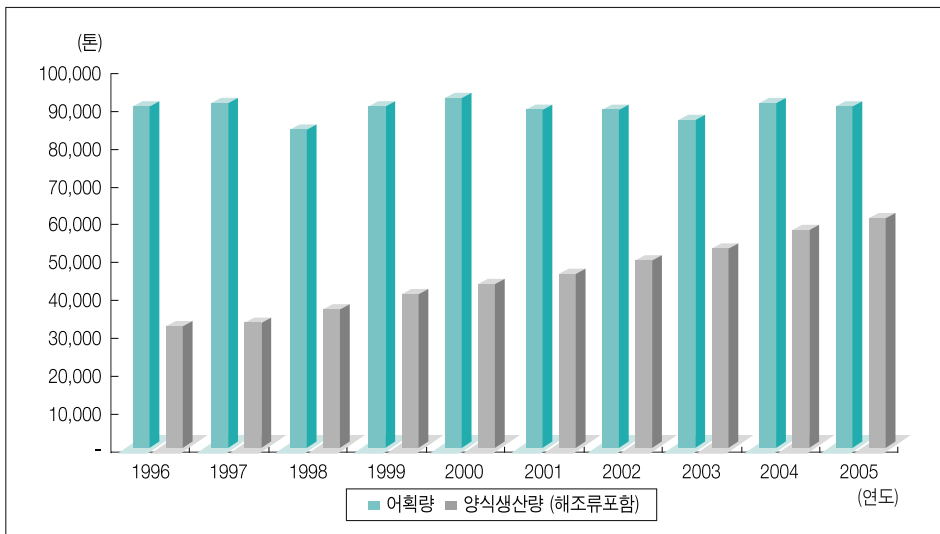
28)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의 약자이며, 우리말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라 하며 이 기구에서 매년 어업생산량 통계가 발표되고 있다.



자료 : FAO

〈그림 20-1〉 세계어업의 구조(2005년)

이와 같은 2005년의 세계어업 생산 구조도 지난 10년간의 추세로 살펴보면, 〈그림 20-2〉에서 보듯이 어획량은 9천만 톤 내외에서 정체되어 왔으나 양식생산량은 같은 기간 동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FAO

〈그림 20-2〉 세계어업 생산량 추이



이와 같은 어업생산량을 국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4,946만 톤을 생산하여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어서 페루 941만 톤, 인도 631만 톤, 인도네시아 557만 톤, 미국 536만 톤, 칠레 502만 톤, 일본 481만 톤, 태국 374만 톤, 베트남 336만 톤, 그리고 러시아 330만 톤을 각각 기록하여 상위 10위 권을 형성하고 있다²⁹⁾. 우리나라는 2005년 현재 207만 톤을 기록하여 세계 1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 전체 어업생산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1. 어획어업

전세계의 어획어업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9,300만 톤 규모에서 거의 정체상태를 보여왔다. 그러나 어획어업중 내수면어업 어획량은 지난 10년간 다소나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면어업의 어획량은 미세하게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전세계적으로 어업자원의 고갈을 주도한 것은 해면어업이었으며, 중국의 내수면 어업의 성장이 그나마 전세계 해면어업의 침체로 인한 어획량 감소를 일부 대신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05년 기준으로 세계의 어획량 순위는 중국이 17,053천 톤으로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어서 페루, 미국, 인도네시아, 칠레, 일본, 인도, 러시아, 태국, 노르웨이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2005년 1,639천 톤을 어획하여 세계 15위의 어업국(어획량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전통적인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은 2005년 어획량기준으로 각각 24위, 27위, 28위를 차지하여 20위 안에 들지 못하였다.

나라별로는 어획량 추이가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으나, 세계의 총어획량은 지난 10년간 거의 정체 수준에 머물러 어업자원의 세계적 고갈 상황을 웅변하고 있다. <그림 20-3>에서 보듯이, 유럽의 선진국 그룹(영국, 프랑스, 스페인 3국)의 평균 어획량은 1백만 톤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최근 10년간 확연히 감소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베트남,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의 개발도상 6개국의 평균 어획량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는 250만 톤에 근접하고 있다.

29) 상기의 국별 어업생산 통계는 어획량과 양식생산량을 합산한 것이며, 해조류(수산식품)를 제외한 것이다.

〈표 20-1〉 세계 주요국별 어획량 추이

(단위 : 천톤)

순위	국명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	중국	15,722	17,229	17,240	16,987	16,529	16,553	16,755	16,892	17,053
2	페루	7,869	4,344	8,426	10,657	7,986	8,765	6,086	9,604	9,386
3	미국	4,983	4,708	4,749	4,717	4,944	4,937	4,938	4,959	4,888
4	인도네시아	3,791	3,964	3,986	4,082	4,242	4,322	4,627	4,642	4,381
5	칠레	5,811	3,265	5,051	4,300	3,797	4,272	3,612	4,918	4,330
6	일본	5,916	5,303	5,185	4,985	4,703	4,360	4,670	4,311	4,072
7	인도	3,523	3,373	3,472	3,666	3,777	3,736	3,712	3,391	3,481
8	러시아	4,661	4,454	4,141	3,973	3,628	3,232	3,281	2,941	3,190
9	태국	2,902	2,930	2,952	2,997	2,833	2,842	2,849	2,839	2,599
10	노르웨이	2,863	2,861	2,627	2,699	2,686	2,740	2,548	2,524	2,392
11	필리핀	1,805	1,833	1,872	1,896	1,949	2,030	2,166	2,216	2,246
12	베트남	1,276	1,293	1,386	1,623	1,724	1,802	1,856	1,879	1,929
13	미얀마	780	830	920	1,093	1,187	1,284	1,343	1,586	1,742
14	아이슬랜드	2,205	1,681	1,736	1,982	1,980	2,129	1,980	1,728	1,661
15	한국	2,204	2,027	2,118	1,824	1,990	1,671	1,642	1,575	1,639
16	방글라데시	829	839	959	1,004	1,068	1,103	1,141	1,187	1,333
20	대만	1,038	1,091	1,099	1,093	1,005	1,042	1,134	980	1,017
24	스페인	1,205	1,242	1,172	1,045	1,092	892	896	804	848
26	브라질	644	606	603	666	730	755	712	746	750
27	영국	890	923	840	747	741	689	635	652	669
28	프랑스	574	549	593	635	615	631	638	599	574
	나머지	22,719	22,229	22,496	22,938	23,839	23,392	23,132	23,390	23,073
	전세계	94,210	87,574	93,623	95,609	93,045	93,179	90,353	94,363	93,253
	내수면	7,574	8,058	8,530	8,819	8,806	8,697	8,936	8,889	9,535
	해 면	86,636	79,516	85,093	86,790	84,239	84,500	81,417	85,474	83,718

자료 : FAO

그리고 흔히 수산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노르웨이와 아이슬랜드의 평균 어획량은 90년대 중반에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이후 10년간 우리나라 보다 감소폭이 작아 2005년에는 한국보다 평균 35만 톤 가량을 더 어획하고 있다.

I. 자연환경

II. 농림어업의 인구와 가족

III.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

IV. 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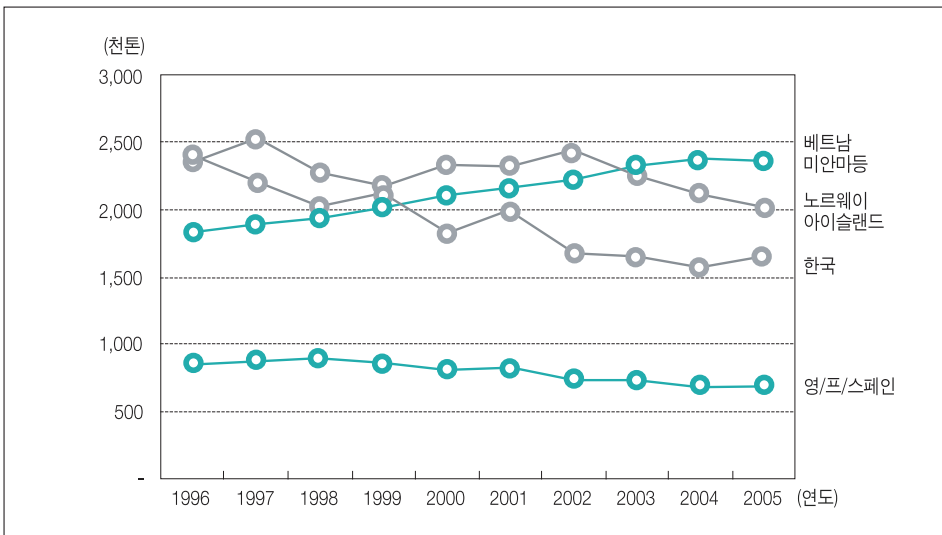
V. 임업

VI. 어업



2. 양식어업

양식어업 생산량은 2005년 기준으로 48,149천톤(해조류 제외)으로서, 이는 10년 전 대비 거의 두 배에 이르는 생산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표 20-2>에서 보듯이, 해조류를 포함할 경우 2005년의 전 세계 양식생산량은 62,938천 톤이었다. 그중 33,569천 톤은 해면양식어업에서 생산되었으며, 29,368천 톤은 내수면에서 생산되었다.



주 : 베트남미얀마등은 인도네시아, 태국,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을 포함

자료 : FAO

<그림 20-3> 세계 주요 국가그룹별 평균(1국) 어획량 추이

〈표 20-2〉 세계 양식생산량의 국별 추이

(단위 : 천톤, %)

순위	국명	1997년	2000년	2003년	2005년	증가율 (2005/1997)
1	중국	19,315	24,580	28,883	32,414	67.8
2	인도	1,864	1,942	2,313	2,837	52.2
3	베트남	322	498	937	1,437	346.3
4	인도네시아	662	788	996	1,197	80.8
5	태국	539	738	1,064	1,144	112.2
6	방글라데시	485	657	856	882	81.9
7	일본	806	762	823	746	-7.4
8	칠레	272	391	563	598	119.9
9	노르웨이	367	491	584	656	78.7
10	필리핀	327	393	459	557	70.3
11	이집트	85	340	445	539	534.1
12	미얀마	82	98	252	474	478.0
13	미국	438	456	544	471	7.5
14	한국	392	293	387	436	11.2
15	대만	257	243	351	304	18.3
17	브라질	87	172	277	257	195.4
16	프랑스	287	266	239	258	-10.1
19	이탈리아	190	213	191	180	-5.3
21	영국	129	152	181	172	33.3
18	스페인	239	312	272	221	-7.5
나머지국		1,461	1,692	2,011	2,369	62.1
전세계(해조류제외)		28,606	35,477	42,628	48,149	68.3
전세계(해조류포함)		35,840	45,659	55,154	62,938	75.6
내수면양식		17,460	21,254	25,541	29,368	68.2
해면양식		18,379	24,404	29,666	33,569	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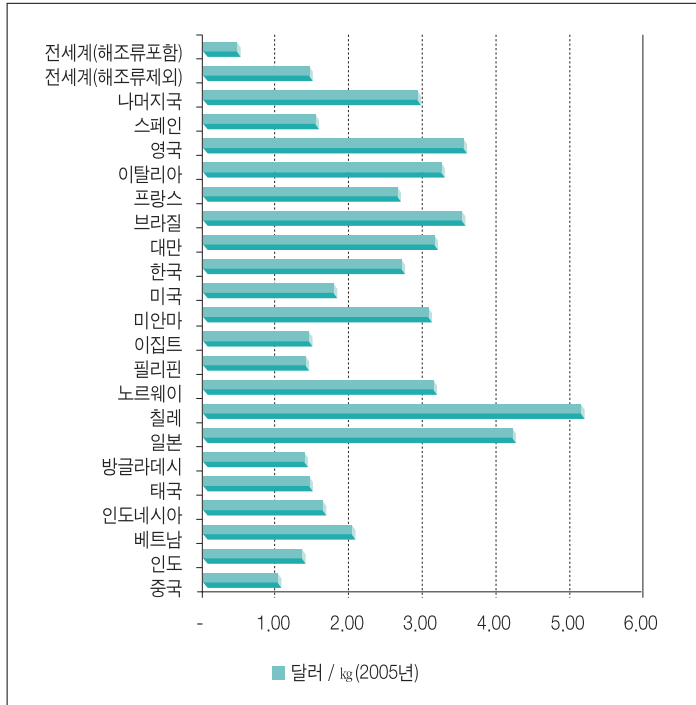
자료 : FAO

나라별로는 중국이 2005년 현재 32,414천 톤을 기록하여 전세계 양식생산량의 67.3%(해조류 제외)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방글라데시, 일본, 칠레, 노르웨이 등의 순이었으며, 한국은 2005년 기준으로 14위를 기록하였다.

양식어업의 생산에 있어서 세계 각국의 추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특징은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양식생산량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와 같은 현상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양식 생산량의 증가는 1997년 대비 2005년 증가율을 기준으로 할때, 내수면 및 일반해면 등의 해역에서 고르게 급증하고 있으나 특히 일반해면에서의 생산증대가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FAO

〈그림 20-4〉 세계 주요 국별 양식수산물의 kg당 가격(2005년)

계획적인 생산 조절이 가능한 양식어업의 경우, 각 해역별 특성과 상업화 정책 등에 따라 양식품종이 상이하기 때문에 kg당 판매 단가도 나라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20-4〉 참조). 2005년 기준으로 가장 고급어종을 취급하고 있는 나라는 칠레로서 평균 kg당 5.2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어서 일본 4.3달러, 브라질 3.6달러, 노르웨이 3.2달러 등의 순이었으며, 한국은 2.7달러로 세계 전체 평균 단가인 kg당 1.5달러(해조류 제외) 보다는 높으나 경제성 어종을 취급하는 양식선진국에는 못미치고 있다. 중국은 kg당 평균 1.1달러의 어종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교역

1. 세계 수산물 수출 추이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의 자료³⁰⁾에 의하면, 2005년 세계 수산물 수출액은 78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2004년 대비 9.5% 증가하였으며, 2003년 대비로는 23.0% 증가한 것이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2005년 기준으로 세계 수산물 수출시장에서 중국이 9.6%를 차지하는 7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를 뒤이어 노르웨이 6.2% 48억 달러, 태국 5.7% 44억 달러, 미국 5.4% 42억 달러 등의 순이었다.

2003년 대비 2005년까지 수출이 급신장한 나라는 역시 중국이 43.4%로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에 있으며, 이어서 칠레 39.0%, 일본 35.9%, 노르웨이 34.8% 등을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표 20-3〉 세계 수산물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

순위	주요 국명	2003년	2004년	2005년	점유율 (2005)	증가율 (2005/2003)
1	중국	5,243	6,637	7,519	9.6	43.4
2	노르웨이	3,624	4,132	4,885	6.2	34.8
3	태국	3,906	4,034	4,466	5.7	14.3
4	미국	3,399	3,851	4,232	5.4	24.5
5	덴마크	3,213	3,566	3,685	4.7	14.7
6	캐나다	3,300	3,487	3,596	4.6	9.0
7	칠레	2,134	2,484	2,967	3.8	39.0
8	네덜란드	2,183	2,452	2,820	3.6	29.2
9	베트남	2,202	2,403	2,741	3.5	24.5
10	스페인	2,224	2,565	2,579	3.3	16.0
11	영국	1,670	1,812	1,872	2.4	12.1
12	인도네시아	1,551	1,654	1,803	2.3	16.2
13	아이슬랜드	1,508	1,770	1,783	2.3	18.2
18	프랑스	1,326	1,526	1,584	2.0	19.5
20	일본	923	1,077	1,254	1.6	35.9
23	한국	1,003	1,139	1,043	1.3	4.0
나머지국		24,365	27,020	29,590	37.7	21.4
전세계		63,774	71,609	78,419	100.0	23.0

자료 : FAO

30) FAO, Yearbook of Fishery Statistics Summary Tables 2005. 고래, 물개, 기타 수산포유동물 및 수산식물, 어망 제외



실태로 살펴보면, 노르웨이와 칠레, 아이슬랜드 등의 수산대국 및 일본과 중국 등의 수산물 수출 잠재력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개발도상국 중에는 태국,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가 2005년 기준으로 45억 달러, 27억 달러, 18억 달러를 각각 기록하여 이들 3개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10%를 넘어섰다. 그러나 2005년 현재 10억 달러의 수산물 수출에 머문 한국은 2003년 대비 4.0%의 성장에 그쳤으며, 세계 수산물 수출시장 점유율도 1.3%에 불과하였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의 유럽 선진국의 2005년 수산물 수출은 2003년 대비 10% 대의 성장을 실현하여 한국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이들 3개국의 수출점유율은 7.7%에 머물렀다. 오히려 덴마크와 네덜란드 등이 2005년 기준으로 37억 달러, 28억 달러의 수산물 수출실적을 기록하여,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비교적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 세계 수산물 수입 추이

2005년의 세계 수산물 수입실적은 총 81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2004년 대비 8.1%, 2003년 대비 21.0% 각각 증가한 것이다.

〈표 20-4〉 세계 수산물 수입 추이

(단위 : 백만\$, %)

순위	주요 국명	2003년	2004년	2005년	점유율 (2005)	증가율 (2005/2003)
1	일본	12,396	14,560	14,438	17.7	16.5
2	미국	11,655	11,967	11,982	14.7	2.8
3	스페인	4,904	5,222	5,632	6.9	14.8
4	프랑스	3,771	4,176	4,563	5.6	21.0
5	이탈리아	3,559	3,904	4,224	5.2	18.7
6	중국	2,839	3,126	3,979	4.9	40.2
7	독일	2,635	2,805	3,235	4.0	22.8
8	영국	2,508	2,812	3,174	3.9	26.6
9	덴마크	2,084	2,286	2,555	3.1	22.6
10	한국	1,935	2,233	2,351	2.9	21.5
12	네덜란드	1,701	1,837	2,079	2.6	22.2
13	홍콩	1,752	1,908	1,883	2.3	7.5
나머지국		15,620	18,600	21,434	26.3	37.2
전세계		67,359	75,436	81,529	100.0	21.0

자료 : FAO

수산물 소비대국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세계적인 수입국을 나라별로 살펴보면, 일본이 2005년 기준으로 144억 달러를 수입하여 세계 1위 수산물 수입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일본의 수산물 교역은 무역적자 상태로서 전형적인 수산물 소비대국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어서 미국도 2005년 현재 120억 달러를 수입하여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수산물 무역적자 폭이 77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 수산물 소비대국이다.

이처럼 최근 수산물 교역통계에 따르면, 수산물 수입대국 상위 10국 중 중국과 덴마크를 제외한 나머지 8국은 수산물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수산물 소비대국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수산물 무역흑자국으로서 세계적인 수산물 공급국가이지만, 최근 들어 수입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수산물 소비대국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수산물 수입은 2003년 대비 2005년에 40.2% 증가하여 전세계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입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 3 절 동북아 국가와 한국 수산업의 동향

앞서 살펴보았듯이, 세계어업에서 한·중·일 동북아 3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해역을 중심으로 수산업 여건과 동향 등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수산업 여건 변화

최근 동북아 지역 수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여건 변화로는 유엔해양법 발효에 따른 한·중·일 어업협정 체결, WTO/DDA 및 FTA 협상의 진전에 따른 수산보조금 감축과 자유무역의 확대, 남획 및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동북아 해역의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994년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한·일 어업협정(1998년)과 한·중 어업협정(2001년)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동북아 지역에도 새로운 어업질서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이는 각 국이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식 어업을 확대시키는 계기로도 일정부분 작용하게 되었다. 또한 유엔 해양법협약으로 연안 어장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EEZ 선포에 따른 수산자원의 자국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이는 원양어업의 생산비중이 높았던 한국과 일본의 수산물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



었다.

그리고 WTO/DDA 협상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남획을 유발하거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산보조금의 지출이 많았던 일본과 한국의 수산부문에 대한 보조금 감축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수산업이 상당 부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향후 FTA의 급속한 진전의 결과 상대적으로 경쟁열위에 있는 업종 또는 품종의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무역자유화의 확대에 따라 비관세장벽의 하나인 수산물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각국의 수출입에 있어 더욱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수산자원의 남획 또는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의 감소로 동북아 각국은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정부의 모니터링과 관리·감독 강화, 감척프로그램의 이행 등 어획노력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중·일 3국의 수산업 인프라 및 어업구조

한·중·일 3국의 수산업을 인프라 및 산업환경, 수산시스템 등의 차원에서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 다음의 <표 20-5>이다.

한·중·일 수산업의 규모는 생산량 기준으로 전세계 수산업의 43.5%에 이른다. 그중 중국의 비중이 절대적으로서 38.4%, 일본 3.4%, 그리고 한국이 1.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어선세력은 한국이 9만 척, 중국 26만 척, 그리고 일본이 33만 척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어항수는 한국 2,240개, 중국 1,177개, 그리고 일본이 2,923개에 이르고 있다.

(표 20-5) 한·중·일 3국의 수산업 인프라 및 산업환경

구분	한국	중국	일본	
수산업 기반	- 수산업규모: 국내비중 0.4%, 세계비중 1.7% - 어선척수: 9만척 - 어항: 2,240개	- 수산업규모: 국내비중 1.5%, 세계비중 38.4% - 어선척수: 26만 척 - 어항: 1,177개 - 수산물도매시장: 350개 - 수산가공기업: 9,128개	- 수산업규모: 국내비중 0.6%, 세계비중 3.4% - 어선척수: 33만척 - 어항: 2,923개	
산업 환경	- 연근해어선 감척 - 수산보전제도입추진 - 어촌어항 관광기반 조성 추진 - 영어자금 및 면세유 공급	- 정보화 여진히 취약 - 어업 DB구축 추진 - 첨단어업단지 개발, 중심어항 건설, 가공기술 개발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기반 투자	- 수산기본법 제정 - 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 신규취업자육성지원 사업을 통한 인력확보 - 거점산지의 가격형성기능, 산지판매력 강화	
수 산 시스템	자연 시스템	- 자원량: 대구, 민어 등 크게 감소 - 자원관리체제: 자율관리 및 허가정수 관리	- 자원량: 연체동물, 멸치, 기타 해산어류 등 크게 감소 - 자원관리체제: 강력한 휴어제 도입	- 자원량: 정어리, 대구 등 크게 감소 - 자원관리체제: TAC, TAE 관리, 자율관리체제 정착
	인적 시스템	- 어업인구: 80년대) 70만명 → 00년대) 20만명(어민층 도시민 이동) - 어업경영주: 7만2천명	- 어업인구: 90년 초부터 증가하여 15백만명(농민층의 양식업으로 이동)	- 어업인구: 80년대) 40만명 → 00년대) 20만 명(어민층 도시민 이동) - 어업경영체: 125천개 - 어업취업자: 222천명
	시장 시스템	- 수입시장 확대 - 산지위판장 제도	- 통제시스템에서 시장시스템으로 변화 중 - 수출 급증 - 단순가공에서 고차가공으로 변화	- 산지, 소비지, 소매의 유기적인 시장시스템 유지 - 소비패턴 변화 진행

I. 자연환경

II. 농림어가의 인구와 가족

III.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

IV. 농업

V. 임업

VI. 어업

산업환경적 측면에서는 한국의 경우 자원고갈과 어업경영난 가중으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어촌어항에 대한 관광기반 조성을 통한 어업외소득 증대 방안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어항개발, 첨단어업단지 개발 등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정보화



분야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달리 일본은 전자상거래 활성화가 진행되는 등 수산물 가격형성 메커니즘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다.

동북아 3국의 수산시스템 측면에서는 인적시스템에서 중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시장시스템 및 자연시스템에서는 일본 및 한국이 비교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중·일 3국의 어업구조는 대체로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한·중·일 3국의 수산자원은 현재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정도로 자원량이 감소한 상태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 3국의 지리적 여건상 이와 같은 자원감소는 서로 비슷한 상황이므로 수산분야에서 차이점은 양식에서 크게 드러날 것으로 분석된다.

〈표 20-6〉 한·중·일 3국의 어업구조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자원관리 제도	- 국가 및 어업자 공동 자원관리 - CPUE(톤/척) : 18.4('01)→16.9 ('05)	- 국가주도의 강력한 자원 관리 - CPUE(톤/척) : 1.21('01)→1.12('05)	- 자율적 자원관리
어업별 구조	- (어로 : 양식 = 5:5)	- (어로 : 양식 = 4:6)	- (어로 : 양식 = 7:3)
생산방법	- 대표어업 : 대형선망, 근해저인망 - 해면어로 생산 정제, 양식완만 증가 - 업종별 특징 : 축소 경향, 원양 및 근해 감소	- 대표어업 : 저인망, 안강망 - 해면어로정제, 양식급증 (자원량 감소 전망) - 양식생산성 : 8.8톤/ha('01) → 8.2톤/ha('05)	- 업종별 특징 : 쇠퇴 경향, 최근 원양어업 감소 - 어로 및 양식 정제
투입물	- 어선세력 : 축소(감척), 소형화 - 인력 급감 및 고령화 - 외국인 점차 증가	- 어선세력 : 억제, 대형화 추세 - 양식종사자 급증	- 어선세력 : 축소, 경비절감형 - 급감 및 고령화 - 외국인 점차 증가
생산기술	- 양식/육종 기술 발달	- 양식기술 발달	- 양식/육종기술 고도 발달
경영성과	- 유통급등, 경영난	- 저임 노동력 풍부 - 어로어업, 경영난 대두	- 경영난 심각 - 사업 영역 다각화 진행
정부개입	- 중간	- 강함	- 약함

자료 : 홍현표 외, 2007, 「한·중·일 수산업의 실태분석 및 수산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실제로 산출물을 생산하는 어업별 구성으로 보아 양식의 비중은 중국이 절대적으로 높아, 어업자 원량이 감소하더라도 한국과 일본처럼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양식생산 비중이 연근해생산을 넘어서면서 양식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어로어업 의존도가 심하여 자원관리가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어선세력과 어업종사자 등의 투입물 실태를 보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급속히 감소하여 수산업의 위축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양식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농업인력의 유입 분을 흡수하고 있다. 생산기술 측면에서도 동북아 3국은 양식기술을 중심으로 매우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개방화, 국제화 추세와 함께, EEZ체제 확대에 따른 어장축소, 고유가 등 거시적 요인의 불안정 가중 등으로 인해 한·중·일 3국 어업인의 경영 성과는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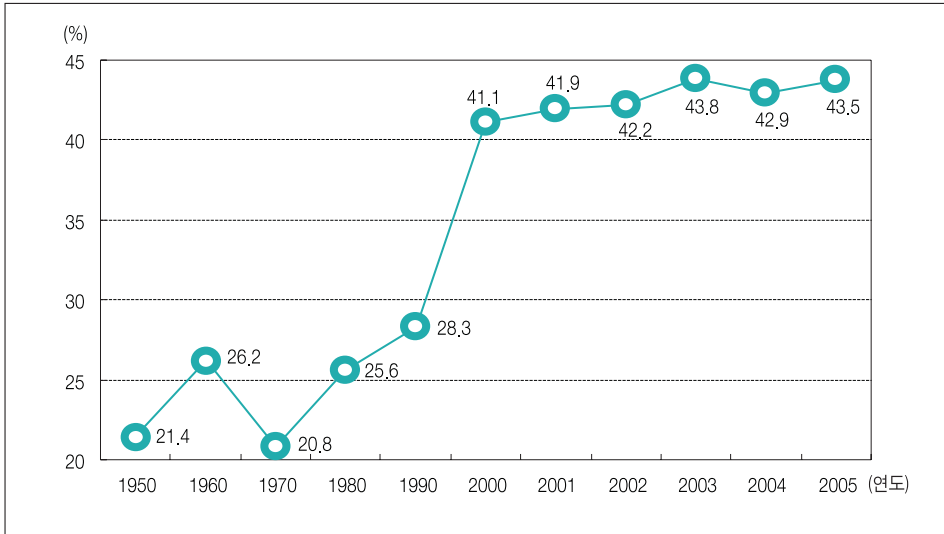
한·중·일 3국의 수산업 동향

이미 앞서 보았듯이 세계적으로 약 1억 6천만톤의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한·중·일 3국이 생산하는 수산물의 생산량은 6천 8백만톤에 달하여 세계 어업생산량의 43.5%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20-5 참조). 특히, 중국은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세계 수산물 생산량의 38.5%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본은 1990년대 정점에 이른 이후 2000년대에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중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중·일 3국의 어업생산량은 1950년에 424만 톤으로서 세계 총어업생산량의 21.4%에 불과하였다. 그러던 것이 60~80년대의 일본의 어업발전과 함께, 80~90년대 이후의 한국과 중국의 어업생산량 증대에 힘입어 2005년 기준으로 전세계의 43.5%를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세계 수산물의 교역량을 기준으로 볼 때, 한·중·일 3국은 2005년의 수출량에 있어서는 전체의 10.2%, 수입량에 있어서는 2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수입국인 일본과 더불어 2004년 이후 중국의 수입규모도 2백만톤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중일 3국의 교역비중을 교역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한·중·일 3국의 수출금액은 약 98억 달러이며, 수입금액은 약 207억달러에 달하여 각각 세계 수산물 교역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2.5%, 2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수산물 수입금액이 약 14억 4천달러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수입량이 2.3백만톤인데 반해 수입금액은 약 40억달러에



자료: FAO, fishstat plus(해조류 포함)

〈그림 20-5〉 한중일 3국이 세계 어업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추이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저가 가공용 수산물의 수입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일본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 4 절 세계 어업질서의 변천과 한국 어업의 발전 방향

세계 어업질서의 구조 변화

1. 신어업질서의 형성

한·중·일 3국의 어업은 어장 및 자원의 동질성 속에서 각국 간의 어업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크게 변모되어 왔다. 1970년대에 한국, 1980년대에는 중국의 어업이 급속하게 발달하여 일본 어업을 맹렬히 추격하면서 동북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일본의 연안어업, 근해어업을 압박하게 되었다³¹⁾.

1977년에 세계적으로 성립된 200해리 체제에 반대해 왔던 일본은 한국과 중국 어업에 대해서 200해리 규제를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그것은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변칙적인 200해리 어업수역, 종래의 한·중과 중·일 양자 간 어업협정의 재검토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본에 비해 어업세력이 우세한 한국, 중국은 자국의 어업이 규제되는 것으로 어업협정의 재검토에 저항하였다.

그러나 1994년에 UN해양법이 발효되자 1996년에 한·중·일 3국이 모두 이를 비준하고 EEZ를 설정하였다. 일본은 1997년에 설정한 200해리 어업수역을 EEZ로 전환하면서 또한 전면 적용하였다. 한·중·일 3국이 주장하는 EEZ가 중복되었기에 각각 2국간 어업협상이 벌어졌고 한·일 간에는 1998년에 신어업협정이 체결되어 1999년에 발효하였다. 한·중간에는 2001년에, 중·일 간에는 2000년에 발효하였다.

양자간 3개의 신어업협정은 각각 EEZ를 설정하고, 그 경계획정이 불가능한 수역을 ‘잠정적인 수역’³²⁾으로 하고 기국(旗國)주의에 입각하여 이용관리를 추진한다. EEZ(잠정적 수역 제외)에의 연안주의에 의해 관리되며 양자 간 상호입어를 인정하고 어획할당은 등량화한다. 잠정적인 수역의 자원관리나 EEZ 내에 상호입어 등을 협의하는 어업공동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그 이후, EEZ의 경계획정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데 영토문제나 국가 이해가 크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잠정적인 수역은 중국과는 동중국해에, 일본과는 동해 및 동중국해 2개소에 설

31) 이에 관해서는 홍현표 외(2007.12) pp.158-159를 참조하였다.

32) 잠정적인 수역의 명칭은 신어업협정마다 다르다. 한일간에는 중간수역, 한중간에는 잠정조치수역, 중일간에는 잠정수역으로 불려지고 있다.



정되어 있다. 잠정적인 수역은 양국이 이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업세력이 강한 한국, 중국이 어장을 독점하고 있어 자원관리에서 상호협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형성되고 있는 한·중·일 3국간의 '신어업질서'는 양자간 어업협정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어획할당량 등량화 등의 조치가 강구되어졌는데, 2005년 경부터 본격적인 체제로 정착되고 있다. EEZ의 경계획정은 영토문제와 관련하므로 단기간에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체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어업적인 측면에서 신어업질서의 과제는 다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잠정적인 수역의 자원관리에 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어업세력이 강한 나라가 EEZ 입어에서 제외된 어획량을 보충하는 형태로 잠정적인 수역에서의 조업을 강화하고 있어 협력적인 자원관리를 실시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한·중·일 3개국의 공동관리를 장기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한·중·일 잠정적인 수역은 상호 중복되어 있거나 제3국의 입어가 이루어져 실제로는 3개국 입어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각국은 자국의 EEZ 내의 자원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나라마다 다르다. 또한 자원은 경계선을 넘나들며 넓게 분포하거나 회유한다. 특히 동중국해·황해는 3개국의 어업이 입어하여 어획강도가 강하므로 연계하여 자원관리를 실시하지 않으면 자국수역 내의 자원관리 효과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자국수역 내의 자원관리를 등한시하기도 한다.

2. DDA 및 FTA 등에 의한 수산물 교역 규범의 형성

우선 최근 개방화 체제의 화두로 제시되고 있는 WTO/DDA 협상은 당초 2001년 11월에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하였으며, 농업 분야, 규범 분야, 비농산물시장접근 분야(NAMA), 서비스 분야, 환경 분야 등의 7개 분야별로 협상이 시작되었다.

그중 수산물 관세는 '비농산물시장접근 분야'에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으며, 수산보조금은 '규범' 분야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수산분야는 농산물이 아닌 일반 공산품과 거의 동일한 차원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협상이 타결될 경우 급격한 개방화·시장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먼저 수산물 관세협상 분야에서는 홍콩 각료회의(2005년 12월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 관세 감축공식으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복수 계수의 스위스 공식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진행된 협상에서는 미양허 품목, 개도국의 신축성, 관세 감축공식 등의 3대 핵심 사안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논의되어왔던 ‘무세화(無稅化)’에 대해서는 홍콩 각료회의 이후 비강제적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키로 함으로써 일단 무세화 가능성은 낮아졌다. 그러나 스위스 방식의 관세 감축 공식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수산물의 평균 관세율이 다른 나라 보다 높은 편이므로 선진국계수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협상 타결 이후 관세인하 폭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³³⁾.

그리고 수산보조금 협상을 위한 ‘규범’ 분야에서는 홍콩 각료회의에서 과잉어획능력과 과잉어획을 유발하는 보조금을 금지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수산보조금 규제의 성격과 범위를 규정하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동의한 상태이다.

수산보조금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에 대해 포괄적 금지를 주장하는 피시프렌즈 그룹(Fish Friends Group : FFG)의 대표격인 뉴질랜드는 수산물 유통·가공의 영역까지 보조금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 일본, 대만 등의 국가는 어선건조·개조, 불법어업 등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간주하더라도 어선감척사업, 어업인 사회안전망 등에 대한 보조금은 허용보조금으로 규율할 것을 공동으로 제한하고 있다.

최근까지 WTO/DDA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타결이 된 것이 아니므로 추후 논의 동향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의 동향에 따라서 수산보조금 철폐의 범위와 폭이 달라지므로 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WTO/DDA 협상이 다자간 개방화 협상이라면, FTA 협상은 양국 간의 개방화 협상이라 할 수 있다. 양국의 사정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개방화 수위를 협상을 통해 도출하는 것이므로 당사국의 사정이 많이 반영되는 특수성을 갖는다. 그러나 한 국가와 체결한 FTA 협상의 내역은 다른 국가와 체결 시에도 큰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세부적 개방화 방안이 마련되기 십상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부터 매우 적극적으로 주요 무역국들을 대상으로 FTA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가 체결된 데 이어, 한·싱가포르(‘06.3.2), 한·EFTA(‘06.9.1), 한·아세안(‘07.6 부분협정 발효), 한·미 FTA(‘07.4.1) 등이 각각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한·칠레 FTA에서는 모든 수산물을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는 한편, 한·EFTA와 한·미 FTA에서는 고등어, 명태, 민어 등의 소수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TRQ를 도입하되, 나머지 품목은 일정기간 내에 관세를 철폐하는데 합의하였다.

무엇보다도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 간의 FTA 협정이 본격 추진될 경우 동북아 수

33) 신영태·홍현표 외(2006.12), 『WTO/DDA 협상이후 수산업·어촌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KMI 기본연구 참조.



산물시장의 개방은 매우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중·일 3국간의 상호 FTA 협정 체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최근 급성장하는 양식기술, 그리고 황해 등의 대륙붕을 공유하는 공동어종의 어획 등은 수산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경쟁과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세계 속의 한국 어업 비전과 발전 방향

이와 같은 세계어업의 동향과 추이와 함께, 동북아 3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이내믹한 어업구조의 변화는 향후 한국어업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1994년 UN해양법 발효 이후 형성된 신어업질서 하에서 과학적인 어업자원의 관리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역할과 기반이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 해역에서의 어업협력 모델은 향후 세계 어업의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데 수범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최근에 강화되고 있는 WTO/FTA 등의 확대 등 국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동북아 3국의 수산물 시장시스템은 앞으로 더욱 동질화(homogenization)해 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기반으로 3국간의 수산물 교역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중·일 3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소비시장이자 공급자이므로 동북아 역내의 수산물 교역 구조의 발달은 세계 수산물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역내 시장시스템의 변화는 한·중·일 각국의 국내 유통구조, 안전성 검사 및 소비구조, 나아가서는 거꾸로 자국내 생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우리나라는 향후 이에 적극 대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국 경제가 최근 20년간 급속히 팽창하면서 수산물 소비시장의 구조도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앞서 지적했듯이, 중국의 국민소득 향상에 비례하여 수산물 소비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의 수산물 자급률은 향후 급격히 저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수산물 자급률 100% 선이 붕괴되는 시점은 적어도 5~10년 이내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전후하여 동북아 수산물 교역구조도 급속히 변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은 자체적으로 수산물 자급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양식산업 육성책이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같은 정책은 필연적으로 어장환경 오염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차 는 있으나 다소간 성장 속도를 제한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양식어업의 '선(先) 경쟁력 확보

- 후(後) 수출 및 해외진출 전략' 등의 장기적인 양식산업 발전 전략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WTO/FTA 협정 확산으로 각국 정부의 수산 정책들은 향후 투명하게 유지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수산분야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시스템도 앞으로는 사회정책적 지원체계와 산업정책적 지원체제로 구분하여 투명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자국내 수산어촌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정책 체계도 결국은 역내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소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어업은 지속가능한 경쟁우위 전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산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는 핵심자산과 역량을 스스로 발견하고 이를 적극 개발해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한국과 일본은 수산관련 자본과 기술이 핵심자산과 역량을 구성하고 있는 한편, 중국은 노동력이 핵심적 역량과 자산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수산업 구조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 국립산림과학원. 2003. 《전국 산촌기초조사 보고서 -전국편-》. 산림청.
- 국립산림과학원. 2006. 《임업경제동향》.
- 국립산림과학원. 2006. 《통계로 본 산림자원의 변화와 임산물 수급 추이》.
- 건설교통부. 2006. 《건설교통통계연보》.
- _____. 2006. 《한국하천일람》.
- 기상청. 2008. “기상배움터”. <http://www.kma.go.kr>.
- _____. 2008. “날씨정보”. <http://www.kma.go.kr>.
- 김 준. 2002. “어장환경의 변화와 어민의 적응”. 농촌사회 12집 1호. 한국농촌사회학회.
- _____. 2004. 《어촌사회 변동과 해양생태》. 서울: 민속원.
- _____. 2007. “도시지역의 이해”. 《농어촌사회문제론》. 공동체.
- 김대영. 1999. “동중국해 · 황해에 있어서 국제적 어업재편과 과제”. 수산경영론집, 제30권 제1호.
- 김두섭 · 강남준. 2000. 《회귀분석: 기초와 응용》. 나남출판.
- 김성호. 1992. 《한국 농업구조의 현상과 과제》.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한일 토론회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세빈 외 9인. 2004.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한 산촌진흥촉진방안에 관한 연구》. 산림청.
- 김세빈, 박경호. 2001. 《임가경제조사 자원평가방법 개발》. 산림청.
- 김의경. 2001. 《임산물 생산통계의 표본조사로 전환을 위한 조사연구》. 산림청.
- 김정봉. 1997. “중국 수산업의 실태와 수산물 공급 전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동향.
제156호.
- 김정호 외 3인. 2003. 《1990 · 1995 · 2000 농업총조사에 의한 농업구조 변화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453.
- 김종호, 김재준 외 6인. 2007. 《산림의 공익기능 계량화 연구》.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보고 07-05.
- 김철규. 2003.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과 사회변동》. 고려대 출판부.
- 김철상, 주린원 외 4인. 2006. 《임업경제동향》.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자료 257호, 262호, 271호.
- 김태현. 1993. 《근교농촌의 인구와 직업구조》 문옥표 외 편, 《근교농촌의 해체과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태현. 2006. 《한국의 농촌인구와 가족의 변화》 권태환 · 김두섭 편. 《한국 인구의 성장과 다양성》.
한양대학교 인구및고령사회연구소.
- 김태훈 외. 2007. 《통계로 본 한국농업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택중 · 백경미 · 장준현 · 황완길. 2007. 《한국지리》. EBS 플러스 1.
 농민신문. 2005. 7. 18.
 농림부. 2006. 《농림통계연보》.
 2006. 《농림업 주요통계》.
 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icultural Trade Information(KATI) Online Database.
 〈http://www.kati.net/trade/web_trade1.jsp〉.
 농어업 ·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2003. 《중국 양식업 실태조사 보고서》.
 류재복 · 유정빈 · 김선웅. 2004. 《통계품질 향상을 위한 평가지표의 개발, 조사연구》. 5(2) : 71-90.
 박민선. 1993. “1980년대 농민계층분화의 양상과 그 성격”. 《농촌사회》 제3집. 한국농촌사회학회.
 박종국. 1992. “일본 수산업 성장의 종합분석”. 수산경영논집 23(2).
 박진도. 1987. 《現代韓國農民層分解の研究》. 동경대 박사학위논문.
 박희두 · 손영택 · 이동환 · 장덕환 · 우옥택 · 윤기원 · 한경찬 · 홍영기. 2002. 《한국지리》.
 (주)천재교육.
 산림청. 1996. 《한국임정 50년사》.
 _____. 2000. 《제1회 임업총조사(1999년)》.
 _____. 2001. 《2000년 임업경영실태조사보고서》.
 _____. 2001. 《임가경제조사 자원평가방법 개발》.
 _____. 2001. 《임산물생산통계의 표본조사로 전환을 위한 조사연구》.
 _____. 2002. 《2001년 임업경영실태조사보고서》.
 _____. 2002. 《OECD 산림환경통계 개발에 관한 연구(I)》.
 _____. 2003. 《OECD 산림환경통계 개발에 관한 연구(II)》.
 _____. 2004. 《2003년 원목소비처 실태조사 보고서》.
 _____. 2004. 《2003년 임업경영실태조사보고서 제4권 목탄 · 목초액 생산업》.
 _____. 2004. 《임업통계연보》 제34호.
 _____. 2006. 《2005년도 임가경제통계》.
 _____. 2006. 《2005년도 임산물 수출입 통계》.
 _____. 2006. 《간추린 임업통계》.
 _____. 2006.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_____. 2006. 《산촌개발사업 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
 _____. 2006. 《임업통계 조사요령 - 산림기본통계, 임산물생산통계》.
 _____. 2007. 《2006 임가경제통계》.



- _____. 2007. 《2006 임산물생산통계》.
- _____. 2007. 《2006 임업경영실태조사 1부(양묘업, 산채재배업, 버섯재배업)》.
- _____. 2007. 《2006 임업경영실태조사 2부(건축용 목제품 제조업, 목재포장용기 및 깔판류 제조업, 기타 목제품 제조업)》.
- _____. 2007. 《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_____. 2007. 《임업통계연보》.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02. 《농업총조사 종합분석》. 통계청.
- 석현덕. 2005. 《임산물 생산통계 함수율 등 연구》. 산림청.
- 소방방재청. 2007. 《재해연보》.
- 신만용. 2005.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산림자원조사체계 개편 연구》. 산림청.
- 안중기, 김승, 조용훈. 2000. 《어촌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 어정연구포럼. 2000. 《한국과 일본의 어업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 이경학 · 손영모. 2003. 《우리나라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부문 온실가스 통계》. 한국임학회 학술발표논문집(6월) : 185-187.
- 이계오. 2004. 《산림통계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산림청.
- 이기재 외 4인. 2006. 《보고통계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평가지표 개발》. 조사연구 7(1) : 85-107.
- 임업연구원. 2002. 《임업연구 80년사》.
- 이영기. 1984. “고도성장하의 농민층 분해”. 《한국농업의 새로운 인식》. 돌베개.
- 장재훈 · 원학희 · 최재삼. 2001. 《지리부도》. (주)천재교육.
- 주린원, 김철상 외 11인. 《산림부문의 추세 및 장기전망》.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보고. 07-19호.
- 최성애, 홍현표, 김봉태. 2006. 《어촌의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최정수. 2000. “제1장 국토 · 기후”. 《통계로 보는 한국의 모습》.
- 최정윤. 1997. “수산업 역할의 재인식과 기본과제”. 수산경영논집 28(1).
- 통계청. 1996. 《장래인구추계》.
- _____. 2006. 《2005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보고서》.
- _____. 2006. 《2005 임업총조사보고서》.
- _____. 2006. 《국제통계연감》.
- _____. 2006. 《장래인구추계》.
- _____. 2007. 《2005 농업총조사보고》. 《2005 어업총조사보고》. 《2005 임업총조사보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농업전망 2002》.
- 한국수산회. 2005. “수산보조금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한국합관보드협회. 2006. 《합관 및 보드통계》.
 _____ . 2008. 《합관 및 보드통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중국의 수산정책 동향과 시사점”. KMI 해양수산 현안분석.
 한규설. 2001. 《한국어업제도 변천 100년》. 선학사.
 해양수산부. 2001. “우리나라 주변 수역에 있어서 어업자원 공동관리 방안”.
 _____ . 각 년도. 《해양수산통계연보》.
 _____ . 각 년도. 《어업생산통계》.
 행정자치부. 2006. 《지적통계연보》.
 _____ . 2006.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홍현표 외. 2005. 《수산업의 구조변화와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_____ . 2007. 《한중일 수산업의 실태분석 및 수산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개발원
 환경부. 2007. 《황사발생현황》.
 황진수 · 김태현 외. 2007. 《현대노인복지정책론》. 대영문화사.
 FAO한국무역협회. 2006. 《FAO 농업통계연감》.
 Biemer, P., & Lyberg, L. (2003), Introduction to Survey Quality, John Wiley & Sons, Inc.
 Brackstone, G. 1999. Managing Data Quality in a Statistical Agency. Survey Methodology 25 :
 139-149.
 Charles, A. T. 2004. Fisheries Subsidi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Social Effects of Subsidies,
 AGR/FI(2004)6
 Chayanov. 1966. The Thoery of Peasant Economy.
 Cumings, Bruce. 1981.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D. A. Aaker. 1989. "Managing Assets and Skille : The Key to a Sustainable Competitiveness
 Advantage",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Winter, pp.91-106.
 Economic Secretary to Treasure. 1999. *Building Trust in National Statistics*.
 FAO. 1982. Village Forestry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FAO. 2005. 'Yearbooks of Fishery Statistics Summary tables'
 FAO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FAOSTAT Online Database.
 〈. org/default.aspx〉.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nline Database.
 〈http://www.oecd.org/topicstatsportal/0,2647,en_2825_494504_1_1_1_1_1,00.html〉.



- FCI Team. 2005. "The Fisheries Competitiveness Index 2004-2005". Iceland and Norway, Dec.
Halwell, 2006.
- Halwei, Brian, Eat Here(2006), 기준모 외 역, {로컬푸드}, 이후.
- Kim, Chul-Kyoo. 2006. "The rise and decline of statist agriculture and farmers movement in South Korea", Korea Observer, Vol. 37, No. 1.
- NASS(2006), "Cattle", NASS Reports.
- Statistics Canada. 2003. Statistics Canada Quality Guideline. Statistics Canada Catalogue 12-539-XIE.
- Tansey, Geoff & Tony Worsley(1995), The Food System, Earthcan, London.
- Tanssey & Worsley. 1996.
- UN (United Nations). Common Online Database.
<http://unstats.un.org/unsd/cdb/cdb_help/cdb_quick_start.asp>.
- Comtrade Online Database. <<http://comtrade.un.org/db/>>.
- WB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nline Database.
<<https://publications.worldbank.org/register/WDI?return%5furl=%2fextop%2fsubscriptions%2fWDI%2f>>.
- 日本林業協會(2006), 森林ハンドブック.
- 内藤健司. 2003. 林學における統計的手法, 統計數理, 51(1) : 3-9.
- 農林水産省. 2007. 食料・農業・農村百書—21世紀にふさわしい戰略産業を目指して—.
- 林野廳. 2006. 森林林業白書—國民全体で支える森林. 日本林業協會.
- 林野廳. 2006. 森林林業統計要覽.

부록



1. 색인
2. 농림어업총조사 개요
3. 정부간행물 안내



색 인

1인 가구	62, 230	경제수역	329
2인 가구	63, 85, 97, 230	경지규모별 가구원수	153
		경지규모별 농가분포	186
	(ㄱ)	경지규모의 결정요인	152
가구의 소인수화	62	경지면적	115, 135, 140, 148, 193, 285
가족가치	62, 75, 99	계절풍	12
가족구조	60, 77, 83, 88, 90, 96	계층분화	112
가족농	111	고령화	25, 59, 92, 114, 128, 212
가족변동	61	고령화 현상	25, 57, 73, 80, 93, 234
가족부양체제	77	고로쇠	224, 251
가족유형	64, 71, 81, 87, 92, 99	고사리	224, 247, 317
가족정책	61, 66, 100	고학력화	42
가족해체	65, 71	공익적 가치의 평가액	309
가족행동	62	공익적 기능	308
갑각류	339, 348	과도기형	75, 88, 94, 99
강수량	4, 11, 14, 21	과도기형 가구	75
거주 지역	146	과수원 면적	119
겸업농가	146, 154, 171, 186	관상작물	228, 257
결혼이민자가족	66, 81, 100	관행어업	337
경영의 집중도	161	교육문제	83
경영의 집중화	161	교육정도	37, 58, 135, 236
경영주 연령별 경작규모	153	구획어업	329, 341
경영주 연령분포	168	국산재 공급량	311
경작규모	145, 152, 156	국제결혼	59, 81
경작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156	국토면적	3, 193, 300

국토이용계획	8
국토이용관리법	8
근교농촌	32
근대화론	103
근해어업	328, 341, 375
기계화	130, 179
기상재해	20
기업형 농업	113
(ㄴ)	
나잠어업	329, 341, 346
난방	283
남강댐	5
남동계절풍	11
남아선호	29
노동력 부족현상	55, 59, 293
노인단독가구	69, 95, 100
노인인구	25, 55
녹색관광	294
논 면적	114, 148
농가 경영주	128, 137, 171, 176
농가 경영주의 연령	176
농가 생애주기	67
농가 영농의 조직화	184
농가수	66, 112, 130, 142, 164, 285
농가의 농기계 보유 실태	179
농가의 여성화	80
농가인구	24, 49, 58, 141, 191

농가중심의 농촌사회	55
농기계의 농가 보급률	180
농기계의 보급	150, 179
농림어가수	100
농림어가의 가족구조	61, 96, 100
농림어가의 가족부양체계	100
농림어가의 가족유형	99
농림어가인구	28, 57
농림어업 종사자	57, 81, 104
농림업종사 인구	48
농림지역	8
농산물 판매액	126, 175, 184
농산물 판매처	188
농식품 체계	109
농업구조	61, 140, 179
농업생산의 조직화	183
농업의 기계화	179
농외취업	154, 172
농업총조사결과	53
농작업 위탁 실태	180
농지개혁	111
농촌인구형	26
(ㄷ)	
다목적 댐	5
다양한 가구형태	64
대기온도	13
대농	113



대청댐	5
대추	226, 269
대한해협	2
대홍수	5
도로포장률	3
독거노인	78
독거노인가구	66, 78
독거노인의 빈곤화	80
뒤늦은 근대화	102

(口)

마을공동체	337
맨손어업	329, 341
면부 인구	48
면허어업	329
목재 소비	311
미혼율	42

(ㄴ)

밤	226, 260
방계형 가족	74
밭 면적	118, 127, 148
배타적 경제수역	329, 332
별목	35, 205
복합가구	65
복합양식	330
부안댐	5
북태평양 고기압	11

비농림어업	31, 42
비이념형	75
비이념형 가구	75
비친환경농가	170
비혈연가족	77
비혼	79

(스)

사유림경영	204
사회재생산	60, 97
산림녹화	301
산림소유 규모	208
산림의 공익적 가치	308
산림의 소유	204, 304
산림의 영급별 구조	306
산림축적	301
산림휴양 자원	310
산업적 농업	130
산채	204, 247, 253
산촌	91, 204, 284
산촌사회	279
상업화	113, 127, 366
생산연령인구	25, 55
생산조직	337
생애주기	67, 92, 153
생태관광 자원	294
생활여건	137
선망어업	341

섬유판 생산업	321	양식방법	352
섬진강댐	5	양식어업	329
세계의 산림자원	300	어가	26
세계체제론	103	어가 규모	84
세계화	104, 109	어가수	83
세대구성	62	어가의 가족유형	87
세대깊이	62, 71, 98	어가의 세대별 가구구성	86
소멸농가	143	어가인구	24
소양강댐	5	어로활동	328, 341
소인수 가구	68, 84, 90	어류	330, 348
송이버섯	224, 245	어선규모	358
수리적 모형	49	어선어업	329, 332, 355
수산업	328, 369	어업	47, 328
수산업법	328	어업협정	336
수산자원	9, 329	어장	332
수협	337	어촌계	337
시설면적	148	여성 경영주 가족	78
시장형 농업	115	여성가구	80
신고어업	329	여성결혼이민자	81
신규경영주	146	여성경영주	80, 146
신생농가	143	연강수량	11
		연안어업	328, 341
(○)		연안자망	345
안강망	337	연안통발	345
안동댐	5	영농승계자	81
약용식물	247, 253	영농형태	164
양극화	112, 161	영농형태별 경영주 연령분포	168
양식규모	353	영농형태의 분화	167



영세소농	140, 179
영어법인	337
오존층	16
용도지역	8
용수공급	5
원양어업	328, 341, 369
위탁영농	113, 181
유리공	15
유배우울	42, 58
유소년 인구	25, 37, 57
유자망	341
유통구조	188, 295, 339
읍면부	25, 143
읍면부 인구	25, 42, 57
이념형	75
이념형 가구	75
이혼율	43
인구피라미드	26, 58
일반농촌조사	26
임가	25, 90, 204, 230, 279
임가 가구수	90
임가의 가구규모	91
임가의 가족유형	92
임가인구	24, 42, 241
임도	212, 305
임산물	35,204, 224
임산물 교역	317
임산물 재배	226, 253

임산물 채취	224, 245
임산물 판매금액	274
임산물의 수출입	31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204
임업구조	204
임업구조 개선사업	204
임업진흥촉진법	204
임업총조사	25, 205
임차지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160
임차지	113, 157
임차지의 규모	157
임하법	5
입어	328

(스)

자가영농	150, 180
자녀포함형 가구	73, 77, 89, 93
자망	345
자연환경보전지역	8
잠수기	337
жат	264
장래 농가인구	48
장래인구	49
장래인구추계	50
저인망	341, 372
적도전선	17
적설량	14
전국인구	25, 50

전업농가	146, 154, 172
정보화	134, 279, 370
정보화 수준	279
정치망	329
조간대	342
조손가족	77
종묘	329, 348
종속이론	103
종실류	204, 245, 260
주거	286
주낙	330
주암댐	5
중심학력	37, 57
지구별 수협	337
지구온난화	13
지수모형	50
지역농업	127
지주식	350
지진	18
직계가족	64
직계가족형	72
(㉚)	
채낚기	342
채소류 농가 분포	165
초고명화	59
총조사인구	56
총허용어획량제도	331

최대적설량	15
축종별 농가 분포	166
출생성비	29
충주댐	5
취나물	224, 247
취약농가	186
친족가구	64
친환경농가	169
친환경농업	132, 169
칩 생산업	326
(㉛)	
탈농업화	110
태풍	17
통발	337, 346
트러어업	330, 341
특성별 인구구성비	51
특화계수	120
(㉜)	
파티클보드 생산업	320
패류	330, 335, 348
표고	226, 272
피부암	16
(㉝)	
하천개수	5



한부모가구	80
한우 농가	125
합천댐	5
합관	311, 318
해상국립공원	9
해선망	356
해외 산림개발	323
해외조림	323
해조류	330, 347, 358
핵가족형	72
핵가족화	60
행정개편	7
행정구역	7
허가어업	329
호도	267
혼인긴장상태	45
혼인상태	37, 42, 80
홍수조절	5
황사	19
황사발원지	19
황하강	19

농림어업총조사 개요

제 1 절 연혁

우리나라의 농업총조사는 1960년 '농업국세조사' 라는 명칭으로 세계농업센서스에 처음 참여하여 1990년까지 10년 주기로 실시하여 왔으며, 1995년도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출범과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으로 대내외적인 농업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제5차 농업총조사를 특별히 5년만에 실시하였다.

농업총조사는 1995년까지 농림부가 주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하였으나, 1998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동 업무가 통계청에 이관됨에 따라 2000년부터 통계청이 주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특히 2005부터 농업총조사는 시의성 있는 자료 제공을 위해 총 조사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여 실시하였다.

농업총조사는 1) 농업정책 수립·평가 및 국가경제 주요지표의 작성 2) 농업관련 학술연구 및 각종 농업통계 개선을 위한 모집단 자료 확보 3) 지방화시대에 요구되는 소지역 자료 생산 4) 국제간 자료 교류 및 분석을 통한 농업부문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를 공식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의 농업총조사는 지난 1960년 1차 농업국세조사 실시 이후 새로운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사 내용과 항목을 매번 수정해 오고 있는데 조사 항목과 내용의 변천은 우리나라 농업구조 및 농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2000년 이후 정보화 현황과 친환경농업 항목을 포함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부표 1) 참조. 특히 2000년 이후 통계청으로 조사기관이 이관된 이후 어업총조사와 통합실시하고 2005년에는 임업과 통합됨으로써 우리나라 농어업 구조와 변화에 관한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조사가 기대되고 있다.



〈부표 1〉 시기별 농업총조사의 명칭과 의의

명 칭	조사기준일	의의 및 특징
제1차 농업국세조사	1960. 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회 세계농업센서스에 처음 참여 농업통계를 획기적으로 재정비
제2차 농업센서스	1970. 1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결과를 읍·면별로 집계 및 공표
제3차 농업조사	1980. 12.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원을 지역실정과 농업부문에 정통한 이장, 새마을지도자, 4H 회원 중에서 선발
제4차 농업총조사	1990. 1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5. 12. 1(간이농업조사) : 표본조사 실시 농지임차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추가
제5차 농업총조사	1995. 1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축산물 판매금액 및 방법 등 항목 추가
제6차 농업총조사	2000. 1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8. 7. : 작성기관 변경(농림부 → 통계청) 통계청으로 이관 후 처음 실시 어업총조사와 통합 실시 친환경농업, 농가의 정보화 현황 등 미래지향적 항목 추가
제7차 농업총조사	2005. 1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업 및 어업총조사와 통합 실시 혼인상태, 농업관련사업 등 농가인구의 특성,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 파악을 위한 항목 추가

제 2 절 2005년 농업총조사

조사내용

2005년 농업총조사 조사 내용은 가. 가구에 관한 사항, 나. 가구원에 관한 사항, 다. 경지에 관한 사항, 라. 작물에 관한 사항, 마. 가축에 관한 사항, 바. 농기계에 관한 사항, 사. 농축산물 판매에 관한 사항, 아.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 자. 농업정보화 현황, 차. 생활여건에 관한 사항, 카. 주거에 관한 사항, 타. 기타의 12개 사항으로 구분하여 하위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다(〈부표 2〉 참조).

〈부표 2〉 2005년도 농업총조사 조사 항목

조사 사항	조사 항목	조사 내용 및 범주
1. 가구에 관한 사항	(1) 전·겸업 구분	농업수입뿐만, 농업수입이 많음 농업 이외 수입이 많음
	(2) 영농형태	농업수입이 가장 많은 영농형태 : 논벼, 과수, 특용 작물, 채소, 화훼, 일반밭작물, 축산, 양잠 기타
2. 가구원에 관한 사항	(1) 성명	가구원별 성별
	(2) 성별	가구원별 성별
	(3) 나이	가구원별 세는 나이, 생일, 띠
	(4) 경영주와의 관계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기타 친인척, 농업고용인 등
	(5) 교육정도	최종학력별 졸업, 재학, 중퇴
	(6) 혼인상태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7) 주 종사분야	지난 1년간 주 종사 분야 : 농업, 어업, 임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산업, 종사하지 않았음
	(8) 농업 종사기간	지난 1년간 농업이 종사한 기간 : 없음, 1개월 미만, 1~3개월, 3~6개월, 6개월 이상
	(9) 농업이외 종사기간	지난 1년간 농업 이외의 일에 종사한 기간 : 없음, 1개월 미만, 1~3개월, 3~6개월, 6개월 이상
	(10) 경영주 농사경력기간	경영주의 생애 농사 총경력기간
	(11) 영농승계자	자녀·손자녀 중 영농승계자
3. 경지에 관한 사항	(1) 논 면적	자기 논, 남의 논, 이모작 논, 일모작 논, 경지정리 논, 경리 미정리 논
	(2) 밭 면적	자기 밭, 남의 밭
	(3) 과수원 면적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뽕은 감, 감귤, 자두, 참다래, 매실, 살구, 유자, 기타
	(4) 목초지 면적	가축사육을 위해 재배, 관리하는 목초지
4. 작물에 관한 사항	(1) 노지재배 수확작물 면적 및 판매여부	논벼, 걸보리·쌀보리, 옥수수, 콩, 팥, 감자, 고구마, 김장무, 김장배추, 고추, 양파, 대파, 마늘, 참깨, 인삼
	(2) 노지재배 판매작물 면적	양배추, 시금치, 상추, 쑥갓, 오이, 수박, 호박, 당근, 들깨, 땅콩, 화훼 기타
	(3) 시설면적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기타 시설
	(4) 시설재배 수확작물 면적	무, 배추, 시금치, 상추, 토마토, 오이, 딸기, 수박, 참외, 호박, 고추, 대파, 서양채소, 포도, 감귤, 메론, 버섯, 감자, 화훼 기타
	(5) 시·군·구 작물 재배면적 및 판매여부	시·군·구별로 지역 특화 재배작물

(계속)



(부표 2) 계속

조사 사항	조사 항목	조사 내용 및 범주
5. 가축에 관한 사항	(1) 축종별 사육마리수	한·육우, 젓소암컷, 돼지, 멧돼지, 산란계, 육계, 젓산양, 염소, 사슴, 토끼, 오리, 꿀벌, 곰, 고라니, 기타 가축의 사육마리 수
6. 농기계에 관한 사항	(1) 농기계 보유대수	경운기, 트랙터, 콤팩트, 관리기, 건조기, 이앙기, 과수원용 SS 분무기, 농업용 난방기의 보유대수
	(2) 논벼 농사방법 및 위탁 여부	벼모판 작업, 논갈이, 모내기, 농약살포, 벼 베기/탈곡별 위탁 여부
7. 농축산물 판매에 관한 사항	(1) 농축산물 판매금액	1년 동안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금액
	(2) 농축산물 주 판매처	판매금액이 가장 많았던 농축산물의 판매처
8. 친환경 농업에 관한 사항	(1) 친환경재배 수확작물 재배면적 및 재배방법	비료나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거나 적게 사용한 친환경농산물 : 논벼, 과수, 채소, 특용작물, 기타 작물별 수확면적 및 재배방법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2) 친환경농산물의 주 판매처	도매시장, 산지공판장, 농협, 농업법인 등 주된 판매처
9. 농업정보화 현황	(1) PC 보유 여부	이용가능한 개인용 컴퓨터
	(2) PC 농업에 활용 여부	농업과 관련한 활용용도
	(3) PC 농업 활용 용도	농업정보수집, 농축산물 판매, 주말농원·민박 안내 등 농촌관광, 기타 농업에 활용
	(4) 홈페이지 개설 여부	농업관련 홈페이지 개설 여부 조사
10. 생활여건에 관한 사항	(1) 생활시설이용 이동 수단 및 소요시간	읍면동사무소, 금융기관, 병·의원 별 이동 수단과 소요시간
	(2) 자동차 보유 여부	승용차(10인승 이상), 승합차(11인승 이상) 화물 및 기타, 없음
11. 주거에 관한 사항	(1) 거처형태	단독,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비거주용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2) 건축년도	거처의 신축시기 기준
	(3) 난방시설	중앙난방, 지역난방, 도시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프로판가스보일러, 전기보일러, 연탄보일러, 연탄아궁이, 재래식 아궁이, 기타
	(4) 주거시설형태(부엌, 수도, 화장실, 목욕시설)	부엌 : 입식, 재래식, 없음 수도 : 상수도, 마을상수도, 자가수도, 없음 화장실 : 수세식, 재래식, 없음 목욕시설 : 온수시설, 비온수시설, 없음
12. 기타	(1) 생산자조직 참여현황	작목반(논벼, 과수, 채소, 특용작물, 화훼, 기타)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활동여부
	(2) 농업관련사업	직판장·직거래, 농가식당, 농산물 가공업, 농가민박, 주말농원·관광농원 사업

2000년 조사내용과 비교

2005년도 조사내용을 2000년도와 비교함으로써 2005년도 조사내용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2005년도 조사 항목의 대 분류 주제에서 2000년도와 큰 변화는 없지만 주제별로 일부 항목이 새로 도입되었다. 새로 도입된 항목으로는 1) 생활시설이용 이동수단 및 소요시간, 2) 주거 시설 형태에서 목욕 시설, 3) 농업관련 사업, 4) 혼인 상태 등이다. 생활시설 이용 관련 항목은 읍면동사무소, 금융기관, 병·의원의 생활편의 시설의 이동수단과 소요시간으로 농촌생활의 편의성과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의 의미가 있다. 주거 시설에서 새로 추가된 목욕시설에 관한 항목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농업 관련 사업 항목의 추가는 농업사업활동이 점차 다양화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아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동일한 조사 항목의 응답 범주가 바뀐 경우는 대체로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주거에 관한 사항에서 응답 범주가 보다 세분화되고 새로운 범주가 추가되었다, 2) 농업경영에서 농업관련 사업에 관한 응답 범주가 추가되었다, 3) 새로운 경작 작물이나 사육 가축이 추가되었다, 4) 유기농에 대한 규정 변화이다.

응답 범주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주거 관련 응답범주의 변화로 거처형태, 건축년도, 난방 시설 등에서 새로운 응답 범주가 추가되거나 세분화되었는데 이는 주거 환경의 새로운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농업 관련 사업에 관한 항목과 범주의 추가는 판매처나 경로의 범주가 첨가 또는 세분화되었고 사업 형태로 관광과 판매와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는 농업경영이 전통적인 경작과 사육에서 판매, 가공, 관광 등의 영역으로 다각화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세 번째 작물과 가축 종류의 첨가와 삭제는 특정 농산물의 생산량과 판매량의 변화에 의한 것인데 2005년도 조사항목에서는 삭제보다 첨가되거나 세분화된 종류가 많다. 넷째 유기농에 대한 정의는 2000년 조사에서는 3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것으로 규정되던 것이 2005년 조사에서는 1년 재배한 것으로 규정을 현실화하였으며 유기농 판매처도 소비자 단체,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업체를 첨가하였다. 이상 다섯 가지 사항 이외에도 가구원 정보에서는 농업종사기간, 농업 이외 종사기간을 보다 세분화하여 구체적 정보를 파악코자 한 것도 이전 조사와 다른 점이다.



〈부표 3〉 2005년도 농업총조사 조사 항목의 변화(2000년과 비교)

조사 사항	조사 항목	조사 내용 및 범주
1. 가구에 관한 사항	(1) 전·겸업 구분	〈동일〉
	(2) 영농형태	한·육우 → 한우와 육우로, 닭 → 산란계와 육계로 각각 〈세분〉, 멧돼지, 곰, 고라니 〈추가〉
2. 가구원에 관한 사항	(1) 성명	〈동일〉
	(2) 성별	〈동일〉
	(3) 나이	생년월일 관련 항목 〈삭제〉 집에서 지낸 생일 〈추가〉
	(4) 경영주와의 관계	기타친인척을 형제·자매와 기타친인척으로 〈세분〉
	(5) 교육정도	학력별 졸업, 재학, 중퇴로 〈세분〉
	(6) 혼인상태	〈신규〉
	(7) 주 종사분야	임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산업 〈추가〉 가사, 학생, 군인, 무직 등 → “종사하지 않았음”의 범주로 〈변경〉
	(8) 농업 종사기간	지난 1년간 3개월 이상 종사여부 → 없음, 1개월 미만, 1~3개월, 3~6개월, 6개월 이상으로 〈세분〉
	(9) 농업이외 종사기간	지난 1년간 농업 이외의 일에 종사여부 → 없음, 1개월 미만, 1~3개월, 3~6개월, 6개월 이상으로 〈세분〉
	(10) 경영주 농사경력기간	〈동일〉
	(11) 영농승계자	〈동일〉
3. 경지에 관한 사항	(1) 논 면적	수리불안전 논 〈삭제〉
	(2) 밭 면적	〈동일〉
	(3) 과수원 면적	살구, 유자 〈추가〉 대추 〈삭제〉
	(4) 목초지 면적	〈동일〉
4. 작물에 관한 사항	(1) 노지재배 수확작물 면적 및 판매여부	〈동일〉
	(2) 노지재배 판매작물 면적	- 토마토 〈삭제〉 - 양배추, 수박, 호박 〈추가〉
	(3) 시설면적	비닐하우스 → 자동화 비닐하우스와 비닐(온실)하우스로 〈세분〉
	(4) 시설재배 수확작물 면적	호박, 대파, 서양 채소, 감자 〈추가〉 양채류 〈삭제〉
	(5) 시·군·구 작물 재배면적 및 판매여부	〈동일〉

(계속)

(부표 3) 계속

조사 사항	조사 항목	조사 내용 및 범주
5. 가축에 관한 사항	(1) 축종별 사육마리수	- 멧돼지, 곰, 고라니 <추가> - 한·육우 → 한우, 육우로 <세분> - 닭 → 산란계, 육계로 <세분>
6. 농기계에 관한 사항	(1) 농기계 보유대수	- 정미기 <삭제> - 과수원용 SS 분무기, 농업용 난방기 <추가>
	(2) 논벼 농사방법 및 위탁여부	벼묘판 작업 <추가>
7. 농축산물 판매에 관한 사항	(1) 농축산물 판매금액	100~500만원 구간을 100~200만원, 200~500만원 구간으로 <세분>
	(2) 농축산물 주 판매처	농축산물 가공업체 <추가>
8. 친환경 농업에 관한 사항	(1) 친환경재배 수확작물 재배면적 및 재배방법	“유기농”의 정의 <변경>
	(2) 친환경농산물의 주 판매처	- 정부수매, 수집장, 재래시장 <삭제> - 소비자 단체,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업체 <추가>
9. 농업정보화 현황	(1) PC 보유 여부	<동일>
	(2) PC 농업에 활용 여부	<동일>
	(3) PC 농업 활용 용도	- 농업경영관리, 전자상거래 → 농축산물 판매, 주말농원, 민박안내 등 농촌관광 <변경> - 시설자동화 <삭제>
	(4) 홈페이지 개설 여부	<동일>
10. 생활여건에 관한 사항	(1) 생활시설이용 이동 수단 및 소요시간	<신규>
	(2) 자동차 보유 여부	승용·승합차 → 승용차와 승합차 <구분>
11. 주거에 관한 사항	(1) 거처형태	- 연립과 다세대 주택 (분리) -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추가>
	(2) 건축년도	2000년 이후 1년 단위로 <세분> 1969년 이전 → 1959년 이전 <구분>
	(3) 난방시설	4개 난방연료 → 9개 난방시설 <구분>
	(4) 주거시설형태(부엌, 수도, 화장실, 목욕시설)	- 부엌: <동일> - 수도: <동일> - 화장실: <추가> - 목욕시설: <추가>
12. 기타	(1) 생산자조직 참여현황	<동일>
	(2) 농업관련사업	<신규>



농가 정의와 변화

조사 시기별로 농가의 정의는 농가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 있다. 1960년의 농업국세조사에서는 농지개혁법 당시의 농가 정의를 따라서 농업을 경영하는 가구로서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경지(전, 답, 과수원) 300평 이상을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가구로 정의하였다. 1960년의 농가 정의는 1970년대 조사에서 대폭 보완되었는데 '70년 조사에서 농가의 정의는 ① 경지 300평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② 고등원예나 특용작물을 100평, 과수나 묘목을 200평 이상 재배하는 가구, ③ 대가축(소) 1마리 이상 사육하는 가구, ④ 중가축(돼지, 양) 3마리 이상 사육하는 가구, ⑤ 소가축

〈부표 4〉 조사별 농가의 정의

조 사	농가의 정의
1960년 농업국세 조사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경지(전, 답, 과수원) 300평 이상을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가구
1970년 농업센서스	다음의 한 가지에 해당하는 가구 ① 경지 300평 이상 직접 경작 ② 고등원예나 특용작물을 100평, 과수나 묘목을 200평 이상 재배 ③ 대가축(소) 1마리 이상 사육 ④ 중가축(돼지, 양) 3마리 이상 사육 ⑤ 소가축(토끼) 40마리 이상 사육, 가금(닭, 오리) 30마리 이상 사육 ⑥ 꿀벌 5군 이상 사육 ⑦ 누에씨 12g 이상 사육 ⑧ 복합경영의 농업수입이 1만원 이상 ⑨ 가구원 중 연간 총 90일 이상, 계속해서 30일 이상 농업노동에 종사한 사람이 있는 가구
1980년 농업조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 1970년의 농업센서스 ① ~ ⑦ ⑧ 연간 총 수입 중 농업수입이 위의 각 호별 수입보다 많은 가구
1990년, 1995년 농업총조사	① 경지 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② 시설 작물 3a 과수나 묘목은 각각 7a 이상 재배하는 가구(1990년만 해당) ③ 대가축(소) 1마리, 중가축(돼지, 양) 3마리, 소가축(토끼, 가금 : 닭, 오리, 거위, 칠면조) 40마리, 꿀벌 5군 이상 사육하는 가구 ④ 연간 농업수입이 4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
2000년, 2005년 농업총조사	① 조사기준 현재 경지 10a 이상을 직접 경작하는 가구 ②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5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 단 판매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기준 시점 현재 5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포함.

(토끼) 40마리 이상 사육, 가금(닭, 오리) 30마리 이상 사육하는 가구, ⑥ 꿀벌 5군 이상 사육하는 가구, ⑦ 누에씨 12g 이상 사육하는 가구, ⑧ 복합경영의 농업수입이 1만원 이상인 가구, ⑨ 가구원 중 연간 총 90일 이상, 계속해서 30일 이상 농업노동에 종사한 사람이 있는 가구 중 하나에 해당하면 농가로 규정하였다.

1980년대에도 1970년대의 정의 가운데 “복합경영의 농업수입이 1만원 이상”에서 복합 경영한 연간 농업수입이 위의 각 호별 수입보다 많은 가구로 고치고 “가구원 중 30일 이상 농업노동에 종사한 사람이 있는 가구”를 삭제한 것 이외에는 그대로 따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농가 정의는 이전에 비해 단순화되고 있다. 1990년대 조사에서는 ① 경지 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② 시설 작물 3a, 과수나 묘목은 각각 7a 이상 재배하는 가구(1990년 만 해당), ③ 대가축(소) 1마리, 중가축(돼지, 양) 3마리, 소가축(토끼, 가금 : 닭, 오리, 거위, 칠면조) 40마리, 꿀벌 5군 이상 사육하는 가구, ④ 연간 농업수입이 4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로 농가를 정의하고 있다.

2000년대 조사에서 농가 정의는 더욱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다. 2000년과 2005년 조사에서 농가는 ① 조사기준 현재 경지 10a 이상을 직접 경작하는 가구, ②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5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 단 판매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기준시점 현재 5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포함으로 직접 경작 면적과 농업 수입만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개요 (농업)



1. 조사목적

농업총조사는 농가 및 농가인구의 규모와 분포, 농업의 경영구조 및 특성 등을 파악하여

- 농업정책 수립·평가 및 국가경제 주요지표의 작성
- 농업관련 학술연구 및 각종 농업통계 개선을 위한 모집단 자료 확보
- 지방화시대에 요구되는 소지역 자료 생산
- 국제간 자료 교류 및 분석을 통한 농업부문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혁

세계농업총조사(센서스)는 1930년 만국농사협의회(IIA)의 권고로 처음 실시한 후 1950년부터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해 세계 120여개 국가(1990 농업센서스)에서 5~10년 주기로 실시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 농업국세조사'라는 명칭으로 세계농업센서스에 처음 참여하여 2000년까지 10년 주기로 실시하여 왔으며, 1995년도에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과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으로 대내외적인 농업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제5차 농업총조사를 특별히 5년만에 실시하였다.

농업총조사는 1995년까지 농림부가 주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하였으나, 1998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동 업무가 통계청에 이관됨에 따라 2000년부터 통계청이 주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특히 2005 농업총조사는 시의성 있는 자료 제공을 위해 총조사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여 실시하였다.

2005 농업총조사는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두 차례의 시험조사와 시범예행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계청이 2005. 11. 1 기준으로 실시한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총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의 기법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가 생산되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특히 이번 조사는 농업, 임업 및 어업총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였고, 농가인구의 특성 및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 등 파악을 위한 조사항목(혼인상태, 생활시설이용, 농업관련사업)을 신규항목으로 추가하는 한편, 조사원 교육을 위한 사이버 영상교재 개발과 대국민 홍보강화를 통해 현장조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되도록 하였으며, 조사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인력 및 조사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을 뿐만아니라 조사구설정 방법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 및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자료처리에 있어서는 IT기술 및 인터넷기반을 이용한 현지 입력방식을 도입, 자료처리기간 단축으로 최종결과를 종전보다 약 2개월 빨리 공표할 수 있게 되었다.

〈부표 5〉 농업총조사 연혁

회 수	조사기준일	명 칭	의의 및 특징
제 1 차	1960. 2. 1	농업국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회 세계농업센서스에 처음 참여 • 농업통계를 획기적으로 재정비
제 2 차	1970. 12. 1	농업센서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결과를 읍·면별로 집계 및 공표
제 3 차	1980. 12. 11	농업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원을 지역실정과 농업부문에 정통한 이장, 새마을지도자, 4H 회원중에서 선발
제 4 차	1990. 12. 1	농업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형태, 농지임차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추가
제 5 차	1995. 12. 1	농업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정의를 판매금액 기준으로 변경 • 농축산물 판매금액 및 방법 등 항목 추가
제 6 차	2000. 12. 1	농업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으로 이관후 처음 실시 • 어업총조사와 통합 실시 • 친환경농업, 농가의 정보화 현황 등 미래지향적 항목 추가
제 7 차	2005. 12. 1	농업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 및 어업총조사와 통합 실시 • 혼인상태, 농업관련사업 등 농가인구의 특성,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 파악을 위한 항목 추가



3. 조사의 법적근거

- 통계법 제4조 제1항 및 제8조에 의한 지정통계 제 10141 호
- 농림어업총조사규칙(재정경제부령 제450호, 2005. 7. 21. 1차개정)

4. 조사기준 시점 및 조사기간

가. 조사기준시점

- 시점조사항목 : 2005. 12. 1 0시 현재
- 기간조사항목 : 2004. 12. 1 ~ 2005. 11. 30 (1년간)

나. 조사기간

- 준비조사 : 2006. 2. 12 ~ 2. 13 (2일간)
- 본 조사 : 2006. 2. 14 ~ 2. 28 (15일간)

5. 조사범위 및 대상

가. 조사범위

대한민국 영역중 행정권이 미치는 전지역

나. 조사대상

동 지역내의 가구중 2006년 12월 1일 현재 농가정의(용어해설 참조)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농업을 직접 경영하는 모든 농가

6. 조사체계

- 주관 : 통계청
- 실시 : 지방행정기관 (시·도→시·군·구→읍·면·동→조사원)

7. 조사항목

가. 가구에 관한 사항

- (1) 전 · 겸업 구분
- (2) 영농형태

나. 가구원에 관한 사항

- (1) 성명
- (2) 성별
- (3) 나이
- (4) 경영주와의 관계
- (5) 교육정도
- (6) 혼인상태
- (7) 주 종사분야
- (8) 농업 종사기간
- (9) 농업이외 종사기간
- (10) 경영주 농사경력기간
- (11) 영농승계자

다. 경지에 관한 사항

- (1) 논 면적 (자기 논, 남의 논, 이모작 논, 경지정리된 논)
- (2) 밭 면적 (자기 밭, 남의 밭)
- (3) 과수원 면적
- (4) 목초지 면적

라. 작물에 관한 사항

- (1) 노지재배 수확작물 면적 및 판매여부
- (2) 노지재배 판매작물 면적



- (3) 시설면적
- (4) 시설재배 수확작물 면적
- (5) 시·군·구 작물 재배면적 및 판매여부

마. 가축에 관한 사항

- (1) 축종별 사육마리수
(한·육우, 젓소암컷, 돼지, 멧돼지, 산란계, 육계, 젓산양, 염소, 사슴, 토끼, 오리, 꿀벌, 곰, 고라니, 기타)

바. 농기계에 관한 사항

- (1) 농기계 보유대수
- (2) 논벼 농사방법 및 위탁여부

사. 농축산물 판매에 관한 사항

- (1) 농축산물 판매금액
- (2) 농축산물 주 판매처

아. 친환경 농업에 관한 사항

- (1) 친환경재배 수확작물 재배면적 및 재배방법
- (2) 친환경농산물의 주 판매처

자. 농업정보화 현황

- (1) PC 보유 여부
- (2) PC 농업에 활용 여부
- (3) PC 농업 활용 용도
- (4) 홈페이지 개설 여부

차. 생활여건에 관한 사항

- (1) 생활시설이용 이동수단 및 소요시간
- (2) 자동차 보유 여부

카. 주거에 관한 사항

- (1) 거처형태
- (2) 건축년도
- (3) 난방시설
- (4) 주거시설형태(부엌, 수도, 화장실, 목욕시설)

타. 기타

- (1) 생산자조직 참여현황
- (2) 농업관련사업

8. 조사구

가. 조사구설정 목적

조사구 설정은 조사대상의 중복·누락을 방지하고, 조사원의 담당구역 결정, 균등한 업무량 부여 등을 통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추진하기 위함

나. 조사구설정 목적

- 통계청
 - 조사구설정 및 수정보완
 - 읍면동 기본도 출력·배부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조사구 적합성 현지 확인 및 조사준비
 - 변동조사구 수정 및 보완, 확정



다. 조사구설정 방법 및 기준

- 2005 농업총조사를 위한 조사구는 「2005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내 농어가수를 기초로 하여 농어가수가 40 ± 10 호가 되도록 1개 또는 2개 이상의 인구주택조사구를 통합하여 설정하였다.
- 인구주택 조사구의 경계는 계속 유지하되, 읍면동별로 농어가 없거나, 소규모인 지역은 읍면동 전체를 1개 조사구로 설정하였다.

9. 조사실시

가. 준비조사

준비조사는 조사표를 작성하는 본조사에 앞서 조사대상 가구인 농림어가를 확정하고, 조사원별 조사구역 확인 및 요도작성, 농림어가명부 확인 및 보완, 농림어가 위치파악 및 스티커 부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로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조사원이 가구명부 및 요도를 가지고, 준비조사기간(2006. 2. 12~13)에 담당 조사구를 방문, 조사구내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이장, 어촌계장 등)이나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농가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조사구 요도에 조사대상가구를 표시하여 조사대상 가구 확인용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나. 본조사

조사원 1인당 3개의 농림어업조사구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조사기간(2006. 2. 14~28)동안 준비조사에서 파악한 모든 농가를 방문하여 조사표에 의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는 총조사관리자 및 지도공무원의 검토를 받아 조사의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10. 조사수행 조직

가. 자문기구

2005 농업총조사는 조사항목 선정과 총조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 분야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한 정부, 연구기관 및 관련협회 등 각계 전문가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및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제반 통계업무에 관하여 자문·심의를 하고 있는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나. 수행기관

2005 농업총조사는 통계청의 주관·기획하에 각 시도를 통하여 수행하였는데, 약 6천명의 통계청·지방행정기관 지도공무원과 2만1천명의 조사원·총조사관리자 등이 동원되었다. 조사원은 각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 시·군·구장이 임명하였고, 자격요건은 18세 이상으로 고졸정도의 학식을 갖춘 해당 조사지역 관내 거주자로서 통계조사 경험이 있거나, 농어업 관련분야 종사 유경험자로 책임감이 투철하고 조사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11. 집계 및 공표

가. 잠정집계 결과

신속한 자료이용을 위하여 최종 확정된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 총농가수, 농가인구, 전겸업별·경지면적규모별·영농형태별 농가수를 별도 집계한 잠정결과를 2006년 4월 25일에 공표하였다.

나. 최종집계 결과

농업총조사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집계한 최종결과를 2006년 11월에 공표하였고, 최종보고서는 전국편과 16개 시도편으로 구분하여 2006년 12월과 2007년 3월에 발간한다.

12. 용어해설

가. 농가

농가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을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 (1) 조사기준(2005년 12월 1일) 현재 논·밭 등 경지 10a(약 300평)이상을 직접 경작하는 가구
- (2)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5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
- 단, 판매금액이 50만원미만이라도 조사기준시점 현재 50만원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는 농가에 포함

나. 농가인구

호적이나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2005 12월 1일 현재 조사대상 가구에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가족, 친인척 등을 말하며 농업 고용인 등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농업과 관련되면 포함한다.

다. 전업농가

지난 1년간 농업이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를 말한다.

라. 겸업농가

지난 1년간 농업이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를 말한다.

- 1종 겸업농가 : 농업 수입이 농업이외 수입보다 많은 농가
- 2종 겸업농가 : 농업이외 수입이 농업 수입보다 많은 농가

마. 경지

법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식량작물, 채소, 과수, 화훼 등 작물재배에 이용 가능한 토지를 말하며 논과 밭(나무 심은 밭 포함)으로 구분된다.

- 논 : 법적 지목에 관계없이 관개배수시설을 갖추고 물을 대어 작물을 재배할수 있는 경지로서 주로 논벼, 미나리, 연뿌리 등을 재배하는 경지를 말한다.
- 밭 : 논 이외 경지를 말하며 과수원 등 나무 심은 밭을 포함한다.
- 과수원 등 나무 심은 밭은 30평이상 집단재배한 곳만 조사하며 산재된 것은 제외

바. 영농형태

지난 1년간 논벼, 과수, 특용작물, 채소, 화훼, 일반밭작물, 축산, 기타 중에서 판매금액이 가장 많았던 농사를 말한다.

- 채소 : 배추, 수박, 참외, 딸기, 고추, 생강 등
- 특용작물 : 참깨, 들깨, 땅콩, 유채, 약용작물, 담배, 버섯, 인삼, 호프, 차 등
- 화훼 : 꽃, 분재, 관상수 등
- 일반밭작물 : 밭벼, 보리, 밀, 콩, 팥, 고구마, 감자, 옥수수, 수수 등

사. 친환경 농업

농작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하기 전부터 의식적으로 농약사용량을 이전의 절반 수준 이하로 줄여서 농사를 지은 경우를 말한다.

- 저농약 농법 : 지난 1년간 농약을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이내, 화학비료는 권장사용량의 1/2 이내로 줄여 농작물을 재배
- 무농약 농법 : 지난 1년간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사용량의 1/3 이내로 줄여 농작물을 재배
- 유기농법 : 1년이상 농약과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

아. 농업관련사업

농가에서 농업과 관련된 다음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 직판장, 직거래 : 인터넷, 전화, 과수원, 원두막, 밭, 도로변 등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
- 농가식당 :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일부 활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당
- 농산물 가공업 : 된장, 감식초, 딸기잼, 과일즙 등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
- 농가민박 : 농가에서 주택을 활용하여 숙박을 제공하는 것
- 주말농원, 관광농원 : 도시민들이 영농체험, 농촌생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개요 (어업)



1. 조사목적

어업총조사는 어가 및 어가인구의 규모와 분포, 어업의 경영구조 및 특성 등을 파악하여

- 어업정책 수립 · 평가 및 국가경제 주요지표의 작성
- 어업관련 학술연구 및 각종 어업통계 개선을 위한 모집단 자료 확보
- 지방화시대에 요구되는 소지역 자료 생산
- 국제간 자료 교류 및 분석을 통한 어업부문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혁

우리나라의 어업총조사는 국제연합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권장에 의하여 1970년에 '총어업조사' 라는 명칭으로 처음 실시한 이후 매 10년 주기로 실시해왔다. 1995년은 간이 어업총조사를 실시하는 해이나 대내외적인 어업여건의 급격한 변화와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으로 특별히 제4차 어업총조사를 실시하였다.

어업총조사는 그동안 농림부가 주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하였으나, 1998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동 업무가 통계청에 이관됨에 따라 2000년 어업총조사부터 통계청이 주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특히 2005 어업총조사는 시의성 있는 자료 제공을 위해 총조사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여 실시하였다.

2005 어업총조사는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두 차례의 시험조사와 시범예행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계청이 2005. 11. 1 기준으로 실시한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총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의 기법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가 생산되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특히 이번 조사는 농업, 임업 및 어업총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였고, 어가인구의 특성 및 신규취업가구 파악을 위한 조사항목(혼인상태, 생활시설이용, 경영주 어업종사경력)을 추가하는 한편, 조

사원 교육을 위한 영상교재 개발과 대국민 홍보강화를 통해 현장조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되도록 하였고, 조사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인력 및 조사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구 설정방법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 및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자료처리 방법에서 IT기술 및 인터넷기반을 이용한 현지 입력방식을 도입하여, 자료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최종결과를 종전보다 약 2개월 빨리 공표할 수 있게 되었다.

〈부표 6〉 어업총조사 연혁

회 수	조사기준일	명 칭	의의 및 특징
제 1 차	1970. 12. 1	총어업조사	• 해수면어업 조사만 실시
제 2 차	1980. 12. 1	총어업조사	• 내수면어업, 수산연관시설 조사 추가
제 3 차	1990. 12. 1	어업총조사	• 시·군·구 어업관련 부서에서 실시
제 4 차	1995. 12. 1	어업총조사	• 지방농수산통계 조직을 통해 조사 실시
제 5 차	2000. 12. 1	어업총조사	• 통계청에서 처음 실시 • 농업총조사와 함께 실시 • 어가의 정보화 현황, 생산자조직참여현황 등 항목 추가
제 6 차	2005. 12. 1	어업총조사	• 농업, 임업 및 어업총조사와 통합 실시 • 어가인구의 특성, 신규취업가구 파악을 위한 혼인상태, 경영주 어업종사기간 등의 항목 추가

3. 조사의 법적근거

- 통계법 제4조 제1항 및 제8조에 의한 지정통계 제 10146 호
- 농림어업총조사규칙(재정경제부령 제 450호, 2005. 7. 21. 1차 개정)

4. 조사기준 시점 및 조사기간

가. 조사기준시점

- 시점조사항목 : 2005. 12. 1 0시 현재



- 기간조사항목 : 2004. 12. 1 ~ 2005. 11. 30 (1년간)

나. 조사기간

- 준비조사 : 2006. 2. 12 ~ 2. 13 (2일간)
- 본 조 사 : 2006. 2. 14 ~ 2. 28 (15일간)

5. 조사범위 및 대상

가. 조사범위

대한민국 영역중 행정권이 미치는 전지역

나. 조사대상

동 지역내의 가구중 2005년 12월 1일 현재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지난 1년중 1개월이상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활동을 한 가구

6. 조사체계

- 주관 : 통계청
- 실시 : 지방행정기관 (시·도→시·군·구→읍·면·동→조사원)

7. 조사항목

해수면어업

가. 가구에 관한 사항

- (1) 전·겸업 구분
- (2) 어업형태

나. 가구원에 관한 사항

- (1) 가구원 성명

- (2) 성별
- (3) 나이
- (4) 경영주와의 관계
- (5) 교육정도
- (6) 혼인상태
- (7) 주 종사분야
- (8) 1개월 이상 어업종사형태
- (9) 어업이의 종사기간
- (10) 주 종사분야
- (11) 경영주 어업경력

다. 어로어업에 관한 사항

- (1) 어로어업 경영 여부
- (2) 어법 종류
- (3) 어획 품종

라. 양식어업에 관한 사항

- (1) 양식어업 경영 여부
- (2) 양식품종별 양식방법 및 양식장 면적

마. 판매현황에 관한 사항

- (1) 수산물의 판매금액
- (2) 수산물의 판매처
- (3) 수산물의 상품형태

바. 어선에 관한 사항

- (1) 보유어선 척수



(2) 동력선(소유형태 · 톤수 · 추진기관 · 어선재질 · 선령 · 출어일수 · 승선인원)

사. 정보화에 관한 사항

- (1) 컴퓨터 보유 여부
- (2) 컴퓨터의 활용 여부
- (3) 컴퓨터 활용 용도
- (4) 홈페이지 개설 여부

아. 생활여건에 관한 사항

- (1) 생활시설 이용(이동수단 및 소요시간)
- (2) 자동차 보유

자. 주거에 관한 사항

- (1) 거처형태
- (2) 건축년도
- (3) 난방시설
- (4) 주거시설형태(부엌, 수도, 화장실, 목욕시설)

차. 기타

- (1) 생산자조직 참여현황
- (2) 비동거 어업임금종사자

내수면어업

가. 가구에 관한 사항

- (1) 전 · 겸업 구분
- (2) 어업형태

나. 가구원에 관한 사항

- (1) 가구원 성명
- (2) 성별
- (3) 나이
- (4) 경영주와의 관계
- (5) 교육정도
- (6) 혼인상태
- (7) 어업 종사기간
- (8) 1개월 이상 어업종사형태
- (9) 어업이외 종사기간
- (10) 주 종사분야
- (11) 경영주 어업경력

다. 어로어업에 관한 사항

- (1) 어로어업 경영 여부
- (2) 어법 종류
- (3) 어획 품종

라. 양식어업에 관한 사항

- (1) 양식어업 경영 여부
- (2) 양식품종별 양식방법 및 양식장 면적

마. 판매현황에 관한 사항

- (1) 수산물의 판매금액
- (2) 수산물의 판매처
- (3) 수산물의 상품형태



바. 어선에 관한 사항

- (1) 보유어선 척수
- (2) 동력선(소유형태 · 톤수 · 추진기관 · 어선재질 · 선령 · 출어일수 · 승선인원)

사. 정보화에 관한 사항

- (1) 컴퓨터 보유 여부
- (2) 컴퓨터의 활용 여부
- (3) 컴퓨터 활용 용도
- (4) 홈페이지 개설 여부

아. 생활여건에 관한 사항

- (1) 생활시설 이용(이동수단 및 소요시간)
- (2) 자동차 보유

자. 주거에 관한 사항

- (1) 거처형태
- (2) 건축년도
- (3) 난방시설
- (4) 주거시설형태(부엌, 수도, 화장실, 목욕시설)

차. 기타

- (1) 생산자조직 참여현황

8. 조사구

가. 조사구설정 목적

조사구설정은 조사대상의 중복·누락을 방지하고, 조사원의 담당구역 결정, 균등한 업무량 부여 등을 통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추진하기 위함

나. 조사구설정 방법 및 기준

- 2005 어업총조사를 위한 조사구는 「2005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내 농어가수를 기초로 하여 농어가수가 40 ± 10 호가 되도록 1개 또는 2개 이상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통합하여 설정하였다.
- 인구주택 조사구의 경계는 계속 유지하되, 읍면동별로 농어가 없거나, 소규모인 지역은 읍면동 전체를 1개조사구로 설정하였다.

9. 조사실시

가. 준비조사

준비조사는 조사표를 작성하는 본조사에 앞서 조사대상 가구인 어가를 확정하고, 조사원별 조사구역 확인 및 요도작성, 어가명부 확인 및 보완, 어가 위치파악 및 스티커 부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로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조사원이 가구명부 및 요도를 가지고, 준비조사기간(2006. 2. 12~2. 13)에 담당 조사구를 방문, 조사구내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이장, 어촌계장 등)이나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어가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조사구 요도에 조사대상가구를 표시하여 조사대상가구 확인용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나. 본조사

조사원 1인당 3개의 농림어업조사구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조사기간(2006. 2. 14~28)동안 준비조사에서 파악한 모든 어가를 방문하여 조사표에 의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는 총조사관리자 및 지도공무원의 검토를 받아 조사의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10. 조사수행 조직

가. 자문기구

2005 어업총조사는 조사항목 선정과 총조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 분야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어업과 관련한 정부, 연구기관 및 관련협회 등 각계 전문가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및 「전



문가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제반 통계업무에 관하여 자문·심의를 하고 있는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나. 수행기관

2005 어업총조사는 통계청의 주관·기획하에 각 시도를 통하여 수행하였는데, 약 6천명의 통계청·지방행정기관 지도공무원과 2만1천명의 조사원·총조사관리자 등이 동원되었다. 조사원은 각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 시·군·구장이 임명하였고, 자격요건은 18세 이상으로 고졸정도의 학식을 갖춘 해당 조사지역 관내 거주자로서 통계조사 경험이 있거나, 농어업 관련분야 종사 유경험자로 책임감이 투철하고 조사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11. 집계 및 공표

가. 잠정집계 결과

신속한 자료이용을 위하여 최종 확정된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 총어가수, 어가인구, 전겸업별·어업형태별·보유어선 톤수별 어가수를 별도 집계한 잠정결과를 2006년 4월 25일에 공표하였다.

나. 최종집계 결과

어업총조사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집계한 최종결과를 2006년 11월에 공표하였고, 최종보고서는 전국편과 16개 시도편으로 구분하여 2006년 12월과 2007년 3월에 발간한다.

12. 용어해설

가. 어가

어가란 판매를 목적으로 지난 1년중 1개월이상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활동을 하였으며, 조사기준시점 현재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나. 어가인구

호적이나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2005년 12월 1일 현재 조사대상 가구에 상주했던 사람을 말하며

고용인 등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어업과 관련되면 포함한다.

다. 전업어가

지난 1년간 어업이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어가를 말한다.

라. 겸업농가 지난 1년간 어업이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어가를 말한다.

- 1종 겸업어가 : 어업 수입이 어업이외 수입보다 많은 농가
- 2종 겸업어가 : 어업이외 수입이 어업 수입보다 많은 농가

마. 어업형태

- 양식어업 가구
어류, 갑각류, 패류, 해조류, 기타 수산동·식물을 기르는 어업을 주로 경영하는 가구
- 어선사용 가구
자기어선 또는 남의 어선에 승선하여 자기의 어구로 어로어업을 주로 경영하는 가구
- 어선비사용 가구
어선을 사용하지 않고 포획·채취 등 어로어업을 주로 경영하는 가구

바. 어업종사자

2005년 12월 1일 현재 만 15세이상의 가구원중 조사기준일 직전 1년동안에 1개월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어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사. 주된 어로어업 방법(어획품종, 양식품종)

주된 어로어업(어획품종, 양식품종)은 어가의 경영어법, 어획품종 및 양식품종을 판매금액이 가장 많은 종류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

아. 내수면 어법별 어업종류

- 자망어업



수산동물이 지나가는 길목에 고정하거나 물의 흐름에 흘러가도록 치는 일직선 형태의 사각그물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연승어업

일정한 간격으로 미끼를 끼운 여러 개의 낚시를 매달아 수중에 늘어뜨린 긴 줄(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낭장망어업

긴 자루 그물의 날개와 자루 끝을 닻 등으로 고정시키고 조류에 의하여 들어간 고기를 어획하는 정치성 그물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각망어업

회유하는 어군의 자연적인 통로를 차단하여 함정으로 유도하기 위한 길그물과 어군을 가두어 두기 위한 사각형의 통그물로 구성된 정치성 그물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종묘채포어업

양식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채포하는 어업

- 패류채취어업

형망(자루모양의 그물 입구에 조개틀과 같은 틀을 부착한 그물) 또는 기기를 사용하여 패류 또는 기타 정착성동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어업

- 정치망어업

회유성 어종을 주 대상으로 어군의 이동로에 긴 그물을 설치하여 어군을 차단한 후 연결된 우리안으로 유도하는 정치성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공동어업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자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 조류채취어업

일정한 수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조류를 조성·채취하는 어업

- 패류채취어업

형망(자루모양의 그물 입구에 조개틀과 같은 틀을 부착한 그물) 또는 기기를 사용하여 패류 또는 기타 정착성동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어업

자. 내수면 어획 장소

- 강
큰 강을 강(江), 작은 강을 천(川) 또는 수(水)로 나타내고 있으나 오늘날에는 혼용하는 경우가 많음
- 댐
산간계곡이나 하천을 횡단하여 저수·토사유출방지·취수·수위 상승 또는 붕괴방지를 위하여 만들어진 구조물
- 저수지
흐르는 물을 저장하여 물의 과다 또는 과소를 조절하는 인공시설
- 호수
연안식물의 침입을 허용할 수 없을 만큼의 깊이를 갖는 것으로 최심부가 5m 이상 되는 것
- 기타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지역 등

차. 내수면 양식방법

- 지수식
과거부터 널리 이용해온 방법으로 항상 일정수량의 물을 사육지에 채운 후 증발이나 침투 등에 의해 감소되는 수량만을 보충해 주거나, 수질의 변화를 가져왔을 때에 새로운 물을 넣어 주는 정도로서 고기를 키우는 방법(예: 잉어, 뱀장어, 메기, 가물치 등 온수성 어류)
- 유수식
양어지에 항상 새로운 물을 유입시켜서 사육수를 유동상태로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비교적 적은 면적에서 많은 양의 고기를 수용 사육해서 단위 면적 당 많은 양의 고기를 생산하는 능률적인 집약적 양어방법(예: 송어 등 냉수성 어류)
- 순환여과식
인위적으로 어류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시키고 대사노폐물을 여과시킴으로서 사육수를 재사용하여 좁은 면적에서 고밀도로 양식생물을 키울 수 있도록 고안된 양식방법(예: 틸라피아, 뱀장어 등)



- 가두리식
저수지, 댐 등에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어류나 갑각류를 양식하는 방법(예: 잉어, 향어 등)
- 기타양식
위 이외의 양식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방법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개요 (임업)



1. 조사목적

임업총조사는 임가 및 임가인구의 규모와 분포, 임업의 경영구조 및 특성 등을 파악하여

- 임업정책 수립 · 평가 및 국가경제 주요지표의 작성
- 임업관련 학술연구 및 각종 임업통계 개선을 위한 모집단 자료 확보
- 지방화시대에 요구되는 소지역 자료 생산
- 국제간 자료 교류 및 분석을 통한 임업부문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혁

우리나라의 임업총조사는 1998년 산림청이 주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제1회 임업총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04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동 업무가 통계청에 이관됨에 따라 2005년부터 통계청이 주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특히 2005 임업총조사는 시의성 있는 자료 제공을 위해 총조사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여 실시하였다.

2005 임업총조사는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두 차례의 시험조사와 시범예행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계청이 2005. 11. 1 기준으로 실시한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총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의 기법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가 생산되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특히 이번 조사는 농업, 임업 및 어업총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였고, 임가인구의 특성 및 임가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항목(혼인상태, 경영주 임업종사경력, 전 · 겸업, 임업경영형태, PC활용여부 · 용도, 홈페이지개설 여부, 거처형태, 건축년도)을 신규항목으로 추가하는 한편, 주관적이거나 임가로 볼 수 없는 조사항목(향후 경영계획, 경영예정기간, 가계총소득 및 부채, 휴양림경영, 영림단운영, 야생조수사육현황, 시설면적, 문화용품)은 폐지하는 등 조사항목을 대폭적으로 개선하였다.



〈부표 7〉 임업총조사 연혁

회 수	조사기준일	명 칭	의의 및 특징
제 1 차	1999. 1. 1	임업총조사	• 산림청주관으로 제1회 임업총조사 실시
제 2 차	2005. 12. 1	임업총조사	• 통계청주관으로 처음 실시 • 농·어업총조사와 함께 실시 • 경영주임업종사경력, 임업경영형태 등 항목추가 • 휴양림경영, 영림단운영 등 항목폐지

3. 조사의 법적근거

- 통계법 제4조 제1항 및 제8조에 의한 지정통계 제 10163 호
- 농림어업총조사규칙(재정경제부령 제 450호, 2005. 7. 21. 1차 개정)

4. 조사기준 시점 및 조사기간

가. 조사기준시점

- 시점조사항목 : 2005. 12. 1 0시 현재
- 기간조사항목 : 2004. 12. 1 ~ 2005. 11. 30 (1년간)

나. 조사기간

- 준비조사 : 2006. 2. 12 ~ 2. 13 (2일간)
- 본 조사 : 2006. 2. 14 ~ 2. 28 (15일간)

5. 조사범위 및 대상

가. 조사범위

대한민국 영역중 행정권이 미치는 전지역

나. 조사대상

동 지역내의 가구중 2006년 12월 1일 현재 임가정의(용어해설 참조)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의 임업을 직접 경영하는 모든 임가

6. 조사체계

- 주관 : 통계청
- 실시 : 지방행정기관 (시·도→시·군·구→읍·면·동→조사원)

7. 조사항목

가. 가구에 관한 사항

- (1) 전·겸업 구분
- (2) 임업형태

나. 가구원에 관한 사항

- (1) 가구원 성명
- (2) 성별
- (3) 나이
- (4) 경영주와의 관계
- (5) 교육정도
- (6) 혼인상태
- (7) 주 종사분야
- (8) 임업종사기간
- (9) 경영주 임업경력

다. 임업에 관한 사항

- (1) 산림면적(자기 산림, 남의 산림), 인공림 면적
- (2) 육림업
- (3) 벌목업(벌목면적 및 벌목량)
- (4) 양묘업(묘포장면적 및 재배본수)
- (5) 임산물 채취량
- (6) 임산물 재배 면적



라. 임산물 판매에 관한 사항

- (1) 임산물 판매금액
- (2) 임산물 판매처

마. 임업정보화 현황

- (1) PC 보유 여부
- (2) PC 임업에 활용 여부
- (3) PC 임업 활용 용도
- (4) 홈페이지 개설 여부

바. 생활여건에 관한 사항

- (1) 생활시설이용 이동수단 및 소요시간
- (2) 자동차 보유 여부

사. 주거에 관한 사항

- (1) 거처형태
- (2) 건축년도
- (3) 난방시설
- (4) 주거시설형태(부엌, 수도, 화장실, 목욕시설)

아. 기타

- (1) 임업고용

8. 조사구

가. 조사구설정 목적

조사구설정은 조사대상의 중복·누락을 방지하고, 조사원의 담당구역 결정, 균등한 업무량 부여 등을 통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추진하기 위함

나. 조사구설정 체계

- 통계청
 - 조사구설정 및 수정보완
 - 읍면동 기본도 출력 · 배부
- 시 · 도 ↔ 시 · 군 · 구 ↔ 읍 · 면 · 동
 - 조사구 적합성 현지확인 및 조사준비
 - 변동조사구 수정 및 보완, 확정

다. 조사구설정 방법 및 기준

- 2005 임업총조사를 위한 조사구는 「2005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내 농어가수를 기초로 하여 농어가수가 40 ± 10 호가 되도록 1개 또는 2개 이상의 인구주택조사구를 통합하여 설정하였다.
 - 인구주택 조사구의 경계는 계속 유지하되, 읍면동별로 농어가 없거나, 소규모인 지역은 읍면동 전체를 1개조사구로 설정하였다.

9. 조사실시

가. 준비조사

준비조사는 조사표를 작성하는 본조사에 앞서 조사대상 가구인 임가를 확정하고, 조사원별 조사구역 확인 및 요도작성, 임가명부 확인 및 보완, 임가 위치파악 및 스티커 부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로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조사원이 가구명부 및 요도를 가지고, 준비조사기간(2006. 2. 12~2. 13)에 담당 조사구를 방문, 조사구내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이장, 어촌계장 등)이나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임가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조사구 요도에 조사대상가구를 표시하여 조사대상가구 확인용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나. 본조사

조사원 1인당 3개의 농림임업조사구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조사기간(2006. 2. 14~28)동안 준비조사에서 파악한 모든 임가를 방문하여 조사표에 의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가 완료된 조사



표는 총조사관리자 및 지도공무원의 검토를 받아 조사의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10. 조사수행 조직

가. 자문기구

2005 임업총조사는 조사항목 선정과 총조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 분야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임업과 관련한 정부, 연구기관 및 관련협회 등 각계 전문가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및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제반 통계업무에 관하여 자문·심의를 하고 있는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나. 수행기관

2005 임업총조사는 통계청의 주관·기획하에 각 시도를 통하여 수행하였는데, 약 6천명의 통계청·지방행정기관 지도공무원과 2만1천명의 조사원·총조사관리자 등이 동원되었다. 조사원은 각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 시·군·구장이 임명하였고, 자격요건은 18세 이상으로 고졸정도의 학식을 갖춘 해당 조사지역 관내 거주자로서 통계조사 경험이 있거나, 농임업 관련분야 종사 유경험자로 책임감이 투철하고 조사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11. 집계 및 공표

가. 잠정집계 결과

신속한 자료이용을 위하여 최종 확정된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 총임가수, 임가인구, 전겸업별·임업형태별·보유어선 톤수별 임가수를 별도 집계한 잠정결과를 2006년 4월 25일에 공표하였다.

나. 최종집계 결과

임업총조사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집계한 최종결과를 2006년 11월에 공표하였고, 최종보고서는 전국편과 16개 시도편으로 구분하여 2006년 12월과 2007년 3월에 발간한다.

12. 용어해설

가. 임가

임가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을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 (1) 조사기준(2005년 12월 1일) 현재 산림 3ha(약 9,000평)이상 보유 하면서 지난 5년 중 육림작업 실적이 있는 가구
- (2) 지난 1년간 벌목업, 양묘업을 경영한 가구
- (3) 지난 1년간 채취 또는 재배한 임산물의 판매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가구

나. 임가인구

호적이나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2005 12월 1일 현재 조사대상 가구에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가족, 친인척과 임업 고용인 등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임업과 관련되면 포함한다.

다. 전업임가

지난 1년간 임업이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임가를 말한다.

라. 겸업농가

지난 1년간 임업이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임가를 말한다.

- 1종 겸업임가 : 임업 수입이 임업이외 수입보다 많은 농가
- 2종 겸업임가 : 임업이외 수입이 임업 수입보다 많은 농가

마. 산림면적

본인이 소유한 산림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관리하는 남의 산림(중증산림 포함)도 포함한다.

바. 육림업

육림작업은 보유한 산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작업을 실시한 경우를 말한다.

- “나무심기”란 실제 나무심는 작업이나, 나무심기를 위한 정리 작업도 해당된다.



- “숲가꾸기”란 산에 나무를 심은 후 관리하는 작업으로 어린나무가꾸기, 풀베기,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비료주기 등을 말한다.
- 가꾸는 산림에서 간벌작업을 한 경우와 다 자란 나무를 벌목한 경우나 판매한 경우도 육림작업으로 본다.

사. 벌목업

“벌목업”은 국유림이나, 남이 가꾸어 놓은 산림의 나무를 베어 산업원료나 연료용 목재로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아. 양묘업

“양묘업”은 산에 심을 조림용 묘목을 생산하는 활동을 말한다.

자. 임산물 채취

판매를 목적으로 산림에서 야생임산물(각종 버섯, 열매, 산나물, 약용작물, 수액 등)을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차. 임산물 재배

산이나 논·밭에서 판매목적으로 임산물(산나물, 약용작물, 조경수, 유실수, 야생화 등)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자. 임업형태

지난 1년간 육림업, 벌목업, 양묘업, 임산물 채취업, 임산물 재배업 중에서 판매금액이 가장 많았던 임업업종을 말한다.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개요 (지역)



1. 조사목적

농어촌의 특성에 맞는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시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

2. 연혁

지역조사는 농림어업총조사 부가조사로써 1980년부터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조사결과를 공표하지는 않았다. 2005 농림어업총조사에서 처음으로 2006. 11월에 공표하였으며, 2007년 3월 발간에 이르게 되었다.

3. 조사의 법적근거

- 통계법 제4조 제1항 및 제8조에 의한 지정통계 제 10141 호
- 농림어업총조사규칙(재정경제부령 제450호, 2005. 7. 21. 1차 개정)

4. 조사기준 시점 및 조사기간

- 시점조사항목 : 2005. 12. 10시 현재

5. 조사대상

- 전국 모든 행정리 단위

6. 조사체계

- 통계청→시·도→시·군→읍·면



7. 조사항목

가. 가구수

- (1) 농 · 임 · 어가수

나. 대중교통 이용

- (1) 주된 교통수단
- (2) 대중교통 운행횟수

다. 교육 · 의료시설 이용

- (1) 교육시설
- (2) 사설학원
- (3) 의료시설

라. 농림어업 관련시설 이용

- (1) 농업관련시설
- (2) 임업관련시설
- (3) 어업관련시설
- (4) 저장 · 가공시설

마. 농업 · 임업 및 어업형태

- (1) 농업형태
- (2) 임업형태
- (3) 어업형태

바. 농어촌 관광 및 정보화

- (1) 농어촌 관광
- (2) 홈페이지 개설

사. 생산자 조직

- (1) 법인
- (2) 작목반
- (3) 어촌계
- (4) 산림계

아. 농림어업 쓰레기 처리

8. 집계 및 공표

-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집계한 최종결과를 2006년 11월에 공표하였고, 보고서는 2007년 3월에 발간한다.



정부승인 통계간행물 및 CD-ROM 안내

I. 종이 간행물

○ 종합

간행물명	주요 수록 내용	발간시기	주기	가격
· 국가통계 바로알기	국가통계의 의미, 인구, 고용통계, 물가, 가구소득소비, 경기지표, 표본조사, 통계정보의 활용, 통계품질관리	2005. 2	3년	18,000원
· 국제통계연감 2007	200여개 국가의 인구, 노동 및 임금, 경제 사회·문화, 보건, 환경, 교육 및 과학분야 등 160여개 항목에 대해 10년 시계열자료를 수록	2007. 8	연간	10,000원
·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남북한 경제사회상을 인구, 경제총량, 대외거래, 사회간접 자본, 보건 등 13개 분야, 90개 통계표 수록	2007. 12	연간	3,000원
· 선생님, 짝꿍 좀 바꿔 주세요	초등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계를 중심으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쉽고 유익한 통계 동화책	2007. 12	부정기	8,000원
· 월간국제통계	경제관련 46개 주요 통계지표에 대한 비교자료를 연도별, 월별로 수록	매월 7일경	월간	4,000원
· 지역경제동향	지역경제통계의 올바른 이해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지역경제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별 경제통계에 대한 최근 자료를 종합 수록	매분기 (2,5,8,11월)	분기	비매품
· 통계로 본 한국의 변천	분야별로 다양한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 경제, 사회등 전분야에 대한 시대적 특성과 변화된 모습등을 서술형으로 표현	2004. 12	부정기	19,000원
· 통계속의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개정증보판)	중·고교생을 위한 통계 책자로 통계를 이해하기 쉽게 삽화 등 수록(논술 대비 유용)	2008. 2	부정기	8,000원
· 한국통계월보	인구, 산업, 물가, 가계, 무역, 금융 등 9개 부문에 걸쳐 국내외 통계자료 변화를 연도별 월별로 종합	매월 5일경	월간	7,000원
· 한국통계연감 2007	인구, 노동 및 임금, 광공업, 도소매업, 무역, 국민계정, 국제통계 등 21개 분야 460여종의 국내의 자료를 종합	2007. 12	연간	22,000원
· Explore Korea through Statistics	우리나라 인구, 고용, 물가, 산업, 국민계정, 교육, 문화 등 18개 분야의 현황을 주요 통계자료와 영문해설, 사진, 통계표, 도표와 함께 수록	2007. 6	부정기	17,000원

○ 인구 · 사회 · 고용

간행물명	주요 수록 내용	발간시기	주기	가격
· 경제활동인구 월보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상태, 직업 · 산업별 · 교육정도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성별 · 교육정도 · 연령 계층별 실업자 등을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연도별, 분기별, 월별로 수록	매월 25일경	월간	3,000원
· 2007 경제활동인구연보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상태, 직업 · 산업 · 교육정도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성별 · 교육정도 · 연령 계층별 실업자 등을 수록	2008. 5	연간	9,000원
· 2007 인력실태조사보고서	15세 이상 인구의 연간 경제활동상태, 노동이동, 산업 및 직업의 세부내용 등 평소의 경제활동상태 조사결과를 수록	2008. 3	연간	16,000원
· 2007 고령자통계	인구, 가족 및 거주, 소득 및 소비, 노동, 교육 및 정보화, 보건, 복지, 문화 및 여가, 안전, 정부와 사회참여 등 10개 분야 통계표 수록	2007. 10	연간	비매품
· 2006년 국제인구이동 통계연보	1년 동안 내국인과 외국인이 출입국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출입국신고서를 기초로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국가간 이동자를 대상으로 작성. 내국인의 특성별 출국 및 외국인의 특성별 입국등 통계표 수록	2007. 10	연간	4,000원
· 2006년 사망원인통계연보 (전국편)	성별 · 연령별 · 사망장소별 · 월별 사망자수, 사인별 사망률, 주요사인에 의한 사망자 국제비교 등 수록	2007. 10	연간	7,000원
· 2006년 사망원인통계연보 (시도편)	시도별로 사망자의 사인분류별(103항목)사망자수, 사망률, 사인순위 등 집계자료를 수록	2007. 11	연간	15,000원
· 2007년 사회통계조사 보고서 (복지,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분야별로 매년 3~4개 사회지표를 선정하여 지역별, 연령별 상세 통계자료 수록	2007. 12	연간	11,000원
· 2004 생활시간조사보고서 (제1권 생활시간량편)	생활시간조사 결과 보고서로서, 각 행동에 대한 국민의 시간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수록	2005. 9	5년	19,000원
· 2004 생활시간조사보고서 (제2권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편)	생활시간조사 결과 보고서로서, 하루 24시간을 10분과 30분 간격으로 구분하여 시간대별로 각 행동을 한사람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수록	2005. 9	5년	13,000원
· 2004 생활시간조사보고서 (제3권 지역별 생활시간편)	생활시간조사 결과 보고서로서, 지역별 생활시간 활용실태 자료를 수록	2005. 9	5년	15,000원
· 2006년 인구동태통계연보 (총괄 · 출생 · 사망편)	국민이 제출한 출생 · 사망신고서를 집계하여 전국 및 시 · 도, 구 · 시 · 군별 출생 · 사망통계결과를 수록	2007. 10	연간	8,000원
· 2006년 인구동태통계연보 (혼인 · 이혼편)	국민이 제출한 혼인 · 이혼신고서를 집계하여 전국 및 시 · 도, 구 · 시 · 군별 혼인 · 이혼통계결과를 수록	2007. 4	연간	7,000원
· 2007년 인구이동통계연보 (주민등록에 의한 집계)	총이동 및 시도간 · 시도내 인구이동, 전입, 전출지별 인구이동 등을 월별로 수록	2008. 4	연간	9,000원



간행물명	주요 수록 내용	발간시기	주기	가격
· 200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결과) 제1권 인구편	2005년 11월 1일 0시 현재 대한민국 영토중 행정권이 미치는 전지역의 인구에 대한 조사 결과를 광범위하게 수록	2006. 12	5년	20,000원
· 200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결과) 제2권 가구편	2005년 11월 1일 0시 현재 대한민국 영토중 행정권이 미치는 전지역의 가구에 대한 조사 결과를 광범위하게 수록	2006. 12	5년	16,000원
· 200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결과) 제3권 주택편	2005년 11월 1일 0시 현재 대한민국 영토중 행정권이 미치는 전지역의 주택에 대한 조사 결과를 광범위하게 수록	2006. 12	5년	9,000원
· 200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결과) 제4권 시·도편 16-1 서울특별시	2005년 11월 1일 0시 현재 대한민국 영토중 행정권이 미치는 서울지역의 인구, 가구, 주택에 대한 조사 결과를 광범위하게 수록	2006. 12	5년	16,000원
· 200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결과) 제4권 시·도편 16-2 부산광역시	2005년 11월 1일 0시 현재 대한민국 영토중 행정권이 미치는 부산지역의 인구, 가구, 주택에 대한 조사 결과를 광범위하게 수록	2006. 12	5년	15,000원
· 200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결과) 제4권 시·도편 16-3 대구광역시	2005년 11월 1일 0시 현재 대한민국 영토중 행정권이 미치는 대구지역의 인구, 가구, 주택에 대한 조사 결과를 광범위하게 수록	2006. 12	5년	11,000원
· 200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결과) 제4권 시·도편 16-4 인천광역시	2005년 11월 1일 0시 현재 대한민국 영토중 행정권이 미치는 인천지역의 인구, 가구, 주택에 대한 조사 결과를 광범위하게 수록	2006. 12	5년	12,000원
· 200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결과) 제4권 시·도편 16-5 광주광역시	2005년 11월 1일 0시 현재 대한민국 영토중 행정권이 미치는 광주지역의 인구, 가구, 주택에 대한 조사 결과를 광범위하게 수록	2006. 12	5년	7,000원
· 200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결과) 제4권 시·도편 16-6 대전광역시	2005년 11월 1일 0시 현재 대한민국 영토중 행정권이 미치는 대전지역의 인구, 가구, 주택에 대한 조사 결과를 광범위하게 수록	2006. 12	5년	7,000원
· 200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결과) 제4권 시·도편 16-7 울산광역시	2005년 11월 1일 0시 현재 대한민국 영토중 행정권이 미치는 울산지역의 인구, 가구, 주택에 대한 조사 결과를 광범위하게 수록	2006. 12	5년	10,000원
· 200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결과) 제4권 시·도편 16-8 경기도(2권)	2005년 11월 1일 0시 현재 대한민국 영토중 행정권이 미치는 경기지역의 인구에 대한 조사 결과를 광범위하게 수록	2006. 12	5년	28,000원
· 200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결과) 제4권 시·도편 16-9 강원도	2005년 11월 1일 0시 현재 대한민국 영토중 행정권이 미치는 강원지역의 인구, 가구, 주택에 대한 조사 결과를 광범위하게 수록	2006. 12	5년	16,000원

간행물명	주요 수록 내용	발간시기	주기	가격
· 200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결과) 제4권 시·도편 16-10 충청북도	2005년 11월 1일 0시 현재 대한민국 영토중 행정권이 미치는 충청지역의 인구, 가구, 주택에 대한 조사 결과를 광범위하게 수록	2006. 12	5년	14,000원
· 200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결과) 제4권 시·도편 16-11 충청남도	2005년 11월 1일 0시 현재 대한민국 영토중 행정권이 미치는 충남지역의 인구, 가구, 주택에 대한 조사 결과를 광범위하게 수록	2006. 12	5년	14,000원
· 200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결과) 제4권 시·도편 16-12 전라북도	2005년 11월 1일 0시 현재 대한민국 영토중 행정권이 미치는 전북지역의 인구, 가구, 주택에 대한 조사 결과를 광범위하게 수록	2006. 12	5년	15,000원
· 200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결과) 제4권 시·도편 16-13 전라남도	2005년 11월 1일 0시 현재 대한민국 영토중 행정권이 미치는 전남지역의 인구, 가구, 주택에 대한 조사 결과를 광범위하게 수록	2006. 12	5년	17,000원
· 200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결과) 제4권 시·도편 16-14 경상북도	2005년 11월 1일 0시 현재 대한민국 영토중 행정권이 미치는 경북지역의 인구, 가구, 주택에 대한 조사 결과를 광범위하게 수록	2006. 12	5년	18,000원
· 200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결과) 제4권 시·도편 16-15 경상남도	2005년 11월 1일 0시 현재 대한민국 영토중 행정권이 미치는 경남지역의 인구, 가구, 주택에 대한 조사 결과를 광범위하게 수록	2006. 12	5년	17,000원
· 200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결과) 제4권 시·도편 16-16 제주도	2005년 11월 1일 0시 현재 대한민국 영토중 행정권이 미치는 제주지역의 인구, 가구, 주택에 대한 조사 결과를 광범위하게 수록	2006. 12	5년	9,000원
· 2005 인구주택총조사 (제5권 통근·통학)	『2005 인구·주택 총조사』표본집계 결과 중 통근·통학에 관한 사항을 수록	2007. 7	5년	22,000원
· 2005 인구주택총조사 (제6권 인구이동)	『2005 인구·주택 총조사』표본집계 결과 중 인구이동에 관한 사항(현거주지 및 5년전 거주지)을 수록	2007. 7	5년	16,000원
· 2005 인구주택총조사 (제7권 경제활동 2-1 취업상태)	『2005 인구·주택 총조사』표본집계 결과 중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취업상태)을 수록	2007. 7	5년	24,000원
· 2005 인구주택총조사 (제7권 경제활동 2-2 산업·직업)	『2005 인구·주택 총조사』표본집계 결과 중 산업·직업별 경제활동상태에 관한 사항을 수록	2007. 7	5년	26,000원
· 2005 인구주택총조사 (제8권 주거 2-1 주거실태)	『2005 인구·주택 총조사』표본집계 결과 중 주거에 관한 사항(주거실태)을 수록	2007. 7	5년	22,000원
· 2005 인구주택총조사 (제8권 주거 2-2 임차료)	『2005 인구·주택 총조사』표본집계 결과 중 주거에 관한 사항(임차료)을 수록	2007. 7	5년	20,000원



간행물명	주요 수록 내용	발간시기	주기	가격
· 2005 인구주택총조사 (제9권 활동계약)	『2005 인구·주택 총조사』표본집계 결과 중 활동계약자에 관한 조사결과를 수록	2007. 7	5년	16,000원
· 2005 인구주택총조사 (제10권 고령자)	『2005 인구·주택 총조사』표본집계 결과 중 고령자에 관한 조사결과를 수록	2007. 7	5년	20,000원
· 2005 인구주택총조사 (제11권 여성·아동)	『2005 인구·주택 총조사』표본집계 결과 중 여성·아동에 관한 사항을 수록	2007. 7	5년	16,000원
· 2005 인구주택총조사 (제12권 1인 가구)	『2005 인구·주택 총조사』표본집계 결과 중 1인 가구에 관한 사항을 수록	2007. 7	5년	20,000원
· 2000 인구주택총조사 성씨 및 본관 보고서(총3권)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성씨 및 본관」항목을 집계한 결과를 수록	2003. 4	5년	84,000원
· 장래가구추계(2005-2030)	가구추계개요, 과거 가구 추이 및 패턴, 장래 가구추출 추정 결과, 장래가구추계 주요결과, 총가구수 등 수록	2007. 12	5년	12,000원
· 장래인구추계	인구추계작성개요, 기준인구, 인구변동요인분석, 추계를 위한 가정, 장래인구추계결과를 수록	2006. 12	5년	5,000원
·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005-2030)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개요, 2005~2030까지의 시도별 추계 인구, 시도별 인구성장률, 시도별 생명표 등을 수록	2007. 6	부정기	9,000원
· 2006년 전국주민등록 인구통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각 시도에서 작성된 주민등록 인구자료를 수집, 합산하여 16개 시도별, 시군구별, 읍면동 별로 자료를 수록	2007. 3	연간	6,000원
· 2007 청소년통계	인구와 가족, 교육, 노동, 보건 등 8개 부문 119개 통계표 수록	2007. 5	연간	비매품
· 200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인구와 가구, 가정생활, 사회생활과 관련된 19개부문 159개 통계표 수록	2007. 6	연간	비매품
· 2007 한국의 사회지표	인구, 가족, 소득, 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 교통, 정보통신, 환경, 복지, 문화, 여가, 안전, 사회참여 등 13개 부문 489개 국내지표를 수록	2007. 12	연간	14,000원
· 한국의 인구 1, 2	한국의 인구자료, 인구변천, 인구성장의 구성요소, 인구구조 및 분포, 인구정책 등 인구와 관련된 주요 주제들이 수록	2002. 12	부정기	35,000원
· 한국의 주택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주거와 주택문제의 실상과 그 변화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집필된 책으로 가구, 주택, 주거부문 등 수록	2002. 12	부정기	13,000원
· The Population of Korea	지난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까지 75년동안의 우리나라 인구, 가구, 주택상황에 대해 기술한 연구분석서	2004. 3	부정기	17,000원
· 2006년 생명표	출생시 기대여명, 연령별 기대여명, 연령별 사망확률, 특정 사인에 의한 사망확률 등 수록	2007.12	연간	6,000원
· 2005년 시도별 생명표	시도별 연령별 기대여명, 각세 및 5세 생명표, 사망원인 생명표 등 시도별 사망력 비교자료 수록	2007. 5	부정기	7,000원
· 인구대사전	국내의 학자 97명이 참여하여 인구학과 인구통계에 관한 이론과 전문용어를 알기쉽게 해설하고, 인구현상과 변화를 종합 논의한 우리나라 유일한 인구관련 백과사전	2006. 12	부정기	120,000원

○ 경기 · 산업

간행물명	주요 수록 내용	발간시기	주기	가격
· 건설경기통계	건설수주동향, 발주자별 · 공사종류별 국내 수주액 추이, 건설기성동향, 건축허가동향, 지역별 발주액 및 추이 등 수록	매월 10일경	월간	3,000원
· 2006년 기준 건설업통계 조사보고서	건설업 부문의 고용, 급여, 수주액, 기성액, 부가가치, 유형 고정자산 등 경영실적, 해외건설 수주액 등 수록	2007. 12	연간	9,000원
· 경기종합지수	선행 · 동행 · 후행 경기종합지수 및 구성지표	매월 10일경	월간	3,000원
· 2006 광업 · 제조업통계 조사보고서(산업편-전국)	종사자 5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부가가치 등 수록	2007. 12	연간	10,000원
· 2006 광업 · 제조업통계 조사보고서(산업편-지역)	종사자 5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부가가치 등 수록	2007. 12	연간	10,000원
· 2006 광업 · 제조업통계 조사보고서(품목편)	종사자 5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부가가치 등 수록	2007. 12	연간	10,000원
· 2006 광업 · 제조업통계 조사보고서(기업체편)	종사자 5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부가가치 등 수록	2007. 12	연간	10,000원
· 1997 국부통계조사보고서 (제1권 종합편)	유형고정자산, 재고자산을 총자산액과 순자산액으로 평가 하여 국가의 부를 파악한 자료 수록	1999. 11	10년	19,900원
· 1997 국부통계조사보고서 (제2권 정부자산편)	유형고정자산, 재고자산을 총자산액과 순자산액으로 평가 하여 국가의 부를 파악한 자료 수록	1999. 11	10년	9,400원
· 1997 국부통계조사보고서 (제3권 법인기업자산편)	유형고정자산, 재고자산을 총자산액과 순자산액으로 평가 하여 국가의 부를 파악한 자료 수록	1999. 11	10년	23,900원
· 1997 국부통계조사보고서 (제4권 개인기업자산편)	유형고정자산, 재고자산을 총자산액과 순자산액으로 평가 하여 국가의 부를 파악한 자료 수록	1999. 11	10년	17,100원
· 1997 국부통계조사보고서 (제5권 가계자산편)	유형고정자산, 재고자산을 총자산액과 순자산액으로 평가 하여 국가의 부를 파악한 자료 수록	1999. 11	10년	6,800원



간행물명	주요 수록 내용	발간시기	주기	가격
· 기계수주통계	기계수주동향, 수요자별 · 기종별 수주액 기계류 내수출하, 기계류 수입액, 설비투자 추계지표 등	매월 10일경	월간	3,000원
· 소매판매액통계	월중 업종별 판매동향 분석자료, 업종별 소매판매액지수 및 증감률 등 수록	매월 5일경	월간	3,000원
· 2006 도소매업 통계조사 보고서(1권)	도소매업, 음식 · 숙박업체, 부동산업의 지역별, 산업분류별, 조직형태별 분포, 경영구조 및 운영실태, 종사상 지위, 성별 종사자수 등 수록	2007. 12	연간	12,000원
· 2006 도소매업 통계조사 보고서(2권)	도소매업, 음식 · 숙박업체, 부동산업의 지역별, 산업분류별, 조직형태별 분포, 경영구조 및 운영실태, 종사상 지위, 성별 종사자수 등 수록	2007. 12	연간	13,000원
· 2006년 기준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보고서(전국편)	사업체의 산업분류별, 시 · 도별, 종사자규모별 등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등 수록	2007. 12	연간	11,000원
· 산업생산통계	산업생산 · 출하 · 재고지수,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지수, 주요품목의 생산, 출하, 재고량, 시 · 도별 산업생산 · 출하 · 재고지수	매월 10일경	월간	4,000원
· 2003 산업총조사보고서 (제1권 산업편-전국)	광업 및 제조업등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업종별 종사자의 직종별로 분석한 통계자료 수록	2004. 12	5년	11,000원
· 2003 산업총조사보고서 (제2권 산업편-지역)	광업 및 제조업등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업종별 종사자의 직종별로 분석한 통계자료 수록	2004. 12	5년	12,000원
· 2003 산업총조사보고서 (제3권 품목편)	광업 및 제조업등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업종별 종사자의 직종별로 분석한 통계자료 수록	2004. 12	5년	10,000원
· 2003 산업총조사보고서 (제4권 기업체편)	광업 및 제조업등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업종별 종사자의 직종별로 분석한 통계자료 수록	2004. 12	5년	9,000원
· 2006 서비스업 통계조사 보고서(제1권)	서비스업체의 지역별, 산업분류별, 조직형태별 분포, 경영구조 및 운영실태, 종사상 지위, 성별 종사자수 등 수록 -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편	2007. 12	연간	12,000원
· 2006 서비스업 통계조사 보고서(제2권)	서비스업체의 지역별, 산업분류별, 조직형태별 분포, 경영구조 및 운영실태, 종사상 지위, 성별 종사자수 등 수록 -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편	2007. 12	연간	12,000원
· 2006 서비스업 통계조사 보고서(제3권)	서비스업체의 지역별, 산업분류별, 조직형태별 분포, 경영구조 및 운영실태, 종사상 지위, 성별 종사자수 등 수록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2007. 12	연간	15,000원
· 서비스업생산지수	월중 서비스업의 업종별 동향분석자료, 서비스업생산지수(경상, 불변) 및 증감률(전년동기비) 등을 수록	매월 10일경	월간	5,000원

간행물명	주요 수록 내용	발간시기	주기	가격
· 2005 서비스업총조사 보고서 산업 전국편 I-1	서비스업 부문의 전국편 중 제 1권으로서 해당 산업의 조직형태, 종사자규모 및 월평균 휴무일수별 사업체 등에 관한 자료 수록	2007. 6	5년	25,000원
· 2005 서비스업총조사 보고서 산업 전국편 I-2	서비스업 부문의 전국편 중 제 2권으로서 해당 산업의 매출액규모, 건물연면적규모, 조직형태 및 본·지점별 사업체 등에 관한 자료 수록	2007. 6	5년	27,000원
· 2005 서비스업총조사 보고서 산업 전국편 I-3	서비스업 부문의 전국편 중 제 3권으로서 해당 산업의 건물점유형태, 종사상지위 및 정보기술 기반 등에 관한 자료 수록	2007. 6	5년	27,000원
· 2005 서비스업총조사 보고서 산업 지역편 II-1	서비스업 부문의 지역편 중 제 1권으로서 시·도, 시·군·구 및 조직형태별 사업체수,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수록	2007. 6	5년	25,000원
· 2005 서비스업총조사 보고서 산업 지역편 II-2	서비스업 부문의 지역편 중 제 2권으로서 시·도, 시·군·구, 종사자규모, 종사자지위 및 매출액규모별 사업체수,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수록	2007. 6	5년	24,000원
· 2005 서비스업총조사 보고서 산업 지역편 II-3	서비스업 부문의 지역편 중 제 3권으로서 시·도, 시·군·구, 건물연면적규모, 조직형태, 정보기술 기반 등에 관한 자료 수록	2007. 6	5년	27,000원
· 2005 서비스업총조사 보고서 산업 특성편	서비스업 부문의 특성편으로서 상품매입처(판매처)별 구성비, 객실(석)수, 체인점 가입여부 및 매장면적 등에 관한 자료 수록	2007. 6	5년	15,000원
· 2005 서비스업총조사 보고서 기업체편	서비스업 부문의 기업체편으로서 자본금규모 및 회사법인 유형별 기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실적, 유·무형자산 등에 관한 자료 수록	2007. 6	5년	23,000원
· 2006 운수업통계조사 보고서	육상, 수상, 항공운송업, 여행·운송관련서비스업, 주차장 운영업 등의 사업체수, 고용, 급여, 비용, 부가가치, 유형 고정자산 등에 관한 자료 수록	2007. 10	연간	10,000원
· 2005년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 및 지출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규모, 경제성장률, 생산구조, 경제활동별 지역내 총생산 등 수록	2007. 6	연간	8,000원
· 2006 전자상거래통계조사 보고서	가계(B2C), 기업(B2B), 정부(B2G) 등 각 경제주체간의 전자상거래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월별 사이버 쇼핑물조사 결과, 분기별 전자상거래기업체통계조사 및 기업·정부간 통계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수록	2007. 8	연간	9,000원



○ 농림 · 어업

간행물명	주요 수록 내용	발간시기	주기	가격
· 2007 농가경제통계	농가소득, 농업총수입, 농업경영비, 농업수지, 겸업수지, 가계지출, 농가자산 및 부채 등 수록	2008. 4	연간	13,000원
· 2007 농산물생산비통계	10a당 생산비, 가마당 생산비, 10a당 주요투입물량, 조수입 소득, 순이익, 경영비 등을 수록	2008. 3	연간	비매품
· 2006 농 · 어업법인사업체 통계조사보고서	농업법인과 어업법인별로 사업체수, 출자자수 및 출자금, 종사자수, 경영실적 등을 수록	2007. 10	연간	비매품
· 2006년도 농업기본통계 조사보고서	농업의 기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가인구, 농업경영 규모 및 농업형태 등을 수록	2007. 4	연간	비매품
· 2005 농업총조사보고서 (전국편 2-1 농가)	우리나라의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가구원 및 농업경영구조 등을 파악하는 농업부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사로서 전국자료에 대한 최종결과를 수록	2006.12	5년	16,000원
· 2005 농업총조사보고서 (전국편 2-2 농가인구,작물,가축)	우리나라의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가구원 및 농업경영구조 등을 파악하는 농업부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사로서 전국자료에 대한 최종결과를 수록	2006.12	5년	12,000원
· 2005 농업총조사보고서 (1.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우리나라의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가구원 및 농업경영구조 등을 파악하는 농업부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사로서 서울, 인천, 광주, 대전에 대한 최종결과를 수록	2007. 3	5년	29,000원
· 2005 농업총조사보고서 (2.부산, 대구, 울산, 제주도)	우리나라의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가구원 및 농업경영구조 등을 파악하는 농업부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사로서 부산, 대구, 울산, 제주도에 대한 최종결과를 수록	2007. 3	5년	27,000원
· 2005 농업총조사보고서 (3.경기)	우리나라의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가구원 및 농업경영구조 등을 파악하는 농업부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사로서 경기도에 대한 최종결과를 수록	2007. 3	5년	20,000원
· 2005 농업총조사보고서 (4.강원)	우리나라의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가구원 및 농업경영구조 등을 파악하는 농업부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사로서 강원도에 대한 최종결과를 수록	2007. 3	5년	21,000원
· 2005 농업총조사보고서 (5.충북)	우리나라의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가구원 및 농업경영구조 등을 파악하는 농업부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사로서 충청북도 자료에 대한 최종결과를 수록	2007. 3	5년	19,000원
· 2005 농업총조사보고서 (6.충남)	우리나라의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가구원 및 농업경영구조 등을 파악하는 농업부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사로서 충청남도 자료에 대한 최종결과를 수록	2007. 3	5년	20,000원

간행물명	주요 수록 내용	발간시기	주기	가격
· 2005 농업총조사보고서 (7. 전북)	우리나라의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가구원 및 농업경영구조 등을 파악하는 농업부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사로서 전라북도 자료에 대한 최종결과를 수록	2007. 3	5년	21,000원
· 2005 농업총조사보고서 (8. 전남)	우리나라의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가구원 및 농업경영구조 등을 파악하는 농업부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사로서 전라남도 자료에 대한 최종결과를 수록	2007. 3	5년	24,000원
· 2005 농업총조사보고서 (9. 경북)	우리나라의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가구원 및 농업경영구조 등을 파악하는 농업부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사로서 경상북도 자료에 대한 최종결과를 수록	2007. 3	5년	25,000원
· 2005 농업총조사보고서 (10. 경남)	우리나라의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가구원 및 농업경영구조 등을 파악하는 농업부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사로서 경상남도 자료에 대한 최종결과를 수록	2007. 3	5년	23,000원
· 2006 양곡년도 양곡소비량 조사보고서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 1인1일당 양곡 소비량 등 수록	2007. 2	연간	비매품
· 2006년 어업기본통계 조사보고서	어가수, 어가인구, 어업종사가구원 및 정보화현황 등에 관한 자료 수록	2007. 4	연간	비매품
· 2007년 어가경제통계	어가소득, 어업총수입, 어업경영비, 가계지출, 어가자산 및 부채, 어업노동 투입량 등 수록	2008. 4	연간	비매품
· 2005 임업총조사보고서 (전국편)	우리나라의 모든 임가를 대상으로 가구원 및 임업경영구조 등을 파악하는 임업부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사로서 전국자료에 대한 최종결과를 수록	2006.12	5년	15,000원
· 2005 임업총조사보고서 (1. 특 · 광역시)	우리나라의 모든 임가를 대상으로 가구원 및 임업경영구조 등을 파악하는 임업부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사로서 특별시, 광역시에 대한 최종결과를 수록	2007. 3	5년	22,000원
· 2005 임업총조사보고서 (2. 경기, 강원)	우리나라의 모든 임가를 대상으로 가구원 및 임업경영구조 등을 파악하는 임업부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사로서 경기, 강원에 대한 최종결과를 수록	2007. 3	5년	29,000원
· 2005 임업총조사보고서 (3. 충북, 충남)	우리나라의 모든 임가를 대상으로 가구원 및 임업경영구조 등을 파악하는 임업부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사로서 충북, 충남에 대한 최종결과를 수록	2007. 3	5년	24,000원
· 2005 임업총조사보고서 (4. 전북, 전남, 제주)	우리나라의 모든 임가를 대상으로 가구원 및 임업경영구조 등을 파악하는 임업부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사로서 전북, 전남, 제주에 대한 최종결과를 수록	2007. 3	5년	28,000원



간행물명	주요 수록 내용	발간시기	주기	가격
· 2005 임업총조사보고서 (5. 경남, 경북)	우리나라의 모든 임가를 대상으로 가구원 및 임업경영구조 등을 파악하는 임업부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사로서 경남, 경북에 대한 최종결과를 수록	2007. 3	5년	29,000원
· 2005 어업총조사보고서 (전국편, 해수면어업)	우리나라의 모든 어가를 대상으로 가구원 및 어업경영구조 등을 파악하는 어업부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사로서 해수면 어업 자료에 대한 최종결과를 수록	2006. 12	5년	14,000원
· 2005 어업총조사보고서 (전국편, 내수면어업)	우리나라의 모든 어가를 대상으로 가구원 및 어업경영구조 등을 파악하는 어업부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사로서 내수면 어업 자료에 대한 최종결과를 수록	2006. 12	5년	비매품
· 2005 어업총조사보고서 (1.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우리나라의 모든 어가를 대상으로 가구원 및 어업경영구조 등을 파악하는 어업부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사로서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에 대한 최종결과를 수록	2007. 3	5년	23,000원
· 2005 어업총조사보고서 (2. 충남, 전북, 전남)	우리나라의 모든 어가를 대상으로 가구원 및 어업경영구조 등을 파악하는 어업부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사로서 충남, 전북, 전남에 대한 최종결과를 수록	2007. 3	5년	29,000원
· 2005 어업총조사보고서 (3. 경북, 경남, 제주)	우리나라의 모든 어가를 대상으로 가구원 및 어업경영구조 등을 파악하는 어업부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사로서 경북, 경남, 제주에 대한 최종결과를 수록	2007. 3	5년	26,000원
·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편)	우리나라의 읍·면 지역, 행정 리를 대상으로 한 지역조사 결과를 수록	2007. 3	5년	22,000원

○ 가계 · 물가

간행물명	주요 수록 내용	발간시기	주기	가격
· 2006 가계자산조사 보고서	가구별 저축 · 부채,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보유실태 조사 결과 수록	2007. 3	5년	5,000원
· 2006 가계조사연보	가계 지출, 근로자가구의 소득 및 지출, 가구 특성별 소득 및 지출을 연도별, 분기별로 수록	2007. 6	연간	8,000원
· 2007 사교육비실태조사 보고서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 밖에서 받는 학원이나 과외 등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수록	2008. 3	연간	5,000원
· 2007 물가연보	전도시 및 시·도별 소비자물가지수, 489개 품목에 대한 소비자 가격지수 등을 연도별, 월별로 종합	2008. 5	연간	12,000원
· 소비자물가	월중 소비자 물가동향, 전 도시 및 서울을 비롯한 16개 시·도별 소비자 물가지수 등 수록	매월 10일경	월간	3,000원
· 소비자물가조사 가격월보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38개 도시의 품목별 가격자료를 월평균으로 작성하여 수록	매월 15일경	월간	3,000원

○ 기타

간행물명	주요 수록 내용	발간시기	주기	가격
· 한국통계조사현황 2006 (I, II, III권)	153개 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673종의 통계를 부문별로 분류하여 작성기관, 작성연혁, 조사(작성)목적, 조사(작성)대상, 조사(작성)주기 및 기간, 조사(작성)사항, 표본설계, 조사(작성)방법 및 체계, 결과공표, 이용상의 유의점, 주요 용어 등의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	2006. 11	격년	비매품
· 한국표준무역분류 2005	상품의 수출입에 관한 통계의 체계적 작성, 무역통계의 국제 비교성 증진 등을 위하여 무역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원재료, 중간제품, 완제품에 따라 체계화한 분류	2004.12	부정기	비매품
· 한국표준산업분류 2008	UN이 권고하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국내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분류	2008. 2	부정기	19,000원
· 한국표준직업분류 2007	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ISCO-08)를 기초로 국내 직업구조를 반영하여 새로 분류한 한국표준직업분류 6차 개정안을 알기 쉽게 풀어 쓴 해설서임	2007. 12	부정기	14,000원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1권 분류표) 2007	WHO에서 1998~2005까지 업데이트한 제10차 개정 국제질병분류를 기초로 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을 반영하여 개정한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수록	2007. 12	부정기	비매품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2권 지침서) 2007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사용 지침서로서 분류표 사용법, 분류번호 부여준칙, 사인해석에 관한 주의사항 등 실무지침을 수록	2007. 12	부정기	비매품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3권 색인) 2007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각 분류항목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한 색인집으로써 질병 및 손상의 성질, 손상의 외인, 약물 및 화학물질표로 편집되어 있음	2007. 12	부정기	비매품



II. CD-ROM

○ 간행물 CD

CD-ROM 명	주요 수록 내용	제작연월	수록형태	가격
· 1997 국부통계	1997년 기준 정부, 기업, 민간비영리단체, 가계 대상 국부통계조사 결과 수록	2000. 3	간행물 판	21,000원
· 2005 농림어업총조사	전국의 농·어가, 임가 및 인구의 규모와 분포, 농·어업, 임업 경영구조 및 특성 등을 수록	2007. 4	DB 형태	31,000원
· 2005 서비스업총조사	2005년 기준 전국 서비스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업총조사 결과를 수록	2007. 6	간행물 판	25,000원
· 2003 산업총조사보고서	2003년 기준 종사자 1인 이상의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사업체 산업총조사 결과를 수록	2005. 3	간행물 판	21,000원
· 200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2005년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수록(인구, 가구, 주택, 시도편(서울~제주))	2006.12	간행물 판	45,000원
· 200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2005년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결과보고서를 수록 (통근통학, 인구가동, 경제활동, 여성가동, 주거, 활동 제약, 고령자, 1인가구 등)	2007. 7	간행물 판	45,000원

○ 마이크로데이터 CD

CD-ROM 명	주요 수록 내용	제작연월	수록형태	가격
· 2006 가계자산조사	2006 가계자산조사의 원시자료로서 인적사항, 금융자산, 부동산, 기타자산, 연간소득 등을 수록	2007. 5	원자료	27,000원
· 2006 가계조사	가계조사의 연간 원시자료로서 가계지출, 근로자가구의 소득 및 지출, 가구특성별 소득 및 지출 등을 수록	2007. 6	원자료	792,000원
· 2006 광공업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의 연간 원시자료로서 종사자 5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부가가치 등 관련자료 수록	2008. 2	원자료	217,000원
· 2006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간 원시자료로서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상태, 직업·산업·교육정도·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성별·교육정도·연령계층별 실업자 등을 수록	2007. 6	원자료	160,000원
· 2000 농업총조사	농업총조사의 원자료로서 행정구역별, 농가구분별, 경영주 및 가구원사항별 등의 자료 수록	2006.07	원자료	1,548,000원
· 2001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의 원자료로서 행정구역별, 산업세세분류별, 조직형태별, 사업체구분별, 종사자수별 등의 자료 수록	2006.07	원자료	773,000원

CD-ROM 명	주요 수록 내용	제작연월	수록형태	가격
· 2004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통계의 연간 원자료로서 행정구역별, 산업소분류별, 조직형태별, 연간영업개월수별, 평균영업시간별 자료 등을 수록	2006.07	원자료	66,000원
· 2006 사망원인통계	사망원인통계의 연간 원자료로서 성별 · 연령별 · 지역별 · 사망원인별 사망자, 사인별 사망률, 주요 사인에 의한 사망자 국제비교 등 수록	2007.12	원자료	35,000원
· 2006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연간 원자료로서 사업체의 산업분류별, 시 · 도별, 종사자규모별 등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등 수록	2008. 2	원자료	550,000원
· 2005 사회통계조사 (복지,안전,환경)	사회통계조사의 연간 원자료로서 복지, 안전, 환경 등의 자료 수록	2006. 3	원자료	45,000원
· 2007 사회통계조사 (보건,가족,사회참여,노동)	사회통계조사의 연간 원자료로서 보건, 가족, 사회 참여, 노동 등의 자료 수록	2008. 1	원자료	51,000원
· 2003 산업총조사	산업총조사의 원자료로서 광업 및 제조업등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업종별 종사자의 직종별로 분석한 통계자료 수록	2005. 3	원자료	125,000원
· 2004 생활시간조사	생활시간조사의 원자료로서 하루의 시간 사용량과 시간간격별 행위자 비율을 분석하여 수록	2005. 9	원자료	145,000원
· 2006 인구동태통계조사	인구동태통계신고의 연간 원자료로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관련자료 수록	2008. 2	원자료	100,000원
· 2000 인구가동통계	인구가동통계의 연간 원자료로서 총이동 및 시도간 · 시도내 인구가동, 전입, 전출지별 인구가동 등 관련 자료 수록	2001. 6	원자료	245,000원
· 200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2000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중 2%를 표본 추출한 것으로서 관련자료 수록	2002. 8	원자료	125,000원
· 2005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A형	2005 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 표본자료로서 시도단위별 지역자료와 전국자료의 추정을 위한 가중값을 수록	2007. 6	원자료	150,000원
· 2005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B형	2005 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 표본자료로서 시군구별 지역자료이며, 가중값은 미수록	2007. 6	원자료	150,000원
· 2005 인구주택총조사 (5% 표본)	2005 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5% 표본자료로서 시군구별 지역자료이며, 전국자료 추정을 위한 가중값이 제공됨	2007. 10	원자료	919,000원
· 2006 인력실태조사	2006 인력실태조사의 원자료로서 인적사항, 연간 취업상태, 직장이동횟수, 고용형태, 산업, 직업, 월평균 소득, 연간 취업기간, 비구직시 주요활동 등 자료 수록	2007. 5	원자료	43,500원



III. 디지털간행물

◆ 이용안내

-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이나 KOSIS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 접속한 뒤 '디지털간행물'메뉴 이용

◆ 통계간행물 (단원별 엑셀이나 한글, PDF 파일 제공)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가계조사연보 • 건설경기통계 • 경기종합지수 • 경제활동인구연보 • 경제활동인구월보 • 고령자통계 •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 국제인구이동통계 • 기계수주통계월보 • 농가경제통계 • 사망원인통계연보(2006) • 사업체기초통계조사결과 •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산업생산통계월보 • 생명표 • 생활시간조사보고서(2004) • 서비스업생산지수-월보 • 소매판매액통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물가월보(2005=100) • 소비자물가조사 가격월보 • 시도별 사망원인통계(2005) • 시도별 생명표(2005년) •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 월간국제통계(4월) • 인구동태(출생.사망) • 인구동태(혼인.이혼) • 인구이동통계 • 장래가구추계 • 전국장래인구추계 • 전자상거래통계조사보고서 • 주민등록인구 및 외국인등록인구 • 주요경제지표 • 지역경제동향 •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 청소년 통계 • 한국의 사회지표 • 한국통계월보(4월) |
|--|--|

◆ 전자책 (eBook)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plore Korea through Statistics • 남북한 경제사회상비교 • 산업생산연보 • 선생님, 짝꿍 좀 바꿔주세요 • 재미있고 신기한 통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를 알면 똑똑해진다 • 통계속의 재미있는 세상이야기 • 한국통계연감 • 기타 간행물 (살아있는 통계 변화하는 통계청의 5권) |
|---|---|

책 발간에 참여한 사람들

		성 명	소 속
집 필	I. 자연환경		
	제 1 장 국토·기후	이내성	통계개발원
	II. 농림어가의 인구와 가족		
	제 2 장 농림어가의 인구	김태현	한국교원대학교
	제 3 장 농림어가의 가족	김홍주	원광대학교
	III.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		
	제 4 장 한국경제와 농림어업	김철규	고려대학교
	제 5 장 농촌사회의 변화와 분화	"	"
	IV. 농업		
	제 6 장 농업구조의 개념과 농가 변화	박민선	농협대학교
	제 7 장 농가의 농지소유와 이용의 변화	"	"
	제 8 장 농업경영	"	"
	제 9 장 농업의 기계화·위탁실태	"	"
	제10장 농업생산의 조직화와 농산물 판매	"	"
	제11장 세계속의 한국농업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V. 임업		
	제12장 임업구조의 개념	김세빈	충남대학교
	제13장 임업경영	"	"
	제14장 임산물 생산 및 판매	"	"
	제15장 임가 및 산촌사회	"	"
제16장 세계속의 한국 임업	김철상	국립산림과학원	
VI. 어업			
제17장 어업구조의 개념과 분류	김 준	전남발전연구원	
제18장 어업경영	"	"	
제19장 어업의 변화	"	"	
제20장 세계속의 한국 어업	홍현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편 집		김태현	한국교원대학교
구성·편집		이내성	통계개발원 사회통계실
		심수진	"